

아시아인의 가치 보고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Social Value Survey in Asian Cities)

허정원, 심우진, 두베아비세카, 박성진 **지음**

아시아인의 가치 보고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Social Value Survey in Asian Cities)

초판 1쇄 발행 | 2026년 1월 31일

저 자 | 허정원, 심우진, 두베아비세카, 박성진

발행인 | 김영진

발행처 | 진인진

등 록 | 제25100-2005-000003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818호

전 화 | 02-507-3077-8

팩 스 | 02-507-3079

홈페이지 | <http://www.zininzin.co.kr>

이메일 | pub@zininzin.co.kr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6

ISBN 978-89-6347-690-2 95300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어 비매품으로 배포되며, 저작권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복제·배포·전송 등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20S1A6A3A020)



머리말

이 책은 서울을 ‘기준점’으로 삼아 아시아를 재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온 사회적 상식과 가치 판단을 비교의 장(場) 위에 올려놓고 다시 묻기 위한 작업이다. 경험은 분명 구체적이고 강력하지만, 그 경험이 곧 보편적 규범이 되는 순간 온전한 이해는 멈춘다. 우리는 서울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창이 되는 동시에, 아시아가 서울을 낯설게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를 알고 아시아를 이해한다”는 이 프로젝트의 문장은 결국 비교가 타자를 설명하는 기술을 넘어, 자기이해의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도시’인가

아시아의 변화는 종종 국가 단위의 서사로 설명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밀도는 대도시에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응축된다. 인구 이동, 주거와 노동의 재편, 교육과 계층 경쟁, 디지털 미디어가 확장한 연결망, 가족과 친밀성의 규범 변화는 도시에서 일상으로 체감된다. 도시는 제도가 구현되는 현장이자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이며, 서로 다른 계층·세대·젠더·이주 경험이 교차하는 ‘가치의 실험실’이다. 따라서 대도시 비교는 국가 평균이 가리기 쉬운 이질성을 드러내고,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과 동시대성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대도시를 단위로 삼는다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묶여 설명되기 쉬운 차이를 더 가까이에서 해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나라 안에서조차 대도시의 경제 구조, 노동시장, 주거 체제, 교육 경쟁, 미디어 환경, 이주와 다양성의 경험이 집약된 공간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주민들의 가치 판단과 삶의 감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도시 비교는 이러한 배경을 함께 놓고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시아’라는 광범위한 범주를 단순한 문화권이나 고정된 이미지로 환원하는 위험을 줄이고, 변화의 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왜 ‘가치’인가

가치(values)는 단지 개인의 취향이나 추상적 신념이 아니다.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가족·국가·시장·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과 공동체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은 사회 갈등과 정책 선택의 준거로 작동한다. 특히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불평등의 심화, 삶의 불안정성, 저출생과 돌봄 위기, 이주와 다문화적 접촉의 증가, 세대 간 정치적 균열은 ‘가치’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가치 조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사회가 어떤 규범과 정서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비교의 자료가 된다.

가치는 또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을 정당하다고 여기는가’로 확장된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어떤 사회는 개인의 책임과 성취를 강조하고, 다른 사회는 구조적 조건과 집단적 보호를 더 중시할 수 있다. 어떤 사회는 질서와 전통을 먼저 말하고, 어떤 사회는 자유와 권리를 더 앞세울 수 있다. 이 책이 다루는 ‘가치’는 바로 그러한 차이를 포착하는 렌즈이며, 동시에 그 차이를 지나치게 단정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비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 사업단 데이터 스토리텔링 클러스터가 수행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단일 지표나 단정적 결론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독자가 스스로 비교의 경로를 따라가며 각 도시의 가치 지형을 읽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차트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다. 여기서 차트는 ‘결론’이 아니라 서울을 이루는 ‘문장’이다. 각 차트는 질문을 만들고,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토론을 촉발하는 시작점이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담고 있는 차이의 구조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작업이며, 이 책은 그 번역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숫자’가 언제나 설득력을 갖는다는 통념에 기대지 않는다. 숫자는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어떤 비교의 틀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책은 차트를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독자가 스스로 그 근거를 점검하도록 돕는 안내서를 지향한다. 즉, 이 책은 답을 제공하는 책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질문을 생성하는 책이다.

이 책이 하려는 일과 하지 않으려는 일

다만 이 책이 하려는 일과 하지 않으려는 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시를 줄 세우지 않는다. 이 책은 ‘순위’가 아니라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값의 차이를 곧바로 우열이나 선후로 환원하지 않으며, 문화적 본질주의나 고정된 도시 성격을 단정하는 서술을 경계한다. 같은 응답 분포가 도시마다 전혀 다른 제도 경험과 생활조건 속에서 형성될 수 있고, 비슷한 평균이 서로 다른 내부 분포(극단의 확대, 중간층의 축소, 양극화의 방향)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특정 질문을 어떤 언어적·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했는지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표집·응답·측정 과정에서의 한계를 갖는다. 문항의 번역과 표현, 조사 환경과 응답 습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응답 방향은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숨기지 않고, 비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이 신뢰할 만한 지도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지도를 ‘완전한 현실’로 착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방법: 다섯 가지 원칙

이 책을 읽는 방법을 몇 가지 원칙으로 제안한다.

첫째, 절대값과 상대적 위치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특정 도시의 수치가 높거나 낮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같은 문항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지, 그리고 다른 문항들과 결합할 때 어떤 가치의 묶음(클러스터)으로 나타나는지이다. 비교는 한 개의 숫자보다 숫자들의 배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균만 보지 말고 분포를 함께 보아야 한다. 평균이 비슷해도 응답이 한쪽으로 몰리는지, 중간층이 두터운지, 극단이 확대되는지에 따라 사회적 의미는 달라진다. 가능한 경우, 우리는 분포의 형태가 드러나는 차트를 함께 제시한다. 평균이 ‘중심’을 보여준다면, 분포는 그 사회가 갈등과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품고 있는지 보여준다.

셋째, 작은 차이를 과잉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응답 범주가 촘촘한 문항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측정 오차나 맥락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책은 ‘단정’이 아니라 ‘탐색’을 위한 지도임을 전제로 한다. 차트는 결론이 아니라, 후속 질문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넷째, 도시를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는 내부적으로도 계층·세대·젠더·이주 경험에 따라 다층적이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비교는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특정 지표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 내부의 다양성을 염두에 둘 때, 비교는 더 정교해지고 해석은 더 신중해진다.

다섯째, 차트는 독립적으로도 읽히지만 연결해서 읽을 때 의미가 커진다. 공정과 신뢰, 가족과 행복, 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과 약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경험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독자는 관심 주제(예: 가족·젠더, 공정·불평등, 민주주의·권위, 신뢰·공동체, 시장·복지 등)에서 출발해 관련 차트들을 따라가며 도시 간 연결과 균열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독법은 ‘한 장의 차트’가 아니라 ‘차트들의 경로’를 읽는 것이다.

다시 서울로: 비교를 통한 자기이해

이러한 읽기 방식 위에서, 우리는 다시 서울을 돌아보고자 한다. 서울은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밀도 경쟁, 교육과 노동의 압력, 주거 불안, 돌봄 부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의 여론 양극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그러나 서울이 보여주는 특정한 가치의 배열—예컨대 공정의 강조가 어떤 제도적 경험과 결합하는지, 가족 규범의 변화가 행복과 신뢰의 감각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민주주의·



법치·시장·약자 보호가 어떤 긴장 관계로 나타나는지—는 비교를 통해서만 더 선명해진다.

이 책의 목표는 서울을 설명하는 ‘단일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아시아 대도시의 데이터와 나란히 놓였을 때 서울이 어디에서 특수하고 어디에서 보편적인지, 그리고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 한국 사회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게 하는지 독자와 함께 질문하는 데 있다. 비교는 타자 이해를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기이해를 위한 도구이다. 이 책이 ‘서울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까닭은, 그 길이 결국 ‘아시아에서 서울로’ 되돌아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독자에게 남기는 질문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에게 건네는 질문을 남기고자 한다. 당신이 익숙하다고 믿었던 서울의 상식은 다른 도시의 데이터와 마주할 때 어떤 지점에서 흔들리는가. 같은 ‘공정’이라는 단어가 도시마다 다른 제도 경험과 생활조건 속에서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가. 가족, 신뢰, 민주주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갈등을 완화하는 자원인가, 아니면 분열을 심화시키는 언어인가. 이 책이 제시하는 차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최종 답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질문을 만들기 위한 비교의 기반이다. 그 질문을 더 멀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연구자·정책 담당자·교육자·시민 모두가 해석의 공동체로 참여해야 한다.

감사의 말

이 책의 출간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성실한 응답 덕분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조사에 참여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준 응답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조사의 기획 단계에서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 설문 구성에 참여해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과 임동균 교수님,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하상웅 교수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김지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조사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제비교조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신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님과 오피니언스 오승호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기획과 설계, 자료 구축과 검증, 시각화와 편집의 전 과정을 성실히 보조해 준 두베 아비세카, 박현아, 나윤영, 박성진 연구보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서 전문적 역량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심우진 박사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작업의 장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채수홍 소장님과 박수진 전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 분석결과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차트와 해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인용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교는 단지 학술적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다. 이 책이 그 기술을 확장하는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를 대표하여, 허정원 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데이터 스토리텔링 클러스터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란?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는 아시아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아시아 12개 대도시, 서구 3개 대도시 시민,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웹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대상 도시는 서울(대한민국), 도쿄(일본), 베이징(중국), 타이베이(대만), 하노이(베트남),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뉴델리(인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예루살렘(이스라엘), 앙카라(튀르키예), 뉴욕(미국), 런던(영국), 파리(프랑스)이며 각 국가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구성비로 할당하여 700명씩 조사하였다. 표집틀은 서울의 경우 한국리서치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나머지 14개국은 톨루나(toluna)보유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오차는 각 국가별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7\%p$ 이다.

본 책은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가치관과 삶의 조건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총 6개 챕터로 구성된다. 1장은 개인과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와 웰빙의 기준을 다루고, 2장은 결혼·자녀·가족을 둘러싼 태도와 규범의 변화를 살핀다. 3장은 사회적 신뢰와 갈등 인식의 구조를 비교하며, 4장은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과 분배(재분배) 선호의 긴장을 분석한다. 5장은 '평균'과 '보통'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경험되는지 검토하고, 6장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참여 양상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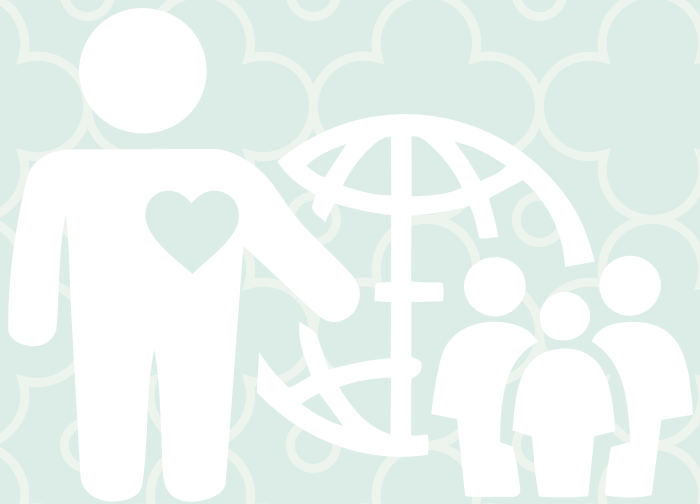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3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란?	7
CH1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웰빙	11
CH2 결혼, 자녀 그리고 가족.....	31
CH3 사회적 신뢰와 갈등 의식	95
CH4 능력주의와 분배	297
CH5 평균과 보통에 대한 인식	329
CH6 사회문제와 해결노력	341

C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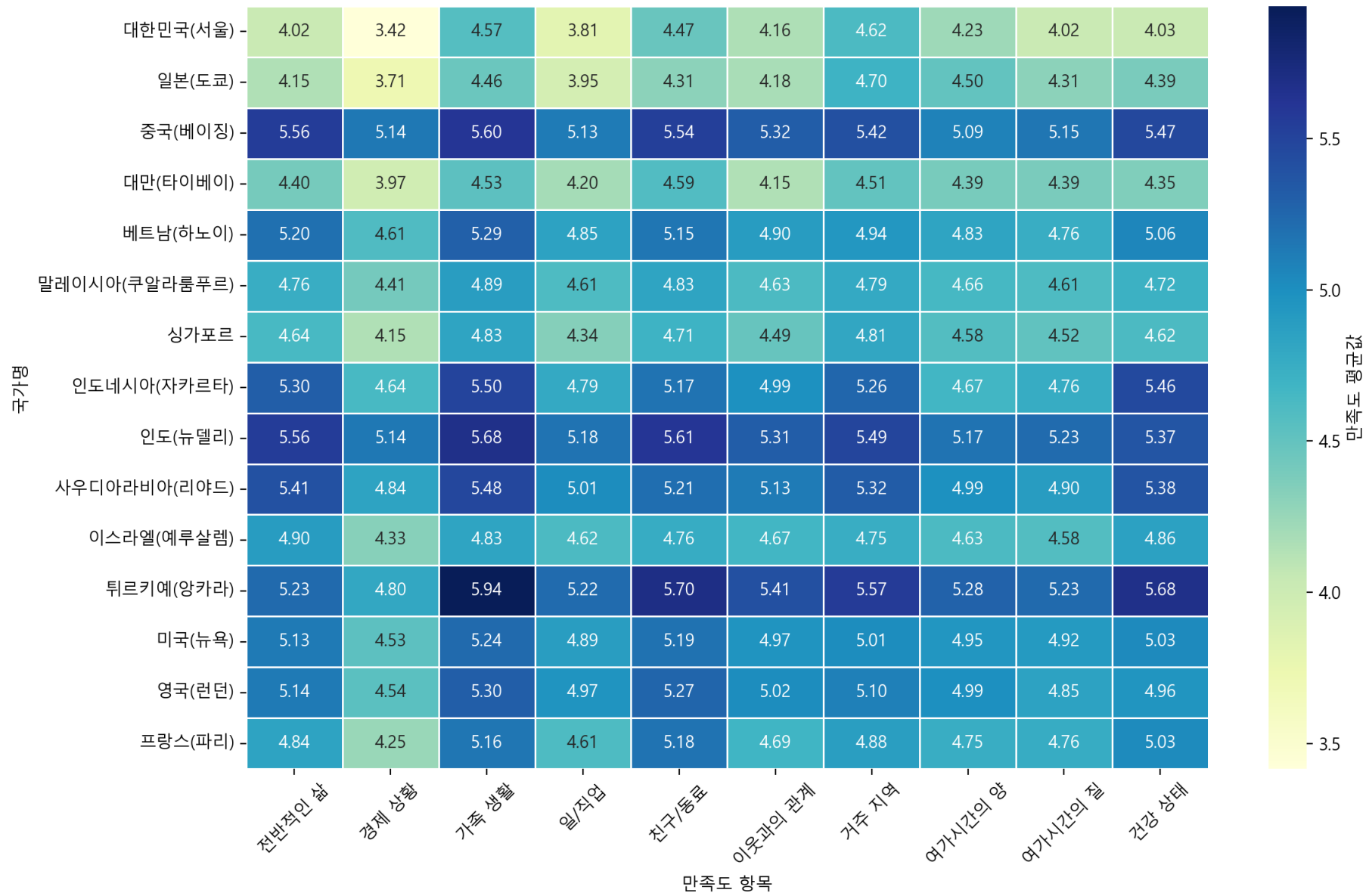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웰빙





Q1

다음에 대해 귀하는 현재 얼마나 만족한다고 느끼십니까?





다음 그림은 15개 국가(도시)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히트맵이다. 색이 짙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옅을수록 낮다. 옅은 10개 삶의 영역(전반적인 삶, 경제생활, 가족생활, 일자리, 친구/동료, 이웃관계, 거주 지역, 여가시간의 양·질, 건강상태)을, 행은 각 국가(도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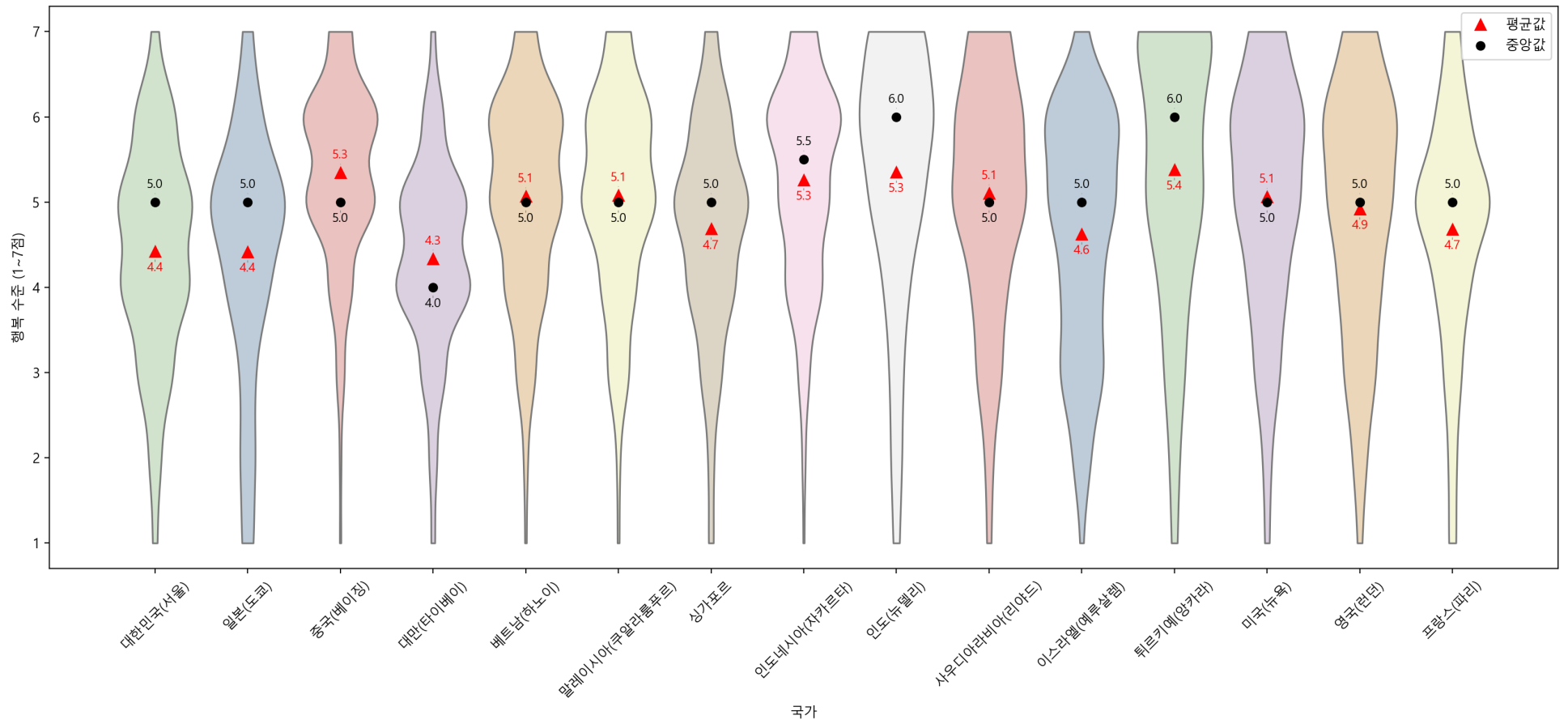
- **전반적 수준 중국(베이징)과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5점대 중후반으로 꾸준히 높고, 대한민국(서울)과 일본(도쿄)는 여러 항목이 4점대 초반~중반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영국(런던)·프랑스(파리)·미국(뉴욕)은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약 4.9~5.2)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 **영역별 특징** 대다수 도시에서 가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거나 상위권이며, 특히 튀르키예(앙카라)는 가족생활이 5.94로 표에서 최고치를 보인다. 반대로 경제생활은 많은 도시에서 취약하며, 대한민국(서울)(3.42)·일본(도쿄)(3.71)가 두드러지게 낮다.
- **사회적 관계** (친구/동료, 이웃관계)는 대체로 4.6~5.3 범위의 안정적인 중상 수준이며, 중국(베이징)·인도(뉴델리)는 5점대 중반으로 높다.
- **공간·환경 영역** (거주 지역)은 동남·남아시아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동북아 선진도시(대한민국(서울)·일본(도쿄)·대만(타이베이)·싱가포르)는 중간대이다.
- **여가**는 양·질 모두 대부분 4.7~5.2 사이로 나라 간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서유럽 도시들이 균형형, 동북아 일부 도시가 다소 낮은 패턴이다.
- **건강상태**는 도시 간 차이가 큰 편으로, 튀르키예(앙카라)가 상위권(5.68), 대한민국(서울)은 하위권(4.03)에 위치한다.

남·동남아 도시들은 다수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만족’이, 동북아의 일부 선진도시는 ‘경제·여가·건강 등에서의 상대적 저점’이 관찰된다. 각 도시 내에서도 영역 간 격차가 뚜렷하여(예: 서울의 가족생활-경제생활 간 큰 차이) 정책 개입은 취약 영역(경제·건강·여가)의 보강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민국(서울)** 가족생활은 중간 수준이나 경제생활·건강 수준이 낮아 전체 체감 만족도가 낮습니다. 여가(양·질)와 거주 지역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 **일본(도쿄)** 서울과 유사하게 경제생활이 낮고 전반적 삶·여가가 중간 이하이다. 가족·사회관계는 평균적이나 두드러진 강점은 제한적이다.
- **중국(베이징)** 거의 전 영역이 5점대 중후반으로 상위권이다. 가족·사회관계·거주지역이 특히 높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형이다.
- **대만(타이베이)** 전반·경제·여가가 중간권, 가족·사회관계는 보통이다. 눈에 띄는 고점은 낮지만 안정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 **베트남(하노이)** 다수 영역이 상위권이다. 가족·사회관계·거주지역이 강점이며 여가와 건강도 비교적 양호하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이다. 가족·거주·사회관계가 높은 수준이고, 경제·여가는 보통 수준이다.
- **싱가포르** 전 영역이 균형적인 중상위 수준이다. 경제·일자리·사회관계가 상대적으로 상위권이나 최상위 고점은 낮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전반적 삶과 가족·사회관계가 높고, 거주·여가도 양호한 ‘고르게 높은’ 분포이다.
- **인도(뉴델리)** 베이징과 함께 최상위 그룹에 들어간다. 가족·사회관계·일자리·거주 모두 높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전반·가족·사회관계가 높고 여가·건강도 상위권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비교적 균형잡힌 분포이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전반·가족·사회관계가 중상 수준이며, 여가와 거주는 보통 수준에 위치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최상위는 아니다.
- **튀르키예(앙카라)** 가족생활 최고치(5.94)와 건강이 상위권이며, 전반·사회관계도 높은 수준이다.
- **미국(뉴욕)** 전반적으로 중상위 수준이다. 가족·일자리·사회관계가 고르게 높고, 여가·건강은 평균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 **영국(런던)** 뚜렷한 저점이 없으며, 대부분 항목이 5점 내외의 균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과 유사한 균형잡힌 중상위 수준을 보여준다. 가족·전반·거주가 양호하고 여가·건강도 평균 이상이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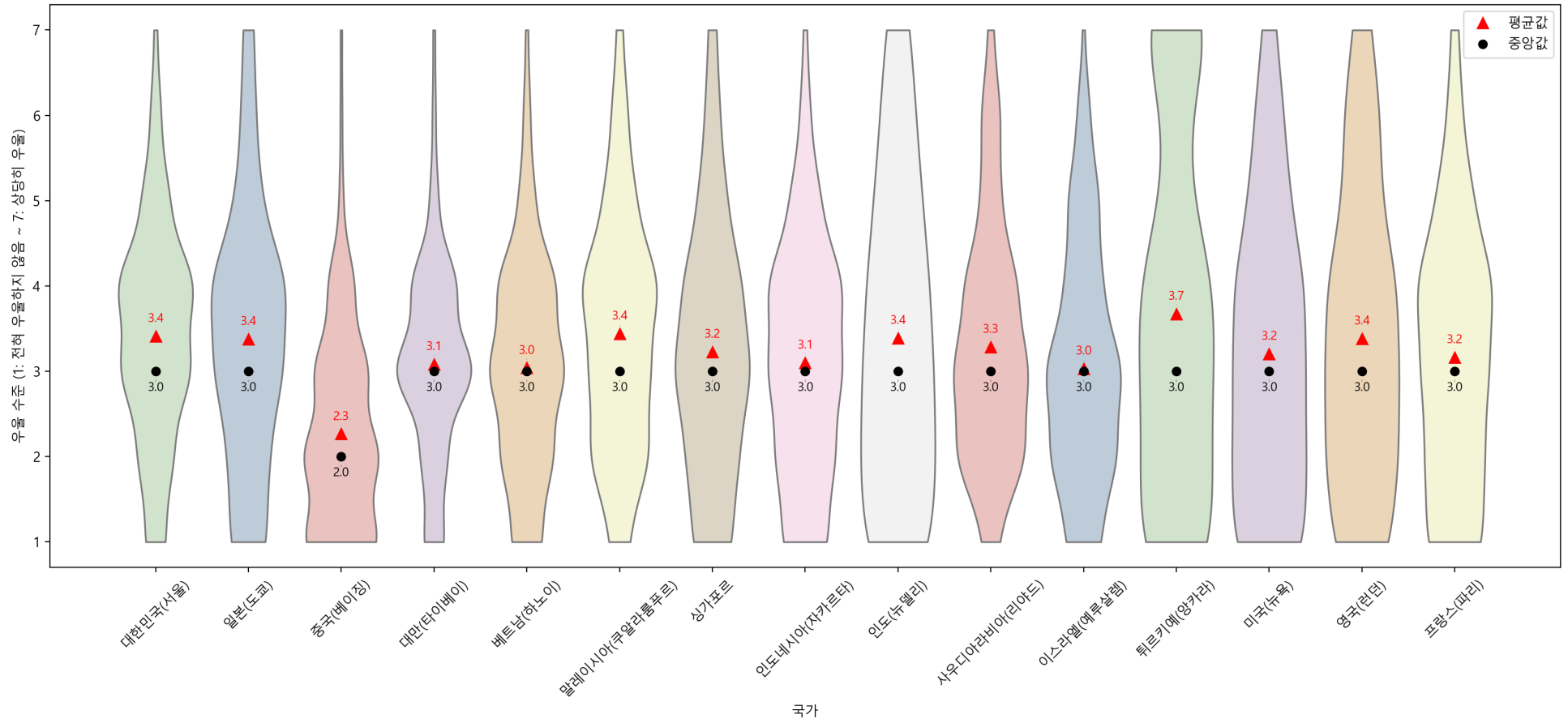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의 전일(어제) 행복 수준(1~7점)을 비교한 바이올린 플롯이다. 분포가 두꺼운운 곳일수록 응답이 많이 몰린 구간이며, 빨간 삼각형은 평균값, 검은 점은 중앙값이다. 전체적으로 다수 도시의 중앙값이 5.0에 놓여 '어제 행복했다'는 응답이 중상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도시별로 평균 수준과 분포의 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 **대한민국(서울)** 평균은 약 4.4로 중간 이하이지만 중앙값은 5.0이다. “보통 이상” 응답이 많음에도 저점 응답이 적지 않아 평균이 눌러 있고, 분포 폭이 넓어 개인 간 체감 행복의 편차가 크다.
- **일본(도쿄)** 평균 약 4.4, 중앙값 5.0으로 서울과 유사한 패턴이다. 상·하위 꼬리가 모두 존재해 체감 행복의 이질성이 드러나며, 노동시간·통근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한다.
- **중국(베이징)** 평균 5점대 중후반, 중앙값 5.0으로 안정적이다. 하위 꼬리가 짧아 “대체로 괜찮았다”는 응답이 많고, 고점 응답도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 **대만(타이베이)** 평균 약 4.3, 중앙값 4.0으로 가장 낮은 축에 위치한다. 4점대에 응답이 몰리고 저점 비중이 커 일상 행복의 체감이 낮다.
- **베트남(하노이)** 평균 약 5.1, 중앙값 5.0으로 균형적이다. 하위 꼬리가 짧고 중간 이상 구간이 두터워 비교적 안정적인 행복 수준을 보인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평균 약 5.1, 중앙값 5.0으로 중상 분포이다. 분포 중심이 5점 부근에 모여 ‘무난한 하루’ 평가가 우세하다.
- **싱가포르** 평균 약 4.7, 중앙값 5.0이다. 상위 꼬리가 존재하지만 하위 구간도 일정 비중을 차지해 ‘무난함과 피로감’이 공존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평균 5점대 중반, 중앙값 5.0~6.0 사이로 상위권이다. 중간 이상 구간이 두텁고 하위 꼬리가 짧아 전반적 체감 행복이 높다.
- **인도(뉴델리)** 중앙값 6.0, 평균도 5점대 중후반으로 ‘행복 고점’ 도시에 해당합니다. 5~6점 구간에 분포가 뚜렷이 모여 긍정 응답이 광범위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중앙값 6.0, 평균 약 5.4로 상위권이다. 하위 꼬리가 짧고 상위 구간이 두터워 긍정적 하루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평균 약 4.6, 중앙값 5.0으로 중간 수준이다. 분포가 비교적 넓어 긍정·보통·부정 응답이 고르게 존재하며 내부 이질성이 크다.
- **튀르키예(앙카라)** 평균 약 5.3, 중앙값 6.0으로 상위권이다. 상위 구간이 두터워 “행복했다”는 응답이 뚜렷하고 저점 응답은 제한적이다.
- **미국(뉴욕)** 평균 약 5.1, 중앙값 6.0으로 상위권이다. 일부 저점 응답으로 평균이 다소 낮아졌지만 전반적 긍정 분포가 우세하다.
- **영국(런던)** 평균 약 4.9, 중앙값 5.0으로 균형적인 분포를 보인다. 하위 꼬리가 길지 않아 중간 이상 응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프랑스(파리)** 평균 약 4.7, 중앙값 5.0으로 중간대이다. 분포 중심이 5점 부근에 모여 하위 응답도 일정 비중 존재해 평균이 다소 눌러 있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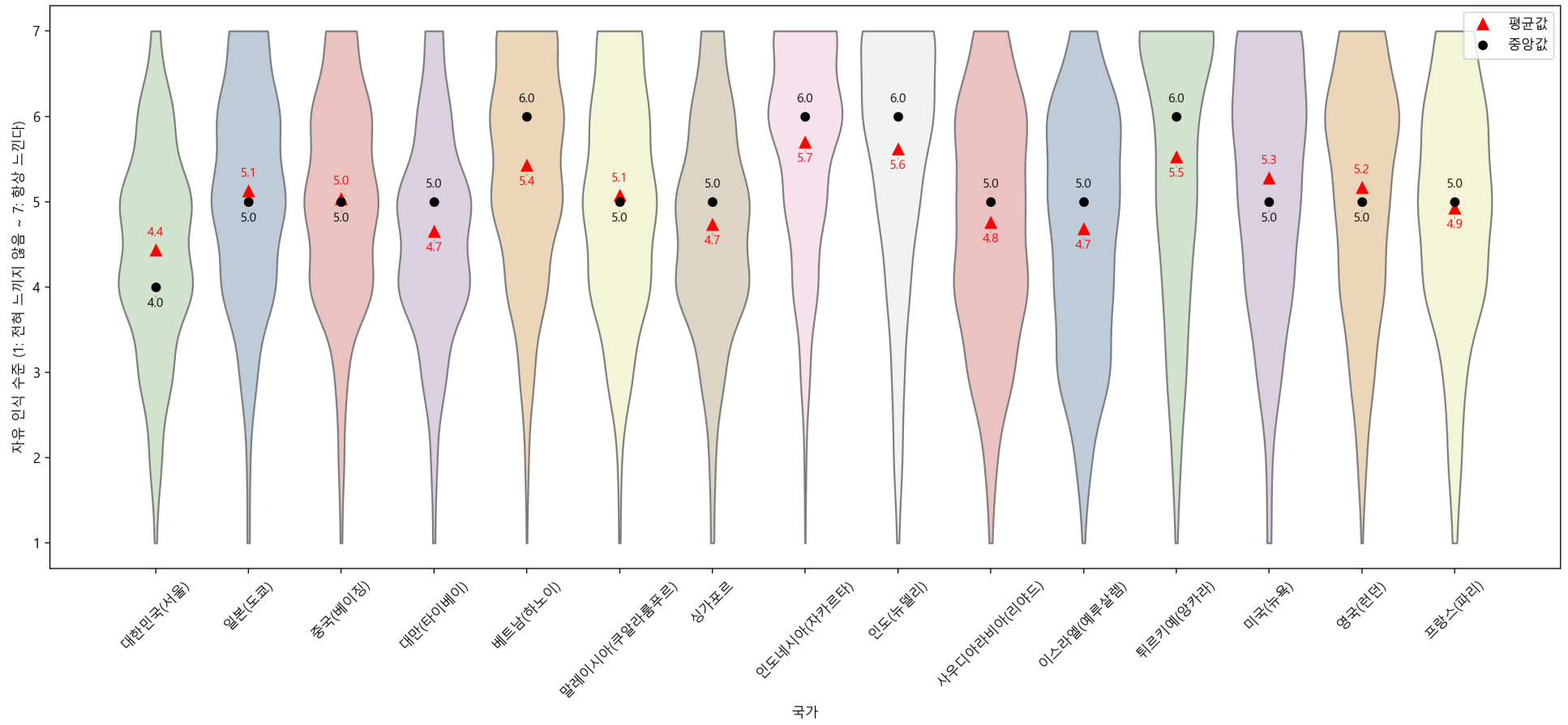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의 전일(어제) 우울 수준(1~7점)을 비교한 바이올린 플롯이다.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컸음을 의미하며, 빨간 삼각형은 평균값, 검은 점은 중앙값이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도시의 중앙값이 3.0에 위치해 '낮음~보통' 수준의 우울감이 주류를 이루며, 평균은 3.0~3.4 범위에 집중되어 도시 간 격차가 크지 않다. 다만 일부 도시는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우울감 강함) 분포가 넓어 개인 간 편차가 큰 양상을 보인다.

- **대한민국(서울)** 평균 3.4, 중앙값 3.0으로 '보통' 쪽에 응답이 몰리지만 상위 꼬리가 존재해 전반적 분포를 약간 끌어올려져 있다.
- **일본(도쿄)** 평균 3.4, 중앙값 3.0으로 서울과 유사하며, 분포가 넓어 개인별 컨디션 차가 비교적 크게 관찰된다.
- **중국(베이징)** 평균 2.3, 중앙값 2.0으로 표본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하위 구간이 두터워 전반적으로 우울감 보고 수준이 낮다.
- **대만(타이베이)** 평균 3.1, 중앙값 3.0으로 중간대 하단이며, 분포가 비교적 좁아 응답이 안정적으로 모인다.
- **베트남(하노이)** 평균 3.0, 중앙값 3.0으로 정확히 중간대에 자리하고, 상·하위 꼬리가 짧아 변동성이 작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평균 3.4, 중앙값 3.0으로 중간대 상단이며, 상위 구간의 폭이 약간 넓어 일부 집단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 **싱가포르** 평균 3.2, 중앙값 3.0으로 중간대이며,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이라 일상적 스트레스는 있으나 과도한 고점은 제한적이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평균 3.1, 중앙값 3.0으로 안정적인 중간대 하단이고, 하위 꼬리가 두터워 낮은 우울감 응답이 우세하다.
- **인도(뉴델리)** 평균 3.4, 중앙값 3.0으로 중간대 상단이며, 상위 꼬리가 다소 길어 일부 군에서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고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평균 3.3, 중앙값 3.0으로 중간대이며, 분포의 폭이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평균 3.0, 중앙값 3.0으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분포가 길게 뻗지만 극단 고점 비중은 크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평균 3.7, 중앙값 3.0으로 표본 중 평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상위 꼬리가 두터워 우울감이 강하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 **미국(뉴욕)** 평균 3.2, 중앙값 3.0으로 중간대이며, 분포가 완만해 '낮음~보통' 구간의 응답이 우세하다.
- **영국(런던)** 평균 3.4, 중앙값 3.0으로 중간대 상단이고, 상·하위 꼬리가 모두 존재해 집단 간 편차가 드러난다.
- **프랑스(파리)** 평균 3.2, 중앙값 3.0으로 중간대이며,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이어서 과도한 고·저점 응답이 제한적인 편다.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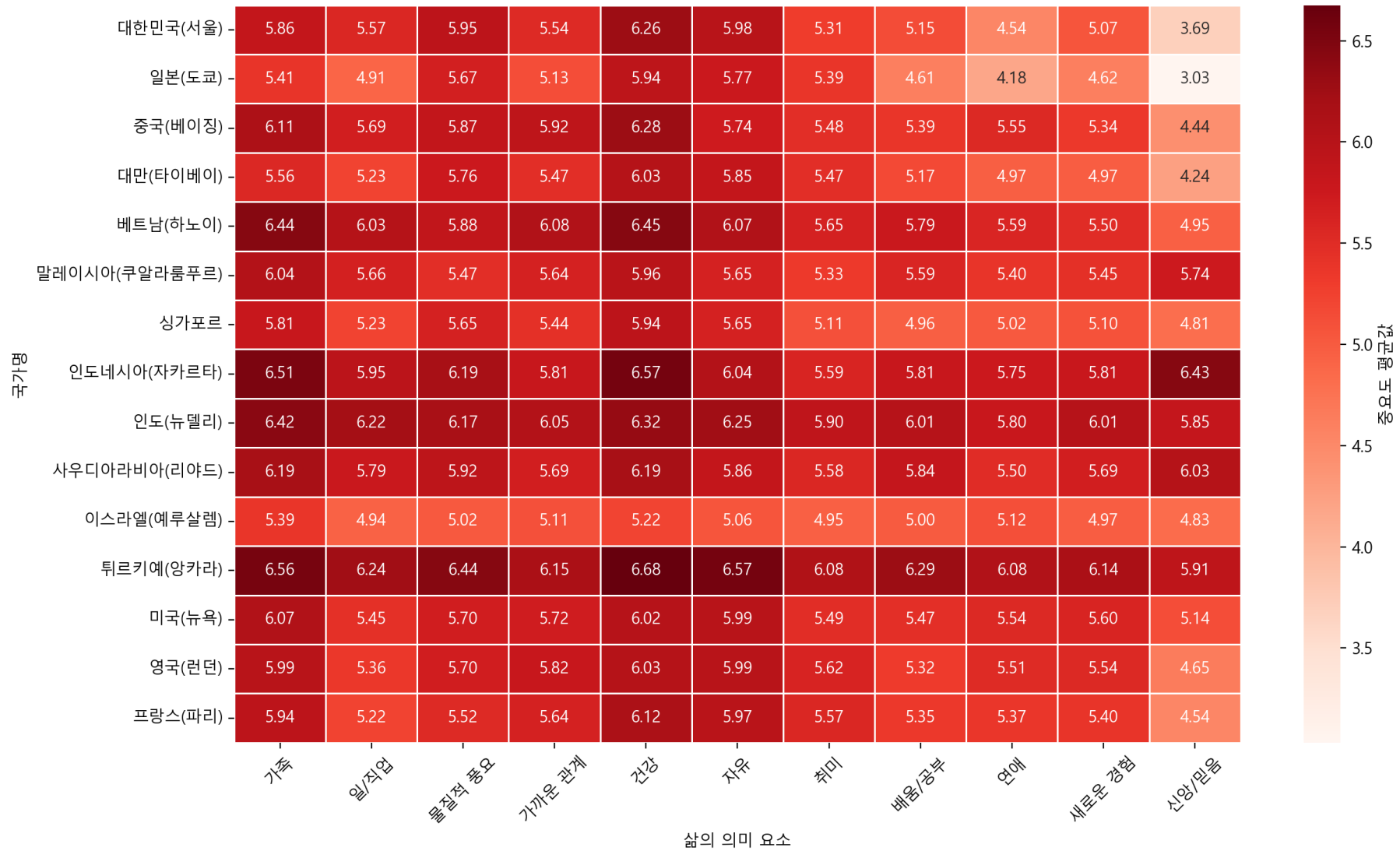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가'(1~7점)를 비교한 바이올린 플롯이다. 값이 높을수록 자기결정감·자율성의 체감이 크다는 뜻이며, 빨간 삼각형은 평균값, 검은 점은 중앙값이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의 중앙값이 5.0 또는 6.0에 놓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 인식이 관찰되며, 특히 남·남동아시아 일부 도시는 상위 구간이 두텁다. 반면 동북아 일부 도시는 평균이 낮거나 분포 폭이 넓어 개인 간 편차가 비교적 크다.

- **대한민국(서울)** 평균 4.4, 중앙값 4.0으로 표본 중 낮은 측에 속한다. 하위 구간의 응답 비중이 커 자기결정감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적지 않다.
- **일본(도쿄)** 평균 5.1, 중앙값 5.0으로 중상 수준이다. 분포가 넓어 개인별·상황별 체감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 **중국(베이징)** 평균 5.0, 중앙값 5.0으로 균형적인 중상 분포이다. 하위 꼬리가 짧아 낮은 자유 인식 응답이 많지 않다.
- **대만(타이베이)** 평균 4.7, 중앙값 5.0으로 중간대이다. 중앙 이상 구간이 두텁지만 평균은 다소 낮아 저점 응답의 영향이 일부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평균 5.4, 중앙값 6.0으로 상위권이다. 상위 구간이 두터워 일상 자율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평균 5.1, 중앙값 5.0으로 안정적 중상 분포이다. '보통 이상' 체감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 **싱가포르** 평균 4.7, 중앙값 5.0으로 중간대이다. 상·하위 꼬리가 모두 존재해 집단 간 이질성이 다소 관찰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평균 5.7, 중앙값 6.0으로 최상위권이다. 중간 이상 구간이 매우 두텁고 하위 꼬리가 짧아 높은 자율성 체감이 두드러진다.
- **인도(뉴델리)** 평균 5.6, 중앙값 6.0으로 상위권이다. 상위 구간 집중도가 높아 자유 인식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평균 4.8, 중앙값 5.0으로 중간대이다. 응답이 고르게 퍼져 있으나 저점 응답이 평균을 일부 낮추고 있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평균 4.7, 중앙값 5.0으로 중간대 하단이다. 분포가 비교적 넓어 상황 의존적 평가가 나타난다.
- **튀르키예(앙카라)** 평균 5.5, 중앙값 6.0으로 상위권이다. 상위 구간이 두터워 높은 자기결정감이 일관되게 보고된다.
- **미국(뉴욕)** 평균 5.3, 중앙값 5.0으로 중상위권이다. 일부 저점 응답이 평균을 약간 낮추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 **영국(런던)** 평균 5.2, 중앙값 5.0으로 균형을 갖춘 중상위권이다. 하위 꼬리가 길지 않아 '보통 이상' 응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프랑스(파리)** 평균 4.9, 중앙값 5.0으로 중간대이다. 분포 중심이 5점 부근에 모여 저점 응답의 영향이 소폭 존재다.



Q5-1

아래의 항목들이 귀하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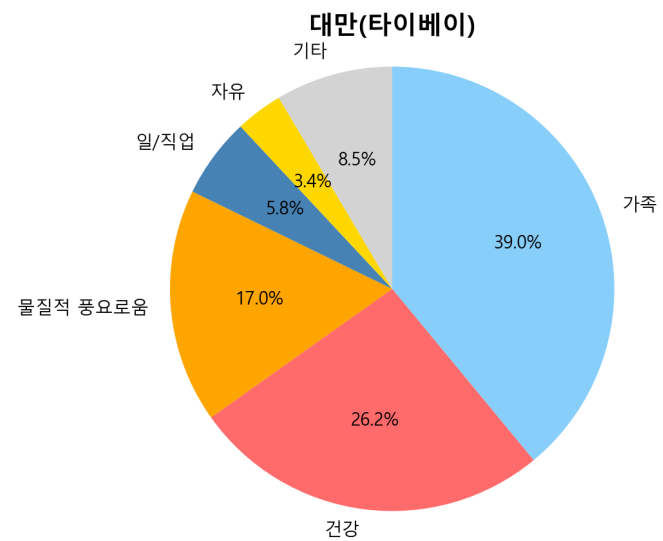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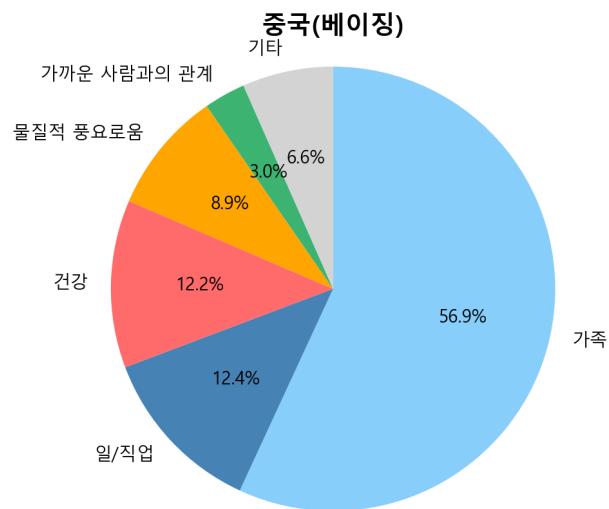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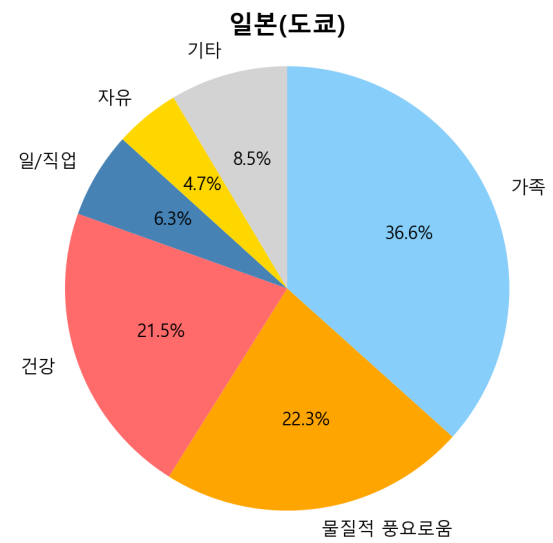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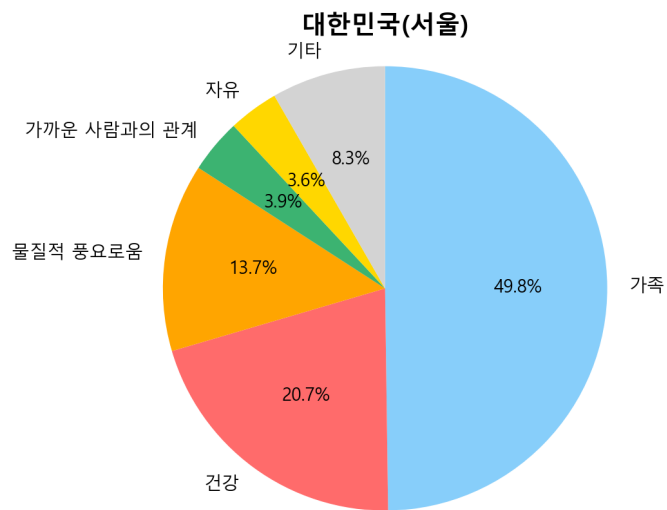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12개 요인(가족, 일자리, 즐거움, 가까운 관계, 건강, 자유, 취미, 배움/공부, 연애, 새로운 경험, 신앙/믿음)의 중요도를 1~7점 척도로 측정해 도시별 평균을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가족'과 '건강'의 점수가 가장 높아 삶의 의미의 핵심축을 이룬다. '가까운 관계'와 '자유'도 대체로 상위권을 형성하여 관계와 자율의 가치를 폭넓게 증시한다. 반대로 '신앙/믿음'과 '새로운 경험'은 도시 간 변동폭이 크다. 세속성이 강한 도시(예: 도쿄·타이베이·파리)는 신앙의 중요도가 낮고, 종교성이 높은 도시(예: 자카르타·리야드)는 신앙 점수가 매우 높다. '새로운 경험'은 앙카라 등에서 높은 반면 일부 도시는 중간대에 머문다.

- **대한민국(서울)** 가족과 건강이 최상위권이며, 자유·가까운 관계·배움도 높게 평가된다. 신앙은 중하위권으로 세속적 성향이 반영된다.
- **일본(도쿄)** 가족·건강은 높지만 신앙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난다. 자유와 즐거움, 가까운 관계는 중상 수준으로 균형을 이룬다.
- **중국(베이징)** 전반적 점수가 상위권에 포진한다. 가족·건강·자유·관계가 모두 높으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도 상위권이다.
- **대만(타이베이)** 가족·건강·관계·자유가 중상위권이며 신앙은 낮은 점수를 갖는다. 즐거움·배움에 대한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 **베트남(하노이)** 가족·건강·관계가 최상위권이고 자유·즐거움도 높다. 신앙은 중간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은 상중 수준의 균형형이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가족·건강·자유가 높고, 신앙도 중상위권으로 나타난다. 관계·배움·새로운 경험도 고르게 높은 편이다.
- **싱가포르** 가족·건강·일자리·자유가 모두 중상 이상이다. 신앙은 중하, '새로운 경험'은 중상위권으로 안정적 분포를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신앙/믿음 점수가 매우 높고 가족·건강도 최상위권이다. 자유·관계·배움 역시 중상 이상으로 '가족-신앙-자유' 축이 함께 강하다.
- **인도(뉴델리)** 가족·건강·관계·자유·배움이 모두 상위권이며, 신앙도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고평가 패턴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신앙과 가족·건강이 모두 상위에 위치한다. 관계·자유·배움도 중상 수준으로 종교성과 관계적 가치가 결합된 모습이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가족·건강·관계가 중상위에 위치하며, 신앙은 중간대다. 자유와 배움·새로운 경험은 중상 수준으로 균형형이다.
- **튀르키예(앙카라)** 가족·건강·자유·관계가 매우 높고 '새로운 경험'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즐거움·배움 역시 높은 편으로 확장지향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 **미국(뉴욕)** 가족·건강·자유·공부(배움)·관계가 상위권이며, 신앙은 중간대다.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와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분포다.
- **영국(런던)** 가족·건강·자유·관계가 중상 이상이며, 신앙은 중하 수준이다. 즐거움·새로운 경험·배움은 중상위권으로 고르게 높다.
- **프랑스(파리)** 가족·건강·자유·관계가 상위권이고, 신앙은 낮다. 배움·새로운 경험·즐거움은 중상 수준으로 세속적·개방적 가치가 반영된다.



Q.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요소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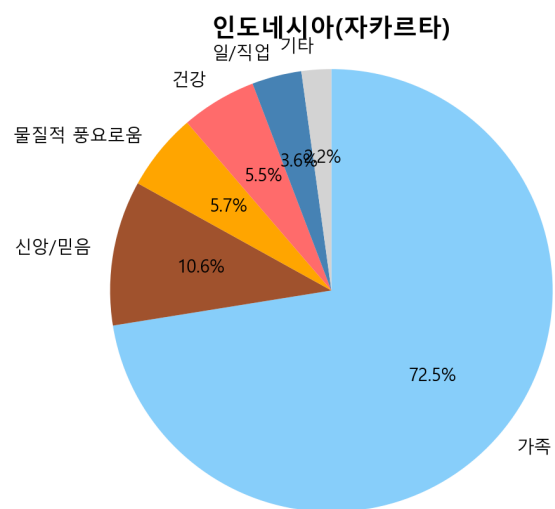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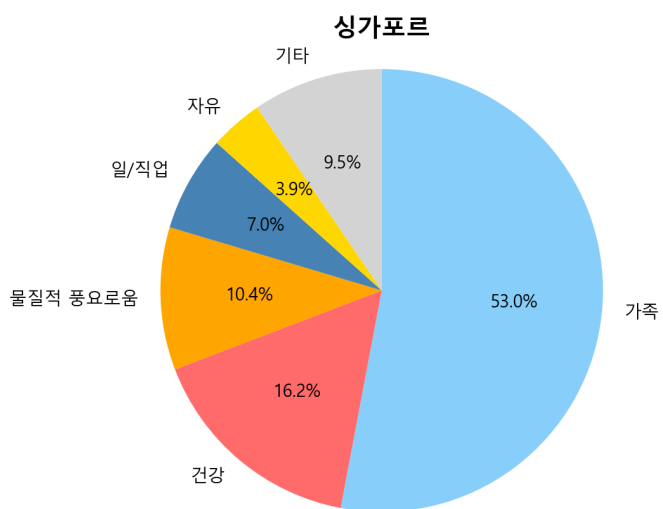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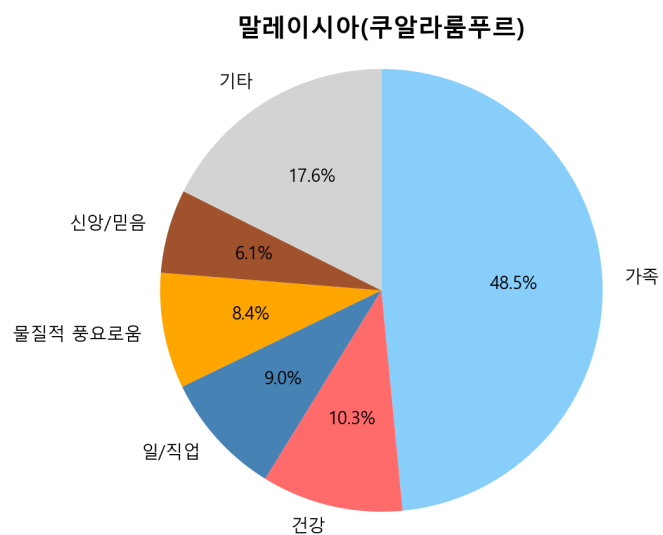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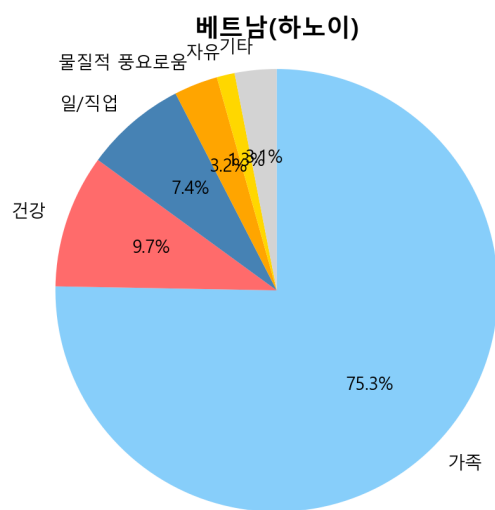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Q.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요소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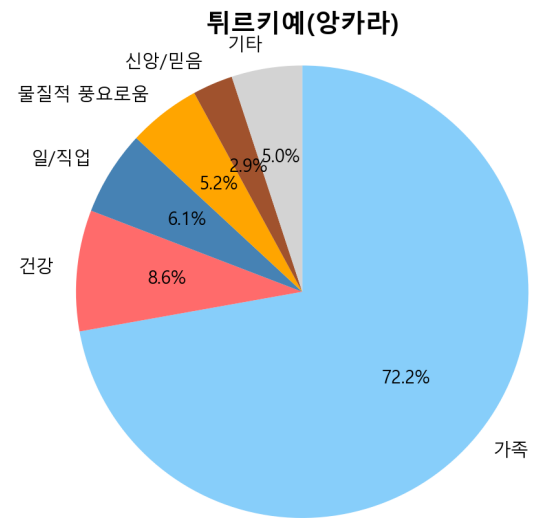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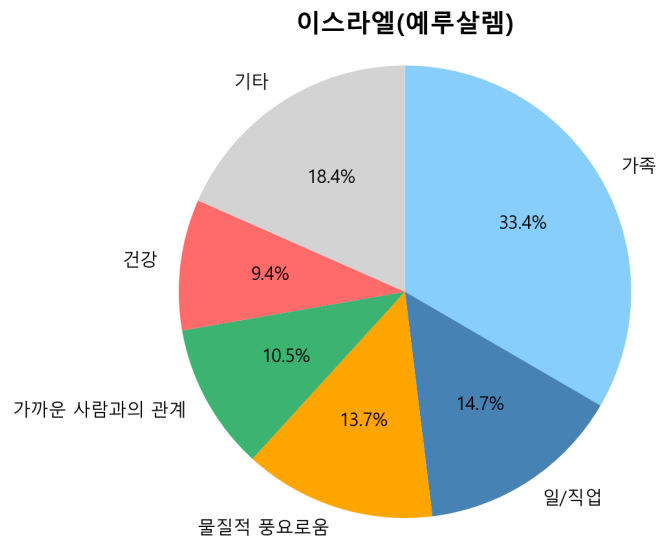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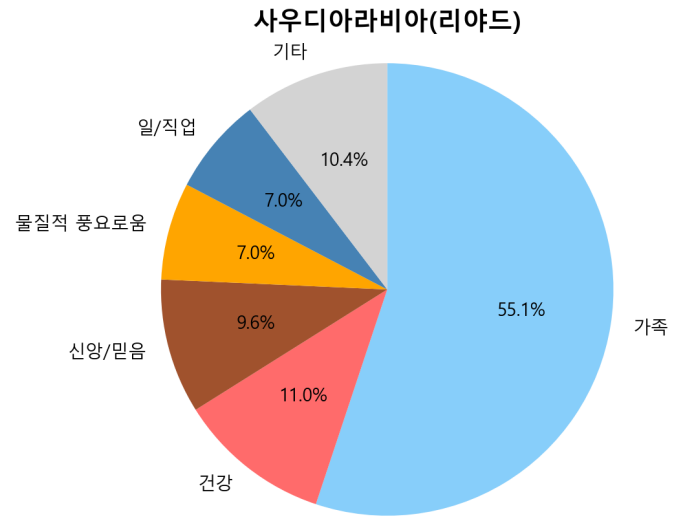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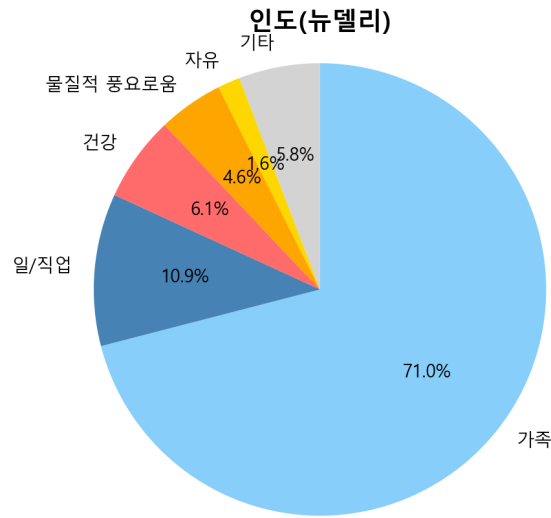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Q.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요소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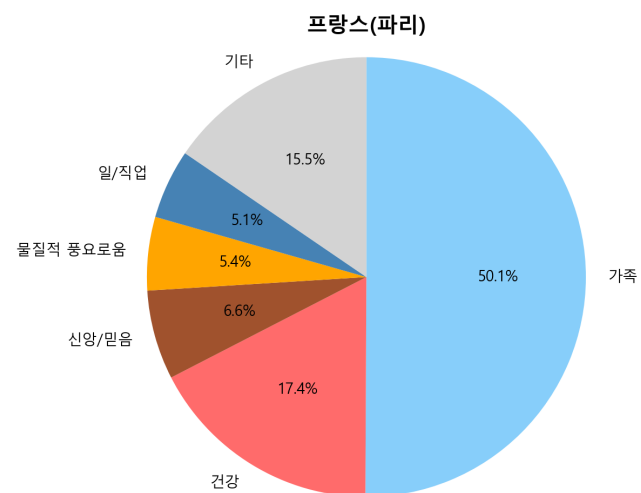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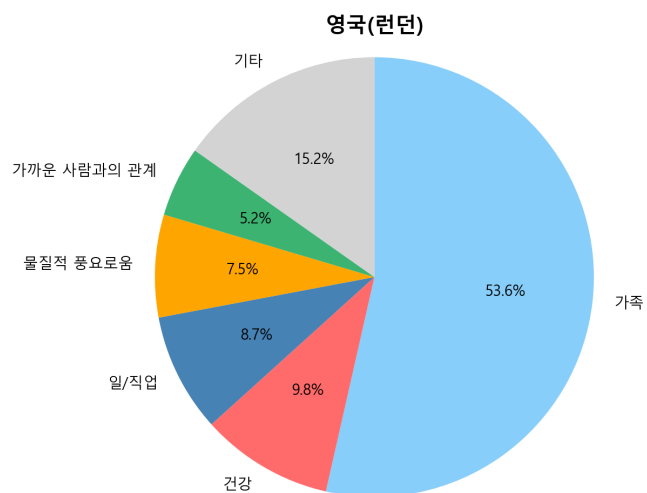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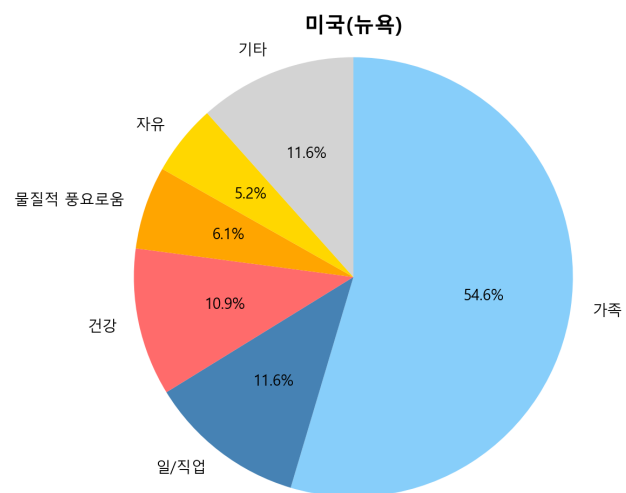
서·남아시아





Q.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요소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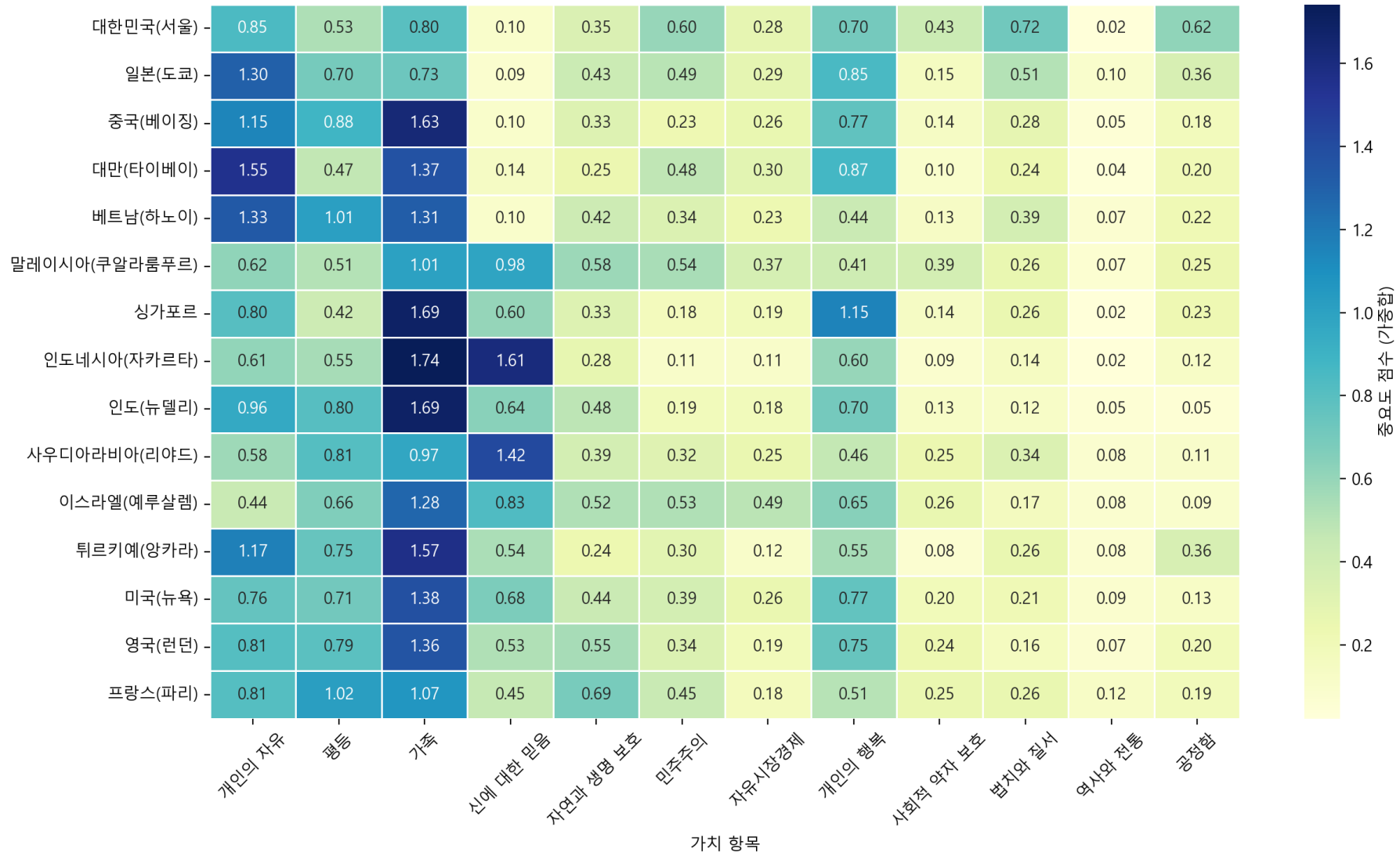
서구





Q6

다음 중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 히트맵은 15개 도시에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12개 항목으로 물어본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족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최상위 축을 이루고, 그다음으로는 개인의 자유·평등·자연/생명 보호·개인의 행복이 폭넓게 중시됩니다. 반면 신에 대한 믿음, 역사와 전통은 도시별 편차가 크고, 자유시장경제는 특정 도시(예: 싱가포르)에서만 두드러집니다. 법과 질서·공정함·사회적 약자 보호는 전반적으로 중간권이지만, 도시에 따라 강조점이 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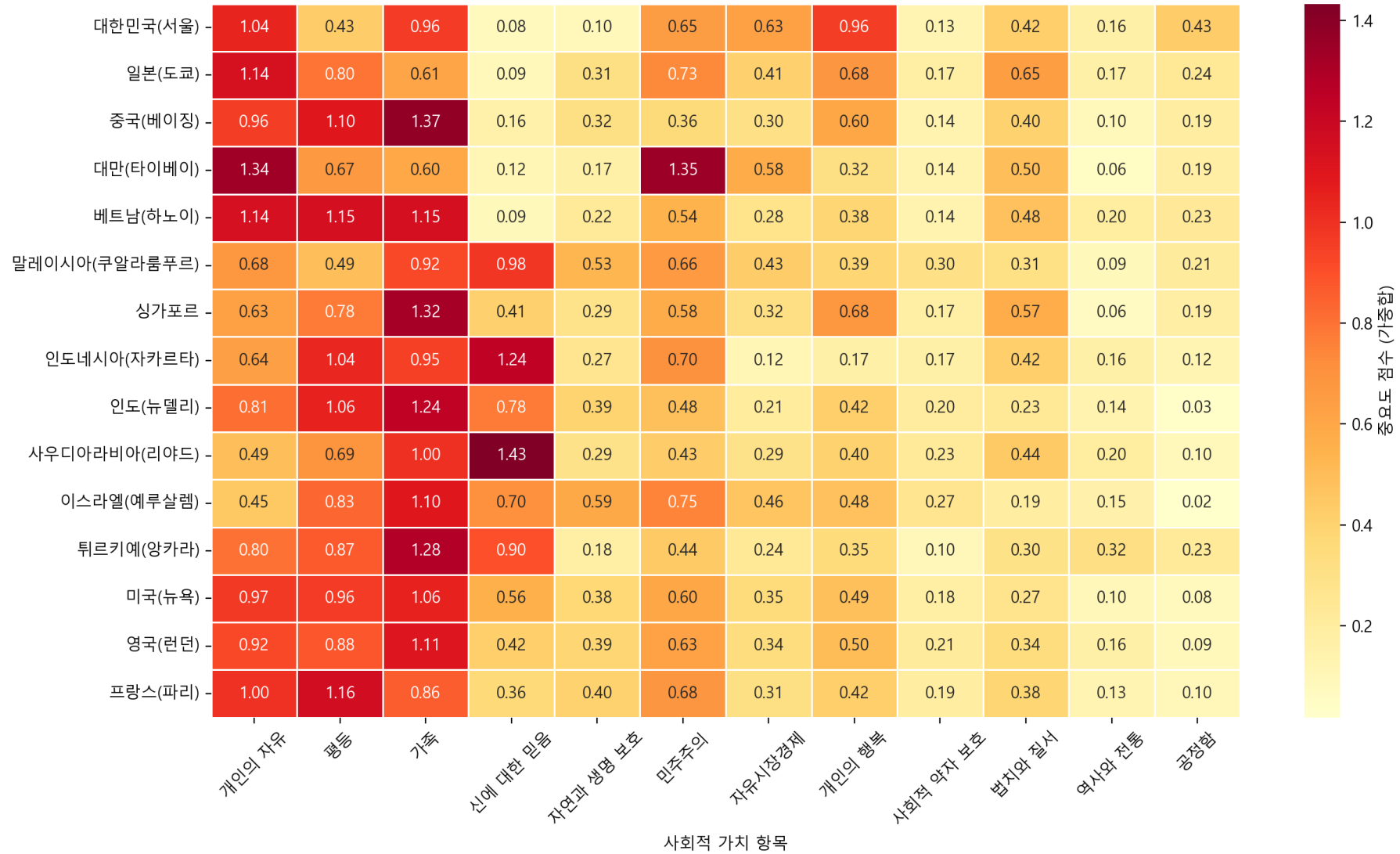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가족과 개인의 자유, 법과 질서가 모두 높은 균형형. 개인의 행복과 공정함도 비교적 높다.
- **일본(도쿄)** 개인의 자유가 매우 높고 가족·평등은 중상. 신앙과 전통은 낮아 세속·개인주의적 특성이 뚜렷하다.
- **중국(베이징)** 가족이 최상위이며 개인의 자유·개인의 행복도 높다.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는 중하권.
- **대만(타이베이)** 개인의 자유와 가족이 모두 높고 민주주의도 상대적으로 중상. 신앙은 낮은 편.
- **베트남(하노이)** 가족과 평등이 모두 높고, 개인의 행복·자연/생명 보호가 뒤따른다. 시장·전통은 중간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가족 최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공정함이 비교적 높은 균형형. 신앙은 중상.
- **싱가포르** 가족이 높고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두드러짐. 법과 질서·개인의 행복도 중상으로 실용주의적 조합.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가족과 신앙이 매우 높고 전통도 중상. 평등·행복은 중간, 민주주의·시장 항목은 낮은 편.
- **인도(뉴델리)** 가족·평등이 모두 높고 자연/생명 보호도 중상. 신앙도 높은 편으로 공동체·규범성이 강하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신앙과 가족이 최상위, 법과 질서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유·평등·민주주의는 낮은 편.
- **이스라엘(예루살렘)** 가족과 신앙이 모두 높고 민주주의·자연/생명 보호도 중상. 전통은 중간, 시장은 낮다.
- **튀르키예(앙카라)** 가족·개인의 행복이 높고 자유도 중상. 공정함이 비교적 높아 ‘공정/행복’ 축이 함께 보임.
- **미국(뉴욕)** 가족과 개인의 자유가 함께 높으며, 개인의 행복·공정함·민주주의가 고르게 강조되는 다원주의형.
- **영국(런던)** 개인의 자유·평등·공정함이 모두 중상 이상인 균형형. 가족도 높으나 신앙·전통은 낮은 편.
- **프랑스(파리)** 평등과 개인의 자유가 높고 자연/생명 보호도 강조. 가족은 높지만 신앙·전통은 낮아 세속·보편주의 성향이 강하다.

요약하면, ‘가족’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통 핵심 가치이며, 그 위에 각 도시의 제도·문화·종교·경제 구조에 따라 자유(개인/시장), 평등/공정, 신앙/전통 가운데 어느 축을 더 강조하느냐가 달라집니다.



Q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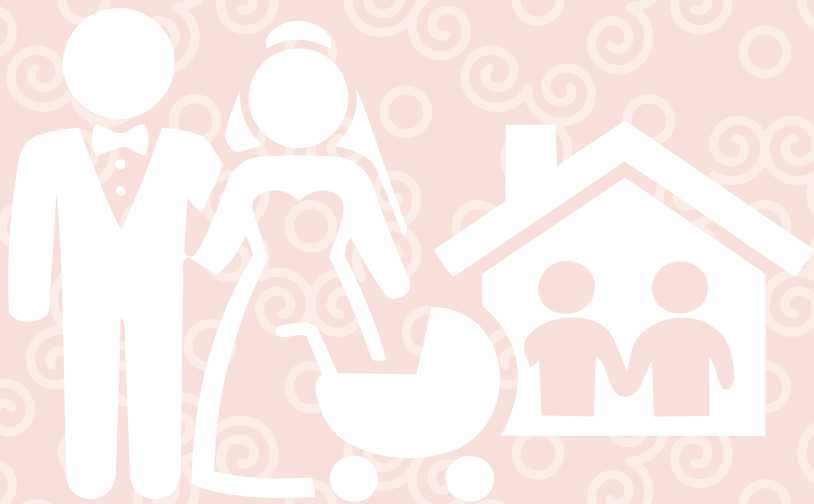
이 히트맵은 15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12개 항목(개인의 자유, 평등, 가족, 신에 대한 믿음, 자연·생명 보호,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개인의 행복, 사회적 약자 보호, 법과 질서, 역사와 전통, 공정함)으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족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상위권에 있으며, 개인의 자유·평등·개인의 행복이 폭넓게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반대로 신에 대한 믿음과 역사·전통은 도시별 편차가 크고, 자유시장경제는 일부 도시(예: 싱가포르)에서만 확연히 높습니다. 이 지표는 “사회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Q6)”에 비해 실제 개인이 체감·선호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서울)** 개인의 자유와 가족이 모두 높고, 개인의 행복·공정함도 중상 수준입니다. 신앙·전통은 상대적으로 낮아 세속·개인주의 성향이 반영됩니다.
- **일본(도쿄)** 개인의 자유가 최상위권이며 평등·가족도 중상입니다. 법과 질서와 개인의 행복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앙·전통은 낮은 편입니다.
- **중국(베이징)** 가족이 매우 높고 평등·자유도 상위권입니다. 자연·생명 보호와 개인의 행복이 중상이며, 시장·민주주의는 중하위권입니다.
- **대만(타이베이)** 개인의 자유와 가족이 상위권이고, 자연·생명 보호가 특히 높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중상위권이며, 신앙은 낮은 편입니다.
- **베트남(하노이)** 가족·평등·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높아 공동체와 개인 가치가 균형을 이룹니다. 개인의 행복·자연 보호도 중상위에 위치합니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가족과 신앙이 모두 높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공정함도 중상위권입니다. 균형적인 공동체 지향이 드러납니다.
- **싱가포르** 가족과 평등이 높고 자유시장경제가 눈에 띄게 높은 도시입니다. 법과 질서, 개인의 행복도 중상 수준으로 실용주의적 조합이 나타납니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가족과 신앙이 모두 매우 높습니다. 평등과 개인의 자유는 중상, 민주주의·시장 항목은 중하위권으로 공동체·규범 중심의 가치가 강합니다.
- **인도(뉴델리)** 가족·평등이 높고 신앙도 중상위권 이상입니다. 개인의 자유·행복은 중상, 전통은 중간대로 공동체·규범과 개인 가치가 혼재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신앙과 가족이 최상위이며 법과 질서·전통도 중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시장은 낮은 편입니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가족과 신앙이 모두 높고, 민주주의·자연 보호가 중상위권입니다. 개인의 자유·행복은 중상, 전통은 중간입니다.
- **튀르키예(앙카라)** 가족과 개인의 행복이 높고 자유도 중상위대입니다. 공정함과 전통은 중간, 신앙은 중간 수준으로 혼합형 가치 지형입니다.
- **미국(뉴욕)** 개인의 자유와 가족이 함께 높고, 평등·개인의 행복·공정함이 고르게 강조되는 다원주의형입니다. 법과 질서는 중간대입니다.
- **영국(런던)** 개인의 자유·평등·공정함이 모두 중상 이상이며, 개인의 행복도 높습니다. 신앙·전통은 낮은 편으로 세속·보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 **프랑스(파리)** 개인의 자유·평등이 높고 자연·생명 보호도 중상위권입니다. 가족은 높지만 신앙·전통은 낮아 세속성과 인권 지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제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자유·평등·개인의 행복이 넓게 공유되는 가운데, 신앙·전통·시장 같은 가치의 강조 여부가 도시별로 갈리며 각 도시의 문화·종교·제도적 환경을 반영합니다.

C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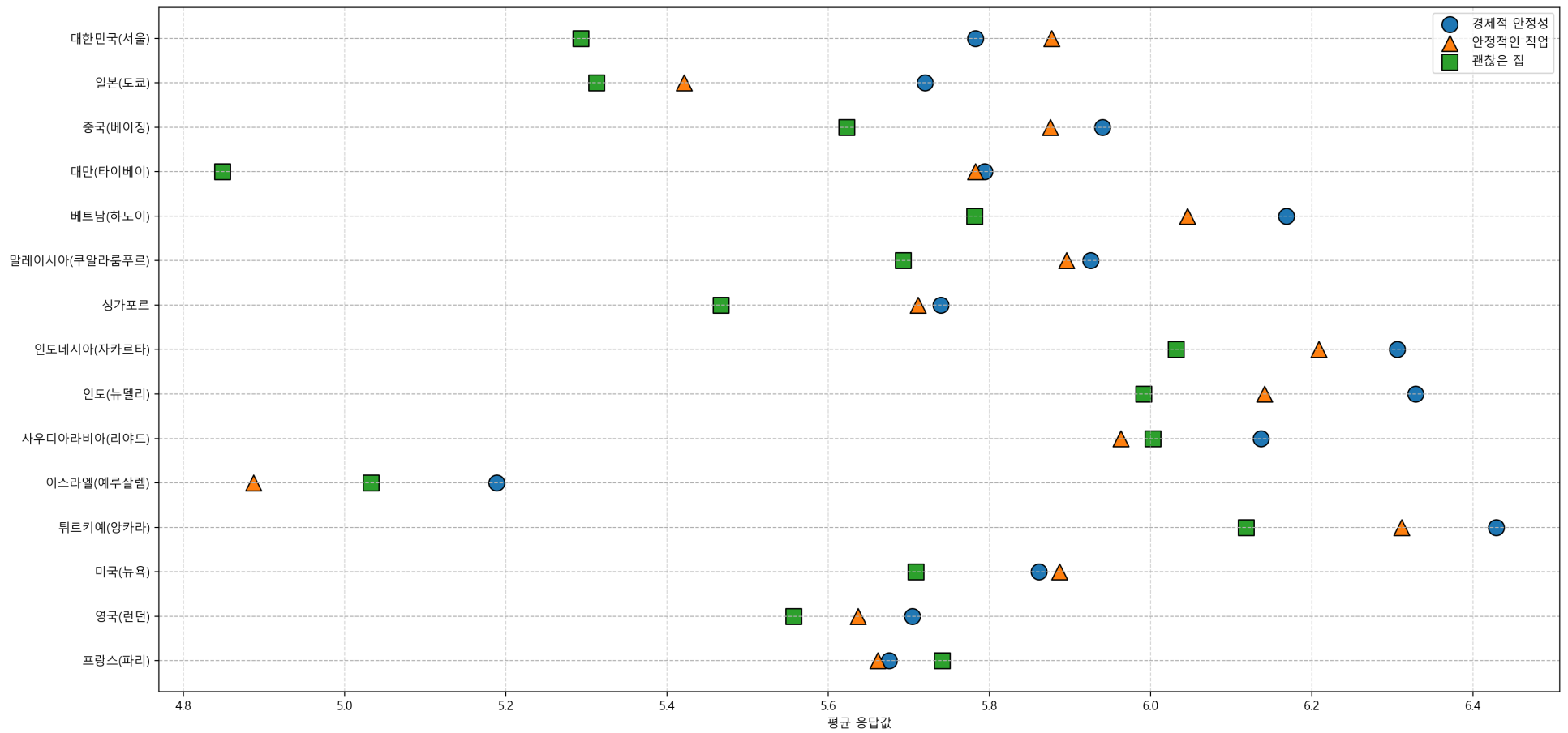
결혼, 자녀 그리고 가족





Q8

귀하는 결혼하기 전에 아래의 항목들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점도는 15개 국가(도시)에서 결혼 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경제적 안정성(파란 원), 안정적인 직업(주황 삼각형), 괜찮은 집(초록 사각형) 세 항목으로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그다음이 안정적인 직업, 마지막으로 주거 순으로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다수의 도시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자산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그 안정이 뒷받침되는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뒤따르며, 주거의 질은 그다음 고려사항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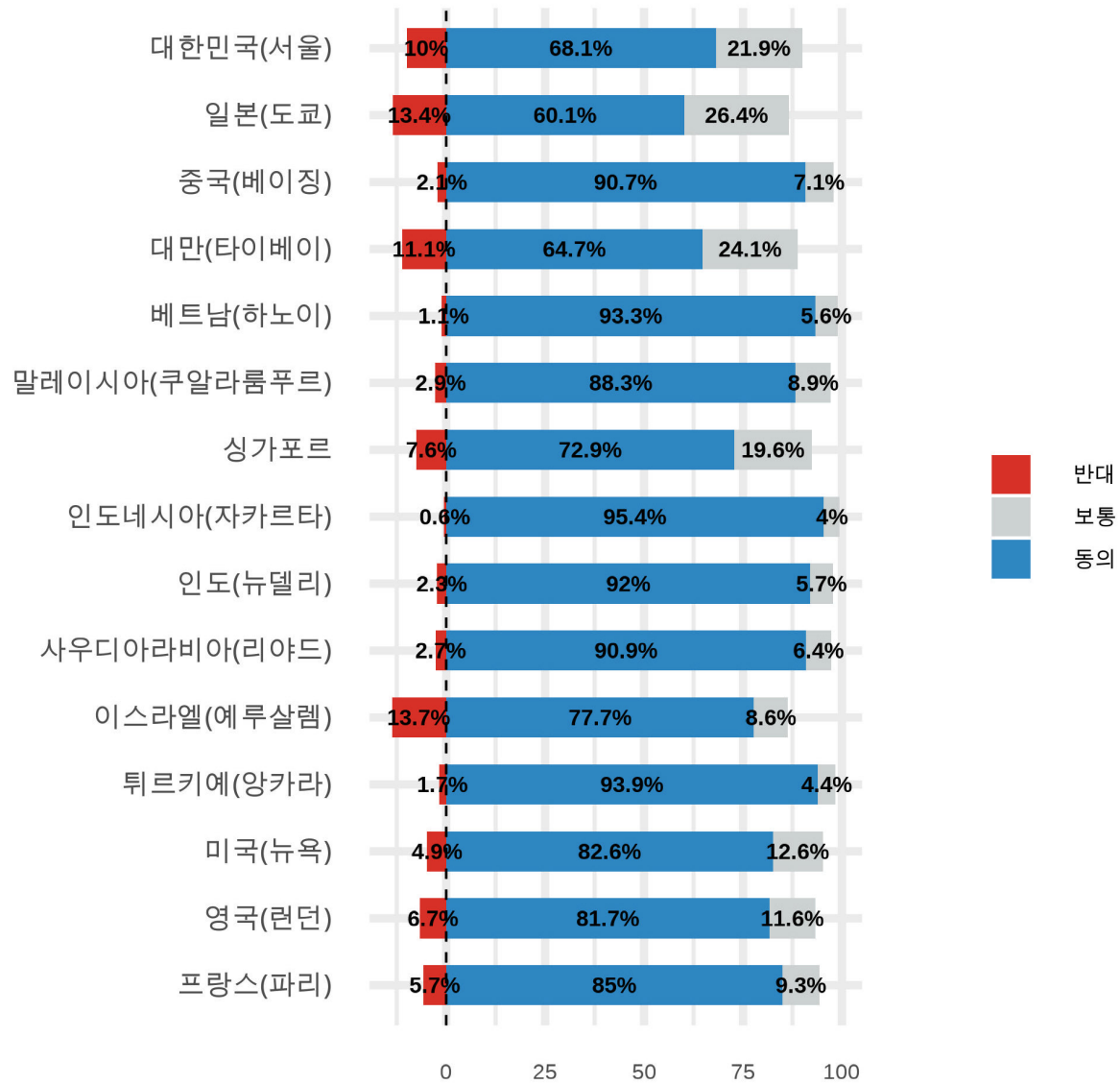
도시별로 보면 미국(뉴욕), 튀르키예(앙카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뉴델리)는 경제적 안정성과 안정적 직업이 6점대 초반에 형성되어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직업의 확실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서울)과 일본(도쿄)에서도 경제·직업의 중요도는 높은 편이지만 주거의 중요도는 한 단계 낮아 세 항목 간 격차가 분명하다. 반대로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는 주거 중요도가 비교적 높아 경제·직업과의 간격이 작아 보이며, 싱가포르·영국(런던)·프랑스(파리)는 세 항목이 중상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형'에 가깝다. 대만(타이베이)과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전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주거의 중요도가 낮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주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결혼은 경제·직업의 안정이 확보된 이후”라는 규범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주거 중요도의 도시 간 변동폭은 주택가격, 접근성, 공공주택·대출제도 등 지역별 주거 여건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청년·예비부부의 초기임금과 고용안정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주거비 경감과 초기 주거마련 지원을 병행하는 접근이 결혼 지연·비혼 확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핵심 지렛대가 될 것이다.



Q9-1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문항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도시별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도시 전체에서 동의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동의율의 범위는 60.14%에서 95.43%까지 약 35%p의 차이를 보였다. 동의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도시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95.43%), 튀르키예(앙카라)(93.86%), 베트남(하노이)(93.29%), 인도(뉴델리)(92.00%),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90.86%), 중국(베이징)(90.71%) 등 6개 도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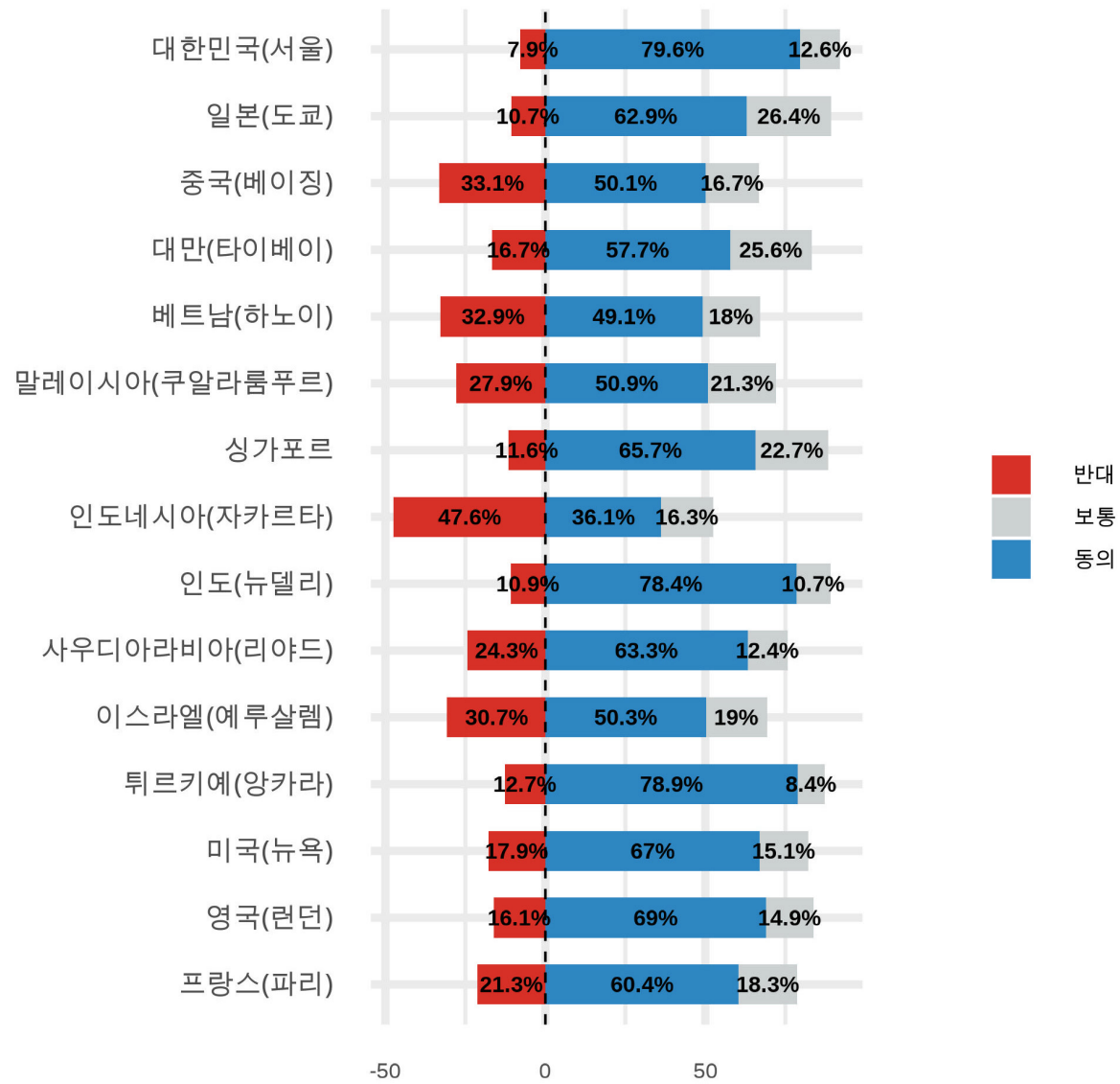
반면, 동의 비율이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도시는 일본(도쿄)(60.14%), 대만(타이베이)(64.71%), 대한민국(서울)(68.14%) 순이었다. 이들 도시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43%(도쿄), 24.14%(타이베이), 21.86%(서울)로 집계되어 다른 도시에 비해 중립적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대 비율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13.71%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도쿄)(13.43%)과 대만(타이베이)(11.14%)이 그 뒤를 이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8.14%, 보통 21.86%, 반대 10.0%. 동의 응답이 우세하나 보통 비율도 20%를 넘는다.
- **일본(도쿄)** 동의 60.14%, 보통 26.43%, 반대 13.43%. 동의가 과반이나 보통과 반대 응답의 합이 40%에 육박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90.71%, 보통 7.14%, 반대 2.14%. 90%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 양육의 가치에 강하게 동의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4.71%, 보통 24.14%, 반대 11.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보통을 선택한 비중도 크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93.29%, 보통 5.57%, 반대 1.14%. 10명 중 9명 이상이 자녀의 성장을 인생의 기쁨으로 꼽는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88.29%, 보통 8.86%, 반대 2.86%. 동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며 반대 의견은 매우 적다.
- **싱가포르** 동의 72.86%, 보통 19.57%, 반대 7.57%.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룬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95.43%, 보통 4.0%, 반대 0.57%. 조사 대상 도시 중 자녀 양육의 기쁨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인도(뉴델리)** 동의 92.0%, 보통 5.71%, 반대 2.29%. 자녀 성장의 가치에 대해 압도적인 동의 성향을 나타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90.86%, 보통 6.43%, 반대 2.71%. 동의 응답이 90%를 넘어서며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77.71%, 보통 8.57%, 반대 13.71%. 동의가 다수이나 반대 비율이 15개 도시 중 가장 높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93.86%, 보통 4.43%, 반대 1.71%. 자녀의 성장을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인식이 매우 확고하다.
- **미국(뉴욕)** 동의 82.57%, 보통 12.57%, 반대 4.86%.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로 자녀 양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 **영국(런던)** 동의 81.71%, 보통 11.57%, 반대 6.71%. 대다수의 시민이 자녀 성장의 기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 **프랑스(파리)** 동의 85.0%, 보통 9.29%, 반대 5.71%. 80% 중반대의 높은 동의율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를 긍정한다.



자녀를 가지면 부모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된다.





이 문항은 자녀 양육이 부모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 15개 도시 중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제외한 14개 도시에서 동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한민국(서울)으로 79.57%를 기록했으며, 튀르키예(앙카라)(78.86%)와 인도(뉴델리)(78.43%)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동의율이 70%를 넘는 도시는 이들 3곳과 영국(런던)(69.0% - 약 70% 근접)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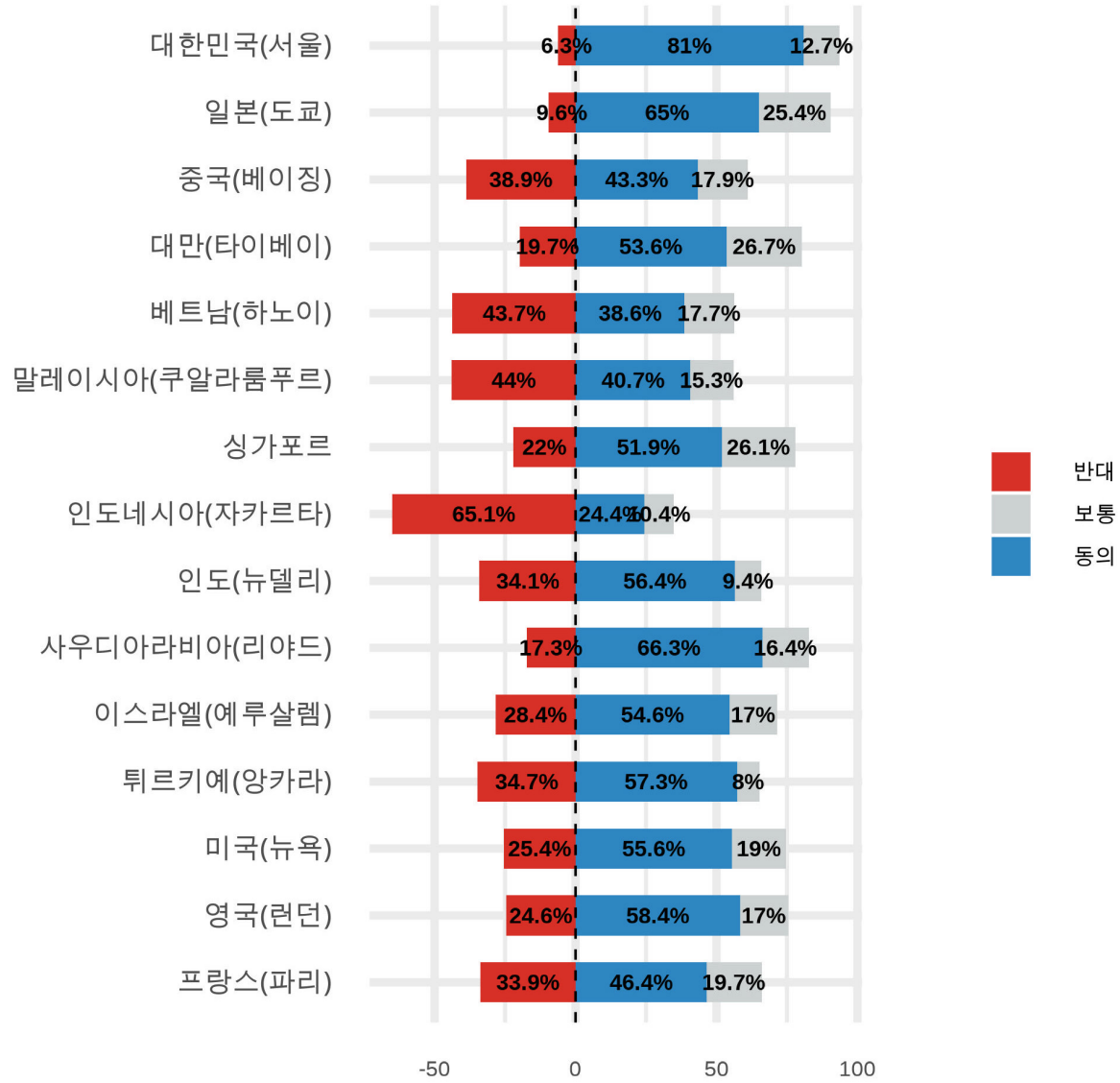
반면, 동의 비율이 50% 이하인 도시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36.14%), 베트남(하노이)(49.14%), 중국(베이징)(50.14%)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반대 비율이 47.57%로 조사 대상 도시 중 유일하게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26.43%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타이베이)(25.57%), 싱가포르(22.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비율은 자카르타에 이어 중국(베이징)(33.14%), 베트남(하노이)(32.86%), 이스라엘(예루살렘)(30.71%) 순으로 높았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9.57%, 보통 12.57%, 반대 7.86%. 10명 중 8명이 자녀로 인한 자유 제약에 동의한다.
- **일본(도쿄)** 동의 62.86%, 보통 26.43%, 반대 10.71%. 동의를 우세하지만 보통을 선택한 신중한 응답도 많다.
- **중국(베이징)** 동의 50.14%, 보통 16.71%, 반대 33.14%. 동의를 과반이나 반대하는 의견도 30%를 상회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7.71%, 보통 25.57%, 반대 16.71%.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통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9.14%, 보통 18.0%, 반대 32.86%. 동의를 가장 많으나 반대 비율도 30%를 넘어 의견이 나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0.86%, 보통 21.29%, 반대 27.86%. 절반의 응답자가 자유 제약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65.71%, 보통 22.71%, 반대 11.57%. 동의 응답이 60% 중반대로 나타나 개인의 자유 제약을 높게 인식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36.14%, 보통 16.29%, 반대 47.57%.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반대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인도(뉴델리)** 동의 78.43%, 보통 10.71%, 반대 10.86%. 자유 제약에 대한 동의율이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3.29%, 보통 12.43%, 반대 24.29%. 동의를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4분의 1 수준이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0.29%, 보통 19.0%, 반대 30.71%. 동의와 반대의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8.86%, 보통 8.43%, 반대 12.71%. 자유 제약에 동의하는 인식이 서울과 유사하게 매우 높다.
- **미국(뉴욕)** 동의 67.0%, 보통 15.14%, 반대 17.86%. 3분의 2 가량의 응답자가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느낀다.
- **영국(런던)** 동의 69.0%, 보통 14.86%, 반대 16.14%. 약 70%의 높은 비율로 자녀에 의한 자유 제약에 동의한다.
- **프랑스(파리)** 동의 60.43%, 보통 18.29%, 반대 21.29%. 동의 의견이 지배적이나 반대 의견도 20%를 넘는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 문항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시별로 동의와 반대의 분포가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81.00%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80%대를 기록한 유일한 도시였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6.29%)와 일본(도쿄)(65.00%)이 60% 중반대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동의율이 50%를 넘는 도시는 영국(런던)(58.43%), 튀르키예(앙카라)(57.29%), 인도(뉴델리)(56.43%), 미국(뉴욕)(55.57%), 이스라엘(예루살렘)(54.57%), 대만(타이베이)(53.57%), 싱가포르(51.86%) 등 총 10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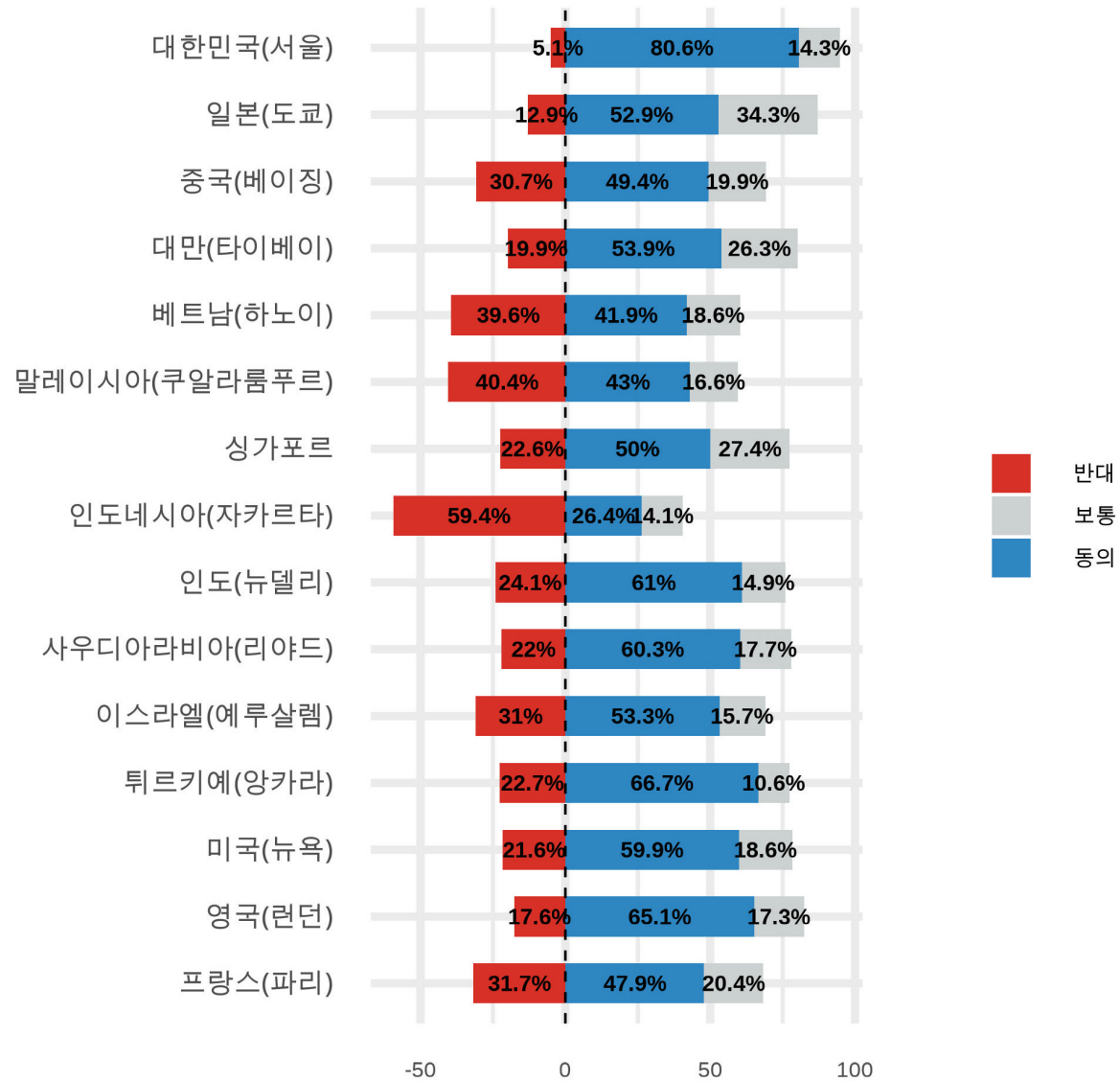
반면, 동의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은 도시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베트남(하노이) 등 3개 도시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반대 비율이 65.14%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으며, 동의 비율은 24.43%로 가장 낮았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는 반대 44.0%, 베트남(하노이)은 반대 43.71%를 기록했다. 중국(베이징)은 동의(43.29%)와 반대(38.86%)가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통 비율은 대만(타이베이)(26.71%), 싱가포르(26.14%), 일본(도쿄)(25.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1.0%, 보통 12.71%, 반대 6.29%. 10명 중 8명이 자녀 양육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한다.
- **일본(도쿄)** 동의 65.0%, 보통 25.43%, 반대 9.57%. 동의를 지배적이나 보통 응답도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난다.
- **중국(베이징)** 동의 43.29%, 보통 17.86%, 반대 38.86%. 동의를 가장 많지만 반대 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3.57%, 보통 26.71%, 반대 19.71%. 과반이 경제적 부담에 동의하며 보통 응답 비중도 높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38.57%, 보통 17.71%, 반대 43.71%. 반대 응답이 동의보다 5%p 이상 높게 나타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0.71%, 보통 15.29%, 반대 44.0%. 동의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싱가포르** 동의 51.86%, 보통 26.14%, 반대 22.0%. 절반 가량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유보적인 평가도 많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24.43%, 보통 10.43%, 반대 65.14%. 15개 도시 중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강하다.
- **인도(뉴델리)** 동의 56.43%, 보통 9.43%, 반대 34.14%. 동의 비율이 높지만 반대 의견도 30%를 상회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6.29%, 보통 16.43%, 반대 17.29%. 3분의 2의 응답자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긍정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4.57%, 보통 17.0%, 반대 28.43%. 과반이 동의하며 반대 의견도 30%에 가깝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7.29%, 보통 8.0%, 반대 34.71%.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 **미국(뉴욕)** 동의 55.57%, 보통 19.0%, 반대 25.43%. 과반의 동의와 함께 4분의 1 가량의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 **영국(런던)** 동의 58.43%, 보통 17.0%, 반대 24.57%.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 **프랑스(파리)** 동의 46.43%, 보통 19.71%, 반대 33.86%. 동의를 가장 많지만 의견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중 누군가는 직업이나 경력의 기회가 제한된다.





이 문항은 자녀 양육과 경력 기회의 상충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서울)의 동의 비율이 80.57%로 전체 도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 양육이 경력 제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튀르키예(앙카라)(66.71%), 영국(런던)(65.14%), 인도(뉴델리)(61.00%),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0.29%) 순으로 6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동의 비율이 50% 이하인 도시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26.43%), 베트남(하노이)(41.8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43.00%), 프랑스(파리)(47.86%), 중국(베이징)(49.43%), 싱가포르(50.00%) 등 6개 도시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반대 비율이 59.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동의 비율(26.43%)과의 격차도 가장 컸다. 베트남(하노이)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역시 반대 비율이 각각 39.57%, 40.43%로 집계되어 동의 비율과 비등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34.29%로 가장 높았으며, 싱가포르(27.43%), 대만(타이베이)(26.29%)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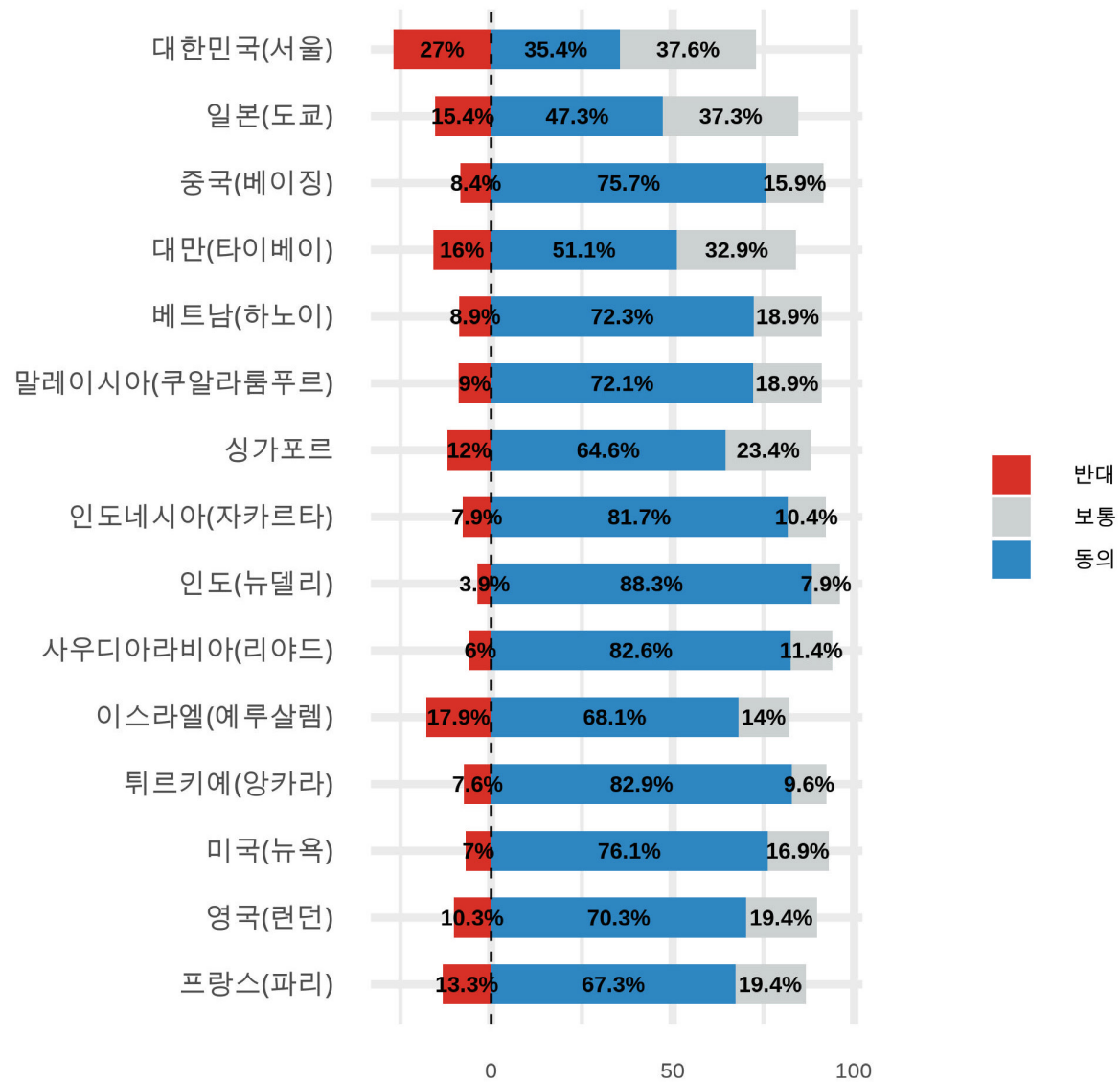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0.57%, 보통 14.29%, 반대 5.14%. 응답자 대다수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 제약을 인정한다.
- **일본(도쿄)** 동의 52.86%, 보통 34.29%, 반대 12.86%. 동의가 절반을 넘지만 보통을 택한 비중이 매우 높다.
- **중국(베이징)** 동의 49.43%, 보통 19.86%, 반대 30.71%. 동의가 다수이나 반대하는 의견도 30%를 넘는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3.86%, 보통 26.29%, 반대 19.86%. 과반이 경력 제한에 동의하며 보통 응답도 상당하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1.86%, 보통 18.57%, 반대 39.57%. 동의와 반대의 비율 차이가 2%p 내외로 팽팽하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3.0%, 보통 16.57%, 반대 40.43%. 동의와 반대 의견이 비등하게 나뉜다.
- **싱가포르** 동의 50.0%, 보통 27.43%, 반대 22.57%. 정확히 절반의 응답자가 경력 제한 문제에 동의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26.43%, 보통 14.14%, 반대 59.43%. 반대 응답이 동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 **인도(뉴델리)** 동의 61.0%, 보통 14.86%, 반대 24.14%. 60%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로 인한 경력 제약에 동의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29%, 보통 17.71%, 반대 22.0%. 동의 응답이 주를 이루며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29%, 보통 15.71%, 반대 31.0%. 동의가 다수이나 반대 응답도 30%를 상회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66.71%, 보통 10.57%, 반대 22.71%. 부모의 경력 기회 제한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59.86%, 보통 18.57%, 반대 21.57%. 60%에 가까운 비율로 경력 제약 현상을 인정한다.
- **영국(런던)** 동의 65.14%, 보통 17.29%, 반대 17.57%. 경력 제한에 대한 동의율이 서구권 도시 중 가장 높다.
- **프랑스(파리)** 동의 47.86%, 보통 20.43%, 반대 31.71%. 동의가 우세하지만 의견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Q9-5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노후에 중요한 보탬이 된다.





이 문항은 성인 자녀가 부모의 노후 부양이나 지원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한민국(서울)과 일본(도쿄) 등 동아시아 일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뉴델리)로 88.29%를 기록했으며, 튀르키예(앙카라)(82.86%),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82.57%), 인도네시아(자카르타)(81.71%)가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35.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 비율(37.57%)이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유일한 도시였다. 반대 비율 또한 서울이 27.00%로 가장 높았다. 일본(도쿄)과 대만(타이베이) 역시 동의 비율이 각각 47.29%, 51.14%로 조사 대상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구권 도시인 미국(뉴욕)(76.14%), 영국(런던)(70.29%), 프랑스(파리)(67.29%)는 아시아권 하위 도시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보통 비율은 대한민국(서울)(37.57%)에 이어 일본(도쿄)(37.29%), 대만(타이베이)(32.86%)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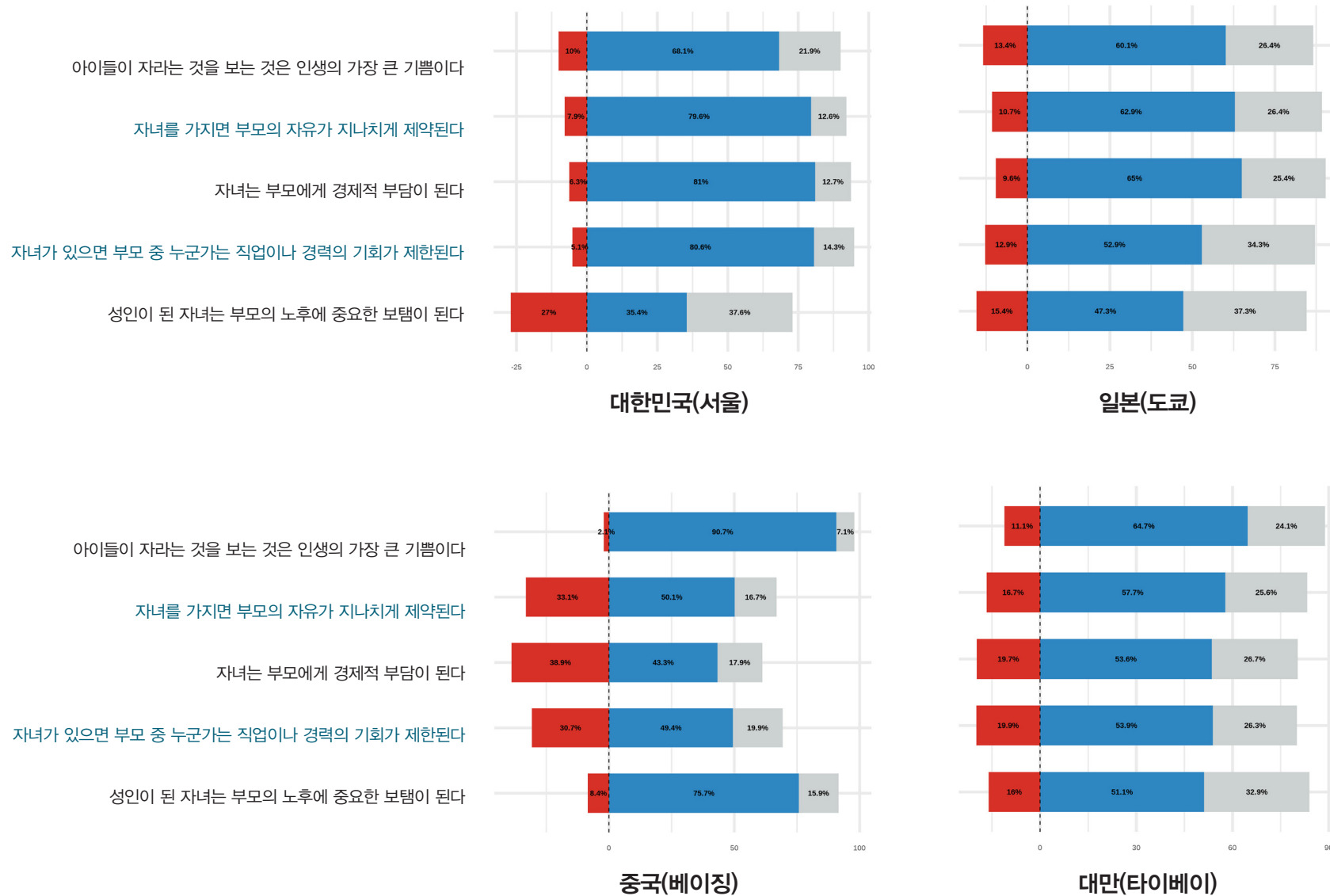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35.43%, 보통 37.57%, 반대 27.0%. 보통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자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다.
- **일본(도쿄)** 동의 47.29%, 보통 37.29%, 반대 15.43%. 동의가 가장 많지만 보통 비율도 이에 육박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75.71%, 보통 15.86%, 반대 8.43%. 4분의 3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의 노후 보탬에 동의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1.14%, 보통 32.86%, 반대 16.0%. 과반이 동의하나 유보적인 태도도 30%를 넘는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72.29%, 보통 18.86%, 반대 8.86%. 70% 이상의 높은 응답률로 자녀의 역할을 긍정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2.14%, 보통 18.86%, 반대 9.0%. 대다수의 응답자가 자녀의 기여에 대해 동의한다.
- **싱가포르** 동의 64.57%, 보통 23.43%, 반대 12.0%.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며 보통 의견이 그 뒤를 잇는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1.71%, 보통 10.43%, 반대 7.86%. 80%가 넘는 응답자가 자녀를 노후의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8.29%, 보통 7.86%, 반대 3.86%. 15개 도시 중 자녀의 노후 보탬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82.57%, 보통 11.43%, 반대 6.0%. 노후 자녀 역할에 대해 매우 확고한 동의 성향을 보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8.14%, 보통 14.0%, 반대 17.86%. 긍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2.86%, 보통 9.57%, 반대 7.57%. 높은 동의율로 자녀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기대한다.
- **미국(뉴욕)** 동의 76.14%, 보통 16.86%, 반대 7.0%. 4분의 3 가량의 시민들이 자녀가 노후에 보탬이 된다고 본다.
- **영국(런던)** 동의 70.29%, 보통 19.43%, 반대 10.29%. 동의 의견이 우세하며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67.29%, 보통 19.43%, 반대 13.29%. 자녀의 기여에 대해 긍정하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Q.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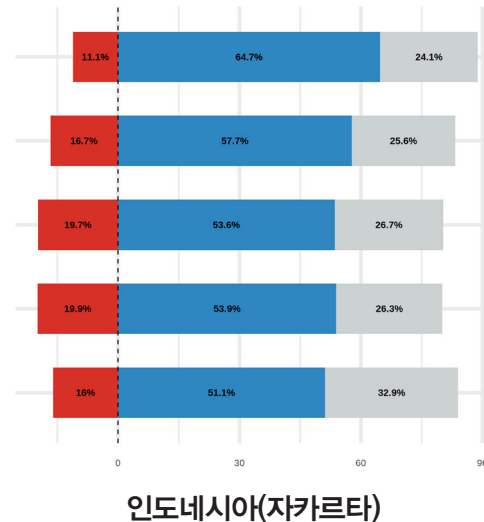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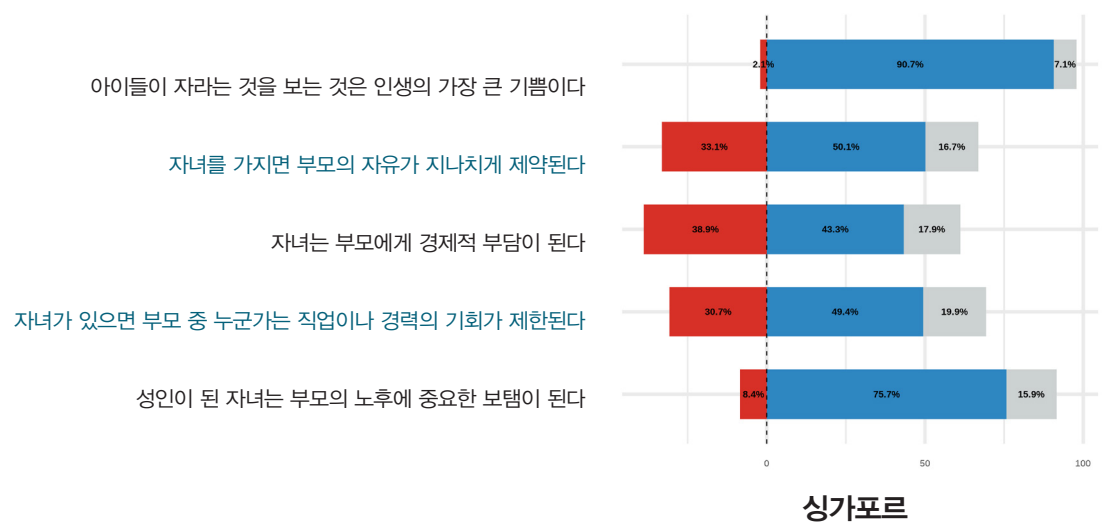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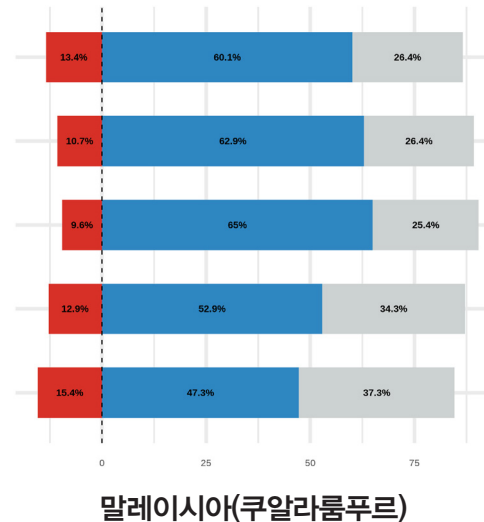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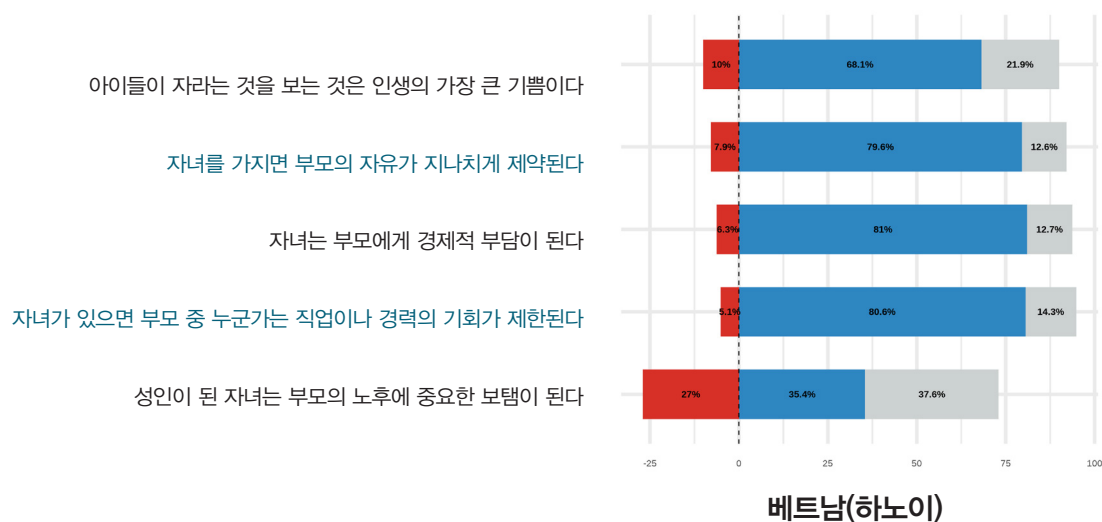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Q.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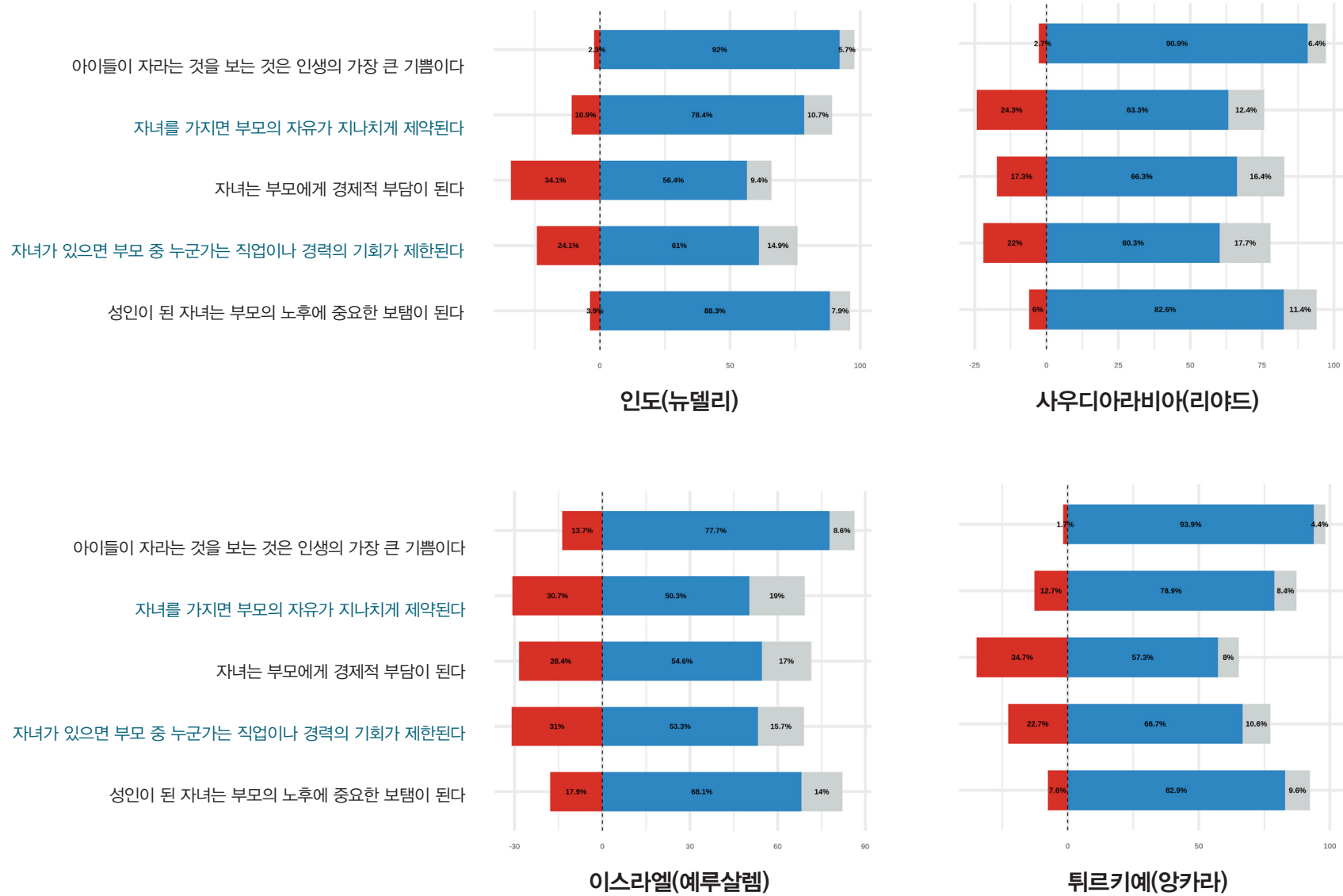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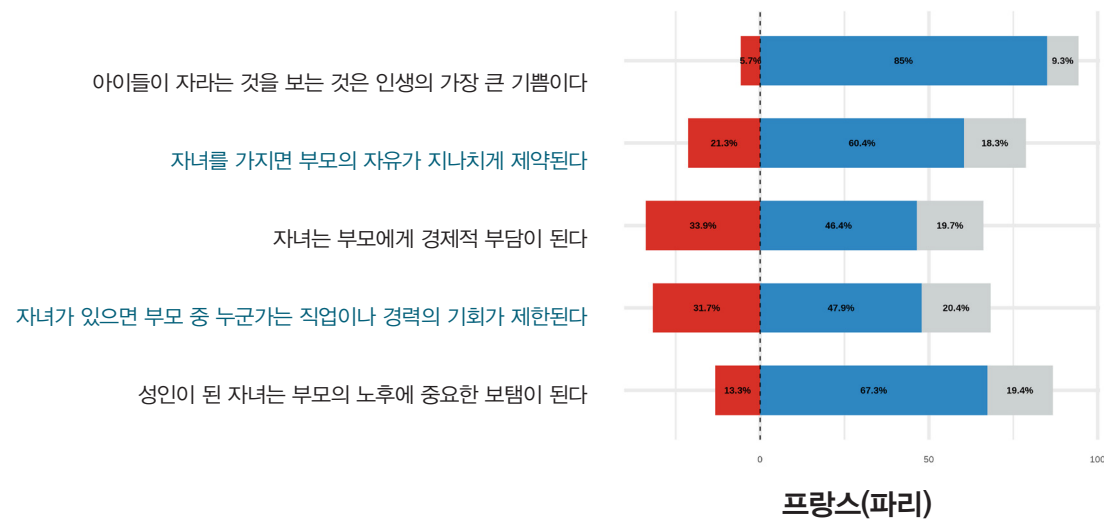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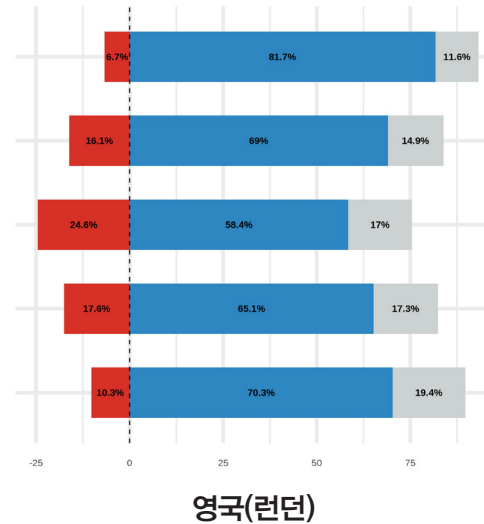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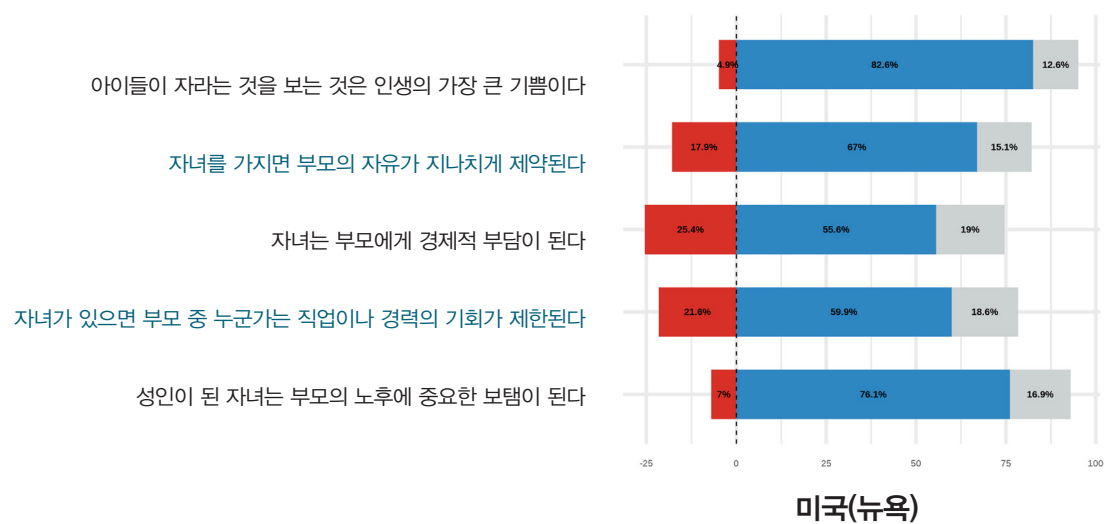
서 · 남아시아





Q.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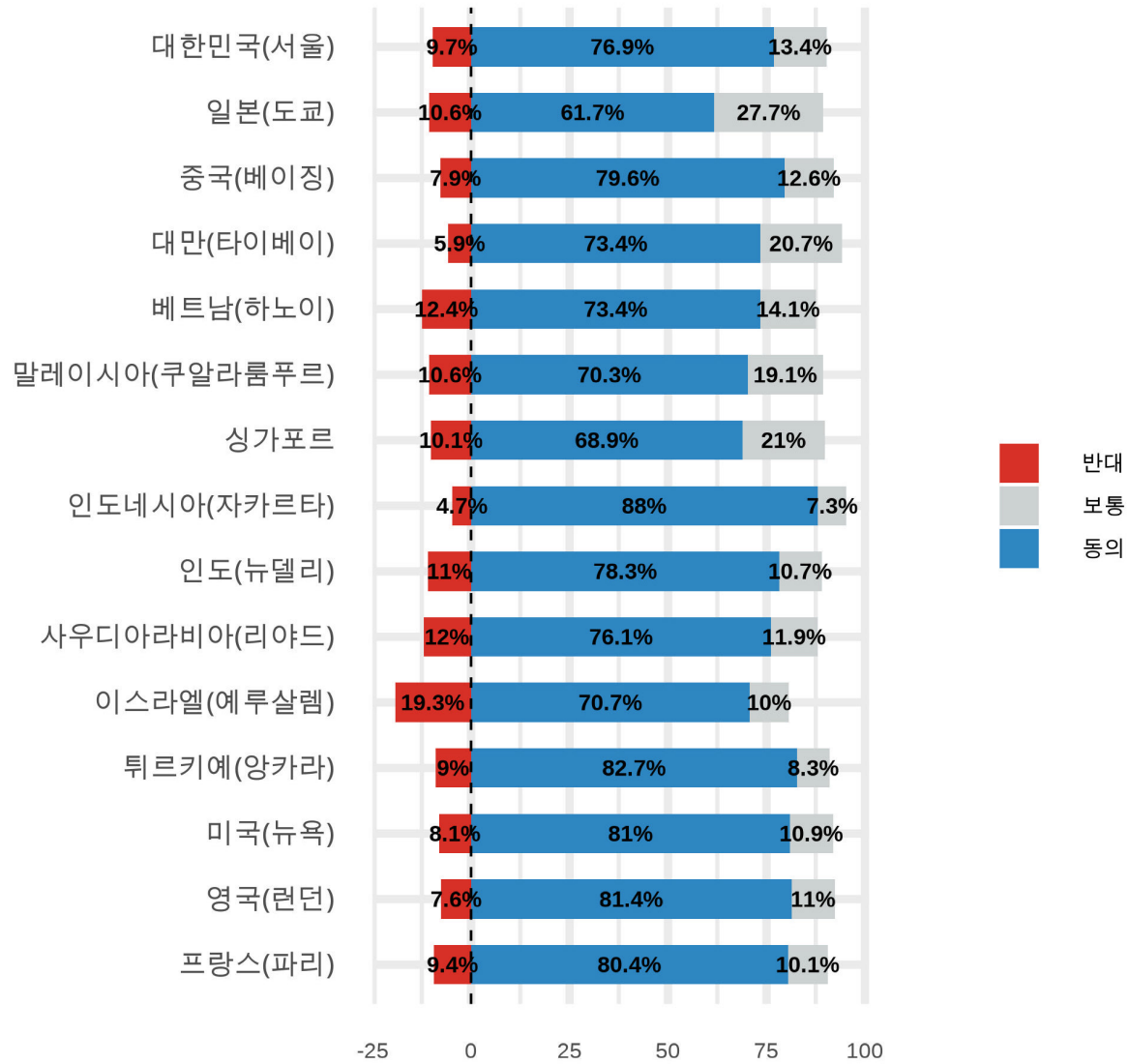
서구





Q10-1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문항은 취업 중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15개 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반대 및 보통 비율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도시의 동의율이 60%를 상회했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네시아(자카르타)(88.0%)로 확인되었으며, 튀르키예(앙카라)(82.71%), 영국(런던)(81.43%), 미국(뉴욕)(81.0%), 프랑스(파리)(80.43%) 등 5개 도시가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도시는 일본(도쿄)(61.71%), 싱가포르(68.8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70.29%) 순이었다. 특히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27.71%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되어 중립적 응답의 비중이 컸다. 반대 비율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19.29%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하노이)(12.43%),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12.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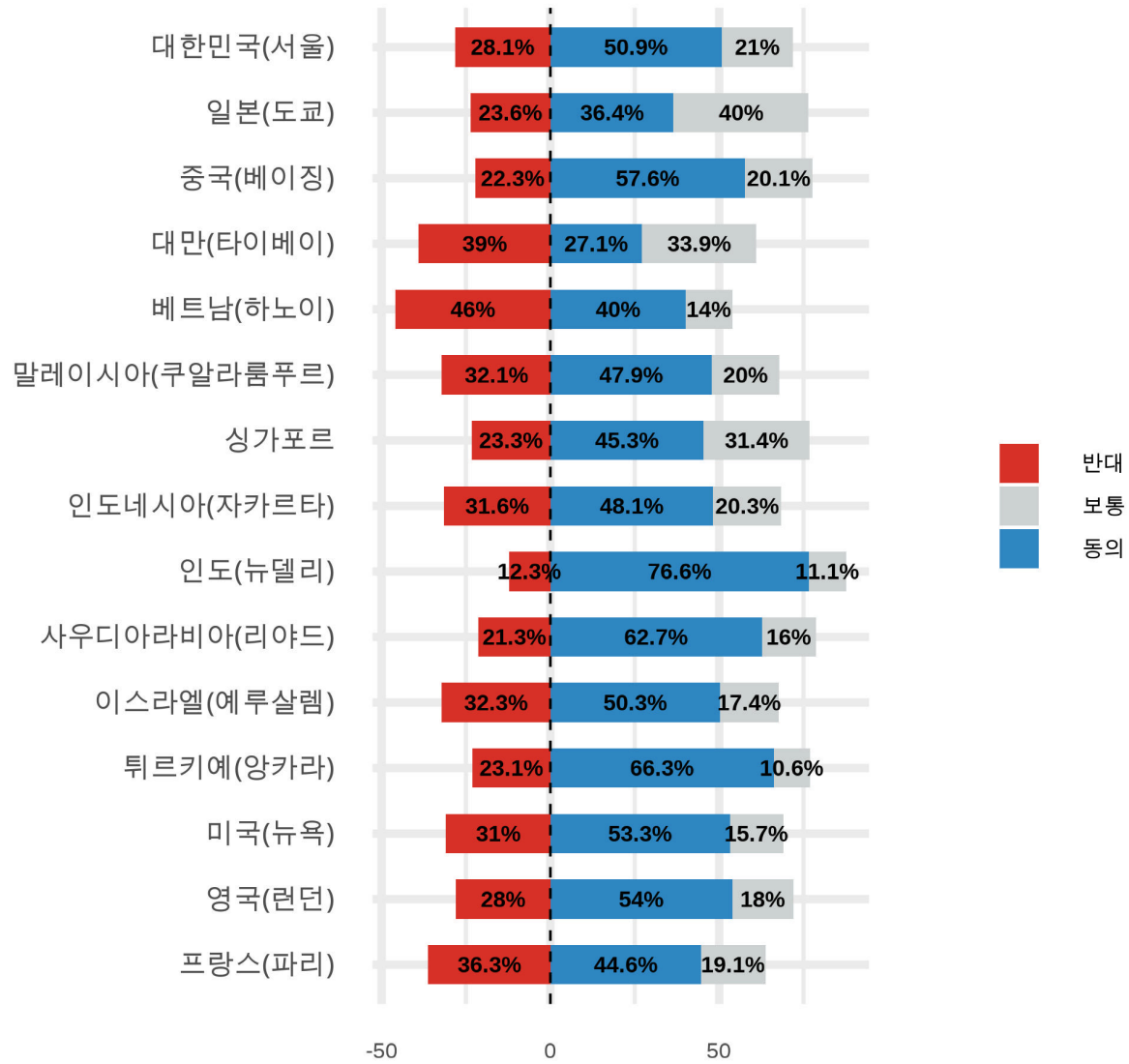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6.86%, 보통 13.43%, 반대 9.71%. 취업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 역량을 높게 긍정한다.
- **일본(도쿄)** 동의 61.71%, 보통 27.71%, 반대 10.57%. 동의가 우세하지만 15개 도시 중 긍정 응답이 가장 낮다.
- **중국(베이징)** 동의 79.57%, 보통 12.57%, 반대 7.86%. 10명 중 8명 가량이 관계의 질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73.43%, 보통 20.71%, 반대 5.86%. 높은 동의율과 함께 신중한 응답 비중도 나타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73.43%, 보통 14.14%, 반대 12.43%. 취업과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0.29%, 보통 19.14%, 반대 10.57%. 70% 이상의 응답자가 관계 유지 가능성에 동의한다.
- **싱가포르** 동의 68.86%, 보통 21.0%, 반대 10.14%. 동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보통 의견도 20%를 차지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8.0%, 보통 7.29%, 반대 4.71%. 조사 도시 중 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강하다.
- **인도(뉴델리)** 동의 78.29%, 보통 10.71%, 반대 11.0%. 대다수가 어머니의 직업이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6.14%, 보통 11.86%, 반대 12.0%. 취업한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적 평가를 내린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70.71%, 보통 10.0%, 반대 19.29%. 동의율이 높지만 반대 비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 큰 편이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2.71%, 보통 8.29%, 반대 9.0%. 80%를 넘는 높은 동의율로 관계의 질을 긍정한다.
- **미국(뉴욕)** 동의 81.0%, 보통 10.86%, 반대 8.14%.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 여부와 무관한 관계 형성을 지지한다.
- **영국(런던)** 동의 81.43%, 보통 11.0%, 반대 7.57%. 관계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낸다.
- **프랑스(파리)** 동의 80.43%, 보통 10.14%, 반대 9.43%. 80% 이상의 시민이 어머니의 직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Q10-2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이 문항은 어머니의 직업 활동이 미취학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도시별로 응답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동의 비율은 27.14%에서 76.57%까지 약 49.43%p의 격차를 보였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뉴델리)로 76.57%를 기록했으며, 튀르키예(앙카라)(66.29%),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2.71%), 중국(베이징)(57.5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만(타이베이)(27.14%)였으며, 일본(도쿄)(36.43%), 베트남(하노이)(40.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하노이)은 반대 비율이 46.0%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대만(타이베이) 역시 반대 비율이 39.0%로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프랑스(파리) 또한 반대 비율이 36.29%로 집계되어 동의 비율(44.57%)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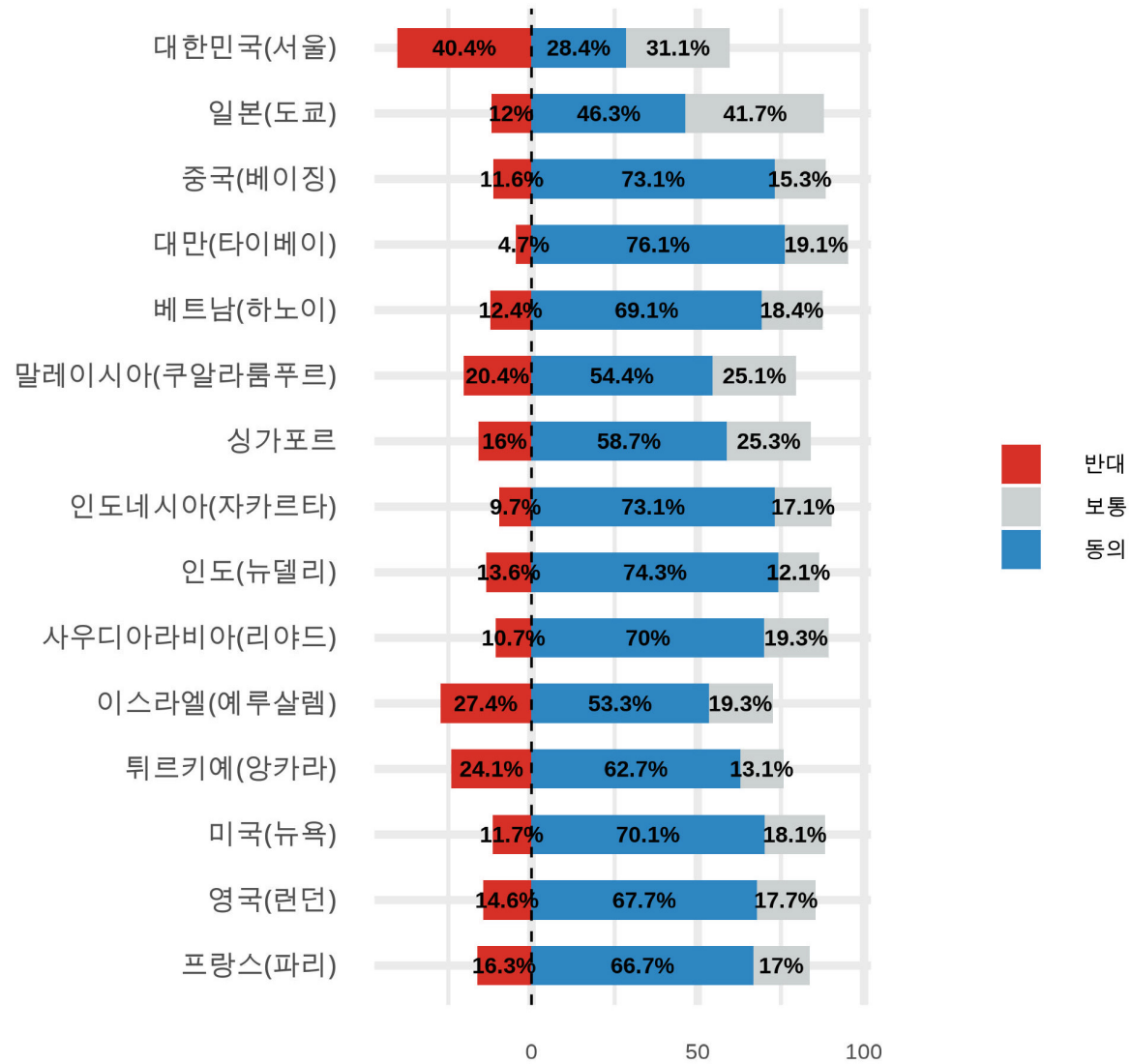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50.86%, 보통 21.0%, 반대 28.14%. 동의가 절반을 차지하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일본(도쿄)** 동의 36.43%, 보통 40.0%, 반대 23.57%. 보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동의 응답은 낮은 축에 속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57.57%, 보통 20.14%, 반대 22.29%. 과반이 자녀의 고생 가능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7.14%, 보통 33.86%, 반대 39.0%. 반대 의견이 동의보다 우세하며 동의율은 전체 최하위이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0.0%, 보통 14.0%, 반대 46.0%. 조사 대상 도시 중 자녀가 고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7.86%, 보통 20.0%, 반대 32.14%. 동의가 주를 이루나 반대 의견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 **싱가포르** 동의 45.29%, 보통 31.43%, 반대 23.29%. 동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보통 응답도 30%를 넘는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8.14%, 보통 20.29%, 반대 31.57%. 동의가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30% 이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76.57%, 보통 11.14%, 반대 12.29%. 15개 도시 중 자녀의 고생 가능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71%, 보통 16.0%, 반대 21.29%. 60%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의 고충에 대해 동의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0.29%, 보통 17.43%, 반대 32.29%. 동의가 절반이지만 반대하는 인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66.29%, 보통 10.57%, 반대 23.14%. 자녀의 고생에 대해 상당히 높은 동의 성향을 나타낸다.
- **미국(뉴욕)** 동의 53.29%, 보통 15.71%, 반대 31.0%. 과반이 동의하며 반대 비율도 30%를 상회한다.
- **영국(런던)** 동의 54.0%, 보통 18.0%, 반대 28.0%.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4분의 1 이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44.57%, 보통 19.14%, 반대 36.29%. 동의와 반대의 격차가 작아 인식이 엇갈리는 편이다.



Q10-3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 만큼 성취감을 준다





이 문항은 가사 노동의 가치와 유급 노동의 성취감을 동일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서울)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만(타이베이)으로 76.14%를 기록했으며, 인도(뉴델리)(74.29%), 중국(베이징)(73.14%), 인도네시아(자카르타)(73.14%), 미국(뉴욕)(70.14%),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70.0%) 등 6개 도시가 70%를 상회했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28.43%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서울은 반대 비율이 40.43%로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유일한 사례였다. 일본(도쿄) 역시 동의 비율이 46.29%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보통 비율이 41.7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 비율은 대한민국(서울)에 이어 이스라엘(예루살렘)(27.43%), 튀르키예(앙카라)(24.14%)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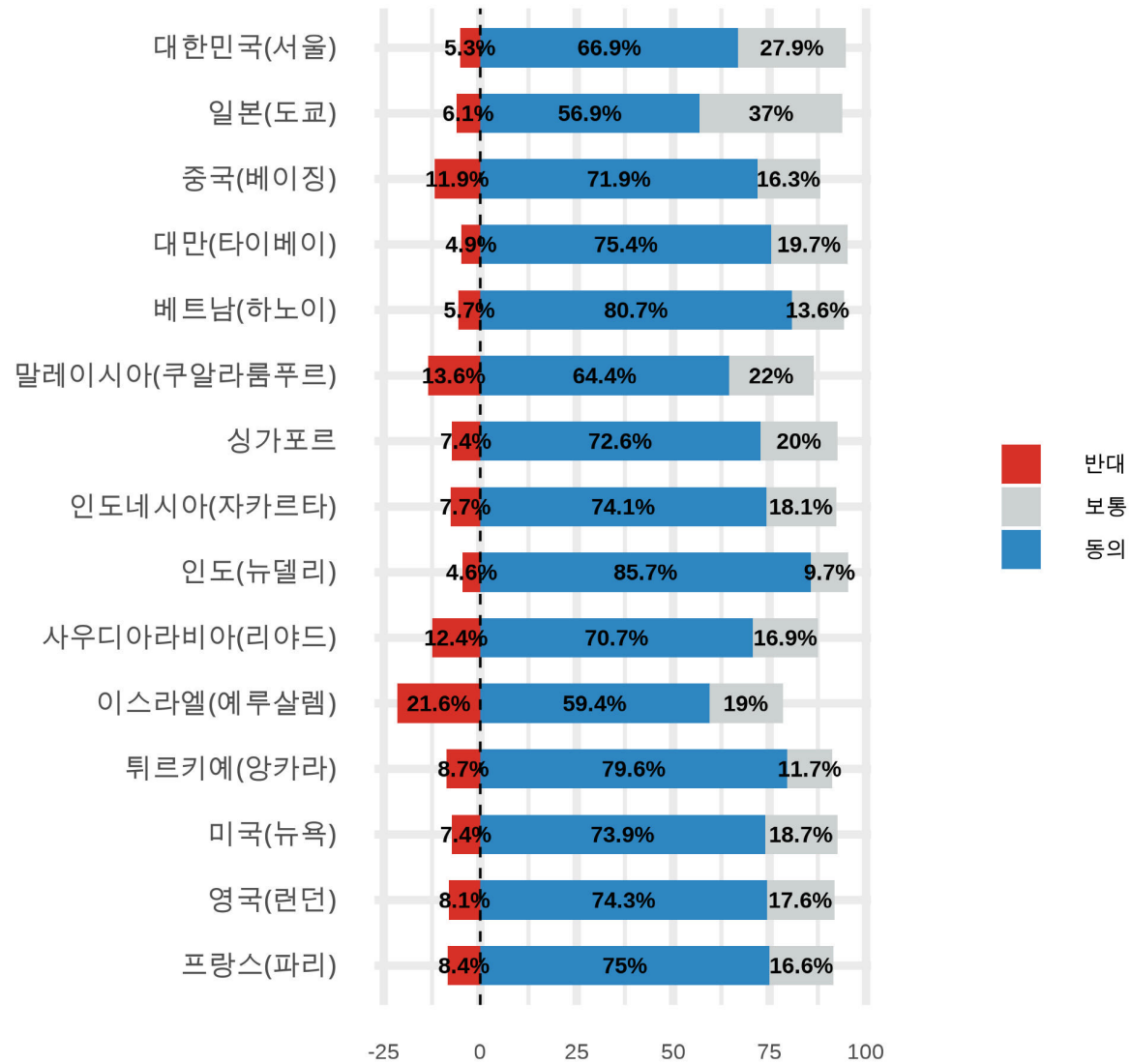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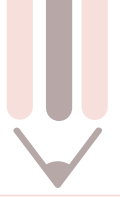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동의 28.43%, 보통 31.14%, 반대 40.43%. 유일하게 반대 응답이 동의보다 높으며 동의율은 최하위이다.
- **일본(도쿄)** 동의 46.29%, 보통 41.71%, 반대 12.0%. 보통 응답 비중이 조사 도시 중 가장 높아 판단이 엇갈린다.
- **중국(베이징)** 동의 73.14%, 보통 15.29%, 반대 11.57%. 주부의 성취감에 대해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76.14%, 보통 19.14%, 반대 4.71%. 조사 대상 도시 중 주부의 성취감을 가장 높게 인정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69.14%, 보통 18.43%, 반대 12.43%. 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로 주부의 가치를 긍정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4.43%, 보통 25.14%, 반대 20.43%. 동의가 과반이며 보통과 반대 의견도 고르게 존재한다.
- **싱가포르** 동의 58.71%, 보통 25.29%, 반대 16.0%. 동의 응답이 주를 이루며 약 60%의 비율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3.14%, 보통 17.14%, 반대 9.71%. 주부와 유급 노동의 성취감을 대등하게 보는 인식이 강하다.
- **인도(뉴델리)** 동의 74.29%, 보통 12.14%, 반대 13.57%. 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매우 높은 성취 가치를 부여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0.0%, 보통 19.29%, 반대 10.71%. 70%의 응답자가 주부의 성취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29%, 보통 19.29%, 반대 27.43%. 과반이 동의하나 반대 의견도 30%에 근접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62.71%, 보통 13.14%, 반대 24.14%. 주부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60%를 상회한다.
- **미국(뉴욕)** 동의 70.14%, 보통 18.14%, 반대 11.71%. 대다수의 시민이 주부의 삶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 **영국(런던)** 동의 67.71%, 보통 17.71%, 반대 14.57%. 긍정적인 성취감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프랑스(파리)** 동의 66.71%, 보통 17.0%, 반대 16.29%. 주부 활동의 성취감을 대다수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Q10-4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이 문항은 가계 소득원에 대한 남녀 공동 기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 15개 도시 모두에서 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뉴델리)로 85.71%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하노이)(80.71%), 튀르키예(앙카라)(79.57%), 대한민국(서울)(66.86%), 일본(도쿄)(56.86%) 등 아시아 도시들 간에도 상당한 수치 차이를 보였다.

동의 비율이 70%대인 도시는 대만(타이베이)(75.43%), 프랑스(파리)(75.0%), 영국(런던)(74.29%), 인도네시아(자카르타)(74.14%), 미국(뉴욕)(73.86%), 싱가포르(72.57%), 중국(베이징)(71.86%),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70.71%)로 집계되었다.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일본(도쿄)(56.86%)과 이스라엘(예루살렘)(59.43%) 역시 과반이 동의했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서울)(27.8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 비율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21.57%로 유일하게 20%를 넘겨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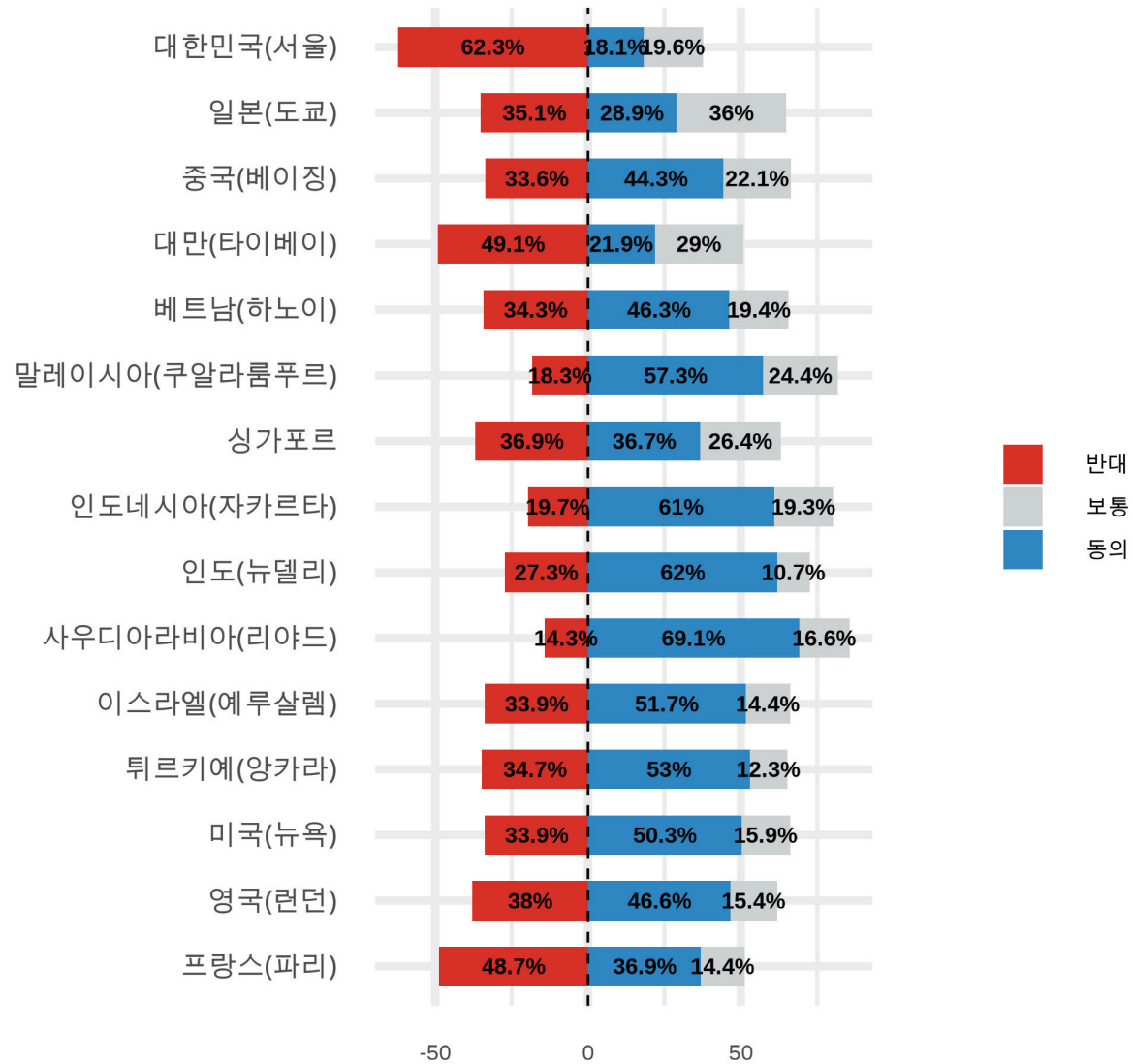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6.86%, 보통 27.86%, 반대 5.29%. 3분의 2 이상이 부양 의무 분담에 긍정하며 보통 의견도 많다.
- **일본(도쿄)** 동의 56.86%, 보통 37.0%, 반대 6.14%. 동의가 우세하지만 보통을 선택한 신중한 응답이 37%에 달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71.86%, 보통 16.29%, 반대 11.86%. 70%가 넘는 비율로 남녀 공동의 경제적 기여를 지지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75.43%, 보통 19.71%, 반대 4.86%.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경제적 파트너십 인식이 강하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0.71%, 보통 13.57%, 반대 5.71%. 80% 이상의 높은 응답률로 공동 부양 의무를 인정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4.43%, 보통 22.0%, 반대 13.57%. 경제 기여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
- **싱가포르** 동의 72.57%, 보통 20.0%, 반대 7.43%. 긍정적인 인식이 70%를 상회하며 반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4.14%, 보통 18.14%, 반대 7.71%. 남녀 모두의 소득 기여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
- **인도(뉴델리)** 동의 85.71%, 보통 9.71%, 반대 4.57%. 조사 대상 도시 중 공동 부양 의무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0.71%, 보통 16.86%, 반대 12.43%. 70%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공동 기여를 당연시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43%, 보통 19.0%, 반대 21.57%. 과반이 동의하며 반대 비율도 20%를 넘는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9.57%, 보통 11.71%, 반대 8.71%.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73.86%, 보통 18.71%, 반대 7.43%. 높은 동의율과 함께 가계 소득 기여의 공정성을 중시한다.
- **영국(런던)** 동의 74.29%, 보통 17.57%, 반대 8.14%. 대다수 시민이 소득 기여 분담에 대해 확고하게 동의한다.
- **프랑스(파리)** 동의 75.0%, 보통 16.57%, 반대 8.43%. 4분의 3 이상의 응답자가 남녀 공동 부양을 지지한다.



Q10-5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이 문항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도시별로 가치관의 대립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문항 중 하나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로 69.14%를 기록했으며, 인도(뉴델리)(62.0%), 인도네시아(자카르타)(61.0%),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57.29%)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18.14%로 15개 도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62.29%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대만(타이베이) 역시 동의 비율 21.86%, 반대 비율 49.14%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프랑스(파리) 또한 반대 비율(48.71%)이 동의 비율(36.86%)을 상회했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28.86%)와 반대(35.14%)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싱가포르 역시 동의(36.71%)와 반대(36.86%)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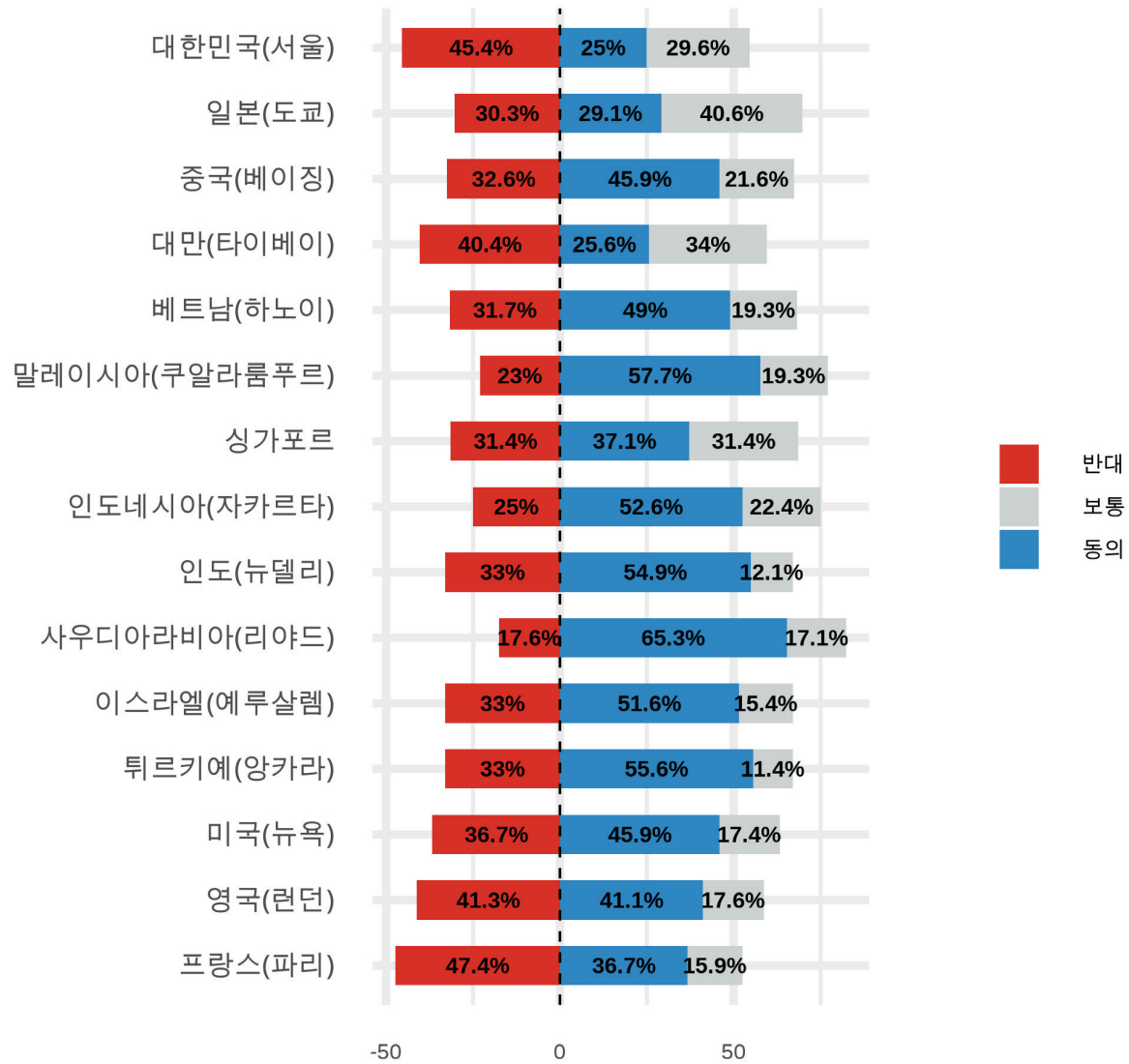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18.14%, 보통 19.57%, 반대 62.29%. 15개 도시 중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강하다.
- **일본(도쿄)** 동의 28.86%, 보통 36.0%, 반대 35.14%. 보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동의와 반대가 엇비슷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44.29%, 보통 22.14%, 반대 33.57%. 동의가 우세하지만 3분의 1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1.86%, 보통 29.0%, 반대 49.14%. 반대 비율이 동의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되었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6.29%, 보통 19.43%, 반대 34.29%. 긍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7.29%, 보통 24.43%, 반대 18.29%.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과반의 시민이 동의한다.
- **싱가포르** 동의 36.71%, 보통 26.43%, 반대 36.86%. 긍정과 부정 인식이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매우 팽팽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1.0%, 보통 19.29%, 반대 19.71%.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전통적 성역할을 긍정한다.
- **인도(뉴델리)** 동의 62.0%, 보통 10.71%, 반대 27.29%. 높은 동의율과 함께 전통적인 분담 구조를 지지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9.14%, 보통 16.57%, 반대 14.29%. 조사 도시 중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1.71%, 보통 14.43%, 반대 33.86%. 동의가 다수이나 반대하는 인구도 3분의 1에 달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3.0%, 보통 12.29%, 반대 34.71%. 과반이 긍정하며 보수적 성역할관이 잔존함을 보여준다.
- **미국(뉴욕)** 동의 50.29%, 보통 15.86%, 반대 33.86%. 절반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형성되어 있다.
- **영국(런던)** 동의 46.57%, 보통 15.43%, 반대 38.0%. 동의가 가장 많지만 반대 의견도 약 40% 수준으로 높다.
- **프랑스(파리)** 동의 36.86%, 보통 14.43%, 반대 48.71%. 반대 비율이 동의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난다.



Q10-6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이 문항은 성별에 따른 정치적 역량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로 65.29%를 기록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57.71%), 튀르키예(앙카라)(55.57%), 인도(뉴델리)(54.86%), 인도네시아(자카르타)(52.57%), 이스라엘(예루살렘)(51.57%) 순으로 과반이 동의했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25.0%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45.43%로 집계되었다. 프랑스(파리)는 반대 비율이 47.43%로 전체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대만(타이베이) 역시 동의 비율 25.57%, 반대 비율 40.43%를 기록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영국(런던) 또한 반대 비율(41.29%)이 동의 비율(41.14%)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40.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싱가포르 역시 동의(37.14%)를 제외한 보통(31.43%)과 반대(31.43%)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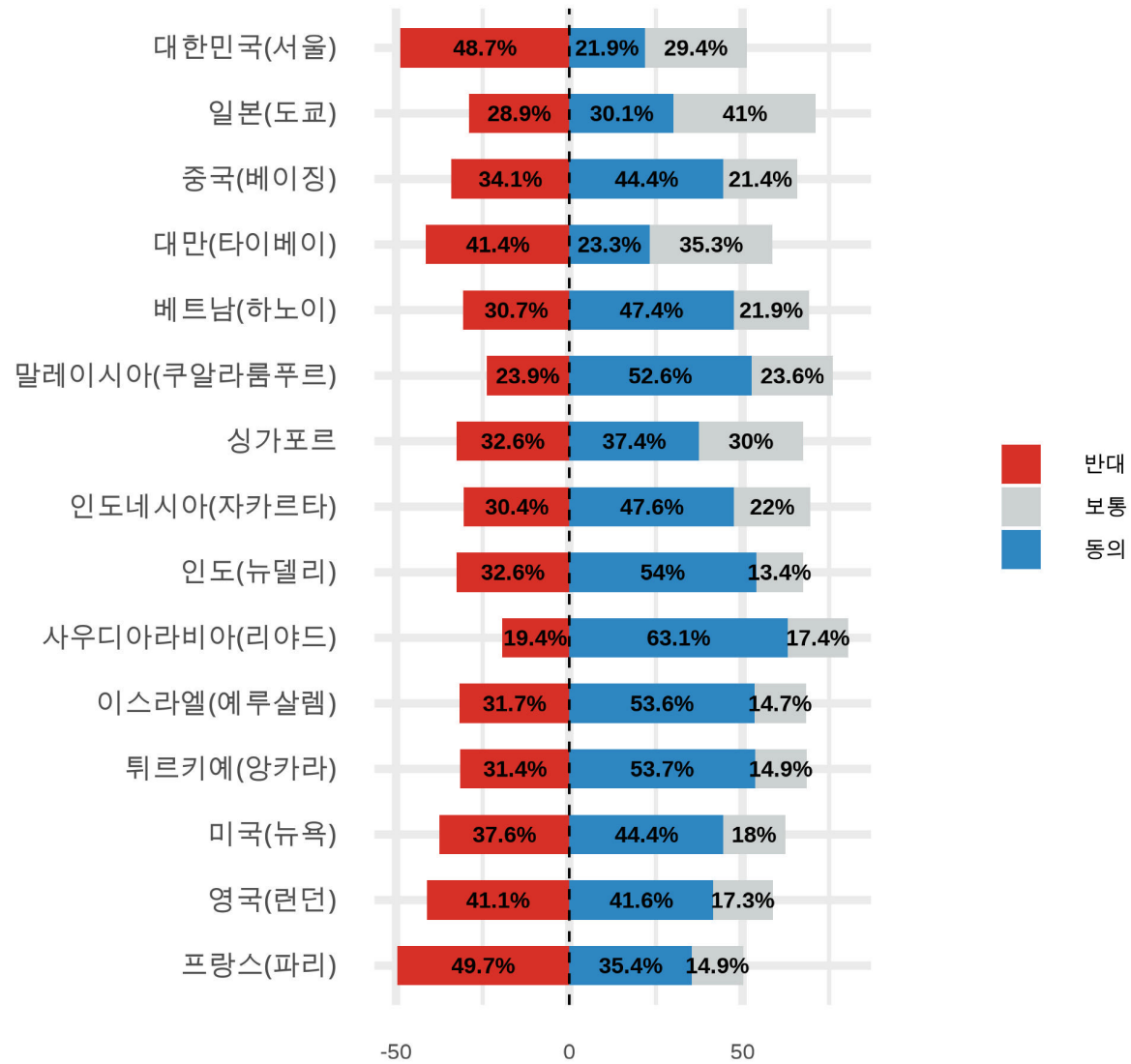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25.0%, 보통 29.57%, 반대 45.43%. 정치 지도자 성별 우위에 대한 동의율이 전체 최하위권이다.
- **일본(도쿄)** 동의 29.14%, 보통 40.57%, 반대 30.29%. 보통 비율이 40%를 넘어 성별 비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 **중국(베이징)** 동의 45.86%, 보통 21.57%, 반대 32.57%. 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반대 의견도 30%를 상회한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5.57%, 보통 34.0%, 반대 40.43%. 반대 응답이 동의보다 15%p 가량 높게 집계되었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9.0%, 보통 19.29%, 반대 31.71%. 동의가 가장 많으며 약 절반 수준의 긍정 응답을 보인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7.71%, 보통 19.29%, 반대 23.0%. 남성 지도자 우위론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나타낸다.
- **싱가포르** 동의 37.14%, 보통 31.43%, 반대 31.43%. 동의가 주류이나 보통과 반대 비율이 오차 없이 동일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2.57%, 보통 22.43%, 반대 25.0%. 과반의 응답자가 남성 지도자의 이점에 동의한다.
- **인도(뉴델리)** 동의 54.86%, 보통 12.14%, 반대 33.0%. 높은 동의율과 함께 남성 정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5.29%, 보통 17.14%, 반대 17.57%. 조사 도시 중 남성 지도자 선호 인식이 가장 강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1.57%, 보통 15.43%, 반대 33.0%. 과반의 긍정 응답과 함께 3분의 1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5.57%, 보통 11.43%, 반대 33.0%. 남성이 더 낫다는 진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낸다.
- **미국(뉴욕)** 동의 45.86%, 보통 17.43%, 반대 36.71%. 동의가 가장 많으나 반대 여론도 팽팽하게 맞선다.
- **영국(런던)** 동의 41.14%, 보통 17.57%, 반대 41.29%. 반대 응답이 소수점 차이로 동의보다 높게 나타난다.
- **프랑스(파리)** 동의 36.71%, 보통 15.86%, 반대 47.43%. 조사 대상 중 남성 지도자 우위론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다.



Q10-7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문항은 비즈니스 경영 역량에 대한 성별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인 응답 경향은 정치 지도자 문항(Q10_6)과 유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동의 비율 63.14%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뉴델리)(54.0%), 튀르키예(앙카라)(53.71%), 이스라엘(예루살렘)(53.5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52.57%) 순으로 동의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21.86%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48.71%로 나타났다. 프랑스(파리)는 반대 비율이 49.71%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대만(타이베이)(41.43%), 영국(런던)(41.14%) 등에서도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우세했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싱가포르 역시 보통 비율(30.0%)을 포함하여 동의(37.43%)와 반대(32.57%)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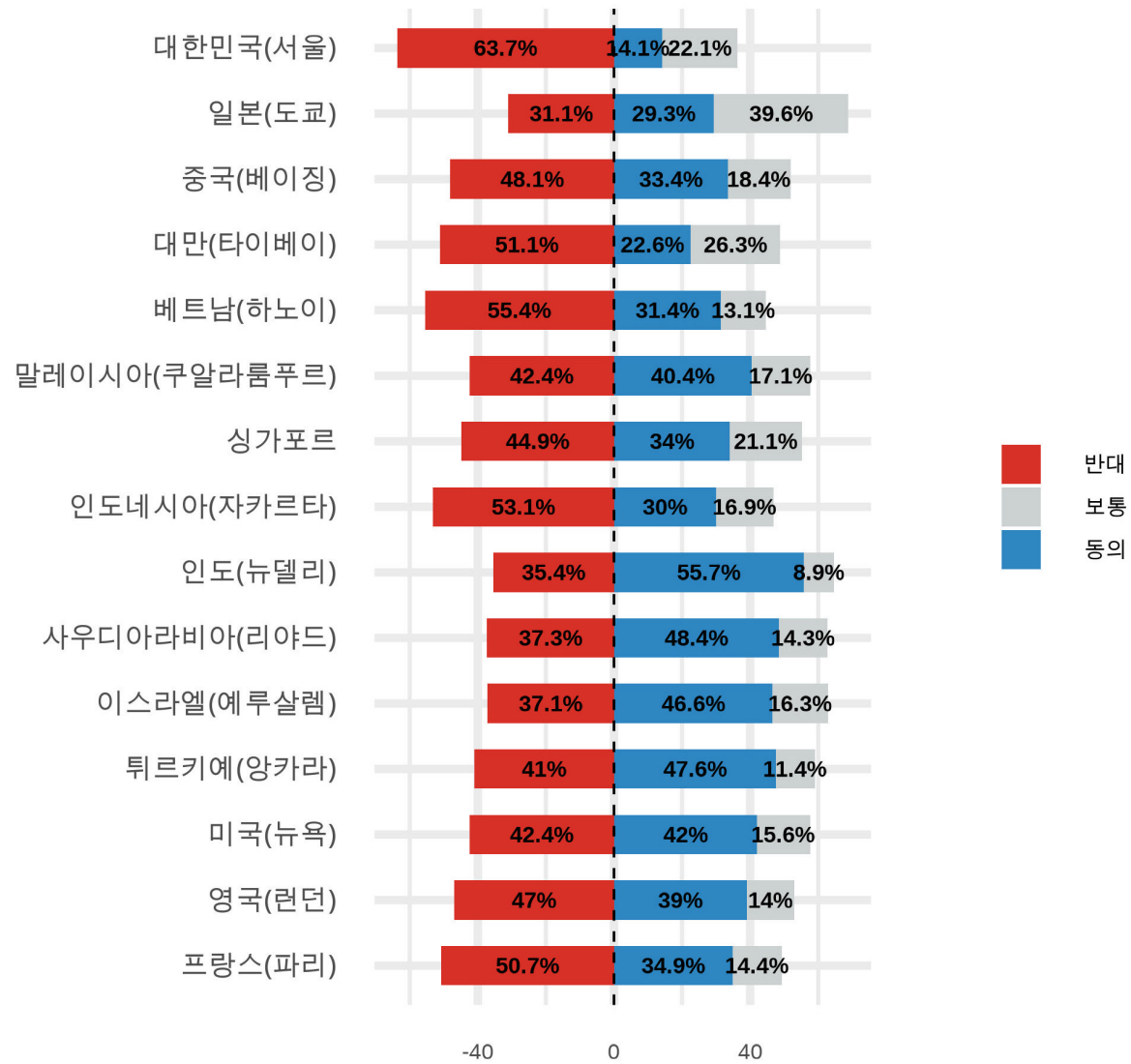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21.86%, 보통 29.43%, 반대 48.71%. 동의 응답이 15개 도시 중 가장 낮으며 반대가 지배적이다.
- **일본(도쿄)** 동의 30.14%, 보통 41.0%, 반대 28.86%. 보통 비율이 40%를 넘으며 긍정과 부정 인식이 분산되어 있다.
- **중국(베이징)** 동의 44.43%, 보통 21.43%, 반대 34.14%. 동의가 다수이나 반대 의견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3.29%, 보통 35.29%, 반대 41.43%. 반대 응답이 가장 많으며 신중한 태도도 엿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7.43%, 보통 21.86%, 반대 30.71%. 동의율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며 긍정 인식이 높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2.57%, 보통 23.57%, 반대 23.86%. 10명 중 5명 이상이 남성 경영의 이점에 동의한다.
- **싱가포르** 동의 37.43%, 보통 30.0%, 반대 32.57%. 동의가 가장 많지만 의견 차이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7.57%, 보통 22.0%, 반대 30.43%. 동의 비율이 우세하며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 **인도(뉴델리)** 동의 54.0%, 보통 13.43%, 반대 32.57%. 과반의 동의율로 남성 중심의 경영 역량을 지지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3.14%, 보통 17.43%, 반대 19.43%. 남성 경영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성향을 나타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57%, 보통 14.71%, 반대 31.71%. 동의 응답이 우세하며 약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3.71%, 보통 14.86%, 반대 31.43%. 과반이 동의하며 높은 긍정적 수치를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44.43%, 보통 18.0%, 반대 37.57%. 동의가 1순위이나 반대 의견도 40%에 육박한다.
- **영국(런던)** 동의 41.57%, 보통 17.29%, 반대 41.14%. 동의와 반대의 비율이 거의 차이 없이 팽팽하게 갈린다.
- **프랑스(파리)** 동의 35.43%, 보통 14.86%, 반대 49.71%. 조사 도시 중 남성 경영 우위론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다.



Q10-8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이 문항은 고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15개 도시 중 인도(뉴델리)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반대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거나 동의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도(뉴델리)는 동의 비율이 55.71%로 가장 높았으며 과반이 찬성한 유일한 도시였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14.14%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63.71%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베트남(하노이)(55.43%), 인도네시아(자카르타)(53.14%), 대만(타이베이)(51.14%), 프랑스(파리)(50.71%) 등 5개 도시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일본(도쿄)은 동의(29.29%)와 반대(31.14%)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보통 응답(39.57%)이 가장 높았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는 동의(40.43%)와 반대(42.43%)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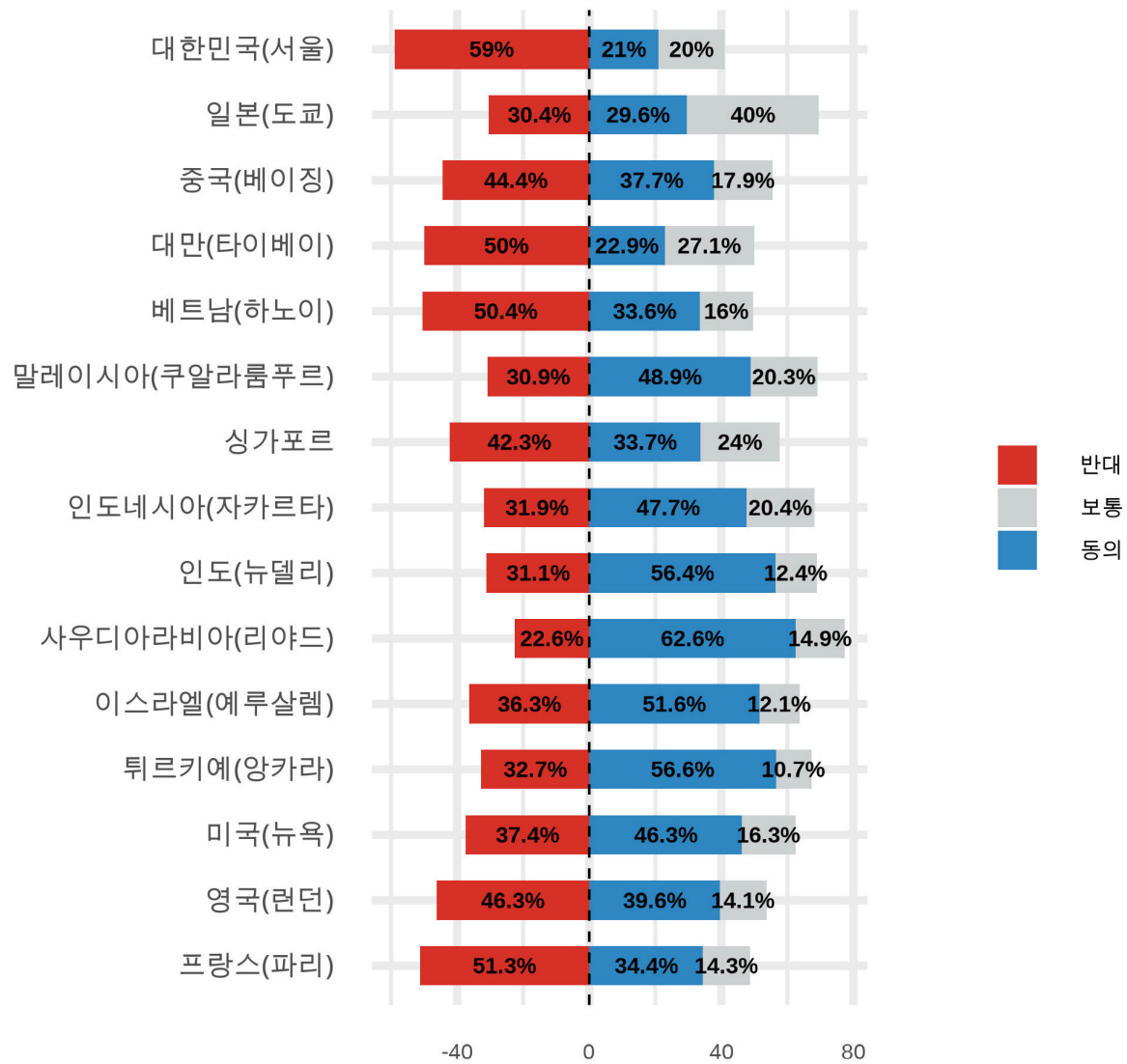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14.14%, 보통 22.14%, 반대 63.71%. 동의율이 최하위이며 교육 차별에 대한 반대가 가장 강하다.
- **일본(도쿄)** 동의 29.29%, 보통 39.57%, 반대 31.14%. 보통 비율이 40%에 달해 성별 중요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33.43%, 보통 18.43%, 반대 48.14%. 반대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동의율도 낮은 편이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2.57%, 보통 26.29%, 반대 51.14%.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으며 성별 차별에 비판적이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31.43%, 보통 13.14%, 반대 55.43%.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학 교육의 평등을 지지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0.43%, 보통 17.14%, 반대 42.43%. 반대가 근소하게 높지만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 **싱가포르** 동의 34.0%, 보통 21.14%, 반대 44.86%.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약 절반 수준에 근접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30.0%, 보통 16.86%, 반대 53.14%. 과반의 응답자가 남성 교육 우위론에 반대한다.
- **인도(뉴델리)** 동의 55.71%, 보통 8.86%, 반대 35.43%. 조사 대상 도시 중 교육 차별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48.43%, 보통 14.29%, 반대 37.29%. 동의가 1순위이나 반대 의견도 상당히 존재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6.57%, 보통 16.29%, 반대 3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인식이 나뉘어 있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47.57%, 보통 11.43%, 반대 41.0%. 동의가 우세한 가운데 반대 비율도 40%를 넘는다.
- **미국(뉴욕)** 동의 42.0%, 보통 15.57%, 반대 42.43%. 동의와 반대 응답의 비중이 소수점 단위로 팽팽하다.
- **영국(런던)** 동의 39.0%, 보통 14.0%, 반대 47.0%. 반대 응답이 주를 이루며 동의 비율을 앞선다.
- **프랑스(파리)** 동의 34.86%, 보통 14.43%, 반대 50.71%. 반대 비율이 과반에 달하며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한다.



Q10-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 문항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고용 우선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도시별 응답 분포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동의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2.57%)에서 가장 높았고, 인도(뉴델리)(56.43%), 튀르키예(앙카라)(56.57%), 이스라엘(예루살렘)(51.57%) 순으로 과반이 동의했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 21.0%, 반대 비율 59.0%로 집계되어 반대 응답이 가장 우세했다. 프랑스(파리)(51.29%), 베트남(하노이)(50.43%), 대만(타이베이)(50.0%) 등 4개 도시에서 반대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런던)(46.29%)과 미국(뉴욕)(37.43%) 등 서구권 도시에서도 반대 비율이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는 동의 비율 48.86%로 조사 대상 중 중위권의 동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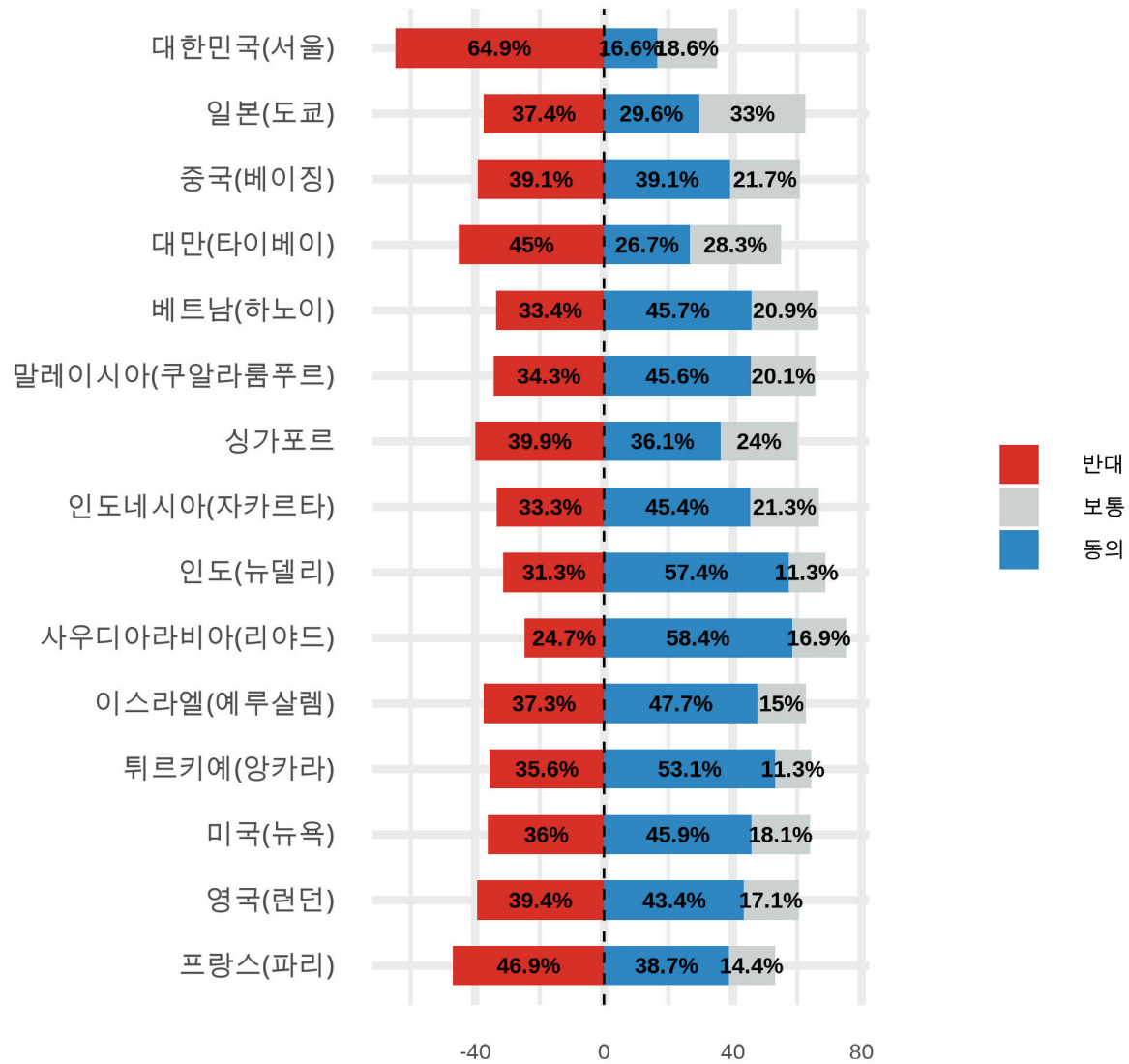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21.0%, 보통 20.0%, 반대 59.0%. 15개 도시 중 고용 차별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다.
- **일본(도쿄)** 동의 29.57%, 보통 40.0%, 반대 30.43%. 보통 비율이 40%로 가장 높으며 긍정과 부정 의견이 대등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37.71%, 보통 17.86%, 반대 44.43%.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동의보다 6.72%p 높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2.86%, 보통 27.14%, 반대 50.0%. 정확히 절반의 응답자가 성별 우선 고용에 반대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33.57%, 보통 16.0%, 반대 50.43%. 반대 의견이 과반을 기록하며 고용 평등을 지지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8.86%, 보통 20.29%, 반대 30.86%. 동의가 우세하며 약 절반 정도가 수긍한다.
- **싱가포르** 동의 33.71%, 보통 24.0%, 반대 42.29%. 반대 의견이 40%를 넘어 동의보다 지배적이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7.71%, 보통 20.43%, 반대 31.86%. 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 **인도(뉴델리)** 동의 56.43%, 보통 12.43%, 반대 31.14%. 과반이 남성 우선 고용에 찬성하는 보수적 경향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57%, 보통 14.86%, 반대 22.57%. 조사 도시 중 남성 고용 우선권에 가장 강하게 동의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1.57%, 보통 12.14%, 반대 36.29%. 긍정 인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부정 시각도 존재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6.57%, 보통 10.71%, 반대 32.71%. 높은 동의율로 남성의 경제적 우선권을 인정한다.
- **미국(뉴욕)** 동의 46.29%, 보통 16.29%, 반대 37.43%. 동의가 우세하나 반대 의견도 40%에 가깝다.
- **영국(런던)** 동의 39.57%, 보통 14.14%, 반대 46.29%. 반대 비율이 동의보다 높게 나타나 고용 평등에 가중치를 둔다.
- **프랑스(파리)** 동의 34.43%, 보통 14.29%, 반대 51.29%. 과반이 고용 차별에 반대하며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Q10-10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문항은 부부 간 소득 격차(아내의 소득 우위)가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58.43%), 인도(뉴델리)(57.43%), 튀르키예(앙카라)(53.14%) 등 3개 도시에서 과반의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16.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64.86%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프랑스(파리) 역시 반대 비율이 46.86%로 동의 비율(38.71%)보다 우세했다. 중국(베이징)은 동의와 반대 비율이 각각 39.14%로 동일하게 나타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33.0%였으며 동의(29.57%)와 반대(37.43%)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싱가포르와 대만(타이베이) 역시 반대 비율이 각각 39.86%, 45.0%로 집계되어 동의 비율을 상회했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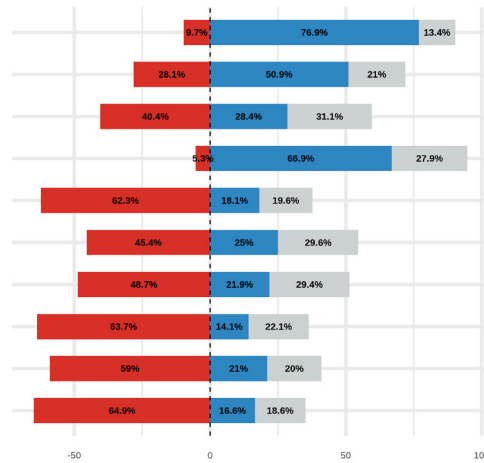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동의 16.57%, 보통 18.57%, 반대 64.86%. 여성의 고소득을 문제시하는 시각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한다.
- **일본(도쿄)** 동의 29.57%, 보통 33.0%, 반대 37.43%. 반대가 가장 많지만 의견이 세 방향으로 고르게 나뉘어 있다.
- **중국(베이징)** 동의 39.14%, 보통 21.71%, 반대 39.14%. 동의와 반대 비율이 소수점까지 동일하여 인식이 팽팽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6.71%, 보통 28.29%, 반대 45.0%.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며 동의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5.71%, 보통 20.86%, 반대 33.43%. 동의가 가장 많으며 긍정적 우려가 반대보다 높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5.57%, 보통 20.14%, 반대 34.29%. 동의 의견이 주류이며 약 45%의 응답률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36.14%, 보통 24.0%, 반대 39.86%. 반대 의견이 가장 많으나 동의 및 보통과의 격차가 작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5.43%, 보통 21.29%, 반대 33.29%. 여성의 더 높은 소득에 대해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인도(뉴델리)** 동의 57.43%, 보통 11.29%, 반대 31.29%.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여성의 고소득으로 인한 문제를 우려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8.43%, 보통 16.86%, 반대 24.71%. 조사 도시 중 해당 진술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7.71%, 보통 15.0%, 반대 37.29%. 동의 응답이 1순위이며 반대 의견도 상당한 비중이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3.14%, 보통 11.29%, 반대 35.57%. 과반이 여성의 고소득 시 발생할 갈등 가능성에 동의한다.
- **미국(뉴욕)** 동의 45.86%, 보통 18.14%, 반대 36.0%.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뒤를 잇는다.
- **영국(런던)** 동의 43.43%, 보통 17.14%, 반대 39.43%. 동의와 반대의 차이가 4%p 내외로 비교적 팽팽하다.
- **프랑스(파리)** 동의 38.71%, 보통 14.43%, 반대 46.86%.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여성의 소득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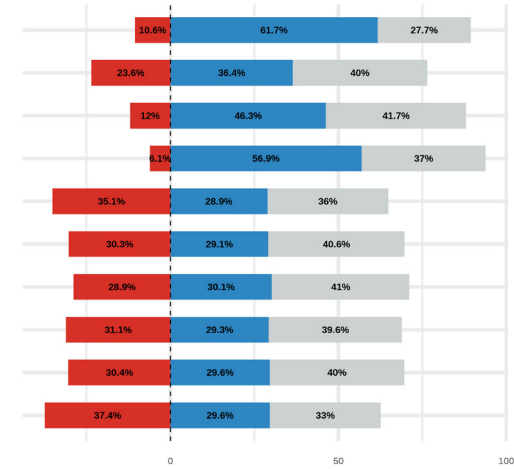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북아시아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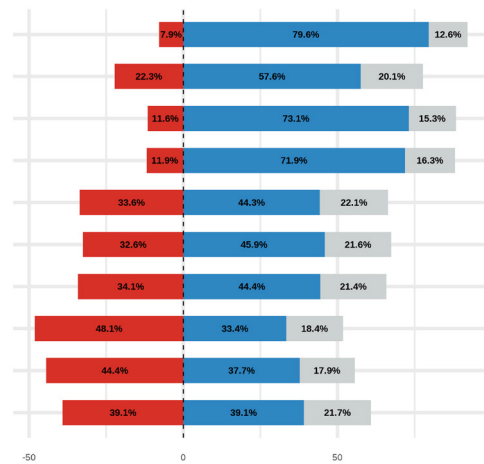


대한민국(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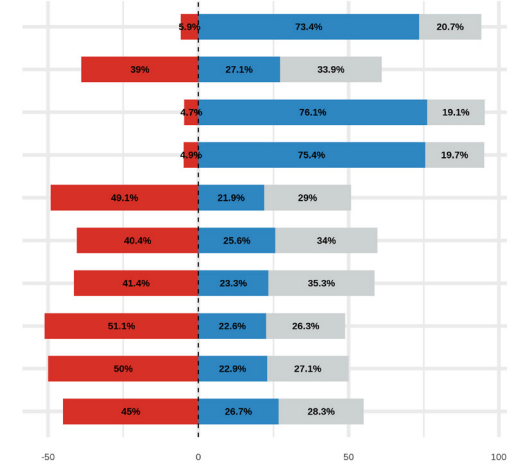


일본(도쿄)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베이징)



대만(타이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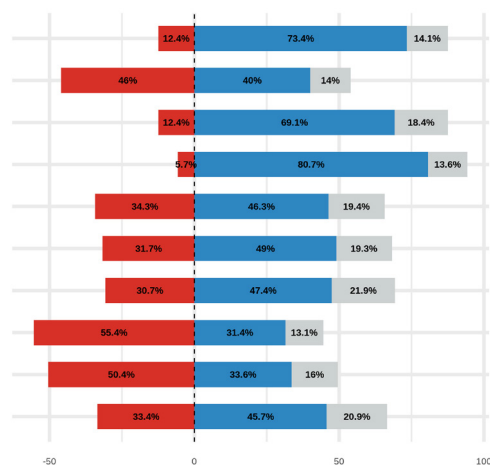
■ 동의
■ 보통
■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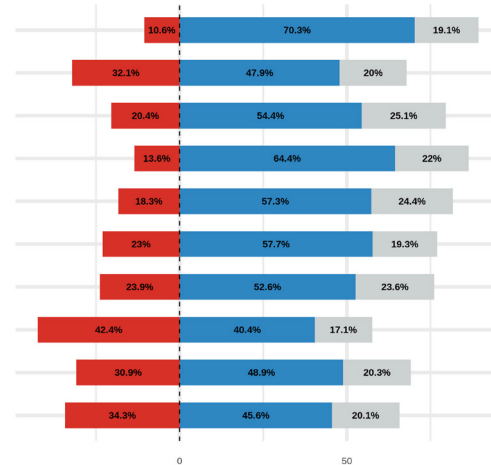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남아시아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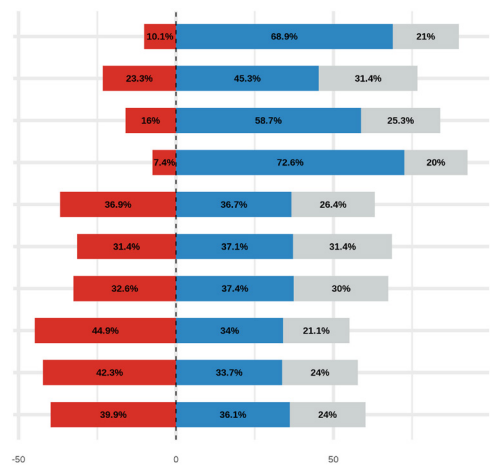


베트남(하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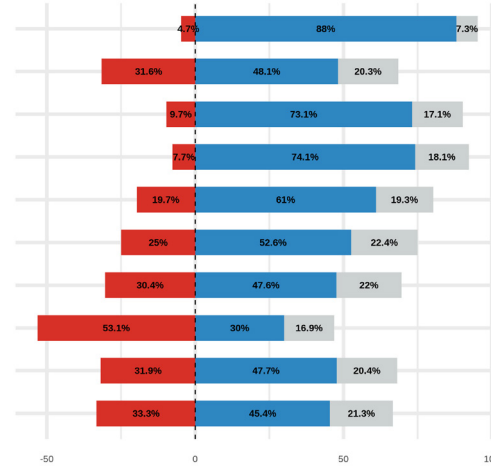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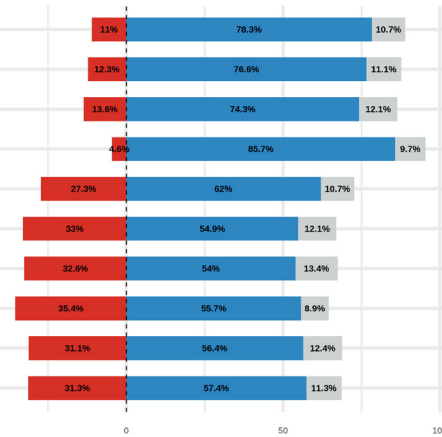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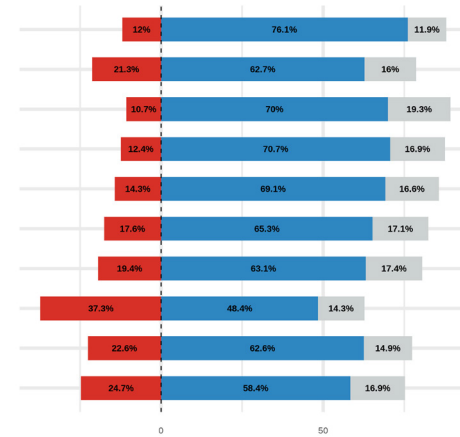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서·남아시아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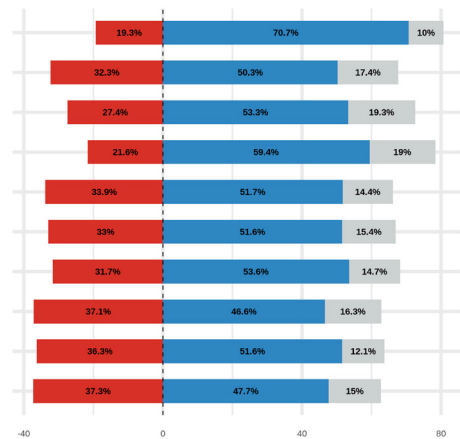


인도(뉴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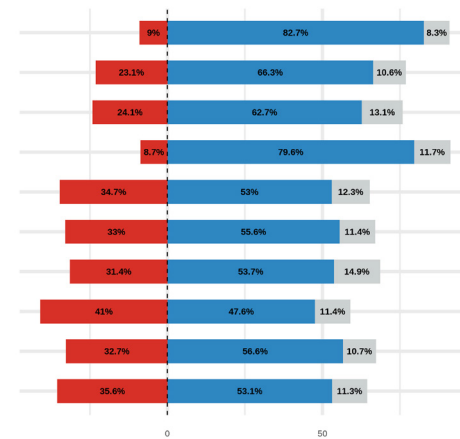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스라엘(예루살렘)



튀르키예(안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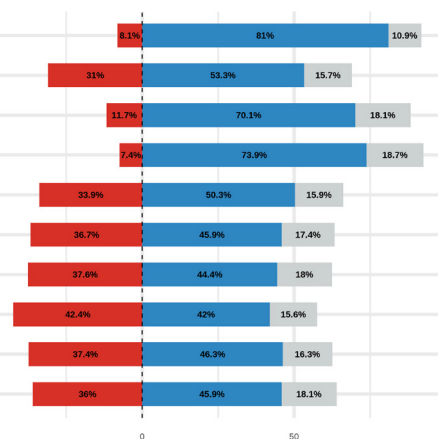
동의
보통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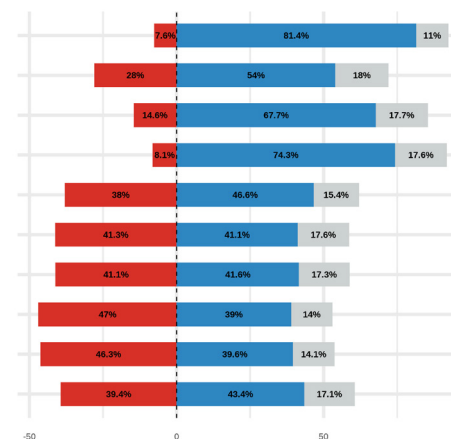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서구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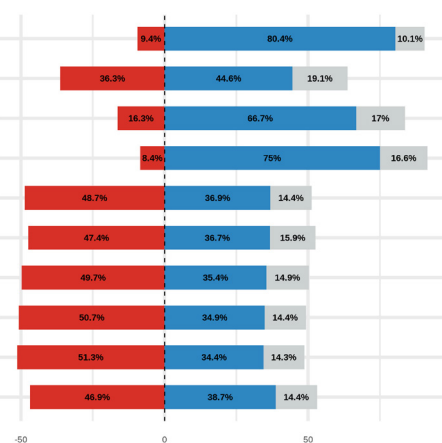


미국(뉴욕)



영국(런던)

- 직업이 있는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 미취학 아동은 고생을 하기 쉽다
- 주부가 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만큼 성취감을 준다
- 남자와 여자 모두 가구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의 일은 가족과 집을 돌보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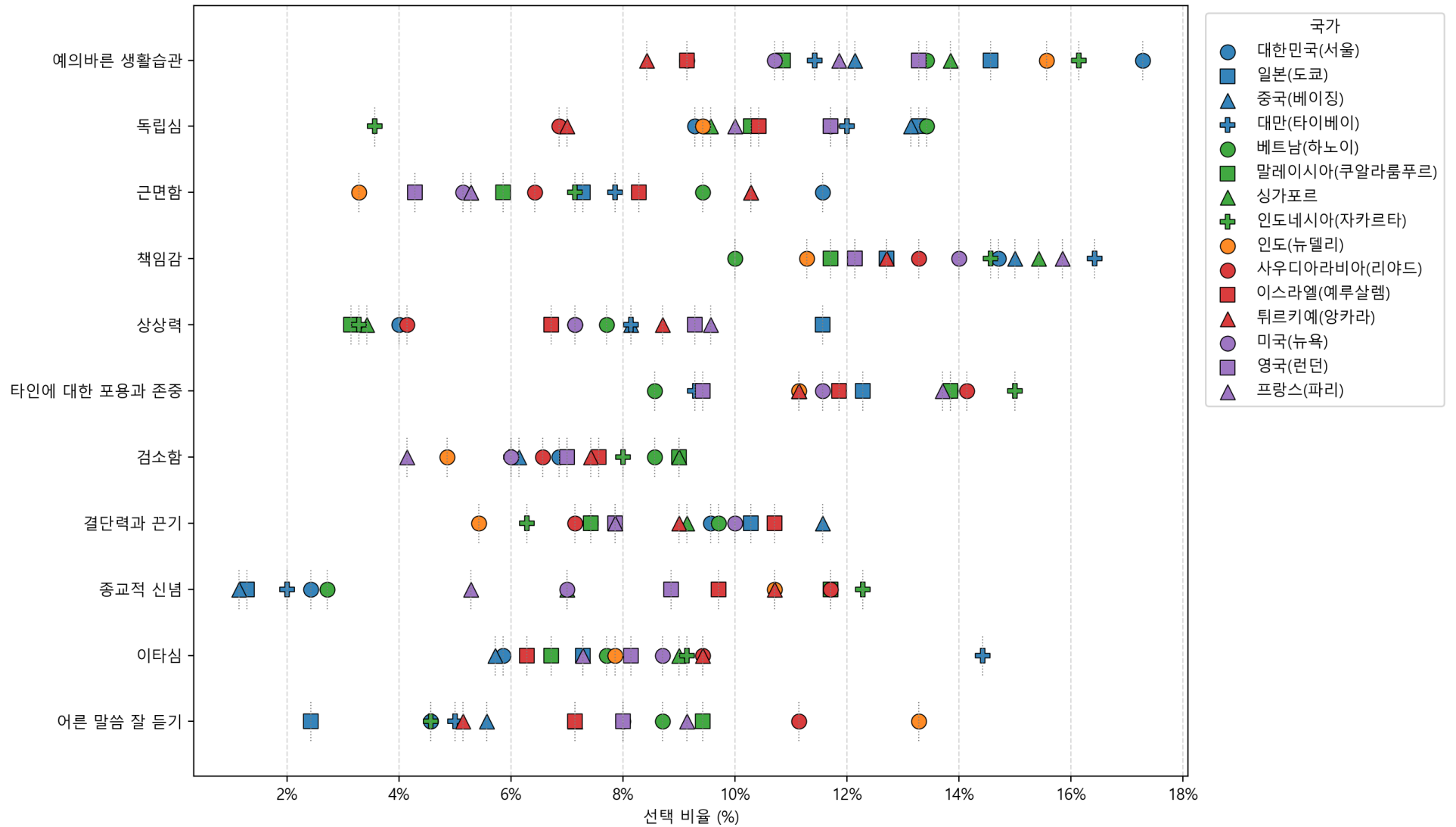
■ 동의
■ 보통
■ 반대



Q12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이 문항은 예의, 독립심, 책임감 등 11가지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과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가장 보편적으로 중시되는 가치임이 확인되었지만, 도시별로 최우선 순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1.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1순위로 꼽은 도시

아시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예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대한민국(서울)은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선택한 비율이 17.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예절이 아이 양육에 있어 여전히 최우선 가치임을 보여준다. 서울에서는 예의에 이어 책임감(14.71%),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13.86%), 근면함(11.57%), 결단력과 끈기(9.57%)가 상위 5개 자질로 꼽혔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16.14%), 인도(뉴델리)(15.57%), 일본(도쿄)(14.57%), 베트남(하노이)(13.43%)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예의를 1순위로 꼽았다.

서구권에서는 유일하게 영국(런던)(13.29%)이 예의를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선택해, 전통적인 신사도의 나라다운 면모를 보였다. 런던은 예의 다음으로 책임감(12.14%), 독립심(11.71%),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9.43%), 상상력(9.29%)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 '책임감'을 1순위로 꼽은 도시

개인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책임감'은 서구 도시들과 일부 아시아/중동 도시에서 최우선 가치로 꼽혔다.

대만(타이베이)(16.43%), 프랑스(파리)(15.86%), 싱가포르(15.43%), 중국(베이징)(15.00%), 미국(뉴욕)(14.00%), 튀르키예(앙카라)(12.71%), 이스라엘(예루살렘)(12.14%) 등 가장 많은 도시(7곳)에서 책임감을 1위로 선택했다.

대만(타이베이)은 책임감에 이어 이타심(14.43%), 독립심(12.00%), 예의바른 생활습관(11.43%),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9.29%)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이타심'이 상위권에 랭크된 점이 독특하다.

미국(뉴욕)은 책임감 다음으로 독립심(11.71%),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11.57%), 예의바른 생활습관(10.71%), 결단력과 끈기(10.00%)를 중요시했다.

3.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1순위로 꼽은 도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도시들에서는 포용과 존중이 최우선 가치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14.14%)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13.86%)가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1순위로 꼽았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는 포용과 존중에 이어 책임감(13.29%), 종교적 신념(11.71%), 어른 말씀 잘 듣기(11.14%), 이타심(9.43%)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는 포용과 존중 다음으로 책임감(11.71%)과 종교적 신념(11.71%)을 동률로 꼽았으며, 예의바른 생활습관(10.86%), 독립심(10.29%)이 뒤를 이었다.

4. 도시별 독특한 특징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상위 3위 안에 포함되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도 종교적 신념은 5위 안에 들었다.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베트남(하노이), 미국(뉴욕), 영국(런던)에서는 '독립심'이 2~3위로 꼽혀, 자녀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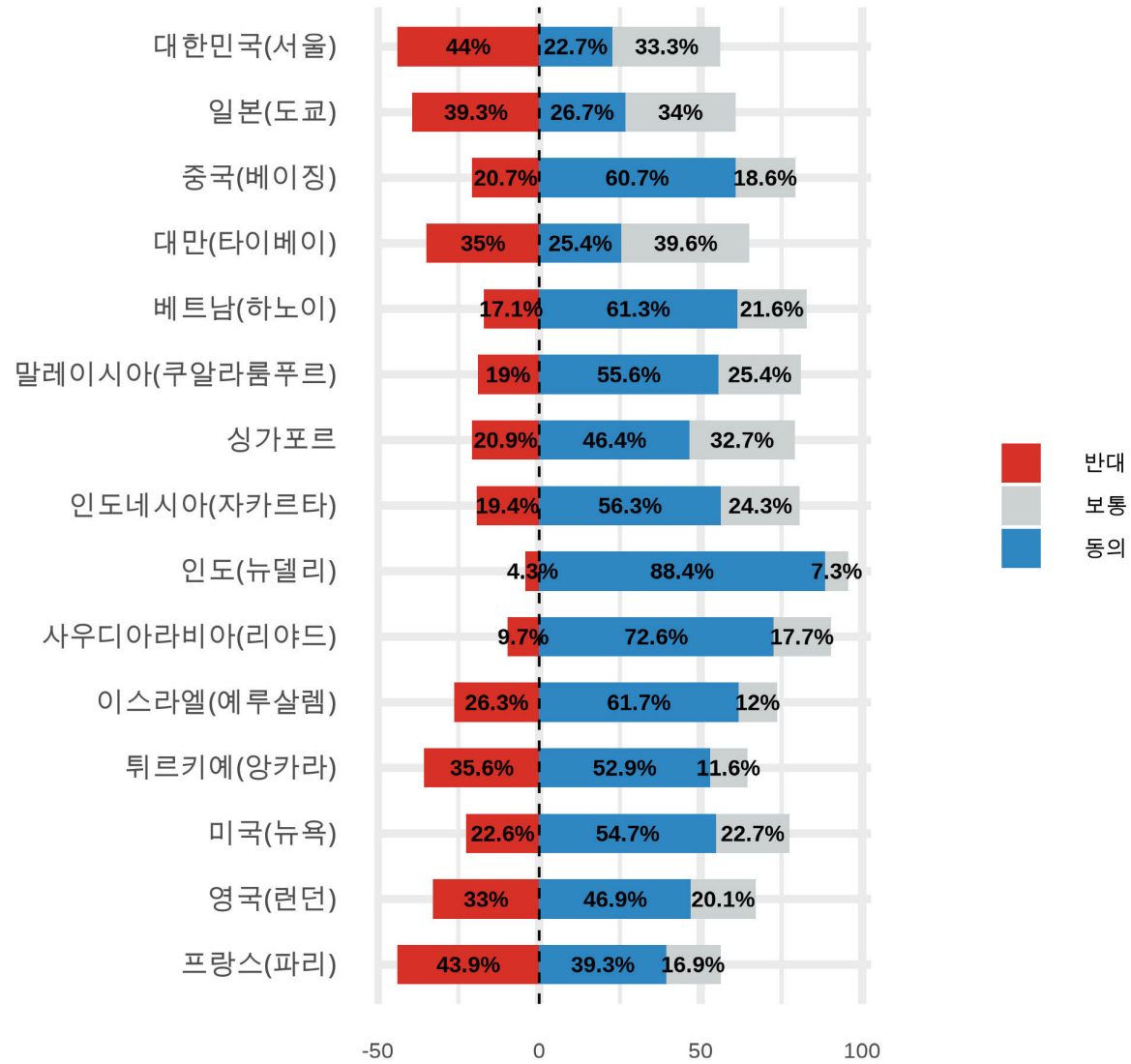
일본(도쿄)과 영국(런던), 프랑스(파리)에서는 '상상력'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었다.

인도(뉴델리)(13.29%)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11.14%)에서는 '어른 말씀 잘 듣기'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나 어른 공경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Q13-1

부모님이 나이드시면 자녀가 결혼했더라도 한 집에 살며 보살펴 드려야 한다





이 문항은 노부모 부양 방식 중 하나인 '동거 부양'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뉴델리)로 88.43%를 기록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72.57%), 이스라엘(예루살렘)(61.71%), 베트남(하노이)(61.29%), 중국(베이징)(60.71%) 순으로 6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한민국(서울)으로 22.71%에 머물렀다.

반대 비율은 대한민국(서울)이 44.0%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프랑스(파리)(43.86%), 일본(도쿄)(39.29%)이 그 뒤를 이었다. 보통 비율은 대만(타이베이)(39.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쿄)(34.0%), 대한민국(서울)(33.29%) 순으로 중립적 응답의 비중이 컸다.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서구권 도시들에서 동거 부양에 대한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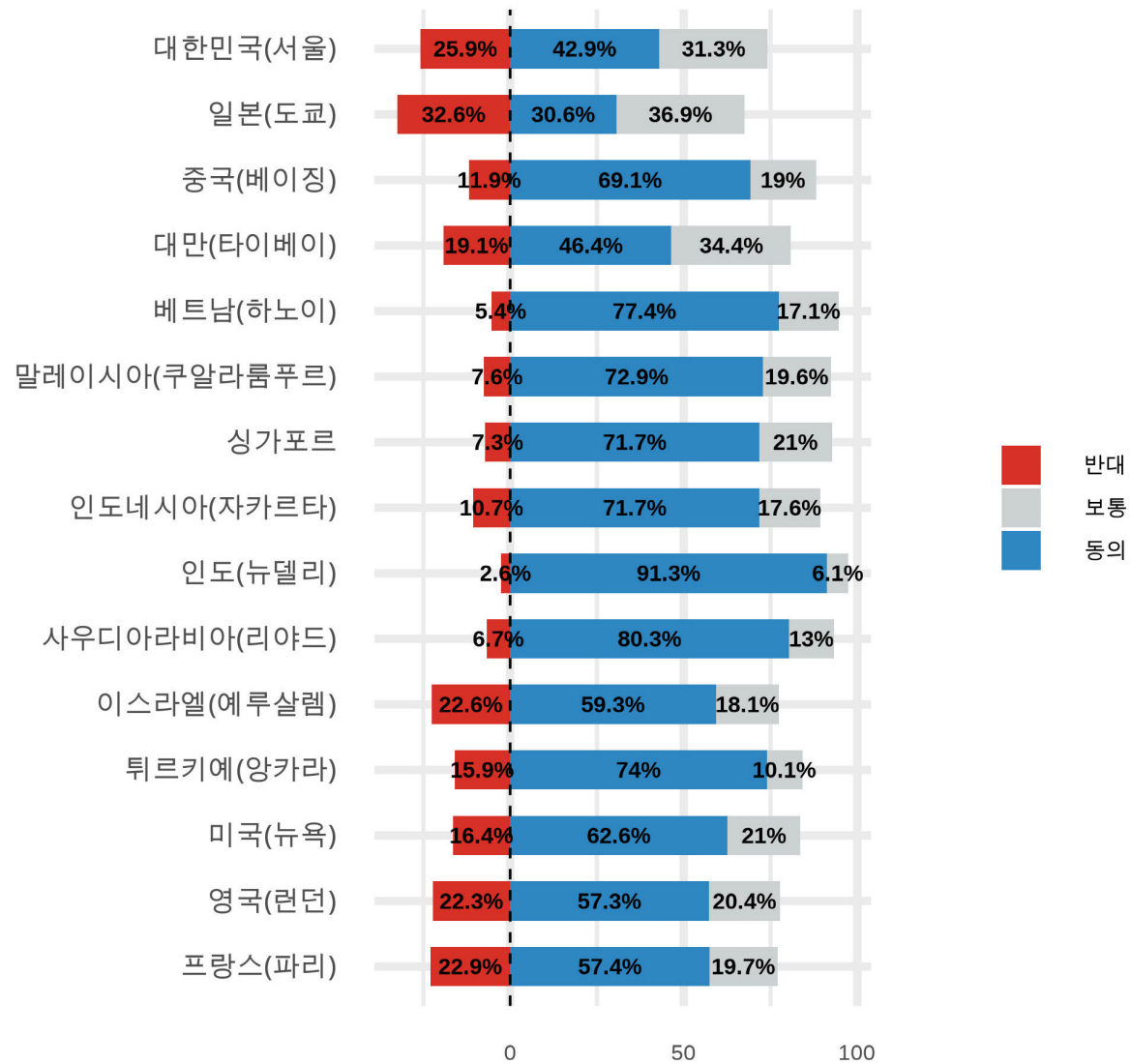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22.71%, 보통 33.29%, 반대 44.0%.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일본(도쿄)** 동의 26.71%, 보통 34.0%, 반대 39.29%.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중국(베이징)** 동의 60.71%, 보통 18.57%, 반대 20.71%.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5.43%, 보통 39.57%, 반대 35.0%.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61.29%, 보통 21.57%, 반대 17.14%.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5.57%, 보통 25.43%, 반대 19.0%.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싱가포르** 동의 46.43%, 보통 32.71%, 반대 20.86%.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6.29%, 보통 24.29%, 반대 19.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인도(뉴델리)** 동의 88.43%, 보통 7.29%, 반대 4.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2.57%, 보통 17.71%, 반대 9.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1.71%, 보통 12.0%, 반대 26.29%.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2.86%, 보통 11.57%, 반대 35.57%.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미국(뉴욕)** 동의 54.71%, 보통 22.71%, 반대 22.57%.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영국(런던)** 동의 46.86%, 보통 20.14%, 반대 33.0%.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프랑스(파리)** 동의 39.29%, 보통 16.86%, 반대 43.86%.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Q13-2

성인이 된 자녀는 나이트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성인 자녀의 경제적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거 부양(Q13_1)에 비해 동의 비율이 상향된 결과를 보였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도(뉴델리)로 91.29%를 기록하여 90%를 상회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80.29%), 베트남(하노이)(77.43%), 튀르키예(앙카라)(74.0%),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72.86%), 싱가포르(71.71%), 인도네시아(자카르타)(71.71%) 등 7개 도시에서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일본(도쿄)으로 30.57%를 기록했다. 일본(도쿄)은 반대 비율(32.57%)과 보통 비율(36.86%)이 모두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유일한 도시였다. 대한민국(서울)은 동의율 42.86%로 조사 대상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반대(25.86%)보다는 우세했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36.86%)에 이어 대만(타이베이)(34.43%), 대한민국(서울)(31.29%)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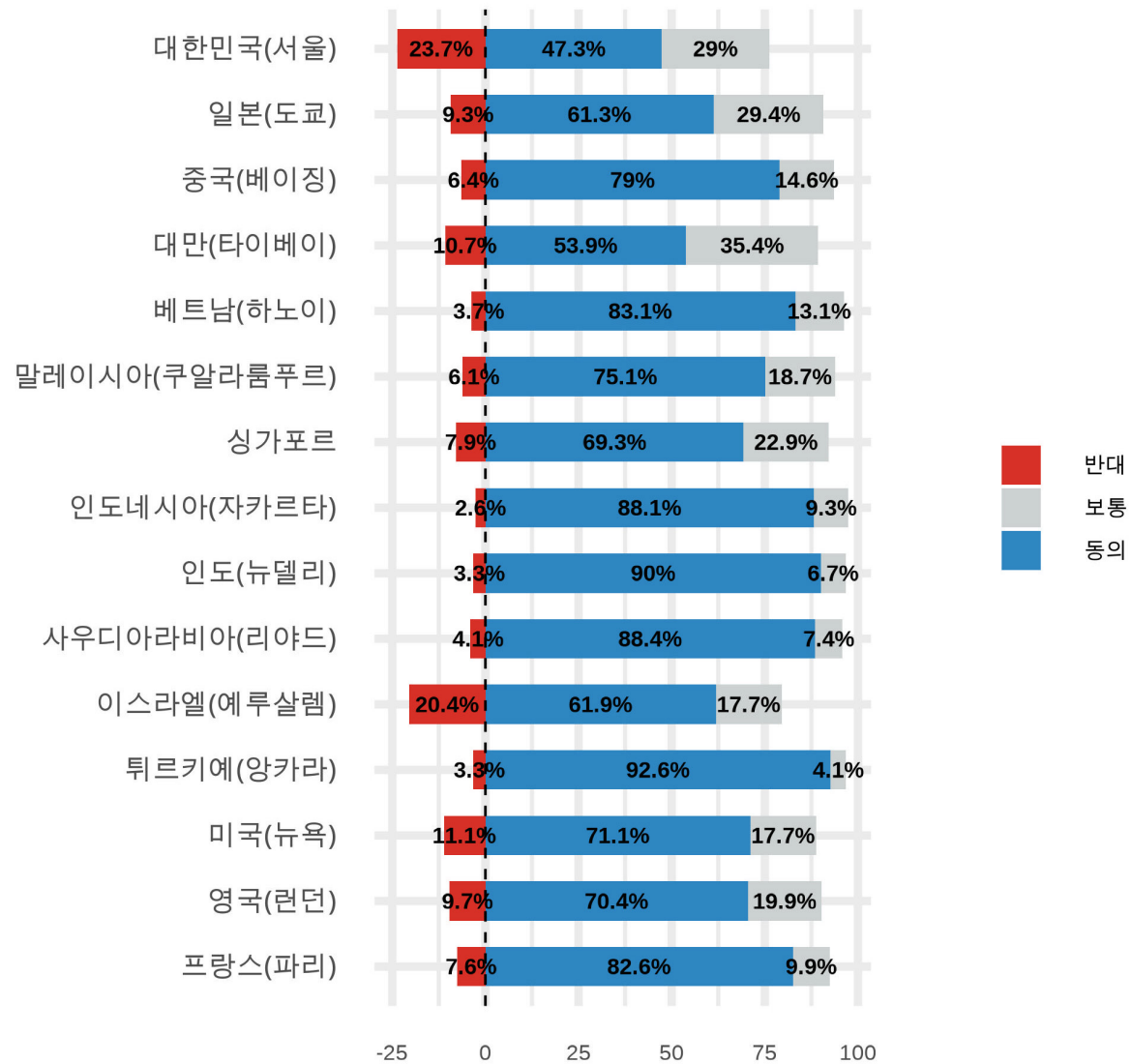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42.86%, 보통 31.29%, 반대 25.86%.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일본(도쿄)** 동의 30.57%, 보통 36.86%, 반대 32.57%.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69.14%, 보통 19.0%, 반대 11.86%.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46.43%, 보통 34.43%, 반대 19.14%.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77.43%, 보통 17.14%, 반대 5.43%.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2.86%, 보통 19.57%, 반대 7.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싱가포르** 동의 71.71%, 보통 21.0%, 반대 7.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1.71%, 보통 17.57%, 반대 10.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인도(뉴델리)** 동의 91.29%, 보통 6.14%, 반대 2.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80.29%, 보통 13.0%, 반대 6.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29%, 보통 18.14%, 반대 22.57%.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4.0%, 보통 10.14%, 반대 15.86%.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62.57%, 보통 21.0%, 반대 16.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영국(런던)** 동의 57.29%, 보통 20.43%, 반대 22.29%.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프랑스(파리)** 동의 57.43%, 보통 19.71%, 반대 22.86%.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Q13-3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 능력의 최대치 만큼 지원해야 한다





이 문항은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튀르키예(앙카라)(92.57%), 인도(뉴델리)(90.0%), 인도네시아(자카르타)(88.14%),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88.43%), 프랑스(파리)(82.57%), 베트남(하노이)(83.14%) 등 6개 도시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15개 도시 중 10개 도시에서 70%를 상회하는 동의 비율이 확인되었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한민국(서울)으로 47.29%를 기록했다. 서울은 반대 비율이 23.71%로 전체 도시 중 가장 높았으나 여전히 동의 응답이 우세했다. 대만(타이베이) 역시 동의율 5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보통 비율은 35.43%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서구권 도시인 미국(뉴욕)(71.14%)과 영국(런던)(70.43%) 역시 높은 수준의 부모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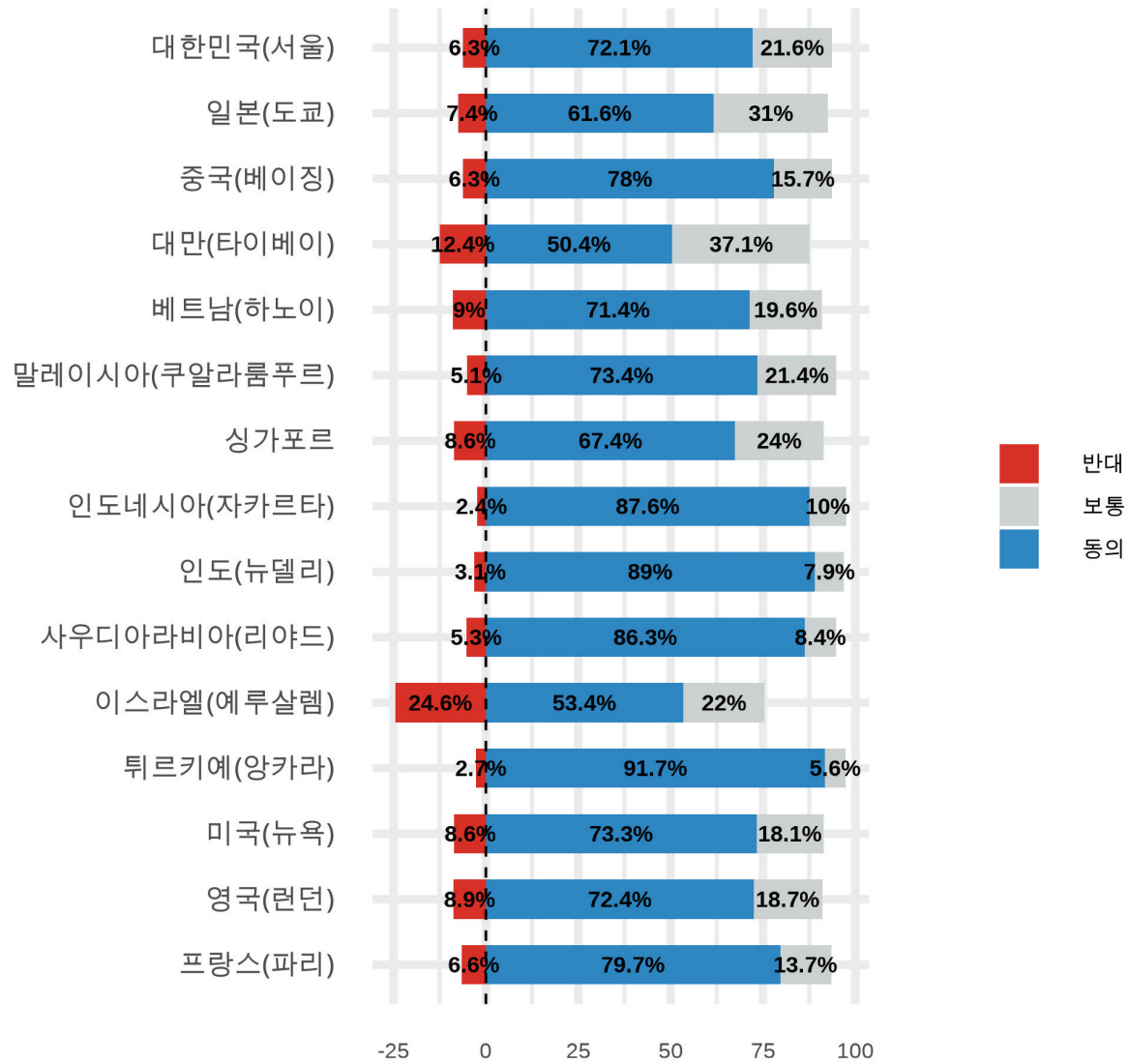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47.29%, 보통 29.0%, 반대 23.71%.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일본(도쿄)** 동의 61.29%, 보통 29.43%, 반대 9.29%.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79.0%, 보통 14.57%, 반대 6.43%.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3.86%, 보통 35.43%, 반대 10.71%.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3.14%, 보통 13.14%, 반대 3.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5.14%, 보통 18.71%, 반대 6.14%.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싱가포르** 동의 69.29%, 보통 22.86%, 반대 7.86%.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8.14%, 보통 9.29%, 반대 2.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인도(뉴델리)** 동의 90.0%, 보통 6.71%, 반대 3.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88.43%, 보통 7.43%, 반대 4.14%.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1.86%, 보통 17.71%, 반대 20.43%.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92.57%, 보통 4.14%, 반대 3.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71.14%, 보통 17.71%, 반대 11.14%.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영국(런던)** 동의 70.43%, 보통 19.86%, 반대 9.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프랑스(파리)** 동의 82.57%, 보통 9.86%, 반대 7.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Q13-4

부모는 자녀의 고등교육 학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항은 부모의 자녀 대학교육 학비 지원 의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앞선 교육비 최대 지원 문항(Q13_3)보다 구체적인 학비 제공 범위를 다루었으나 응답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튀르키예(앙카라)가 91.71%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인도(뉴델리)(89.0%), 인도네시아(자카르타)(87.57%),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86.29%), 프랑스(파리)(79.71%), 중국(베이징)(78.0%),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73.43%), 미국(뉴욕)(73.29%), 영국(런던)(72.43%), 대한민국(서울)(72.14%), 베트남(하노이)(71.43%) 등 총 11개 도시에서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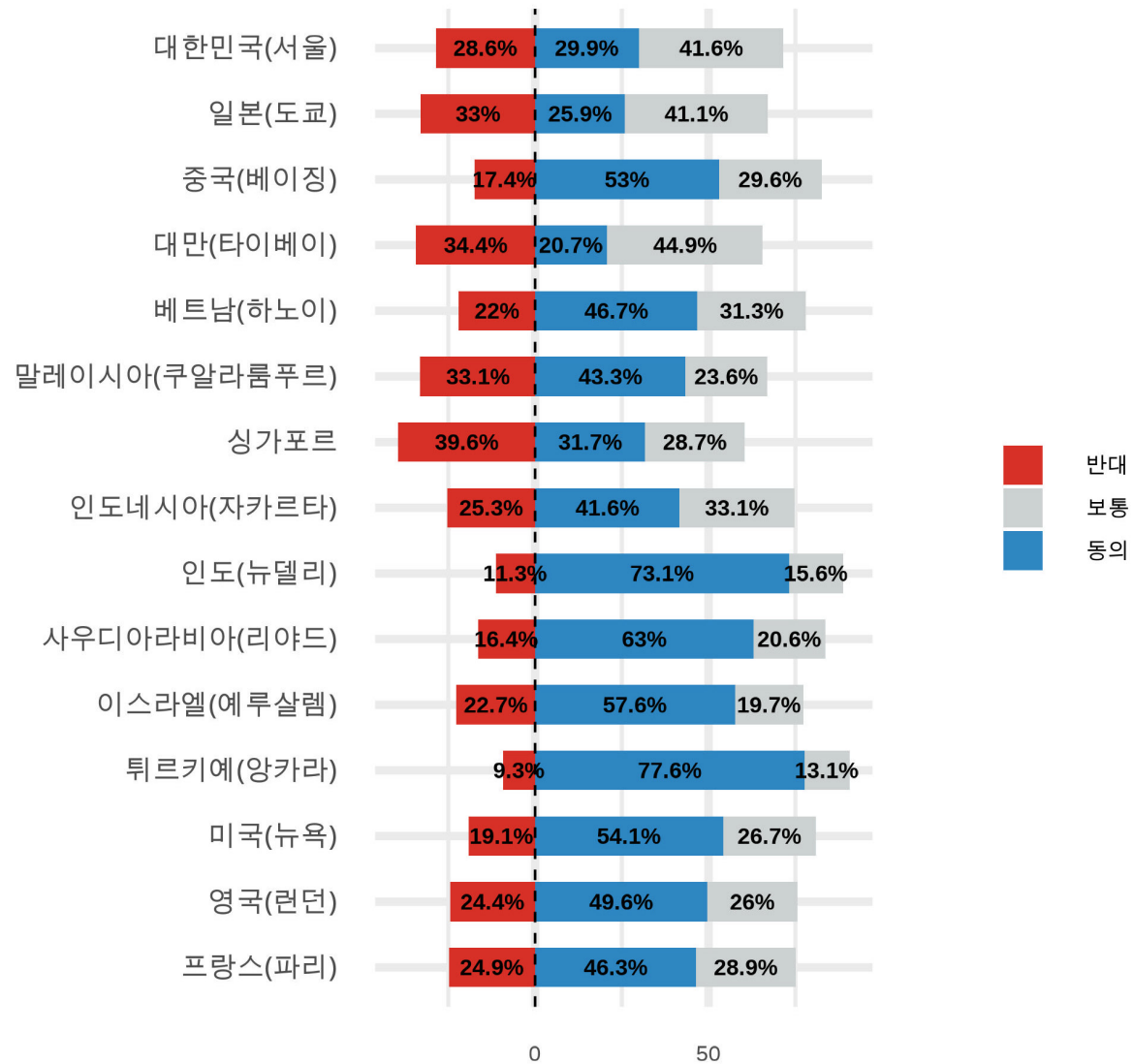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만(타이베이)으로 50.43%였으며, 이스라엘(예루살렘)(53.4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 비율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24.57%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보통 비율은 대만(타이베이)이 37.14%로 가장 높았고, 일본(도쿄)(31.0%), 싱가포르(24.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서울)은 학비 지원에 대해 72.14%라는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보여, 전반적인 교육비 지원 문항에 비해 구체적인 학비 제공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2.14%, 보통 21.57%, 반대 6.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일본(도쿄)** 동의 61.57%, 보통 31.0%, 반대 7.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78.0%, 보통 15.71%, 반대 6.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0.43%, 보통 37.14%, 반대 12.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71.43%, 보통 19.57%, 반대 9.0%.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3.43%, 보통 21.43%, 반대 5.14%.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싱가포르** 동의 67.43%, 보통 24.0%, 반대 8.57%.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7.57%, 보통 10.0%, 반대 2.43%.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인도(뉴델리)** 동의 89.0%, 보통 7.86%, 반대 3.14%.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86.29%, 보통 8.43%, 반대 5.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43%, 보통 22.0%, 반대 24.57%.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91.71%, 보통 5.57%, 반대 2.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73.29%, 보통 18.14%, 반대 8.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영국(런던)** 동의 72.43%, 보통 18.71%, 반대 8.86%.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프랑스(파리)** 동의 79.71%, 보통 13.71%, 반대 6.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항은 부모의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책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튀르키예(앙카라)로 77.57%를 기록했다. 이어 인도(뉴델리)(73.14%),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3.0%), 이스라엘(예루살렘)(57.57%), 미국(뉴욕)(54.14%), 중국(베이징)(53.0%) 순으로 과반의 동의를 보였다. 서구권 도시 중 영국(런던)(49.57%)과 프랑스(파리)(46.29%)는 5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만(타이베이)으로 20.71%에 그쳤다. 일본(도쿄)(25.86%)과 대한민국(서울)(29.86%) 역시 동의율이 20%대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보통 비율은 대만(타이베이)(44.86%), 대한민국(서울)(41.57%), 일본(도쿄)(41.14%)에서 40%를 넘어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은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반대 비율은 싱가포르가 39.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대만(타이베이)(34.43%), 일본(도쿄)(33.0%)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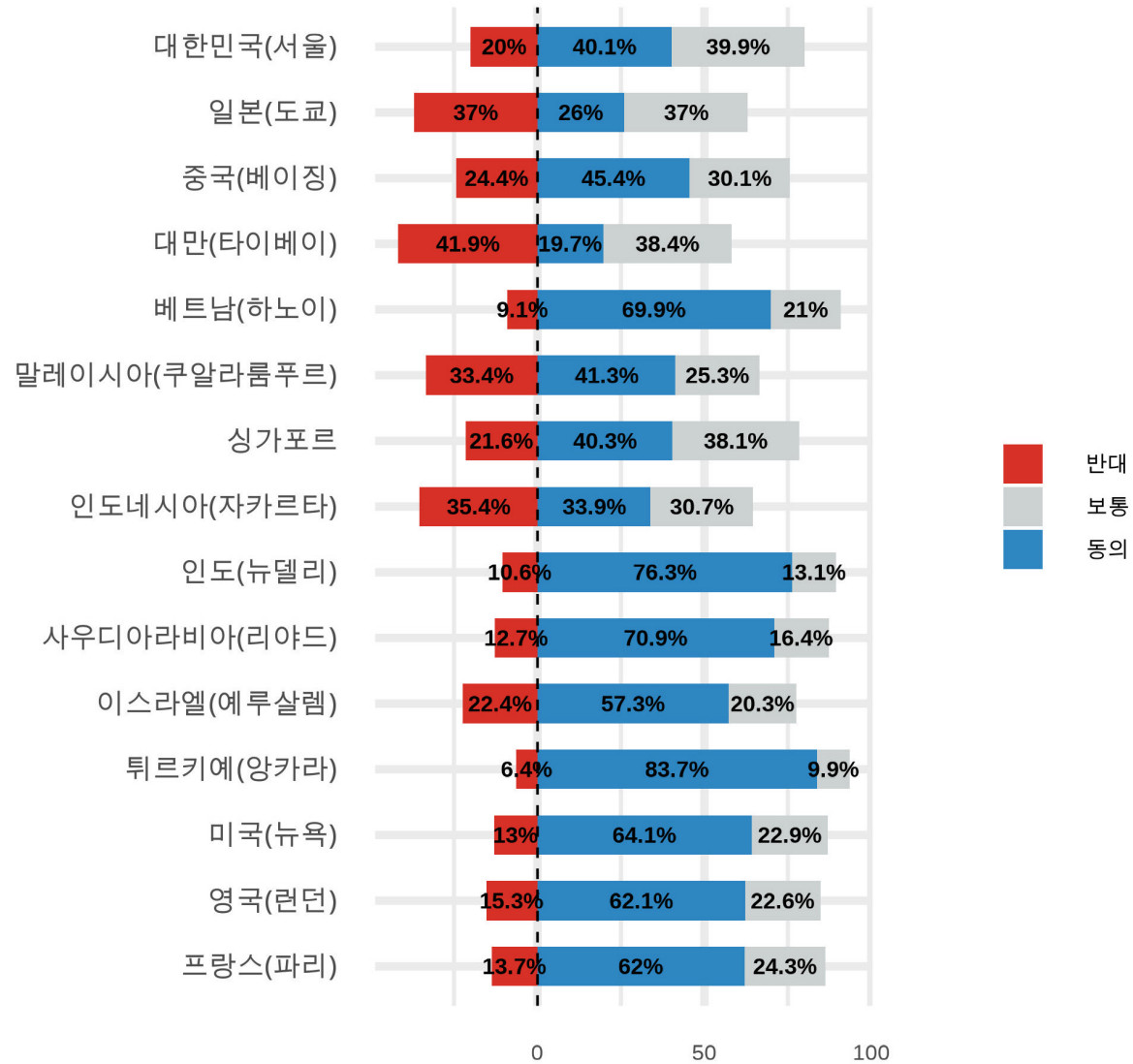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29.86%, 보통 41.57%, 반대 28.57%.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일본(도쿄)** 동의 25.86%, 보통 41.14%, 반대 33.0%.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53.0%, 보통 29.57%, 반대 17.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20.71%, 보통 44.86%, 반대 34.43%.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6.71%, 보통 31.29%, 반대 22.0%.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3.29%, 보통 23.57%, 반대 33.14%.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싱가포르** 동의 31.71%, 보통 28.71%, 반대 39.57%.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1.57%, 보통 33.14%, 반대 25.29%.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인도(뉴델리)** 동의 73.14%, 보통 15.57%, 반대 11.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3.0%, 보통 20.57%, 반대 16.43%.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7.57%, 보통 19.71%, 반대 22.71%.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7.57%, 보통 13.14%, 반대 9.29%.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54.14%, 보통 26.71%, 반대 19.14%.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영국(런던)** 동의 49.57%, 보통 26.0%, 반대 24.43%.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프랑스(파리)** 동의 46.29%, 보통 28.86%, 반대 24.86%.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Q13-6

부모는 자녀가 손자녀를 낳으면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이 문항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조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튀르키예(앙카라)가 83.71%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도(뉴델리)(76.29%),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70.86%), 베트남(하노이)(69.86%), 미국(뉴욕)(64.14%), 영국(런던)(62.14%), 프랑스(파리)(62.0%) 순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중동 및 아시아권 일부 국가와 서구권 국가들에서 조부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만(타이베이)으로 19.71%에 불과했다. 대만(타이베이)은 반대 비율이 41.86%로 조사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보통 비율 또한 38.43%로 높았다. 대한민국(서울)은 동의율 40.14%를 기록했으며 보통 비율이 39.86%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 판단이 양분된 특징을 보였다. 일본(도쿄)은 동의 비율(26.0%)보다 반대 및 보통 비율(각각 37.0%)이 더 높게 집계되었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동의(33.86%)보다 반대(35.43%)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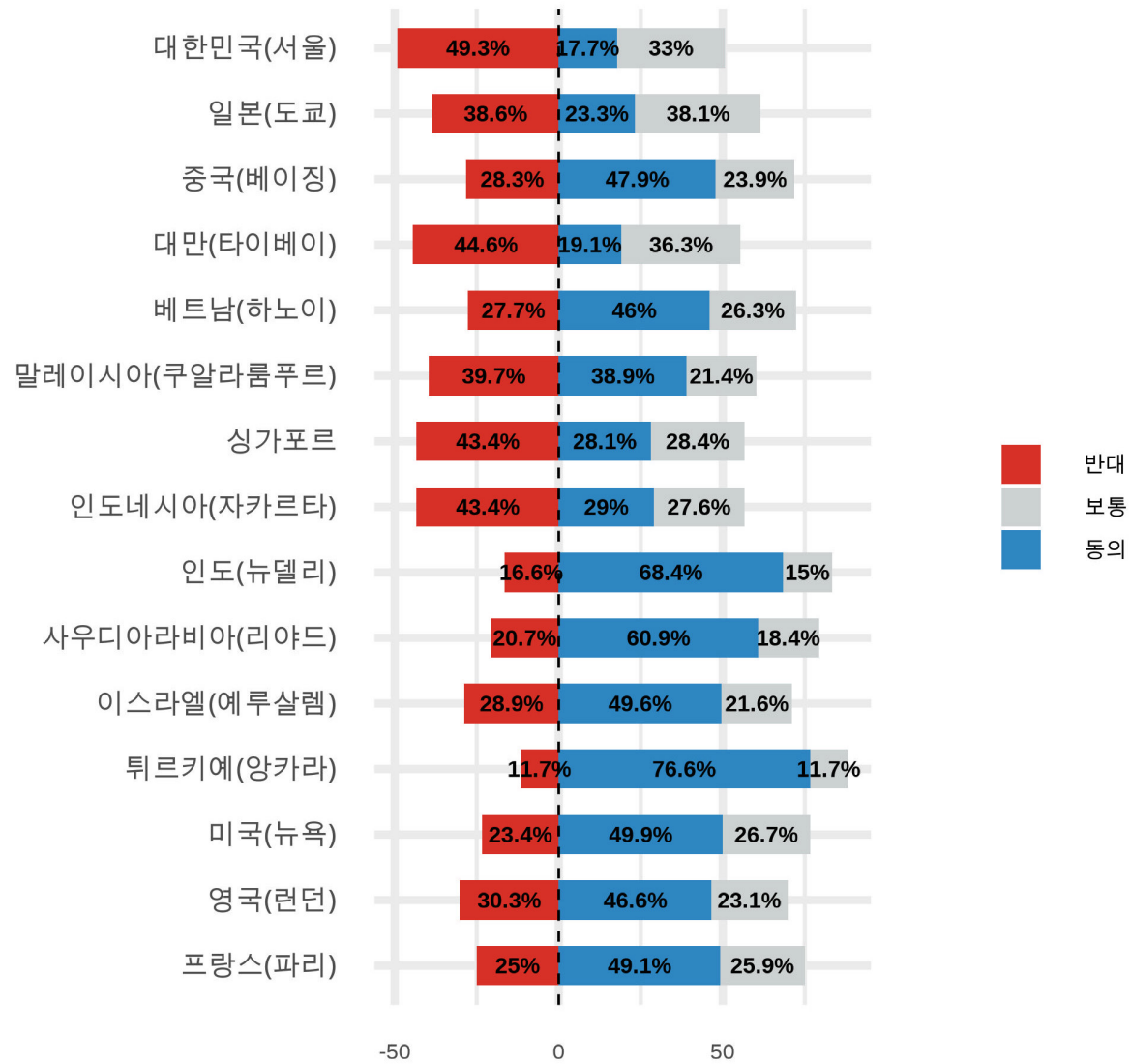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40.14%, 보통 39.86%, 반대 20.0%.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일본(도쿄)** 동의 26.0%, 보통 37.0%, 반대 37.0%. 반대와 중립적 의견이 동의 비율보다 우세한 편이다.
- **중국(베이징)** 동의 45.43%, 보통 30.14%, 반대 24.43%.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19.71%, 보통 38.43%, 반대 41.86%.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69.86%, 보통 21.0%, 반대 9.14%.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1.29%, 보통 25.29%, 반대 33.43%.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싱가포르** 동의 40.29%, 보통 38.14%, 반대 21.57%.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33.86%, 보통 30.71%, 반대 35.43%.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인도(뉴델리)** 동의 76.29%, 보통 13.14%, 반대 10.57%.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0.86%, 보통 16.43%, 반대 12.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7.29%, 보통 20.29%, 반대 22.43%.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3.71%, 보통 9.86%, 반대 6.43%.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64.14%, 보통 22.86%, 반대 13.0%.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영국(런던)** 동의 62.14%, 보통 22.57%, 반대 15.29%.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프랑스(파리)** 동의 62.0%, 보통 24.29%, 반대 13.71%.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Q13-7

부모는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 문항은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교육 지원의 바람직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이전 문항들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튀르키예(앙카라)가 76.57%로 유일하게 7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인도(뉴델리)(68.43%),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0.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구권 도시들과 아시아 일부 도시들은 40%대 중후반의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대한민국(서울)은 동의 비율이 17.71%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반대 비율이 49.29%로 조사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보통 비율(33.0%)도 높아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했다. 대만(타이베이)(반대 44.57%), 싱가포르(반대 43.43%), 인도네시아(자카르타)(반대 43.43%),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반대 39.71%), 일본(도쿄)(반대 38.57%) 등 아시아 대도시 대다수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일본(도쿄)은 보통 비율이 38.14%로 최상위권의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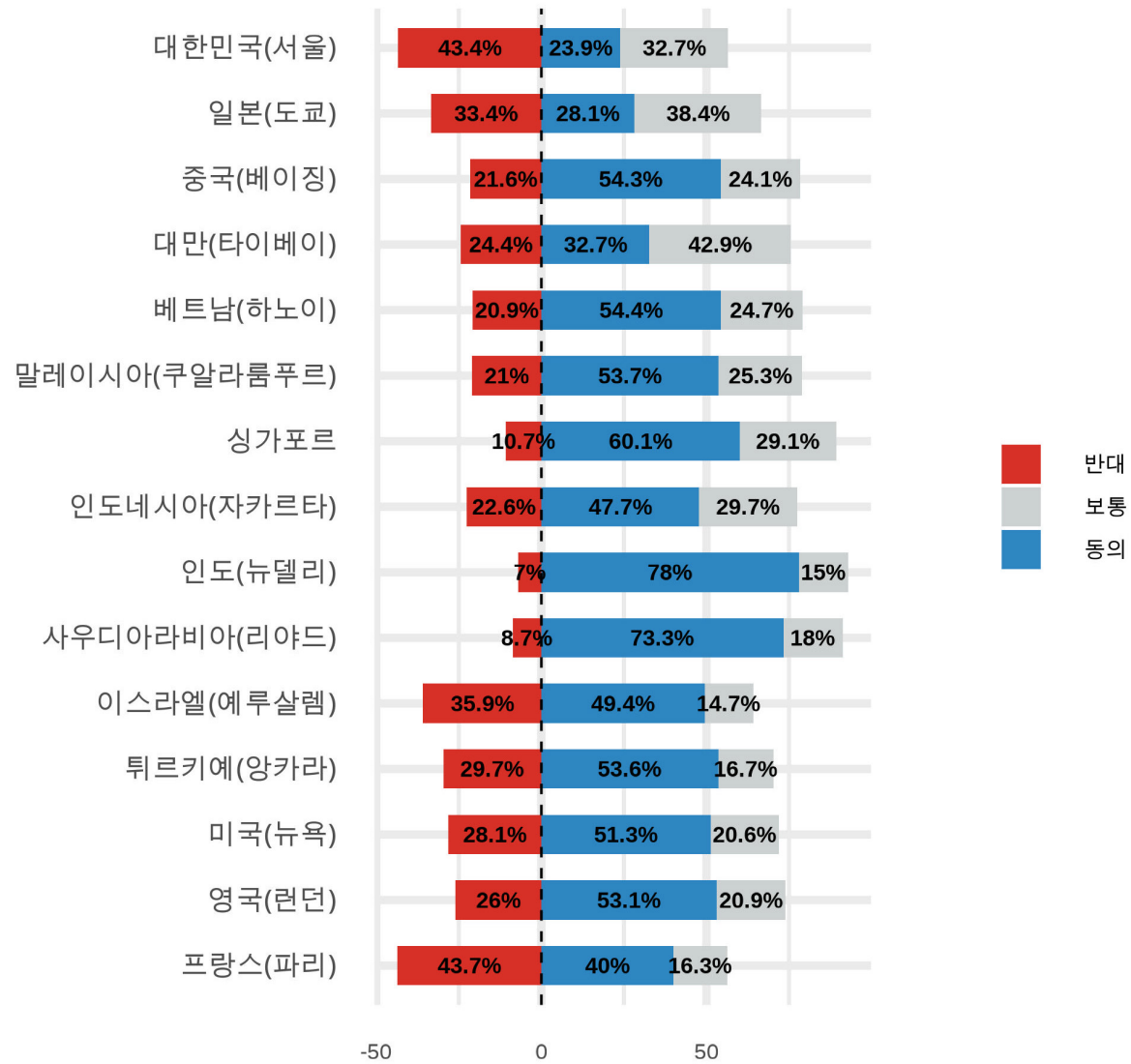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17.71%, 보통 33.0%, 반대 49.29%.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일본(도쿄)** 동의 23.29%, 보통 38.14%, 반대 38.57%.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중국(베이징)** 동의 47.86%, 보통 23.86%, 반대 28.29%.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19.14%, 보통 36.29%, 반대 44.57%.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46.0%, 보통 26.29%, 반대 27.71%.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38.86%, 보통 21.43%, 반대 39.71%.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싱가포르** 동의 28.14%, 보통 28.43%, 반대 43.43%.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29.0%, 보통 27.57%, 반대 43.43%.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인도(뉴델리)** 동의 68.43%, 보통 15.0%, 반대 16.57%.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86%, 보통 18.43%, 반대 20.71%.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9.57%, 보통 21.57%, 반대 28.86%.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6.57%, 보통 11.71%, 반대 11.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미국(뉴욕)** 동의 49.86%, 보통 26.71%, 반대 23.43%.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영국(런던)** 동의 46.57%, 보통 23.14%, 반대 30.29%.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프랑스(파리)** 동의 49.14%, 보통 25.86%, 반대 25.0%.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Q13-8

자녀는 취업을 하면 월급의 일정 부분 혹은 전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한다





이 문항은 취업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소득 공유 의무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도(뉴델리)가 78.0%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73.29%로 뒤를 이어 중동 및 서남아시아 도시에서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싱가포르(60.14%), 베트남(하노이)(54.43%), 중국(베이징)(54.29%), 튀르키예(앙카라)(53.5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53.71%), 영국(런던)(53.14%), 미국(뉴욕)(51.29%) 등 조사 대상의 과반 이상인 9개 도시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한민국(서울)으로 23.86%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서울)은 반대 비율이 43.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프랑스(파리) 역시 반대 43.71%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보통 비율은 대만(타이베이)에서 4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쿄)(38.43%), 대한민국(서울)(32.71%) 순으로 높았다. 이스라엘(예루살렘)은 반대 비율이 35.86%로 동의 비율(49.43%)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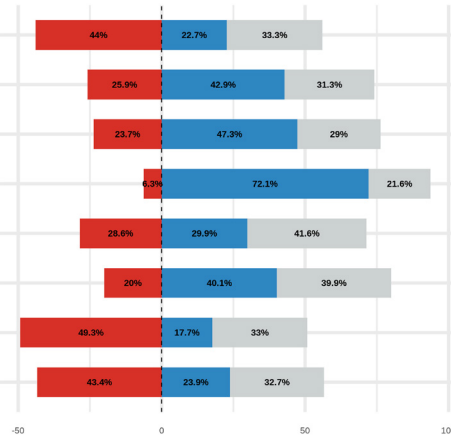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동의 23.86%, 보통 32.71%, 반대 43.43%.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일본(도쿄)** 동의 28.14%, 보통 38.43%, 반대 33.43%.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중국(베이징)** 동의 54.29%, 보통 24.14%, 반대 21.57%.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32.71%, 보통 42.86%, 반대 24.43%.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54.43%, 보통 24.71%, 반대 20.86%.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3.71%, 보통 25.29%, 반대 21.0%.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싱가포르** 동의 60.14%, 보통 29.14%, 반대 10.71%. 과반이 동의하며 중립적인 반응이 반대보다 우세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47.71%, 보통 29.71%, 반대 22.57%.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인도(뉴델리)** 동의 78.0%, 보통 15.0%, 반대 7.0%.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3.29%, 보통 18.0%, 반대 8.71%.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9.43%, 보통 14.71%, 반대 35.86%. 동의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하나 의견이 분산되어 있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3.57%, 보통 16.71%, 반대 29.71%.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미국(뉴욕)** 동의 51.29%, 보통 20.57%, 반대 28.14%.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영국(런던)** 동의 53.14%, 보통 20.86%, 반대 26.0%. 동의가 과반이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프랑스(파리)** 동의 40.0%, 보통 16.29%, 반대 43.71%.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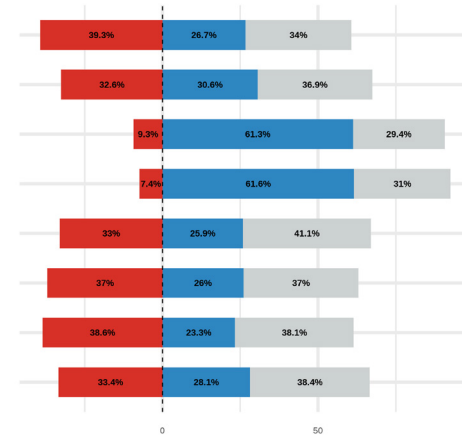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북아시아

- 부모님이 나이드시면 자녀가 결혼했다더라도 한집에 살며 보살펴 드려야 한다.
- 성인이 된 자녀는 나이든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 능력의 최대치 만큼 지원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고등교육 학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자녀가 손자녀를 낳으면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부모는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자녀는 취업을 하면 월급의 일정 부분 혹은 전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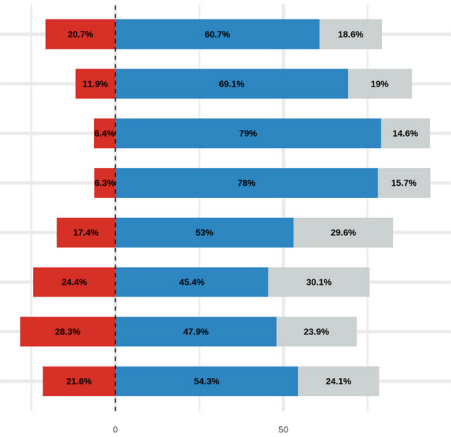


대한민국(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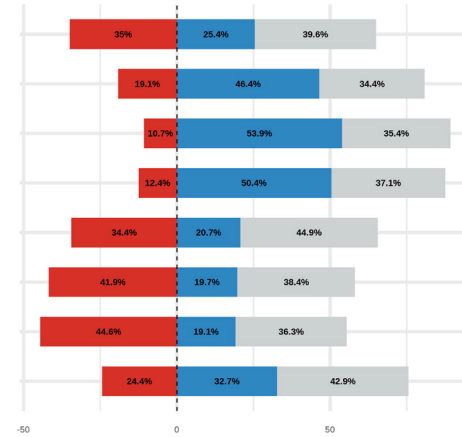


일본(도쿄)

- 부모님이 나이드시면 자녀가 결혼했다더라도 한집에 살며 보살펴 드려야 한다.
- 성인이 된 자녀는 나이든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 능력의 최대치 만큼 지원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고등교육 학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는 자녀가 손자녀를 낳으면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부모는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자녀는 취업을 하면 월급의 일정 부분 혹은 전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한다.



중국(베이징)



대만(타이베이)

동의
보통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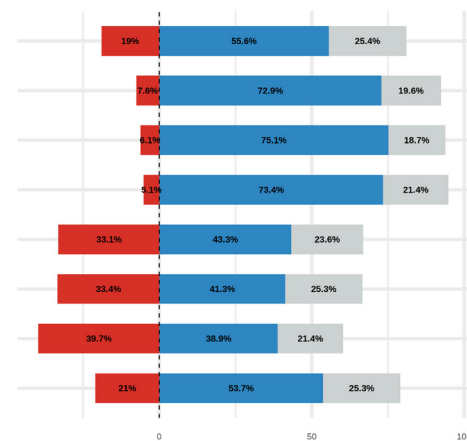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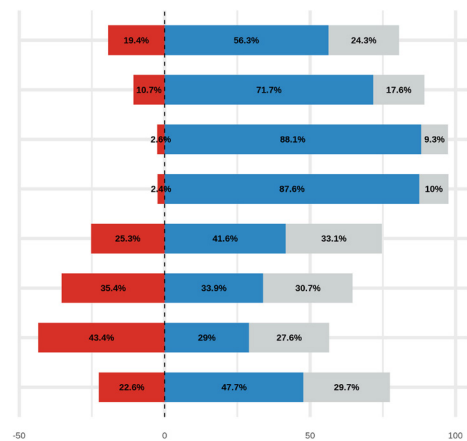
베트남(하노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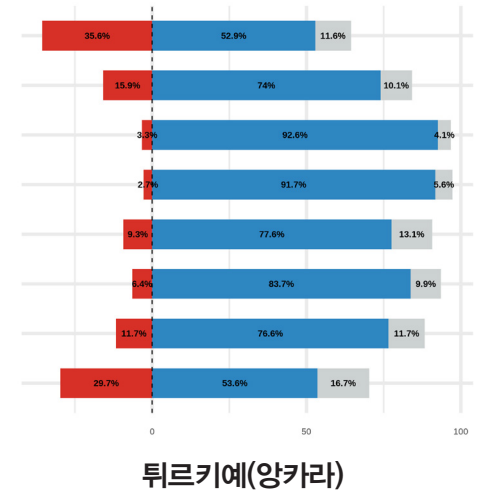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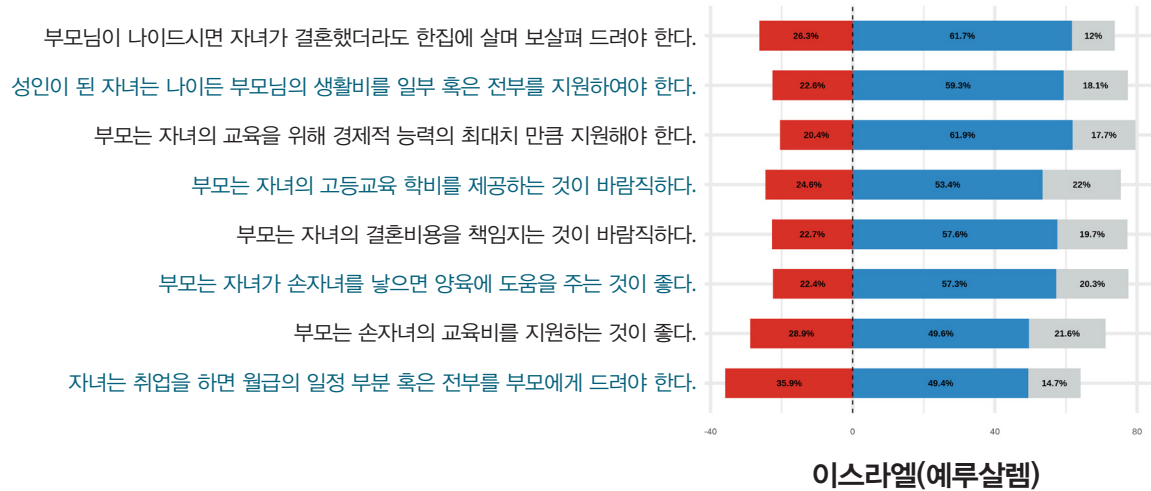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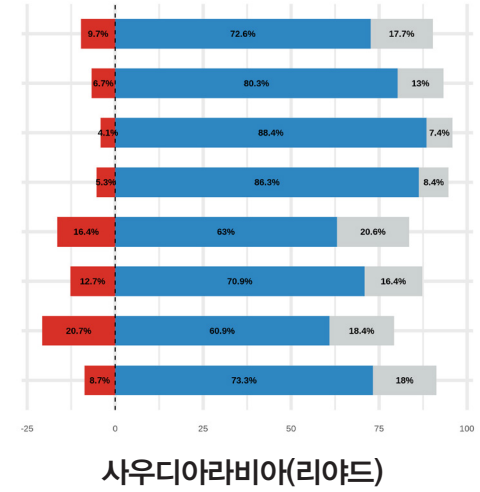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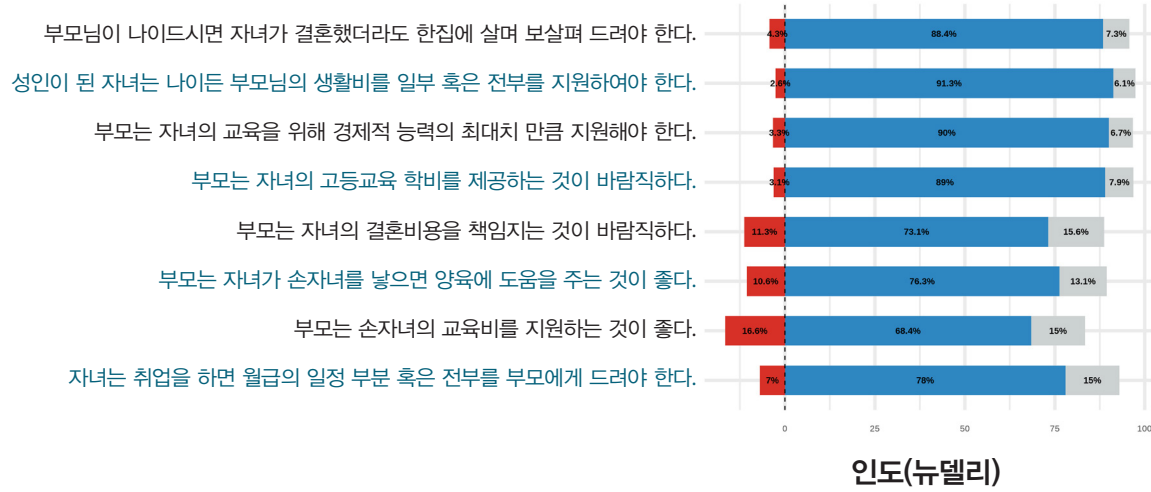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서·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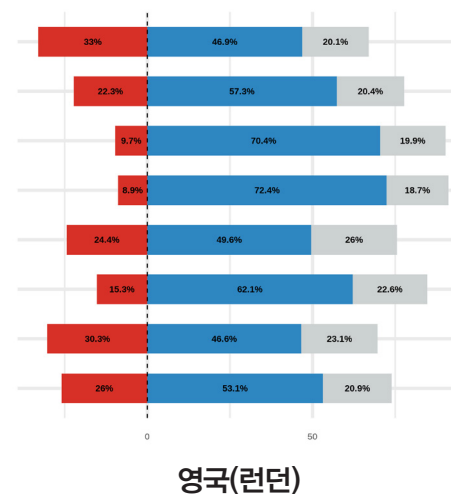


동의
도통
반대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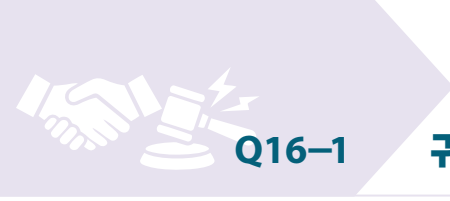
서구



CH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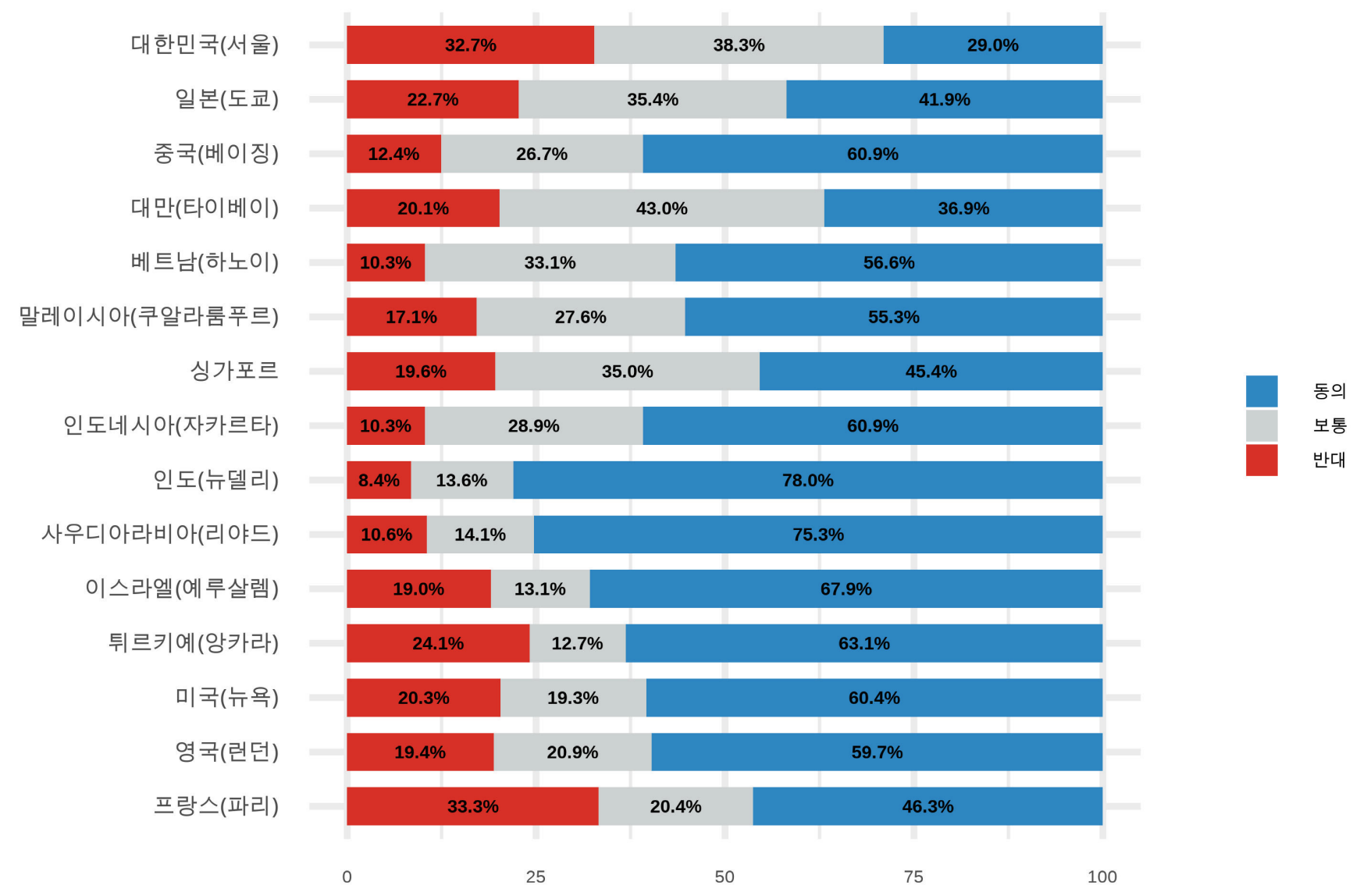
사회적 신뢰와 갈등 의식





Q16-1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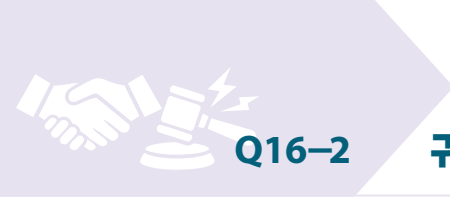




이 문항은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15개 도시 중 10개 도시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나, 아시아권 일부 국가에서는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서울)은 '신뢰' 응답이 30%를 밑돌며 15개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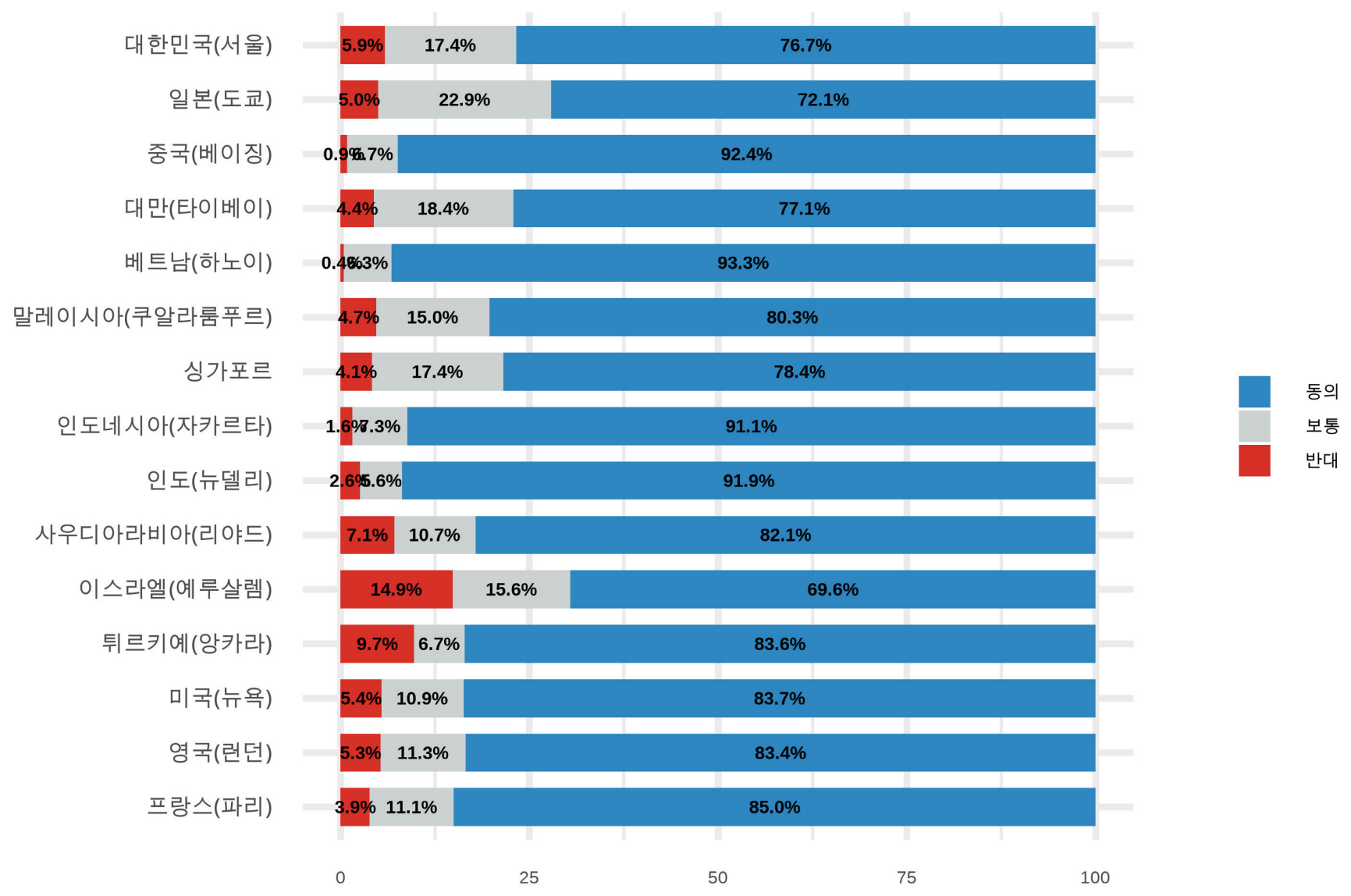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높은 도시** 인도(뉴델리)가 78.00%로 가장 높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75.29%), 이스라엘(예루살렘)(67.86%), 튀르키예(앙카라)(63.14%)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베이징),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미국(뉴욕)도 60%대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신뢰' 비율이 낮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신뢰' 응답이 29.00%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대만(타이베이)(36.86%)와 일본(도쿄)(41.86%)도 하위권에 속했다.
- **'불신' 비율이 높은 도시** 프랑스(파리)는 '불신' 응답이 33.29%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서울)이 32.71%로 그 뒤를 이었다.
- **'보통' 응답 비율** 대만(타이베이)은 '보통' 응답이 43.00%로 가장 높았으며, '신뢰'나 '불신'보다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대한민국(서울)(38.29%), 일본(도쿄)(35.43%), 싱가포르(35.00%) 역시 '보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Q16-2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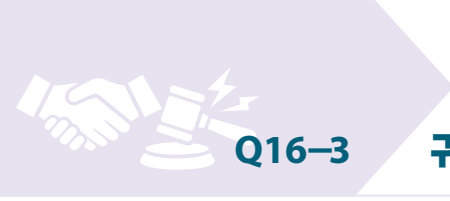




이 문항은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15개 도시 모든 곳에서 '신뢰' 응답이 69%를 상회하며, 가족에 대한 신뢰는 문화권과 관계없이 매우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 도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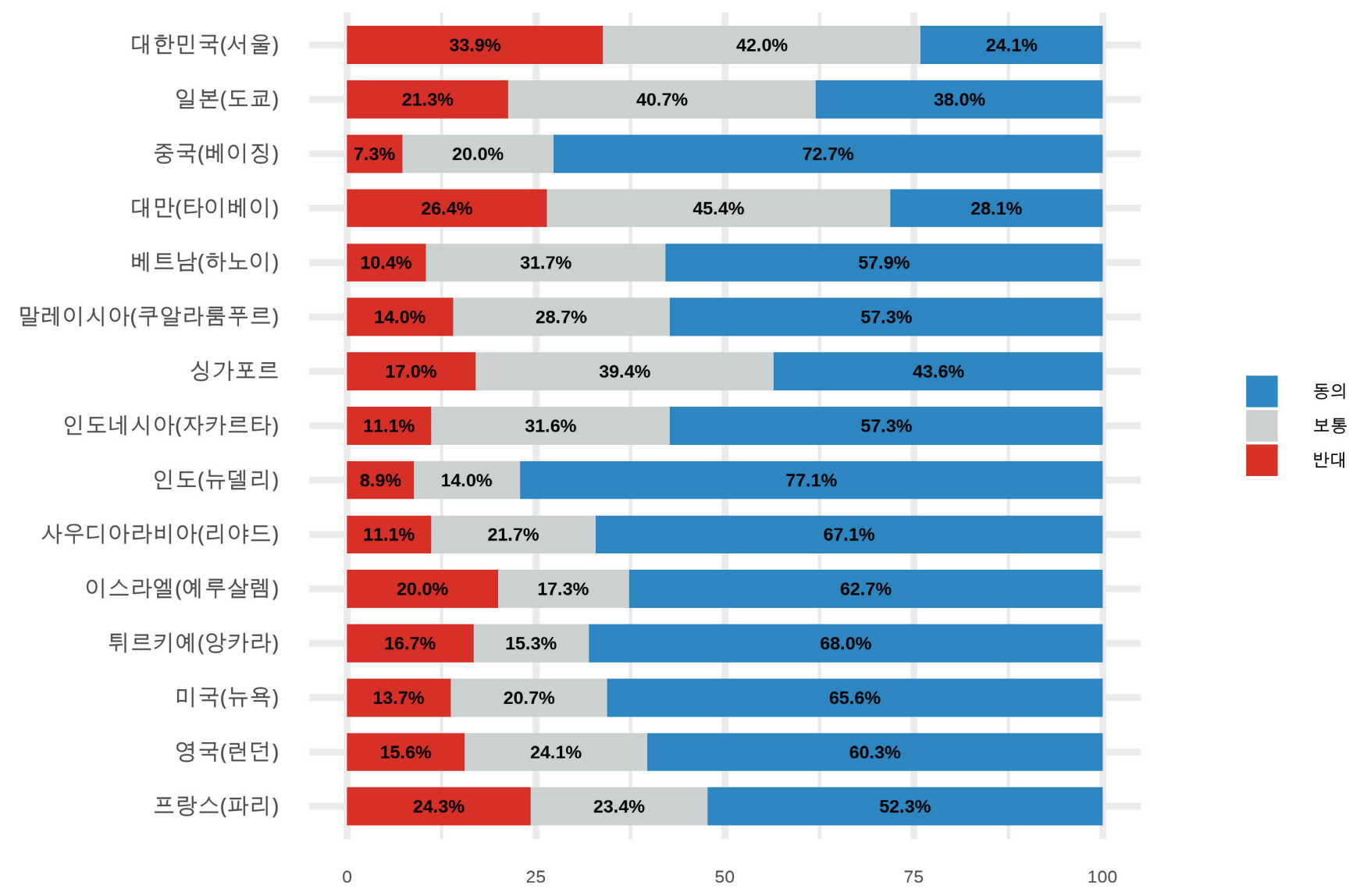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90% 이상인 도시** 베트남(하노이)(93.29%), 중국(베이징)(92.43%), 인도(뉴델리)(91.86%), 인도네시아(자카르타)(91.14%)에서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났다.
- **'신뢰' 비율이 80%대인 도시** 프랑스(파리)(85.00%), 미국(뉴욕)(83.71%), 튀르키예(앙카라)(83.57%), 영국(런던)(83.43%),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82.14%),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80.29%)가 포함되었다.
- **상대적으로 '신뢰'가 낮은 도시** 이스라엘(예루살렘)이 69.57%로 가장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도쿄)(72.14%), 대한민국(서울)(76.71%)이 하위권에 위치했다.
- **'불신' 및 '보통' 응답 비율** '불신' 응답은 이스라엘(예루살렘)이 14.86%로 유일하게 10%를 넘었다. '보통' 응답은 일본(도쿄)(22.8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Q16-3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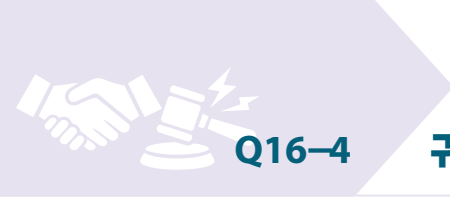




이 문항은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도시별 편차가 컸는데, 인도와 중국은 70% 이상의 높은 신뢰를 보인 반면, 대한민국과 대만은 20%대의 낮은 신뢰를 기록했다. 특히 대한민국(서울)은 '신뢰'보다 '불신'과 '보통'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난 유일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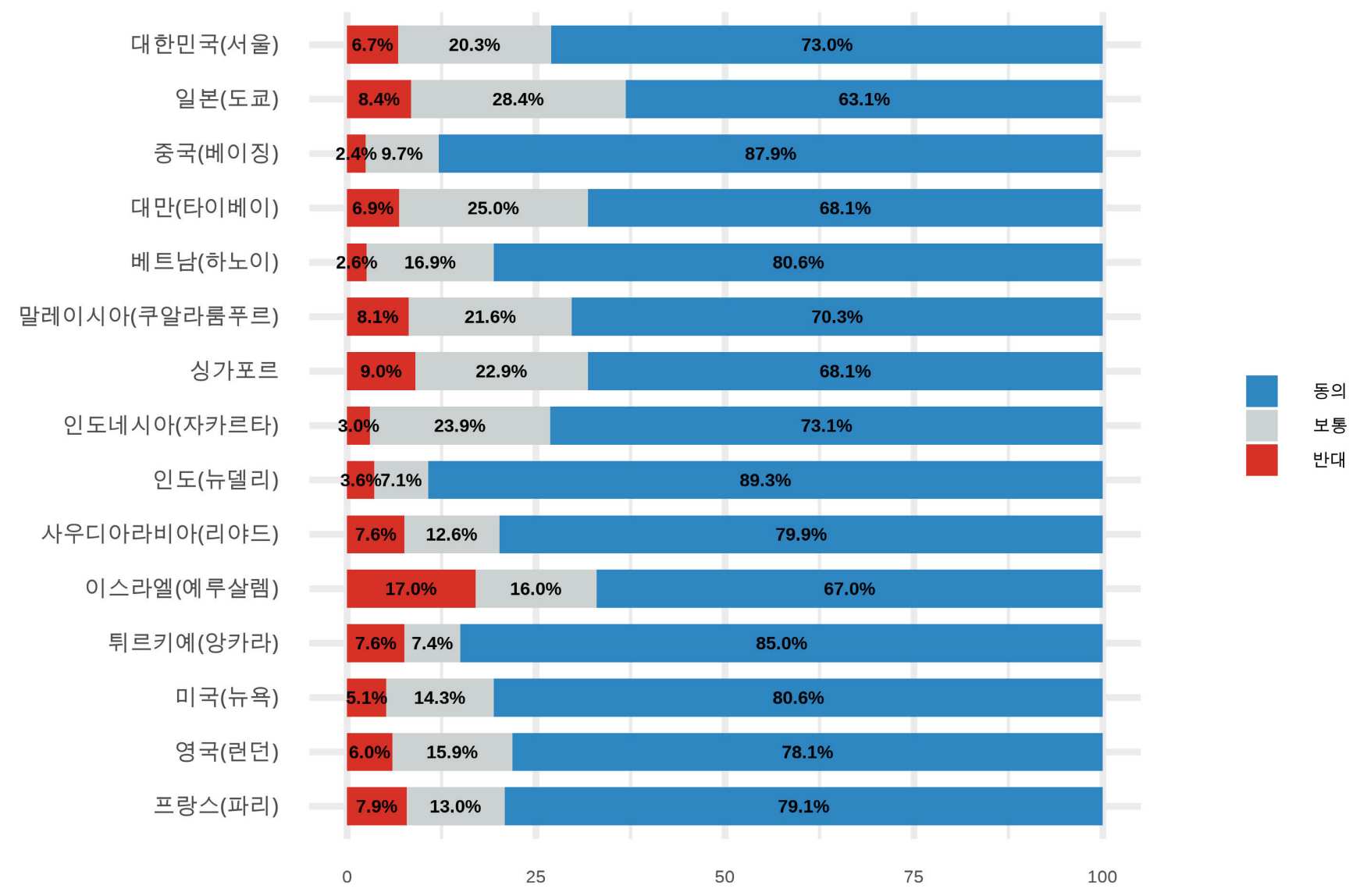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높은 도시** 인도(뉴델리)가 77.14%로 가장 높았고, 중국(베이징)(72.71%), 튀르키예(앙카라)(68.00%),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7.14%), 미국(뉴욕)(65.57%) 순이었다.
- **'신뢰' 비율이 낮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24.14%로 15개 도시 중 '신뢰'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만(타이베이)(28.14%)도 20%대에 그쳤으며, 일본(도쿄)(38.00%)도 낮은 편이었다.
- **'불신' 비율이 높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불신' 응답이 33.86%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신뢰'(24.14%) 응답보다 '불신'이 더 높은 유일한 도시였다. 대만(타이베이)(26.43%), 프랑스(파리)(24.29%)가 그 뒤를 이었다.
- **'보통' 응답 비율** 대만(타이베이)(45.43%)과 대한민국(서울)(42.00%)은 '보통' 응답이 40%를 넘어, 이웃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Q16-4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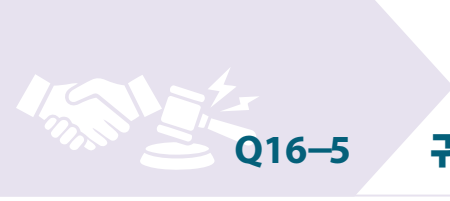




이 문항은 '친구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Q16_2(가족)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5개 도시 모두에서 '신뢰' 응답이 60%를 넘었으며, 불신 응답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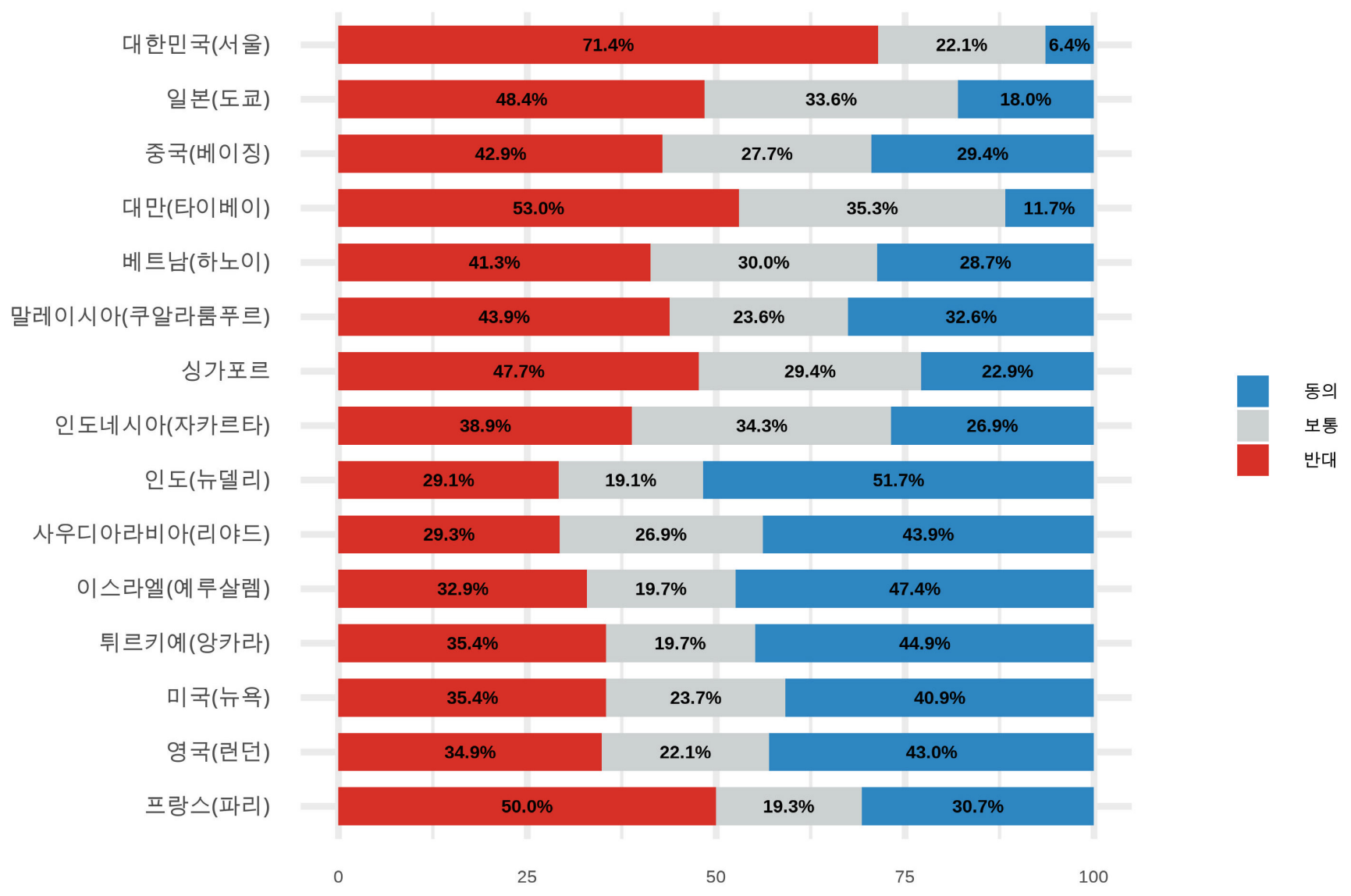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80% 이상인 도시** 인도(뉴델리)(89.29%), 중국(베이징)(87.86%), 튀르키예(앙카라)(85.00%), 베트남(하노이)(80.57%), 미국(뉴욕)(80.57%) 등에서 친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다.
- **'신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일본(도쿄)(63.14%), 이스라엘(예루살렘)(67.00%), 싱가포르(68.14%), 대만(타이베이)(68.14%) 순으로 낮았으나 모두 과반을 넘겼다. 대한민국(서울)은 73.00%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 **'불신' 및 '보통' 응답 비율** '불신' 응답은 이스라엘(예루살렘)(17.00%)을 제외하면 모든 도시에서 10% 미만이었다. '보통' 응답은 일본(도쿄)(28.43%), 대만(타이베이)(25.00%), 인도네시아(자카르타)(23.8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16-5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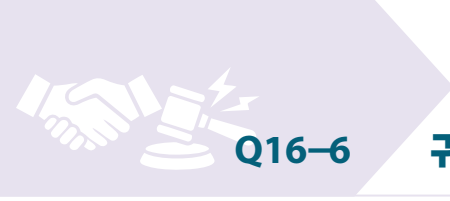




이 문항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별로 '불신'과 '보통'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대한민국(서울)은 '신뢰' 응답이 6.43%에 불과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불신' 응답은 70%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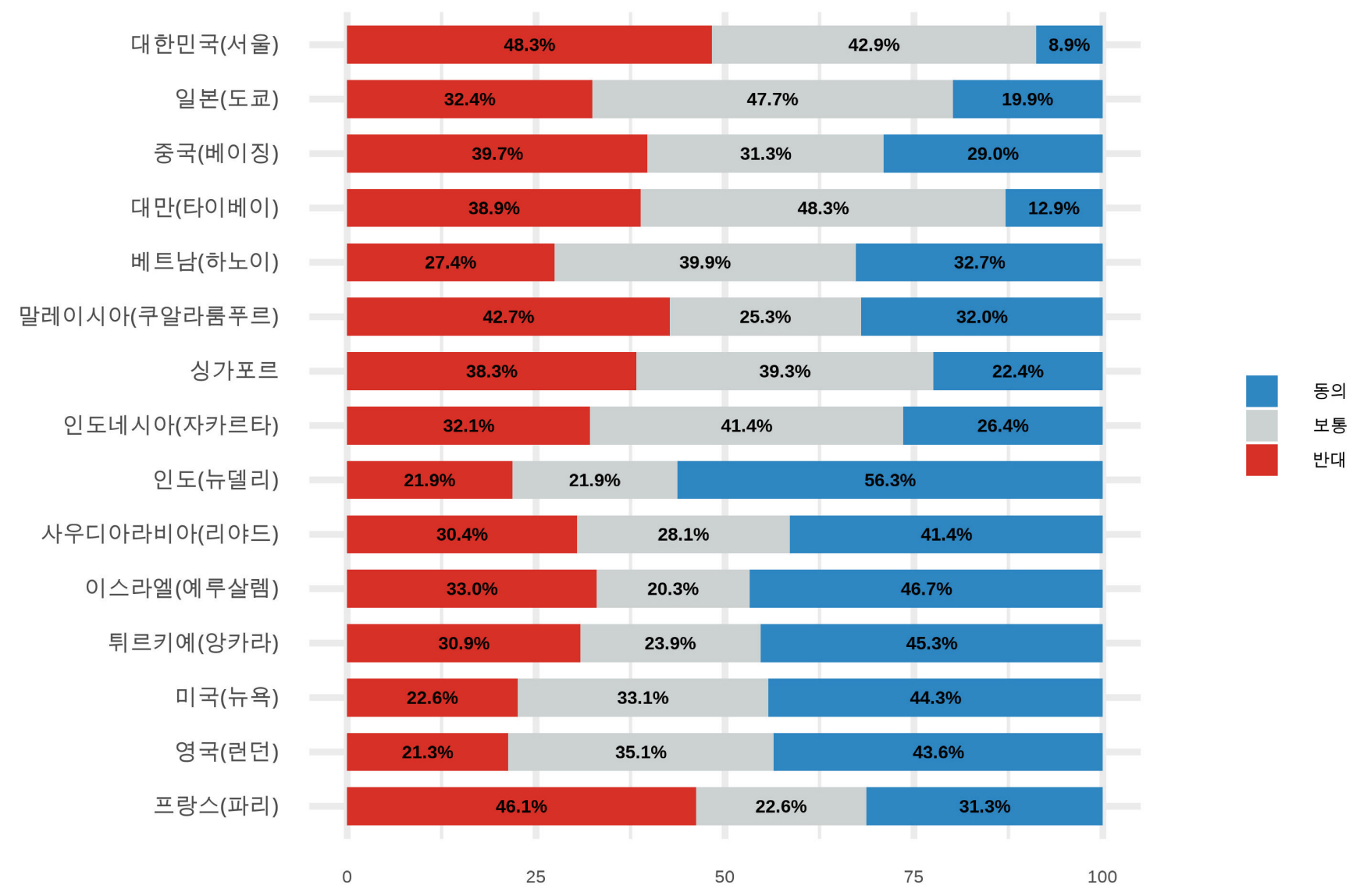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높은 도시** 인도(뉴델리)가 51.71%로 유일하게 과반의 신뢰를 보였다. 이스라엘(예루살렘)(47.43%), 튀르키예(앙카라)(44.86%),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43.86%)가 그 뒤를 이었다.
- **'신뢰' 비율이 낮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6.43%로 15개 도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낮았다. 대만(타이베이)(11.71%), 일본(도쿄)(18.00%)도 10%대 이하의 매우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 **'불신' 비율이 높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불신' 응답이 71.43%에 달해 가장 높았다. 대만(타이베이)(53.00%), 프랑스(파리)(50.00%)도 과반이 낯선 사람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 **'보통' 응답 비율** 대만(타이베이)(35.29%), 인도네시아(자카르타)(34.29%), 일본(도쿄)(33.57%)에서 '보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Q16-6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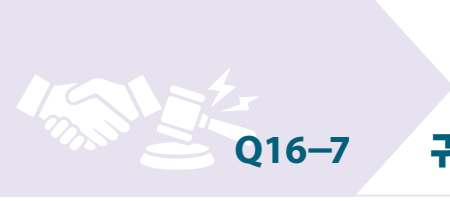




이 문항은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낯선 사람(Q16_5)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인도(뉴델리)만이 과반의 신뢰를 보였고, 대한민국(서울)은 10% 미만의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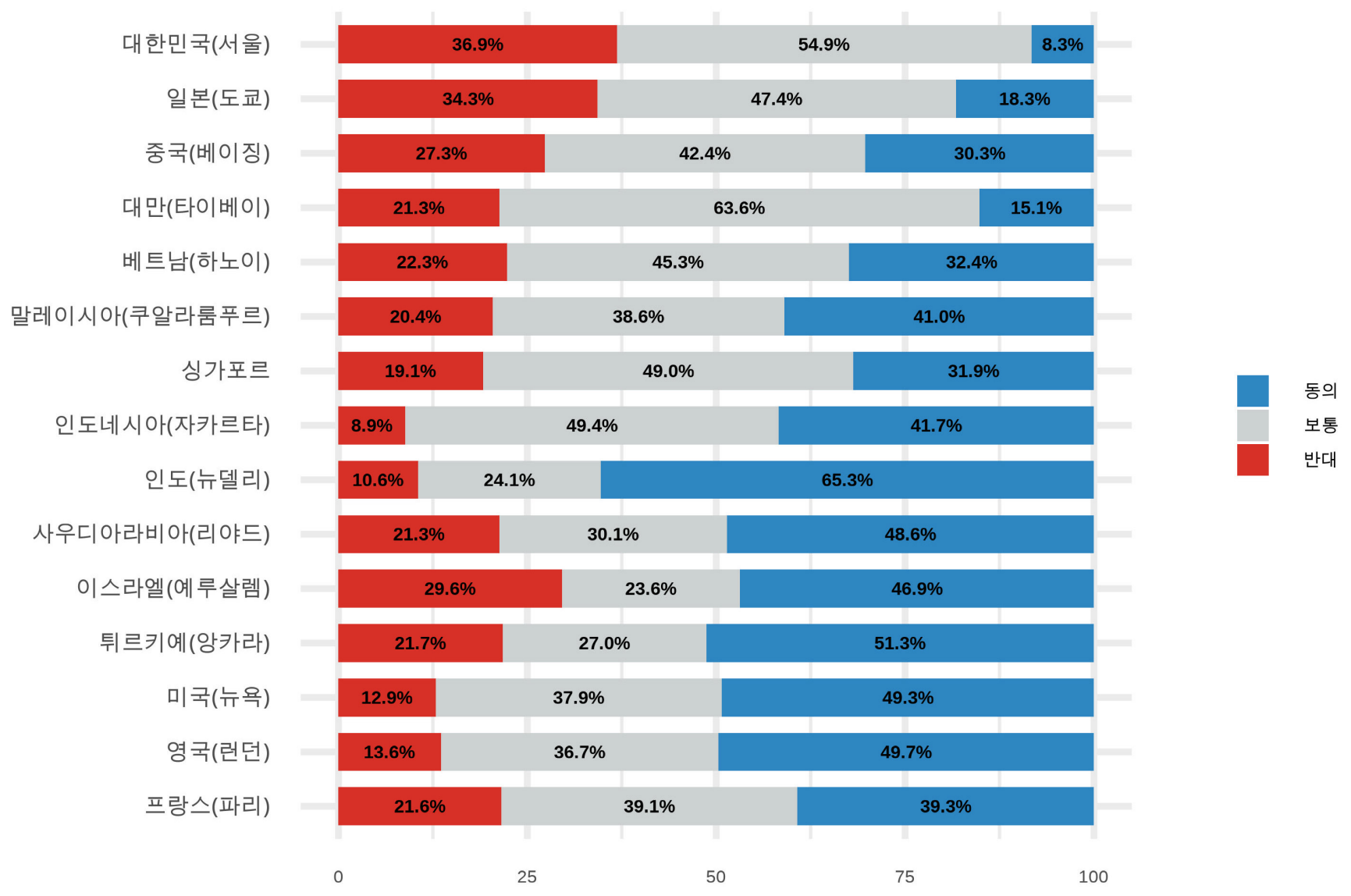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높은 도시** 인도(뉴델리)가 56.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스라엘(예루살렘)(46.71%), 튀르키예(앙카라)(45.29%), 미국(뉴욕)(44.29%) 순이었다.
- **'신뢰' 비율이 낮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8.86%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대만(타이베이)(12.86%), 일본(도쿄)(19.86%)도 10%대의 저조한 신뢰율을 보였다.
- **'불신' 비율이 높은 도시** 대한민국(서울)(48.29%), 프랑스(파리)(46.14%),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42.71%) 순으로 높았다.
- **'보통' 응답 비율** 대만(타이베이)(48.29%), 일본(도쿄)(47.71%), 대한민국(서울)(42.86%), 인도네시아(자카르타)(41.43%)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보적인 태도인 '보통' 응답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Q16-7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문항은 '타 종교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인도(뉴델리)와 튀르키예(앙카라)만이 과반의 신뢰를 보였으며, 대다수 도시에서 '보통'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민국(서울)은 이번 문항에서도 '신뢰' 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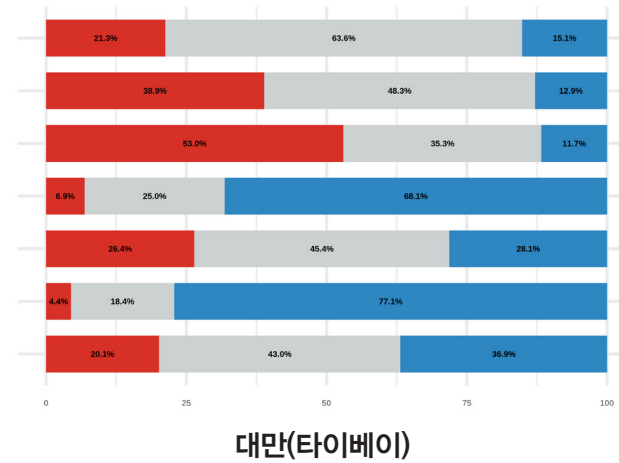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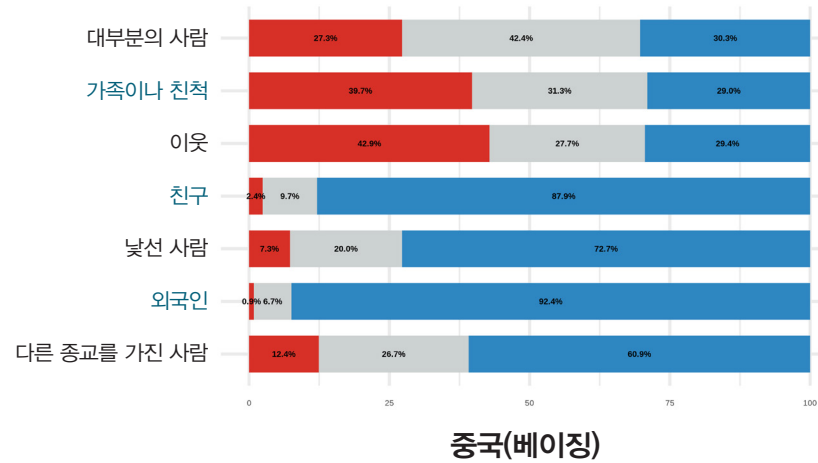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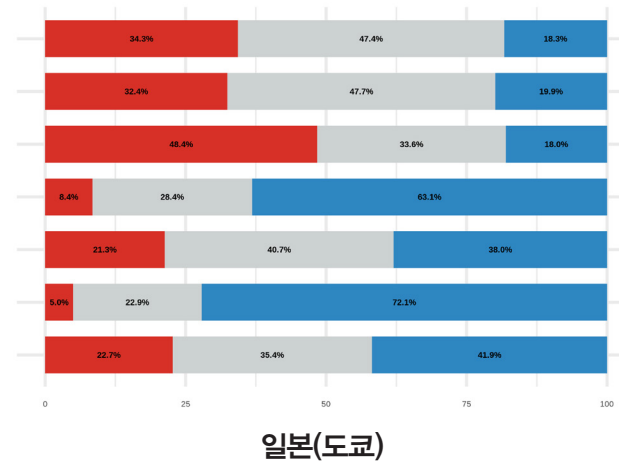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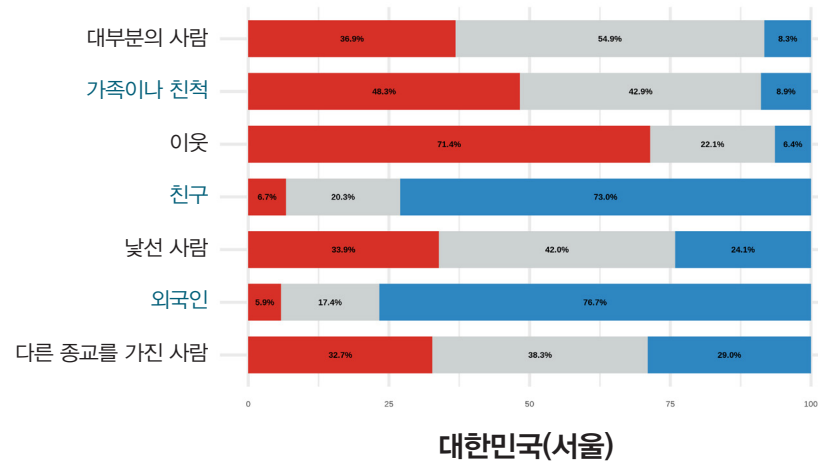
15개 도시별 응답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비율이 50% 이상인 도시** 인도(뉴델리)(65.29%)와 튀르키예(앙카라)(51.29%) 두 도시뿐이었다.
- **'신뢰' 비율이 낮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은 8.29%로 가장 낮았으며, 대만(타이베이)(15.14%), 일본(도쿄)(18.29%)이 그 뒤를 이었다.
- **'불신' 비율이 높은 도시** 대한민국(서울)이 36.86%로 가장 높았고, 일본(도쿄)(34.29%), 이스라엘(예루살렘)(29.57%) 순이었다.
- **'보통' 응답 비율** 이 문항에서는 '보통'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대만(타이베이)은 63.57%로 매우 높았으며, 대한민국(서울)(54.86%), 인도네시아(자카르타)(49.43%), 싱가포르(49.00%), 일본(도쿄)(47.43%) 등 많은 도시에서 '보통'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Q. 귀하는 다음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동북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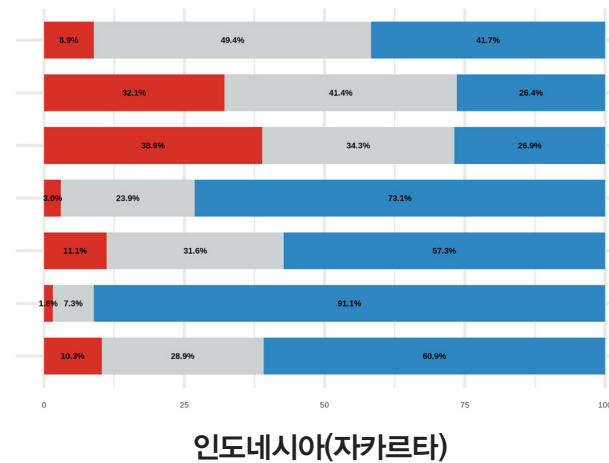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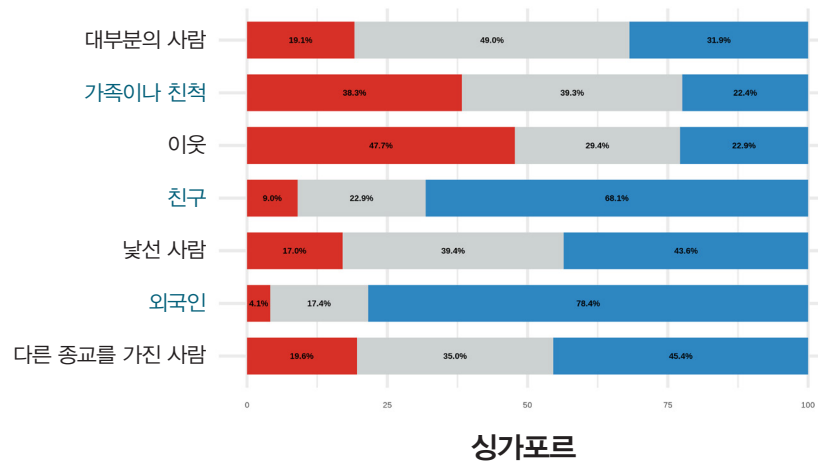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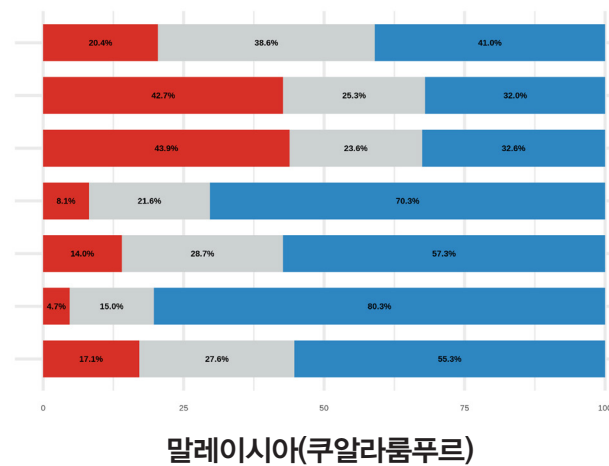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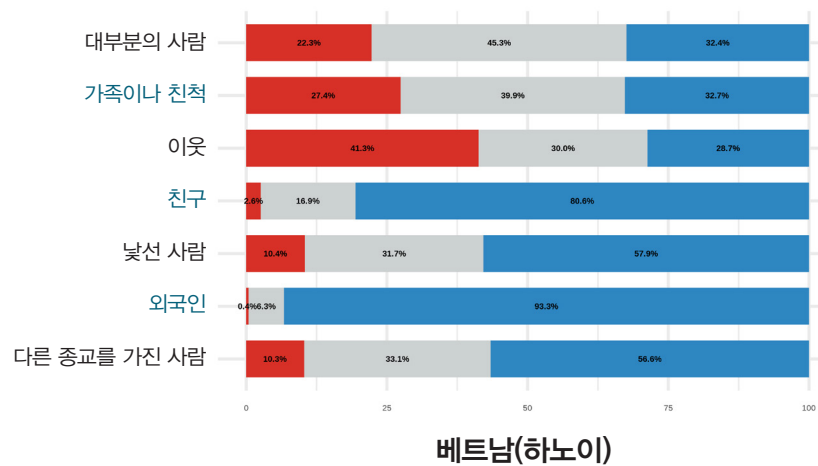


신뢰한다
보통
신뢰하지 않음



Q.귀하는 다음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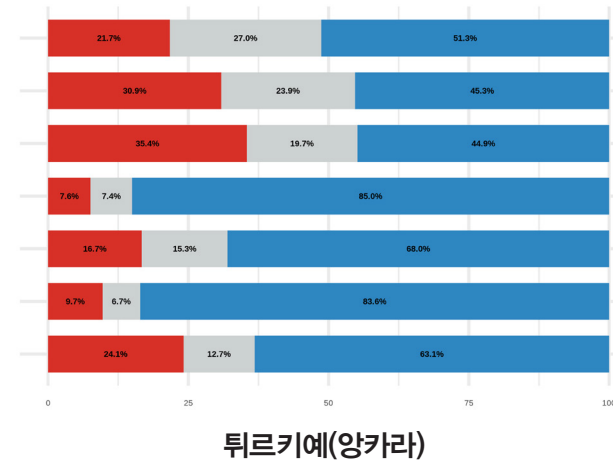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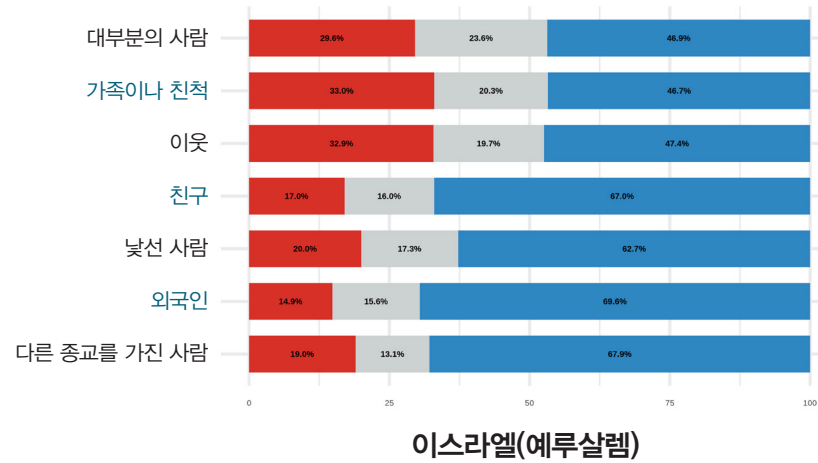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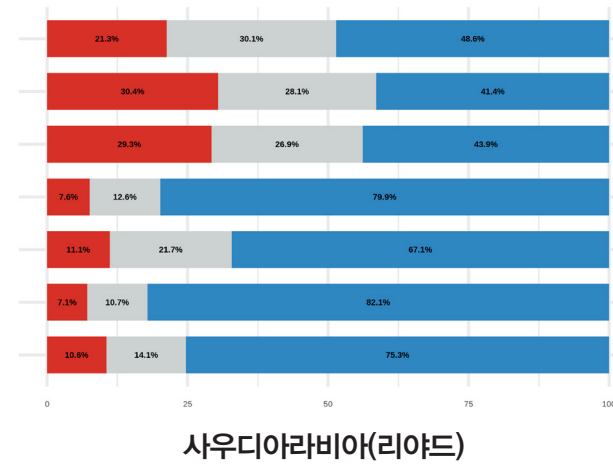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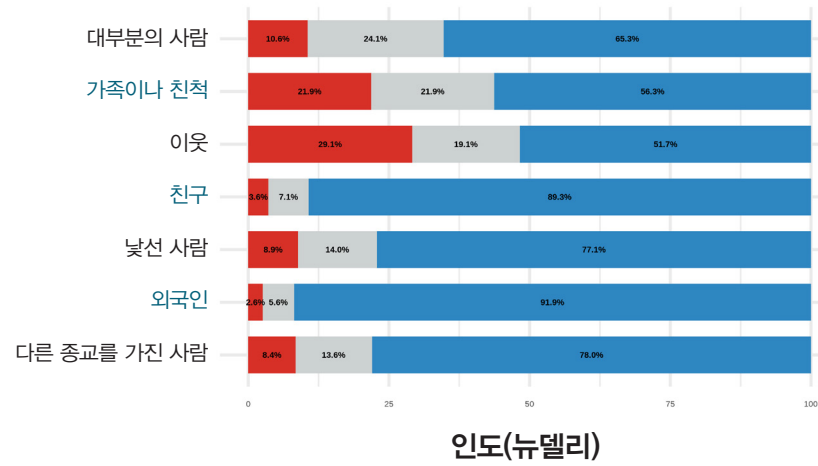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Q.귀하는 다음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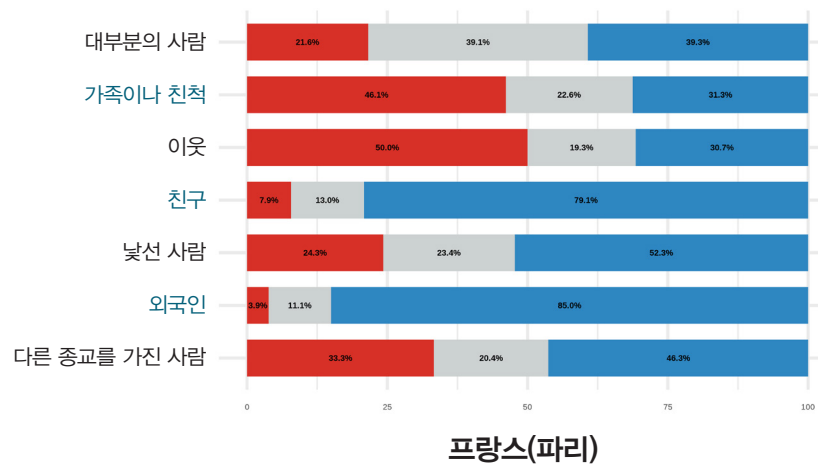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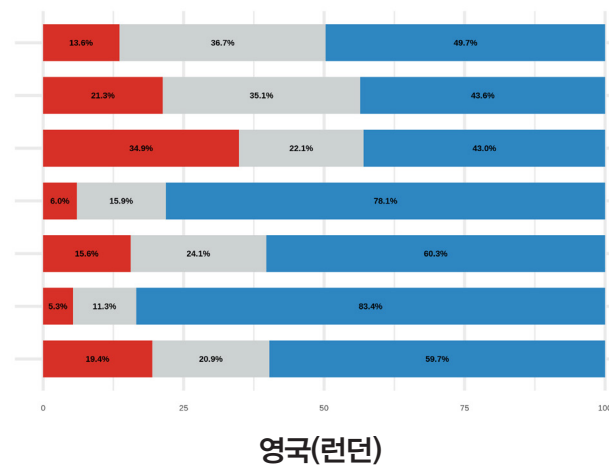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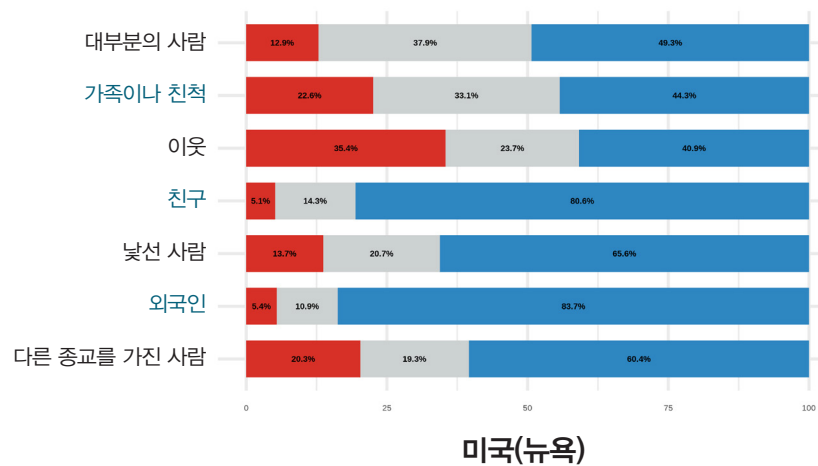
서·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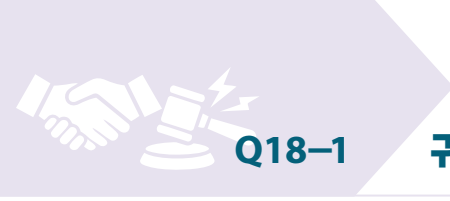




Q. 귀하는 다음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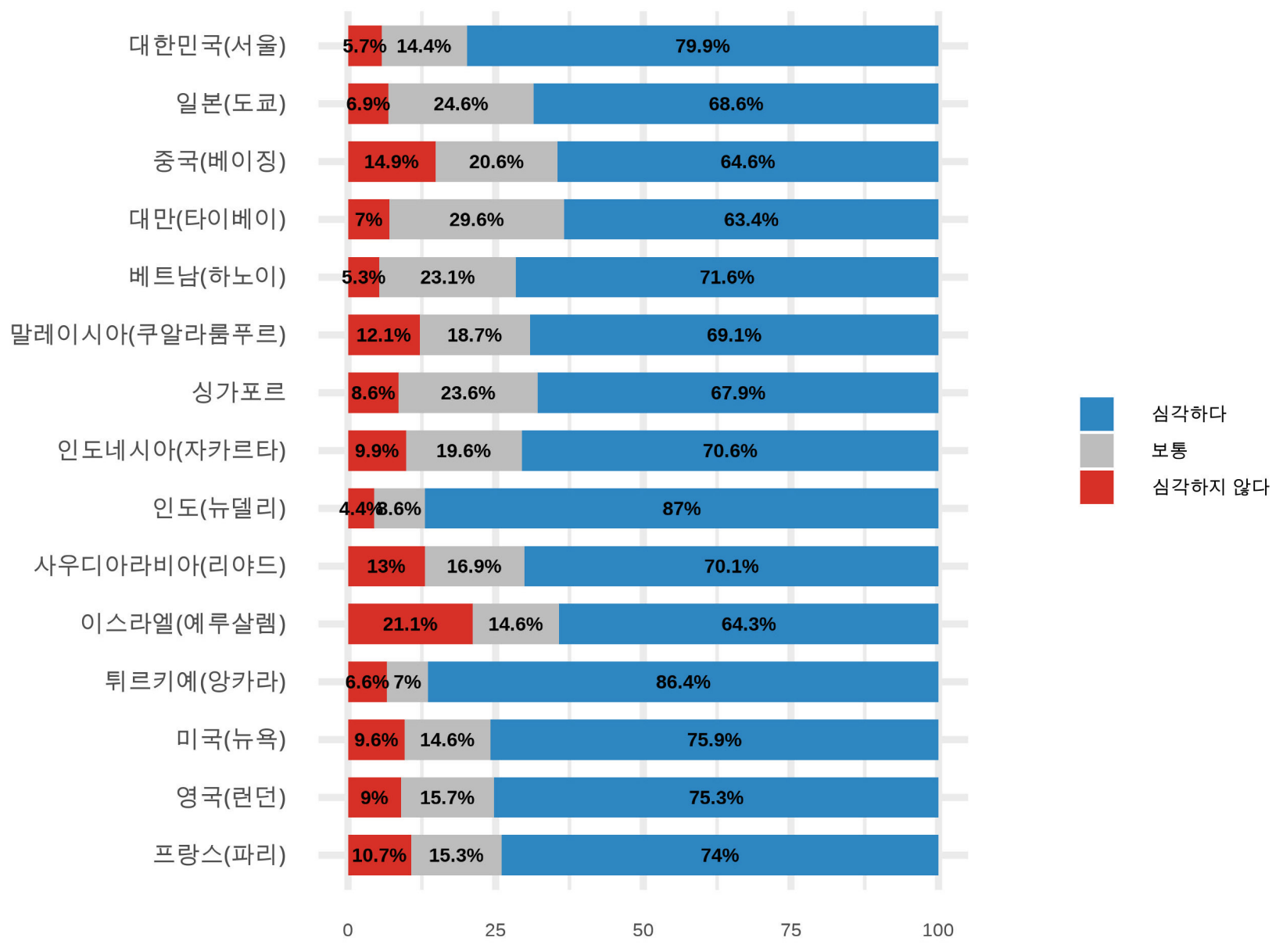
서구





Q18-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즉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15개 도시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빈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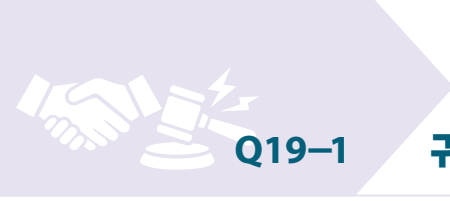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의 뉴델리와 튀르키예의 앙카라에서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87.00%와 86.4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도시의 시민들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서울 역시 79.8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빈부 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의 뉴욕(75.86%), 영국의 런던(75.29%), 프랑스의 파리(74.00%) 등 서구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도 70% 중반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빈부 갈등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63.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나, 이 또한 과반을 훌쩍 넘는 수치여서 빈부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도시를 막론하고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반대 응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21.14%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베이징(14.86%)이 그 뒤를 이었다.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응답은 대만의 타이베이(29.57%)와 일본의 도쿄(24.5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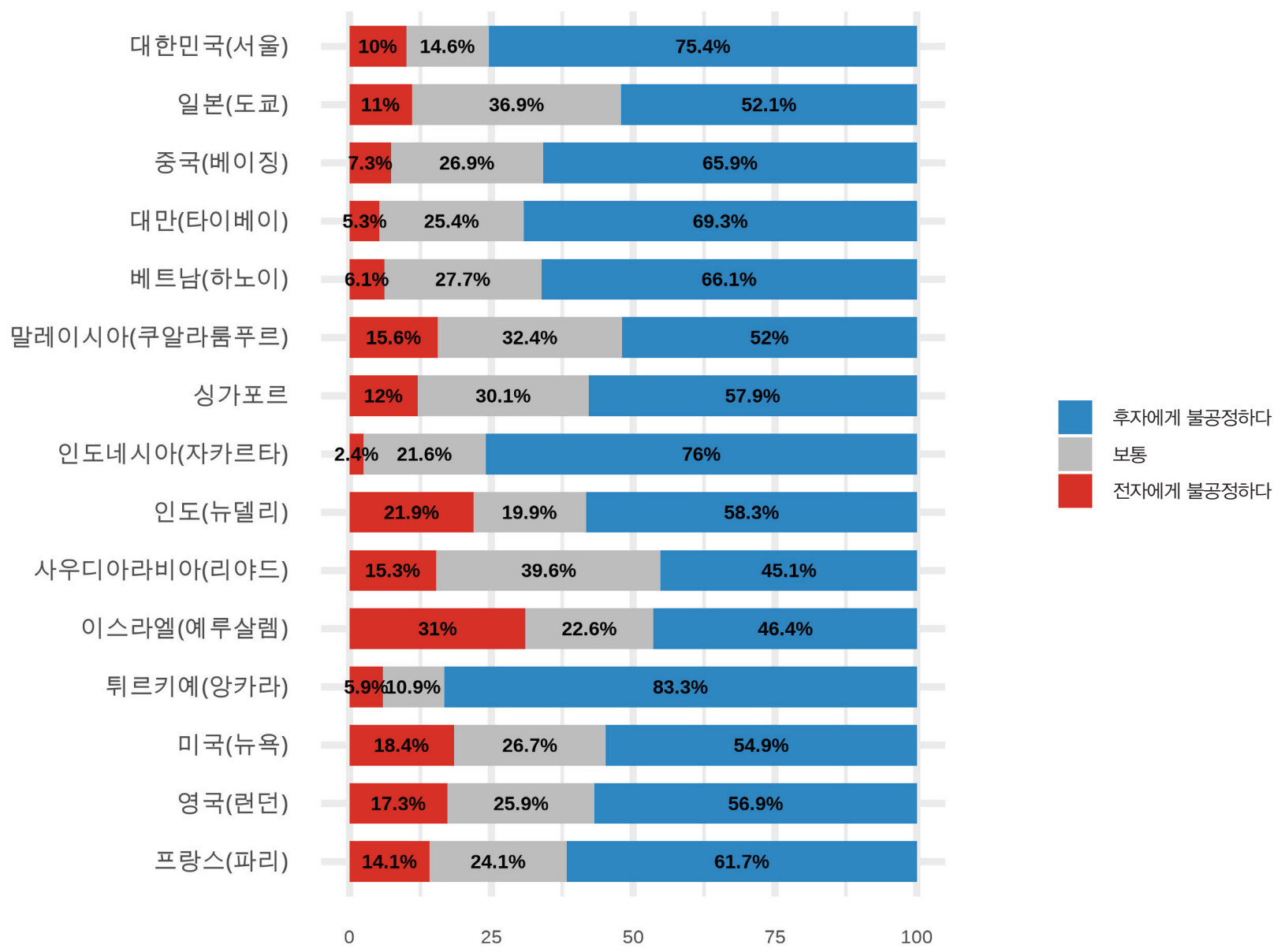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9.86%, 보통 14.43%, 반대 5.71%.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일본(도쿄)** 동의 68.57%, 보통 24.57%,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중국(베이징)** 동의 64.57%, 보통 20.57%, 반대 14.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대만(타이베이)** 동의 63.43%, 보통 29.57%,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베트남(하노이)** 동의 71.57%, 보통 23.14%, 반대 5.29%.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14%, 보통 18.71%, 반대 12.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싱가포르** 동의 67.86%, 보통 23.57%, 반대 8.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0.57%, 보통 19.57%, 반대 9.86%.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7.0%, 보통 8.57%, 반대 4.43%.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0.14%, 보통 16.86%, 반대 13.0%.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4.29%, 보통 14.57%, 반대 21.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43%, 보통 7.0%, 반대 6.57%.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75.86%, 보통 14.57%, 반대 9.57%.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5.29%, 보통 15.71%, 반대 9.0%.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74.0%, 보통 15.29%, 반대 10.71%.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Q19-1

귀하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15개 도시 모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튀르키예의 앙카라(83.29%)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76.00%)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한 사회라고 응답해, 빈부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서울 역시 75.43%가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시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의 타이베이(69.29%), 베트남의 하노이(66.14%), 중국의 베이징(65.86%)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6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수에 그쳤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31.00%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뉴델리(21.86%)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이들 도시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비슷하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39.57%)와 일본의 도쿄(36.8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 도시에서는 불공정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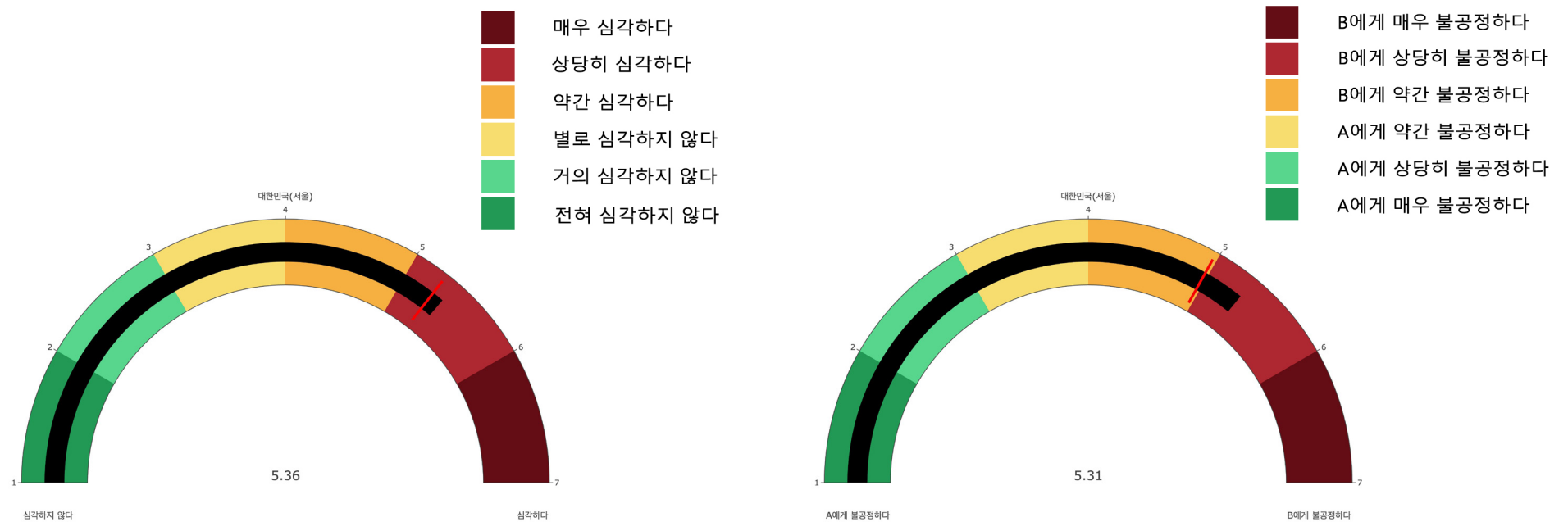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75.43%, 비슷함 14.57%,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0.0%. 빈곤층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압도적.
- **일본(도쿄)**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2.14%, 비슷함 36.86%,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1.0%.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중국(베이징)**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65.86%, 비슷함 26.86%,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7.29%.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대만(타이베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69.29%, 비슷함 25.43%,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5.29%.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베트남(하노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66.14%, 비슷함 27.71%,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6.14%.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2.0%, 비슷함 32.43%,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5.57%.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싱가포르**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7.86%, 비슷함 30.14%,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2.0%.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76.0%, 비슷함 21.57%,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2.43%. 빈곤층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압도적.
- **인도(뉴델리)**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8.29%, 비슷함 19.86%,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21.86%.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45.14%, 비슷함 39.57%,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5.29%. 빈곤층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의견 분화.
- **이스라엘(예루살렘)**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46.43%, 비슷함 22.57%,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31.0%. 부유층에 대한 역차별 인식도 일부 존재.
- **튀르키예(앙카라)**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83.29%, 비슷함 10.86%,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5.86%. 빈곤층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압도적.
- **미국(뉴욕)**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4.86%, 비슷함 26.71%,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8.43%.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영국(런던)**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56.86%, 비슷함 25.86%,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7.29%. 과반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프랑스(파리)**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 61.71%, 비슷함 24.14%, 부유한 사람에게 불공정 14.14%. 가난한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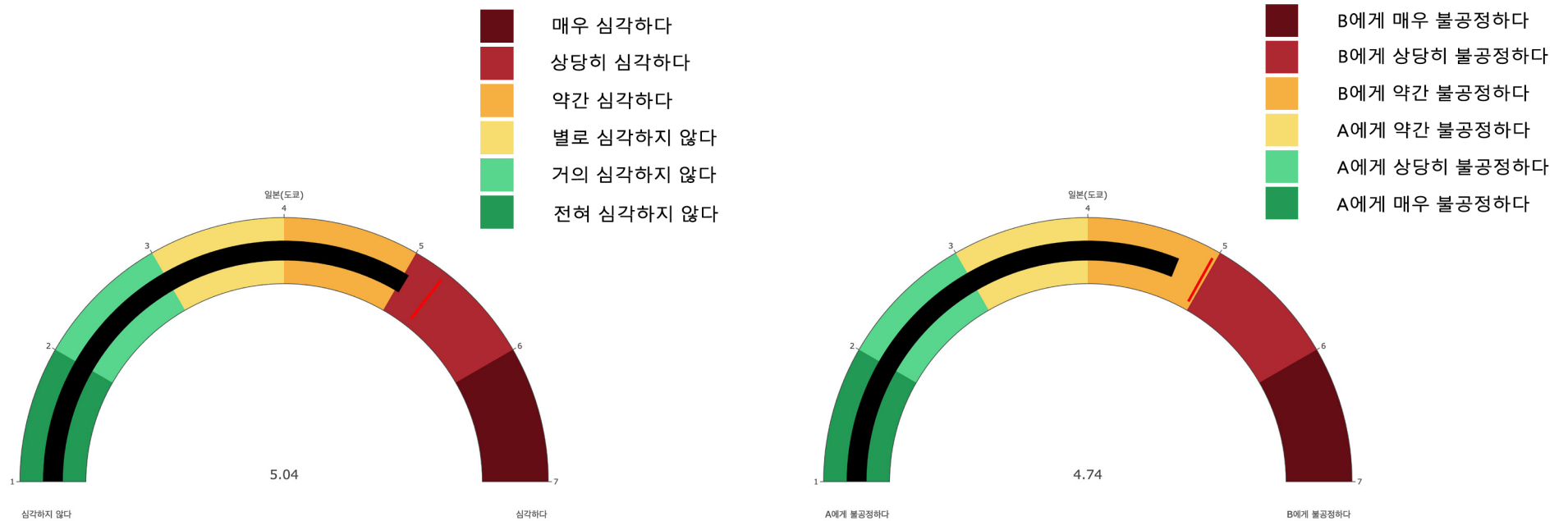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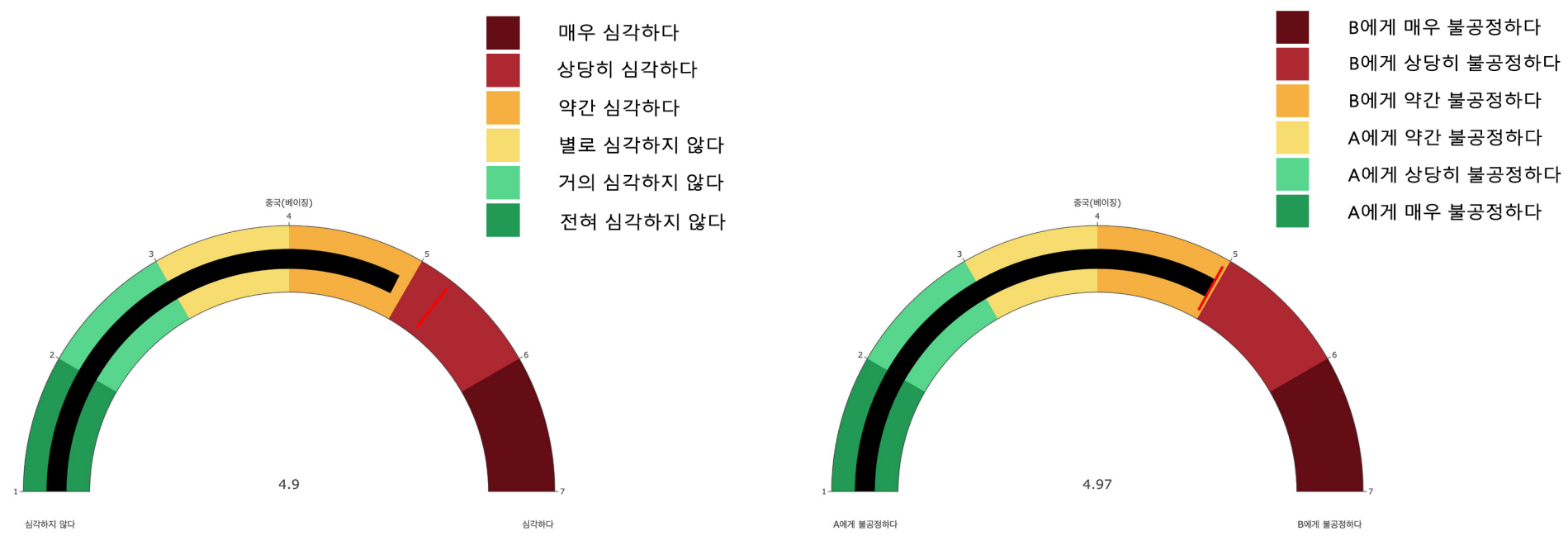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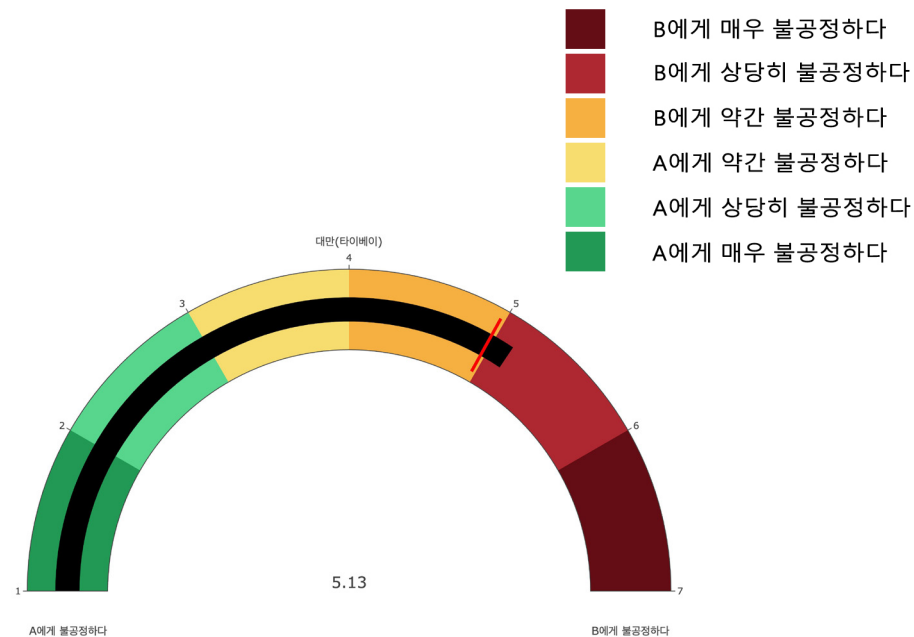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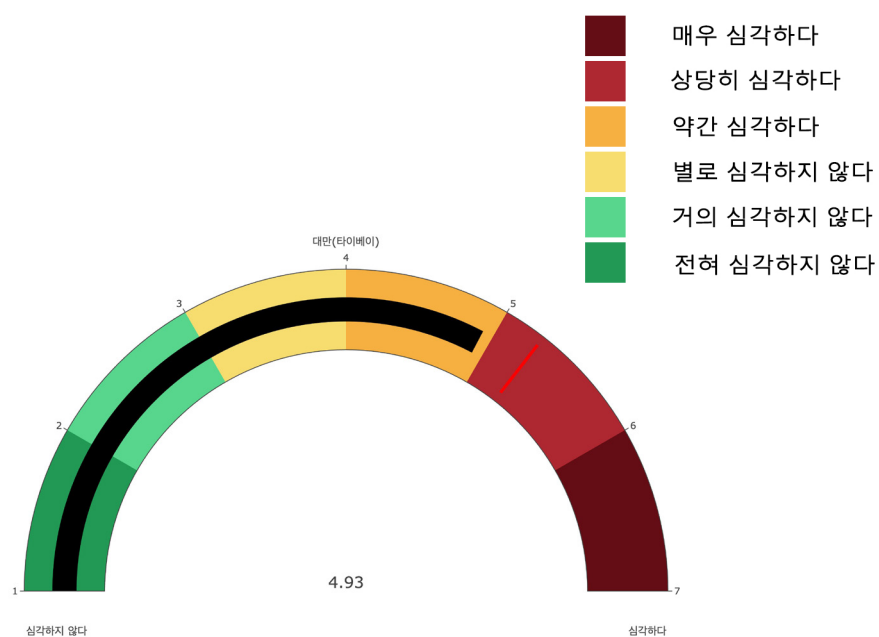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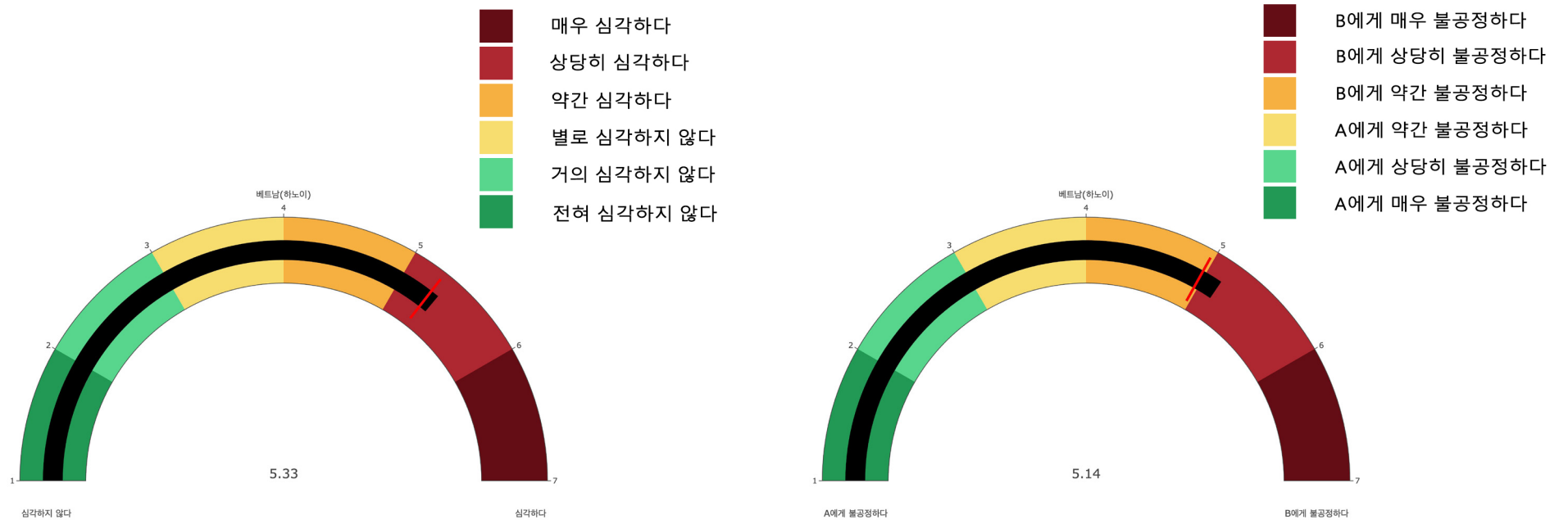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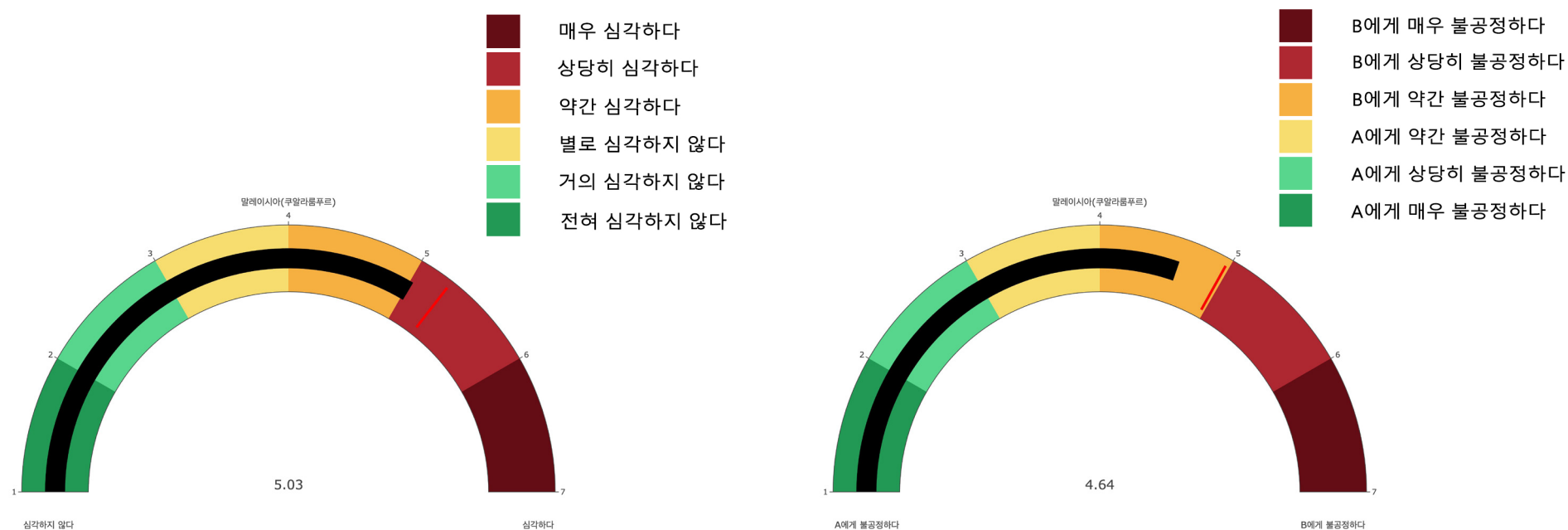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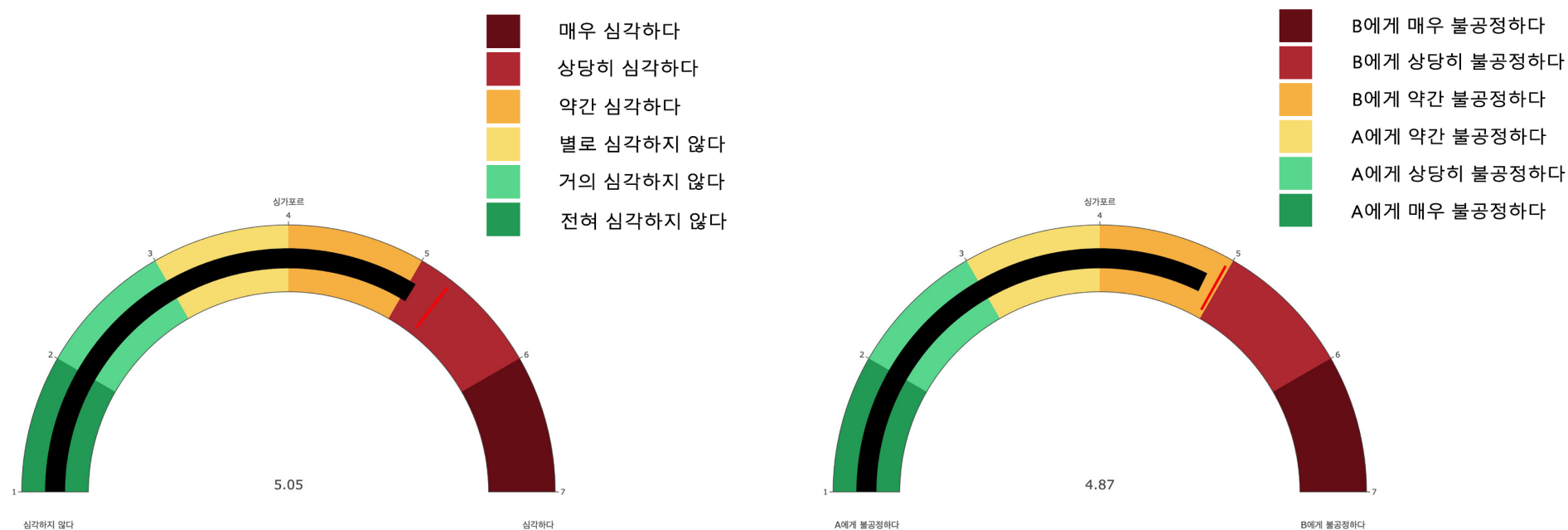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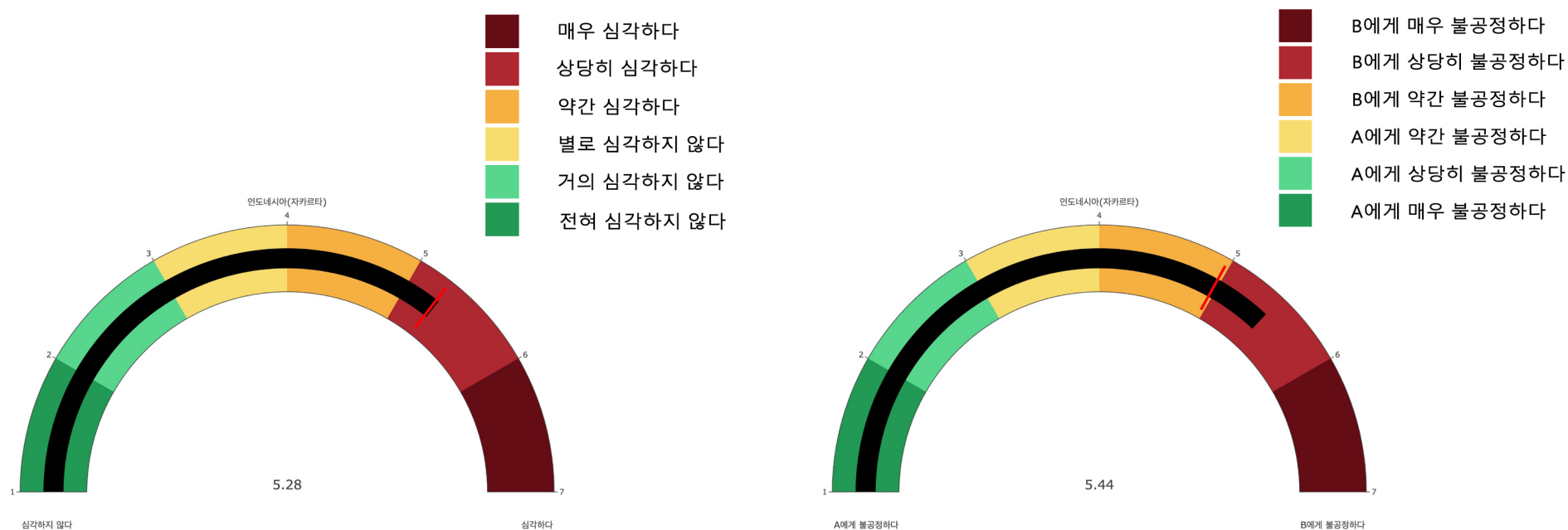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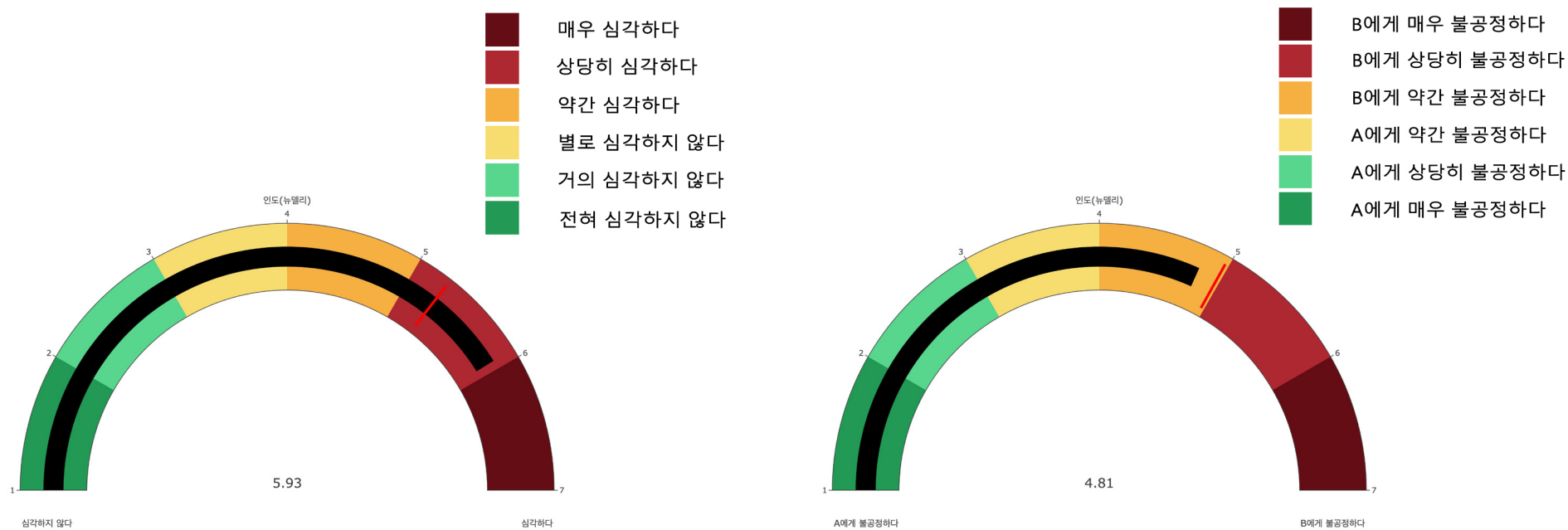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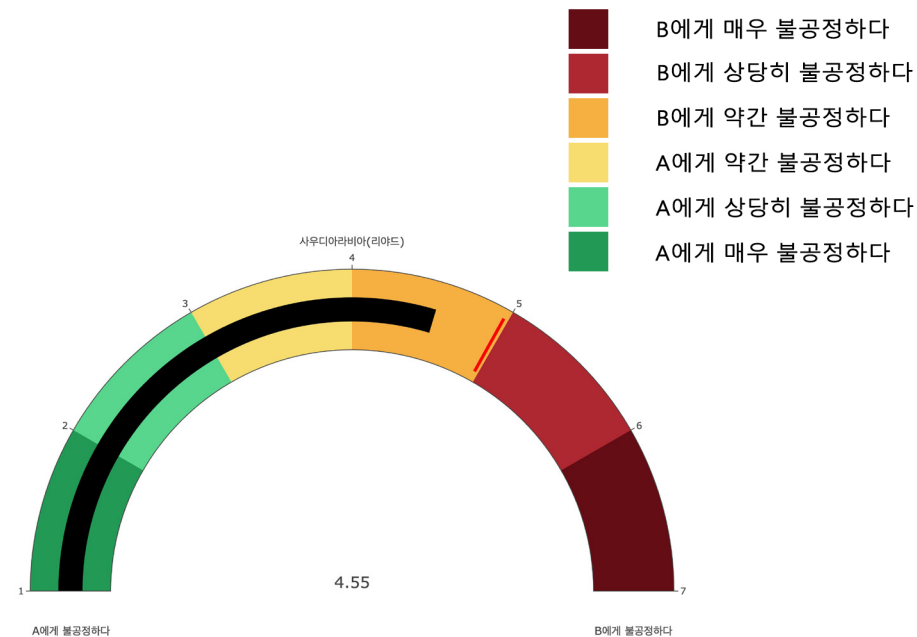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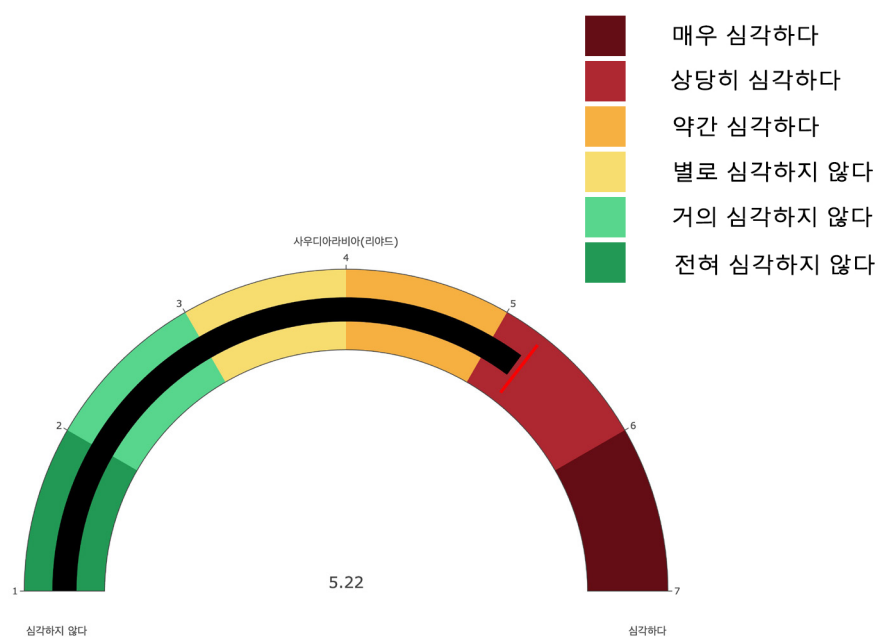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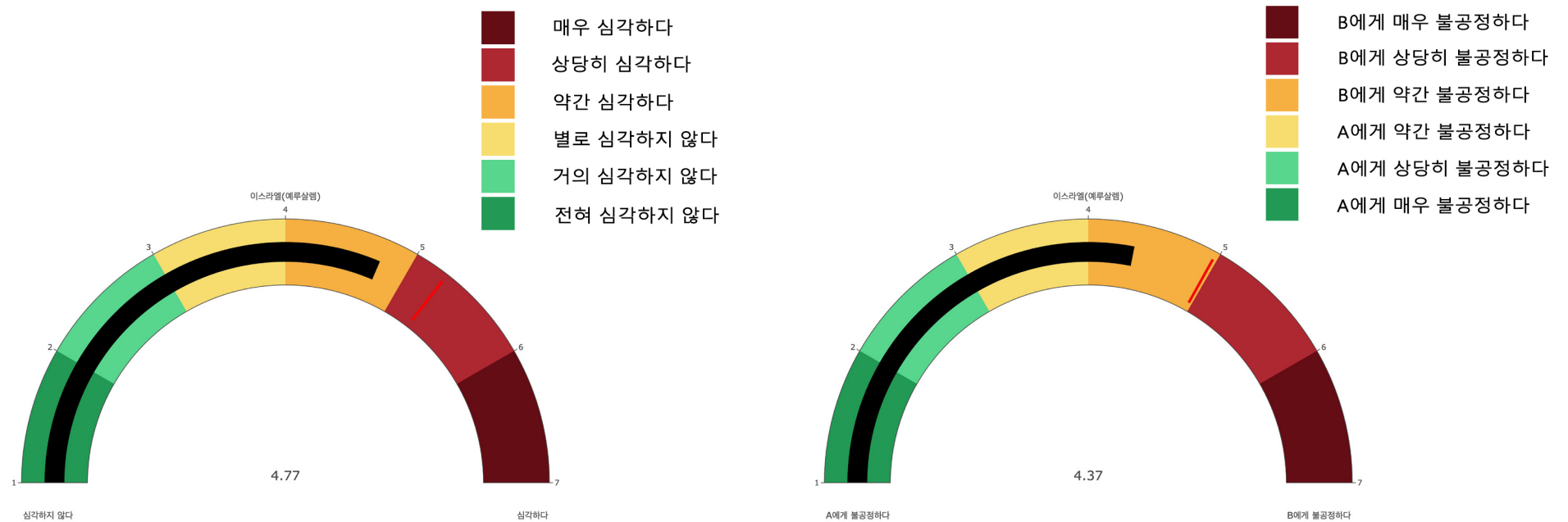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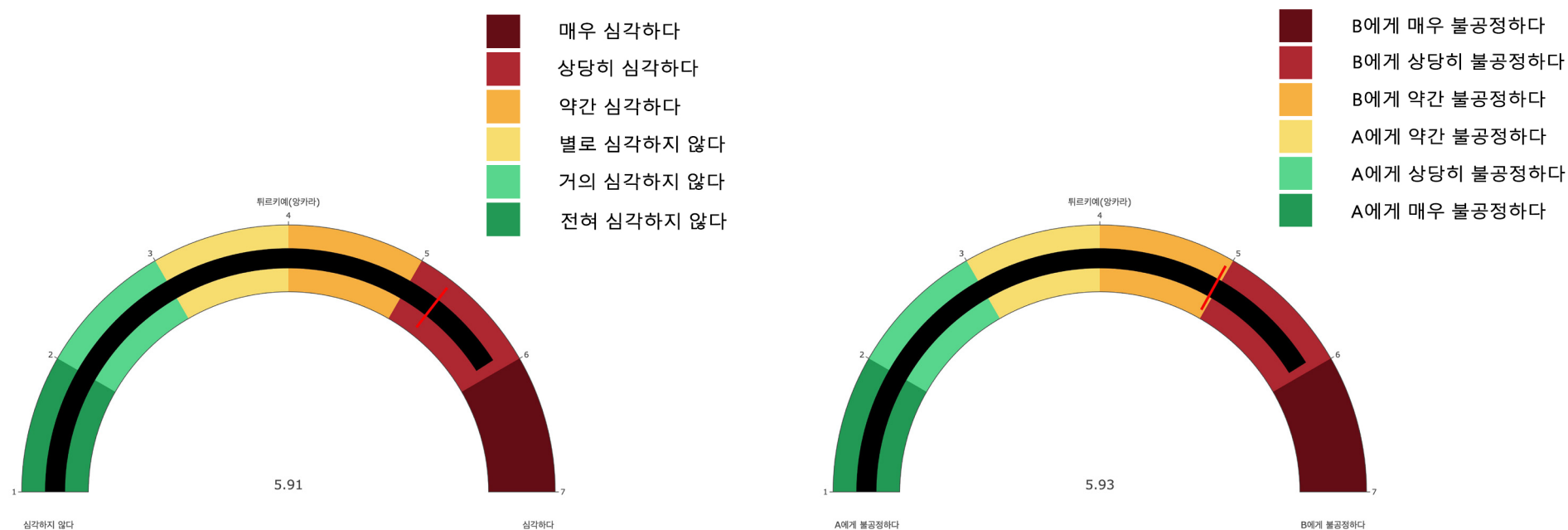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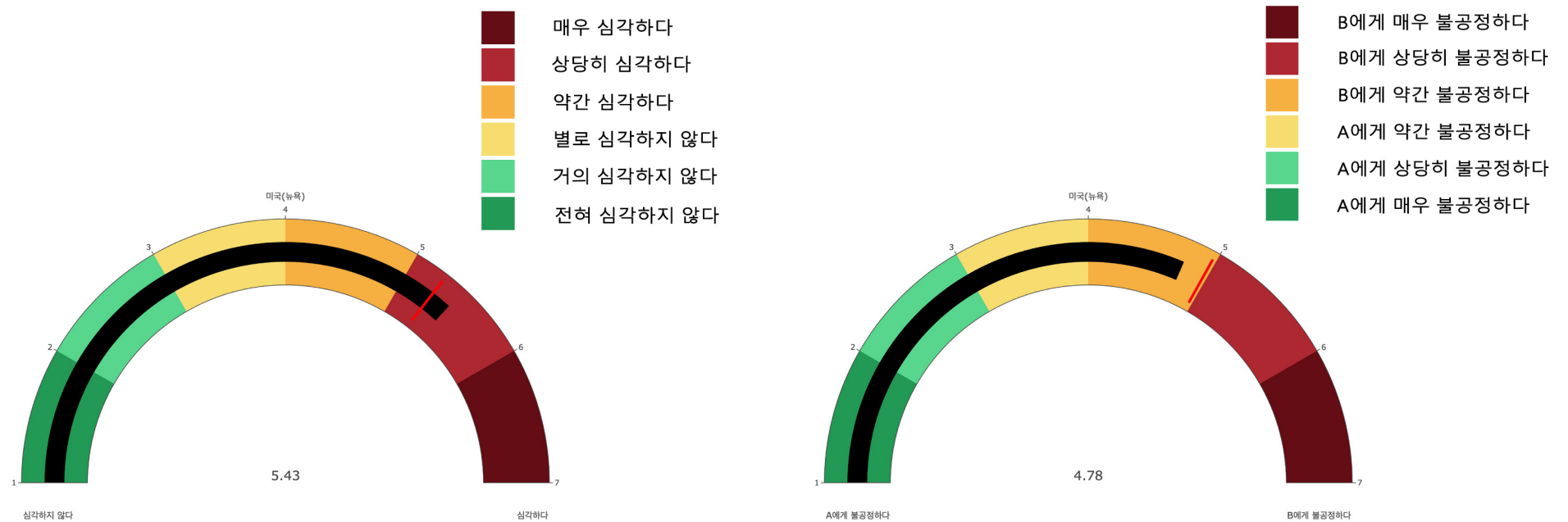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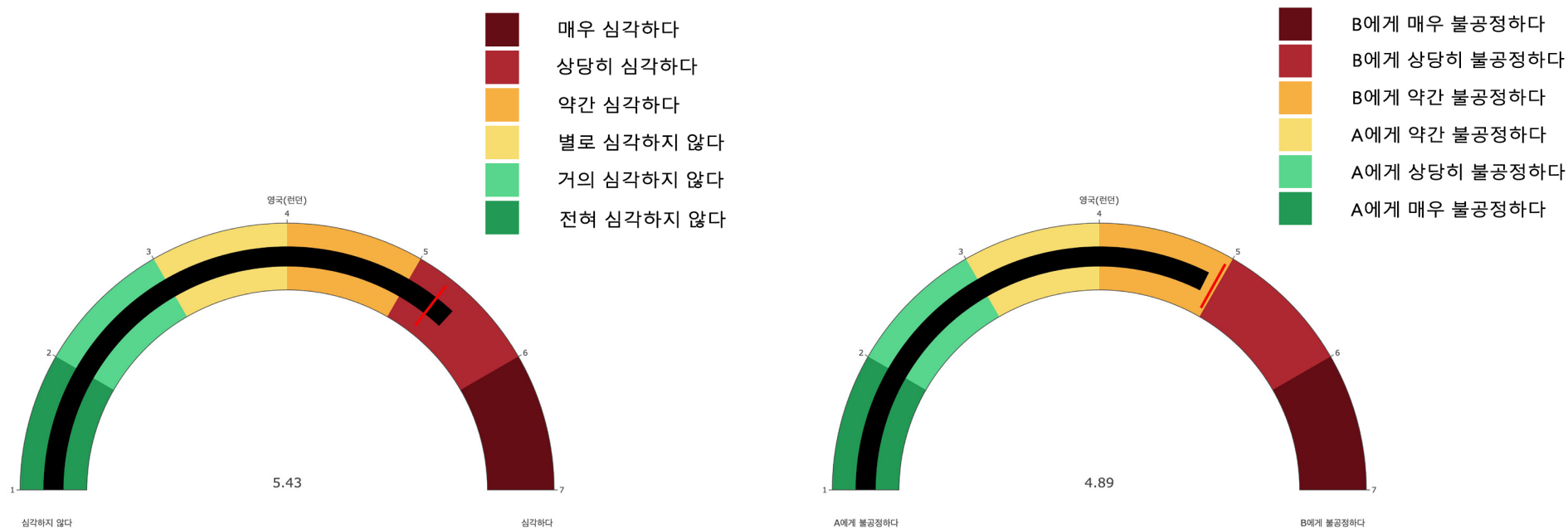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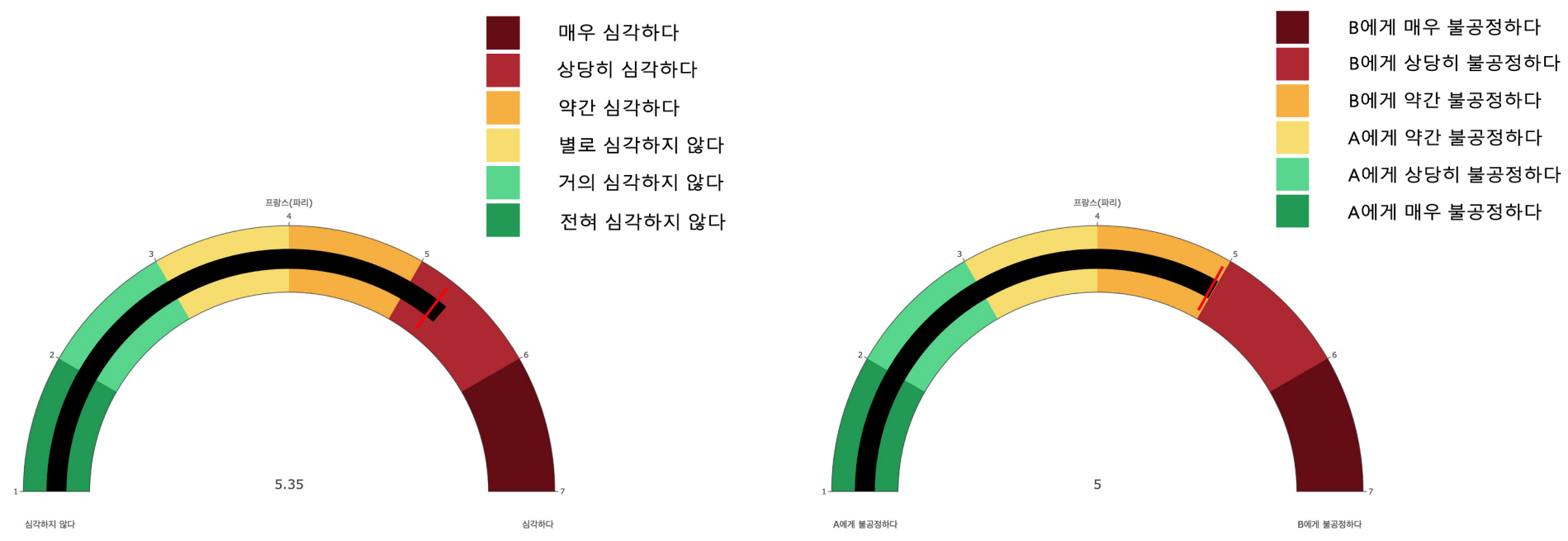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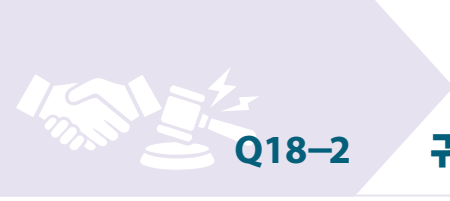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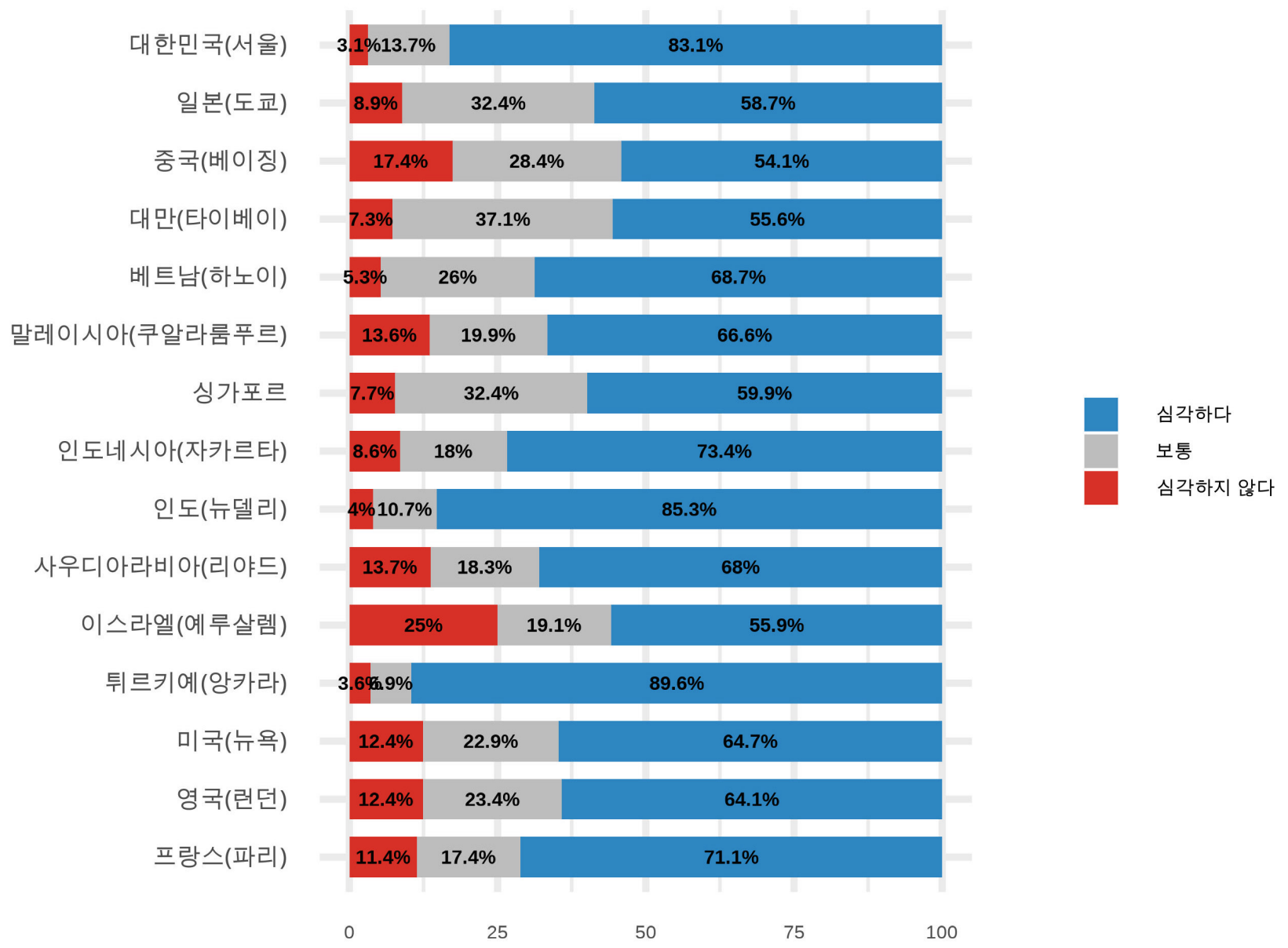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2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즉 노사 갈등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분석 결과, 빈부 갈등과 마찬가지로 노사 갈등 또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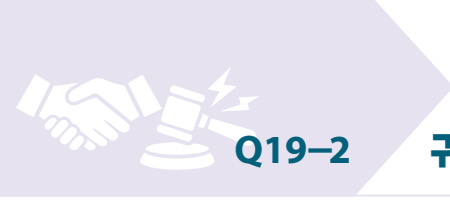
특히 튀르키예의 앙카라는 89.57%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인도의 뉴델리 역시 85.29%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83.14%로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 대다수가 노사 관계를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한 상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73.43%)와 프랑스의 파리(71.14%)도 7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베이징(54.14%)과 대만의 타이베이(55.57%), 이스라엘의 예루살렘(55.86%)은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00%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노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도시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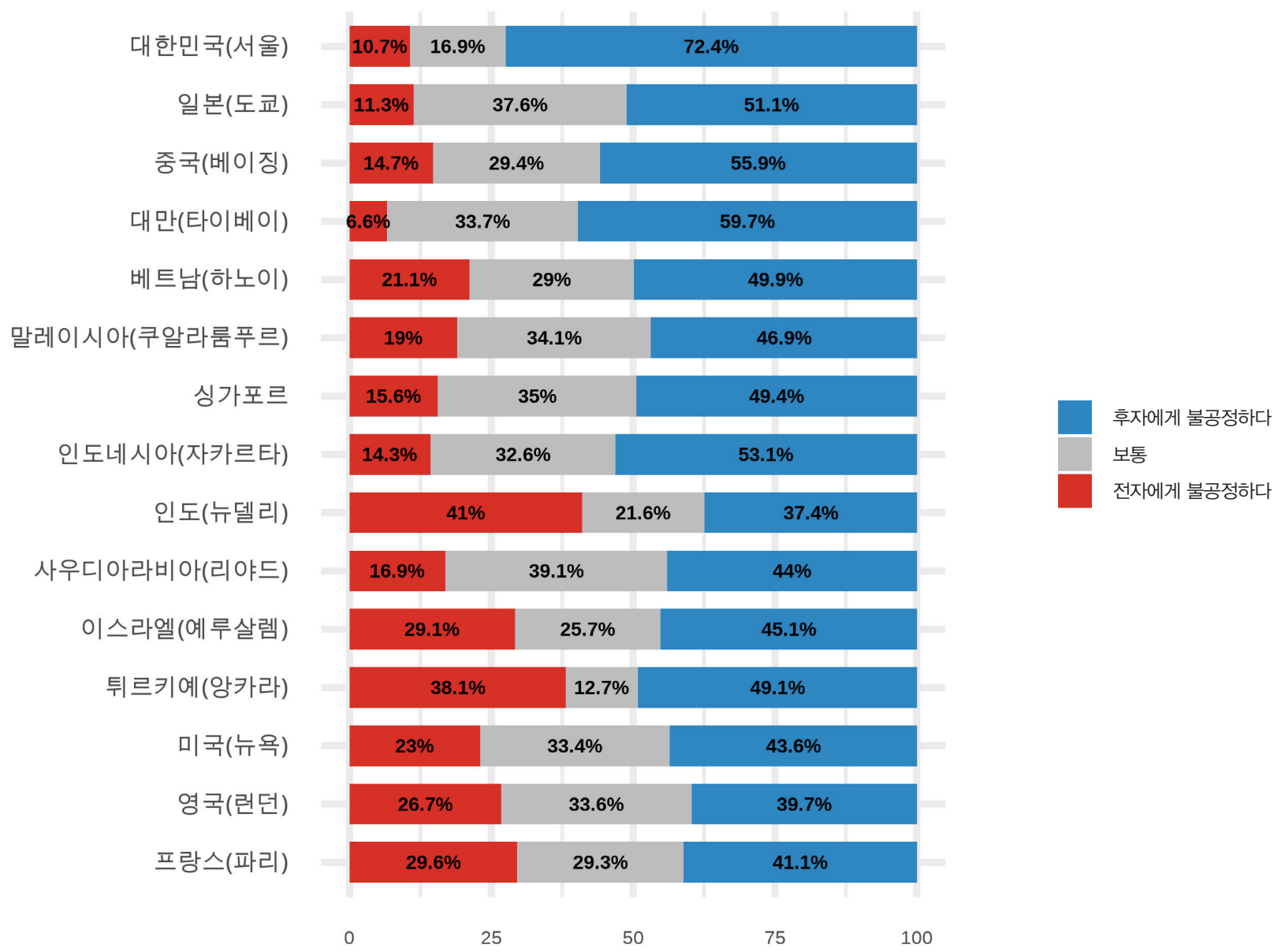
보통이라는 응답은 대만의 타이베이가 37.1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의 도쿄와 싱가포르도 32.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아시아 국가의 도시들에서는 노사 갈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3.14%, 보통 13.71%, 반대 3.14%.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일본(도쿄)** 동의 58.71%, 보통 32.43%, 반대 8.86%.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중국(베이징)** 동의 54.14%, 보통 28.43%, 반대 17.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대만(타이베이)** 동의 55.57%, 보통 37.14%, 반대 7.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베트남(하노이)** 동의 68.71%, 보통 26.0%, 반대 5.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6.57%, 보통 19.86%, 반대 13.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싱가포르** 동의 59.86%, 보통 32.43%, 반대 7.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3.43%, 보통 18.0%, 반대 8.57%.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5.29%, 보통 10.71%, 반대 4.0%.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8.0%, 보통 18.29%, 반대 13.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5.86%, 보통 19.14%, 반대 25.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57%, 보통 6.86%, 반대 3.57%.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64.71%, 보통 22.86%,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영국(런던)** 동의 64.14%, 보통 23.43%,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프랑스(파리)** 동의 71.14%, 보통 17.43%, 반대 11.43%.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귀하는 우리 사회가 경영자와 노동자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경영자’와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분석 결과, 15개 도시 중 12개 도시에서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노동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72.43%가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노사 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이 경영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타이베이(59.71%), 중국의 베이징(55.86%),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3.14%) 등도 과반이 노동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도쿄 역시 51.14%가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인도의 뉴델리는 ‘경영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1.00%로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37.4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튀르키예의 앙카라(38.14%)와 프랑스의 파리(29.57%),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9.14%) 등에서도 경영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39.14%로 가장 높아, 노사 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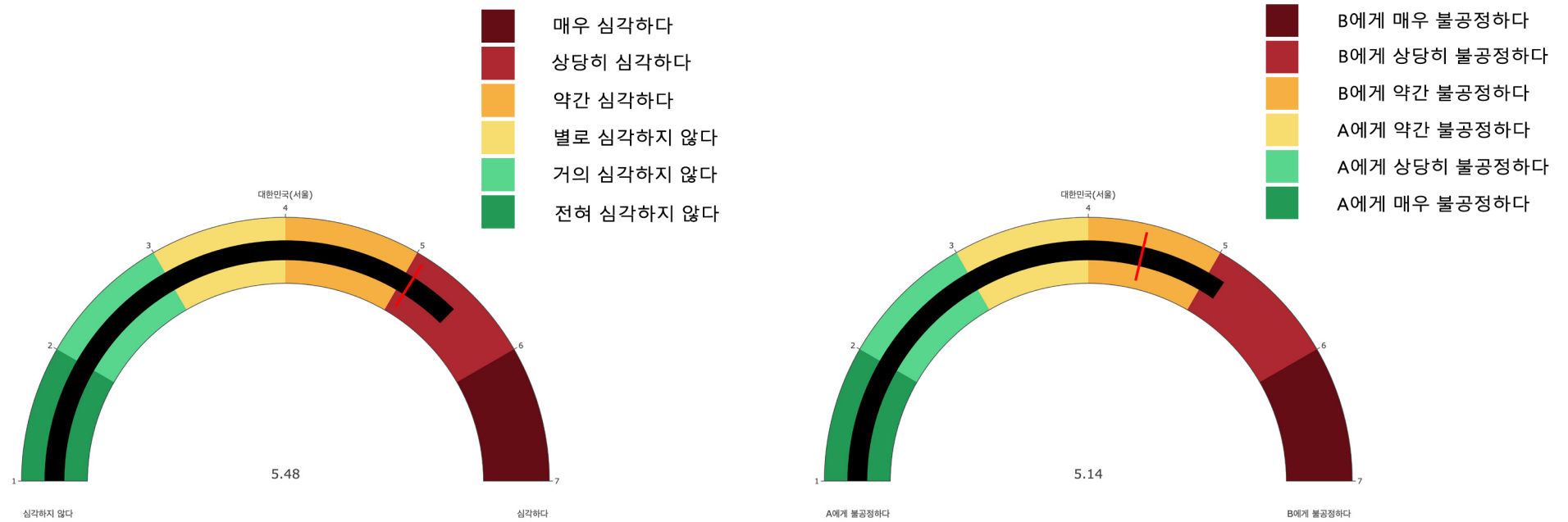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경영자에게 불공정 10.71%, 비슷함 16.86%, 노동자에게 불공정 72.43%.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압도적.
- **일본(도쿄)** 경영자에게 불공정 11.29%, 비슷함 37.57%, 노동자에게 불공정 51.14%. 과반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중국(베이징)** 경영자에게 불공정 14.71%, 비슷함 29.43%, 노동자에게 불공정 55.86%.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대만(타이베이)** 경영자에게 불공정 6.57%, 비슷함 33.71%, 노동자에게 불공정 59.71%.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베트남(하노이)** 경영자에게 불공정 21.14%, 비슷함 29.0%, 노동자에게 불공정 49.86%.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경영자에게 불공정 19.0%, 비슷함 34.14%, 노동자에게 불공정 46.86%.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
- **싱가포르** 경영자에게 불공정 15.57%, 비슷함 35.0%, 노동자에게 불공정 49.43%.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경영자에게 불공정 14.29%, 비슷함 32.57%, 노동자에게 불공정 53.14%. 과반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인도(뉴델리)** 경영자에게 불공정 41.0%, 비슷함 21.57%, 노동자에게 불공정 37.43%. 유일하게 경영자 불리 인식이 더 높음.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경영자에게 불공정 16.86%, 비슷함 39.14%, 노동자에게 불공정 44.0%.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의견 분화.
- **이스라엘(예루살렘)** 경영자에게 불공정 29.14%, 비슷함 25.71%, 노동자에게 불공정 45.14%.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경영자 불리 인식도 존재.
- **튀르키예(앙카라)** 경영자에게 불공정 38.14%, 비슷함 12.71%, 노동자에게 불공정 49.14%.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경영자 불리 인식도 높음.
- **미국(뉴욕)** 경영자에게 불공정 23.0%, 비슷함 33.43%, 노동자에게 불공정 43.57%.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
- **영국(런던)** 경영자에게 불공정 26.71%, 비슷함 33.57%, 노동자에게 불공정 39.71%.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
- **프랑스(파리)** 경영자에게 불공정 29.57%, 비슷함 29.29%, 노동자에게 불공정 41.14%. 노동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의견 분화.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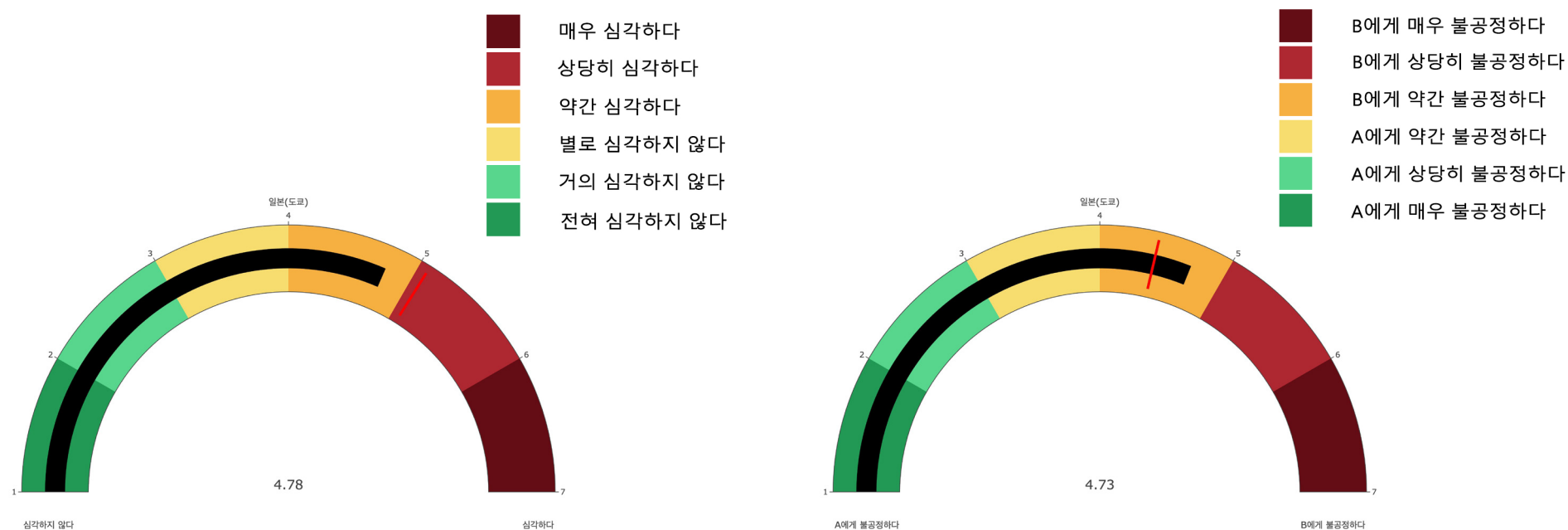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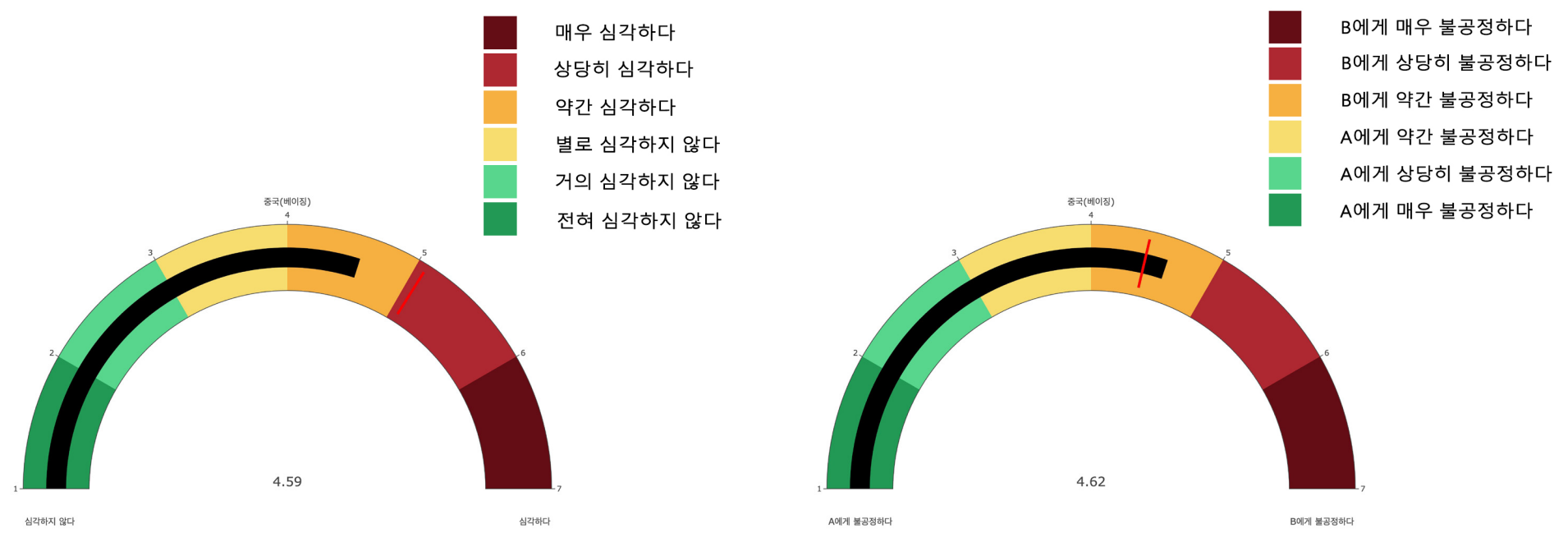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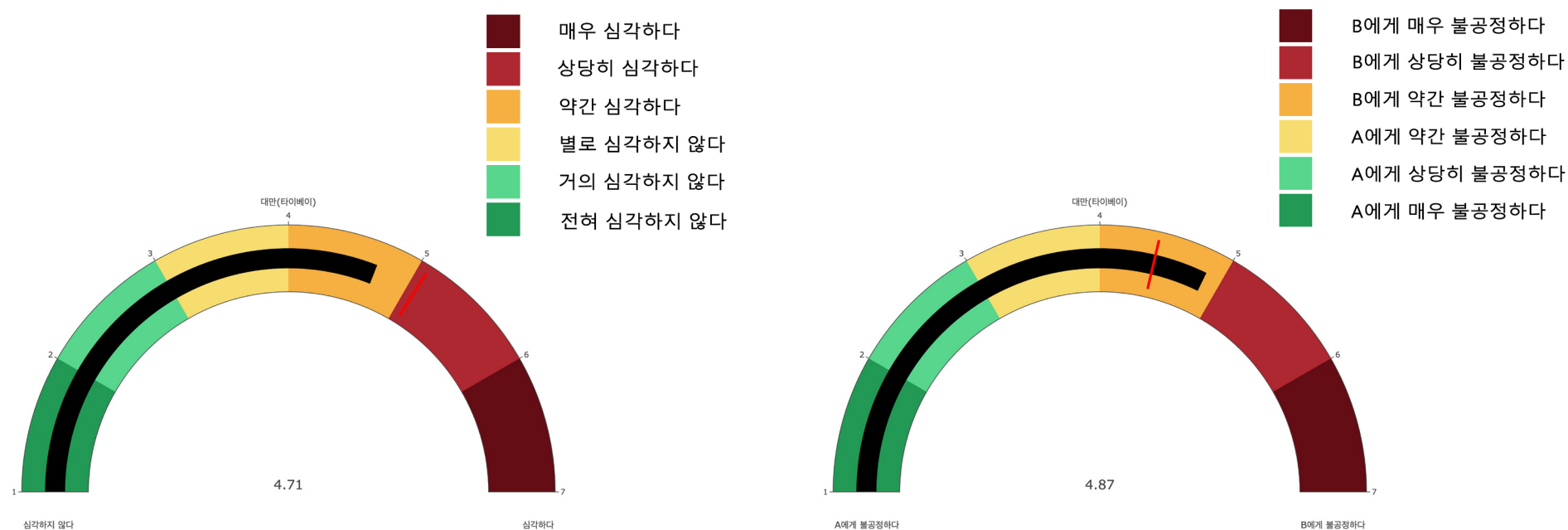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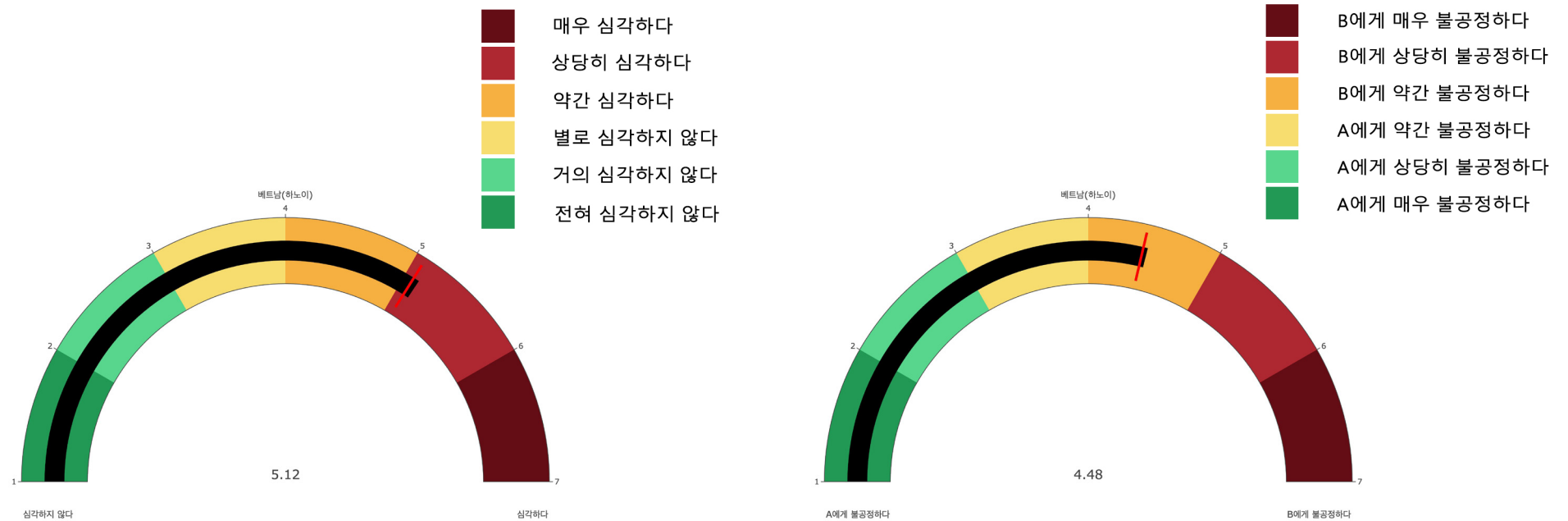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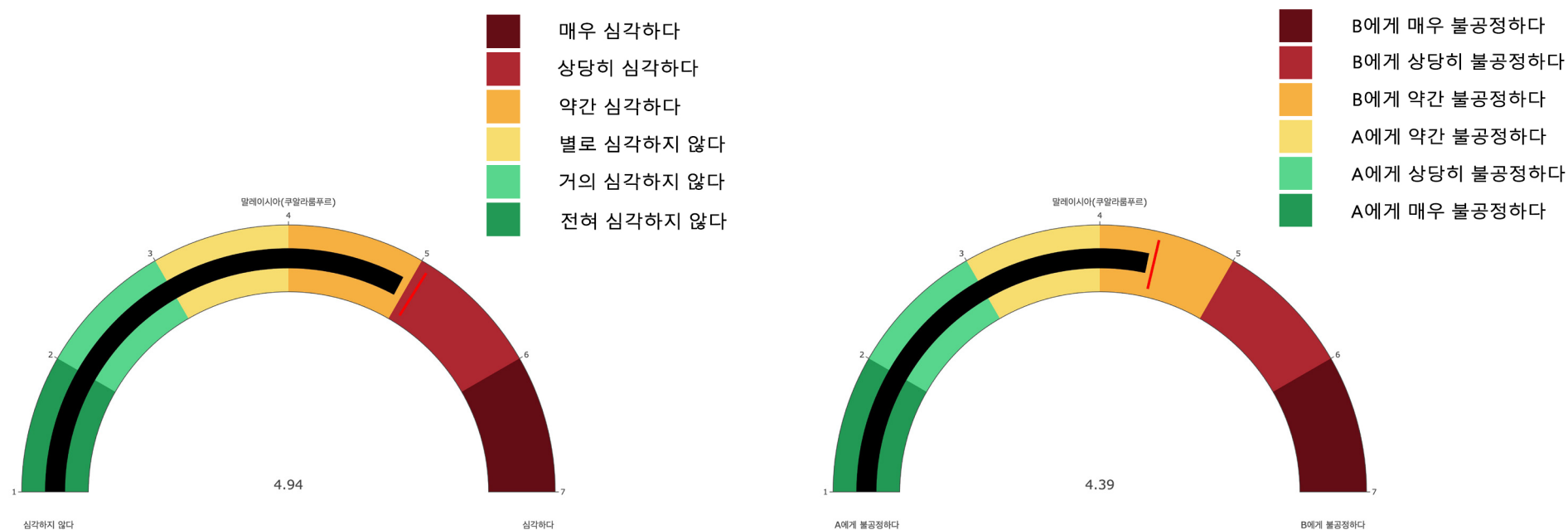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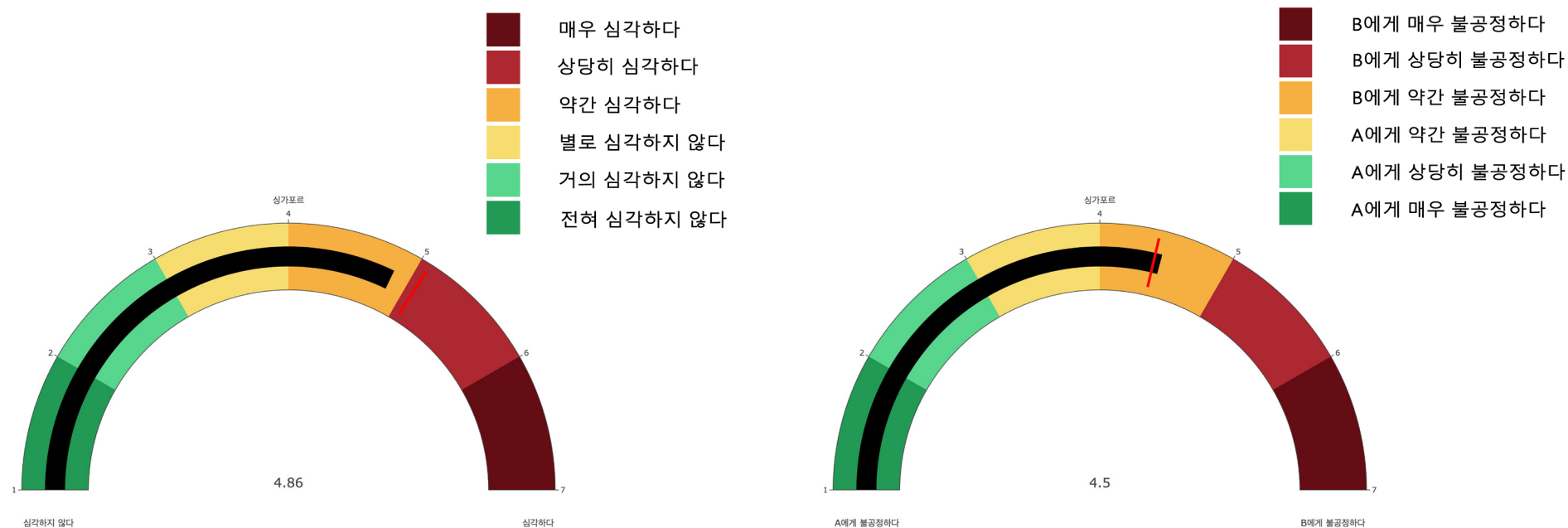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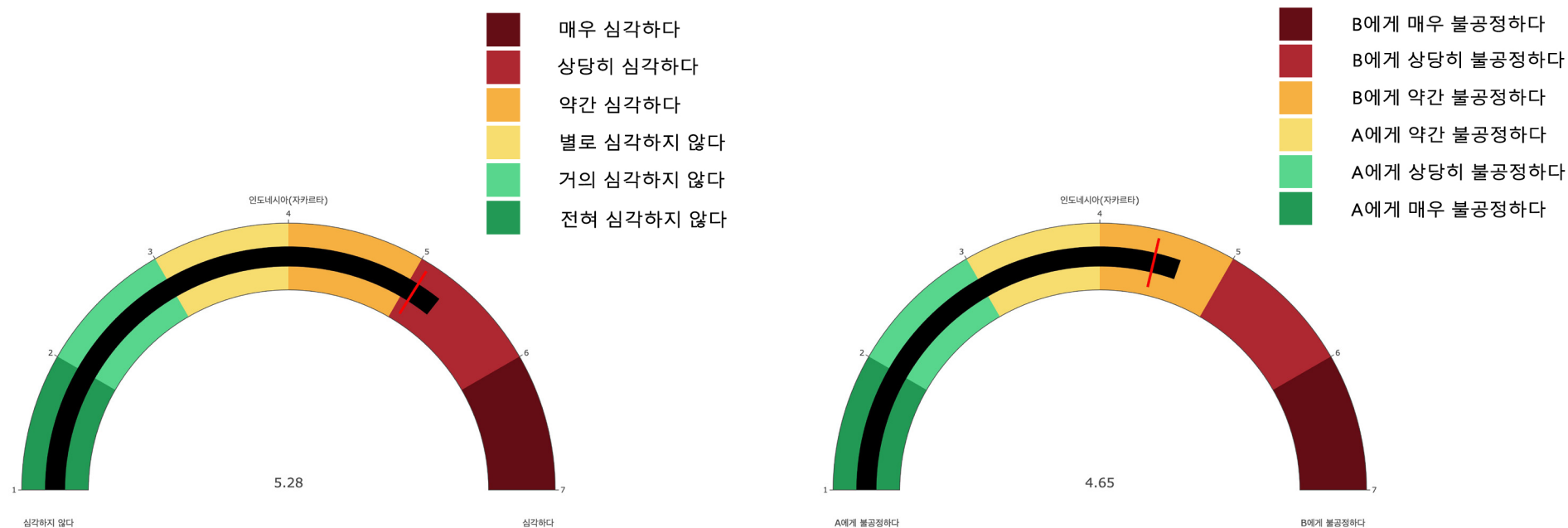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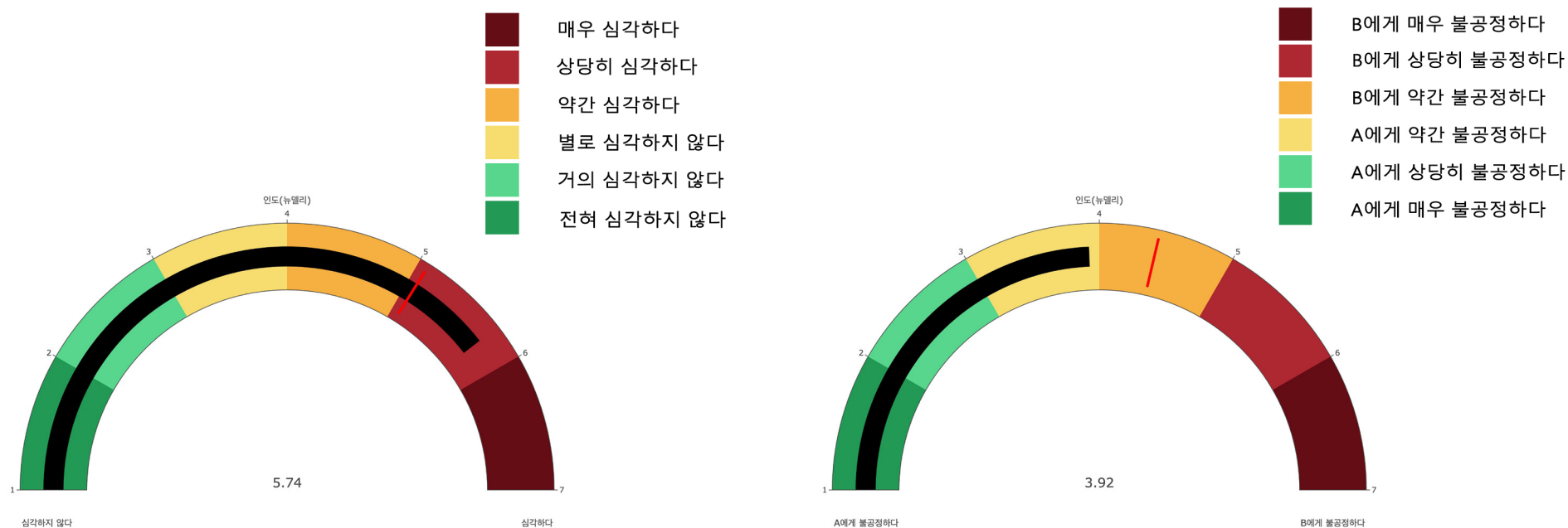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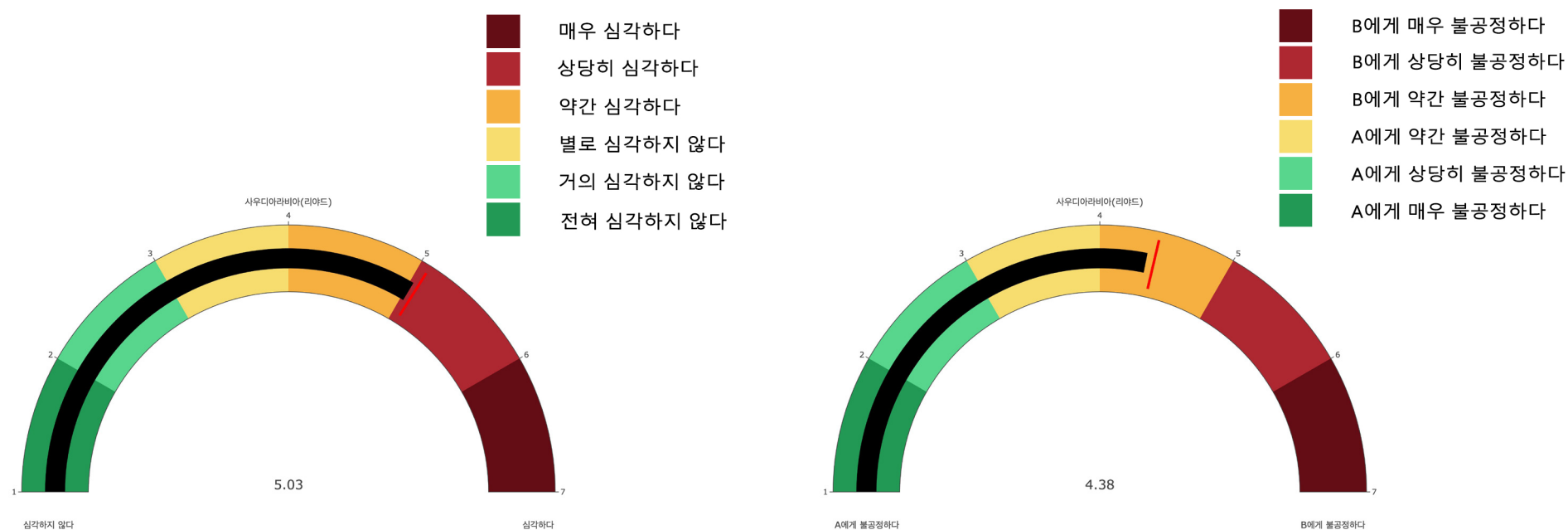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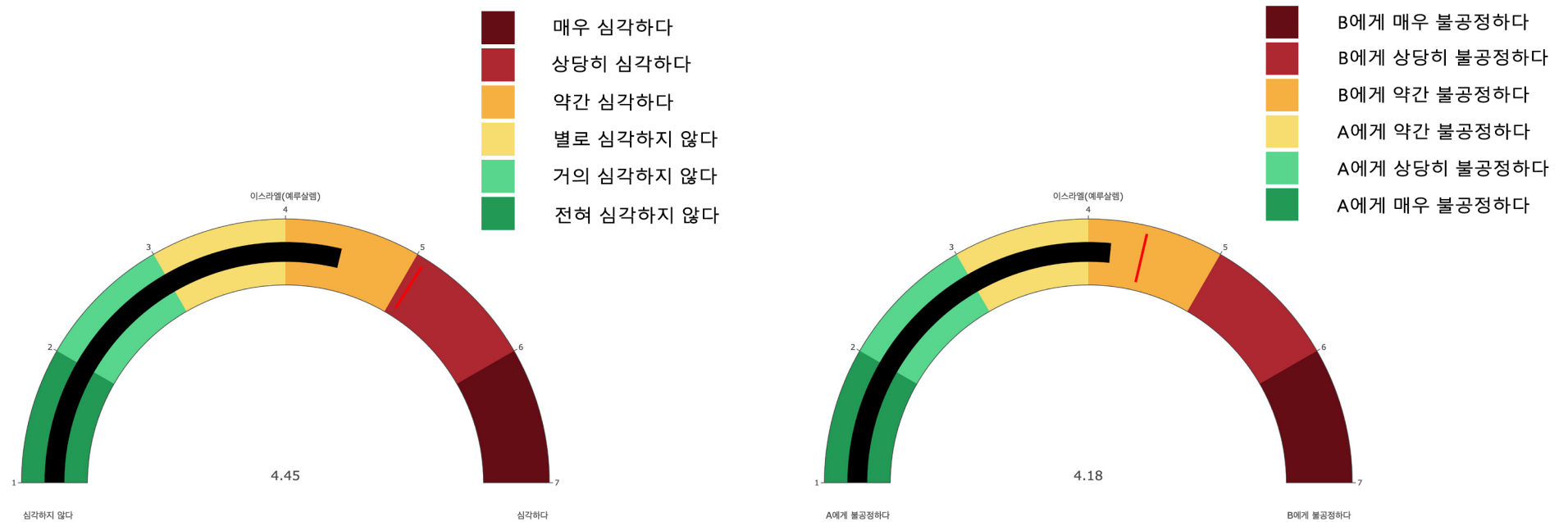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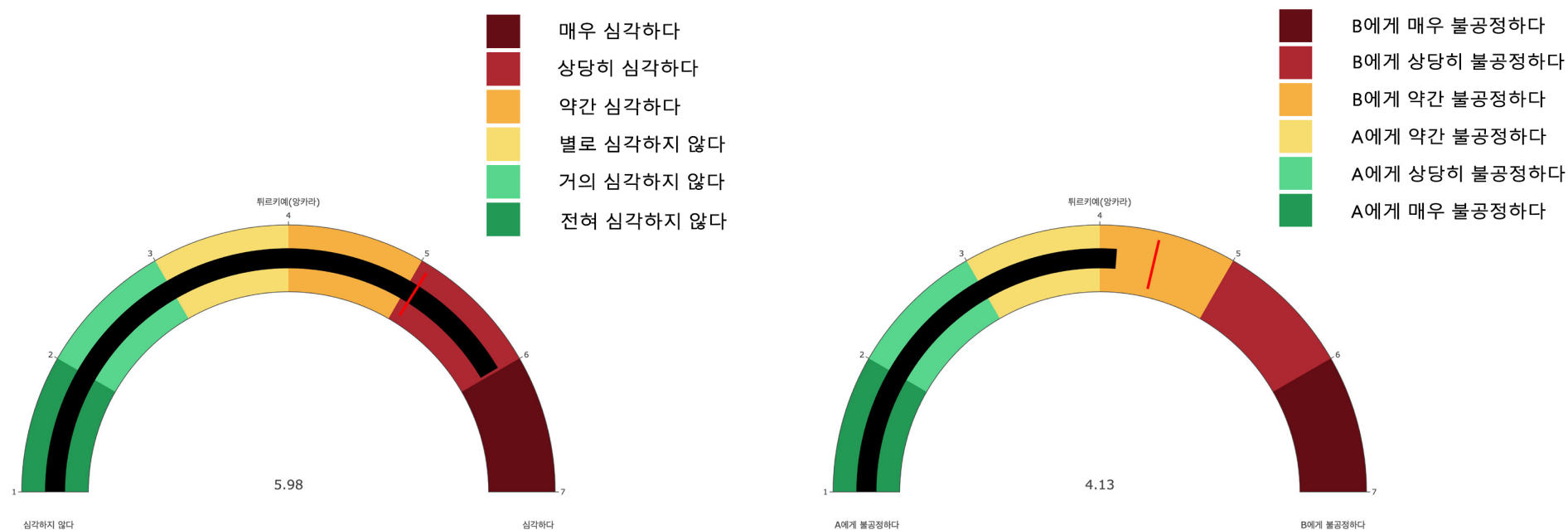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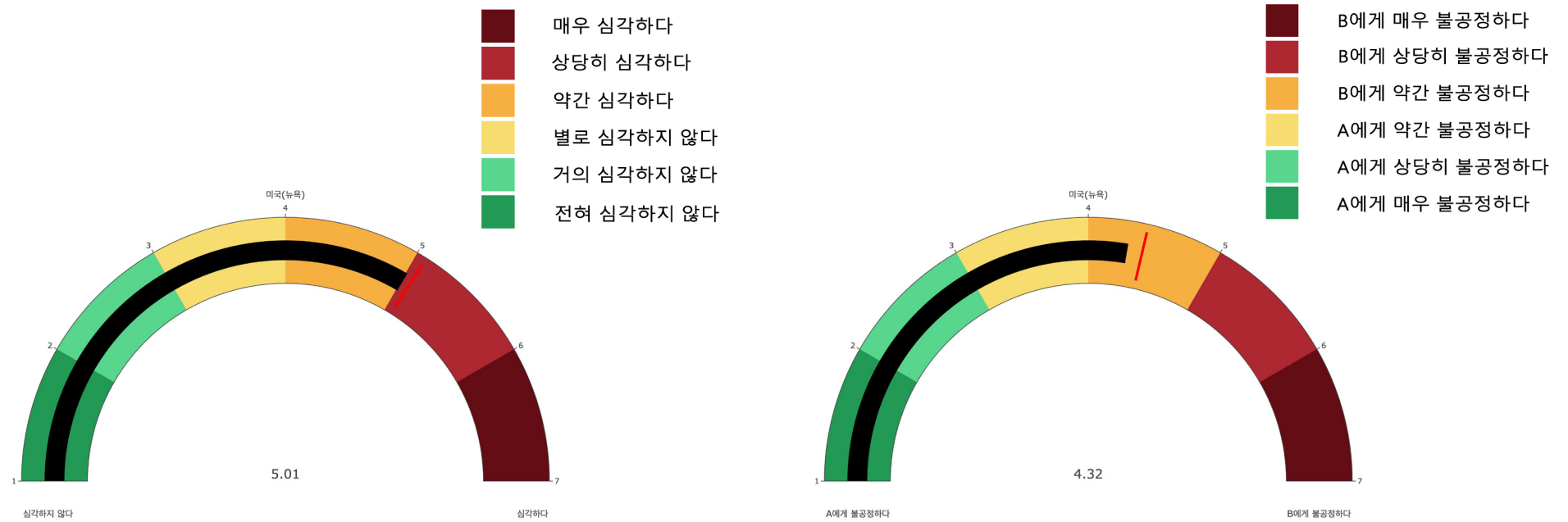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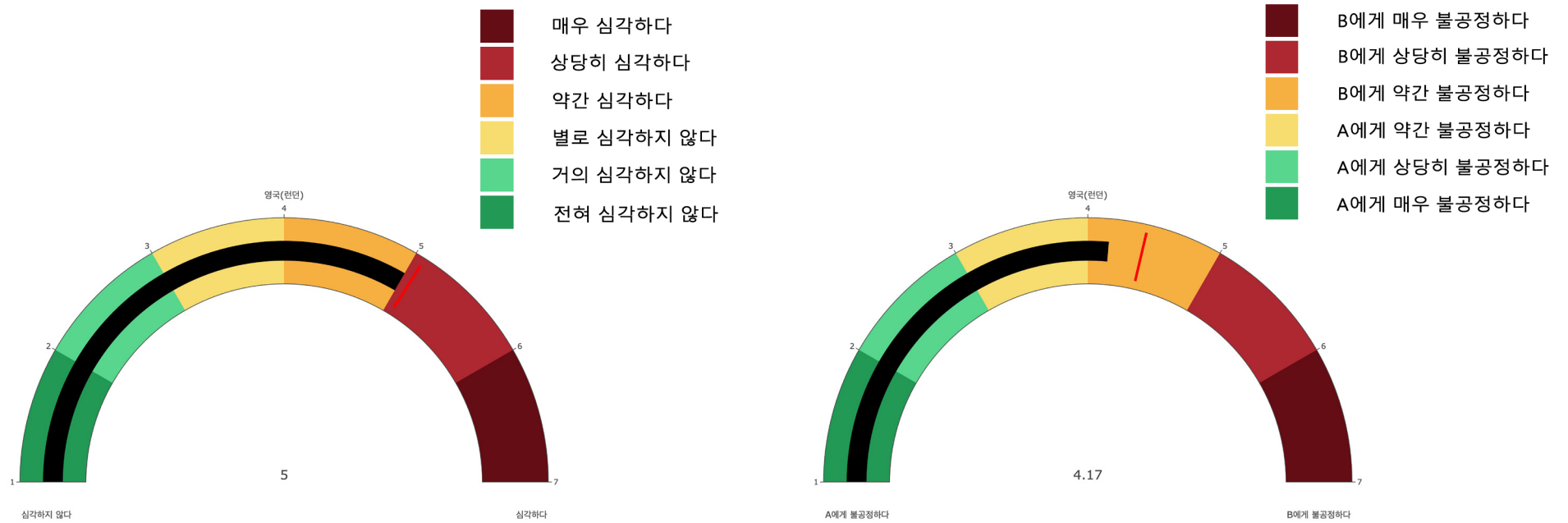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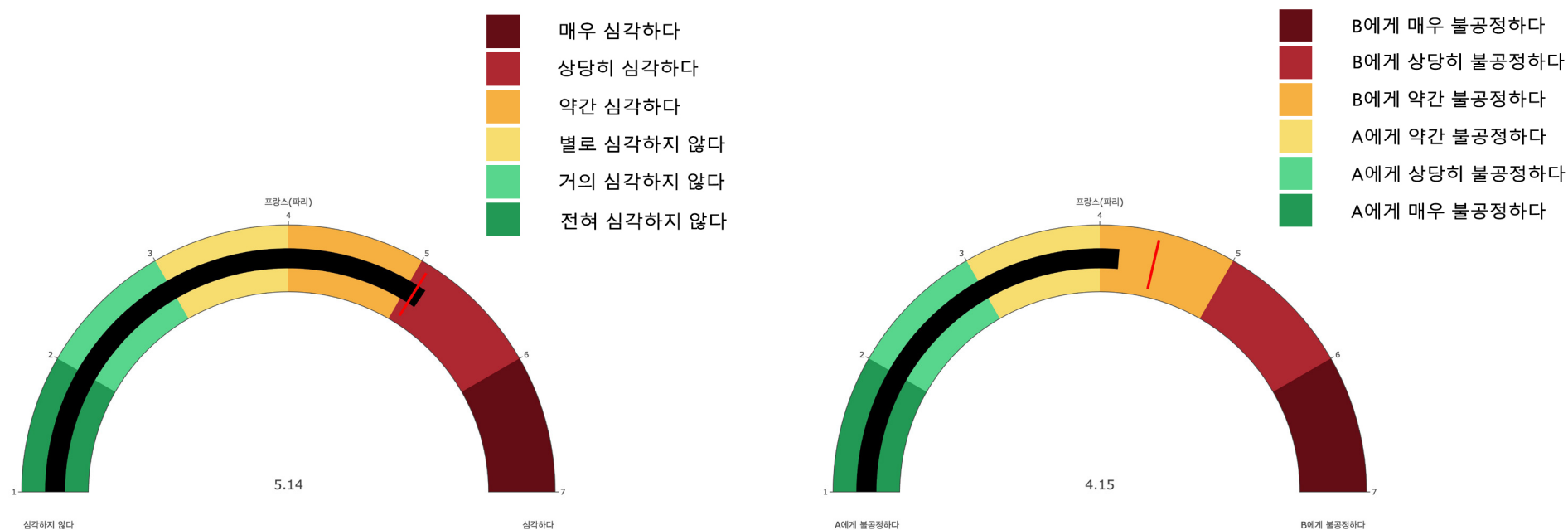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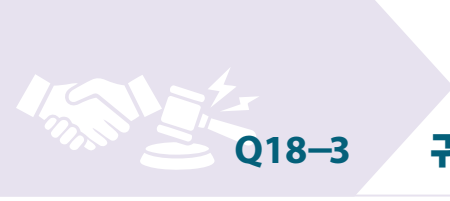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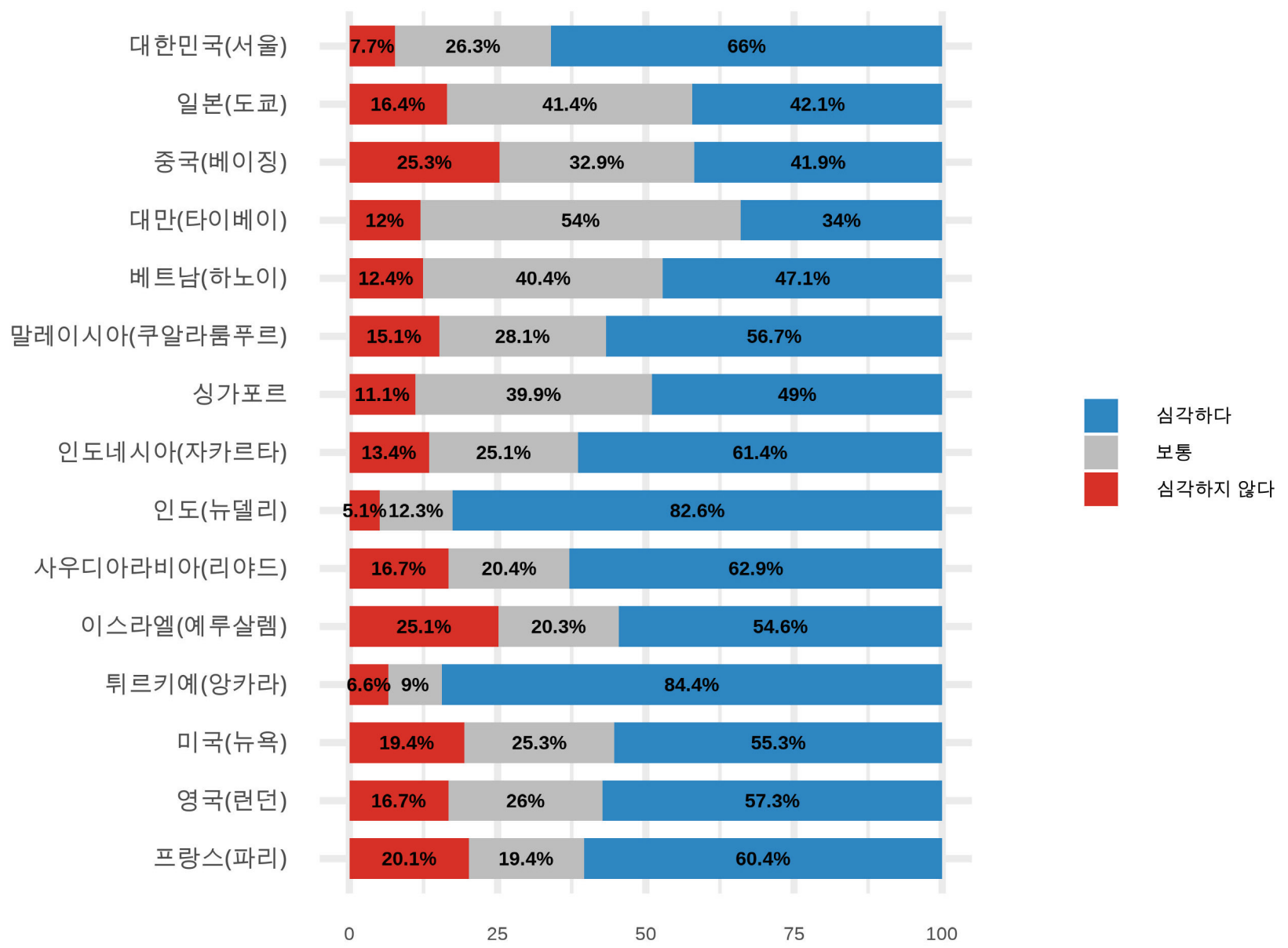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갈등', 즉 부동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묻는 질문이다. 도시별로 응답의 편차가 꽤 크게 나타난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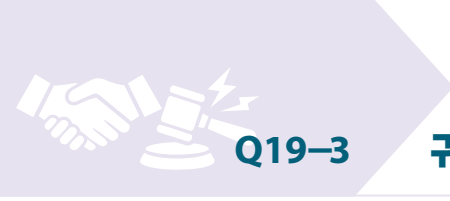
튀르키예의 앙카라(84.43%)와 인도의 뉴델리(82.57%)는 부동산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이는 주거 문제가 해당 도시들에서 매우 첨예한 이슈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66.0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3위를 차지했다. 앞선 빈부 갈등이나 노사 갈등보다는 수치가 다소 낮지만, 여전히 서울 시민의 3분의 2가 주택 문제로 인한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반면,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4.00%에 그쳐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대신 보통이라는 응답이 54.00%로 과반을 차지해, 부동산 갈등을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유보적 성향이 강했다. 중국의 베이징(41.86%)과 일본의 도쿄(42.14%)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40%대에 머물렀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국의 베이징이 25.29%,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25.1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별 주택 시장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부동산 갈등을 체감하는 온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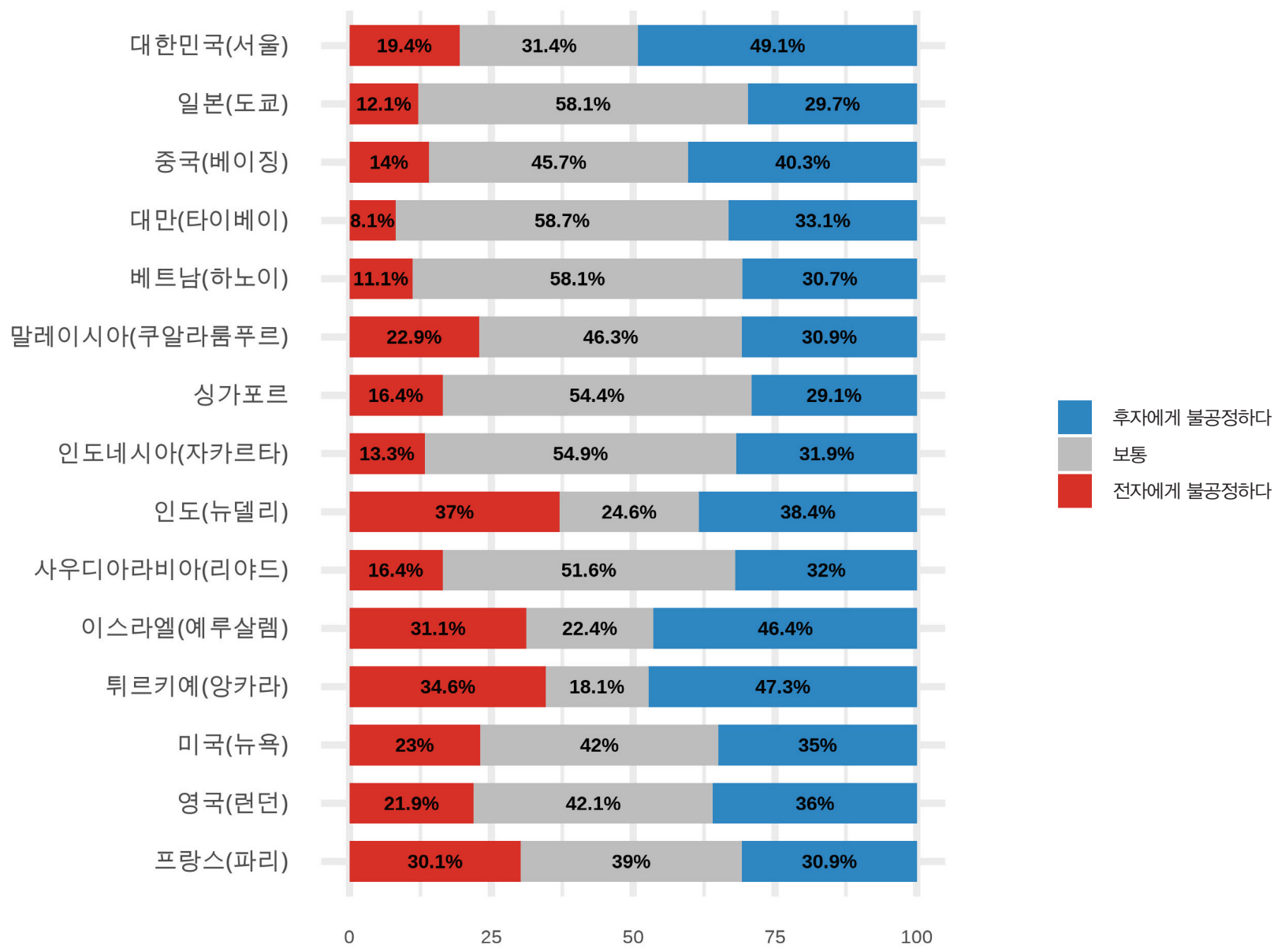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6.0%, 보통 26.29%, 반대 7.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일본(도쿄)** 동의 42.14%, 보통 41.43%, 반대 16.43%. 유보적 입장이 다수.
- **중국(베이징)** 동의 41.86%, 보통 32.86%, 반대 25.29%.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대만(타이베이)** 동의 34.0%, 보통 54.0%, 반대 12.0%.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47.14%, 보통 40.43%, 반대 12.43%.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6.71%, 보통 28.14%, 반대 15.14%.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49.0%, 보통 39.86%, 반대 11.14%.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1.43%, 보통 25.14%, 반대 13.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뉴델리)** 동의 82.57%, 보통 12.29%, 반대 5.14%.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86%, 보통 20.43%, 반대 16.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4.57%, 보통 20.29%, 반대 25.14%.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4.43%, 보통 9.0%, 반대 6.57%.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55.29%, 보통 25.29%, 반대 19.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영국(런던)** 동의 57.29%, 보통 26.0%, 반대 16.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프랑스(파리)** 동의 60.43%, 보통 19.43%, 반대 20.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Q19-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을 다룬다. 즉,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중 누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는 질문이다. 도시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응답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비소유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비소유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9.14%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 불안정 문제가 무주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성을 안겨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튀르키예의 앙카라(47.29%), 이스라엘의 예루살렘(46.43%), 중국의 베이징(40.29%)도 비소유자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40%를 넘었다.

반면, 인도의 뉴델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7.00%로 ‘비소유자에게 불공정하다’(38.43%)는 응답과 팽팽하게 맞섰다. 튀르키예의 앙카라(34.57%)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31.14%), 프랑스의 파리(30.14%)에서도 주택 소유자가 겪는 불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의 타이베이(58.71%), 일본의 도쿄(58.14%), 베트남의 하노이(58.14%)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주택 소유 여부 자체가 불공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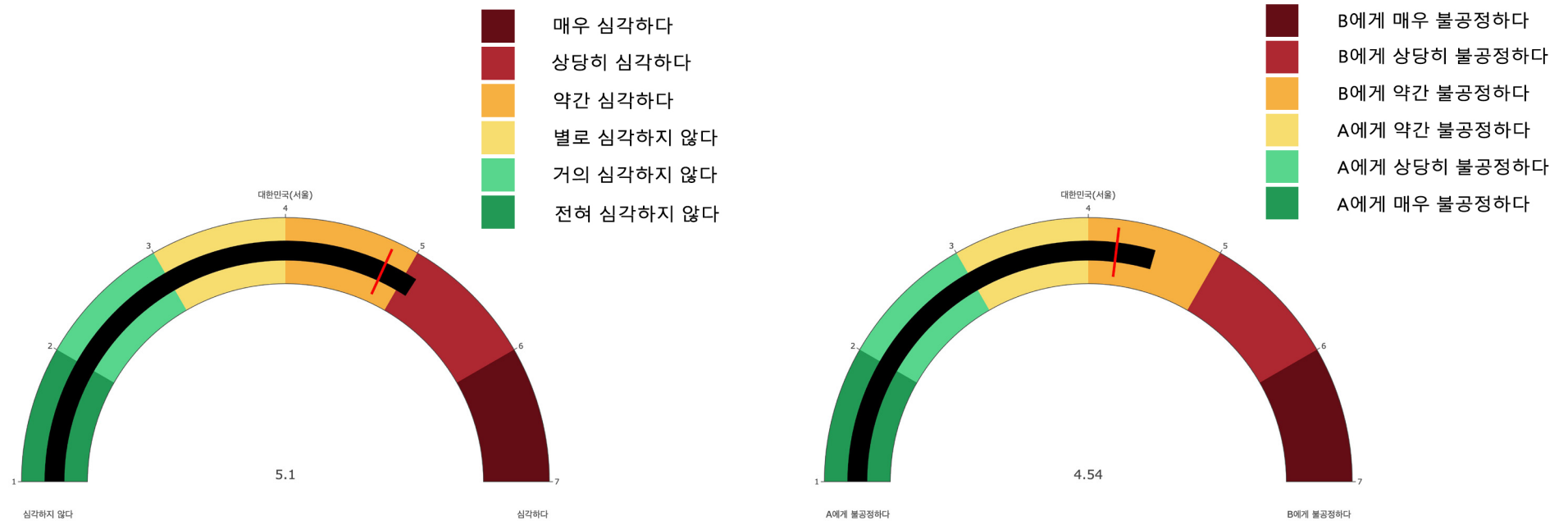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9.43%, 비슷함 31.43%,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49.14%. 비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우세.
- **일본(도쿄)**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2.14%, 비슷함 58.14%,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29.71%.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중국(베이징)**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4.0%, 비슷함 45.71%,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40.29%. 비소유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비슷하다는 의견도 높음.
- **대만(타이베이)**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8.14%, 비슷함 58.71%,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3.14%.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베트남(하노이)**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1.14%, 비슷함 58.14%,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0.71%.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22.86%, 비슷함 46.29%,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0.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싱가포르**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6.43%, 비슷함 54.43%,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29.14%.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3.29%, 비슷함 54.86%,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1.86%.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뉴델리)**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37.0%, 비슷함 24.57%,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8.43%. 소유자와 비소유자 불리 인식이 팽팽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16.43%, 비슷함 51.57%,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2.0%.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이스라엘(예루살렘)**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31.14%, 비슷함 22.43%,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46.43%. 비소유자 불리 인식이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34.57%, 비슷함 18.14%,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47.29%. 비소유자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소유자 불리 인식도 높음.
- **미국(뉴욕)**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23.0%, 비슷함 42.0%,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5.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영국(런던)**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21.86%, 비슷함 42.14%,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6.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프랑스(파리)** 주택소유자에게 불공정 30.14%, 비슷함 39.0%, 주택비소유자에게 불공정 30.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양쪽 불리 인식이 팽팽함.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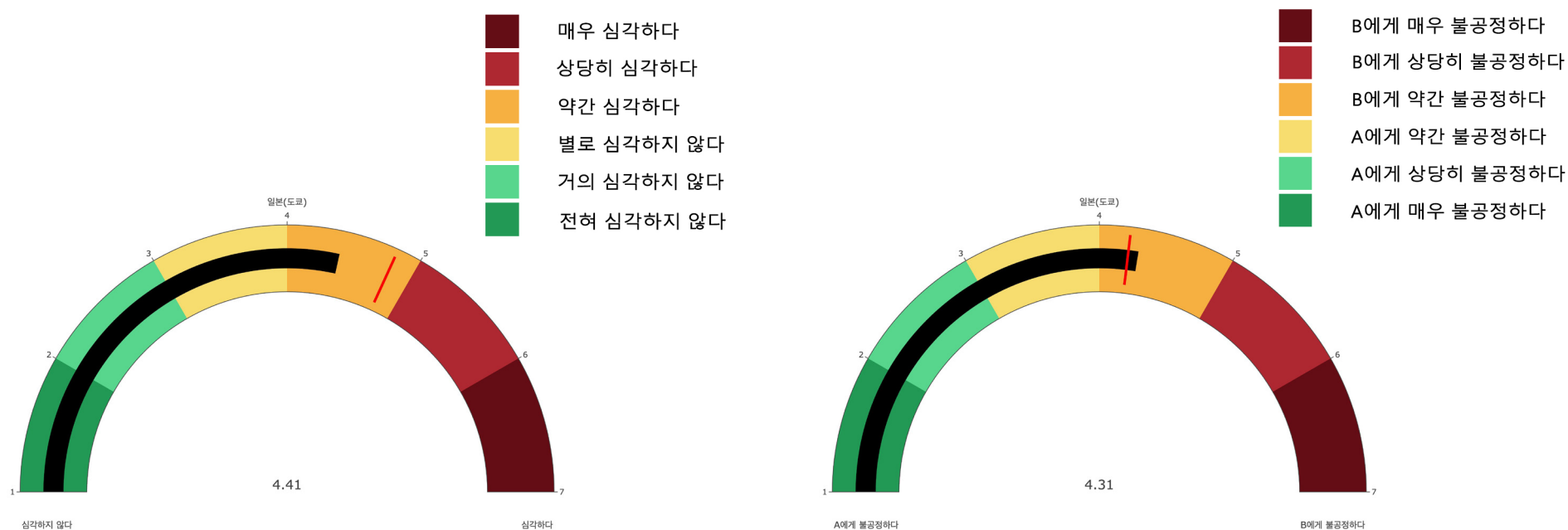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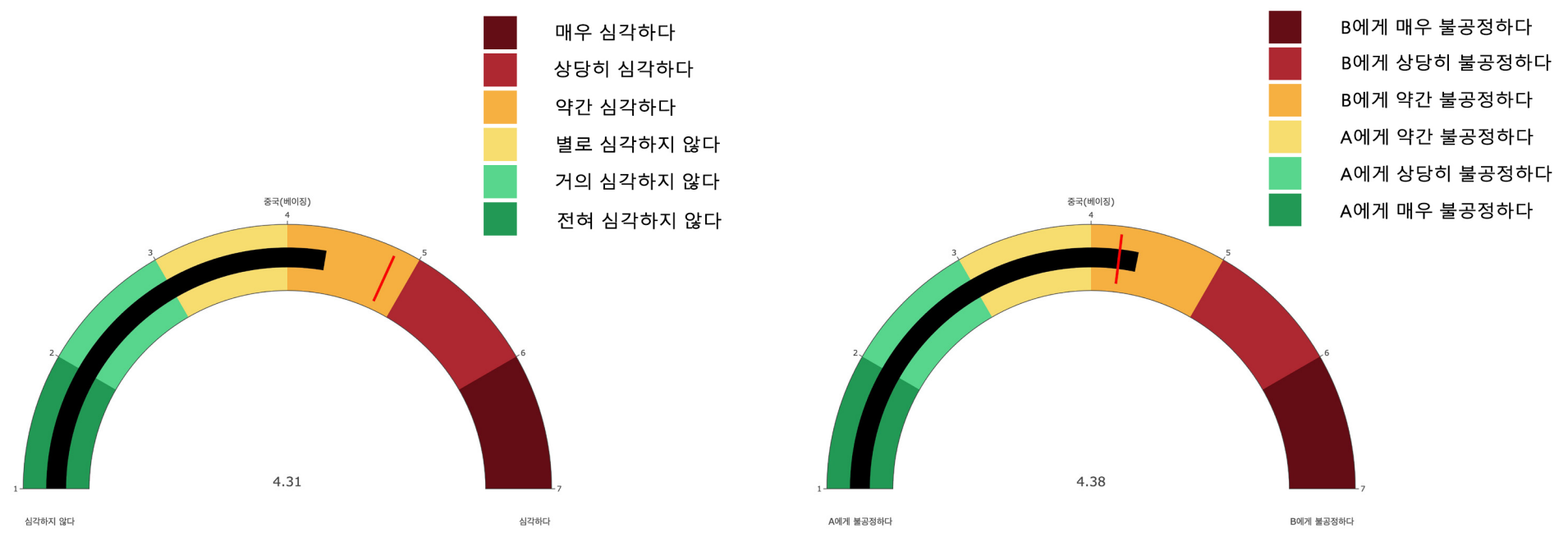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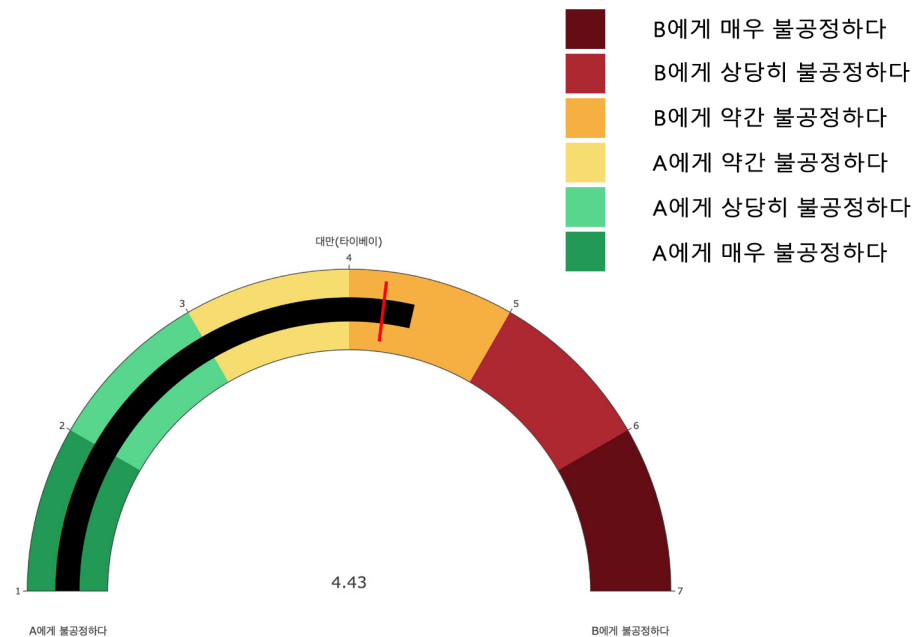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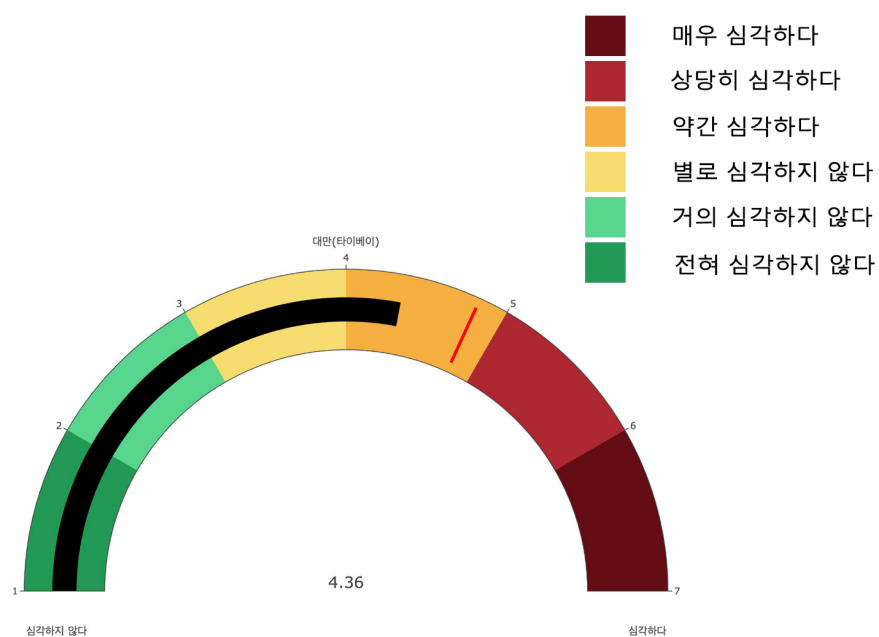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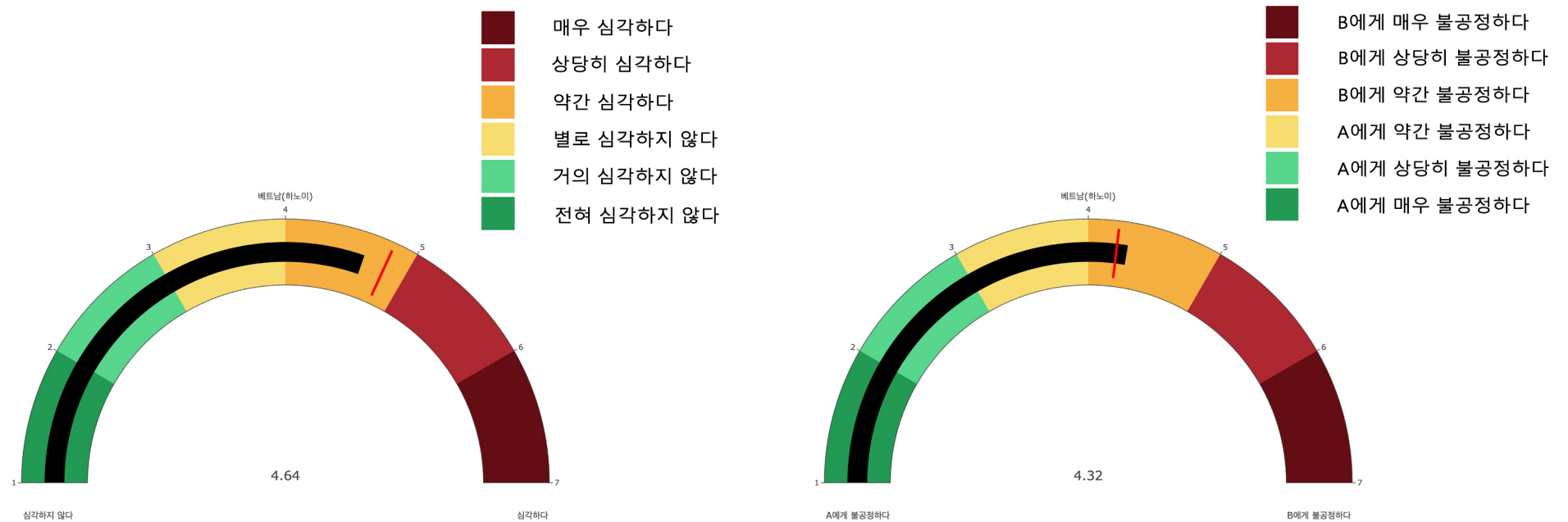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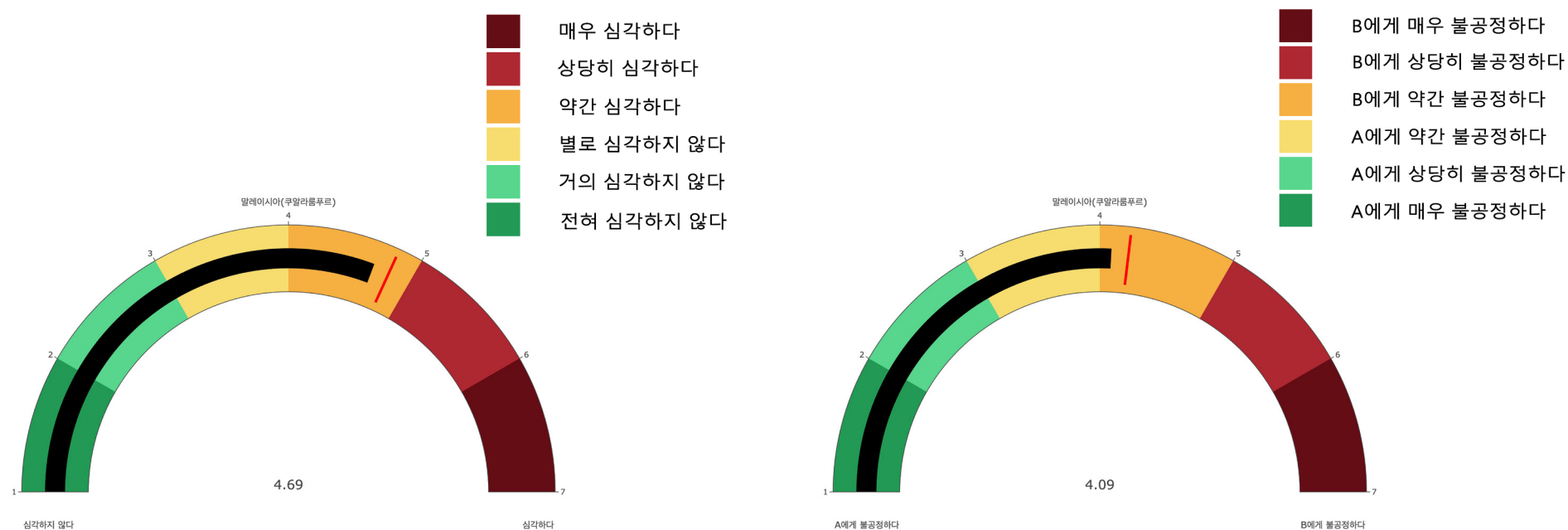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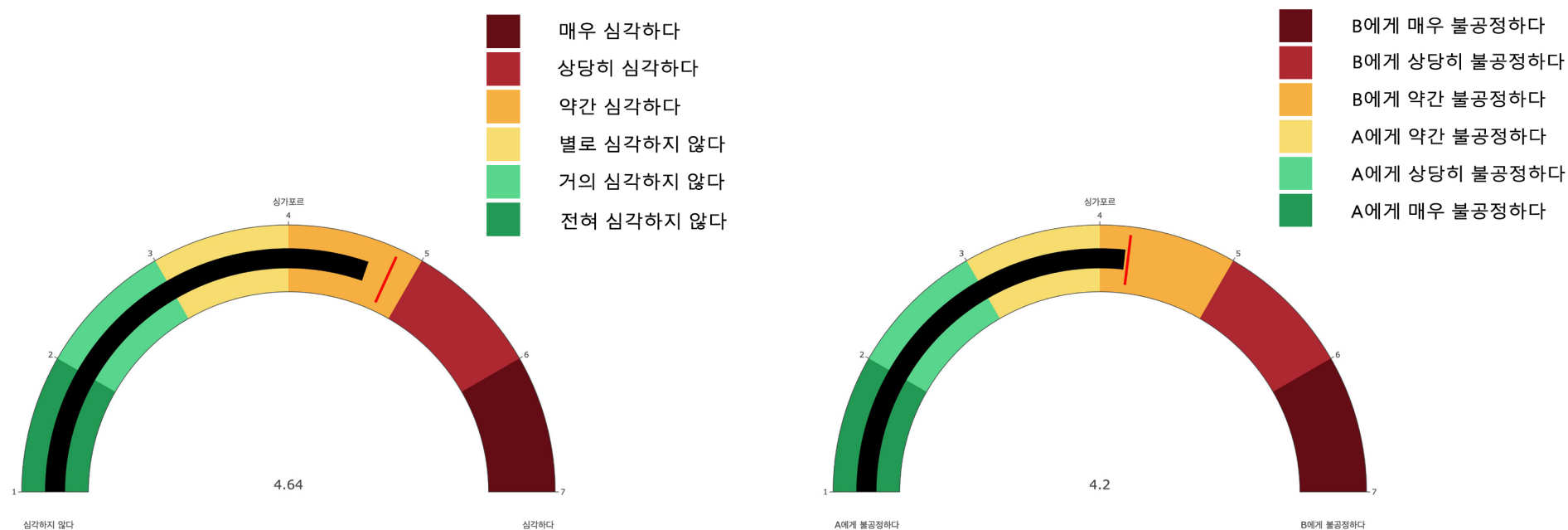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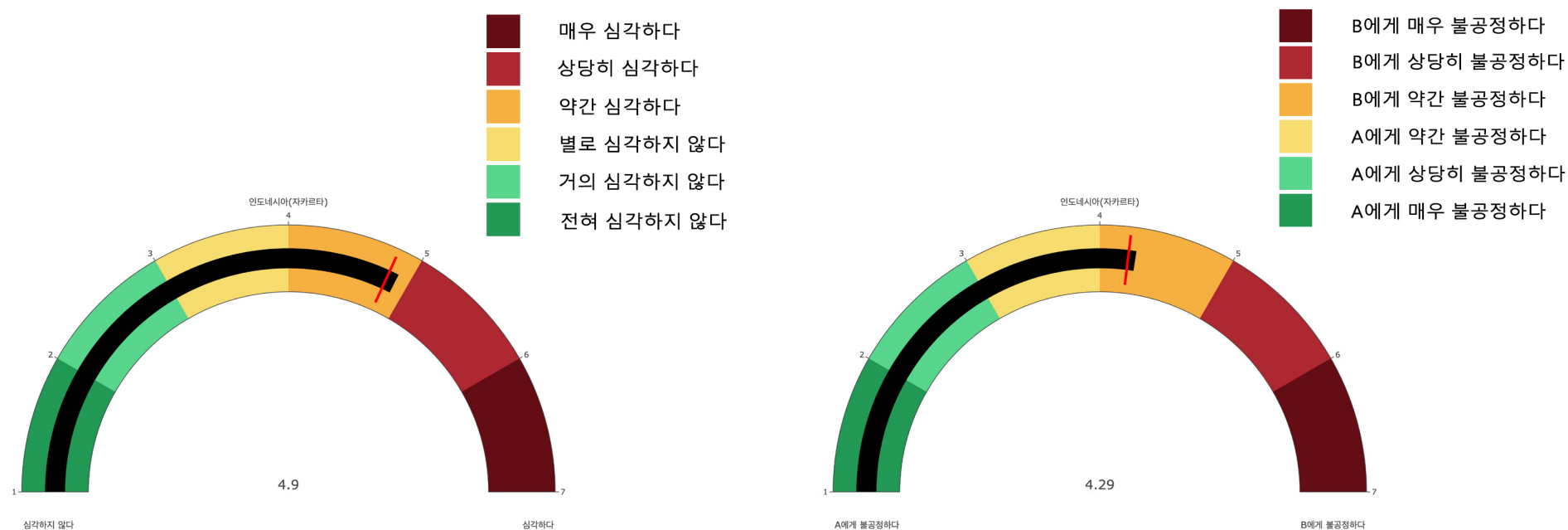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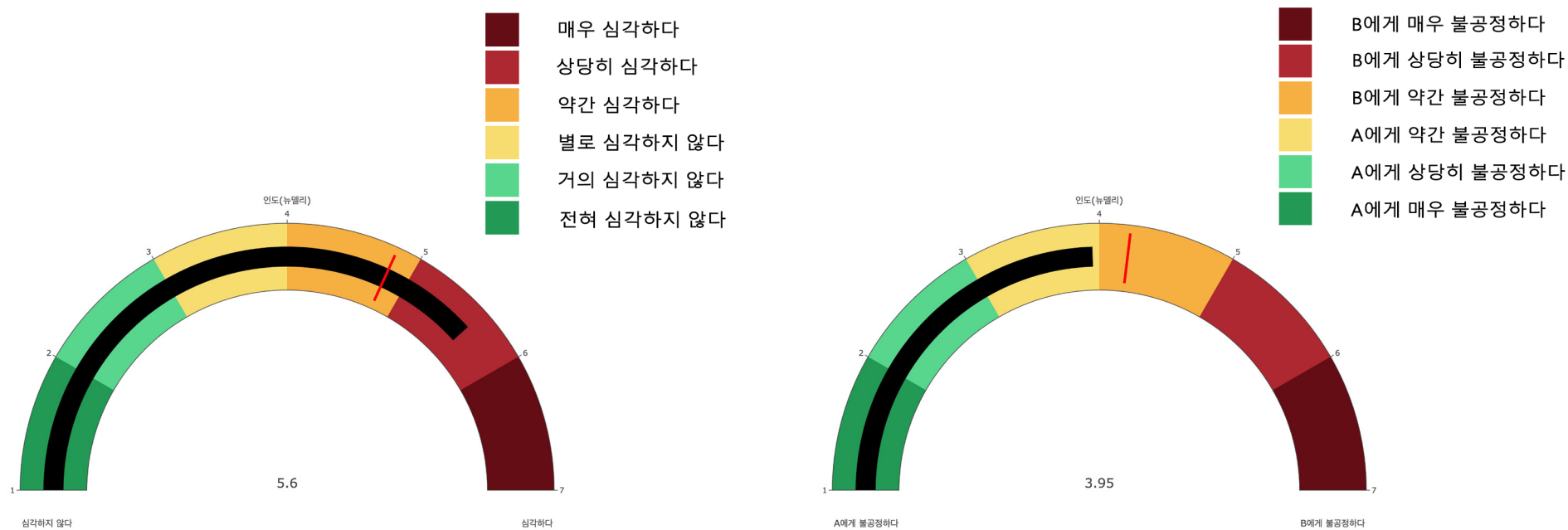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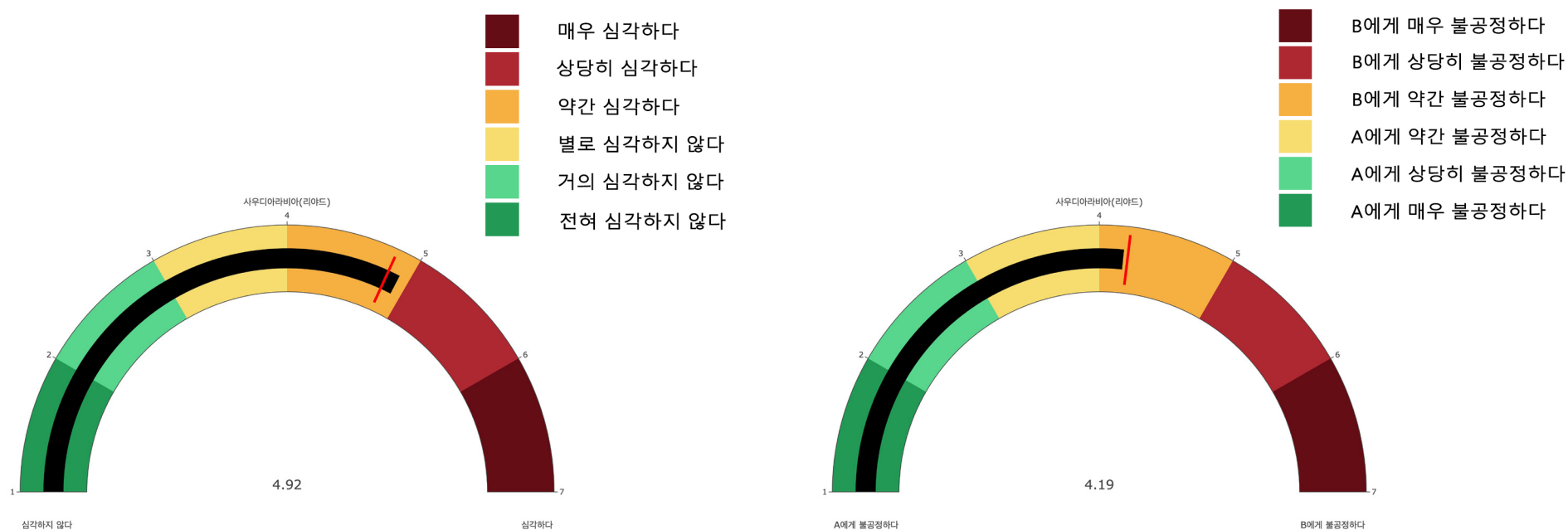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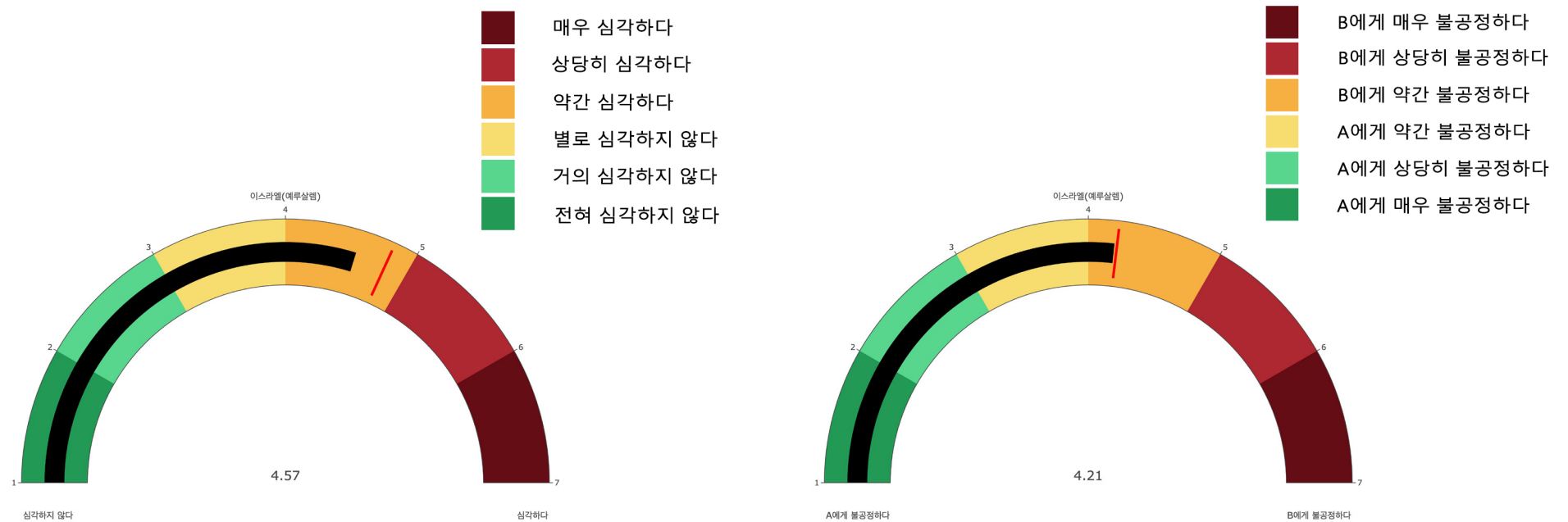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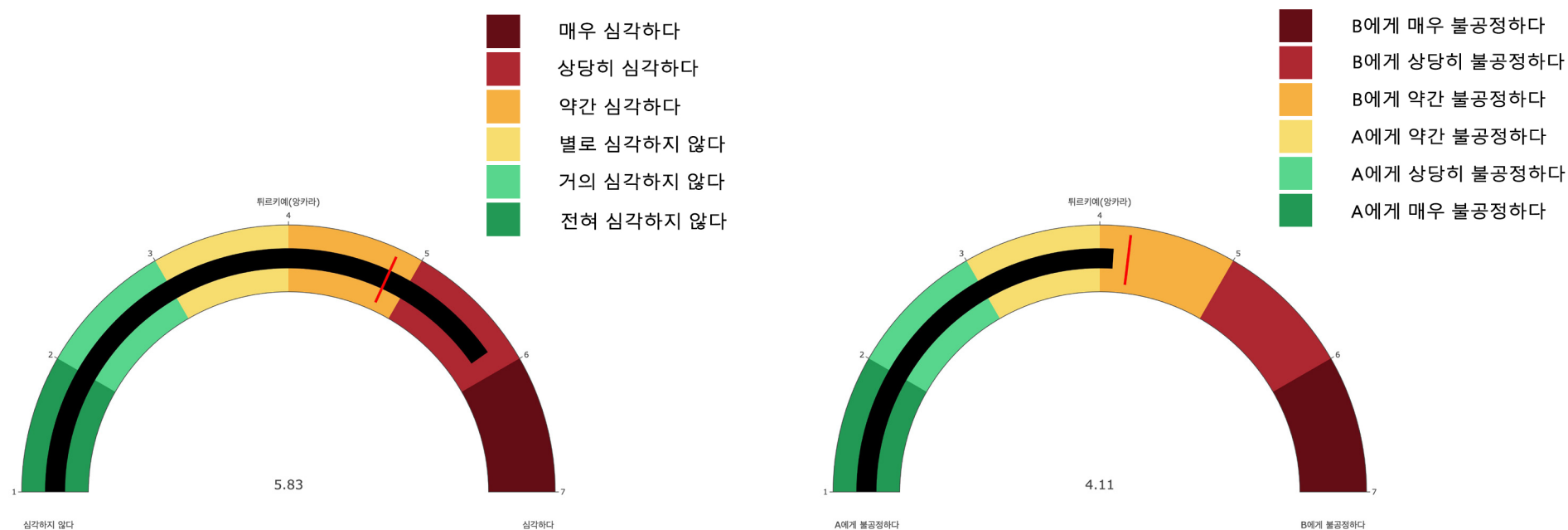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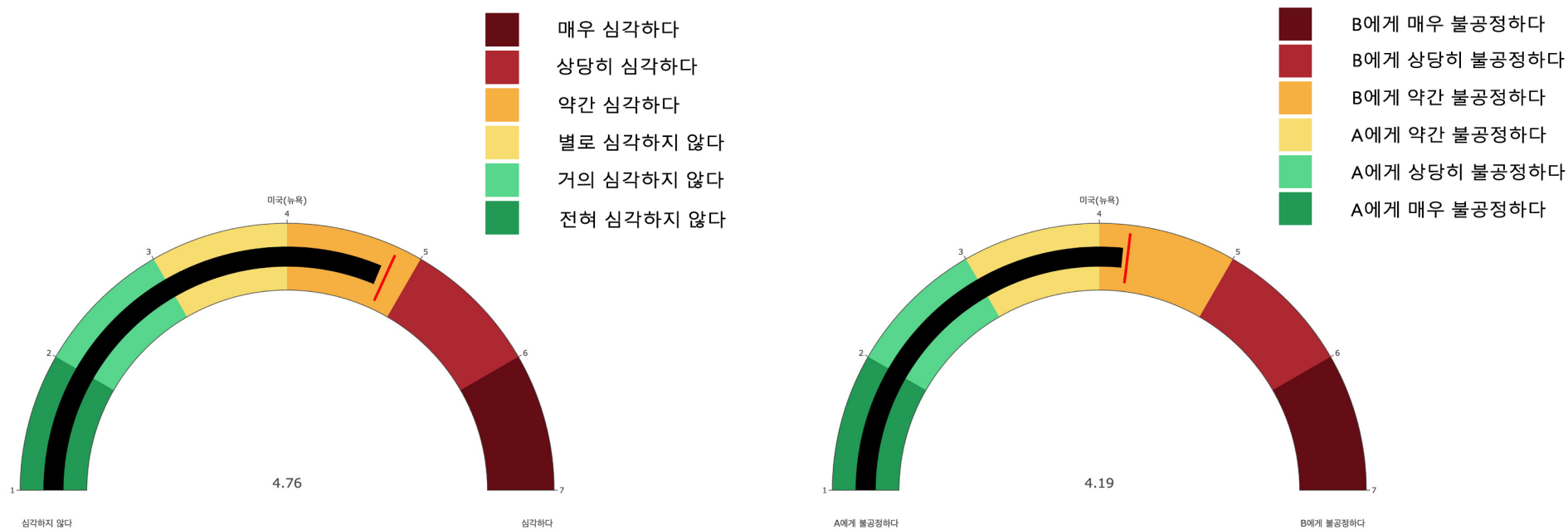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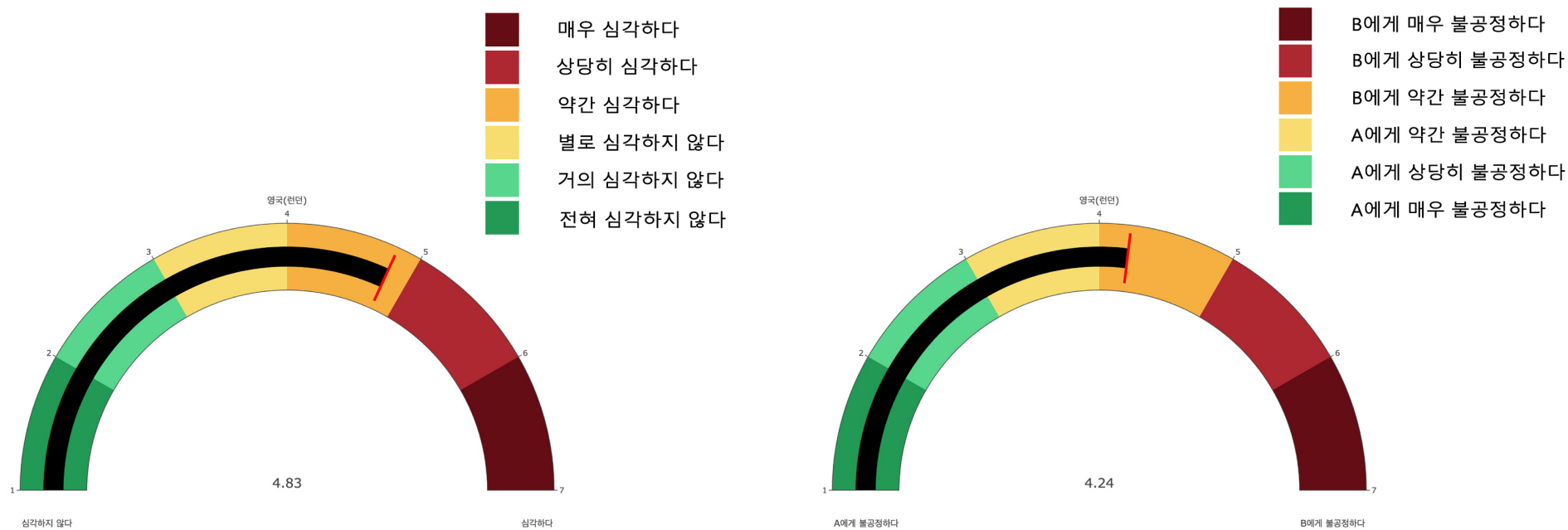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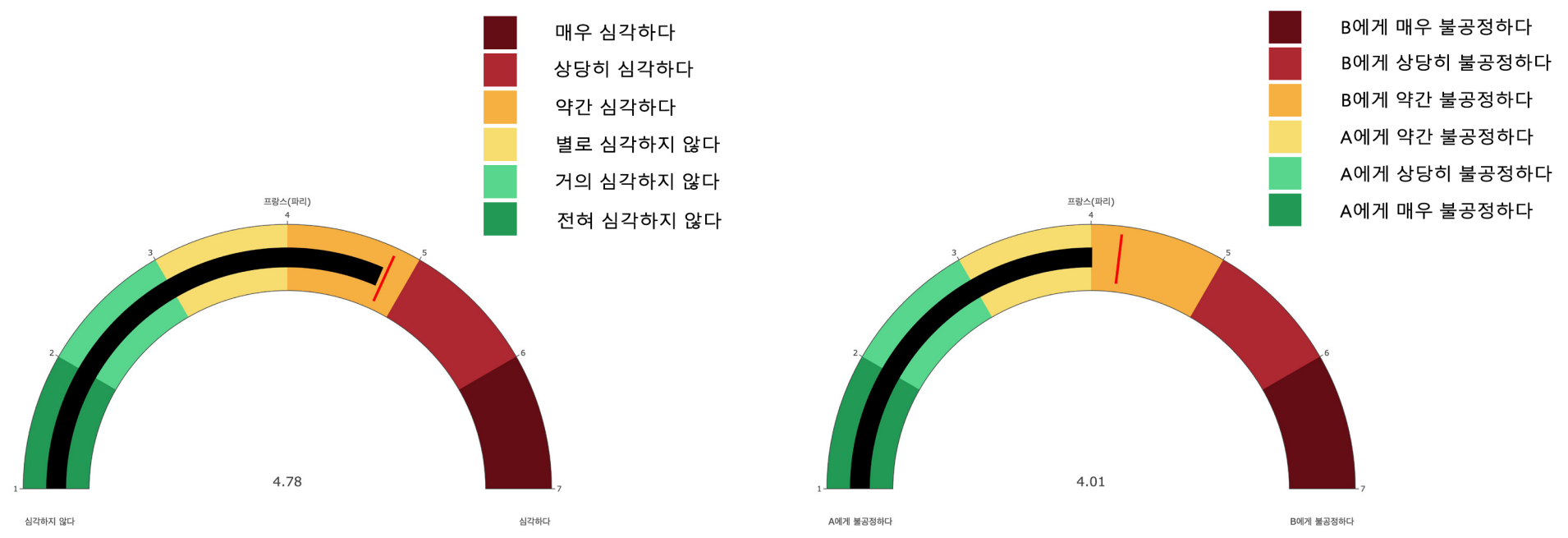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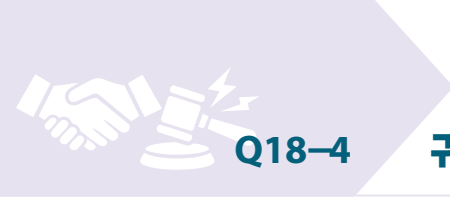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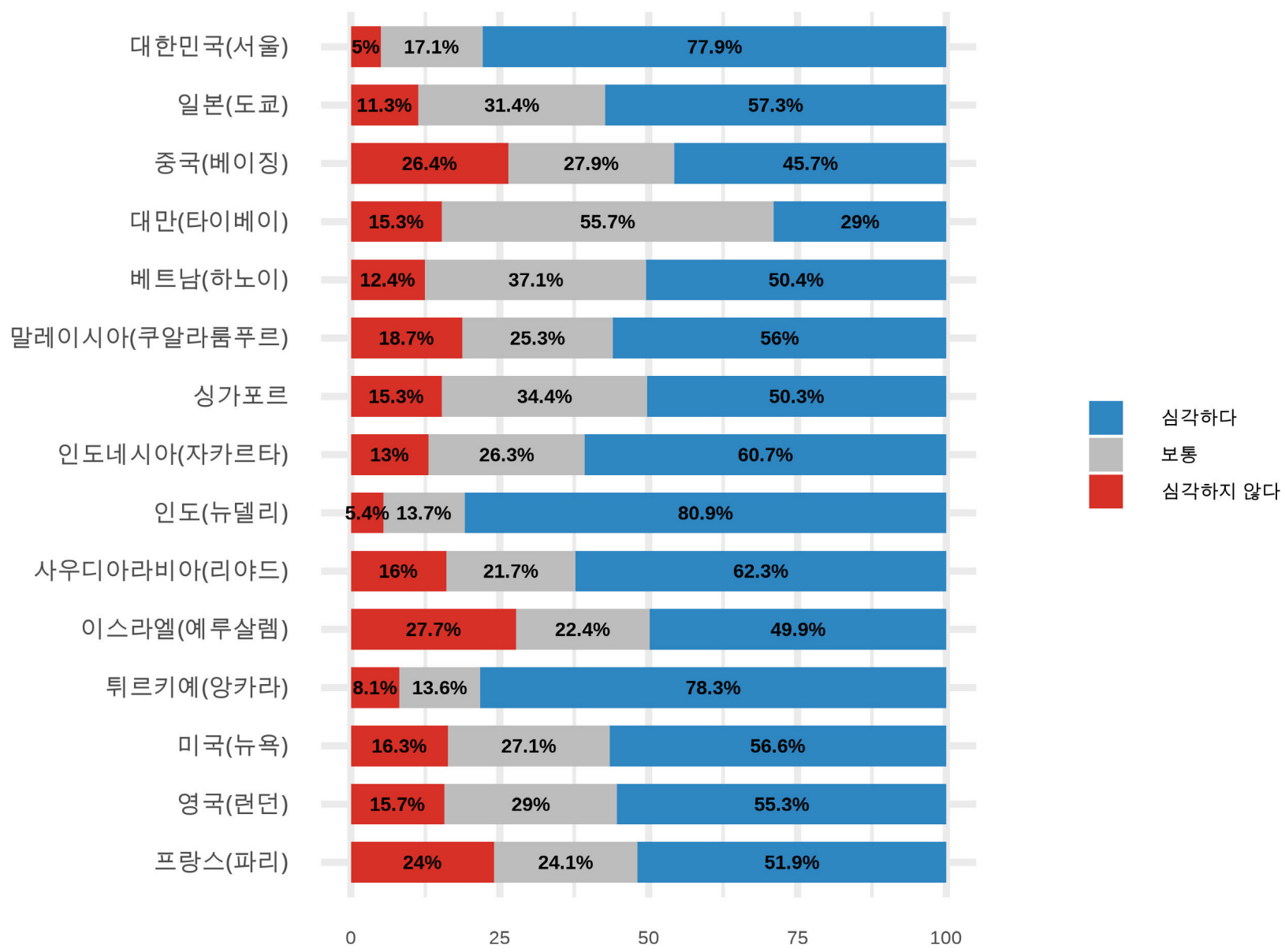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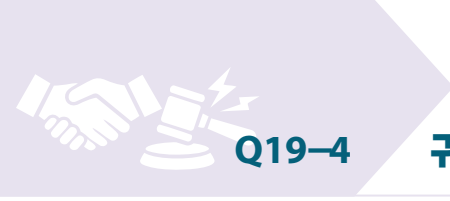
이 문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즉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과 갈등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의 뉴델리(80.86%)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튀르키예의 앙카라(78.29%)와 대한민국의 서울(77.8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29.00%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30%를 밑돌았다. 대신 보통이라는 응답이 55.7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슈가 대만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거나 갈등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베이징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45.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7.71%)과 중국의 베이징(26.43%)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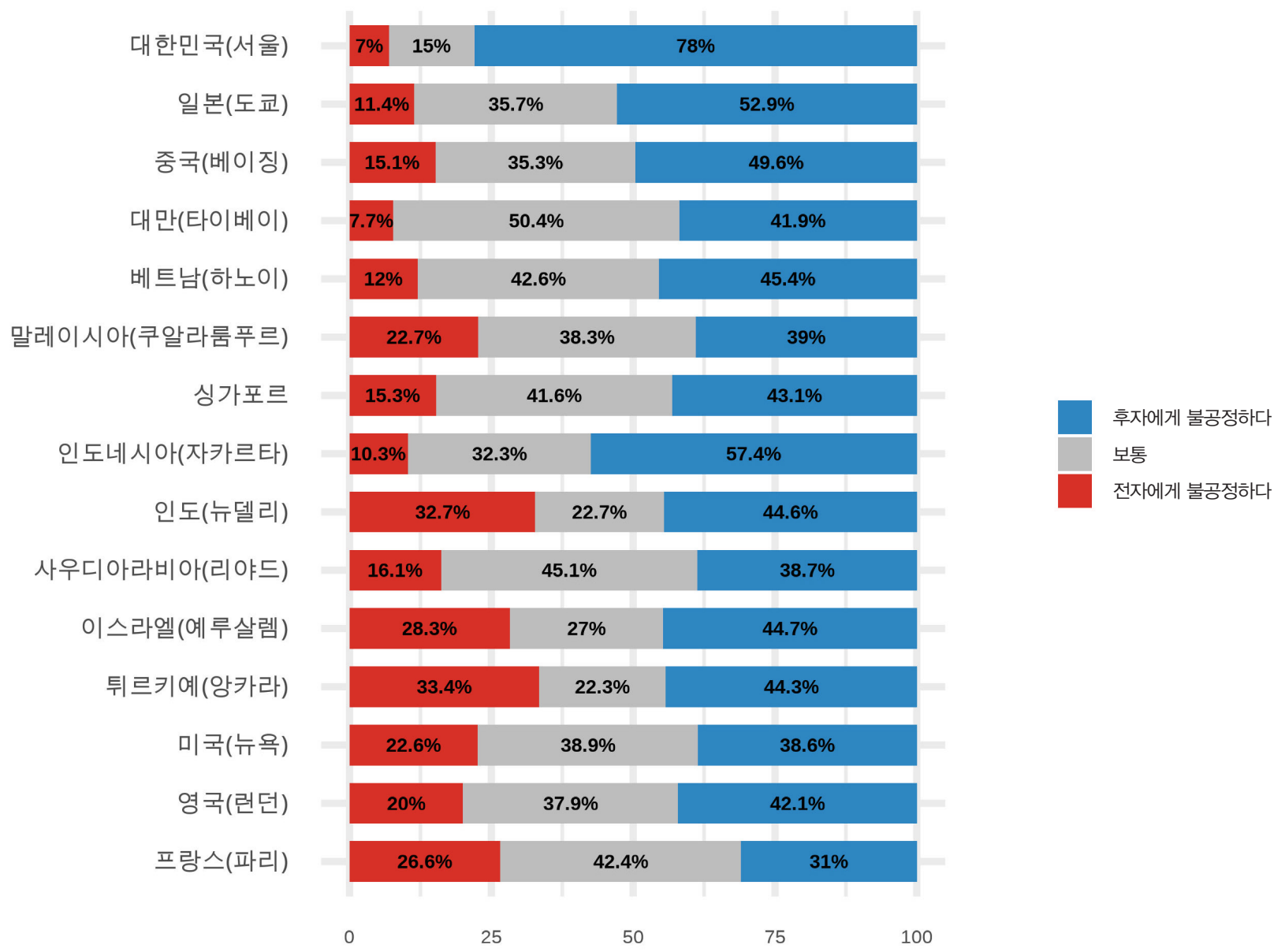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7.86%, 보통 17.14%, 반대 5.0%.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7.29%, 보통 31.43%, 반대 11.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중국(베이징)** 동의 45.71%, 보통 27.86%, 반대 26.43%.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대만(타이베이)** 동의 29.0%, 보통 55.71%, 반대 15.29%.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50.43%, 보통 37.14%, 반대 12.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6.0%, 보통 25.29%, 반대 18.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50.29%, 보통 34.43%, 반대 15.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0.71%, 보통 26.29%, 반대 13.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뉴델리)** 동의 80.86%, 보통 13.71%, 반대 5.43%.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29%, 보통 21.71%, 반대 16.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9.86%, 보통 22.43%, 반대 27.71%.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8.29%, 보통 13.57%, 반대 8.14%.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미국(뉴욕)** 동의 56.57%, 보통 27.14%, 반대 16.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영국(런던)** 동의 55.29%, 보통 29.0%, 반대 15.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프랑스(파리)** 동의 51.86%, 보통 24.14%, 반대 24.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Q19-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고용 형태에 따른 불공정성,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도시에서 ‘비정규직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은 무려 78.00%가 비정규직에게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15개 도시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Q18-4 문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서울 시민들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매우 심각한 불공정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7.43%), 일본의 도쿄(52.86%) 등도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다.

반면, ‘정규직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튀르키예의 앙카라(33.43%)와 인도의 뉴델리(32.71%)에서 3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이 불리하다는 인식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만의 타이베이(50.43%)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45.14%)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고용 형태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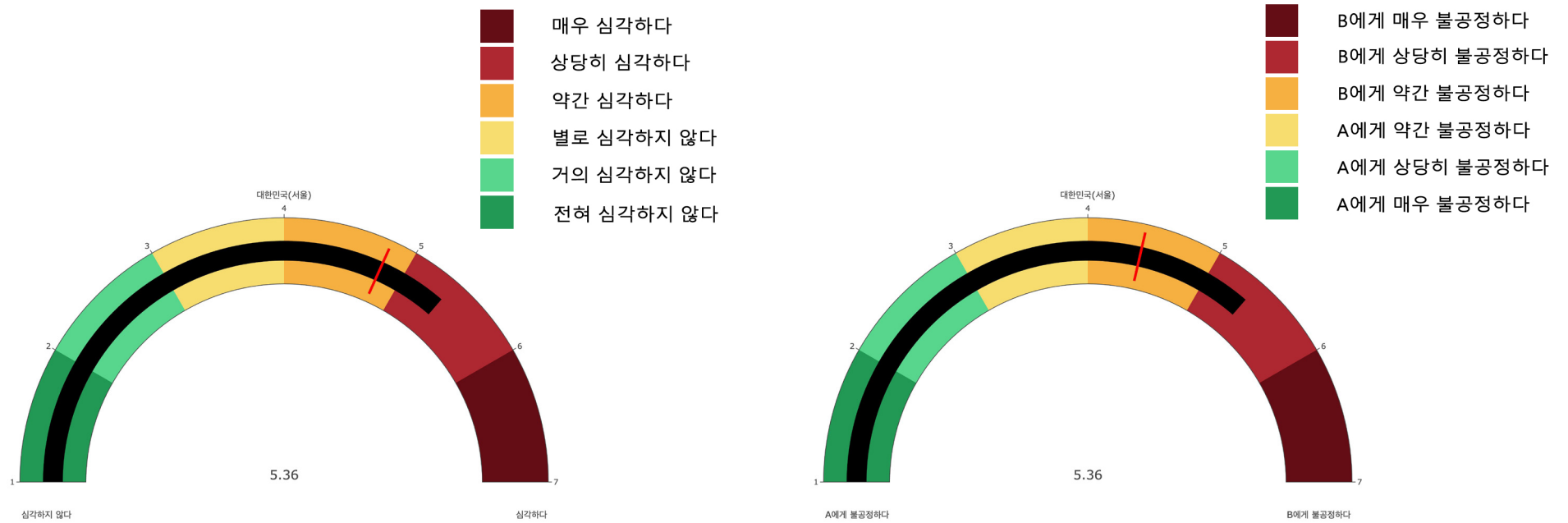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여성에게 불공정 51.57%, 비슷함 29.14%, 남성에게 불공정 19.29%. 과반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일본(도쿄)** 여성에게 불공정 41.71%, 비슷함 47.0%, 남성에게 불공정 11.29%.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중국(베이징)** 여성에게 불공정 43.57%, 비슷함 42.57%, 남성에게 불공정 13.86%. 여성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비슷하다는 의견도 높음.
- **대만(타이베이)** 여성에게 불공정 44.86%, 비슷함 47.57%, 남성에게 불공정 7.57%.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베트남(하노이)** 여성에게 불공정 8.86%, 비슷함 43.0%, 남성에게 불공정 48.14%. 남성 불리 인식이 우세.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여성에게 불공정 37.29%, 비슷함 43.86%, 남성에게 불공정 18.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싱가포르** 여성에게 불공정 37.29%, 비슷함 49.0%, 남성에게 불공정 13.71%.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여성에게 불공정 35.86%, 비슷함 56.57%, 남성에게 불공정 7.57%.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뉴델리)** 여성에게 불공정 51.0%, 비슷함 27.71%, 남성에게 불공정 21.29%. 과반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여성에게 불공정 27.29%, 비슷함 50.14%, 남성에게 불공정 22.57%.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이스라엘(예루살렘)** 여성에게 불공정 45.0%, 비슷함 25.14%, 남성에게 불공정 29.86%. 여성 불리 인식이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여성에게 불공정 63.0%, 비슷함 21.57%, 남성에게 불공정 15.43%.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미국(뉴욕)** 여성에게 불공정 45.0%, 비슷함 36.14%, 남성에게 불공정 18.86%. 여성 불리 인식이 우세.
- **영국(런던)** 여성에게 불공정 46.43%, 비슷함 33.71%, 남성에게 불공정 19.86%. 여성 불리 인식이 우세.
- **프랑스(파리)** 여성에게 불공정 56.0%, 비슷함 26.57%, 남성에게 불공정 17.43%. 과반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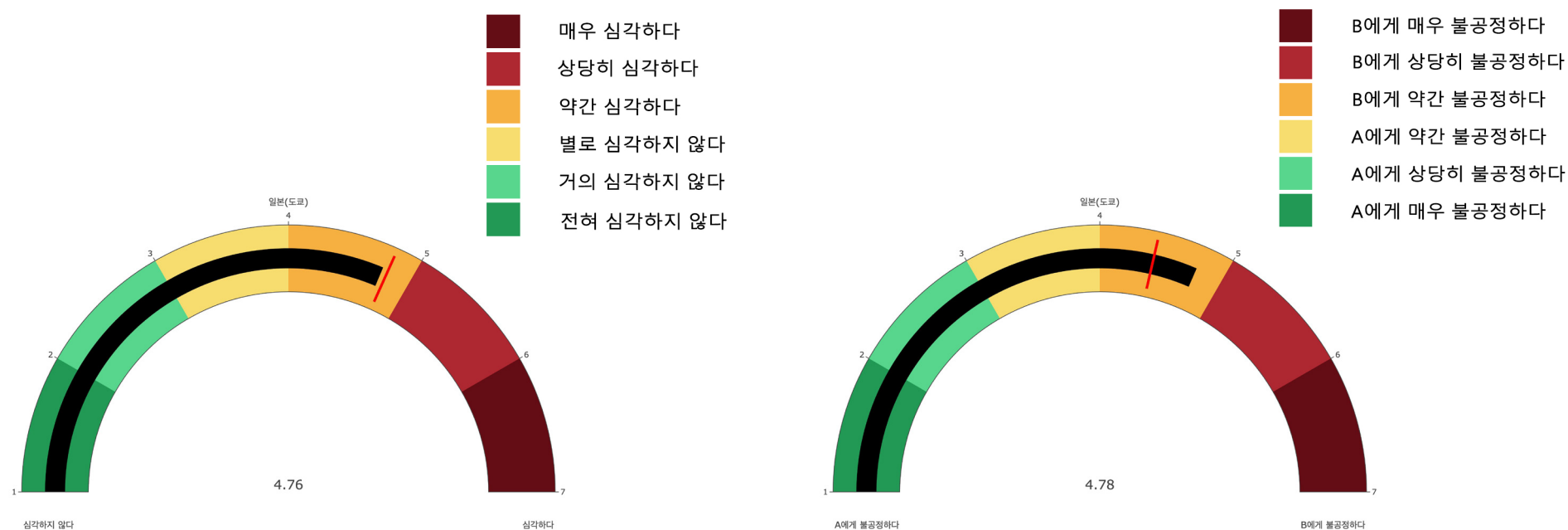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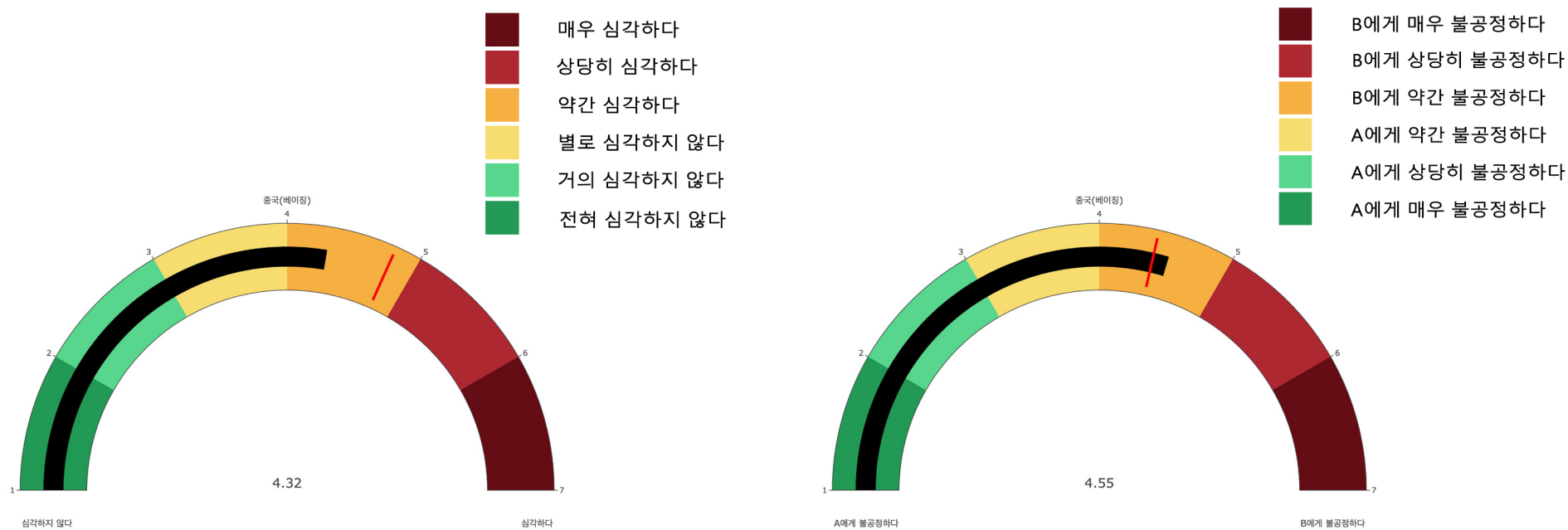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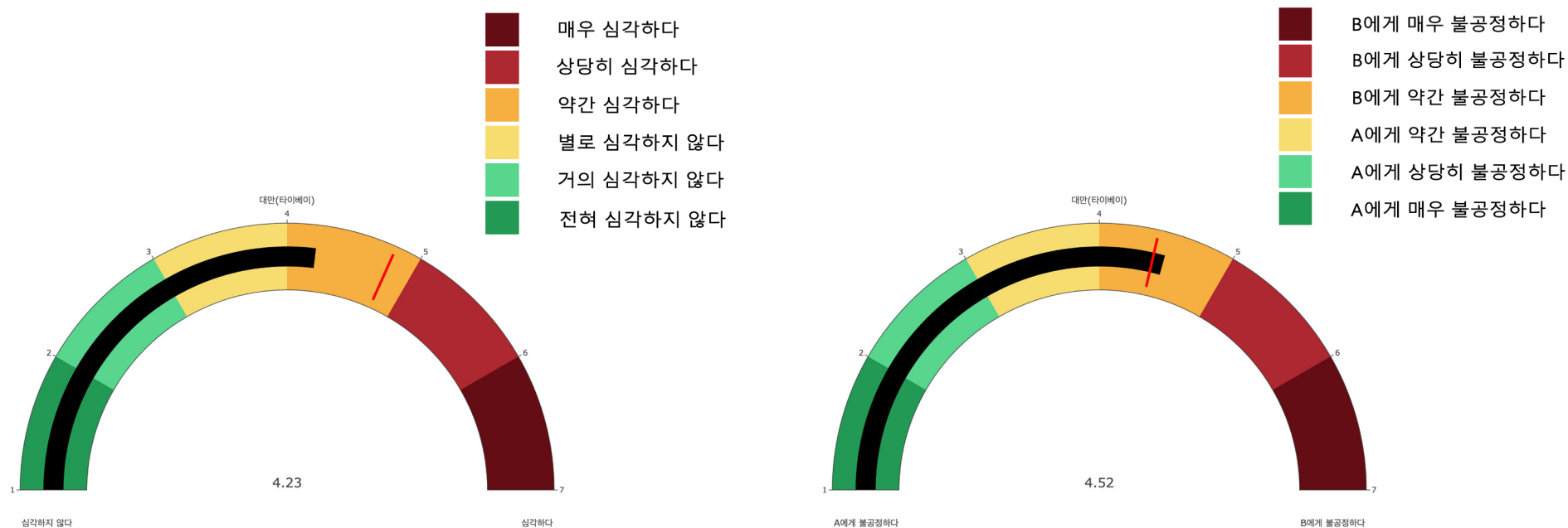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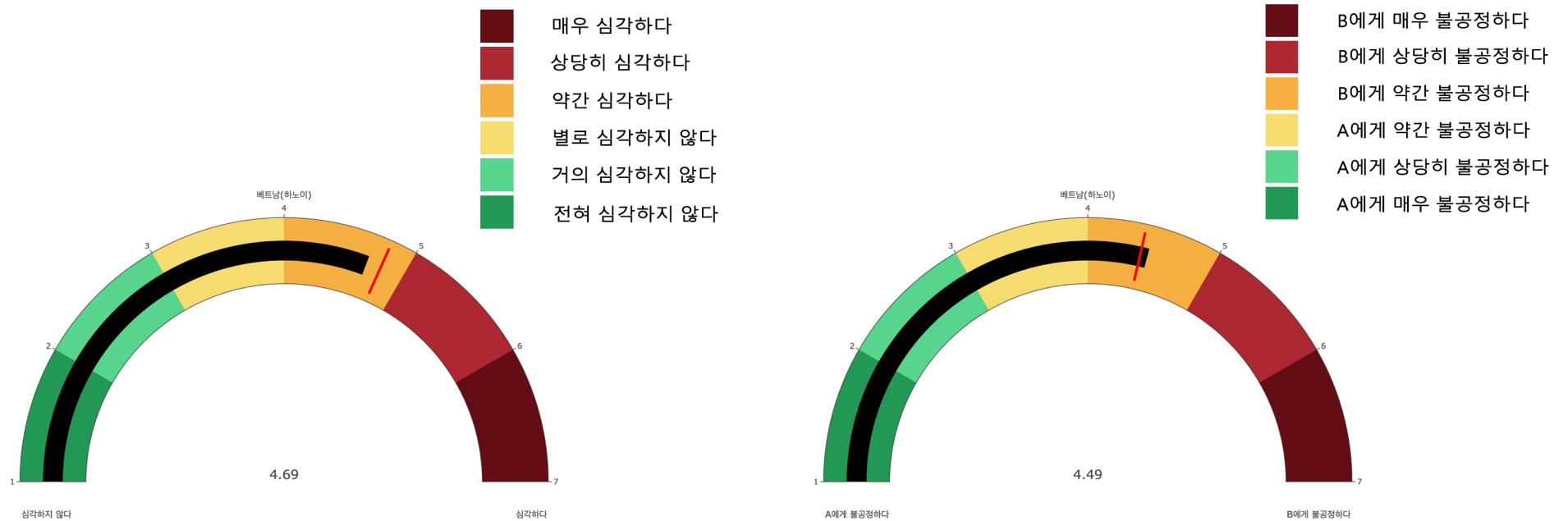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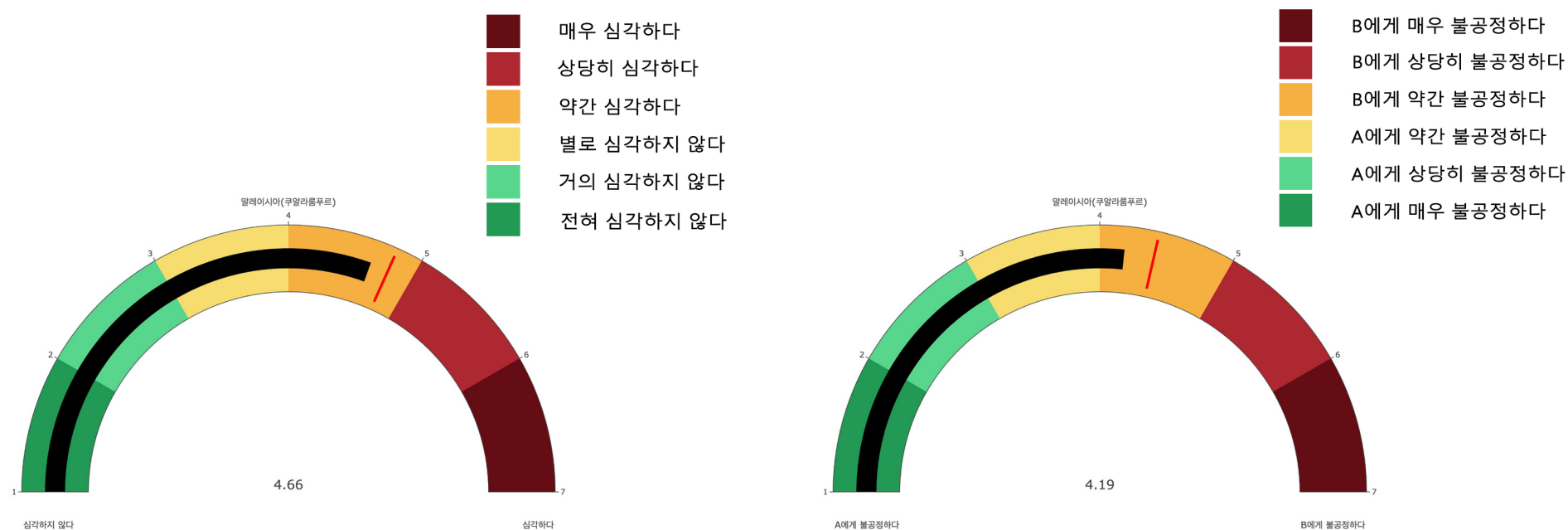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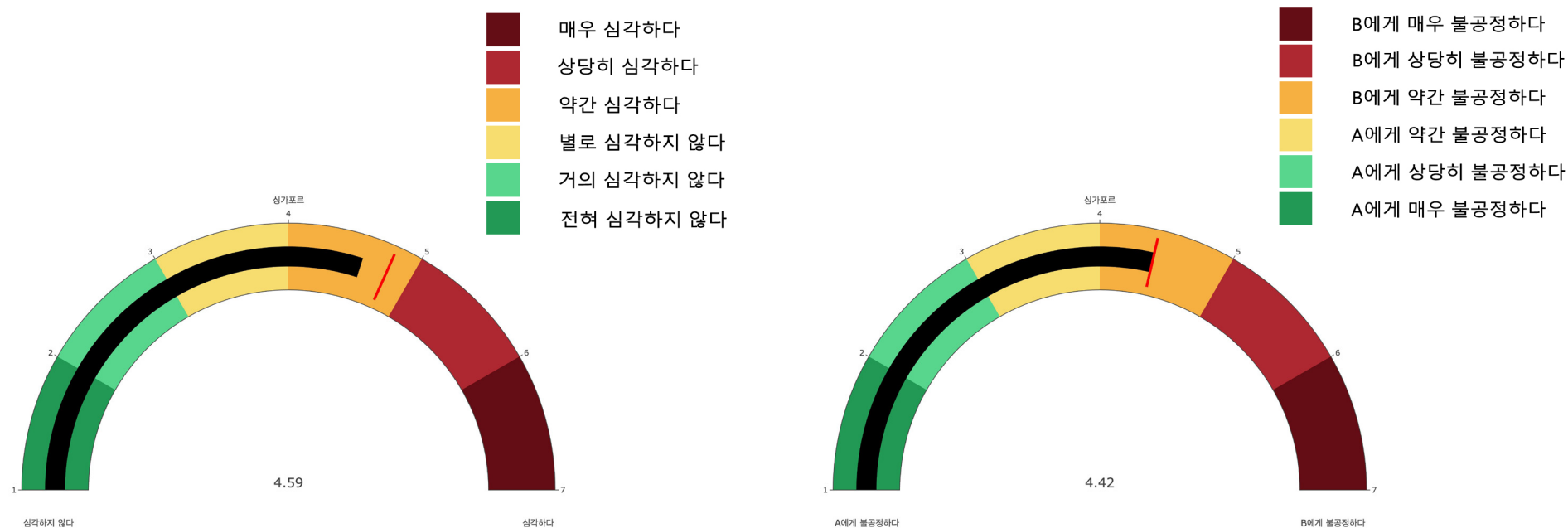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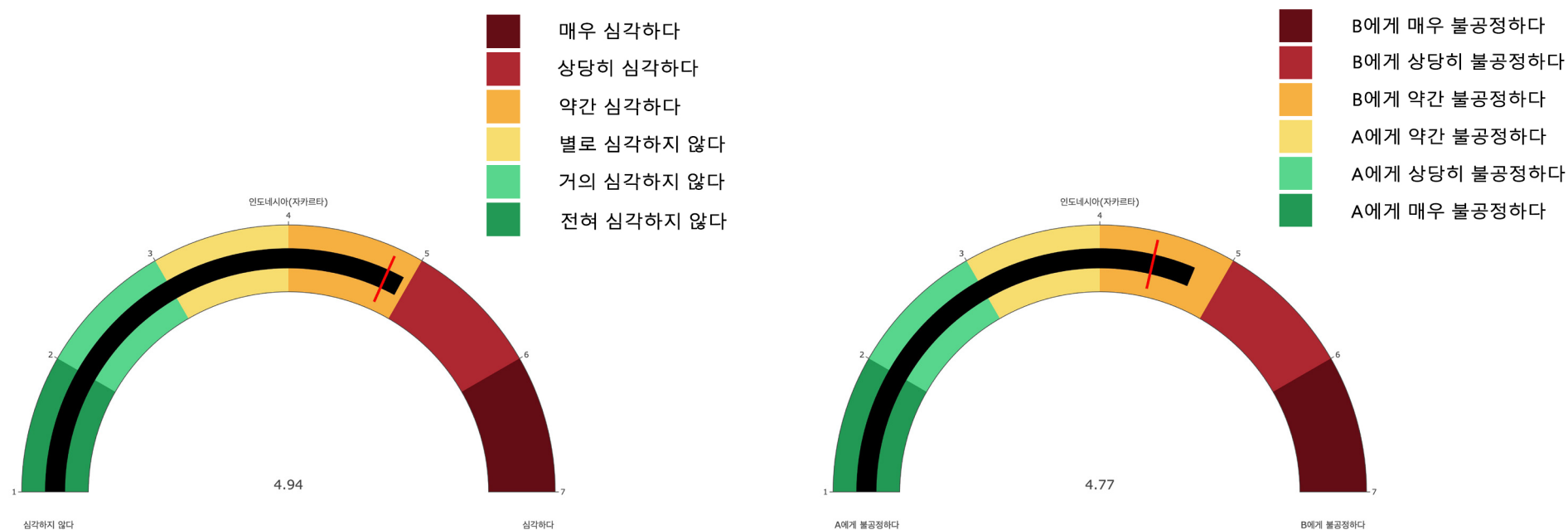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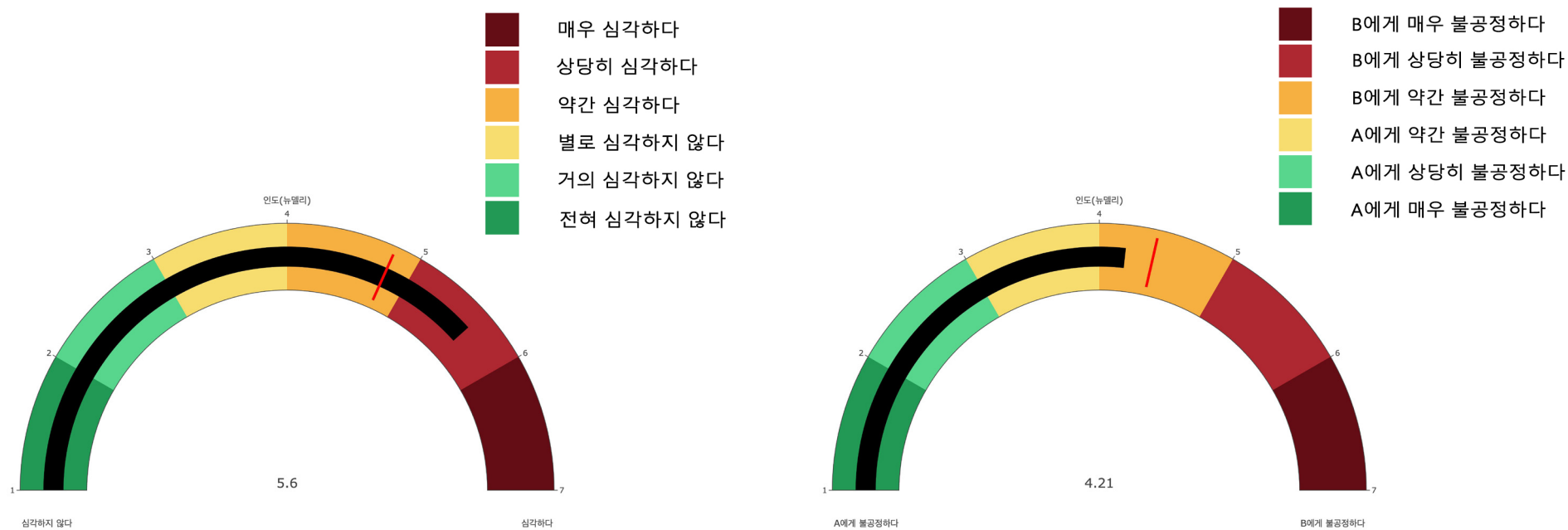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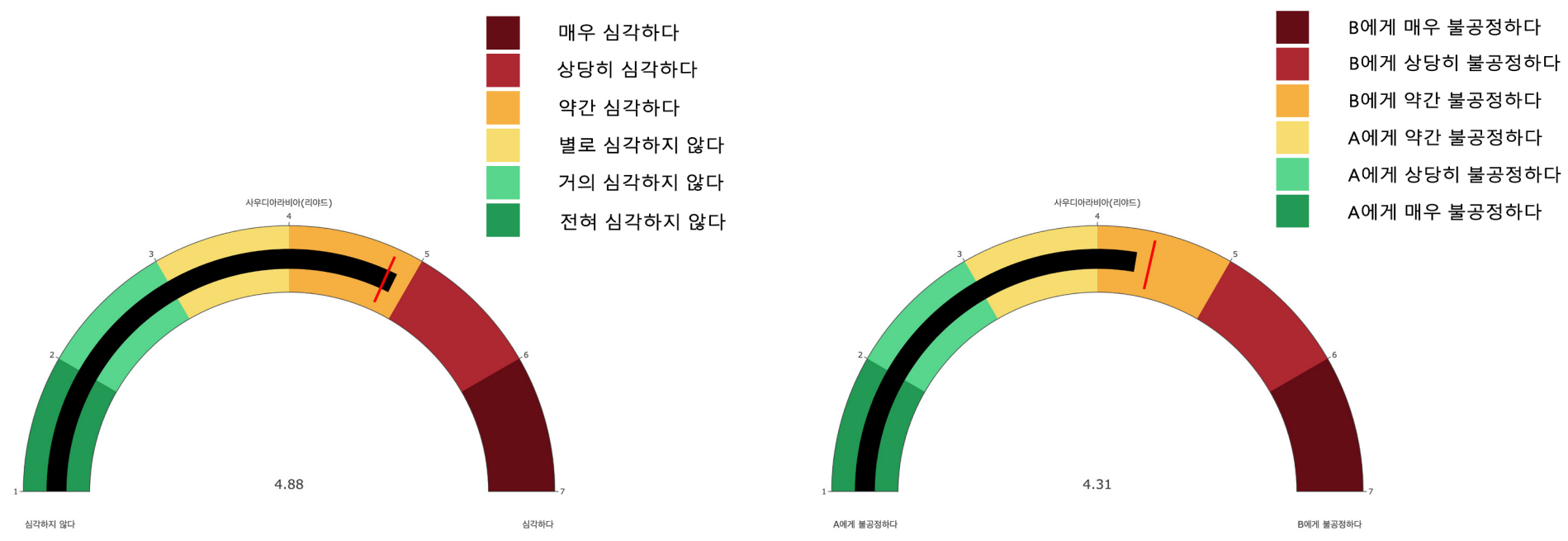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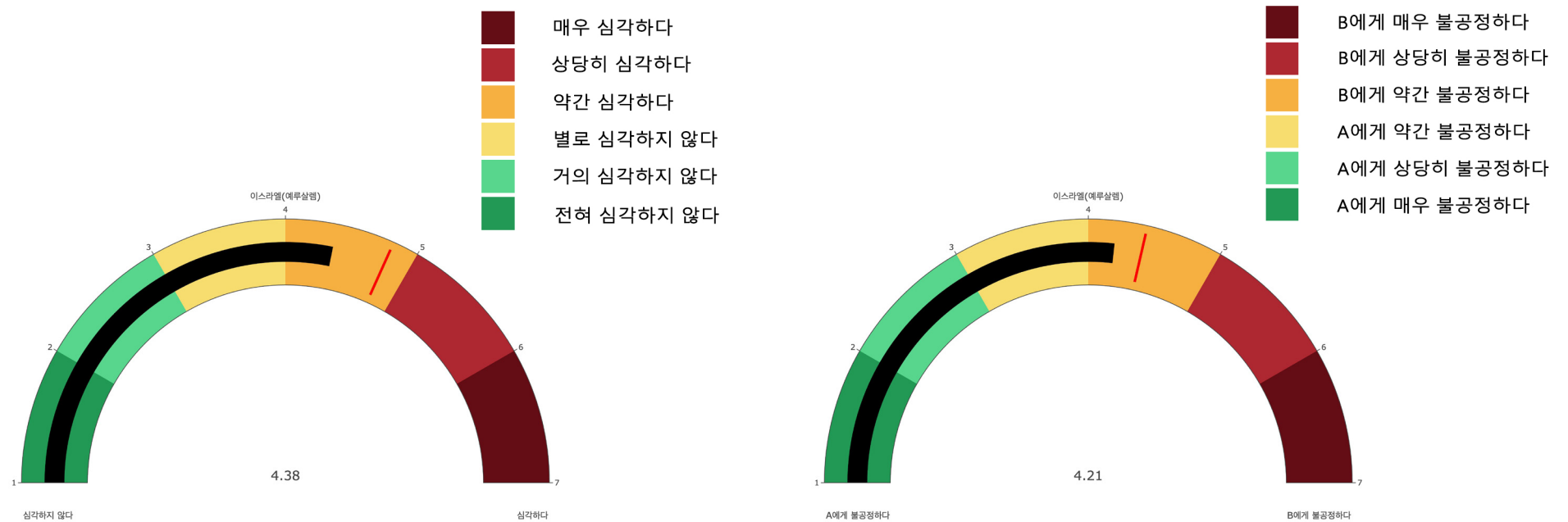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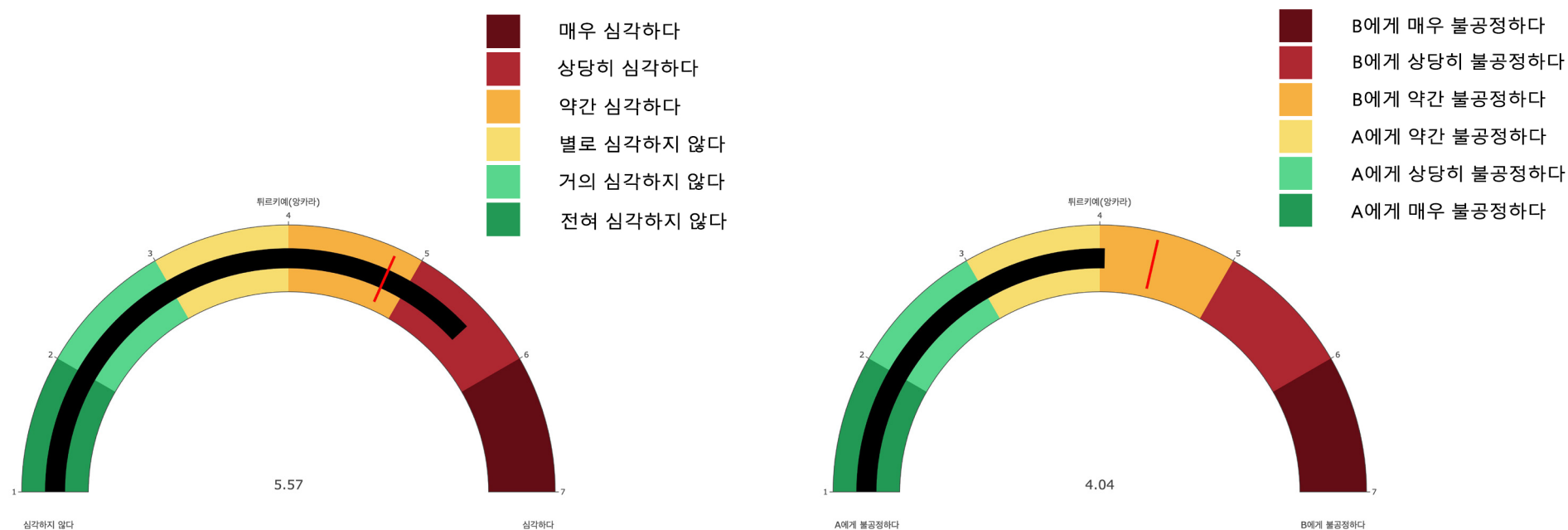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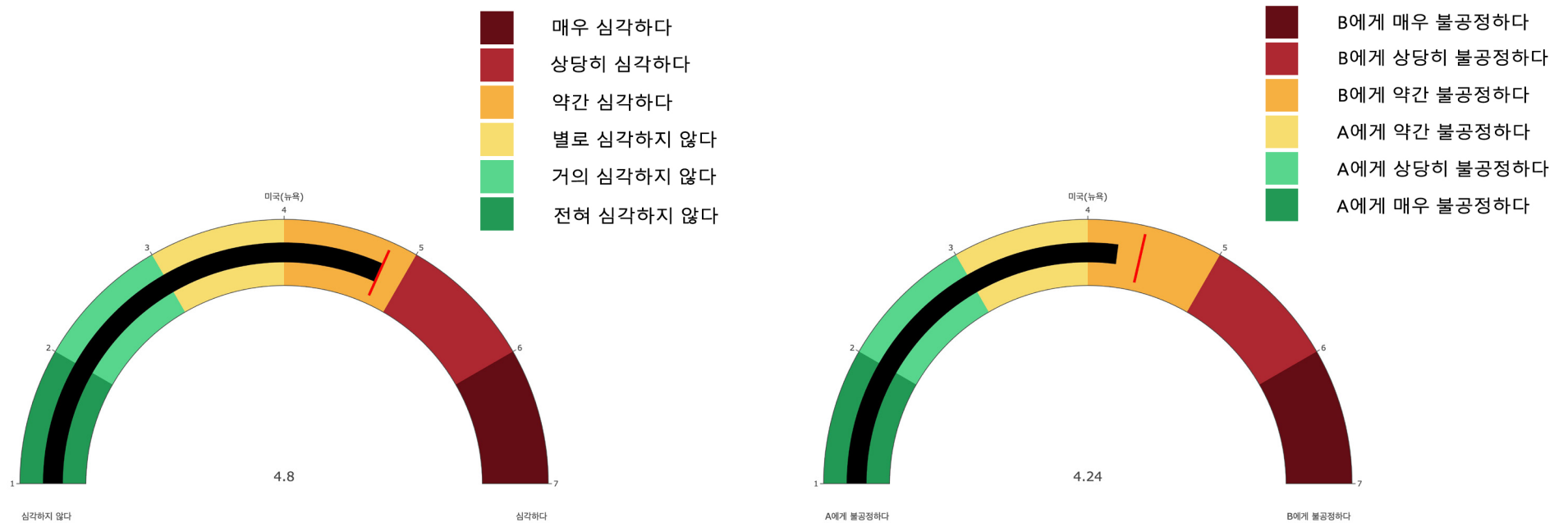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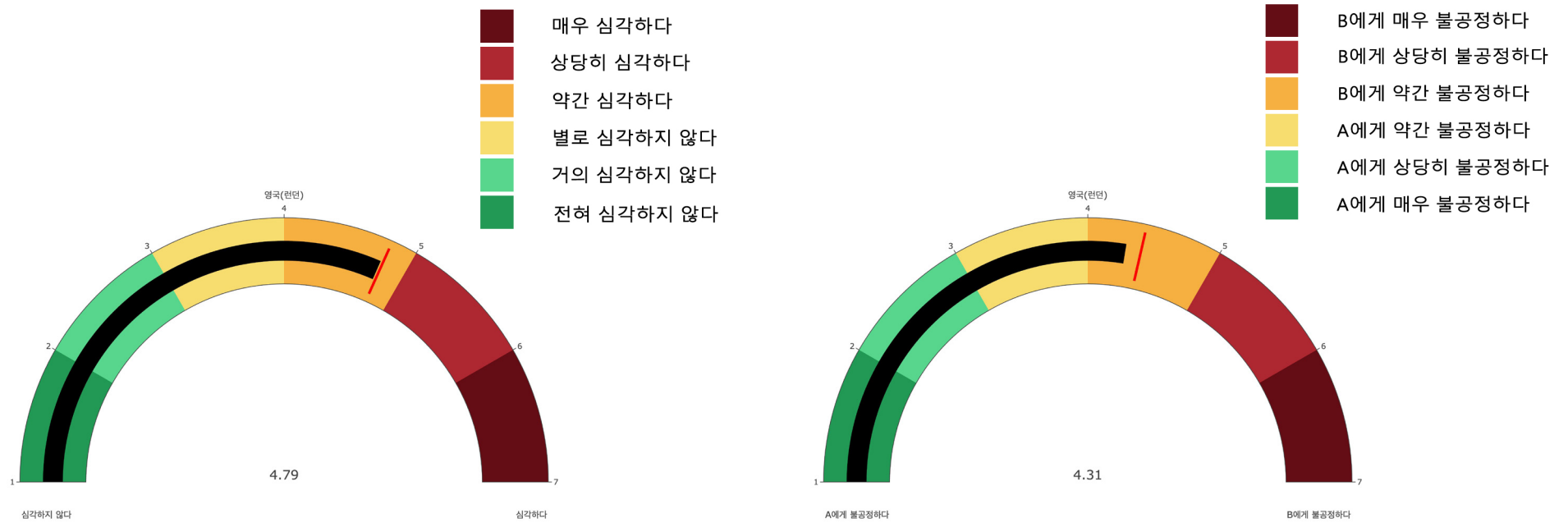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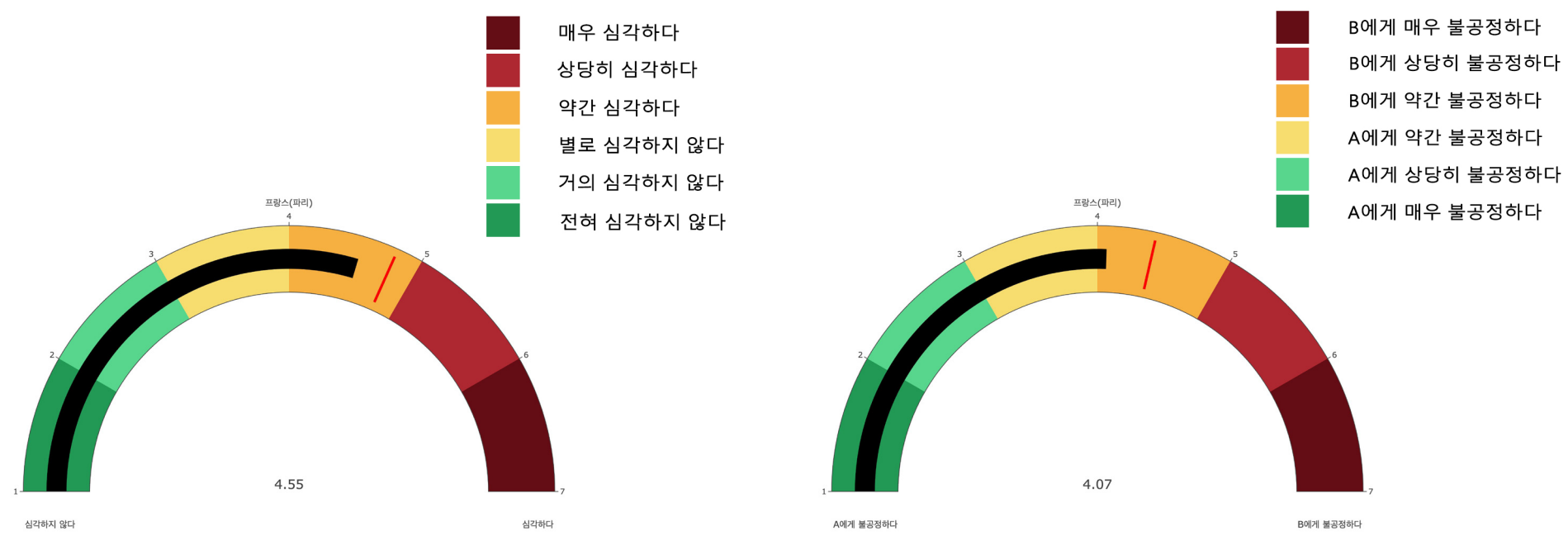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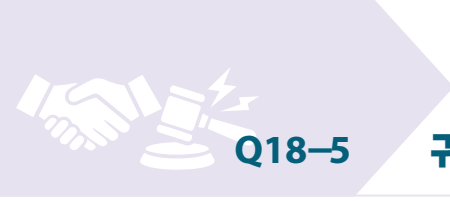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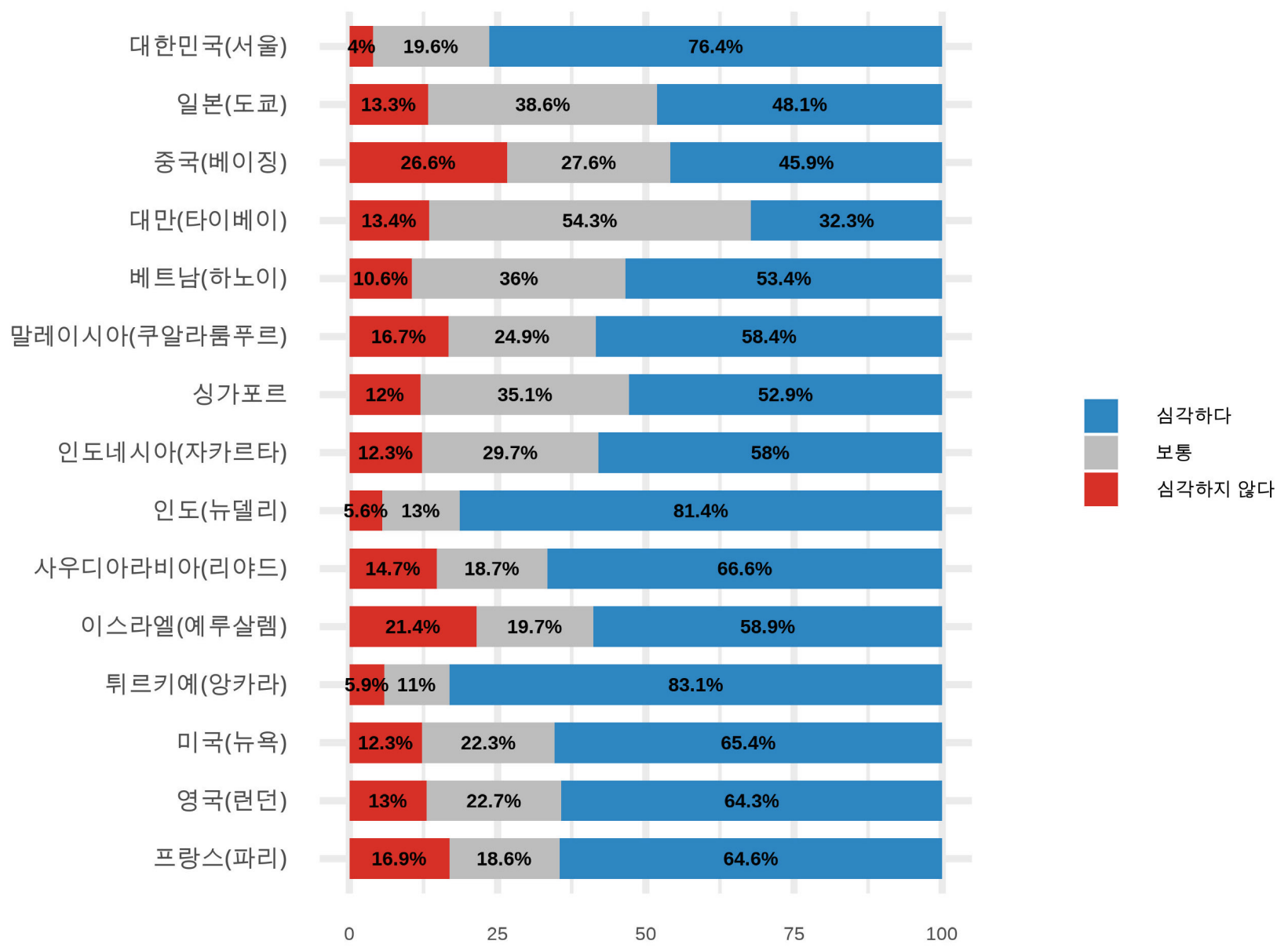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 즉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15개 도시의 응답을 보면, 튀르키예의 앙카라(83.14%)와 인도의 뉴델리(81.43%)에서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비율이 80%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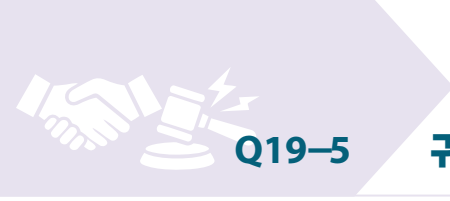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76.43%로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시민 4명 중 3명 이상이 젠더 갈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66.57%)와 미국의 뉴욕(65.43%)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2.29%로 가장 낮았고, 중국의 베이징(45.86%)과 일본의 도쿄(48.14%)도 50%를 넘지 않았다. 특히 대만의 타이베이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4.29%로 과반을 차지해, 젠더 갈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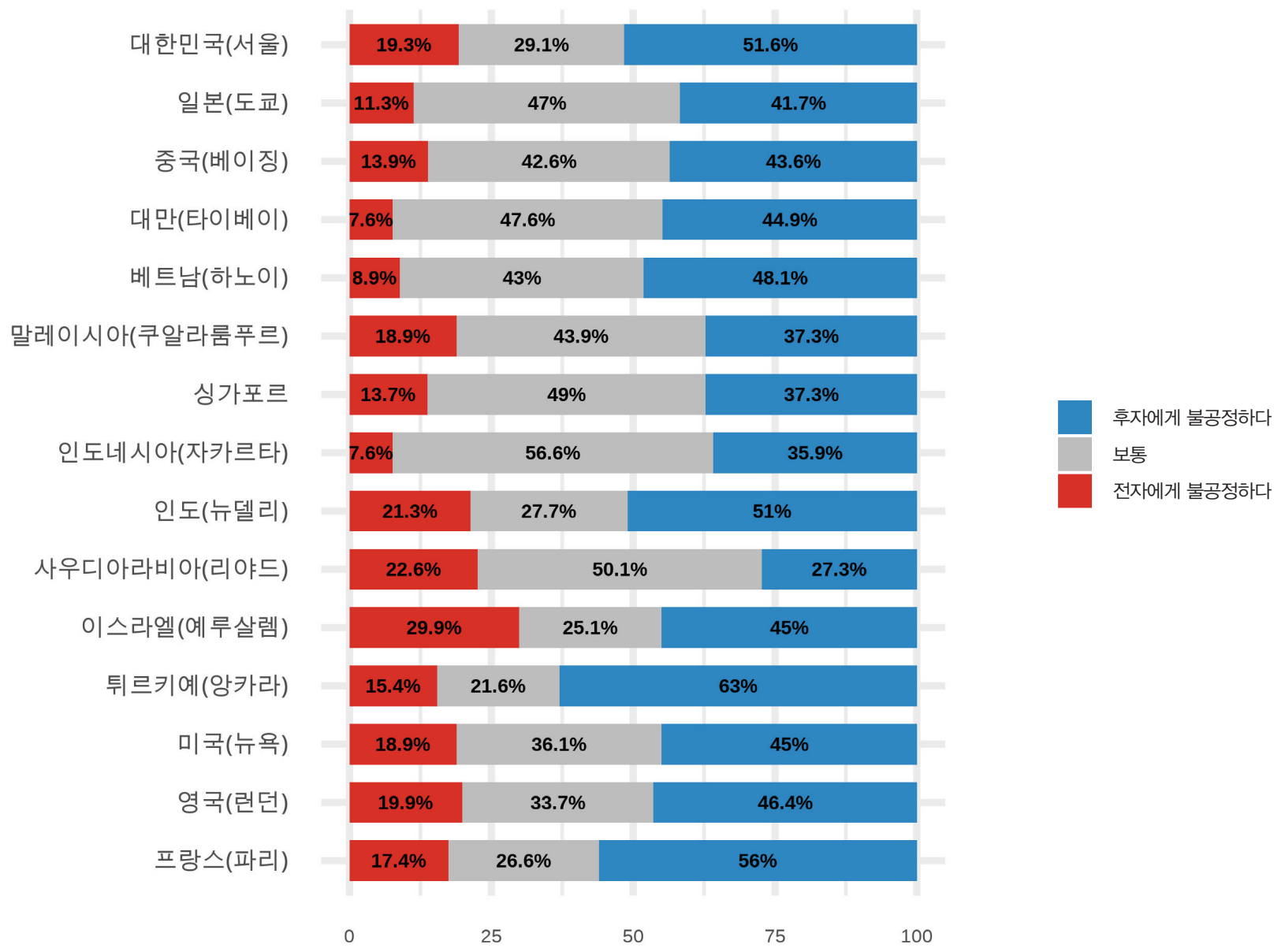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국의 베이징(26.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6.43%, 보통 19.57%, 반대 4.0%.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일본(도쿄)** 동의 48.14%, 보통 38.57%, 반대 13.29%.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중국(베이징)** 동의 45.86%, 보통 27.57%, 반대 26.57%.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림.
- **대만(타이베이)** 동의 32.29%, 보통 54.29%, 반대 13.43%.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53.43%, 보통 36.0%, 반대 10.57%.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8.43%, 보통 24.86%, 반대 16.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52.86%, 보통 35.14%, 반대 12.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8.0%, 보통 29.71%, 반대 12.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뉴델리)** 동의 81.43%, 보통 13.0%, 반대 5.57%.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6.57%, 보통 18.71%, 반대 14.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8.86%, 보통 19.71%, 반대 21.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3.14%, 보통 11.0%, 반대 5.86%.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65.43%, 보통 22.29%, 반대 12.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영국(런던)** 동의 64.29%, 보통 22.71%, 반대 13.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프랑스(파리)** 동의 64.57%, 보통 18.57%, 반대 1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귀하는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젠더 불공정성, 즉 ‘여성’과 ‘남성’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 사회인지를 묻는 것이다. 도시별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의 하노이(48.14%)는 ‘남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8.86%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등도 남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반면 튀르키예의 앙카라(63.00%)와 프랑스의 파리(56.00%)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1.57%로 과반을 넘었으나, ‘남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19.29%로 적지 않았다. 또한 ‘비슷하다’는 응답이 29.14%로 나타나, 젠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6.57%)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50.14%)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젠더 불공정성 자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거나 중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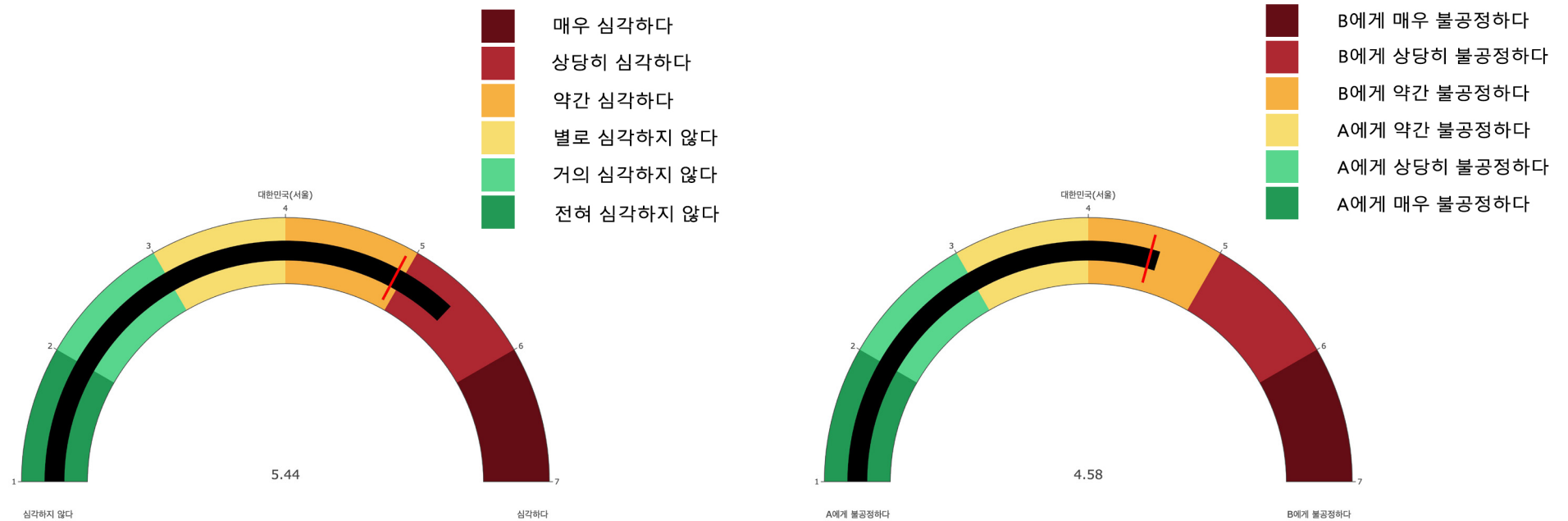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정규직에게 불공정 7.0%, 비슷함 15.0%,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78.0%.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압도적.
- **일본(도쿄)** 정규직에게 불공정 11.43%, 비슷함 35.71%,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52.86%. 과반이 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중국(베이징)** 정규직에게 불공정 15.14%, 비슷함 35.29%,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9.57%.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
- **대만(타이베이)** 정규직에게 불공정 7.71%, 비슷함 50.43%,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1.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베트남(하노이)** 정규직에게 불공정 12.0%, 비슷함 42.57%,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5.43%.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비슷하다는 의견도 높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정규직에게 불공정 22.71%, 비슷함 38.29%,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39.0%.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의견 분화.
- **싱가포르** 정규직에게 불공정 15.29%, 비슷함 41.57%,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3.14%.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비슷하다는 의견도 높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정규직에게 불공정 10.29%, 비슷함 32.29%,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57.43%. 과반이 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인도(뉴델리)** 정규직에게 불공정 32.71%, 비슷함 22.71%,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4.57%.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정규직 불리 인식도 존재.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정규직에게 불공정 16.14%, 비슷함 45.14%,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38.71%.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정규직에게 불공정 28.29%, 비슷함 27.0%,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4.71%.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정규직에게 불공정 33.43%, 비슷함 22.29%,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4.29%.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정규직 불리 인식도 높음.
- **미국(뉴욕)** 정규직에게 불공정 22.57%, 비슷함 38.86%,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38.57%.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영국(런던)** 정규직에게 불공정 20.0%, 비슷함 37.86%,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42.14%. 비정규직 불리 인식이 우세.
- **프랑스(파리)** 정규직에게 불공정 26.57%, 비슷함 42.43%, 비정규직에게 불공정 31.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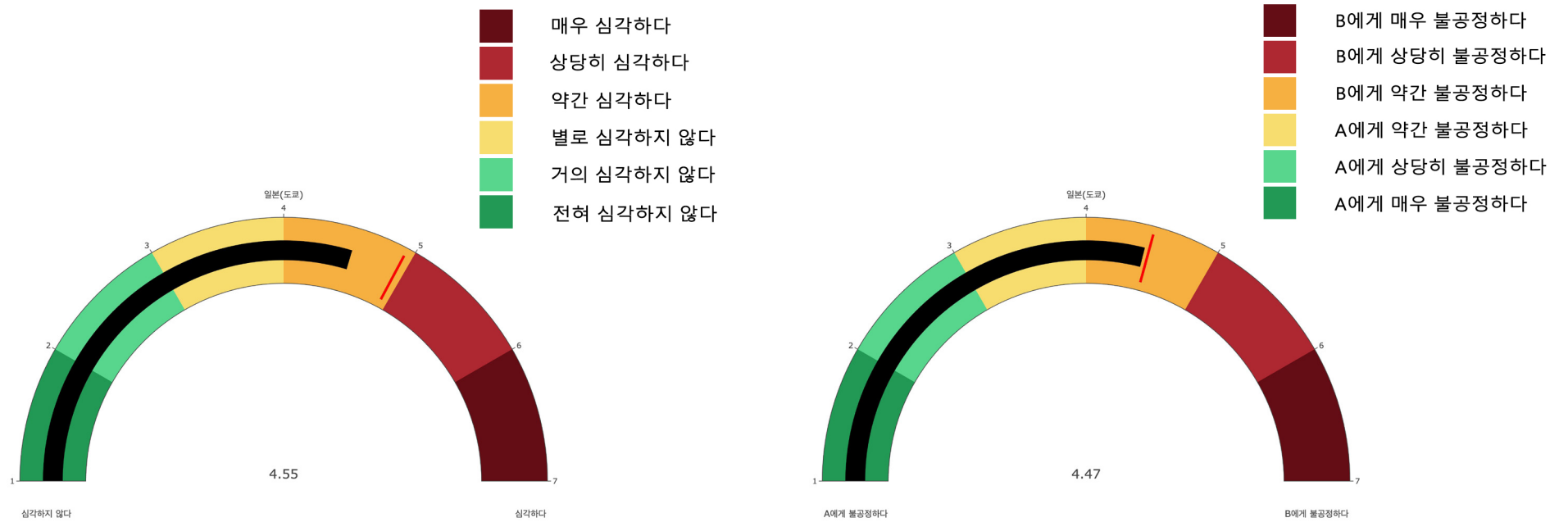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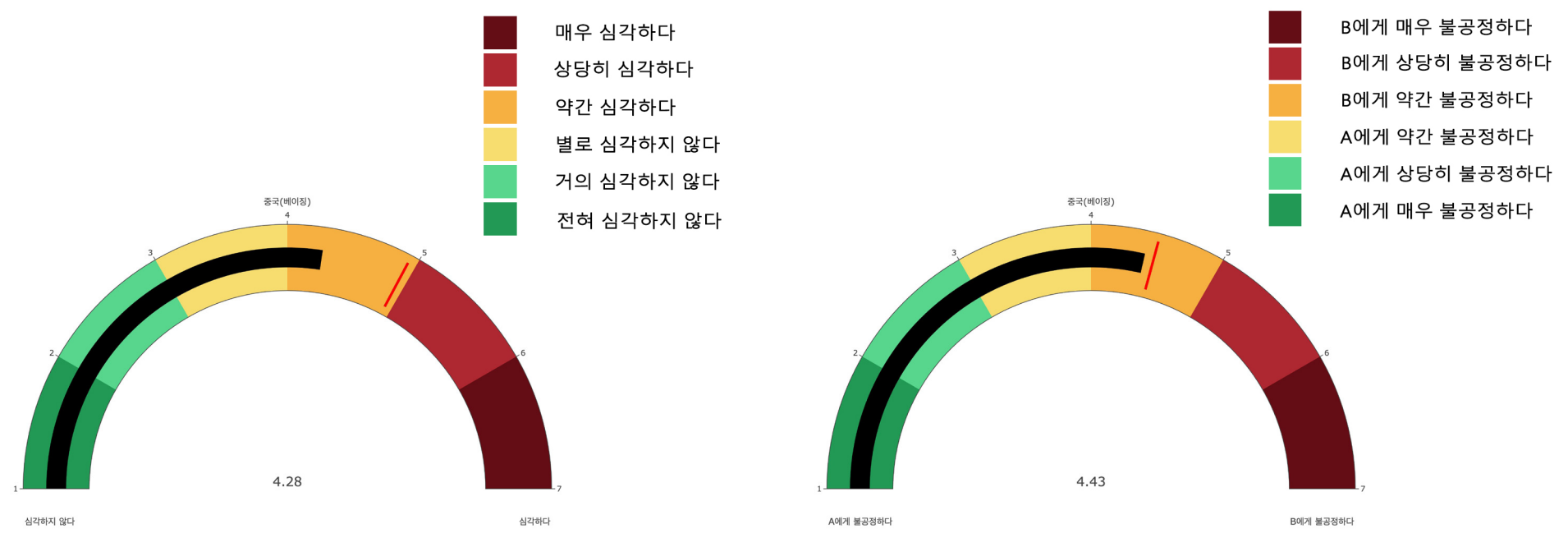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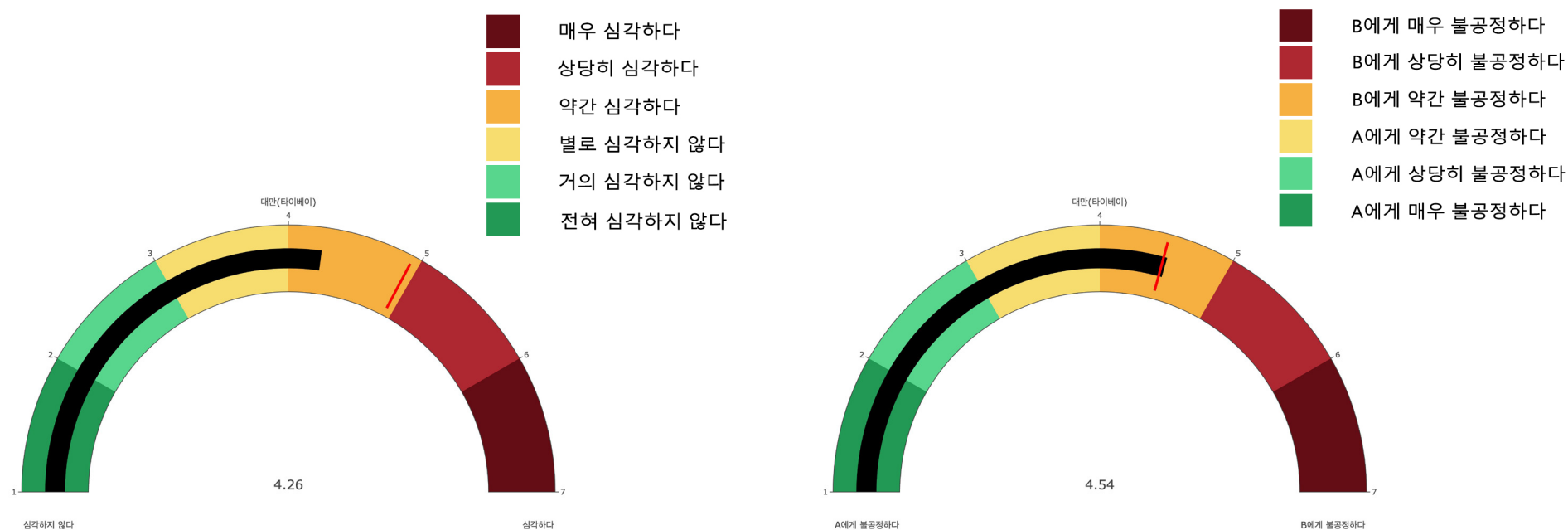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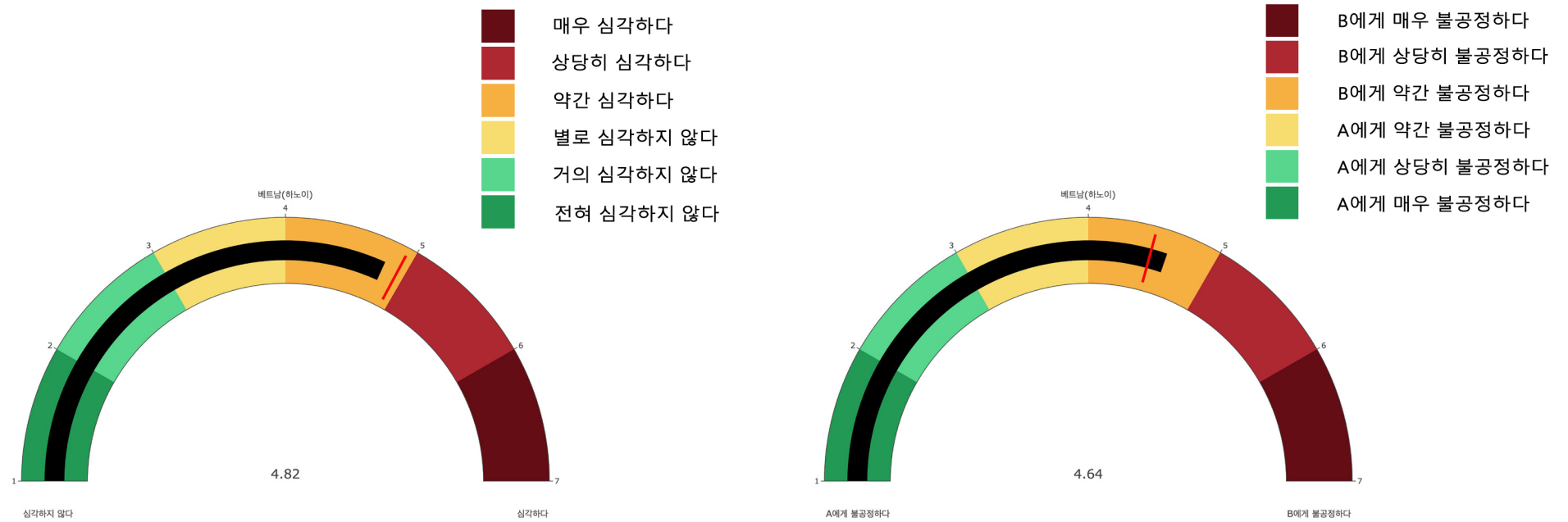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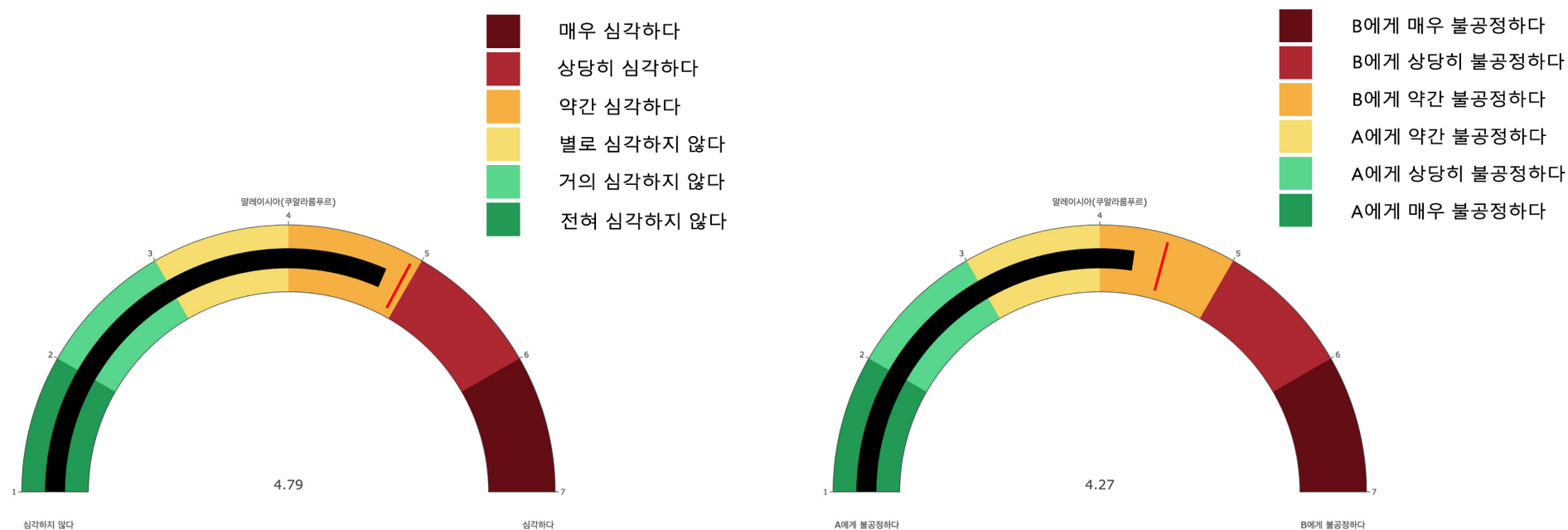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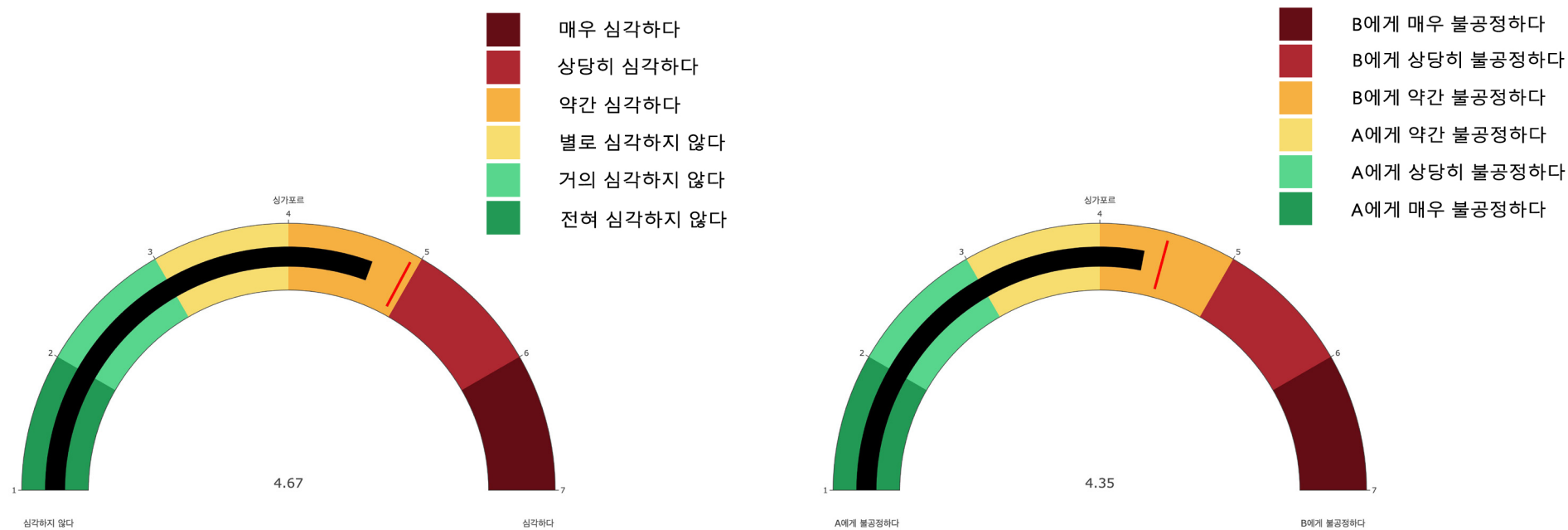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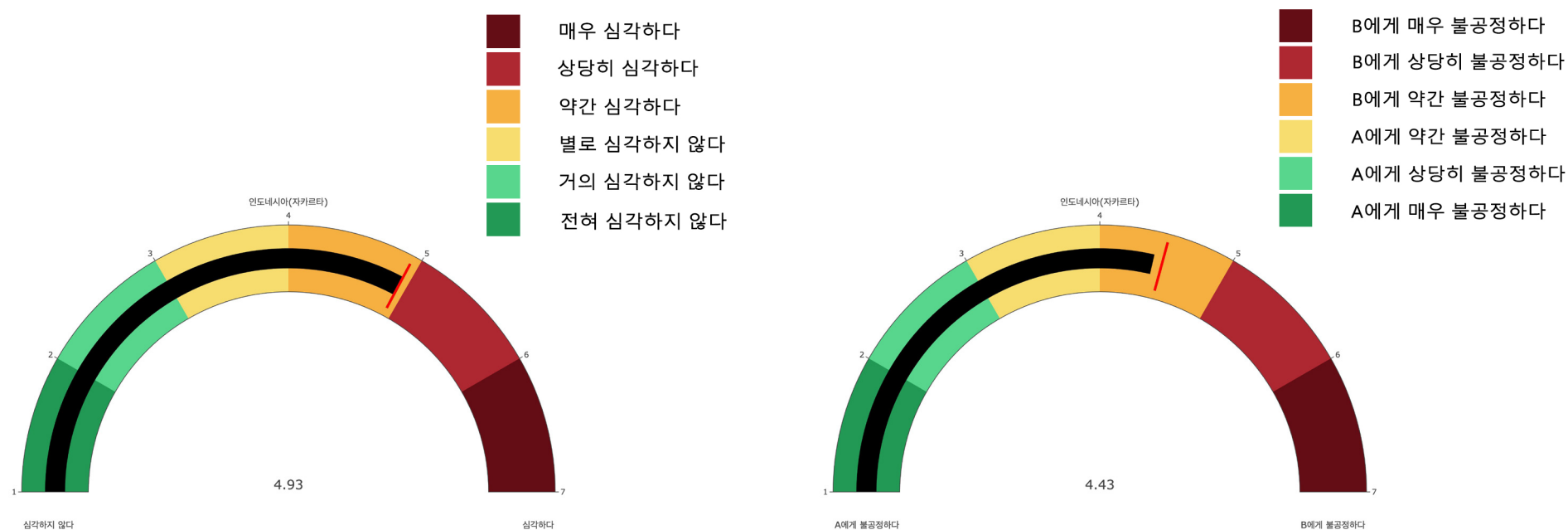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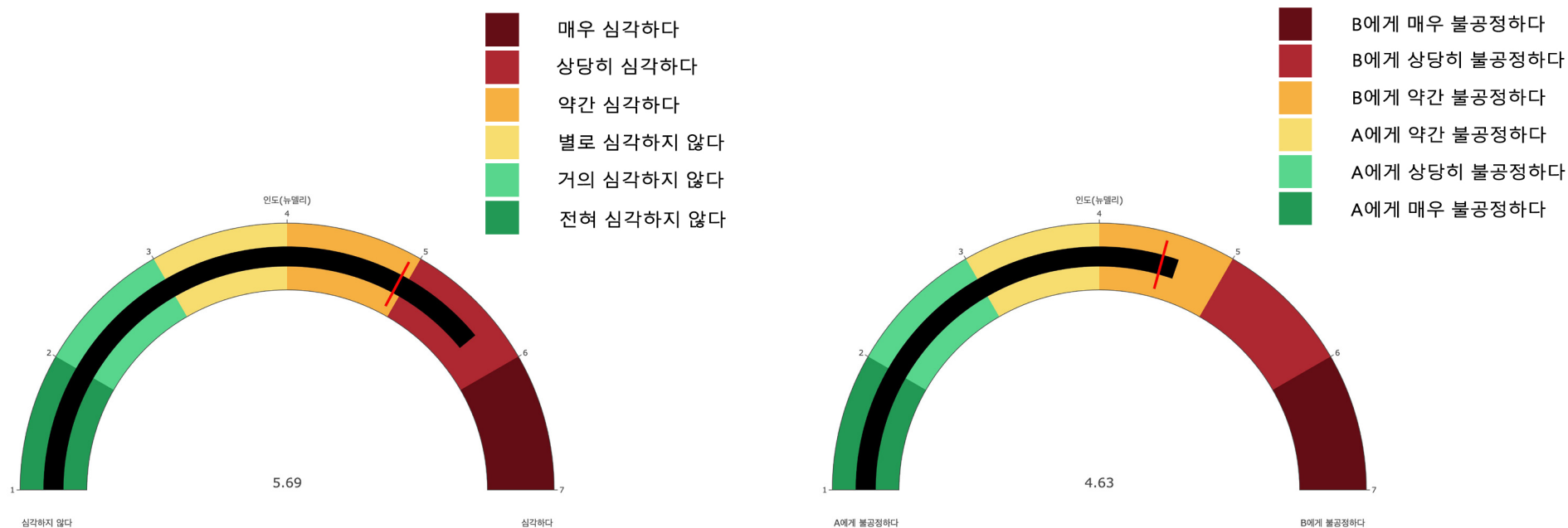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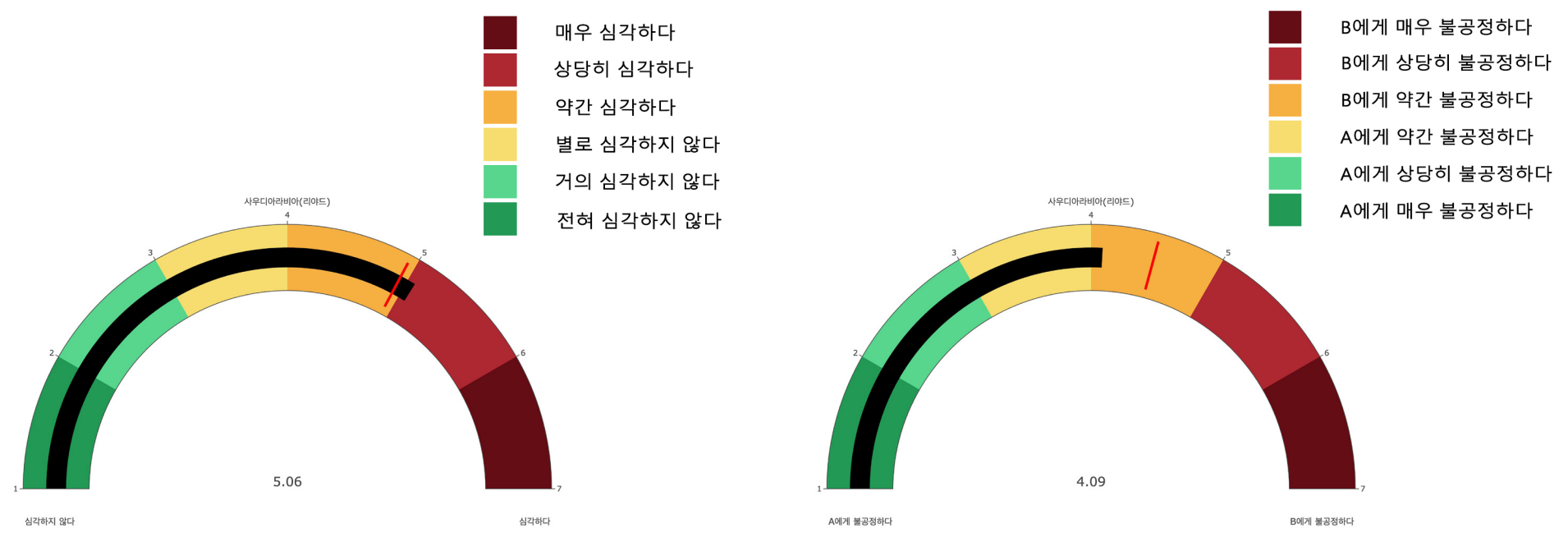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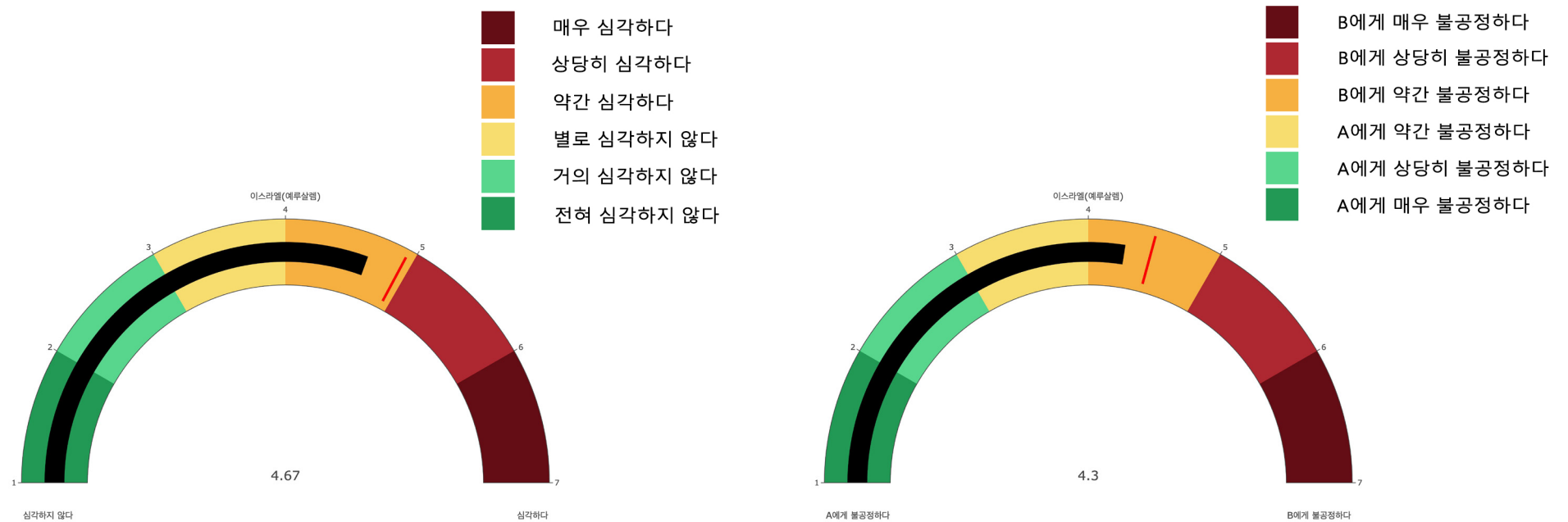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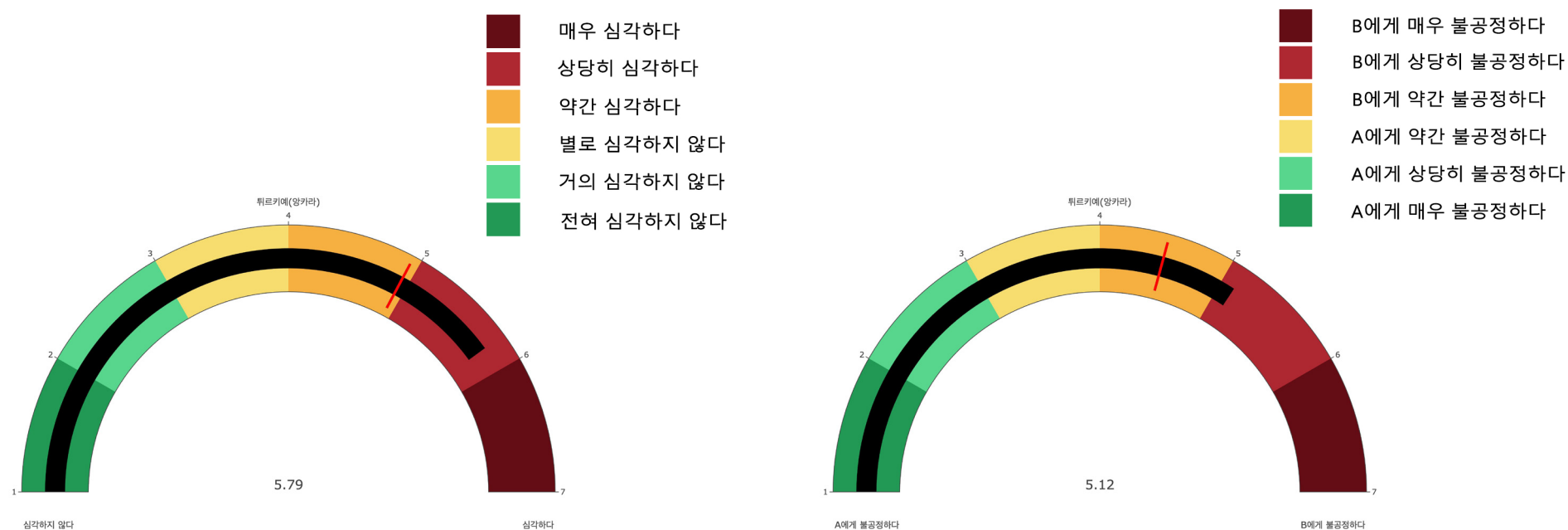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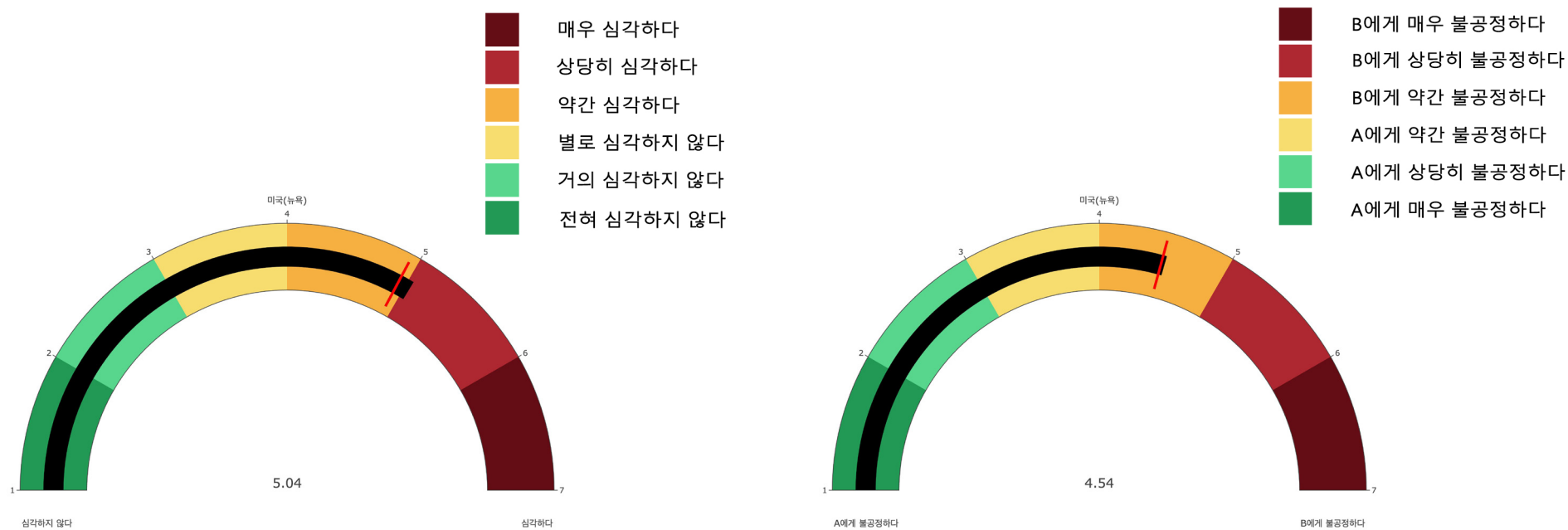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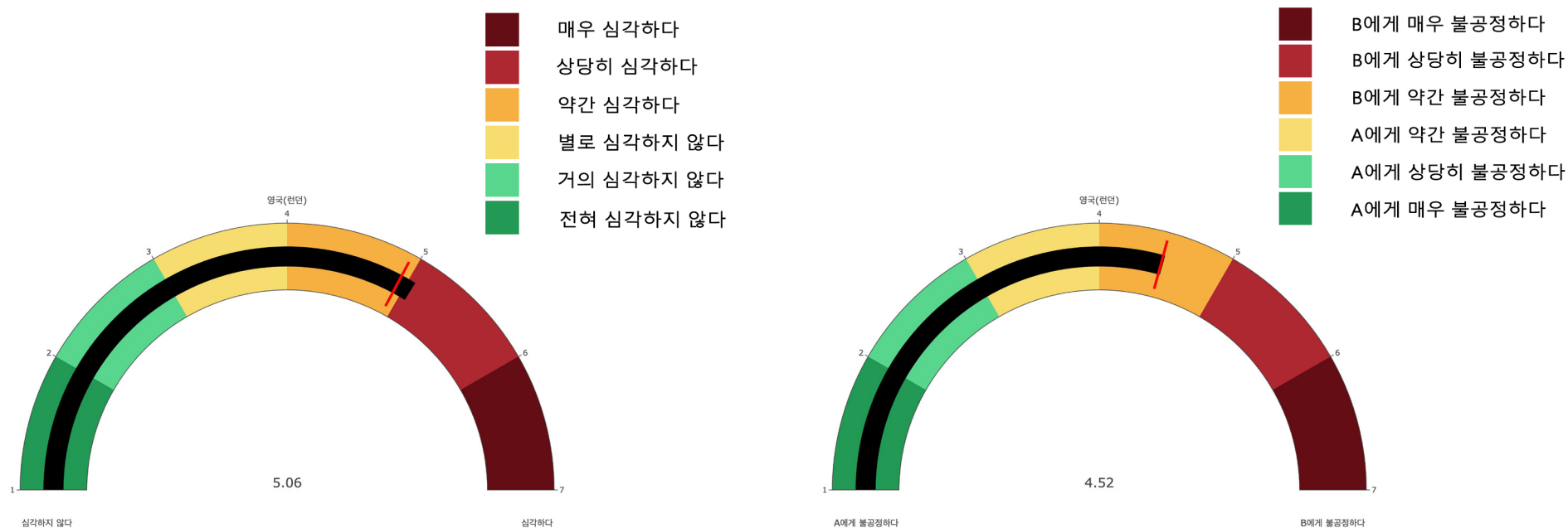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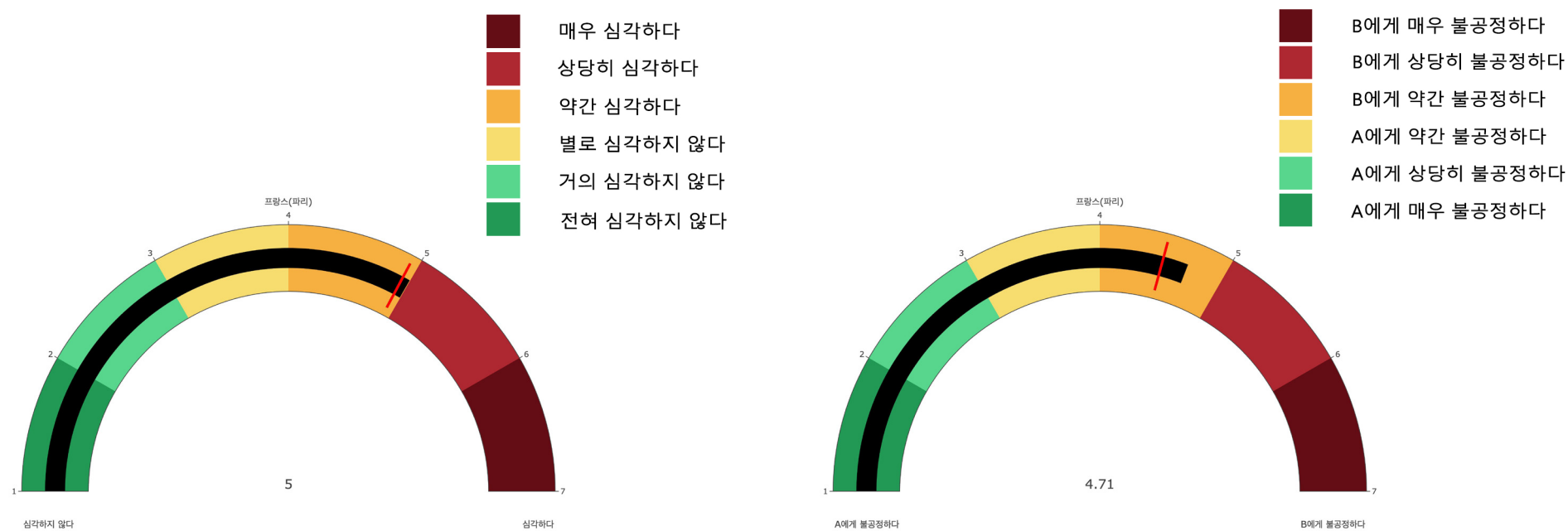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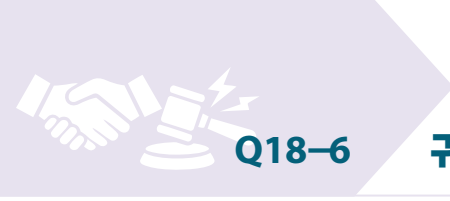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과 남성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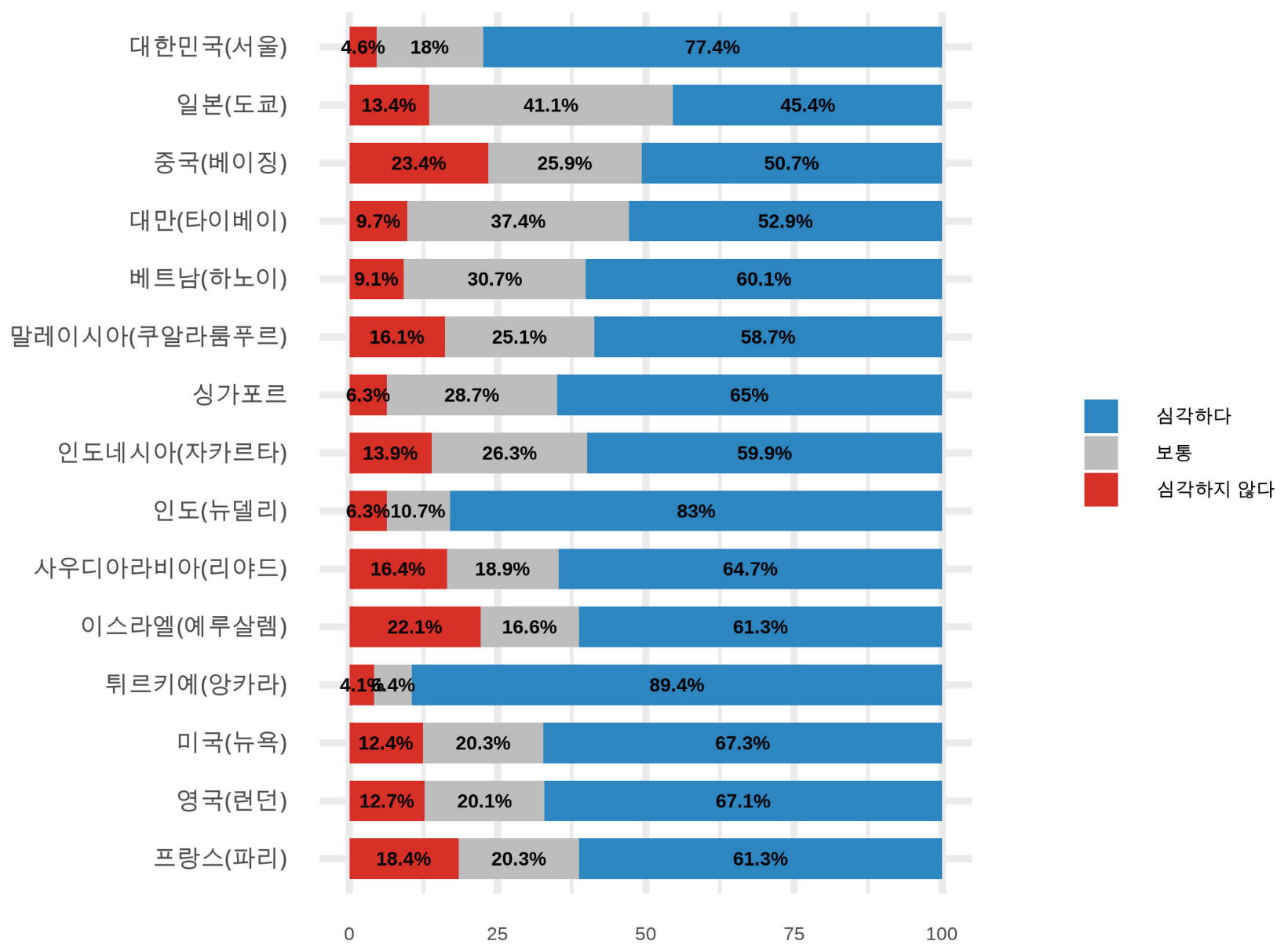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즉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묻는 질문이다. 튀르키예의 앙카라가 89.43%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뉴델리가 83.00%로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77.43%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와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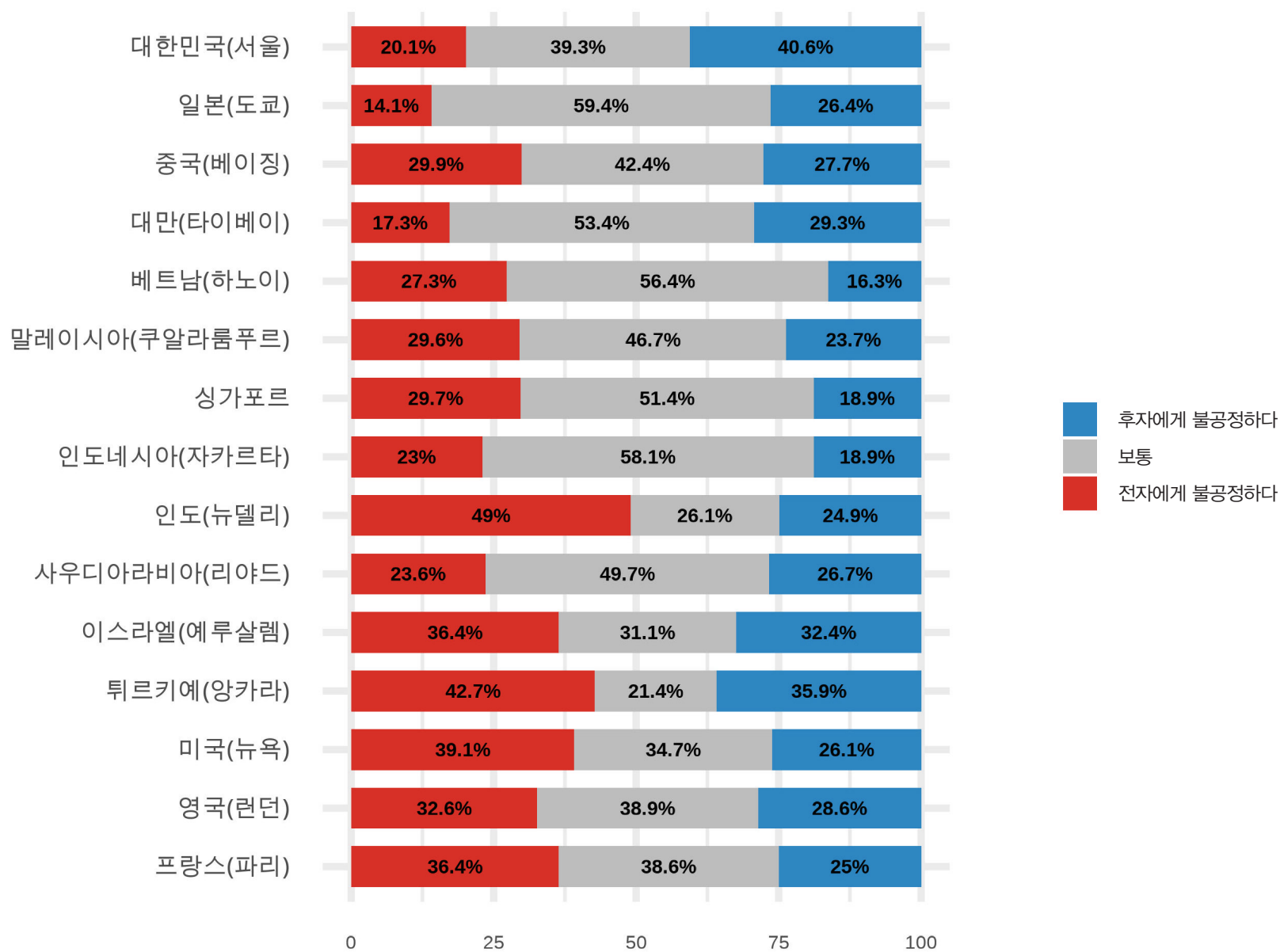
일본의 도쿄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5.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41.14%)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국의 베이징(50.71%)과 대만의 타이베이(52.86%)도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비율이 50% 초반대에 머물렀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국의 베이징(23.43%)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2.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7.43%, 보통 18.0%, 반대 4.57%.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일본(도쿄)** 동의 45.43%, 보통 41.14%, 반대 13.43%. 유보적 입장이 다수.
- **중국(베이징)** 동의 50.71%, 보통 25.86%, 반대 23.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대만(타이베이)** 동의 52.86%, 보통 37.43%, 반대 9.71%.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베트남(하노이)** 동의 60.14%, 보통 30.71%, 반대 9.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8.71%, 보통 25.14%, 반대 16.14%.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65.0%, 보통 28.71%, 반대 6.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9.86%, 보통 26.29%, 반대 13.86%.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뉴델리)** 동의 83.0%, 보통 10.71%, 반대 6.29%.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4.71%, 보통 18.86%, 반대 16.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1.29%, 보통 16.57%, 반대 22.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43%, 보통 6.43%, 반대 4.14%.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67.29%, 보통 20.29%,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영국(런던)** 동의 67.14%, 보통 20.14%, 반대 12.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프랑스(파리)** 동의 61.29%, 보통 20.29%, 반대 18.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귀하는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세대 간 불공정성, 즉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대체로 ‘젊은 세대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우세하거나, ‘비슷하다’는 중립적 의견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젊은 세대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0.57%로 가장 높았으며, ‘기성세대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20.14%에 그쳤다. 이는 청년 실업, 주거난 등 젊은 층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튀르키예의 앙카라(35.86%), 이스라엘의 예루살렘(32.43%) 등도 젊은 세대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인도의 뉴델리는 ‘기성세대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9.00%로 ‘젊은 세대에게 불공정하다’(24.86%)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처우나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튀르키예의 앙카라(42.71%)와 미국의 뉴욕(39.14%)에서도 기성세대가 겪는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상당했다. 일본의 도쿄(59.43%),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8.14%), 베트남의 하노이(56.43%) 등 아시아권 도시들에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세대 간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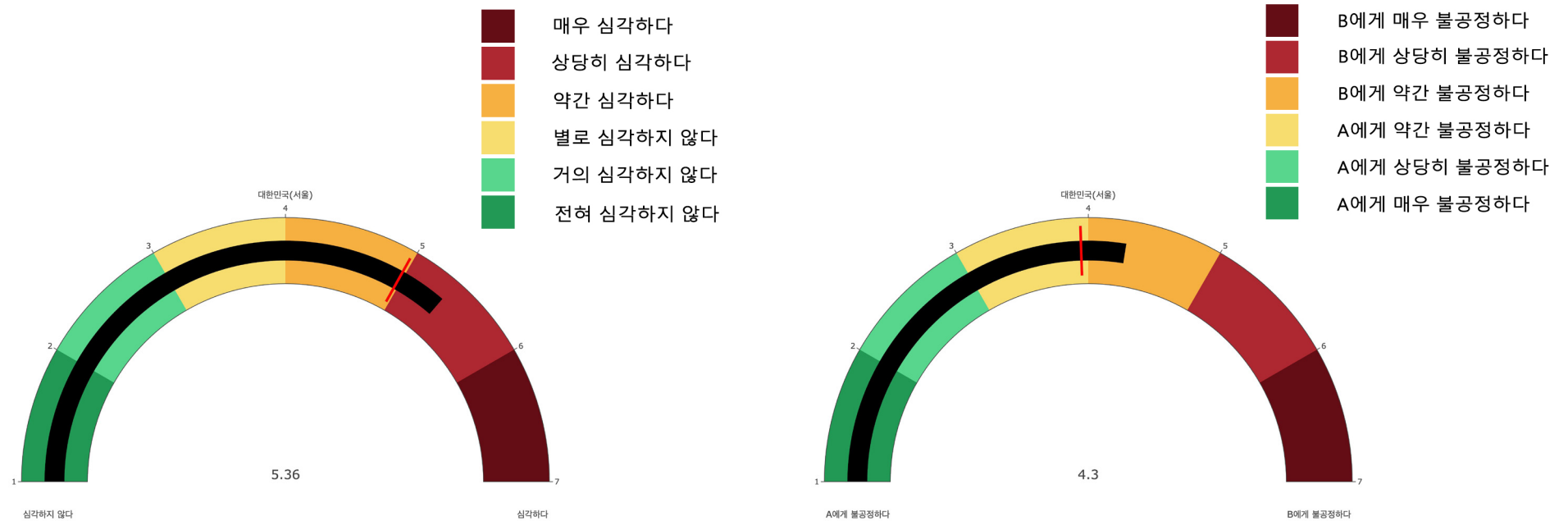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0.14%, 비슷함 39.29%,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40.57%. 젊은 세대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비슷하다는 의견도 높음.
- **일본(도쿄)**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14.14%, 비슷함 59.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6.43%.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중국(베이징)**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9.86%, 비슷함 42.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7.71%.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대만(타이베이)**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17.29%, 비슷함 53.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9.29%.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베트남(하노이)**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7.29%, 비슷함 56.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16.29%.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9.57%, 비슷함 46.71%,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3.71%.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싱가포르**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9.71%, 비슷함 51.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18.86%.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3.0%, 비슷함 58.14%,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18.86%.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뉴델리)**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49.0%, 비슷함 26.14%,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4.86%. 기성세대 불리 인식이 우세.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23.57%, 비슷함 49.71%,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6.71%.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36.43%, 비슷함 31.14%,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32.43%. 기성세대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의견 분화.
- **튀르키예(앙카라)**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42.71%, 비슷함 21.43%,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35.86%. 기성세대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젊은 세대 불리 인식도 높음.
- **미국(뉴욕)**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39.14%, 비슷함 34.71%,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6.14%. 기성세대 불리 인식이 우세.
- **영국(런던)**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32.57%, 비슷함 38.86%,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8.57%.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프랑스(파리)** 기성세대에게 불공정 36.43%, 비슷함 38.57%, 젊은세대에게 불공정 25.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기성세대 불리 인식도 강함.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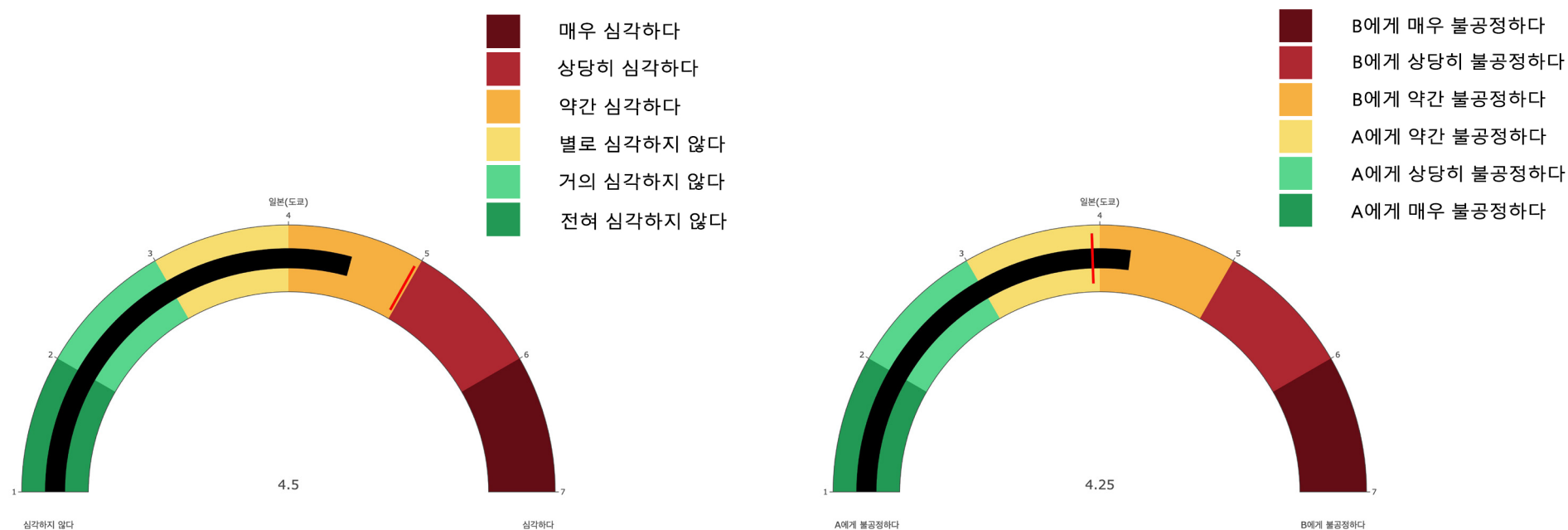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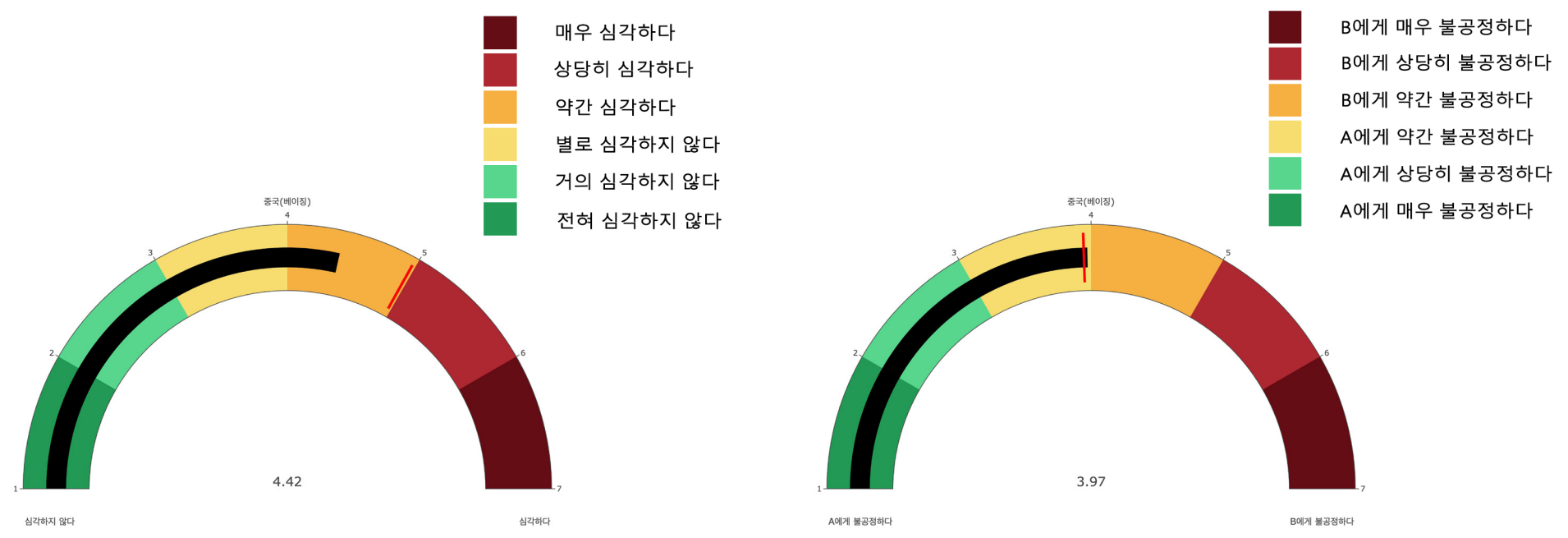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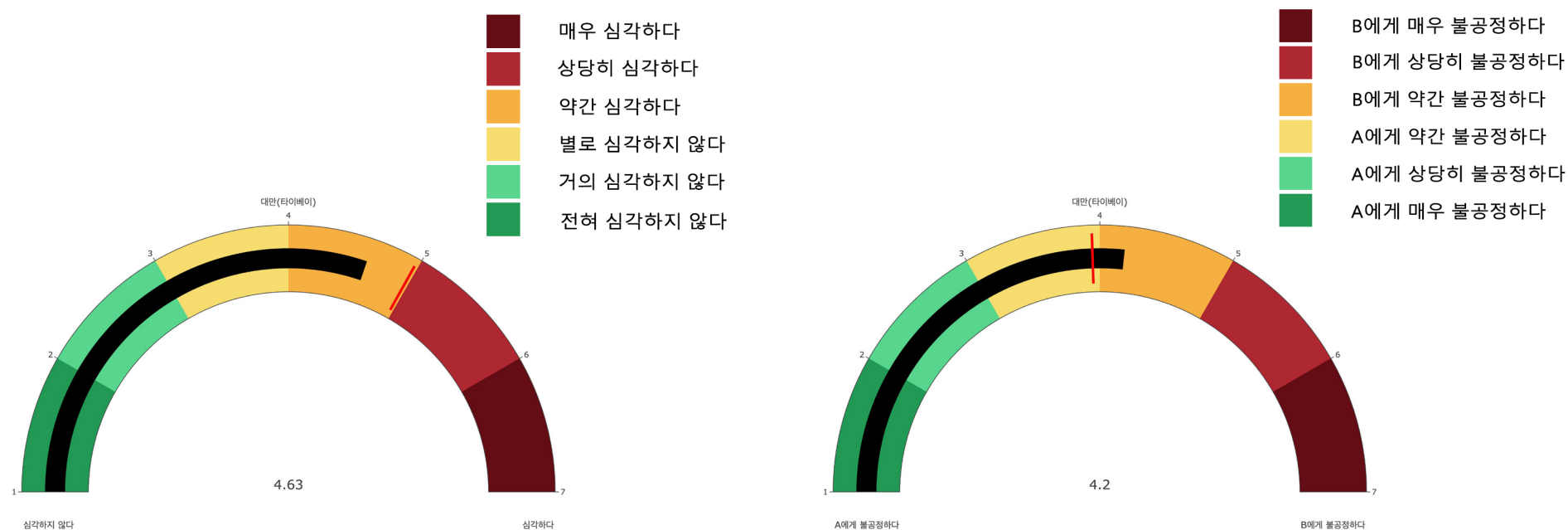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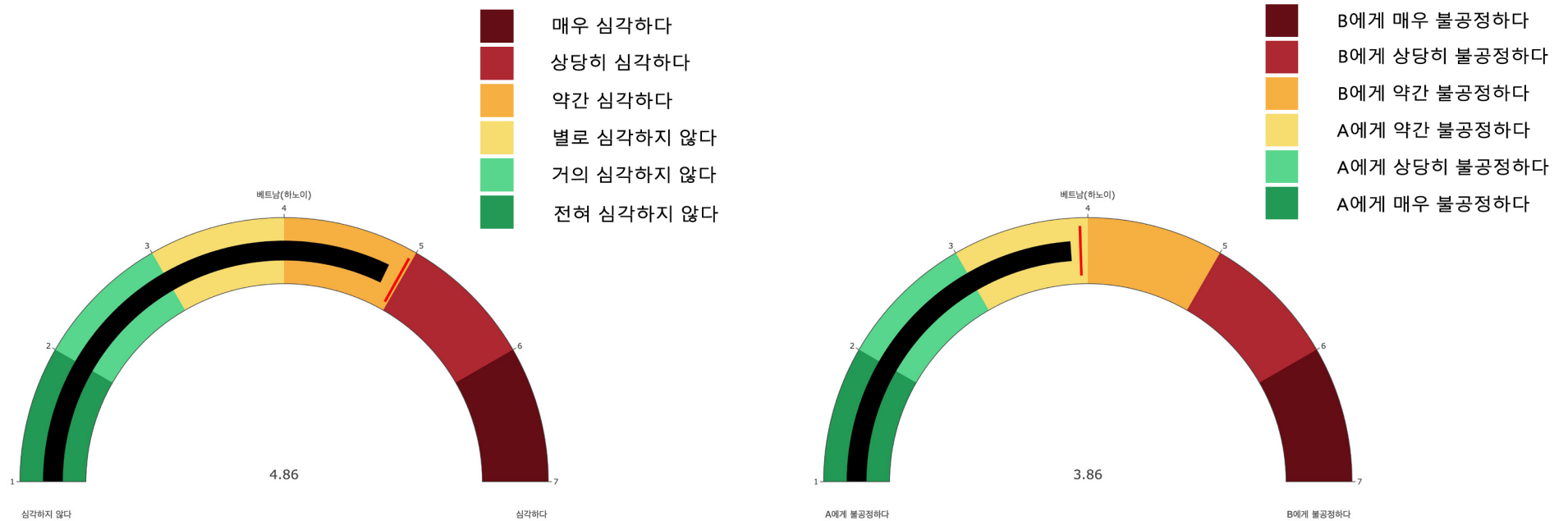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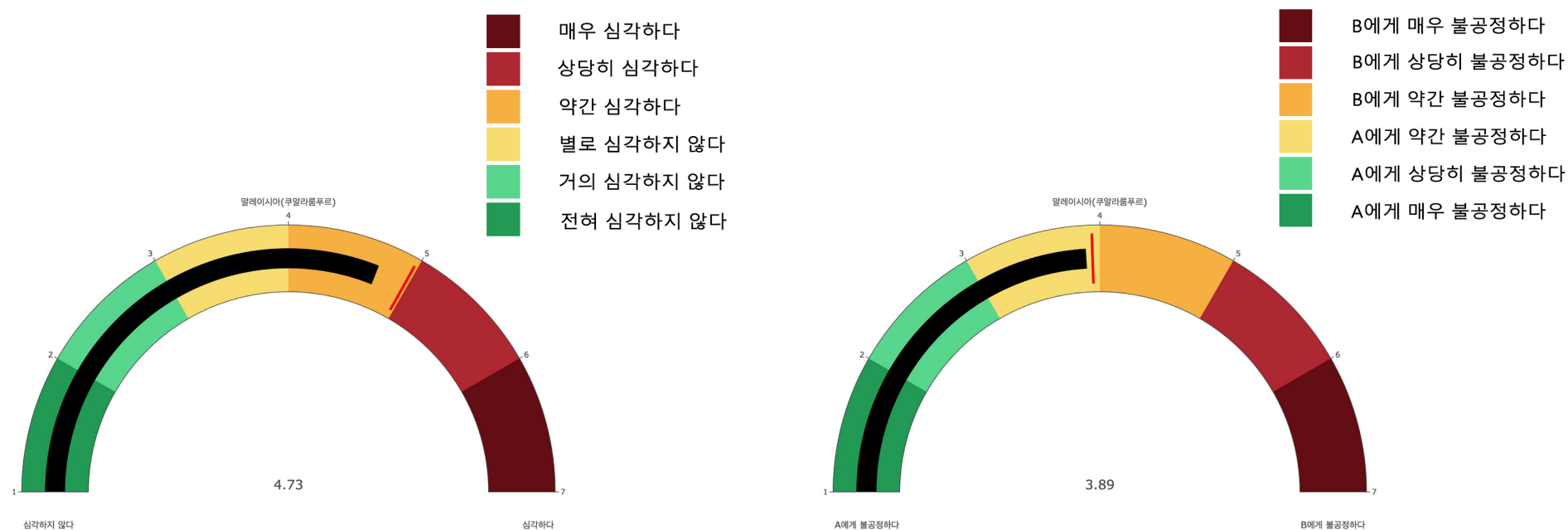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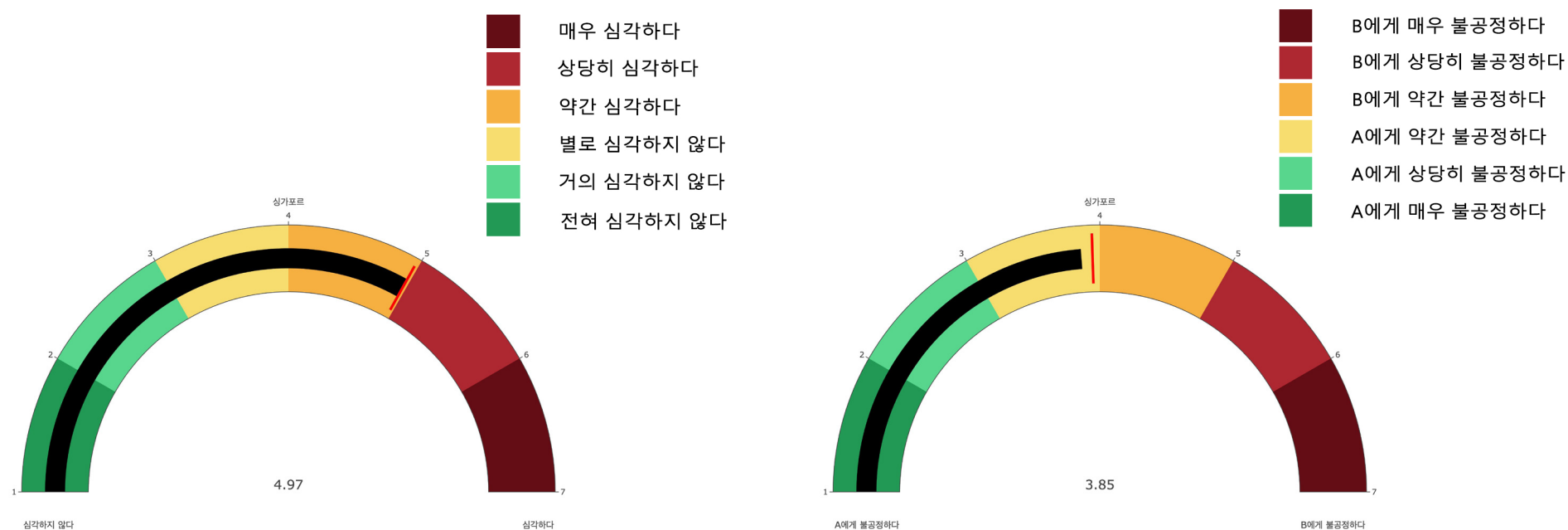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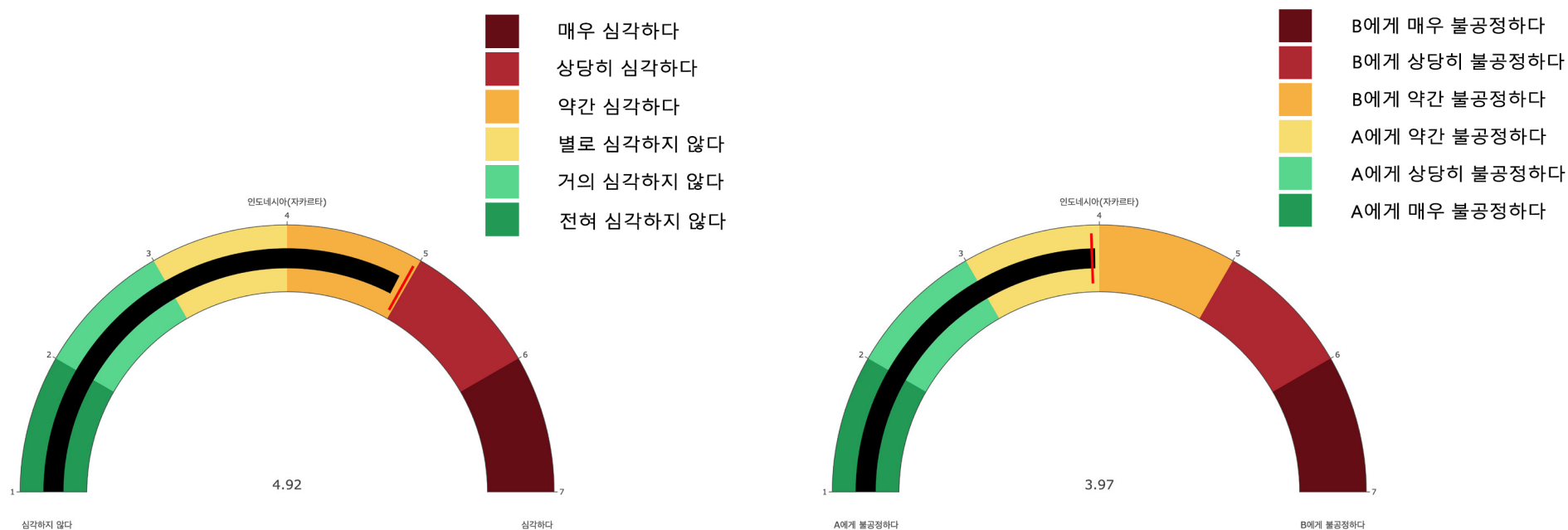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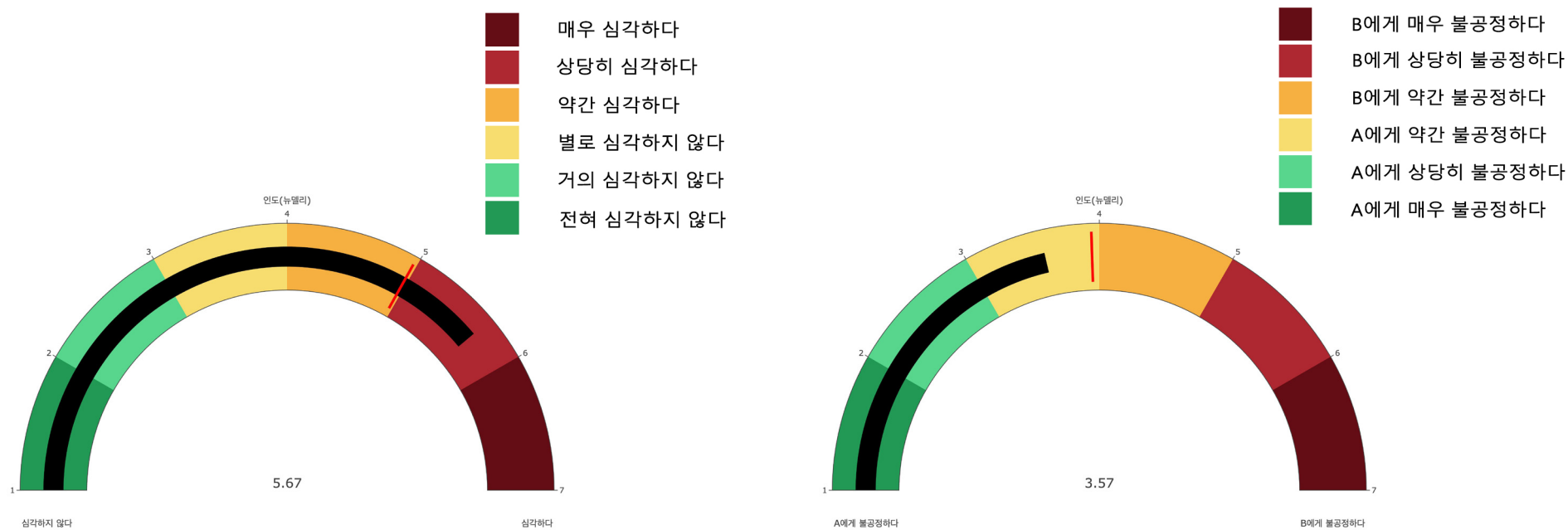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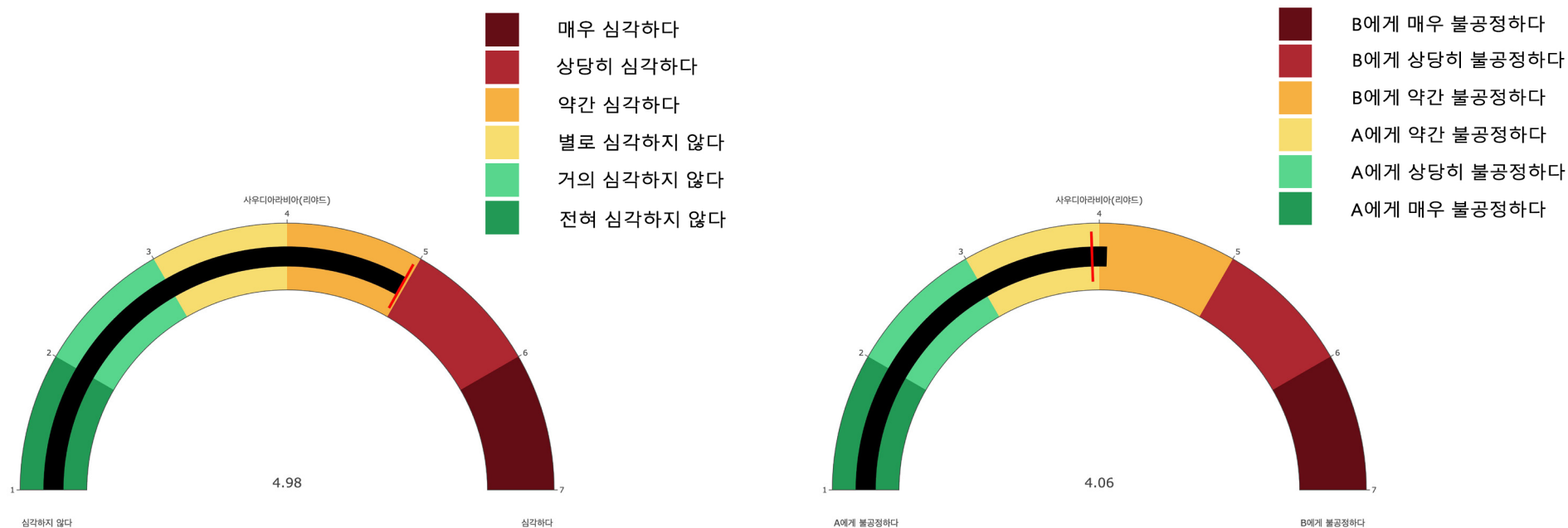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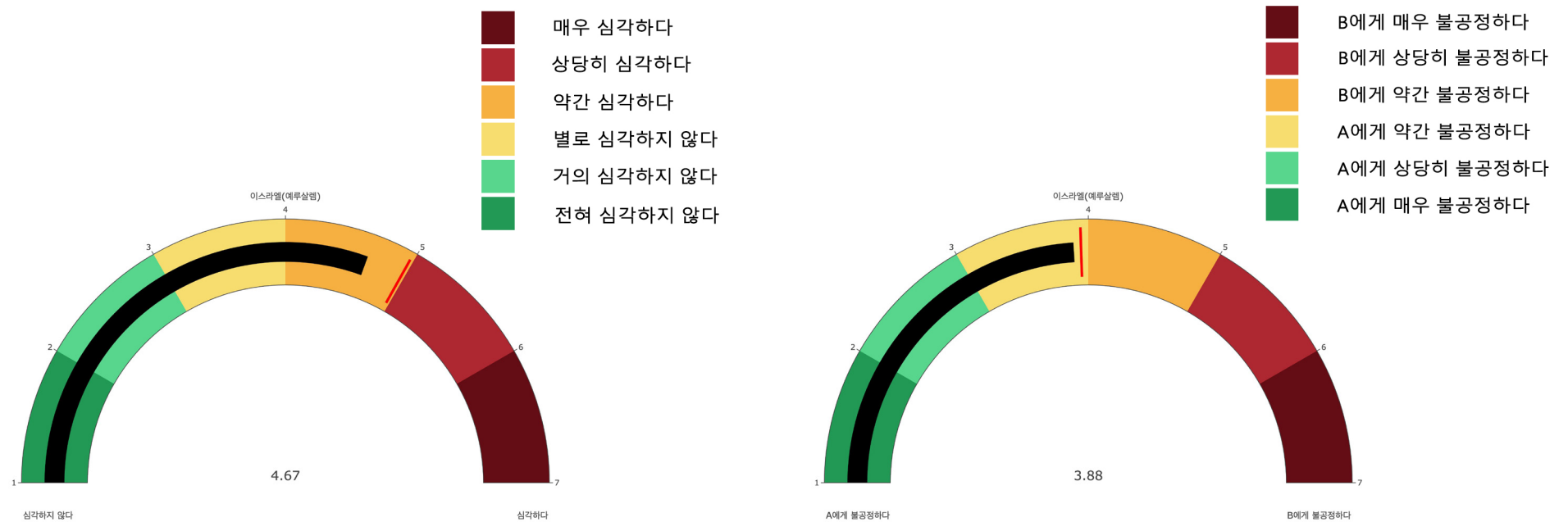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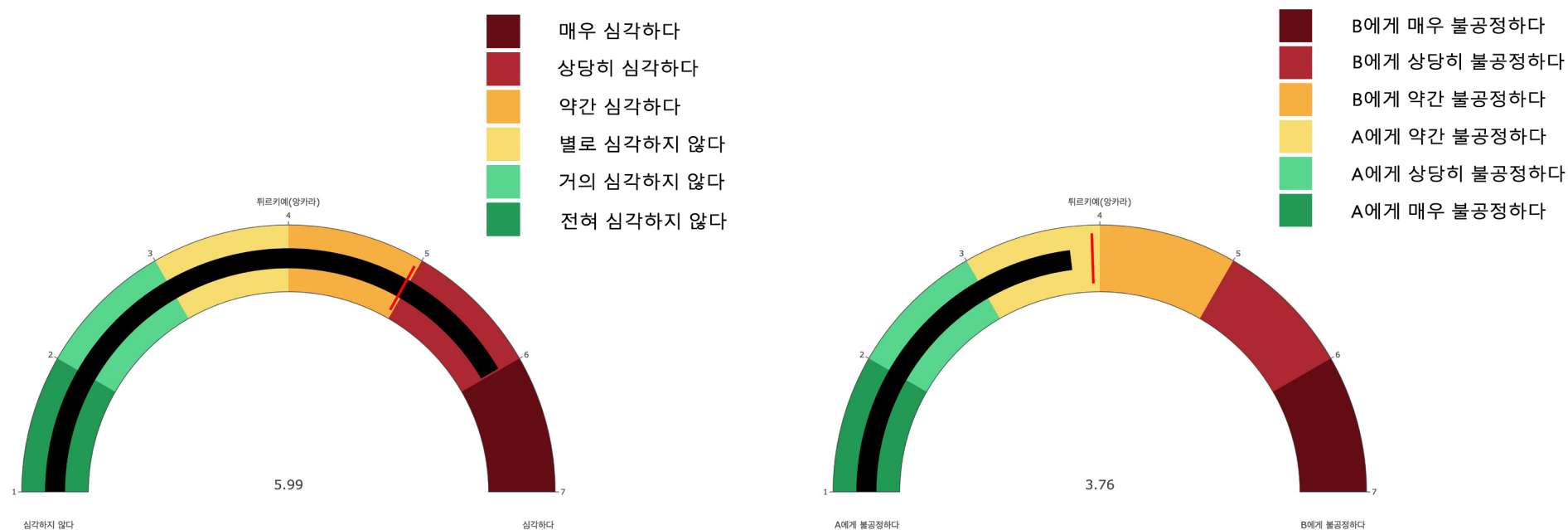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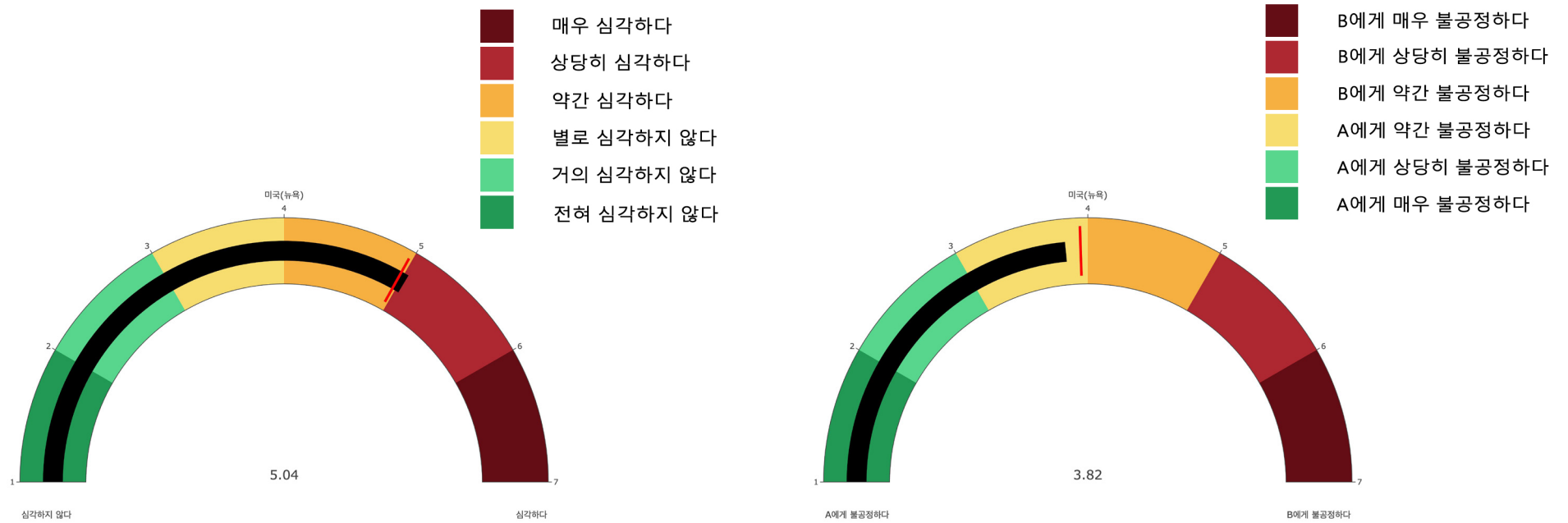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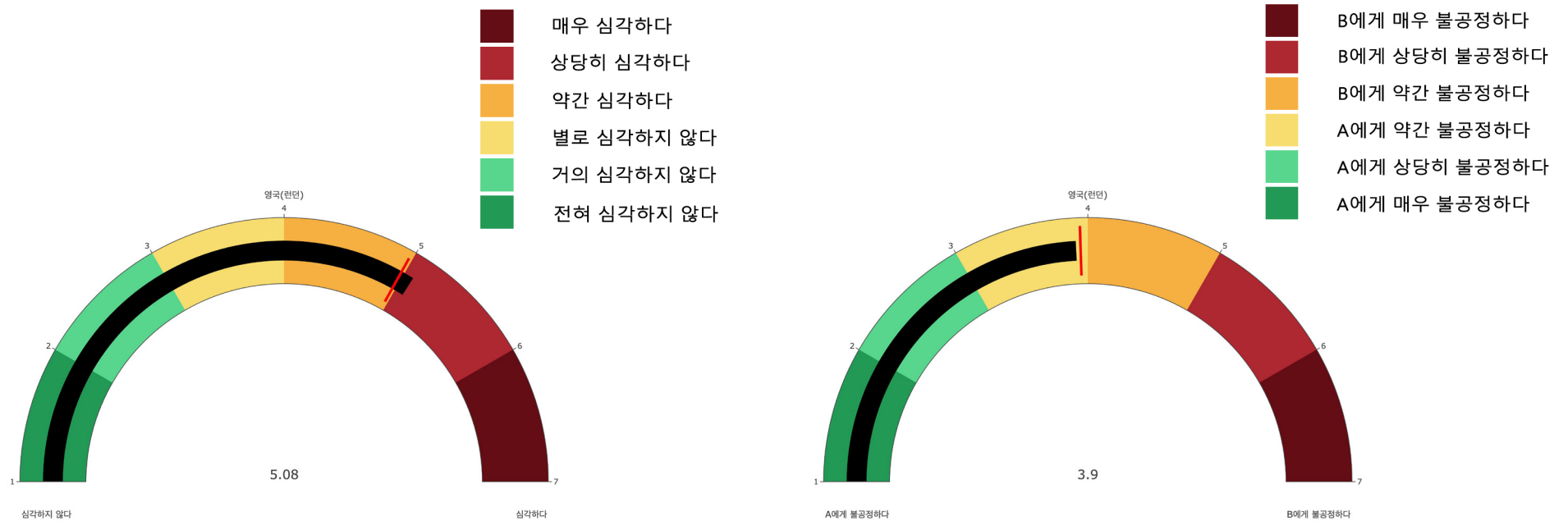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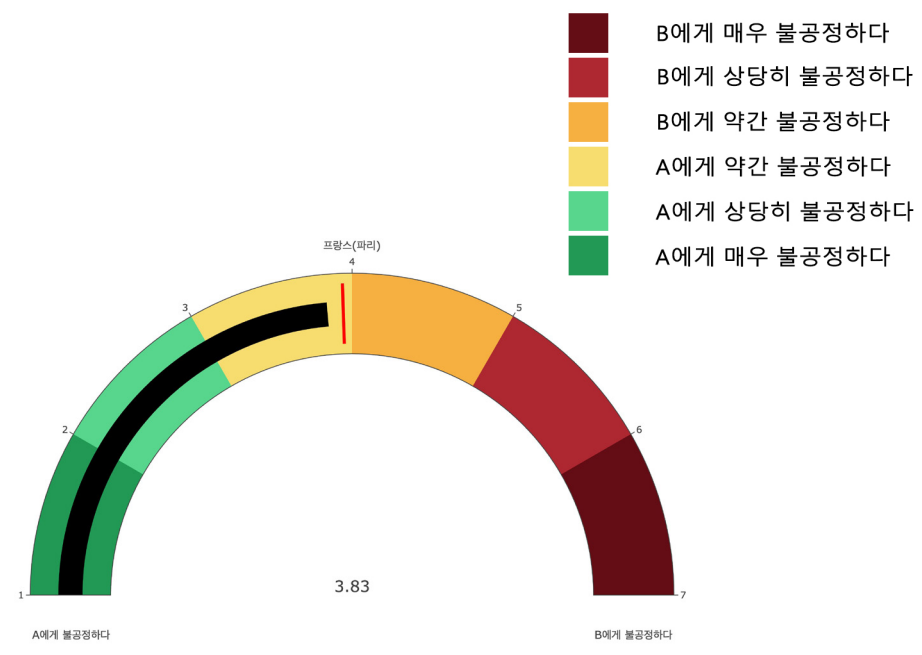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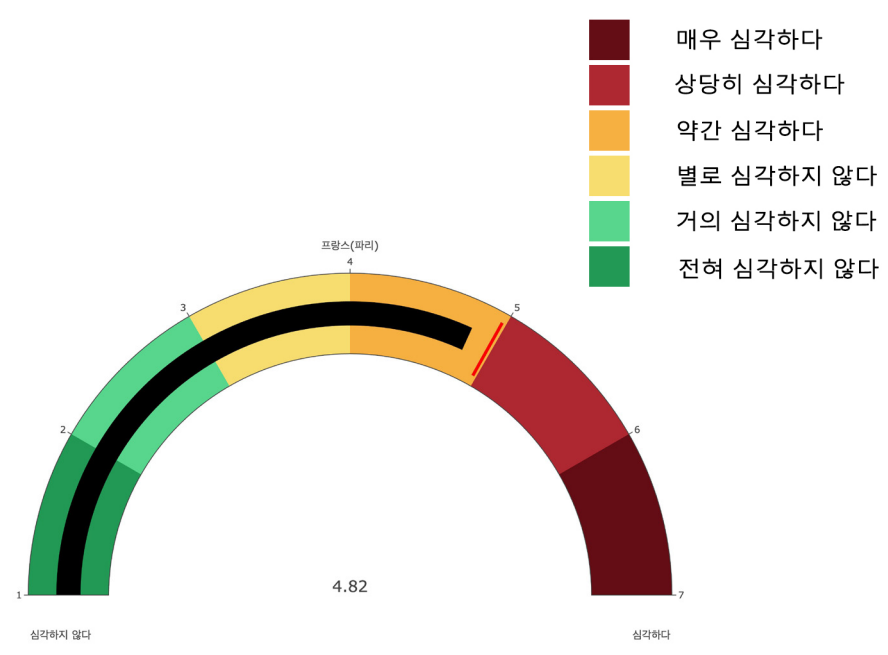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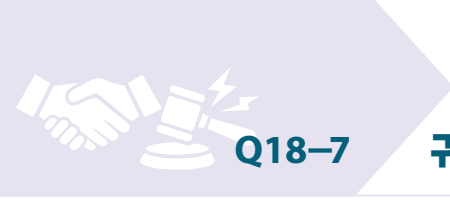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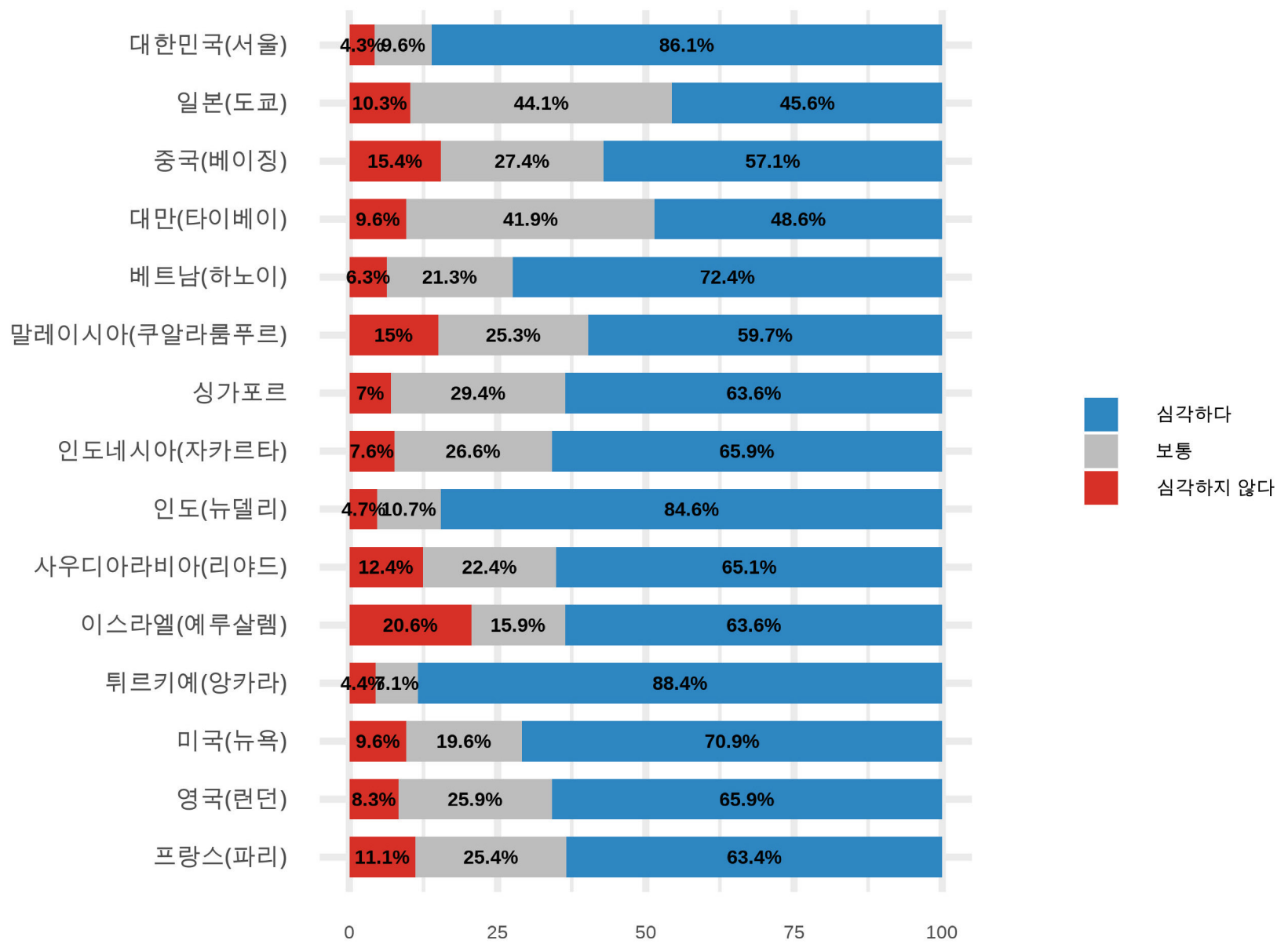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7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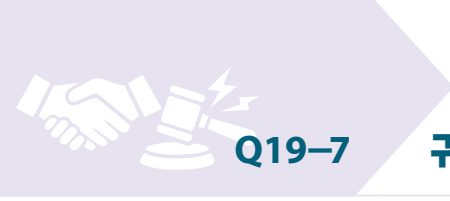
이 문항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즉 정치적 이념 갈등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의 앙카라(88.4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이 86.14%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빈부, 노사, 부동산 등 다른 갈등 요인들보다 이념 갈등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Q18 전체 문항 중 1위).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도의 뉴델리(84.57%)도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도쿄(45.57%)와 대만의 타이베이(48.57%)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의 도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14%로, 심각하다는 응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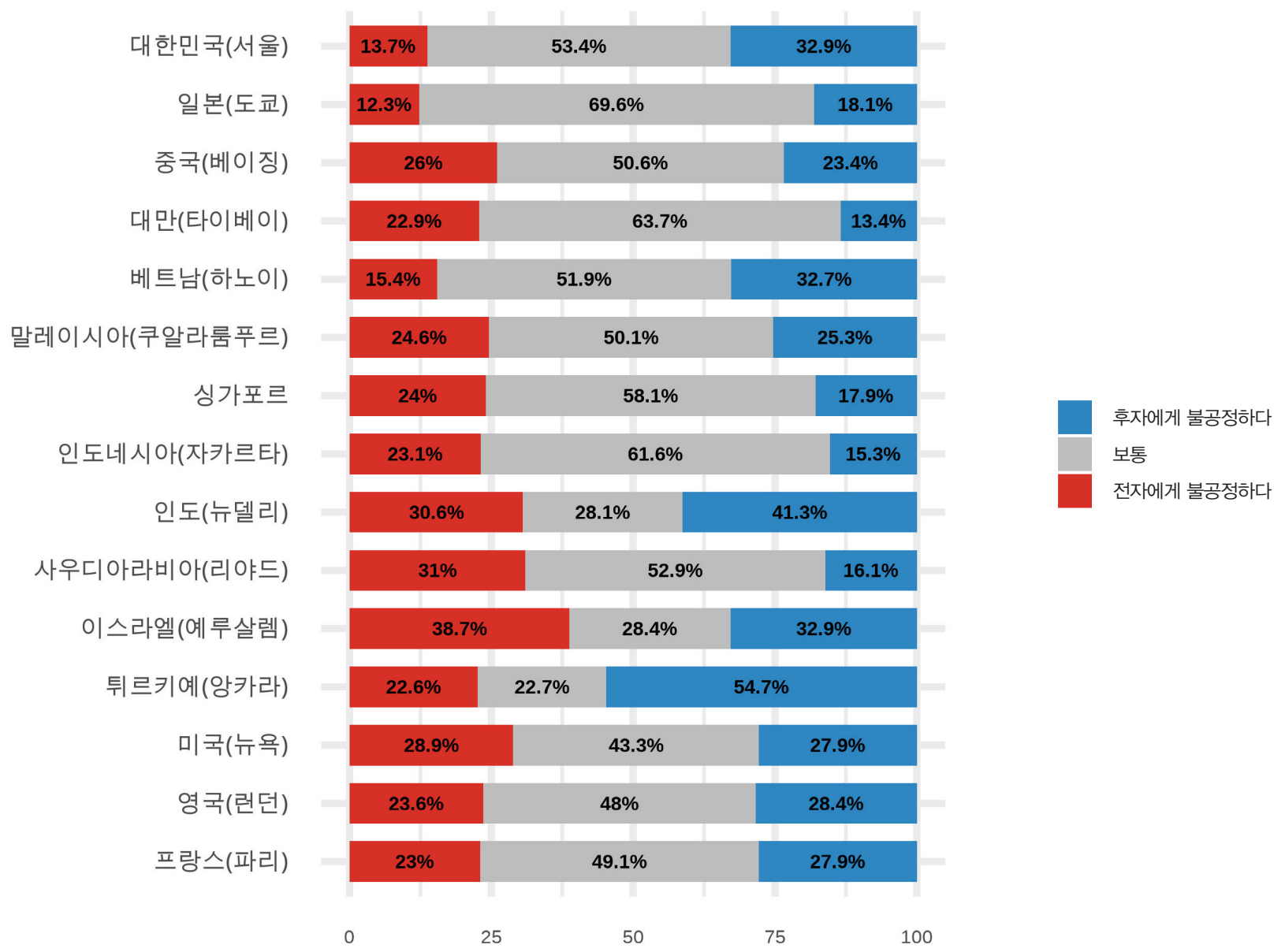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0.57%)에서 가장 높았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6.14%, 보통 9.57%, 반대 4.29%.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일본(도쿄)** 동의 45.57%, 보통 44.14%, 반대 10.29%. 유보적 입장이 다수.
- **중국(베이징)** 동의 57.14%, 보통 27.43%, 반대 15.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대만(타이베이)** 동의 48.57%, 보통 41.86%, 반대 9.57%.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72.43%, 보통 21.29%, 반대 6.29%.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9.71%, 보통 25.29%, 반대 15.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63.57%, 보통 29.43%,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5.86%, 보통 26.57%, 반대 7.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뉴델리)** 동의 84.57%, 보통 10.71%, 반대 4.71%.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5.14%, 보통 22.43%,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3.57%, 보통 15.86%, 반대 20.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43%, 보통 7.14%, 반대 4.43%.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미국(뉴욕)** 동의 70.86%, 보통 19.57%, 반대 9.57%.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영국(런던)** 동의 65.86%, 보통 25.86%,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프랑스(파리)** 동의 63.43%, 보통 25.43%, 반대 11.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귀하는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공정성, 즉 '진보'와 '보수'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정치 지형에 따라 도시별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38.71%),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31.00%), 인도의 뉴델리(30.57%) 등에서는 '보수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튀르키예의 앙카라(54.71%)와 인도의 뉴델리(41.29%)는 '진보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도시들임을 짐작케 한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진보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2.86%로 '보수에게 불공정하다'(13.71%)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53.43%로 과반을 차지해, 특정 진영에 대한 불공정성보다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나 중립적인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도쿄(69.57%)와 대만의 타이베이(63.71%)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념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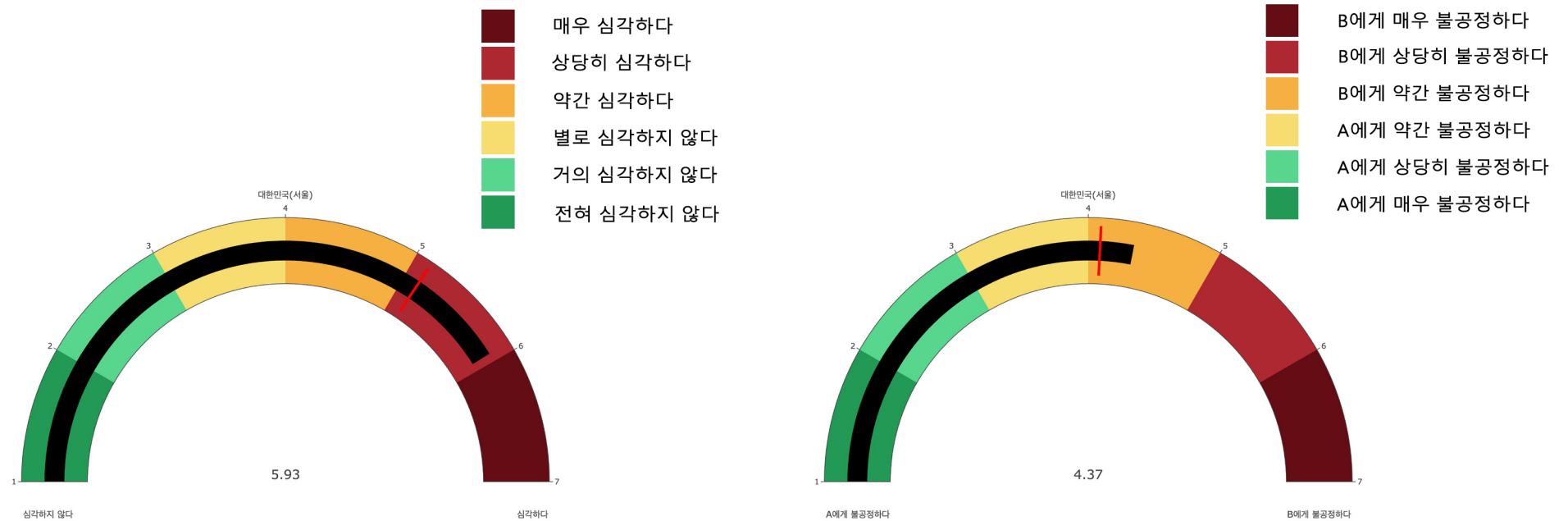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진보에게 불공정 32.86%, 비슷함 53.43%, 보수에게 불공정 13.71%.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일본(도쿄)** 진보에게 불공정 18.14%, 비슷함 69.57%, 보수에게 불공정 12.29%.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중국(베이징)** 진보에게 불공정 23.43%, 비슷함 50.57%, 보수에게 불공정 26.0%.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대만(타이베이)** 진보에게 불공정 13.43%, 비슷함 63.71%, 보수에게 불공정 22.86%.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베트남(하노이)** 진보에게 불공정 32.71%, 비슷함 51.86%, 보수에게 불공정 15.43%.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진보에게 불공정 25.29%, 비슷함 50.14%, 보수에게 불공정 24.57%.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싱가포르** 진보에게 불공정 17.86%, 비슷함 58.14%, 보수에게 불공정 24.0%.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진보에게 불공정 15.29%, 비슷함 61.57%, 보수에게 불공정 23.14%.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뉴델리)** 진보에게 불공정 41.29%, 비슷함 28.14%, 보수에게 불공정 30.57%. 진보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보수 불리 인식도 존재.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진보에게 불공정 16.14%, 비슷함 52.86%, 보수에게 불공정 31.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진보에게 불공정 32.86%, 비슷함 28.43%, 보수에게 불공정 38.71%. 보수 불리 인식이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진보에게 불공정 54.71%, 비슷함 22.71%, 보수에게 불공정 22.57%. 과반이 진보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미국(뉴욕)** 진보에게 불공정 27.86%, 비슷함 43.29%, 보수에게 불공정 28.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영국(런던)** 진보에게 불공정 28.43%, 비슷함 48.0%, 보수에게 불공정 23.57%.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프랑스(파리)** 진보에게 불공정 27.86%, 비슷함 49.14%, 보수에게 불공정 23.0%.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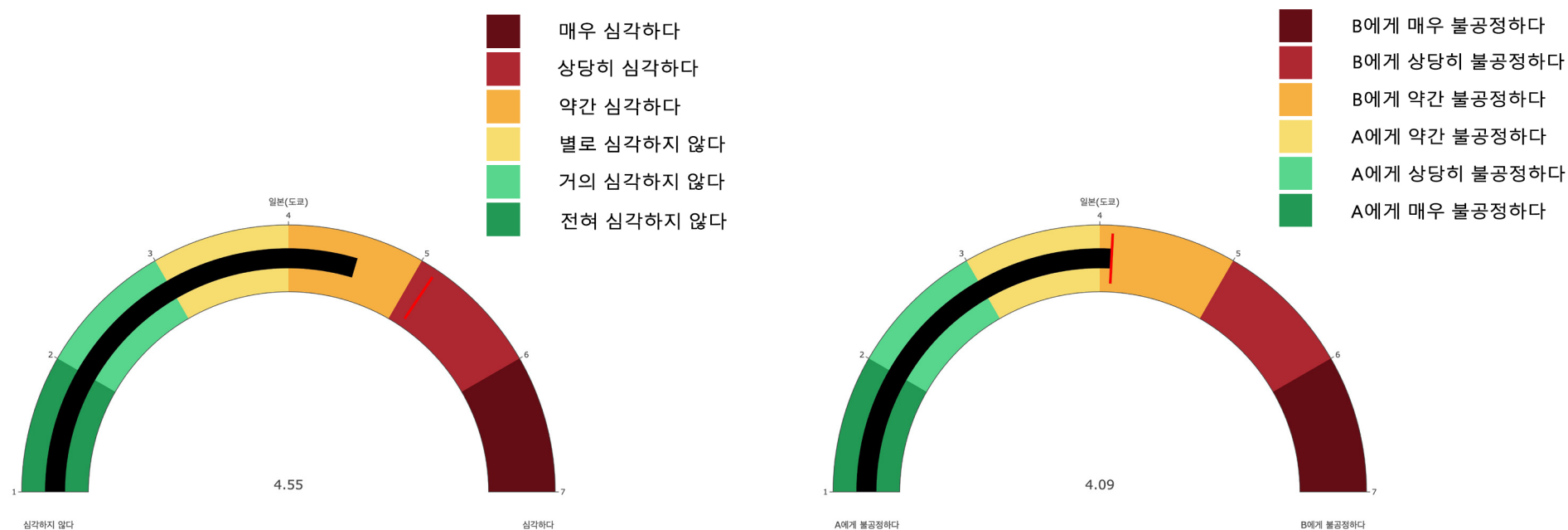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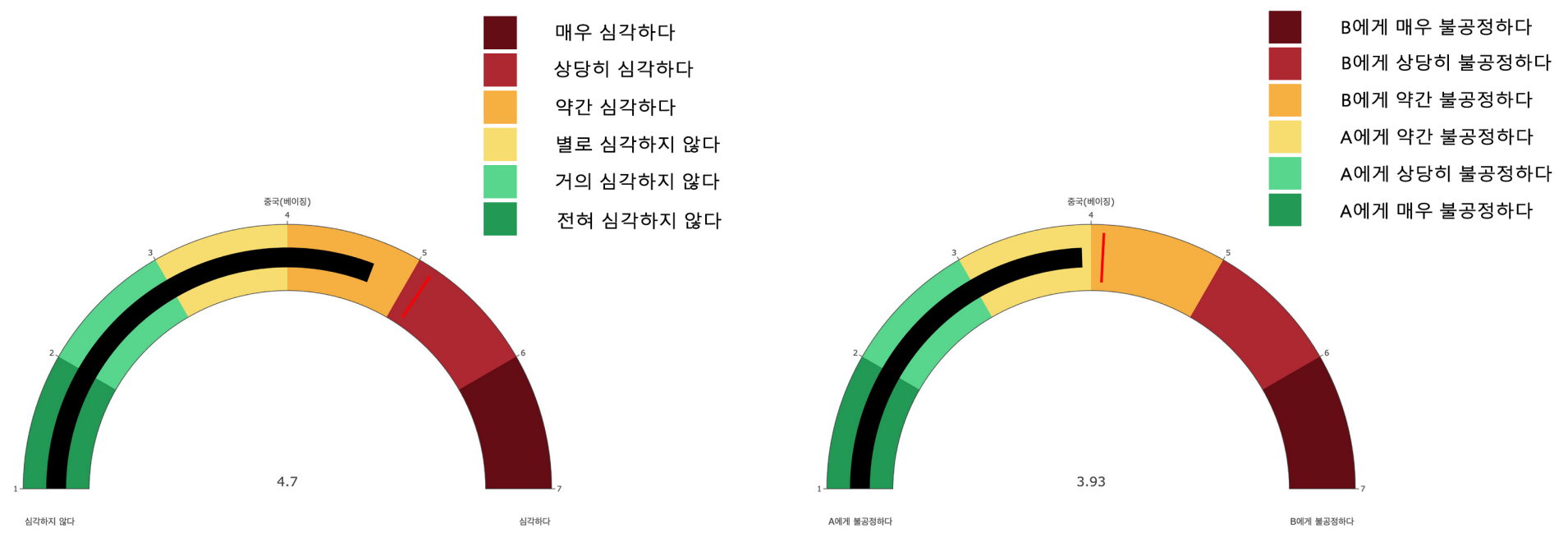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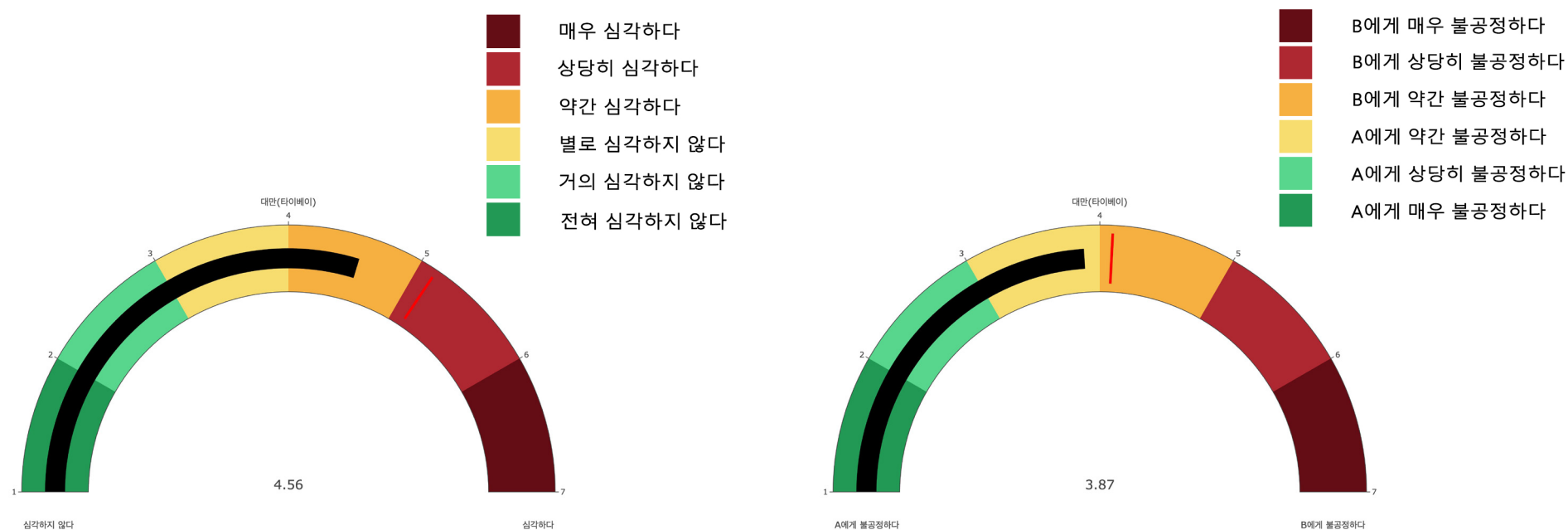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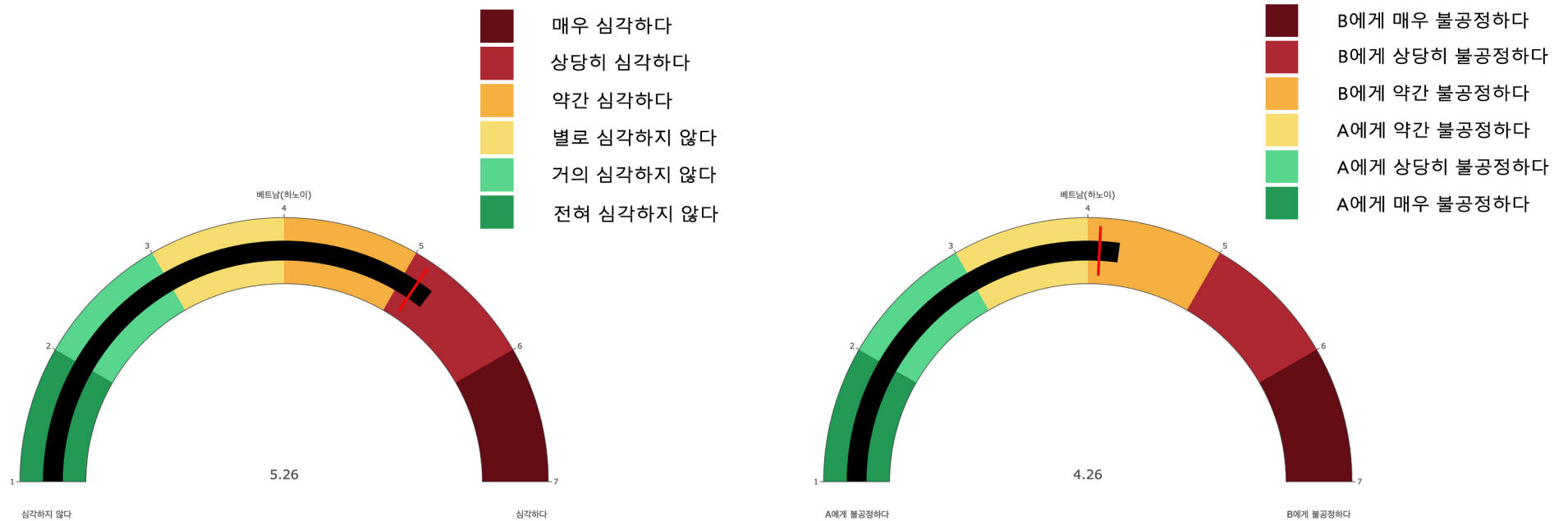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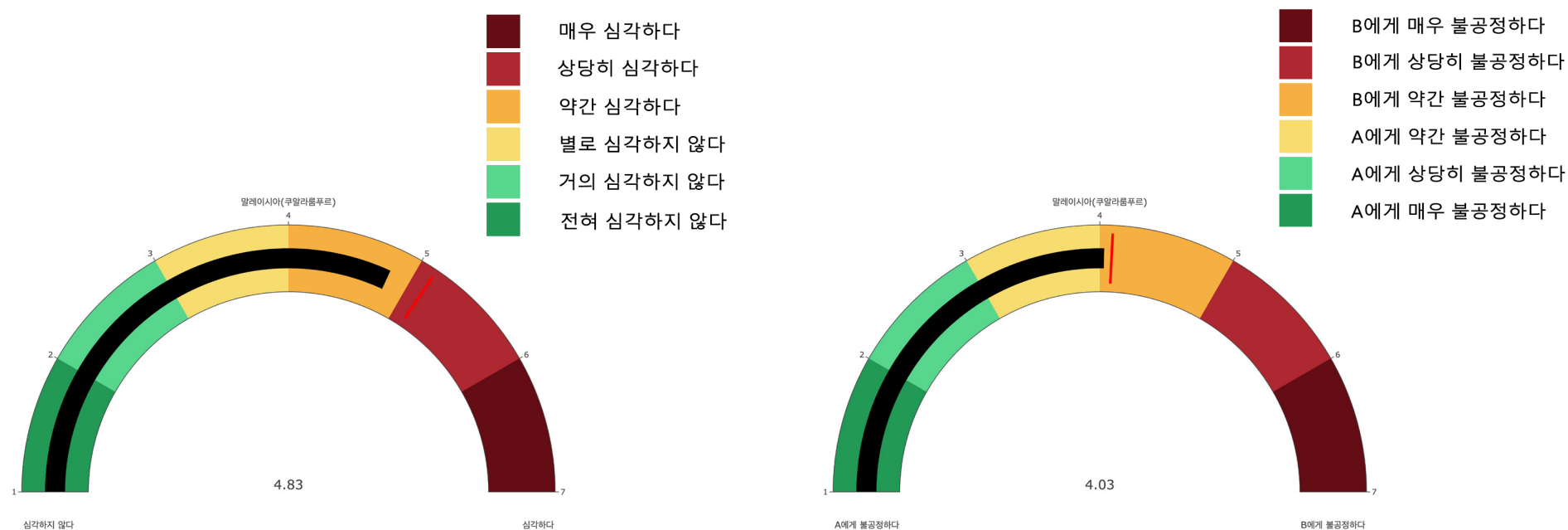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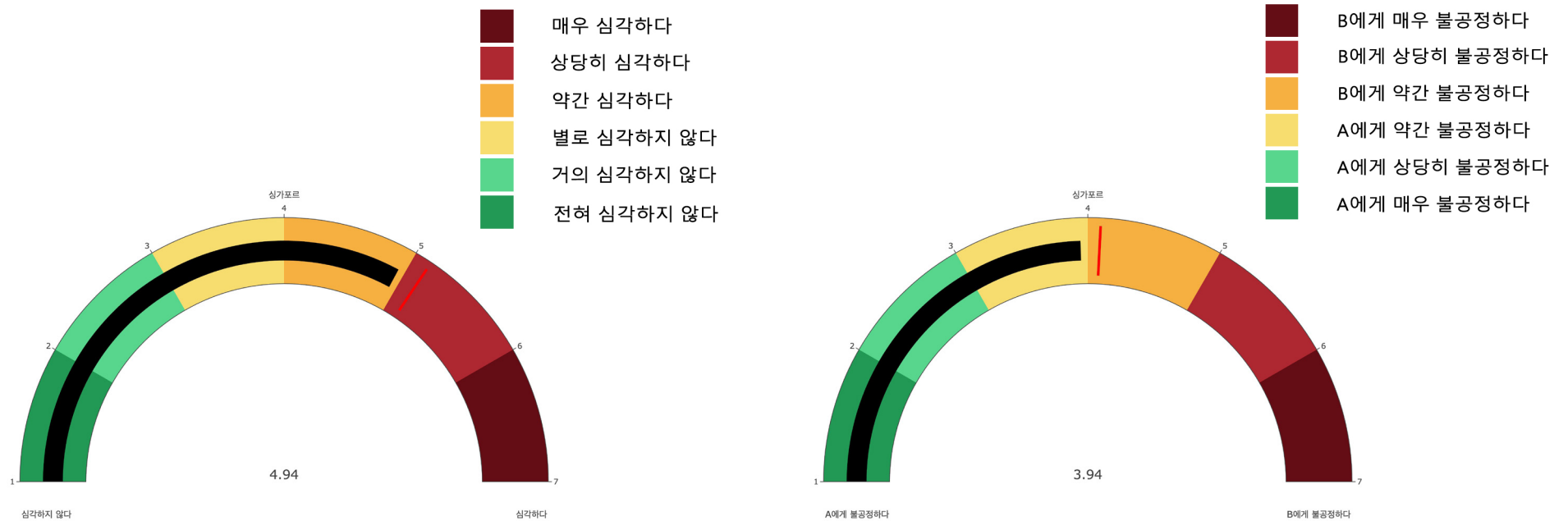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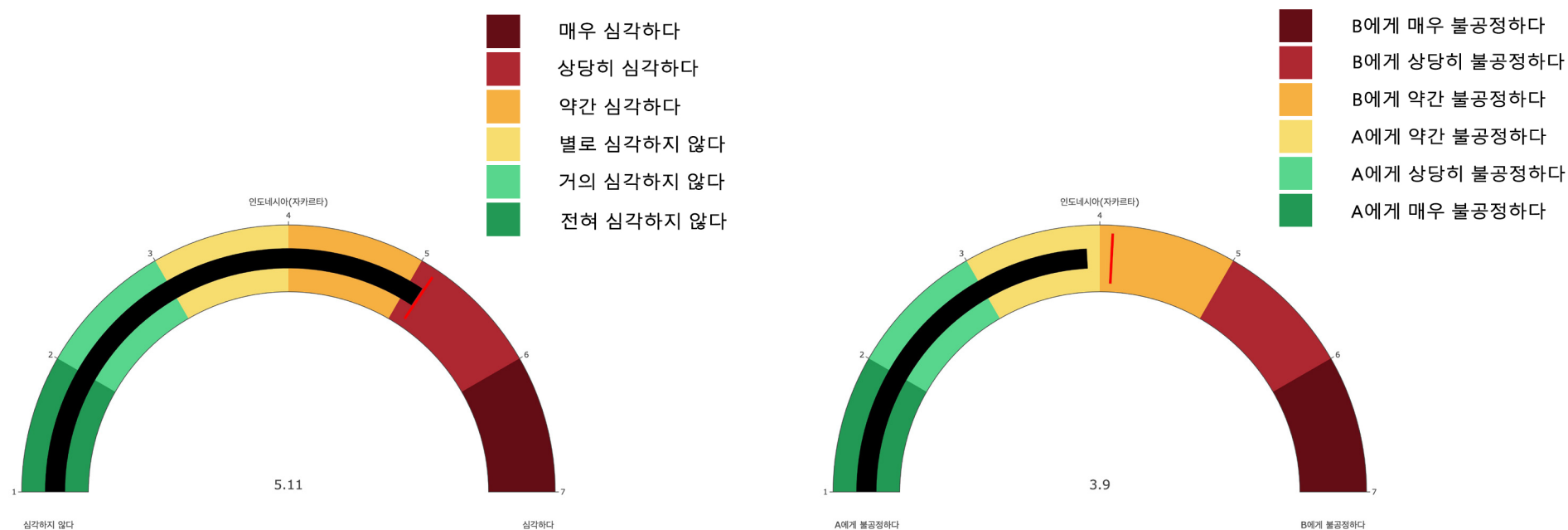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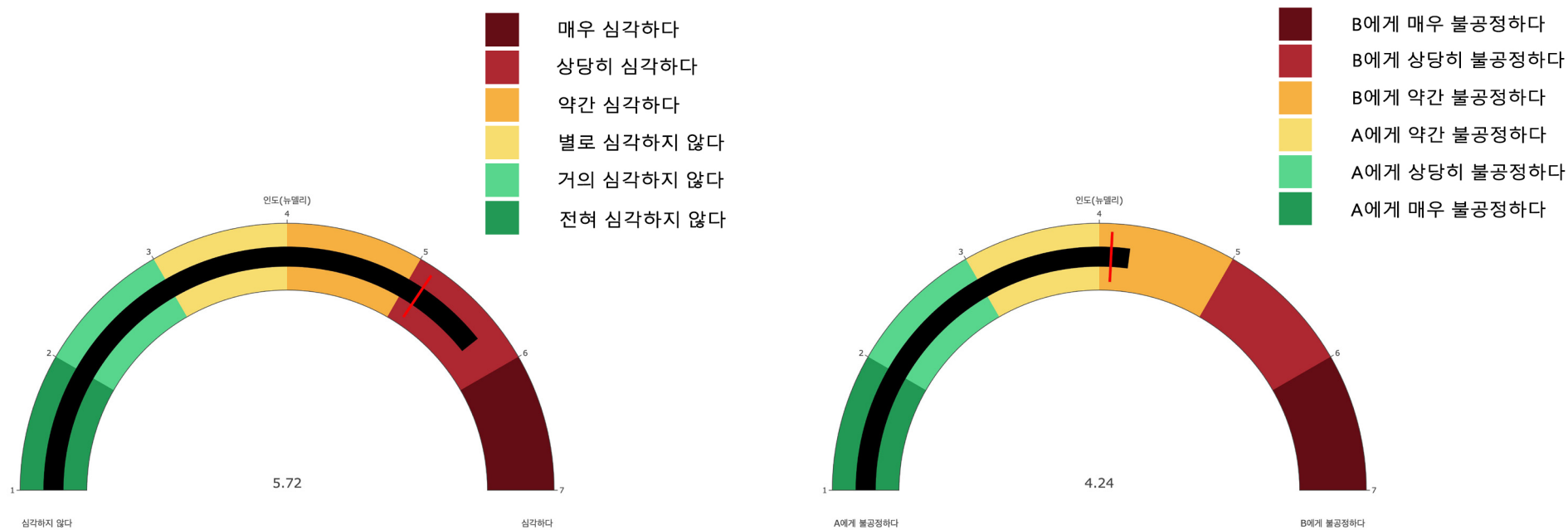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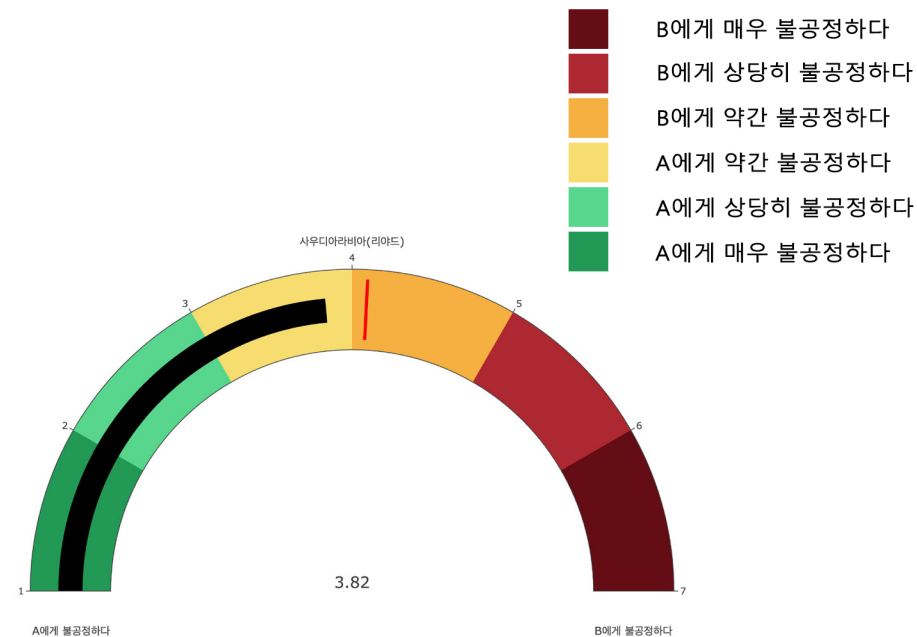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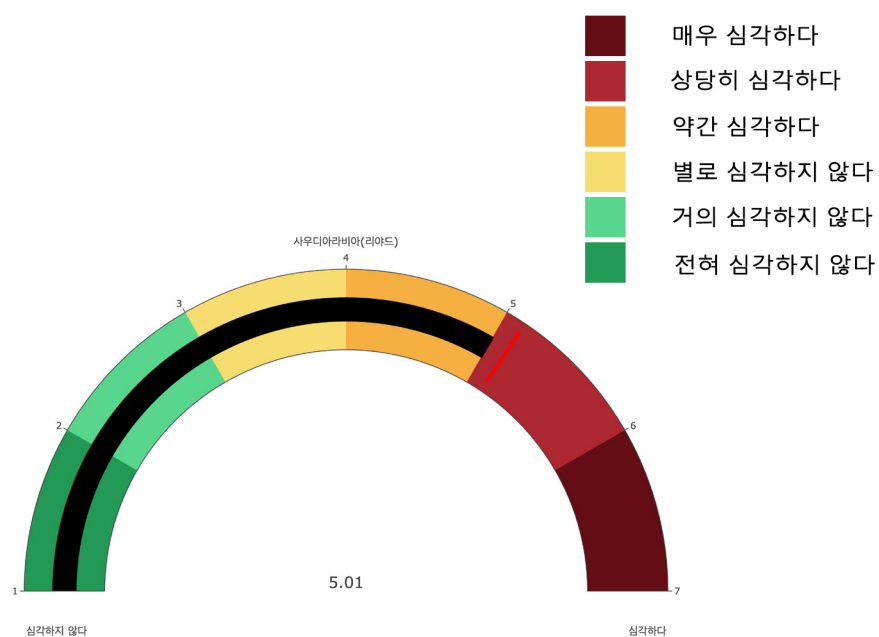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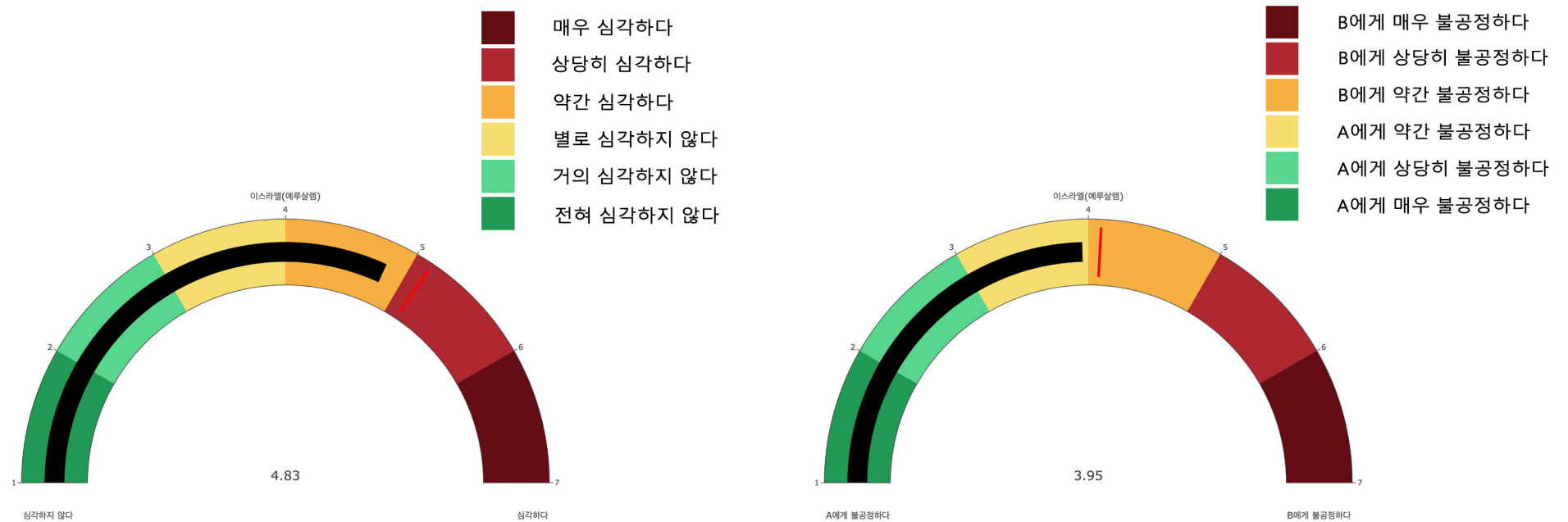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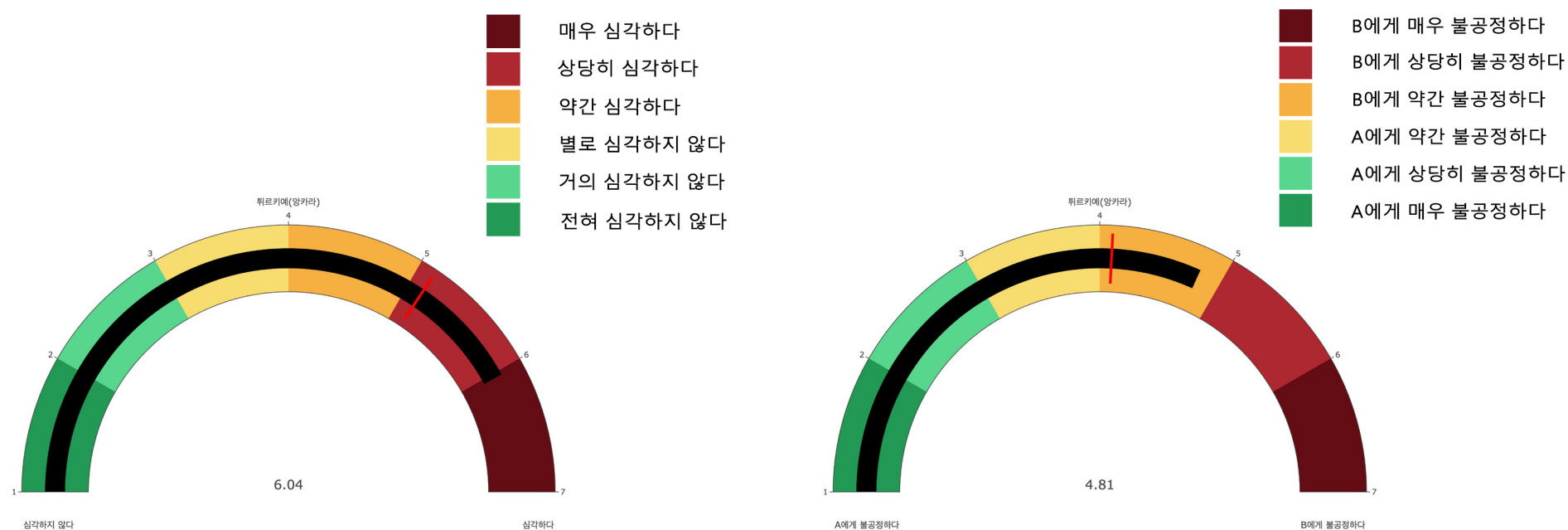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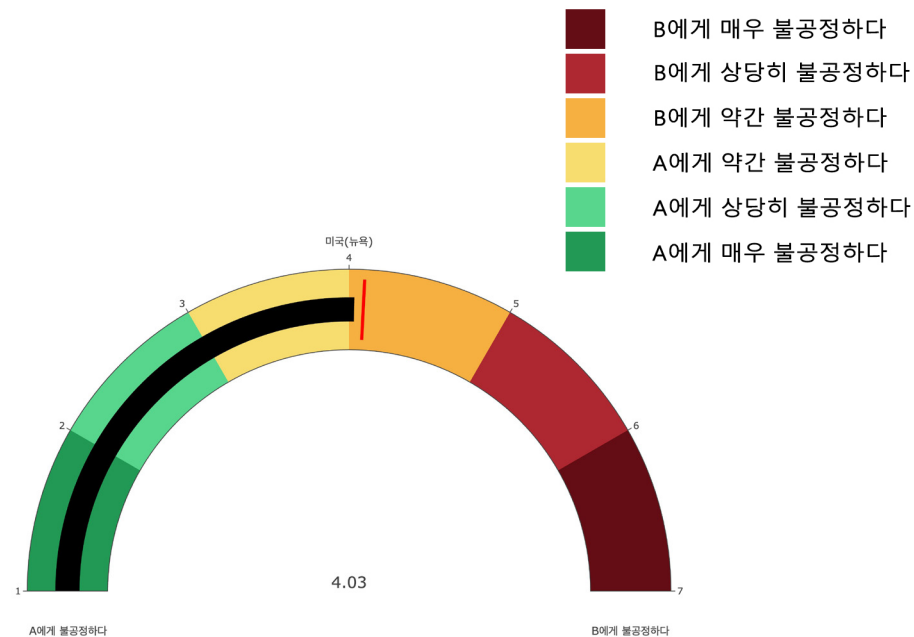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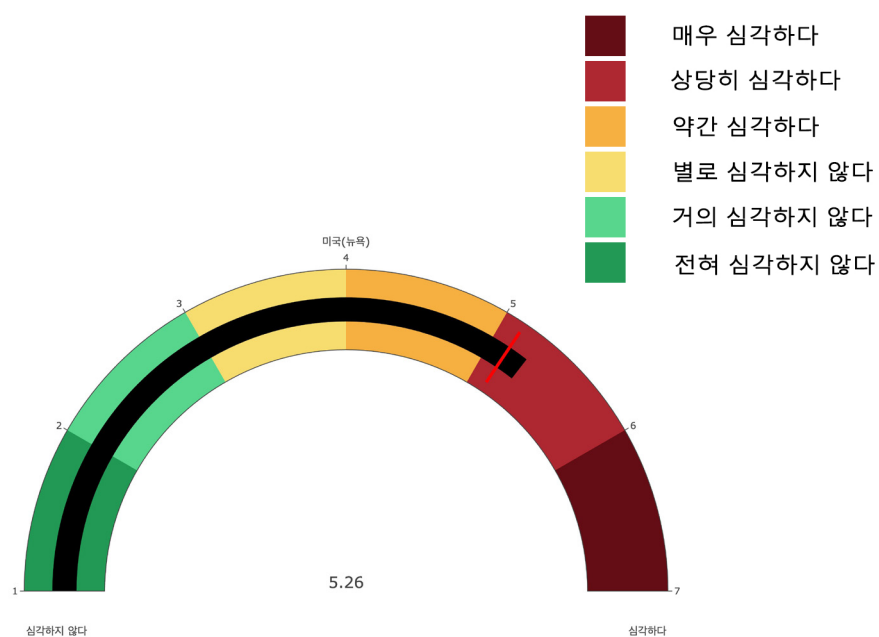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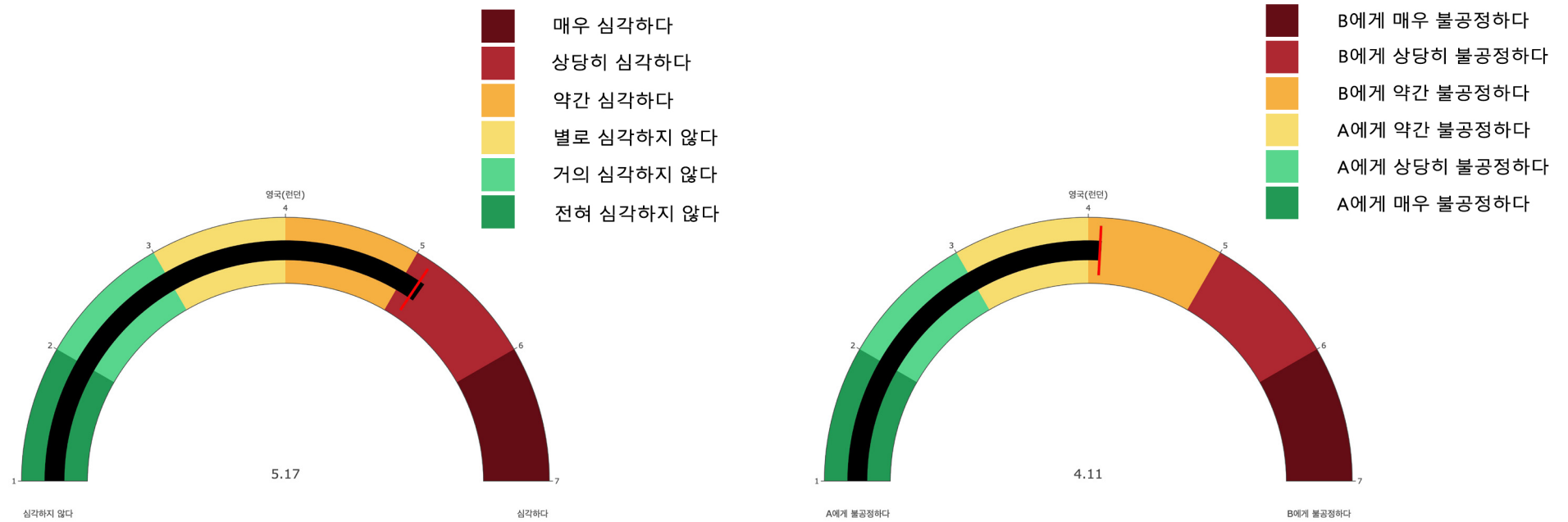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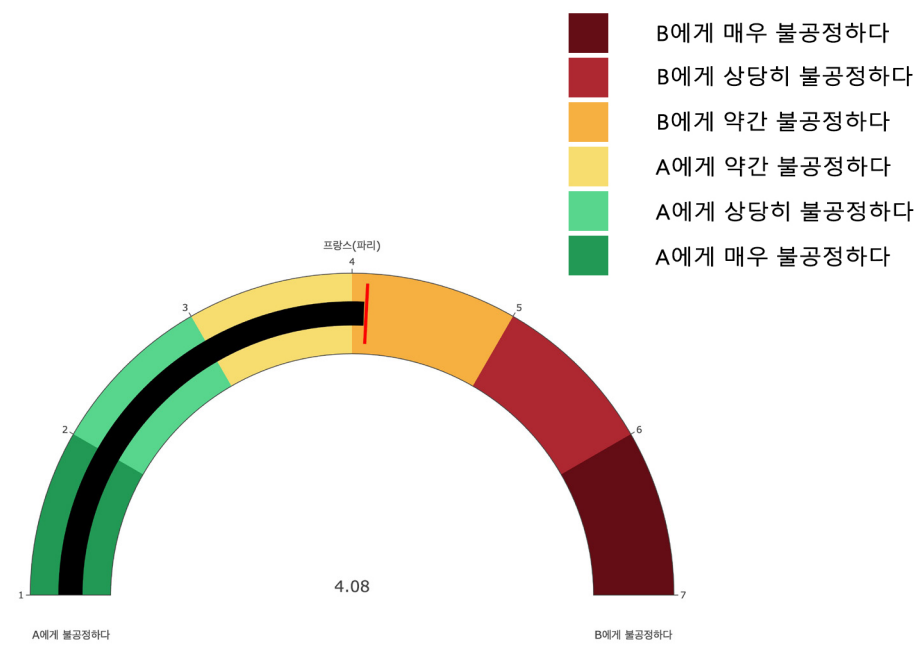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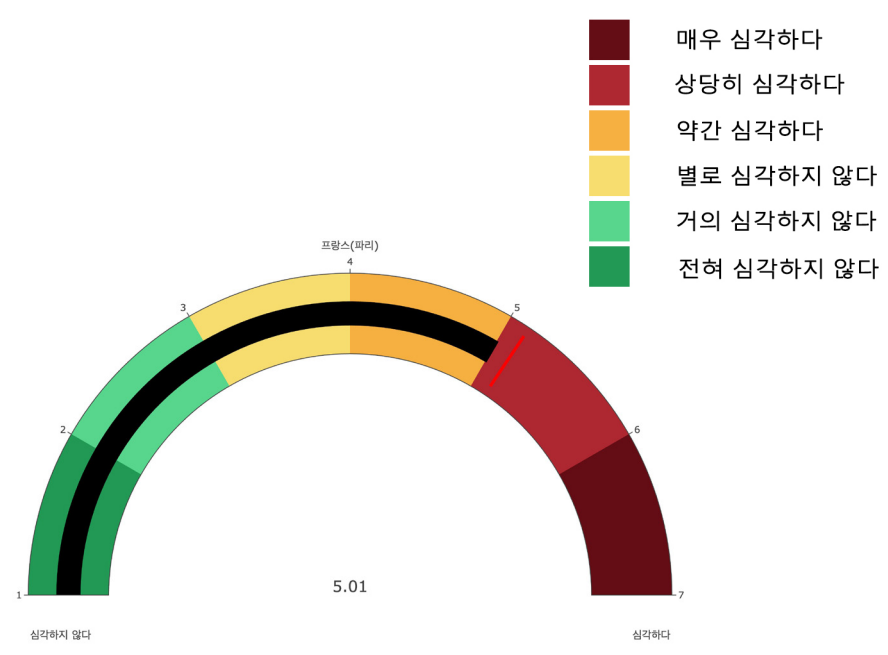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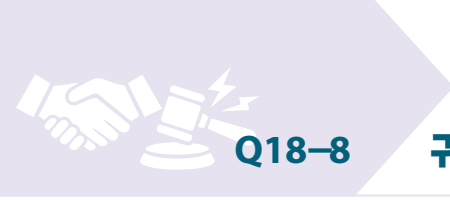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수와 진보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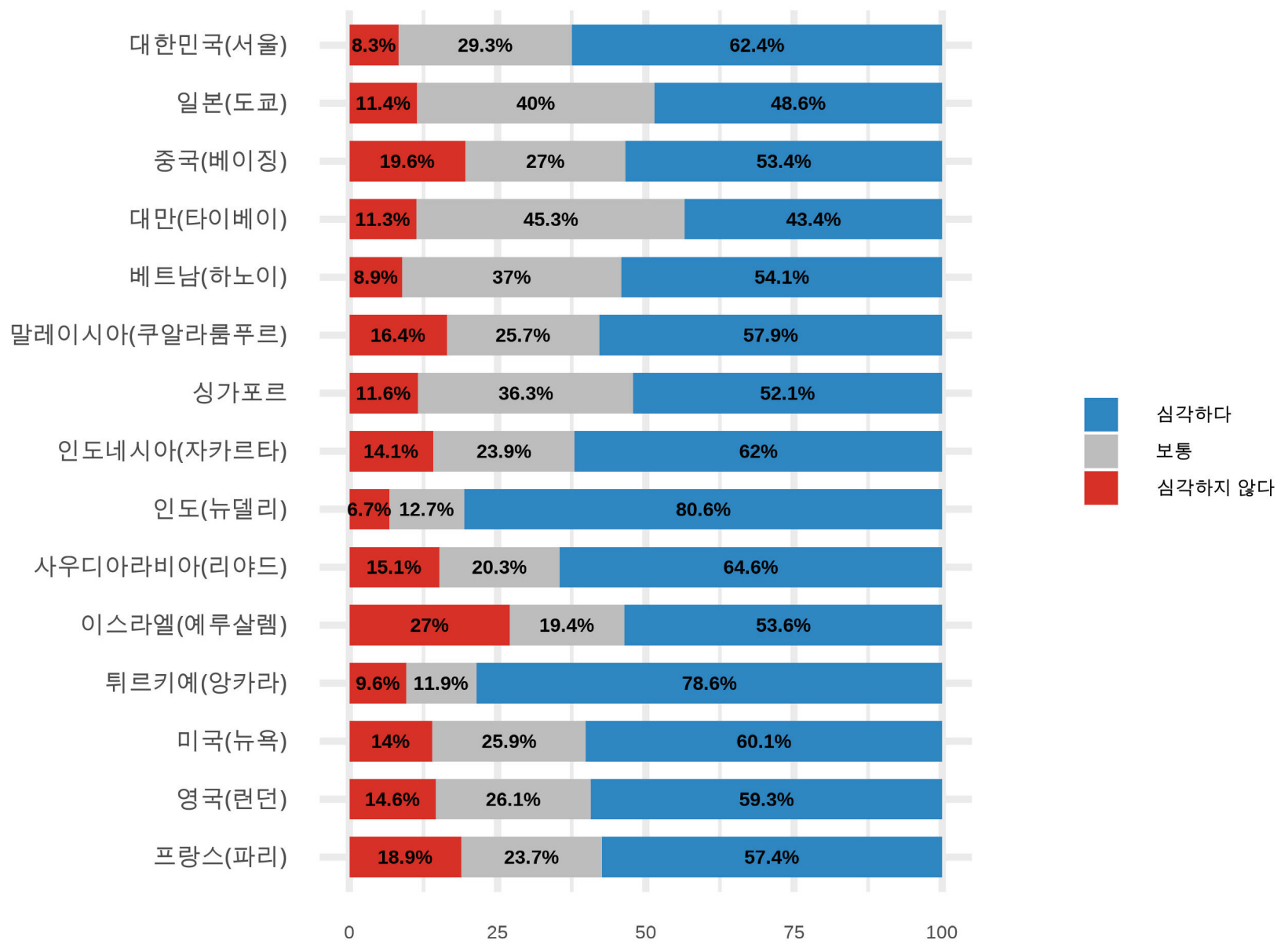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8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갈등', 즉 도농 격차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묻는 질문이다. 인도의 뉴델리(80.57%)와 튀르키예의 앙카라(78.57%)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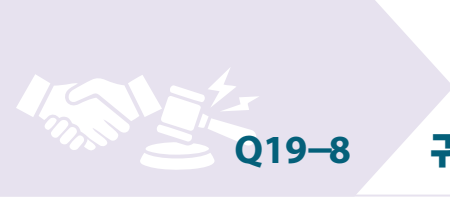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서울은 62.43%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념, 빈부, 노사 갈등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도농 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43.43%로 가장 낮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5.2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도쿄(48.57%) 역시 심각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7.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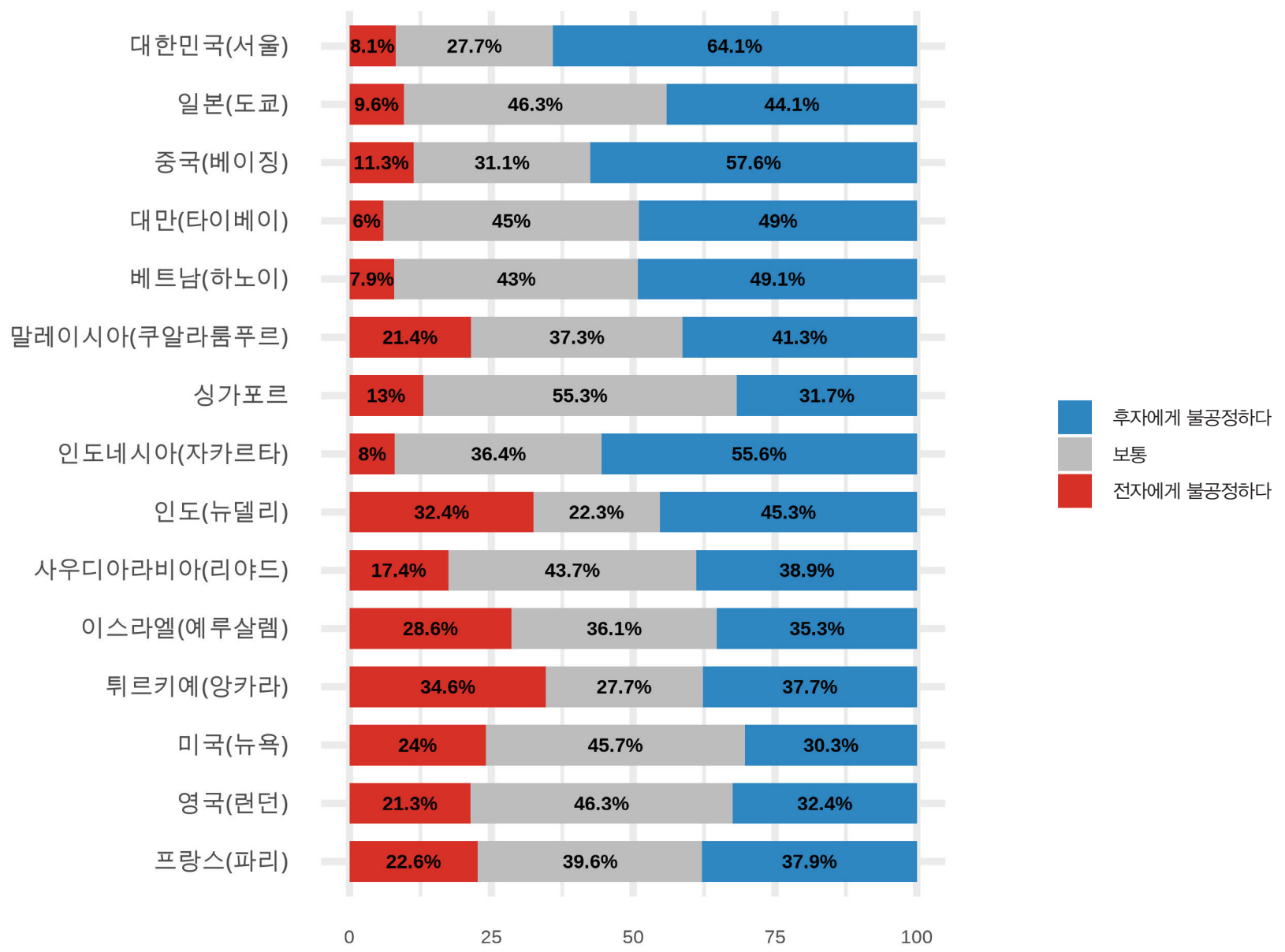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2.43%, 보통 29.29%,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일본(도쿄)** 동의 48.57%, 보통 40.0%, 반대 11.43%. 유보적 입장이 다수.
- **중국(베이징)** 동의 53.43%, 보통 27.0%, 반대 19.57%.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대만(타이베이)** 동의 43.43%, 보통 45.29%, 반대 11.29%.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54.14%, 보통 37.0%, 반대 8.86%.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7.86%, 보통 25.71%, 반대 16.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52.14%, 보통 36.29%, 반대 11.57%.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2.0%, 보통 23.86%, 반대 14.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뉴델리)** 동의 80.57%, 보통 12.71%, 반대 6.71%.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4.57%, 보통 20.29%, 반대 15.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57%, 보통 19.43%, 반대 27.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8.57%, 보통 11.86%, 반대 9.57%.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미국(뉴욕)** 동의 60.14%, 보통 25.86%, 반대 14.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영국(런던)** 동의 59.29%, 보통 26.14%, 반대 14.57%.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프랑스(파리)** 동의 57.43%, 보통 23.71%, 반대 18.86%.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Q19-8

귀하는 우리 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지역 간 불공정성, 즉 ‘도시’와 ‘농어촌’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15개 도시 중 14개 도시에서 ‘농어촌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도농 격차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농어촌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4.14%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중국의 베이징(57.57%),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5.57%), 베트남의 하노이(49.14%) 등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농어촌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튀르키예의 앙카라(34.57%)와 인도의 뉴델리(32.43%)에서는 ‘도시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30%대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싱가포르(55.29%), 일본의 도쿄(46.29%), 영국의 런던(46.29%) 등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도농 간 불공정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거나, 도시 국가(싱가포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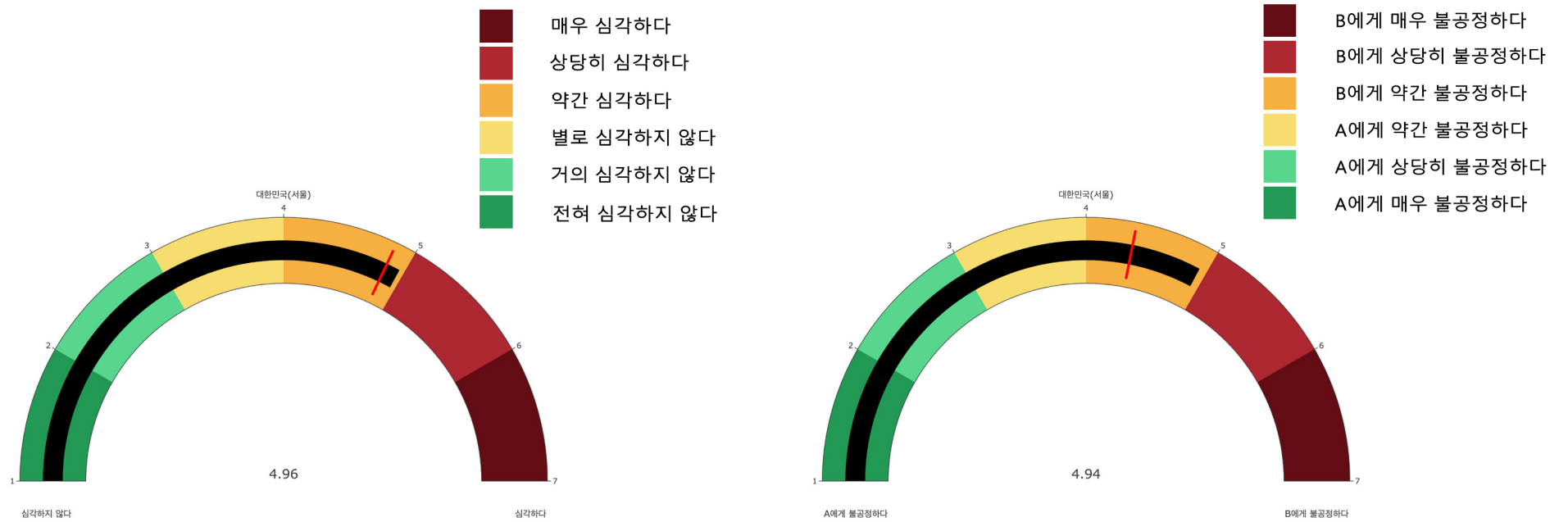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도시에 불공정 8.14%, 비슷함 27.71%, 농어촌에 불공정 64.14%. 농어촌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일본(도쿄)** 도시에 불공정 9.57%, 비슷함 46.29%, 농어촌에 불공정 44.14%. 비슷하다는 인식과 농어촌 불리 인식이 엇비슷함.
- **중국(베이징)** 도시에 불공정 11.29%, 비슷함 31.14%, 농어촌에 불공정 57.57%. 과반이 농어촌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대만(타이베이)** 도시에 불공정 6.0%, 비슷함 45.0%, 농어촌에 불공정 49.0%. 농어촌 불리 인식이 우세.
- **베트남(하노이)** 도시에 불공정 7.86%, 비슷함 43.0%, 농어촌에 불공정 49.14%. 농어촌 불리 인식이 우세.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도시에 불공정 21.43%, 비슷함 37.29%, 농어촌에 불공정 41.29%. 농어촌 불리 인식이 우세.
- **싱가포르** 도시에 불공정 13.0%, 비슷함 55.29%, 농어촌에 불공정 31.71%.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도시에 불공정 8.0%, 비슷함 36.43%, 농어촌에 불공정 55.57%. 과반이 농어촌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인도(뉴델리)** 도시에 불공정 32.43%, 비슷함 22.29%, 농어촌에 불공정 45.29%. 농어촌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도시 불리 인식도 높음.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도시에 불공정 17.43%, 비슷함 43.71%, 농어촌에 불공정 38.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도시에 불공정 28.57%, 비슷함 36.14%, 농어촌에 불공정 35.29%.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튀르키예(앙카라)** 도시에 불공정 34.57%, 비슷함 27.71%, 농어촌에 불공정 37.71%. 도시와 농어촌 불리 인식이 팽팽함.
- **미국(뉴욕)** 도시에 불공정 24.0%, 비슷함 45.71%, 농어촌에 불공정 30.29%.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영국(런던)** 도시에 불공정 21.29%, 비슷함 46.29%, 농어촌에 불공정 32.43%.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프랑스(파리)** 도시에 불공정 22.57%, 비슷함 39.57%, 농어촌에 불공정 37.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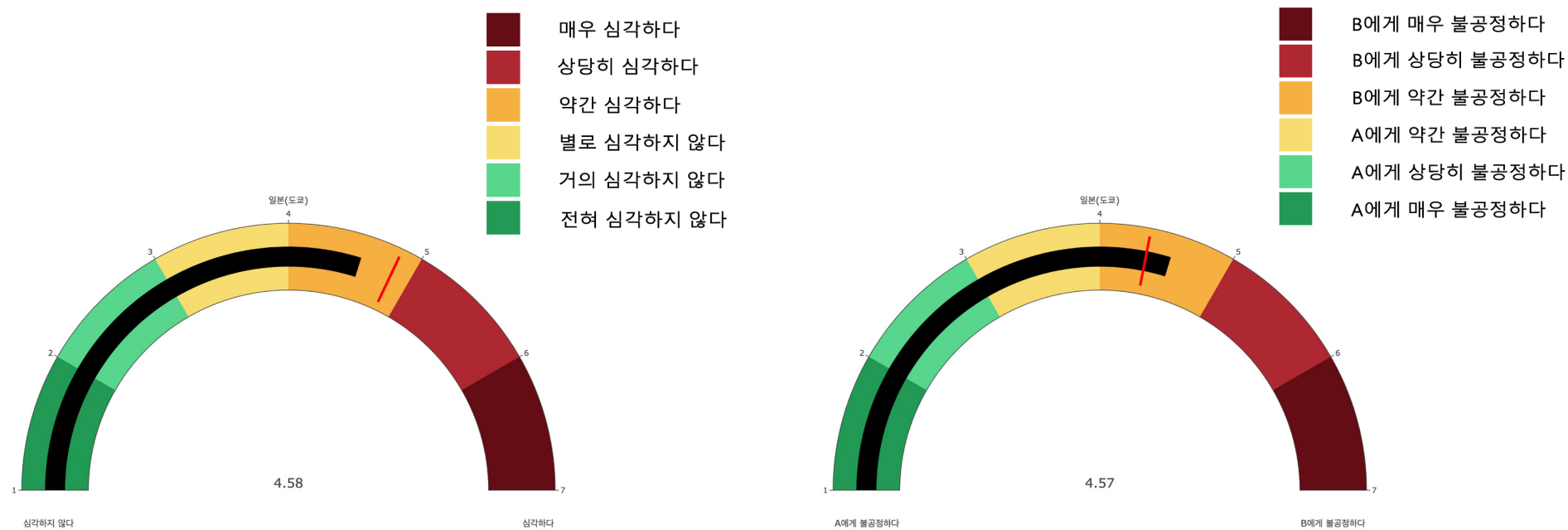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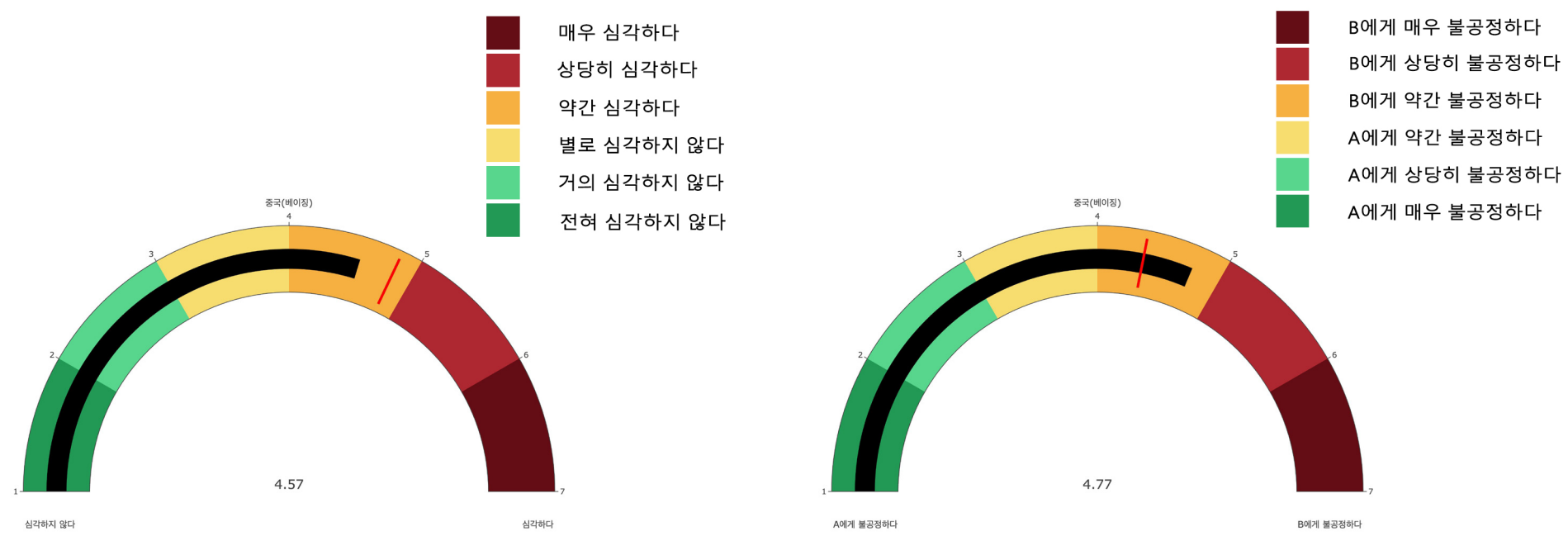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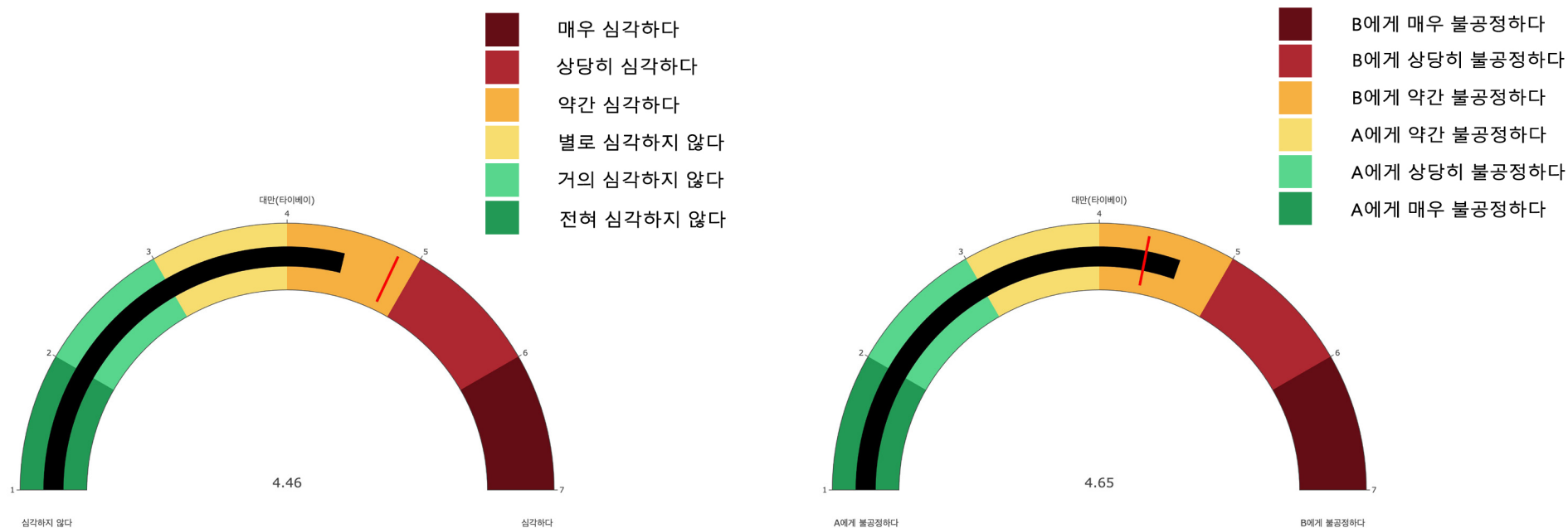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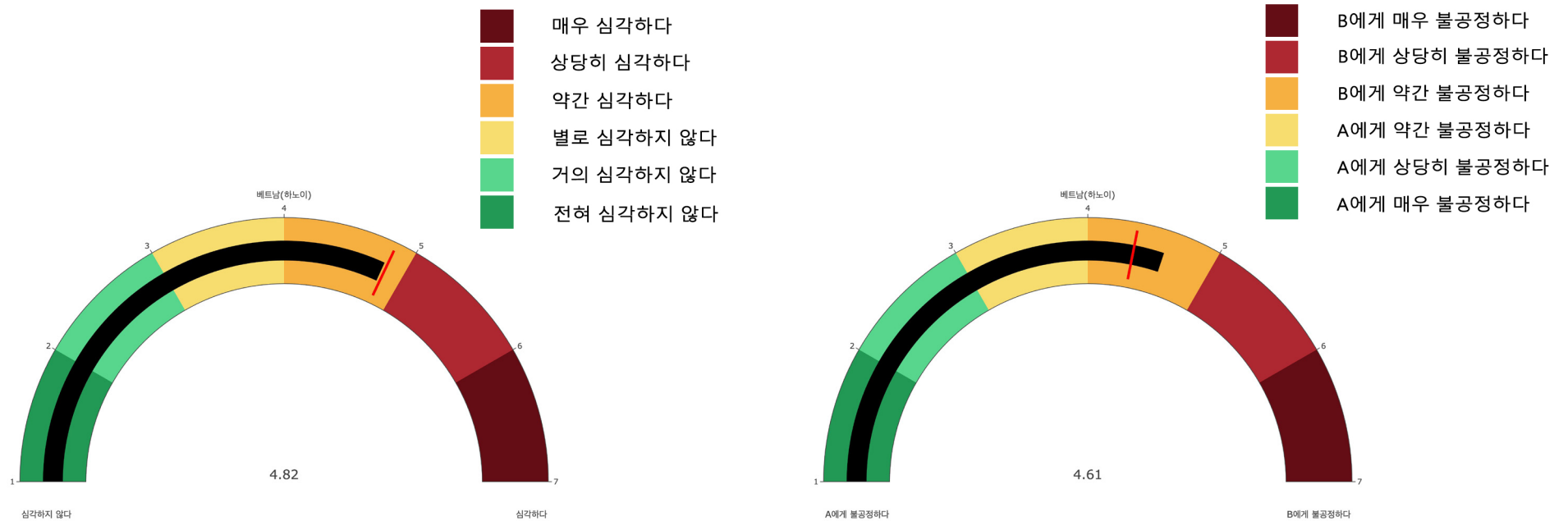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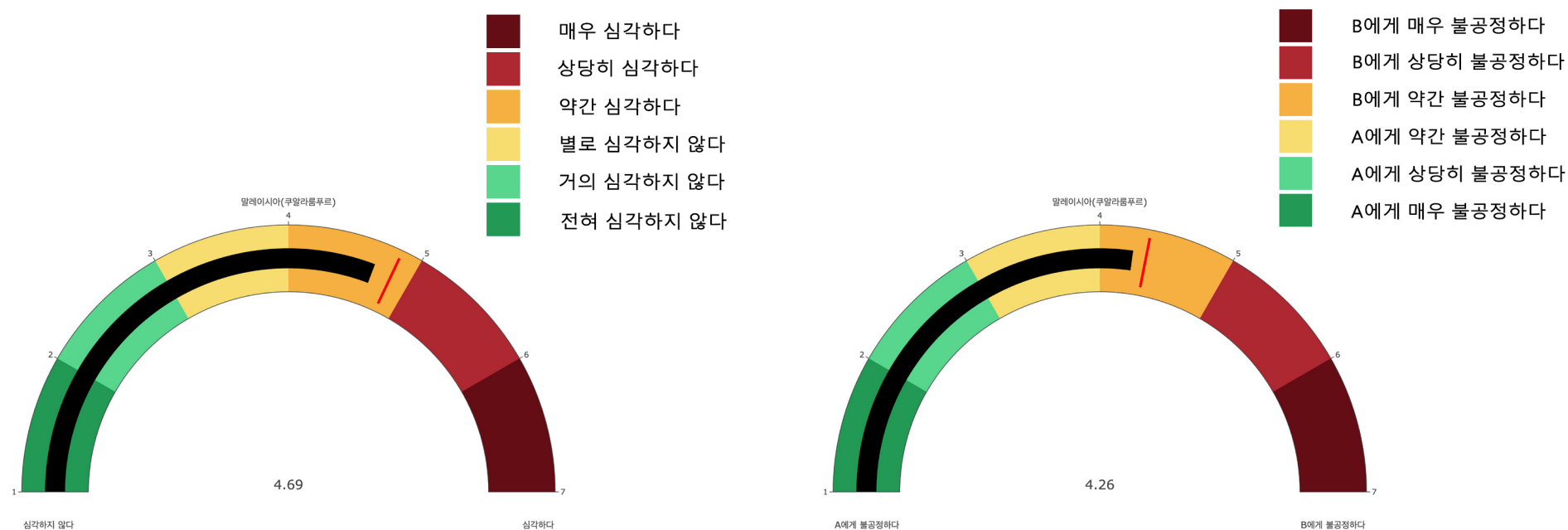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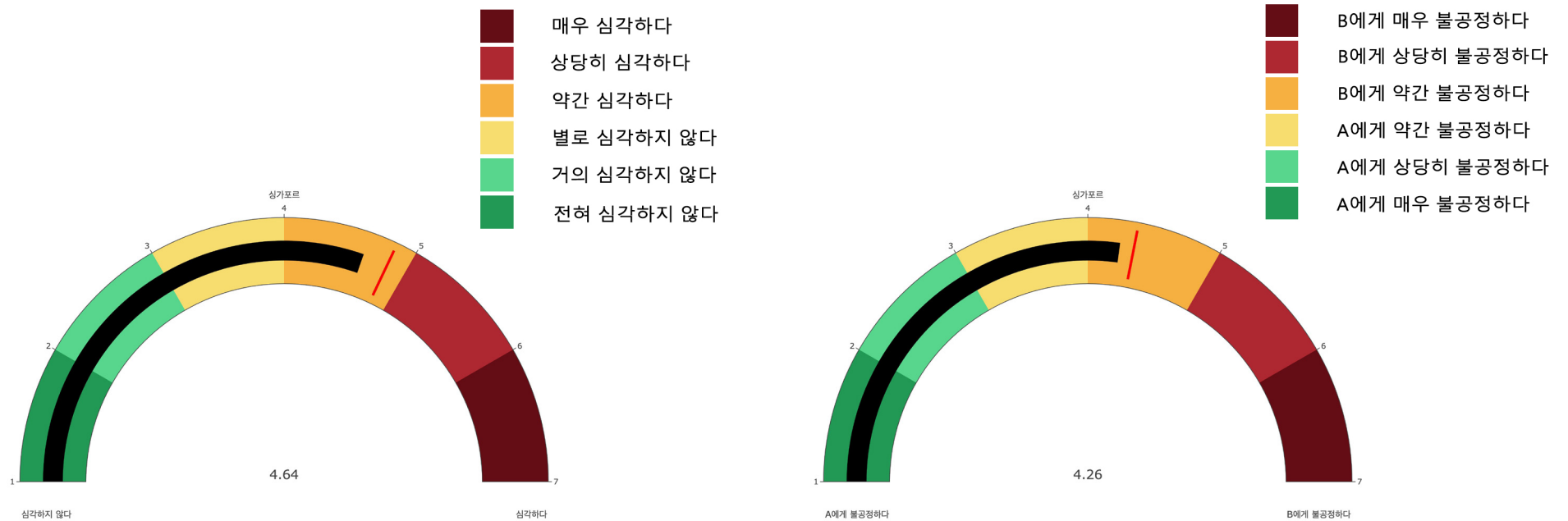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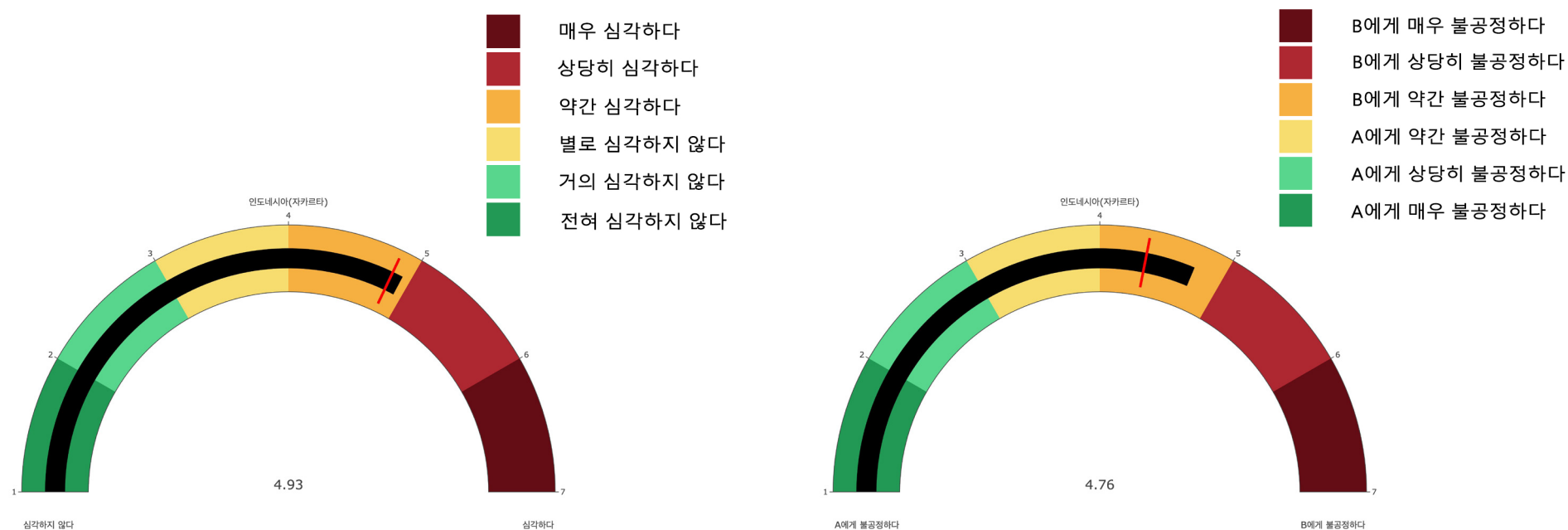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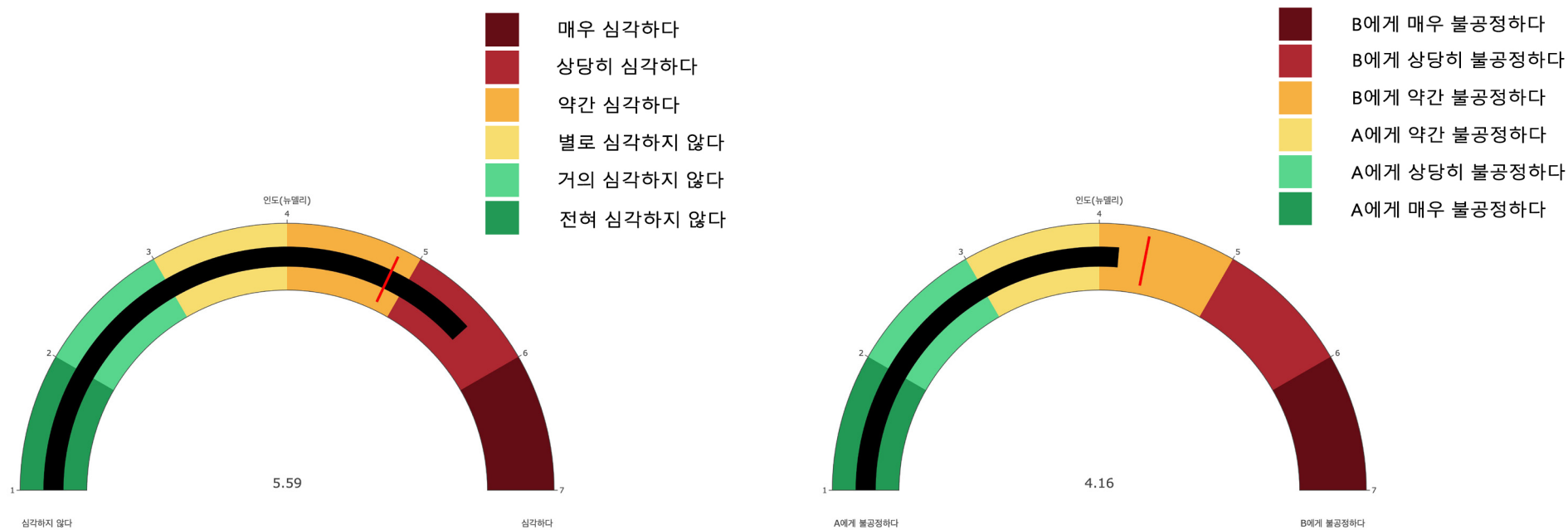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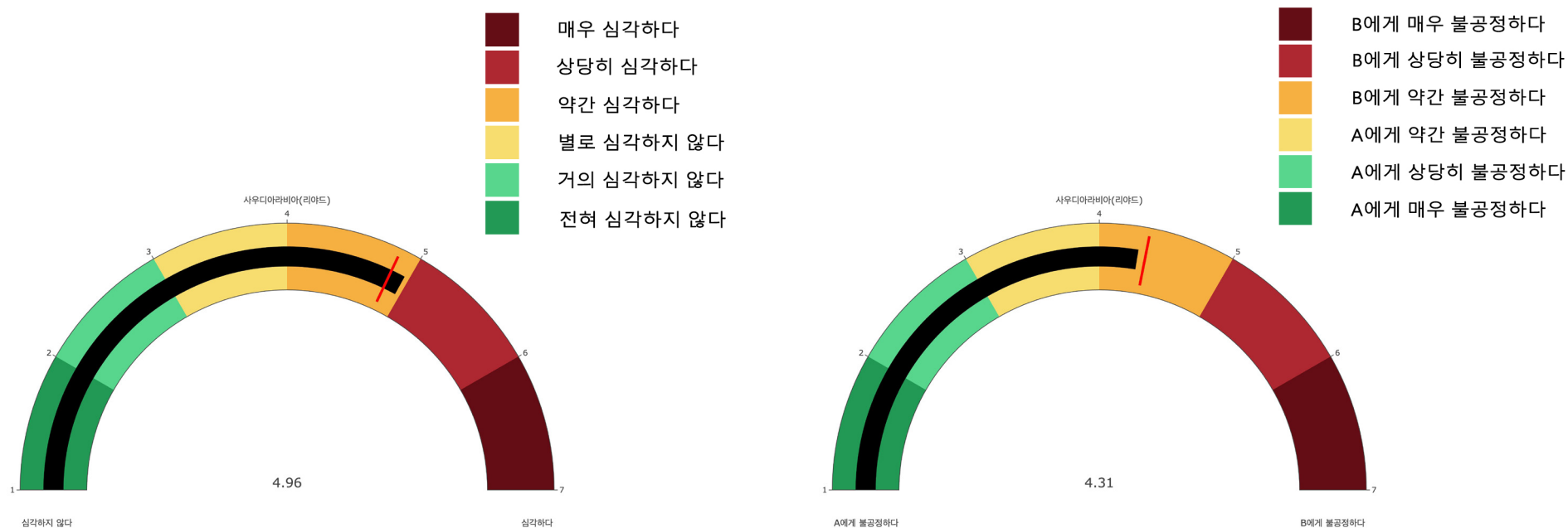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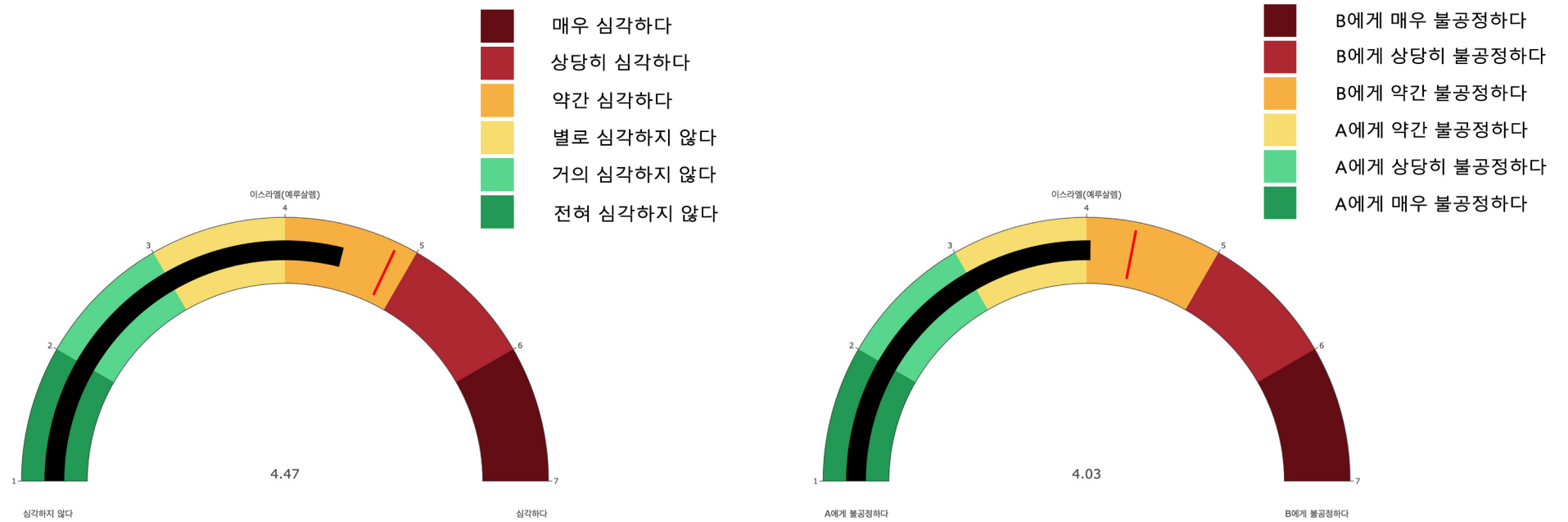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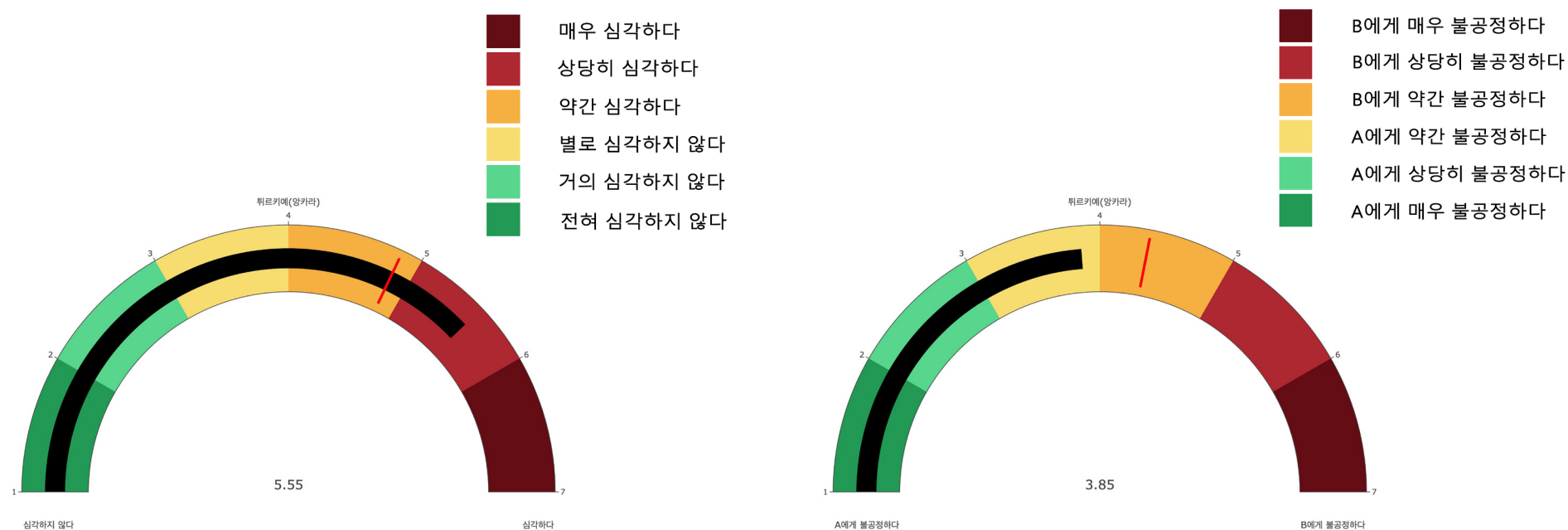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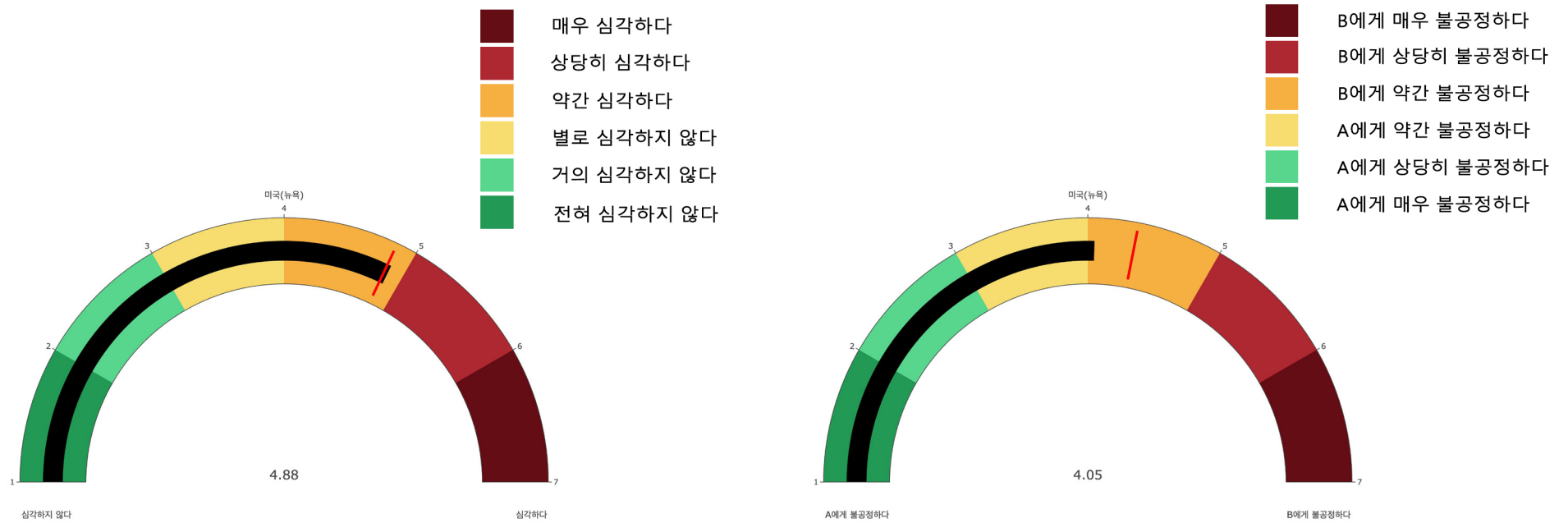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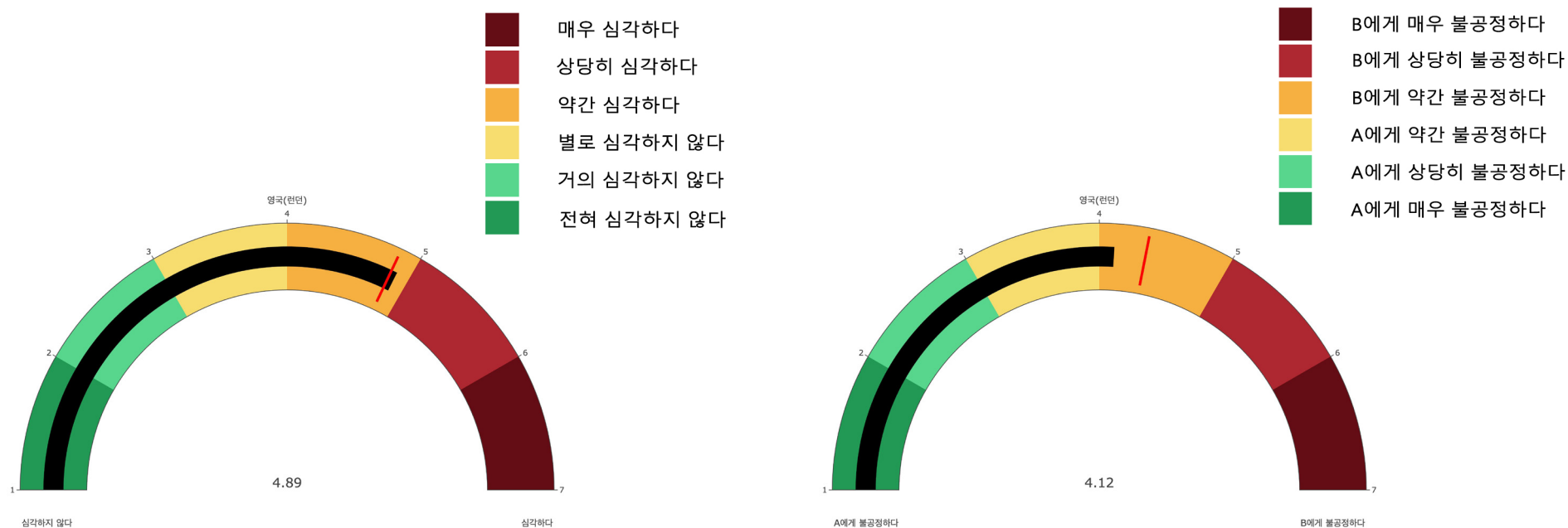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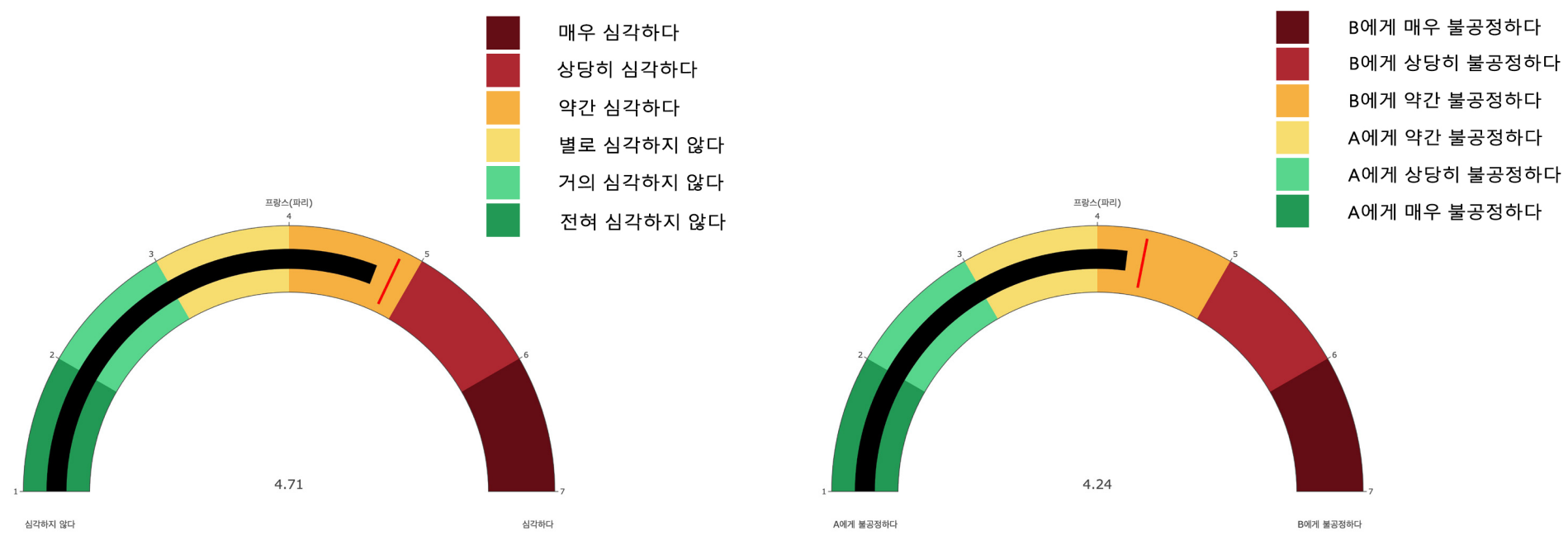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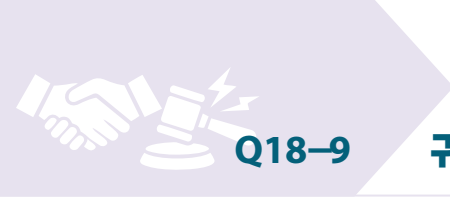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시와 농어촌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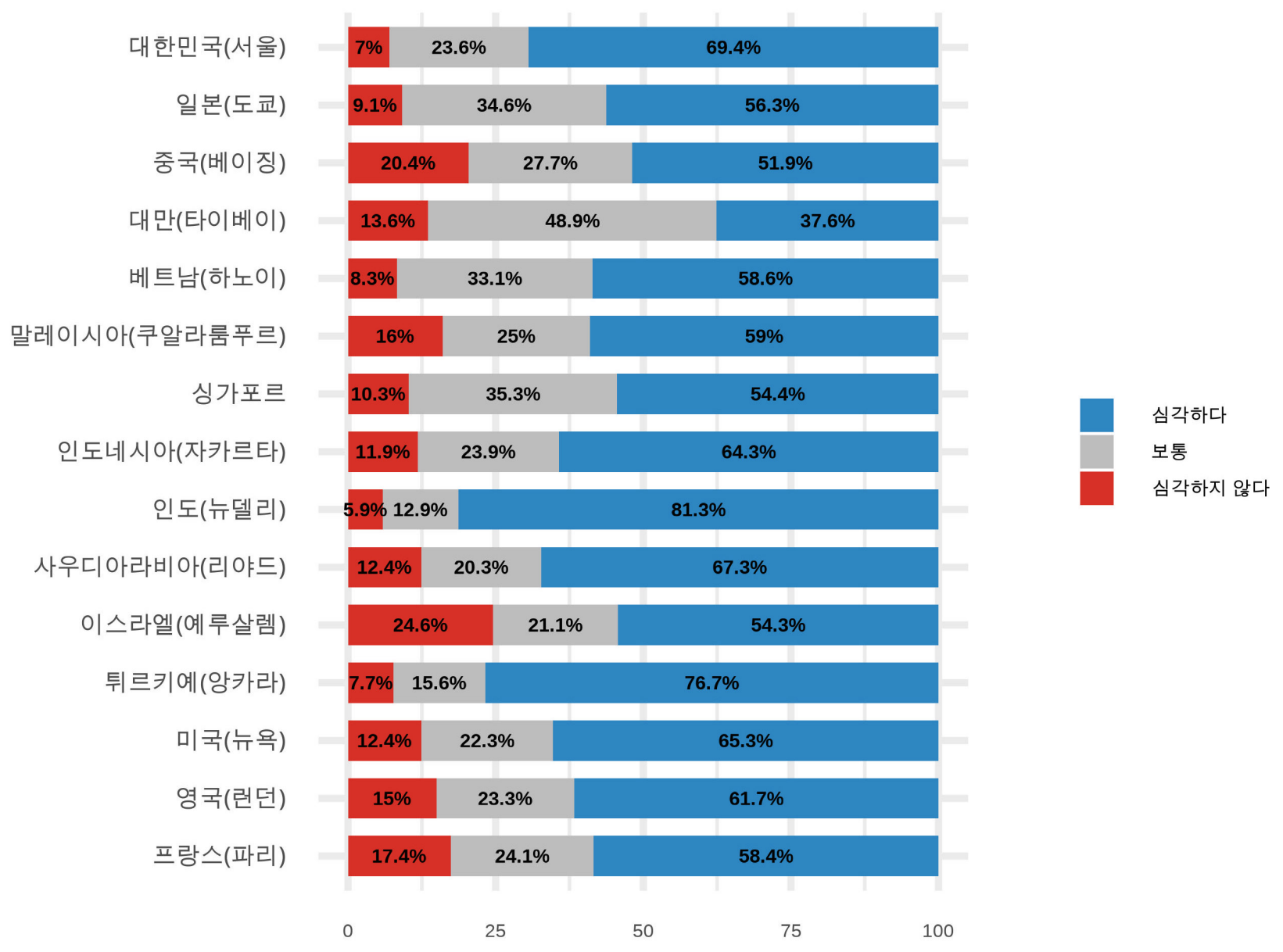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18-9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즉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와 불공정 문제 등을 묻는 것이다. 인도의 뉴델리(81.29%)와 튀르키예의 앙카라(76.71%)가 1,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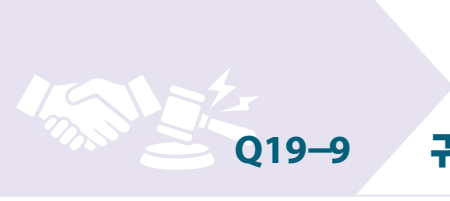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서울은 69.43%로 3위를 기록했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나 격차를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만의 타이베이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7.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8.86%로 과반에 육박했다. 중국의 베이징(51.86%)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54.29%)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4.57%)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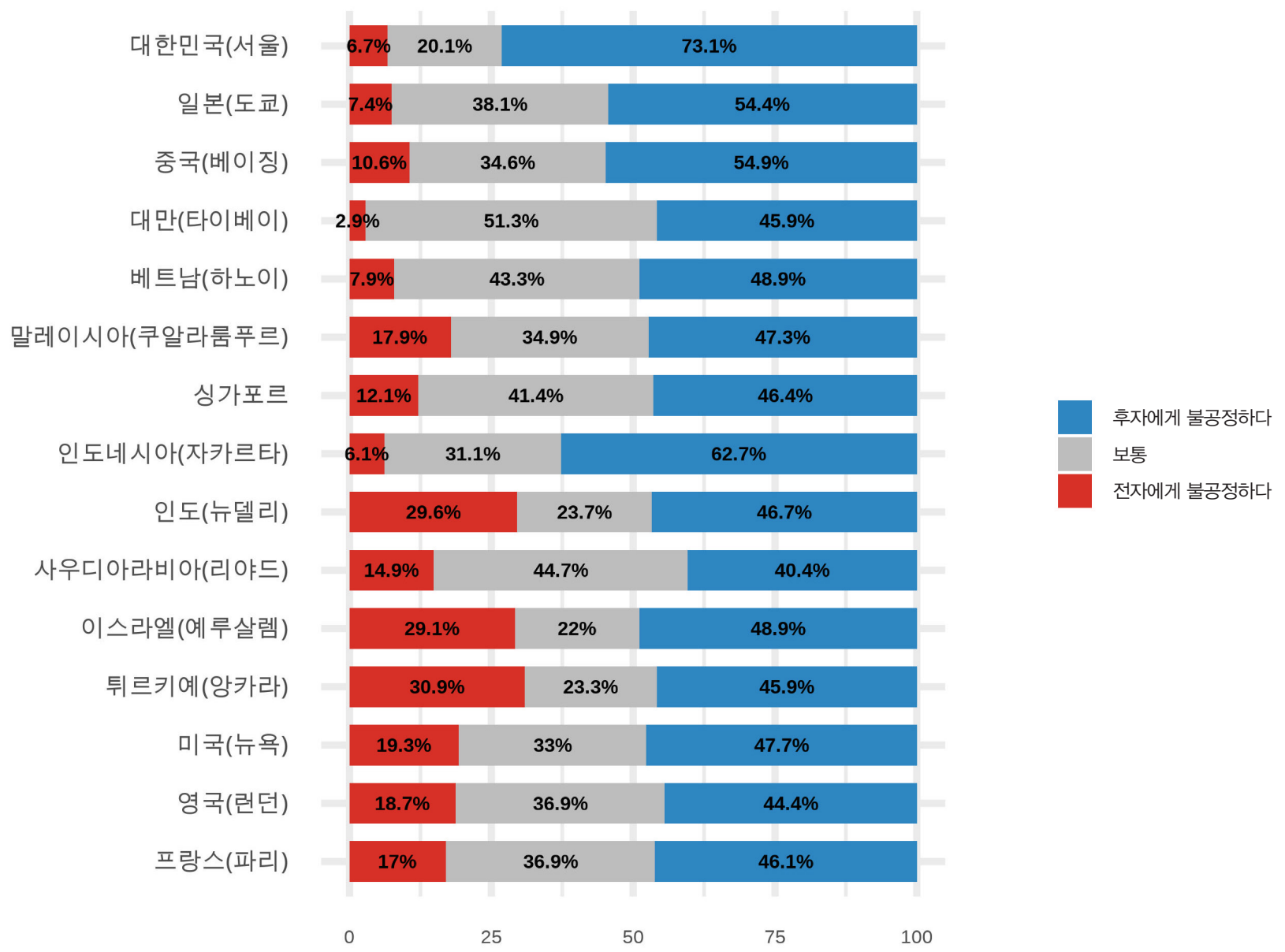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9.43%, 보통 23.57%,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일본(도쿄)** 동의 56.29%, 보통 34.57%, 반대 9.14%.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중국(베이징)** 동의 51.86%, 보통 27.71%, 반대 20.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대만(타이베이)** 동의 37.57%, 보통 48.86%, 반대 13.57%. 유보적 입장이 다수.
- **베트남(하노이)** 동의 58.57%, 보통 33.14%, 반대 8.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9.0%, 보통 25.0%, 반대 16.0%.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싱가포르** 동의 54.43%, 보통 35.29%, 반대 10.29%.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4.29%, 보통 23.86%, 반대 11.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인도(뉴델리)** 동의 81.29%, 보통 12.86%, 반대 5.86%. 갈등 인식이 극도로 심각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7.29%, 보통 20.29%,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4.29%, 보통 21.14%, 반대 24.57%.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6.71%, 보통 15.57%, 반대 7.71%.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
- **미국(뉴욕)** 동의 65.29%, 보통 22.29%, 반대 12.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영국(런던)** 동의 61.71%, 보통 23.29%, 반대 15.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프랑스(파리)** 동의 58.43%, 보통 24.14%, 반대 17.43%. 과반이 갈등 심각성에 동의.



Q19-9

귀하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불공정성,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누구에게 더 불공정한지를 묻는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도시에서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은 73.14%가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문항들(빈부, 노사, 정규직/비정규직)에서 나타난 결과와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가 ‘강자 독식’의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서울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62.71%), 중국의 베이징(54.86%), 일본의 도쿄(54.43%)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중소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데에 과반이 동의했다.

반면, 튀르키예의 앙카라(30.86%)와 인도의 뉴델리(29.57%), 이스라엘의 예루살렘(29.14%)에서는 ‘대기업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30% 내외로 나타나,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른 도시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만의 타이베이도 ‘비슷하다’는 응답이 51.29%로 과반을 넘어, 기업 규모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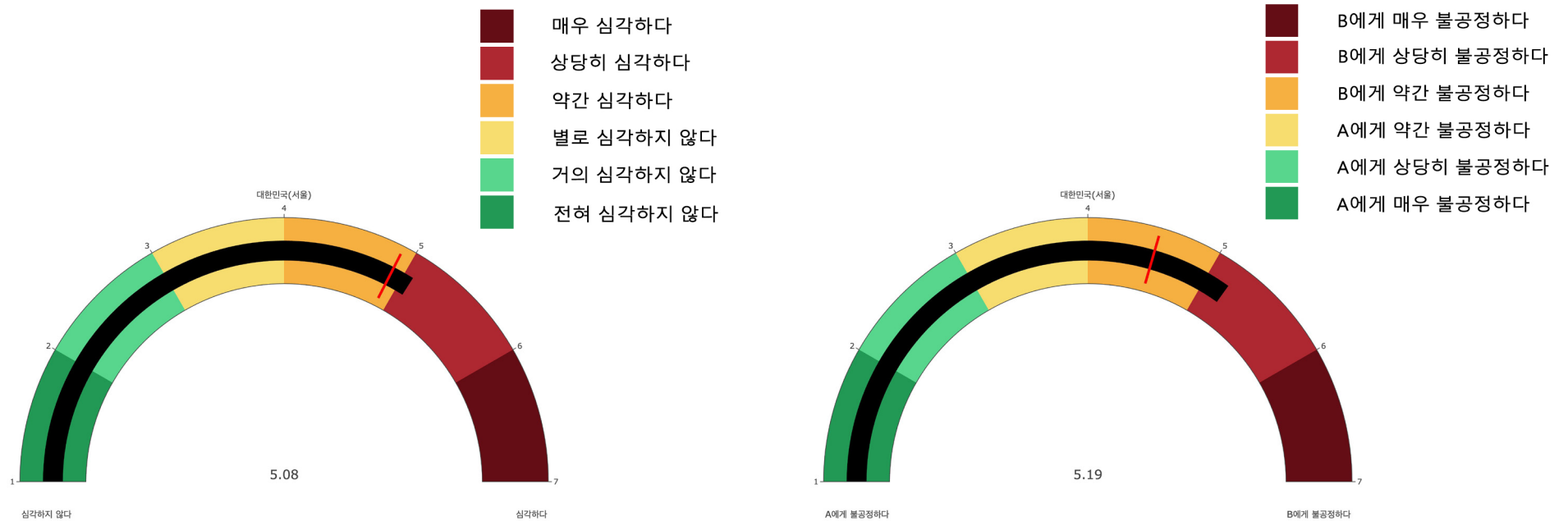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대기업에게 불공정 6.71%, 비슷함 20.14%,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73.14%.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압도적.
- **일본(도쿄)** 대기업에게 불공정 7.43%, 비슷함 38.14%,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54.43%. 과반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중국(베이징)** 대기업에게 불공정 10.57%, 비슷함 34.57%,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54.86%. 과반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인식.
- **대만(타이베이)** 대기업에게 불공정 2.86%, 비슷함 51.29%,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5.86%.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베트남(하노이)** 대기업에게 불공정 7.86%, 비슷함 43.29%,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8.86%.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대기업에게 불공정 17.86%, 비슷함 34.86%,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7.29%.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싱가포르** 대기업에게 불공정 12.14%, 비슷함 41.43%,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6.43%.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대기업에게 불공정 6.14%, 비슷함 31.14%,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62.71%.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인도(뉴델리)** 대기업에게 불공정 29.57%, 비슷함 23.71%,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6.71%.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대기업에게 불공정 14.86%, 비슷함 44.71%,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0.43%. 비슷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대기업에게 불공정 29.14%, 비슷함 22.0%,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8.86%.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대기업에게 불공정 30.86%, 비슷함 23.29%,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5.86%.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하나 대기업 불리 인식도 높음.
- **미국(뉴욕)** 대기업에게 불공정 19.29%, 비슷함 33.0%,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7.71%.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영국(런던)** 대기업에게 불공정 18.71%, 비슷함 36.86%,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4.43%.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 **프랑스(파리)** 대기업에게 불공정 17.0%, 비슷함 36.86%, 중소기업에게 불공정 46.14%. 중소기업 불리 인식이 우세.



대한민국(서울)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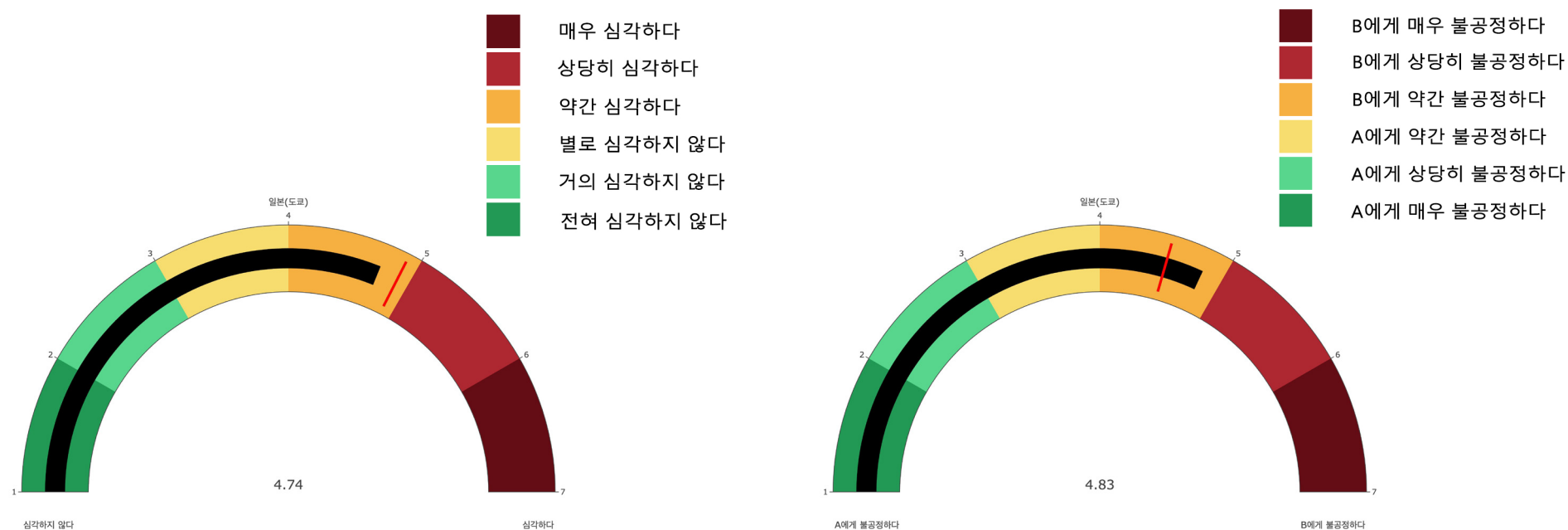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일본(도쿄)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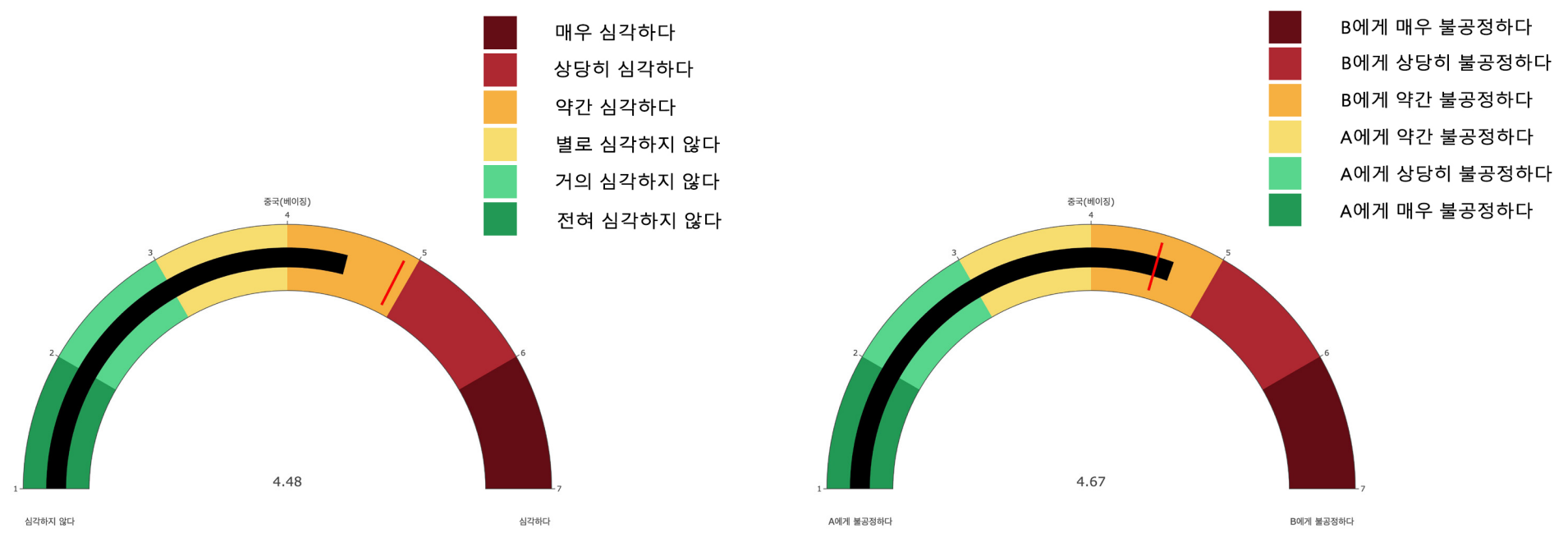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중국(베이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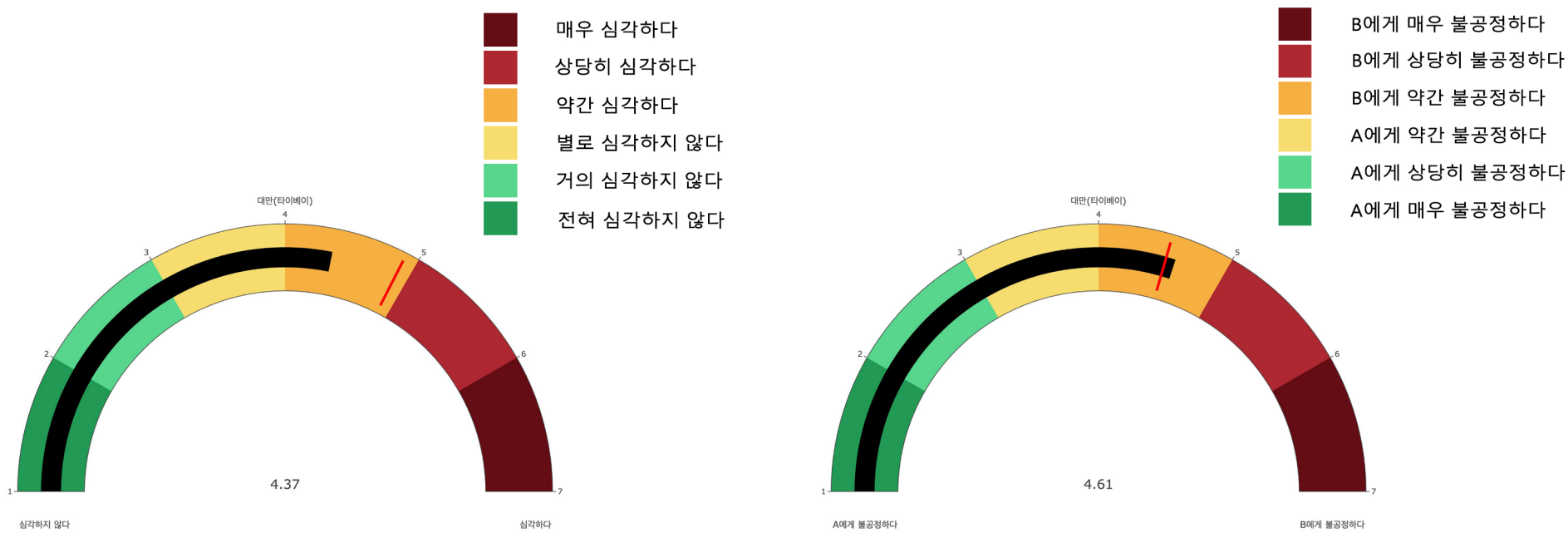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만(타이베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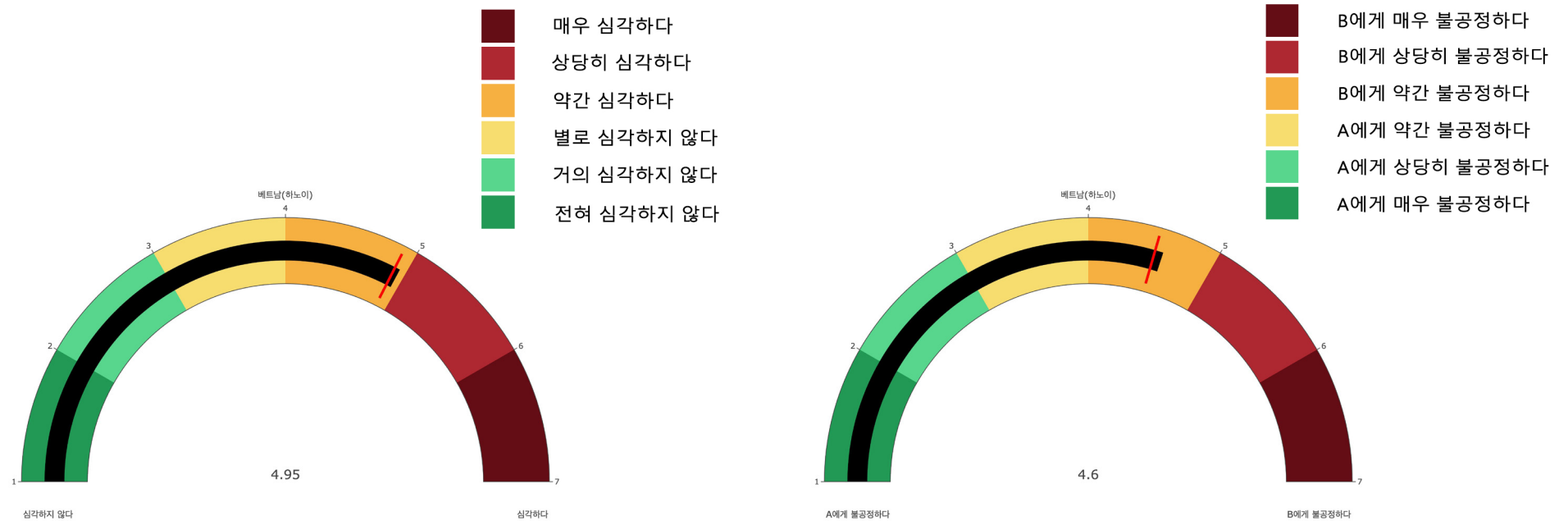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베트남(하노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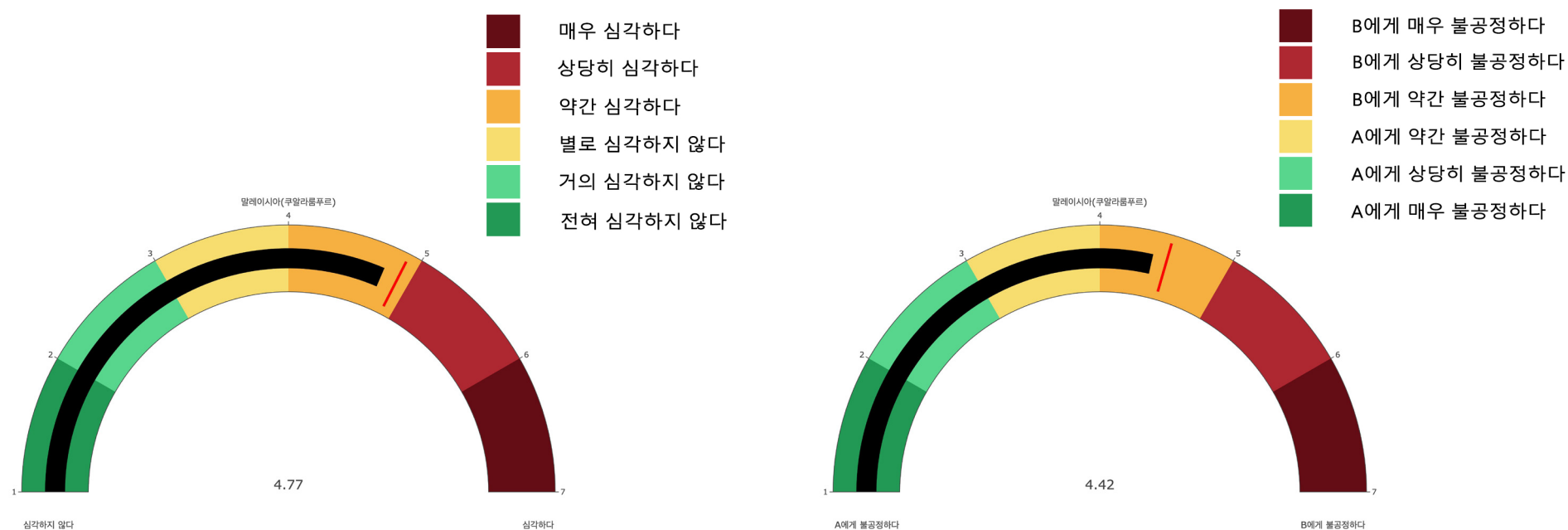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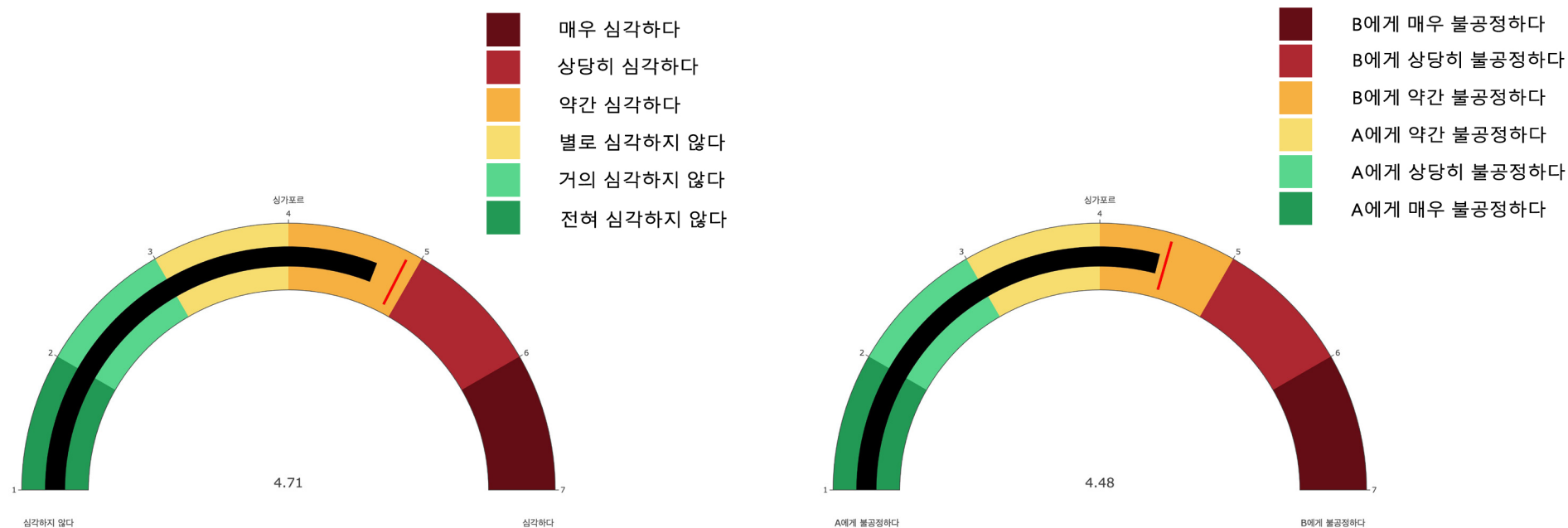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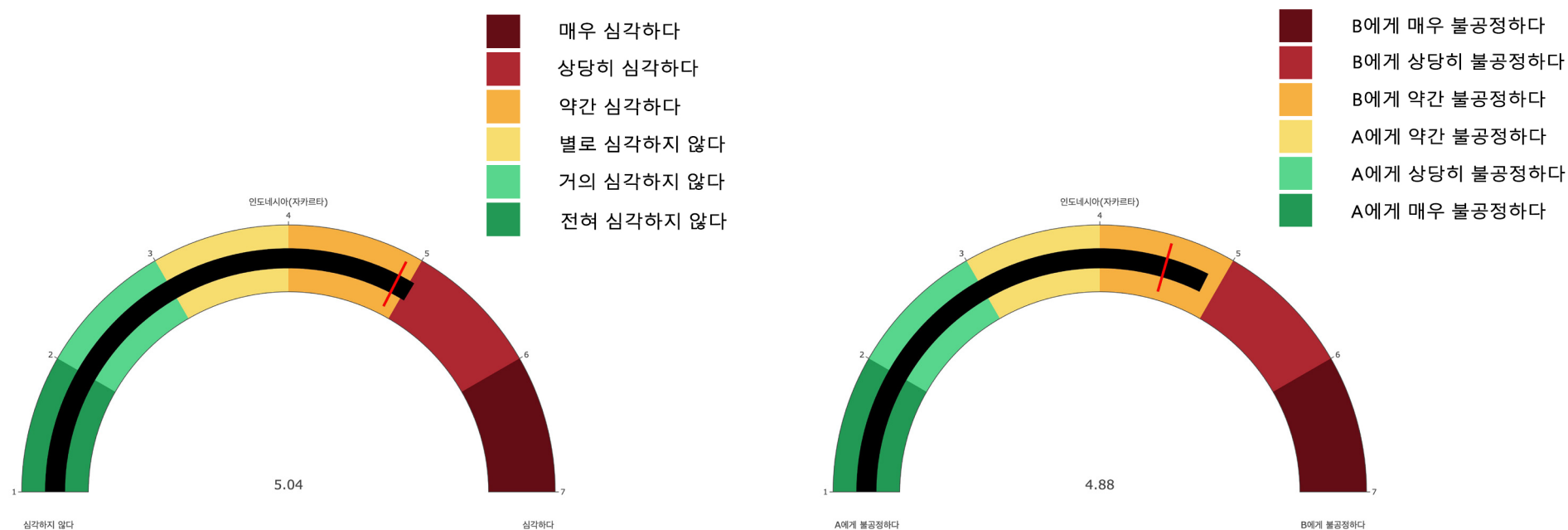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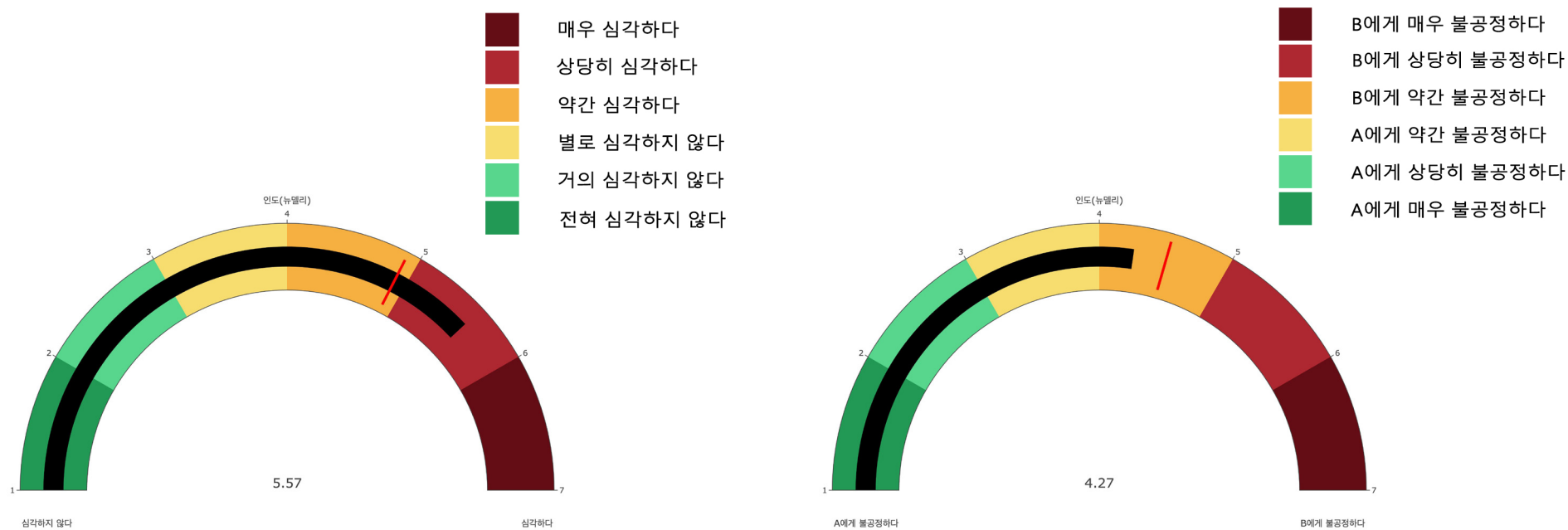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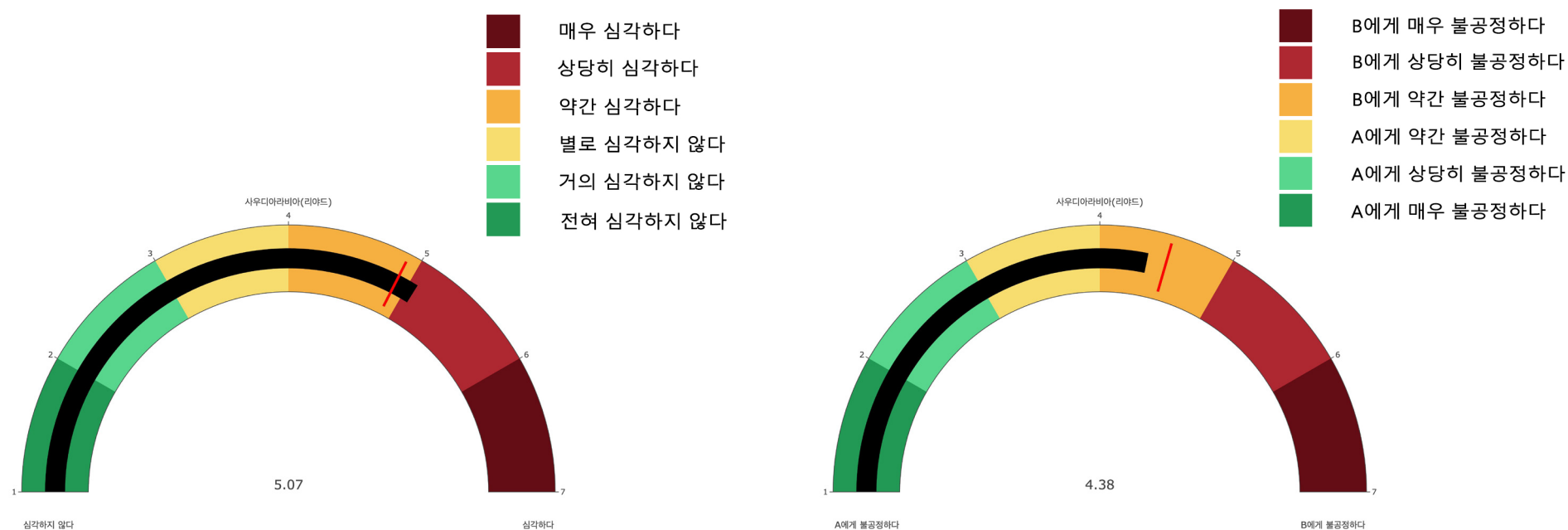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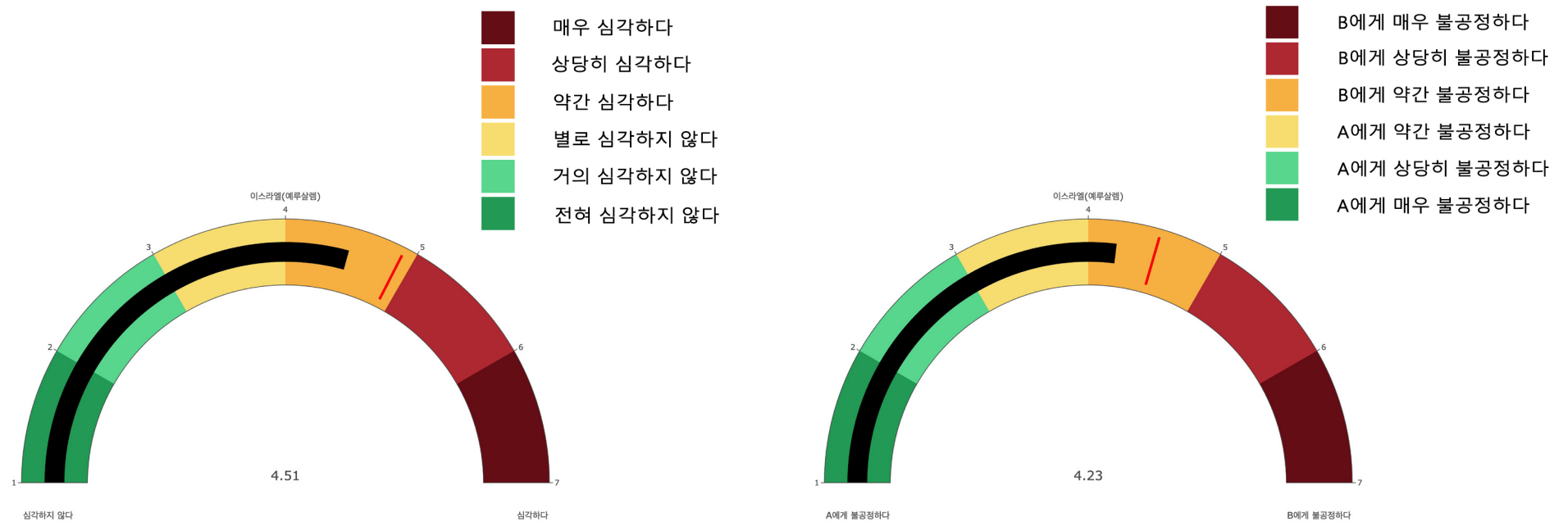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예루살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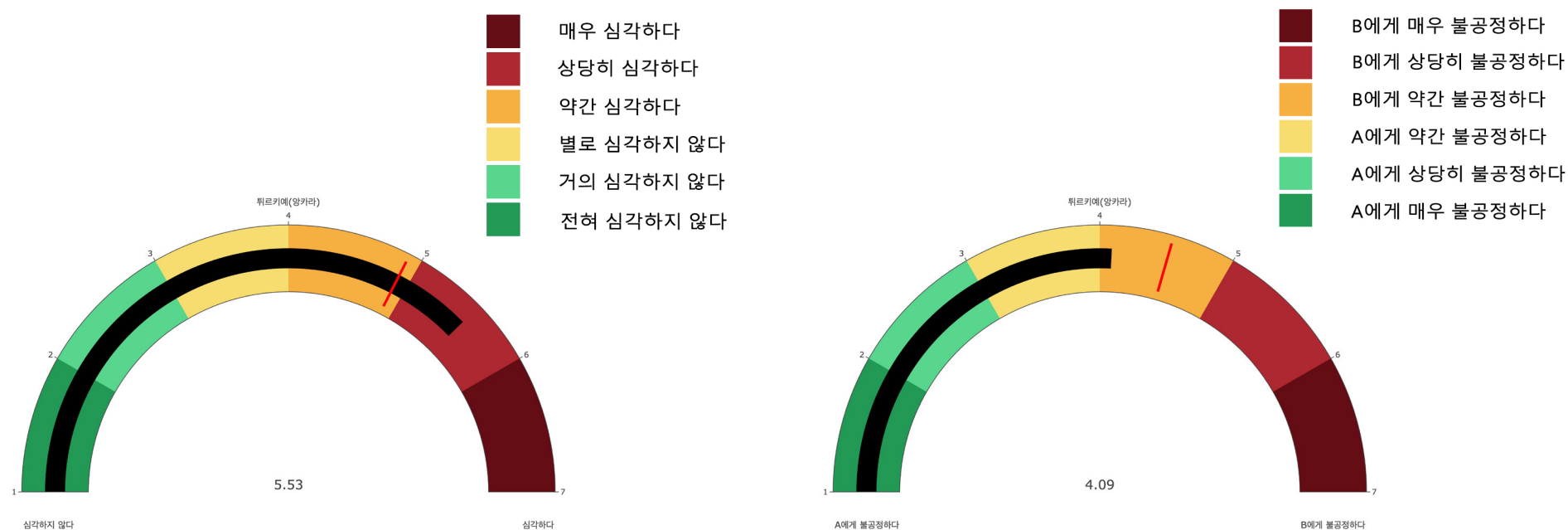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튀르키예(앙카라)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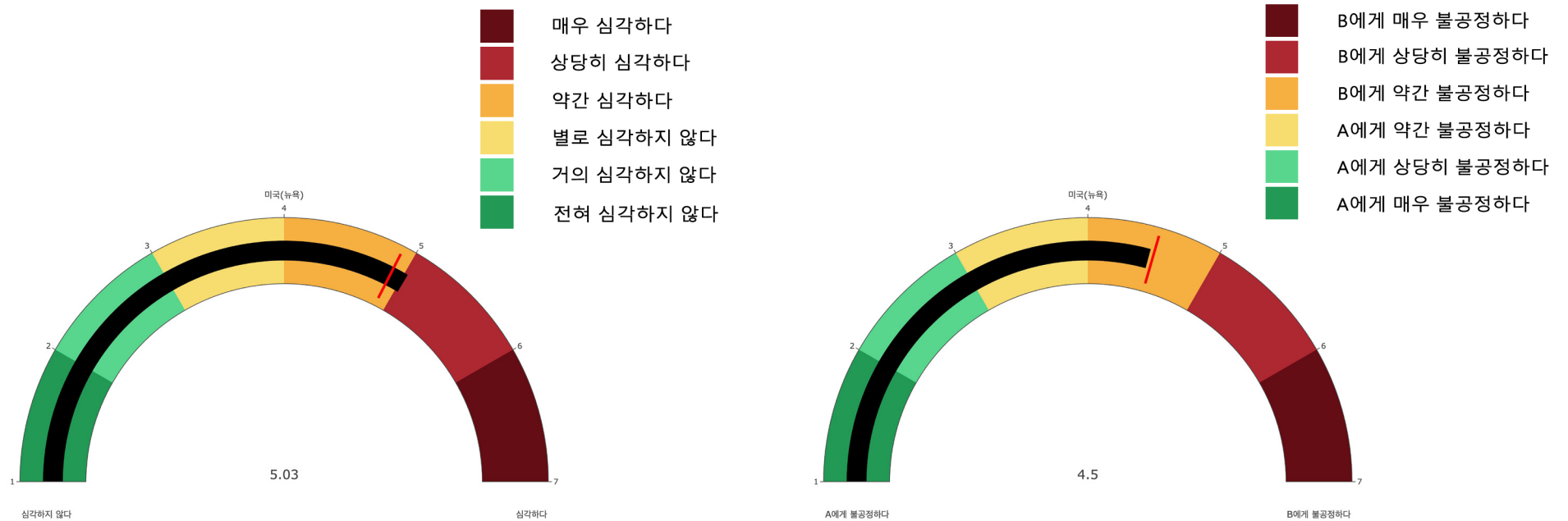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미국(뉴욕)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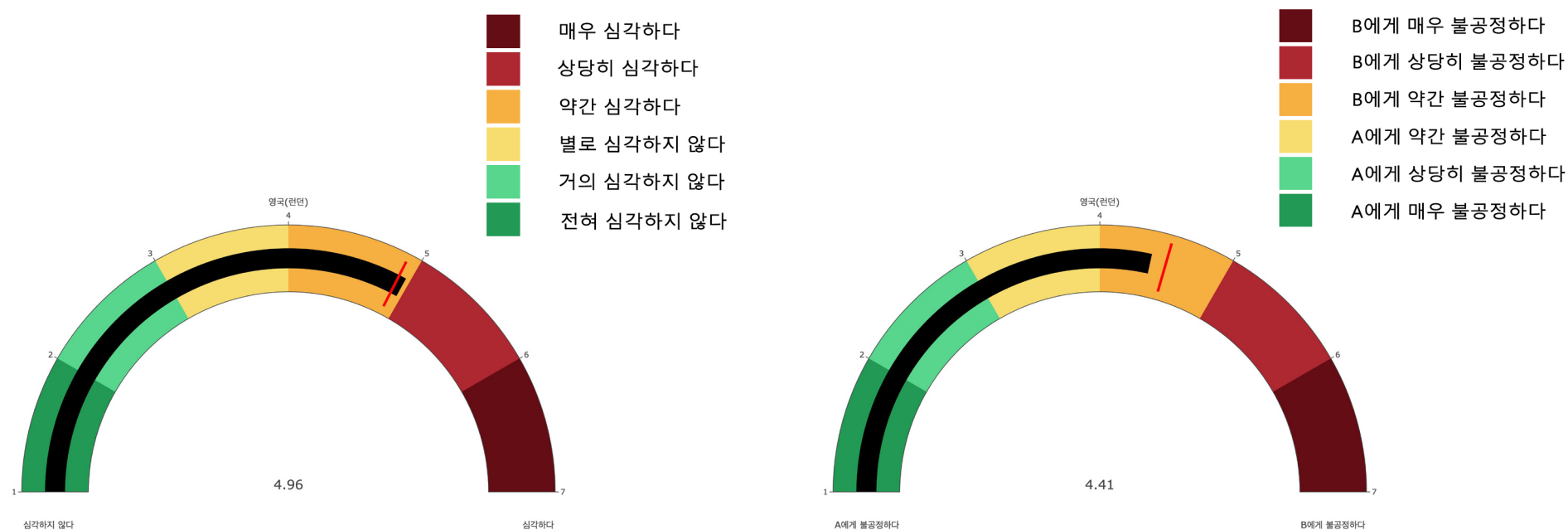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영국(런던)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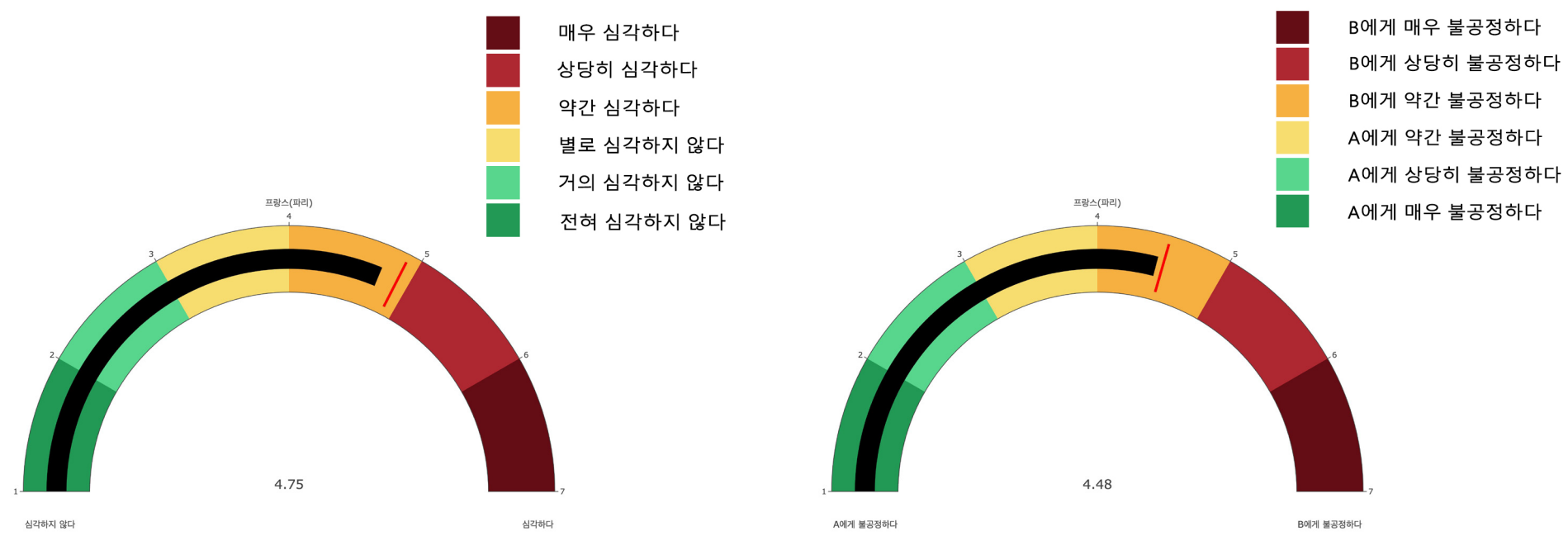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프랑스(파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왼쪽)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의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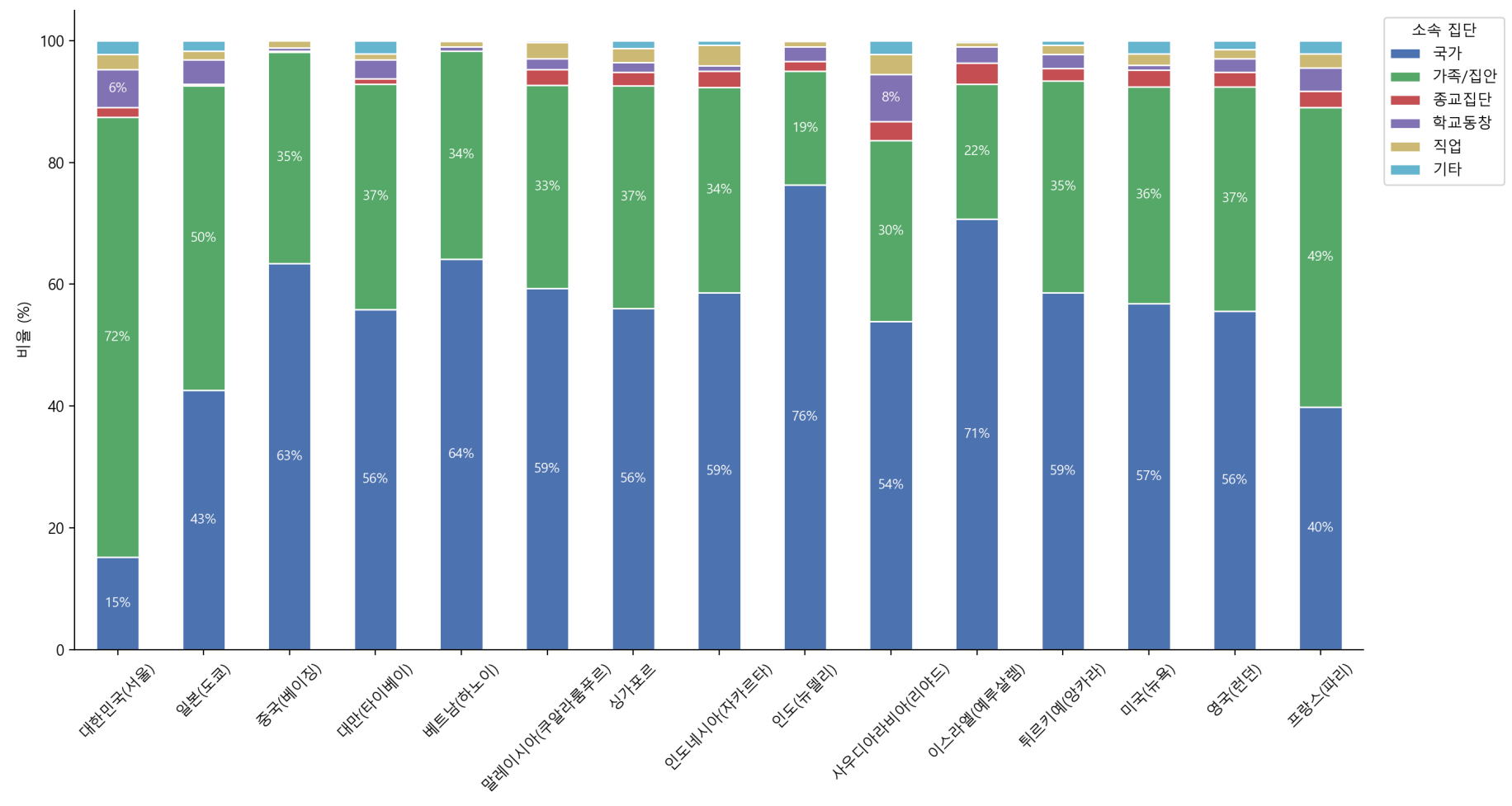
* 게이지 차트에 검은색 표시는 가운데 수치와 동일한 국가(도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차트에 빨간색 표시는 해당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서구)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Q35

귀하는 다음의 집단 중 어느 집단에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이 문항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속 집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15개 도시 중 대한민국(서울), 일본(도쿄), 프랑스(파리)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도시에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국가'를 1순위로 선택한 도시

대부분의 도시에서 '국가'가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뉴델리)는 76.29%가 국가에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스라엘(예루살렘)(70.71%) 역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베트남(하노이)(64.14%)과 중국(베이징)(63.43%)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들에서도 국가 중심의 소속감이 두드러졌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59.29%), 인도네시아(자카르타)(58.57%), 튀르키예(앙카라)(58.57%), 미국(뉴욕)(56.86%), 싱가포르(56.00%), 대만(타이베이)(55.86%), 영국(런던)(55.57%),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53.86%) 등 다양한 문화권의 도시들에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국가를 최우선 소속 집단으로 꼽았다.

2. '가족/집안'을 1순위로 선택한 도시

대한민국(서울), 일본(도쿄), 프랑스(파리) 3개 도시는 국가보다 '가족/집안'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서울)은 '가족/집안'을 선택한 비율이 72.29%로 15개 도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가'를 선택한 비율은 15.14%에 불과해 15개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도쿄)은 50.00%가 가족/집안을 선택해 국가(42.5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만큼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프랑스(파리) 역시 49.14%가 가족/집안을 선택해 국가(39.86%)를 앞섰다.

3. 기타 집단에 대한 소속감

'국가'와 '가족/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종교, 학교, 직업 등)에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모든 도시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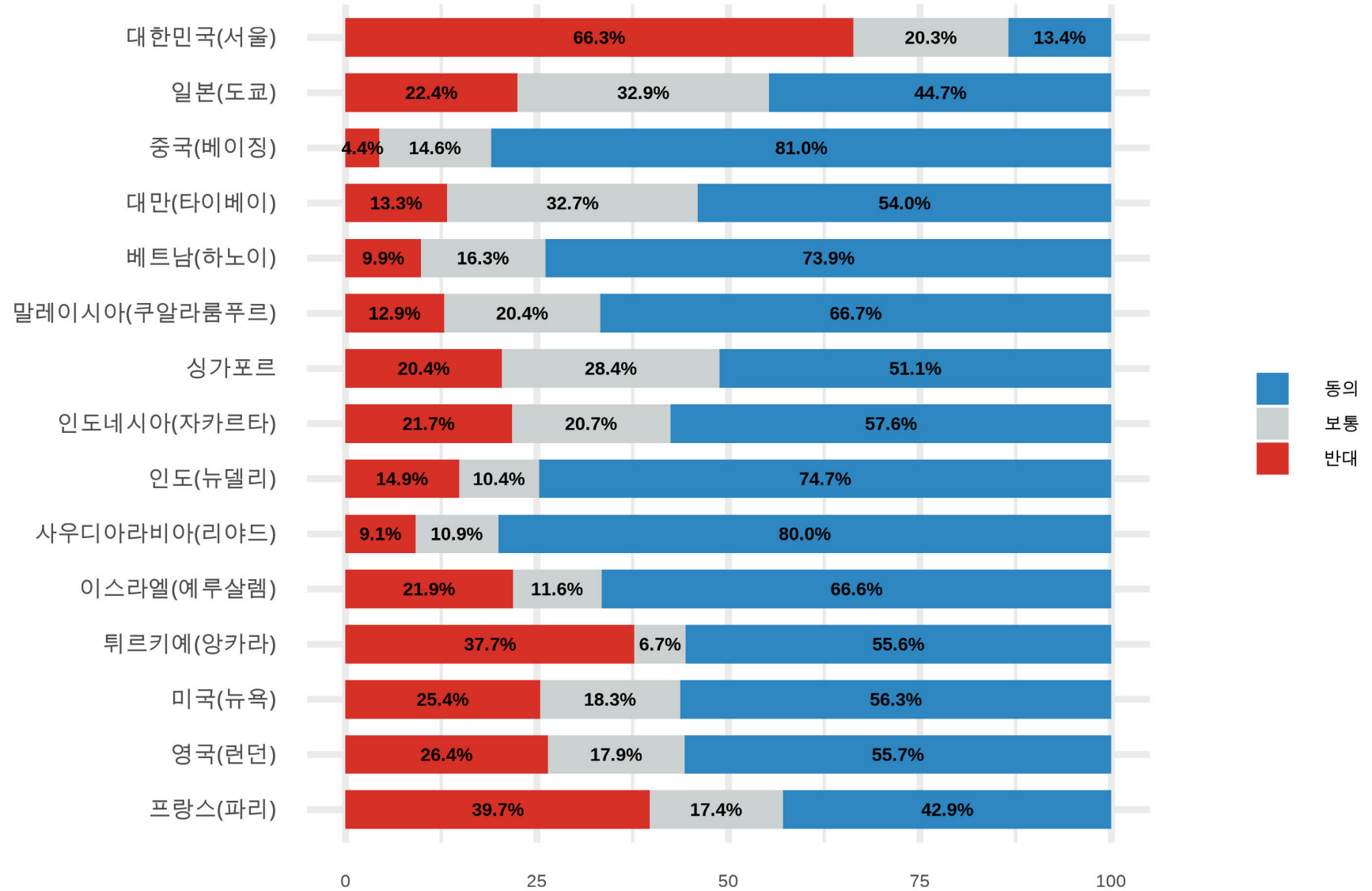
종교집단의 경우 이스라엘(예루살렘)이 3.43%로 가장 높았고,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3.14%)가 뒤를 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서울)은 1.57%였다.

학교동창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7.71%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서울)이 6.29%로 2위를 기록했다.

CH4

능력주의와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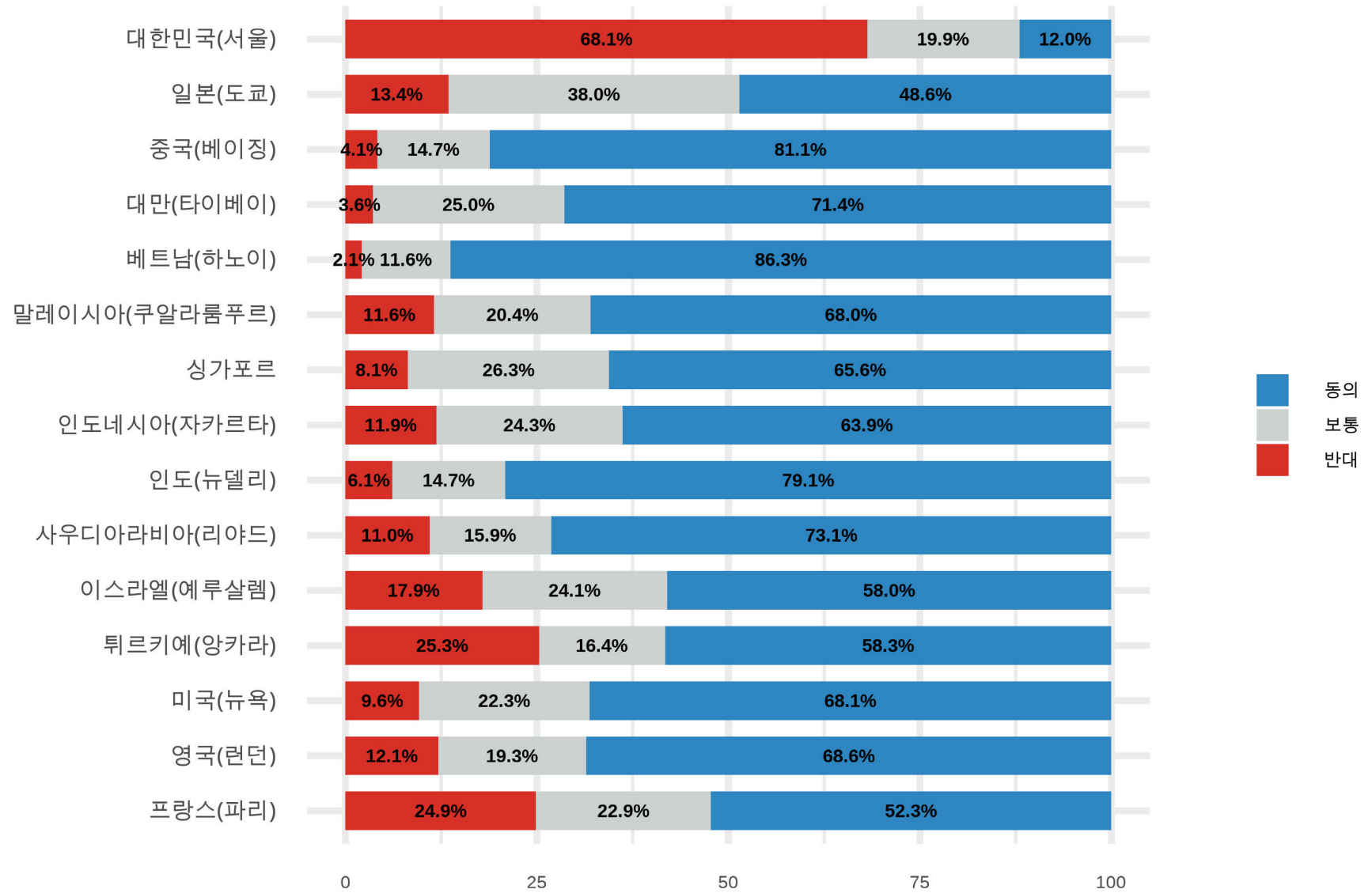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국가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큼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동남아·남아시아 및 중동 일부 도시(베이징 81.0%, 리야드 80.0%, 뉴델리 74.7%, 하노이 73.9% 등)는 ‘골고루 행복’에 대한 동의가 매우 높다. 반면 서구 일부(파리 42.9%)와 동북아 일부(도쿄 44.7%, 타이베이 54.0%, 서울 13.4%)에서는 동의가 낮거나 반대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서울은 반대가 66.3%로 압도적이며, 앙카라(37.7%), 파리(39.7%)도 반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반대 66.3%, 보통 20.3%, 동의 13.4%. ‘골고루 행복’ 인식이 매우 낮다.
- **일본(도쿄)** 동의 44.7%, 보통 32.9%, 반대 22.4%.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나 중립이 커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81.0%, 보통 14.6%, 반대 4.4%. 표본 상위권의 강한 긍정.
- **대만(타이베이)** 동의 54.0%, 보통 32.7%, 반대 13.3%. 과반은 긍정이나 보통이 커 평가 유보 경향.
- **베트남(하노이)** 동의 73.9%, 보통 16.3%, 반대 9.9%. 강한 긍정.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6.7%, 보통 20.4%, 반대 12.9%. 긍정 다수.
- **싱가포르** 동의 51.1%, 보통 28.4%, 반대 20.4%. 과반 긍정이나 부정도 적지 않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7.6%, 보통 20.7%, 반대 21.7%. 긍정 우세지만 분화가 존재.
- **인도(뉴델리)** 동의 74.7%, 보통 10.4%, 반대 14.9%. 매우 높은 긍정.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80.0%, 보통 10.9%, 반대 9.1%. 최상위권의 긍정.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6.6%, 보통 11.6%, 반대 21.9%. 긍정 다수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큼.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5.6%, 보통 6.7%, 반대 37.7%. 반대가 높아 양극화된 인식.
- **미국(뉴욕)** 동의 56.3%, 보통 18.3%, 반대 25.4%. 긍정 우세하지만 부정이 1/4 수준.
- **영국(런던)** 동의 55.7%, 보통 17.9%, 반대 26.4%. 긍정 우세하나 부정이 높다.
- **프랑스(파리)** 동의 42.9%, 보통 17.4%, 반대 39.7%. 긍정이 약해 부정과 경합.

요약하면,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가’에 대한 인식은 도시·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중국·베트남·인도·사우디 등에서는 긍정이 강한 반면, 서울·파리·앙카라 등에서는 부정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립(보통)이 큰 도시는 행복의 기준과 비교 준거가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는 통합되어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 보통(회색) -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어 사회 통합에 대한 긍정 인식이 우세하다. 특히 하노이(86.3%), 베이징(81.1%), 뉴델리(79.1%), 리야드(73.1%), 타이베이(71.4%) 등은 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서울은 '반대'가 68.1%로 압도적이며, 파리(반대 24.9%), 앙카라(반대 25.3%), 예루살렘(반대 17.9%)도 부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쿄는 동의 48.6%, 보통 38.0%로 중립 비중이 높아 신중한 평가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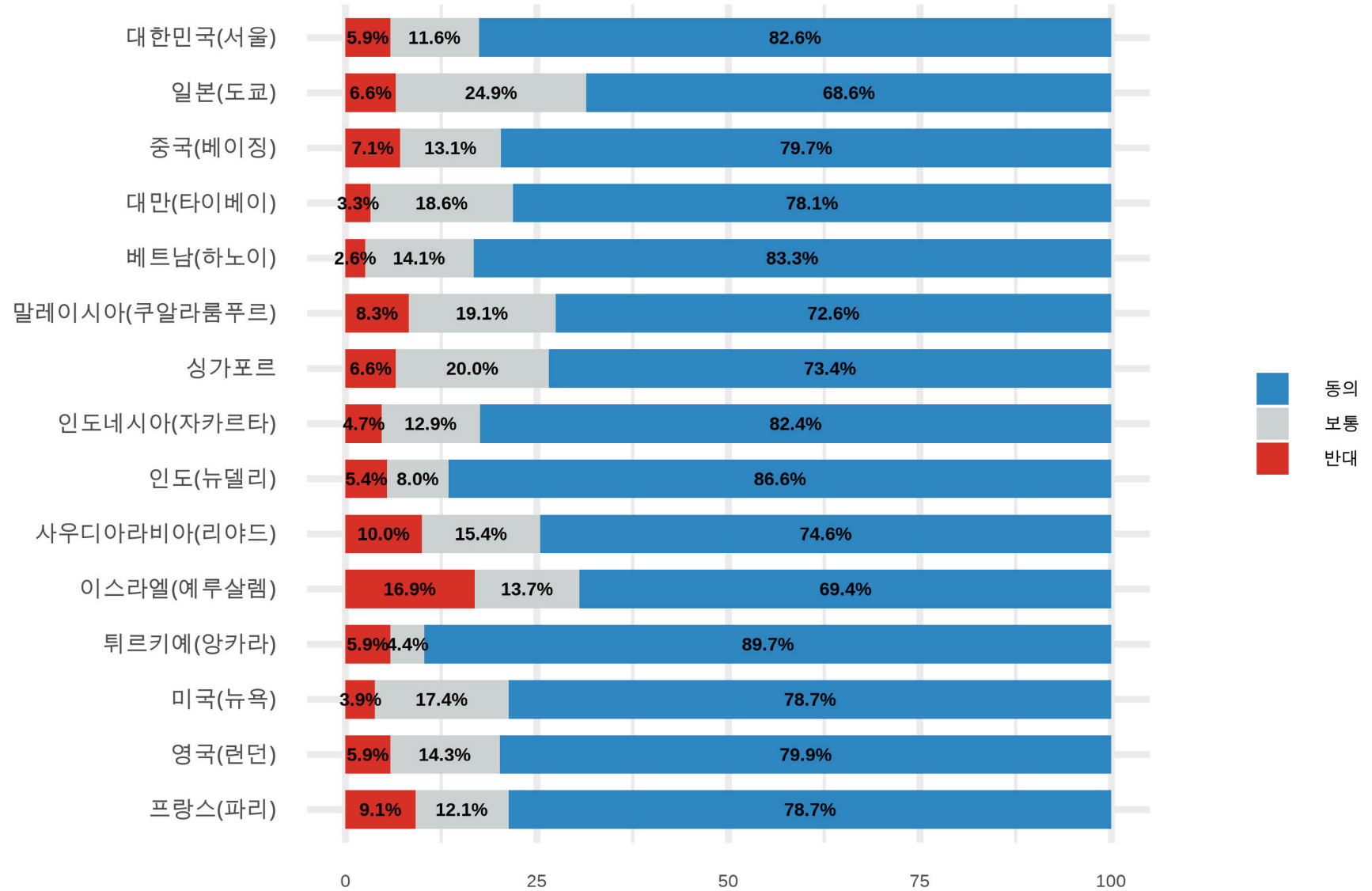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반대 68.1%, 보통 19.9%, 동의 12.0%. 표본 중 유일하게 '부정 인식'이 절대다수.
- **일본(도쿄)** 동의 48.6%, 보통 38.0%, 반대 13.4%. 동의가 가장 크지만 '보통'이 높아 평가가 유보적.
- **중국(베이징)** 동의 81.1%, 보통 14.7%, 반대 4.1%. 매우 높은 통합 인식.
- **대만(타이베이)** 동의 71.4%, 보통 25.0%, 반대 3.6%. 긍정이 우세하며 중립도 일정 비중.
- **베트남(하노이)** 동의 86.3%, 보통 11.6%, 반대 2.1%. 표본 중 최고의 긍정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0%, 보통 20.4%, 반대 11.6%. 긍정 다수, 부정도 적지 않음.
- **싱가포르** 동의 65.6%, 보통 26.3%, 반대 8.1%. 긍정 우세, 중립이 비교적 큰 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3.9%, 보통 24.3%, 반대 11.9%. 긍정이 다수지만 부정도 두 자릿수.
- **인도(뉴델리)** 동의 79.1%, 보통 14.7%, 반대 6.1%. 매우 높은 긍정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3.1%, 보통 15.9%, 반대 11.0%. 긍정이 강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8.0%, 보통 24.1%, 반대 17.9%. 긍정 다수이나 부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8.3%, 보통 16.4%, 반대 25.3%. 긍정이 과반이지만 반대가 높아 양극화 징후.
- **미국(뉴욕)** 동의 68.1%, 보통 22.3%, 반대 9.6%. 긍정 우세.
- **영국(런던)** 동의 68.6%, 보통 19.3%, 반대 12.1%. 긍정 우세.
- **프랑스(파리)** 동의 52.3%, 보통 22.9%, 반대 24.9%. 긍정이 근소 우세하나 부정이 높아 분화.

종합하면, 동남아·남아시아 다수 도시와 동북아 일부 도시는 사회 통합을 강하게 체감하는 반면, 서울과 일부 서구·중동 도시는 평가가 엇갈리거나 부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립(보통) 응답이 큰 도시는 통합의 기준·경험이 다양해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과의 차이가 크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을 누적 막대(bar)로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동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대도시 거주자들은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다.

도시 전체 평균적 인상: 대부분 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70% 이상이며, 특히 앙카라(약 89.7%), 뉴델리(약 86.6%), 하노이(약 83.3%), 자카르타(약 82.4%), 서울(약 82.6%)처럼 남·남동아 및 일부 동북아 도시에서 높다. 반면 도쿄(약 68.6%), 이스라엘 예루살렘(약 69.4%)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중립(보통) 응답은 도쿄(약 24.9%)가 가장 높아 '격차 판단 보류/모호'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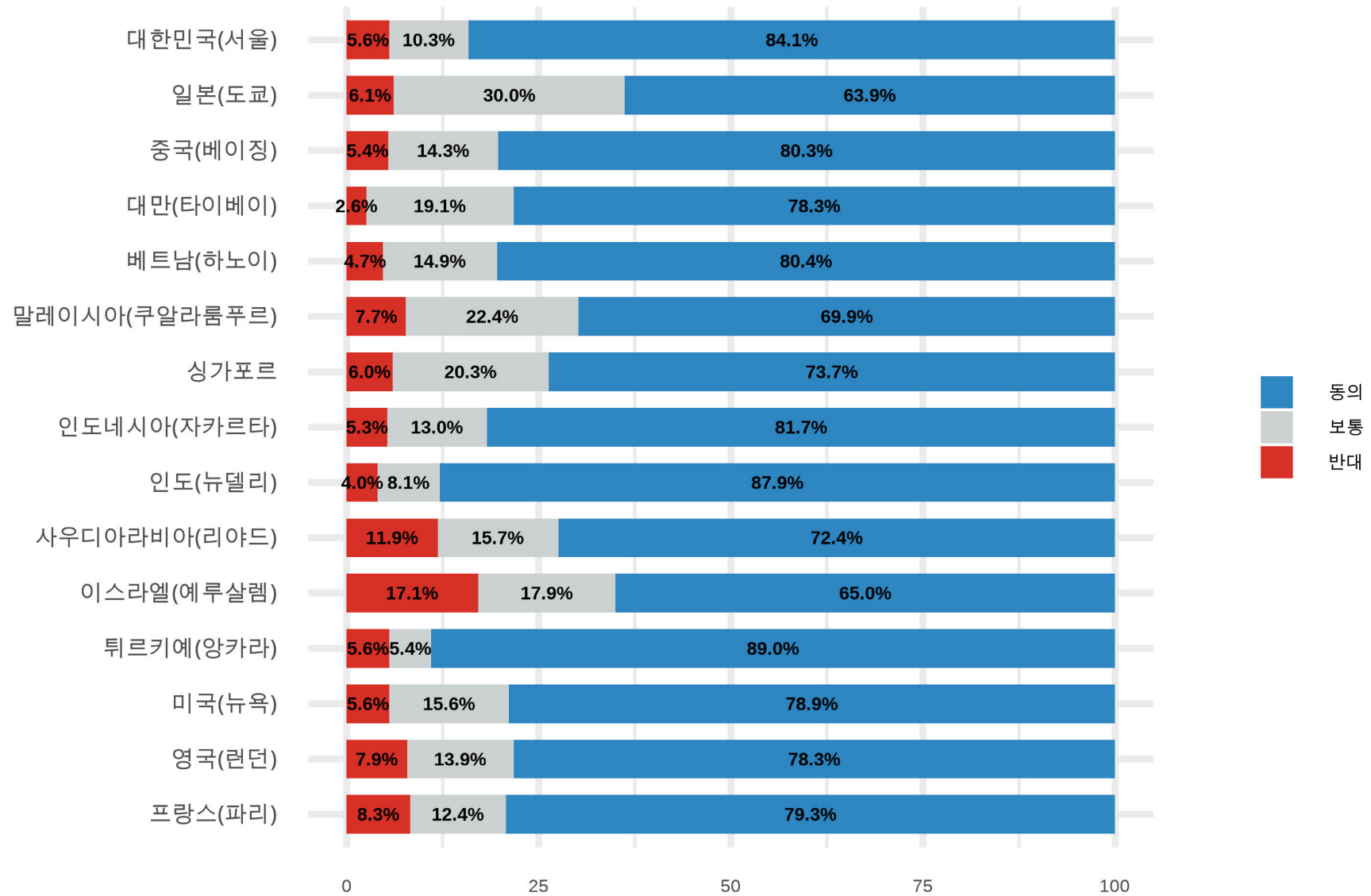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2.6%, 보통 11.6%, 반대 5.9%. 격차 인식이 매우 강하며 소수만이 부정한다.
- **일본(도쿄)** 동의 68.6%, 보통 24.9%, 반대 6.6%. 동의는 다수지만 '보통' 비율이 높아 신중한 인식이 특징.
- **중국(베이징)** 동의 79.7%, 보통 13.1%, 반대 7.1%. 동의 다수, 반대 비중은 중간 수준.
- **대만(타이베이)** 동의 78.1%, 보통 18.6%, 반대 3.3%. 동의가 높고 반대는 매우 낮음.
- **베트남(하노이)** 동의 83.3%, 보통 14.1%, 반대 2.6%. 표본 중 최상위권의 격차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2.6%, 보통 19.1%, 반대 8.3%. 동의 다수지만 반대·보통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 **싱가포르** 동의 73.4%, 보통 20.0%, 반대 6.6%. 동의는 다수, 중립이 꽤 높은 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2.4%, 보통 12.9%, 반대 4.7%. 격차 인식이 매우 강함.
- **인도(뉴델리)** 동의 86.6%, 보통 8.0%, 반대 5.4%. 동의 압도적, 중립·반대는 낮음.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4.6%, 보통 15.4%, 반대 10.0%. 동의가 우세하나 반대 비중이 비교적 큼.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9.4%, 보통 13.7%, 반대 16.9%. 반대가 표본 중 가장 높아 시각 차이가 큼.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7%, 보통 4.4%, 반대 5.9%. 최상위권의 동의율로 격차 인식이 매우 강함.
- **미국(뉴욕)** 동의 78.7%, 보통 17.4%, 반대 3.9%. 동의 다수, 중립도 일정 비중.
- **영국(런던)** 동의 79.9%, 보통 14.3%, 반대 5.9%. 동의가 높고 반대는 낮음.
- **프랑스(파리)** 동의 78.7%, 보통 12.1%, 반대 9.1%. 동의 높지만 반대가 상대적으로 큰 편.

아시아·서구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도쿄처럼 보통 응답이 큰 도시와 예루살렘·리야드처럼 반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서 격차 인식의 이질성이 눈에 띄며, 문화·정치·복지제도 및 언론 담론의 차이가 이러한 인식 분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크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크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동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뉴델리(동의 87.9%), 앙카라(89.0%), 자카르타(81.7%), 베이징(80.3%), 하노이(80.4%), 타이베이(78.3%), 뉴욕(78.9%), 런던(78.3%), 파리(79.3%), 서울(84.1%) 등에서 동의율이 매우 높다. 반대 비중은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지만, 예루살렘(반대 17.1%), 리야드(반대 11.9%)는 상대적으로 크다. 도쿄는 동의 63.9%, 보통 30.0%로 '보통' 응답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신중한 인식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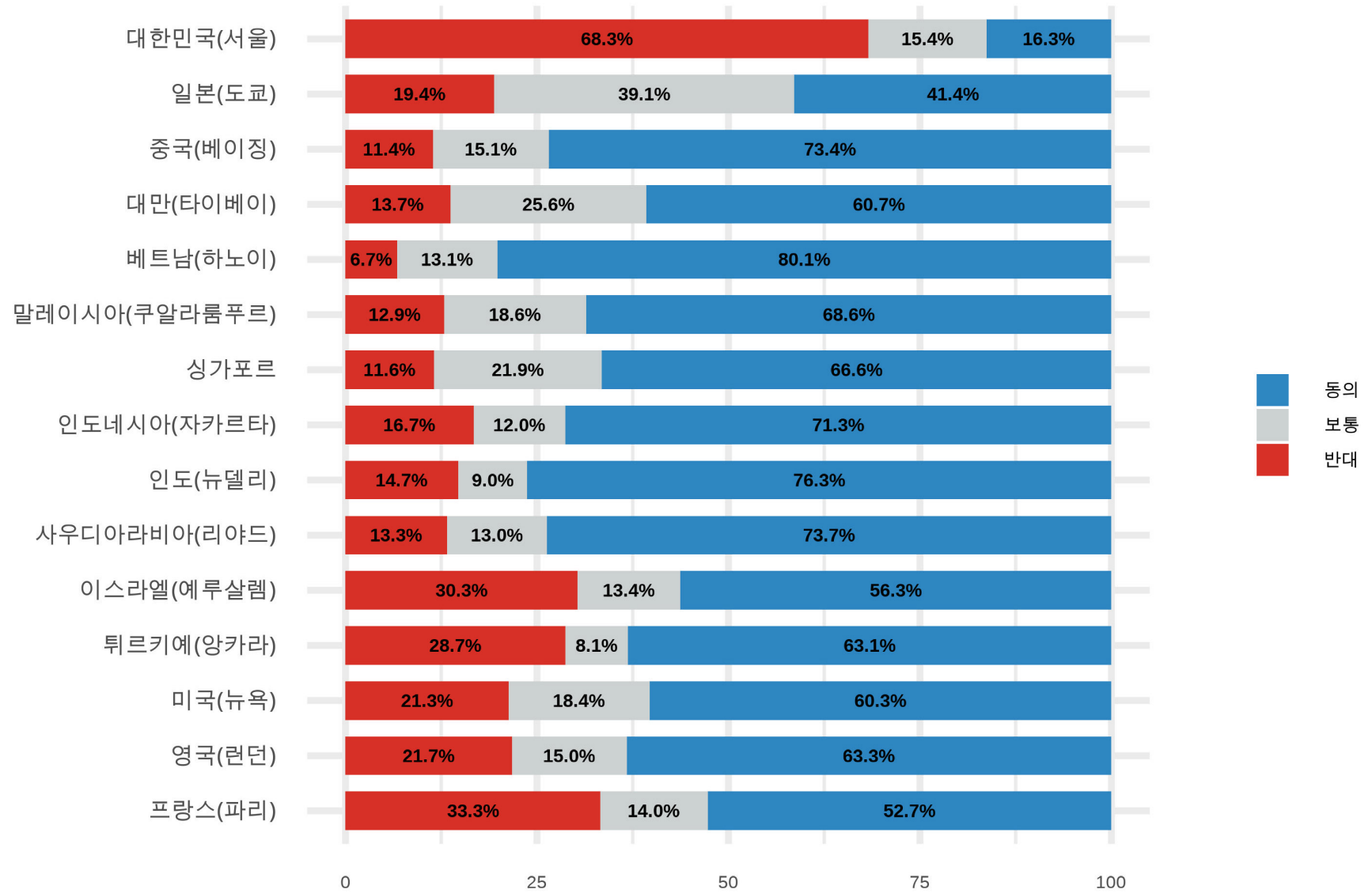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4.1%, 보통 10.3%, 반대 5.6%. 재산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일본(도쿄)** 동의 63.9%, 보통 30.0%, 반대 6.1%. 동의 다수지만 보통이 높아 유보적 성향.
- **중국(베이징)** 동의 80.3%, 보통 14.3%, 반대 5.4%. 격차 인식이 매우 강함.
- **대만(타이베이)** 동의 78.3%, 보통 19.1%, 반대 2.6%. 동의가 압도적.
- **베트남(하노이)** 동의 80.4%, 보통 14.9%, 반대 4.7%. 강한 동의.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9%, 보통 22.4%, 반대 7.7%. 동의 다수, 중립도 상당.
- **싱가포르** 동의 73.7%, 보통 20.3%, 반대 6.0%. 동의 우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1.7%, 보통 13.0%, 반대 5.3%. 동의 매우 높음.
- **인도(뉴델리)** 동의 87.9%, 보통 8.1%, 반대 4.0%. 표본 최상위권의 동의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2.4%, 보통 15.7%, 반대 11.9%. 동의 다수이나 반대 비중이 비교적 큼.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5.0%, 보통 17.9%, 반대 17.1%.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아 의견 분화.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0%, 보통 5.4%, 반대 5.6%. 최상위권의 동의율.
- **미국(뉴욕)** 동의 78.9%, 보통 15.6%, 반대 5.6%. 동의 압도적.
- **영국(런던)** 동의 78.3%, 보통 13.9%, 반대 7.9%. 동의 우세.
- **프랑스(파리)** 동의 79.3%, 보통 12.4%, 반대 8.3%. 강한 동의.

요약하면, 아시아와 서구 대부분 도시에서 재산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다. 예루살렘과 리야드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크고, 도쿄는 보통 비중이 높아 판단 유보가 두드러진다. 대체로 소득 격차(Q20_3) 인식과 유사하게 재산 격차에 대한 체감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의 교육 기회가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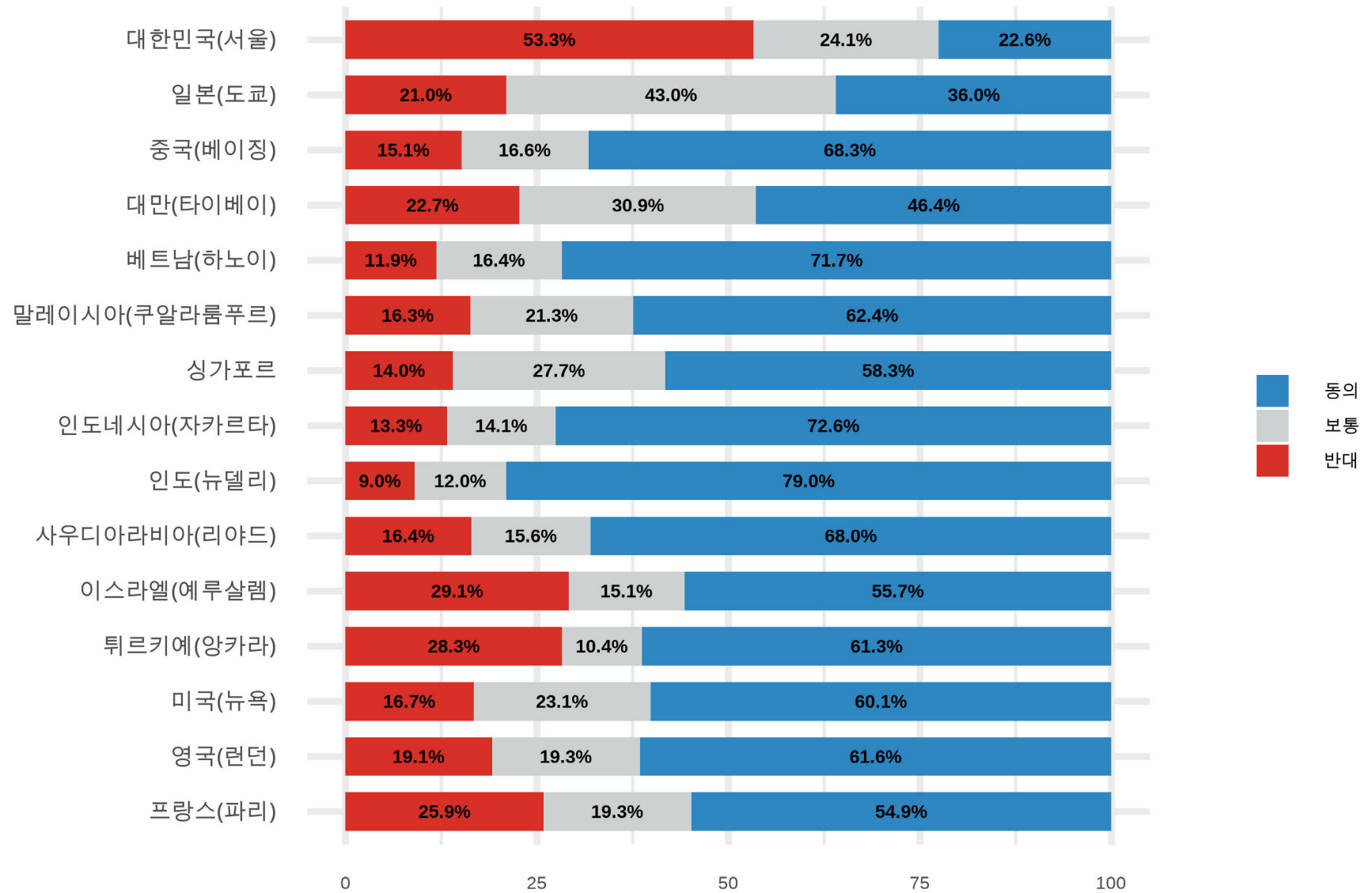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의 교육 기회가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어 **교육 기회의 평등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인식이 우세하다. 특히 하노이(80.1%), 뉴델리(76.3%), 베이징(73.4%), 리야드(73.7%), 자카르타(71.3%) 등은 동의율이 매우 높다. 반면 서울은 '반대'가 68.3%로 압도적이며, 예루살렘(반대 30.3%), 앙카라(반대 28.7%), 파리(반대 33.3%), 뉴욕(반대 21.3%) 등도 부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쿄는 동의 41.4%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보통(39.1%)이 높아 평가가 유보적이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반대 68.3%, 보통 15.4%, 동의 16.3%. 표본 중 가장 강한 '불평등' 인식.
- **일본(도쿄)** 동의 41.4%, 보통 39.1%, 반대 19.4%. 유보적 응답이 커 균등성 판단이 엇갈림.
- **중국(베이징)** 동의 73.4%, 보통 15.1%, 반대 11.4%. 교육 기회가 비교적 균등하다고 인식.
- **대만(타이베이)** 동의 60.7%, 보통 25.6%, 반대 13.7%. 긍정 우세, 중립 비중도 큼.
- **베트남(하노이)** 동의 80.1%, 보통 13.1%, 반대 6.7%. 표본 최상위권의 낙관적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6%, 보통 18.6%, 반대 12.9%. 긍정 다수.
- **싱가포르** 동의 66.6%, 보통 21.9%, 반대 11.6%. 긍정 우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1.3%, 보통 12.0%, 반대 16.7%. 긍정이 크나 반대로 두 자릿수.
- **인도(뉴델리)** 동의 76.3%, 보통 9.0%, 반대 14.7%. 매우 높은 동의율.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3.7%, 보통 13.0%, 반대 13.3%. 긍정이 강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6.3%, 보통 13.4%, 반대 30.3%. 부정 비중이 크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63.1%, 보통 8.1%, 반대 28.7%. 긍정 과반이나 반대가 높아 분화.
- **미국(뉴욕)** 동의 60.3%, 보통 18.4%, 반대 21.3%. 긍정 우세하나 반대로 눈에 띈.
- **영국(런던)** 동의 63.3%, 보통 15.0%, 반대 21.7%. 긍정 우세, 반대가 두 자릿수.
- **프랑스(파리)** 동의 52.7%, 보통 14.0%, 반대 33.3%. 긍정이 근소 우세하나 부정 비중이 큼.

요약하면, 다수 도시에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균등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서울과 일부 서구·중동 도시는 불평등 인식이 강하다. '보통'이 큰 도시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체감 간의 간극, 지역·학교 간 격차에 대한 상반된 경험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승진과 승급이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실력으로 결정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으며, **승진·승급의 결정 요인으로 개인 실력을 신뢰**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뉴델리(동의 79.0%), 하노이(71.7%), 자카르타(72.6%), 베이징(68.3%) 등은 특히 동의율이 높다. 반면 서울은 반대가 53.3%로 동의(22.6%)를 크게 상회해 가장 비판적인 도시다. 도쿄는 동의 36.0%, 보통 43.0%로 유보적 응답이 가장 높다. 서구권(뉴욕 60.1%, 런던 61.6%, 파리 54.9%)과 중동 일부(리야드 68.0%, 예루살렘 55.7%)는 대체로 동의가 과반이지만, 반대 비중(약 16~26%)도 무시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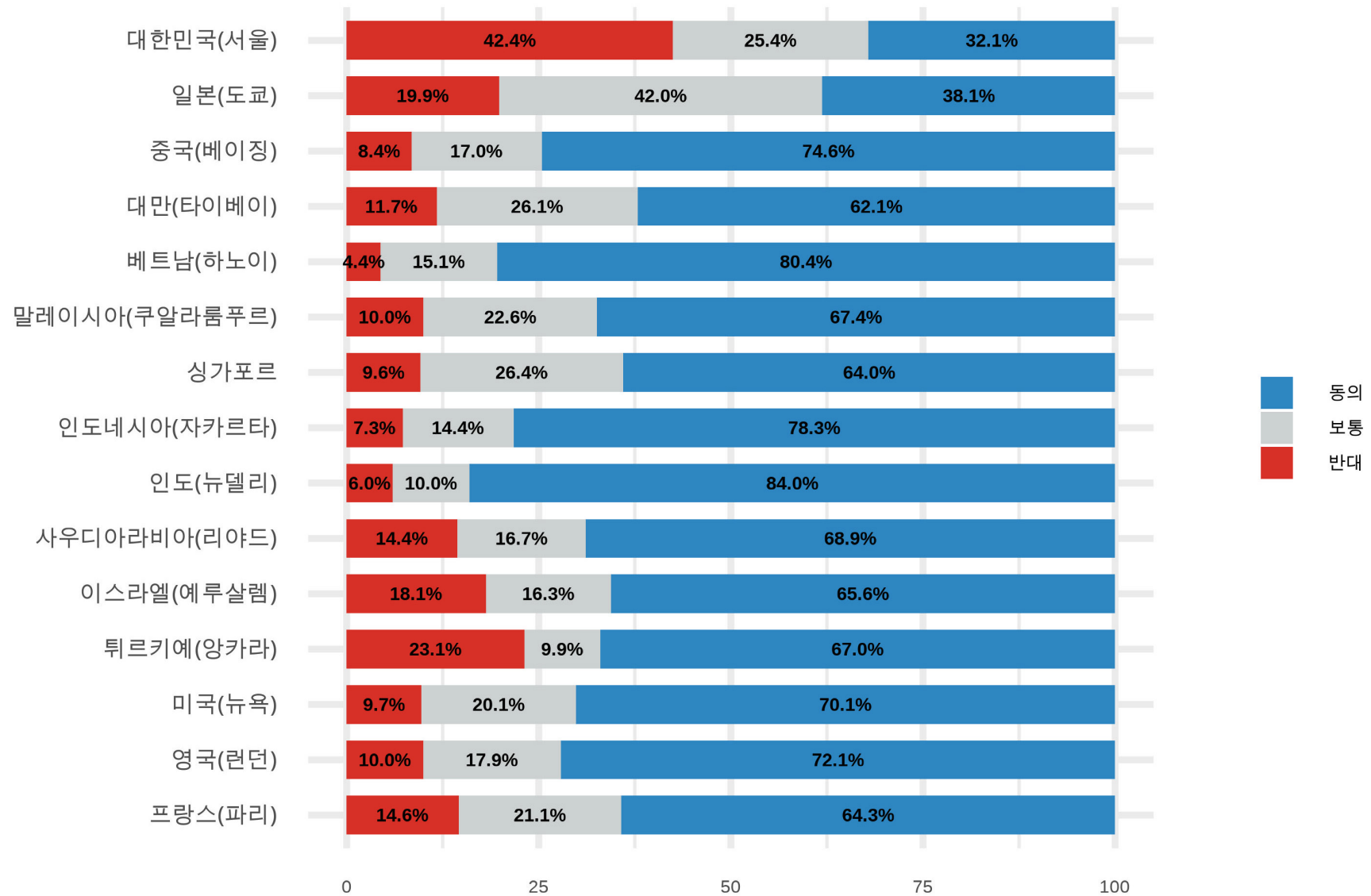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반대 53.3%, 보통 24.1%, 동의 22.6%. 실력보다는 배경 영향 인식이 우세.
- **일본(도쿄)** 반대 21.0%, 보통 43.0%, 동의 36.0%. 유보적 응답 비중이 가장 큼.
- **중국(베이징)** 반대 15.1%, 보통 16.6%, 동의 68.3%. 실력 결정 신뢰가 강함.
- **대만(타이베이)** 반대 22.7%, 보통 30.9%, 동의 46.4%. 긍정이 우세하나 중립이 큼.
- **베트남(하노이)** 반대 11.9%, 보통 16.4%, 동의 71.7%. 강한 긍정.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반대 16.3%, 보통 21.3%, 동의 62.4%. 긍정 과반.
- **싱가포르** 반대 14.0%, 보통 27.7%, 동의 58.3%. 긍정 우세, 유보도 존재.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대 13.3%, 보통 14.1%, 동의 72.6%. 상위권의 동의율.
- **인도(뉴델리)** 반대 9.0%, 보통 12.0%, 동의 79.0%. 표본 최상위의 동의.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반대 16.4%, 보통 15.6%, 동의 68.0%. 긍정 강함.
- **이스라엘(예루살렘)** 반대 29.1%, 보통 15.1%, 동의 55.7%. 긍정 과반이나 반대도 큼.
- **튀르키예(앙카라)** 반대 28.3%, 보통 10.4%, 동의 61.3%. 긍정 과반, 반대가 높은 편.
- **미국(뉴욕)** 반대 16.7%, 보통 23.1%, 동의 60.1%. 긍정 우세.
- **영국(런던)** 반대 19.1%, 보통 19.3%, 동의 61.6%. 긍정 우세.
- **프랑스(파리)** 반대 25.9%, 보통 19.3%, 동의 54.9%. 긍정 과반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큼.

요약하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승진·승급은 실력 중심'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나, 서울은 정반대 양상이고 도쿄는 판단 유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내부 승진 제도, 네트워크·추천의 관행, 평가의 투명성 및 노동시장 이동성에 대한 **체감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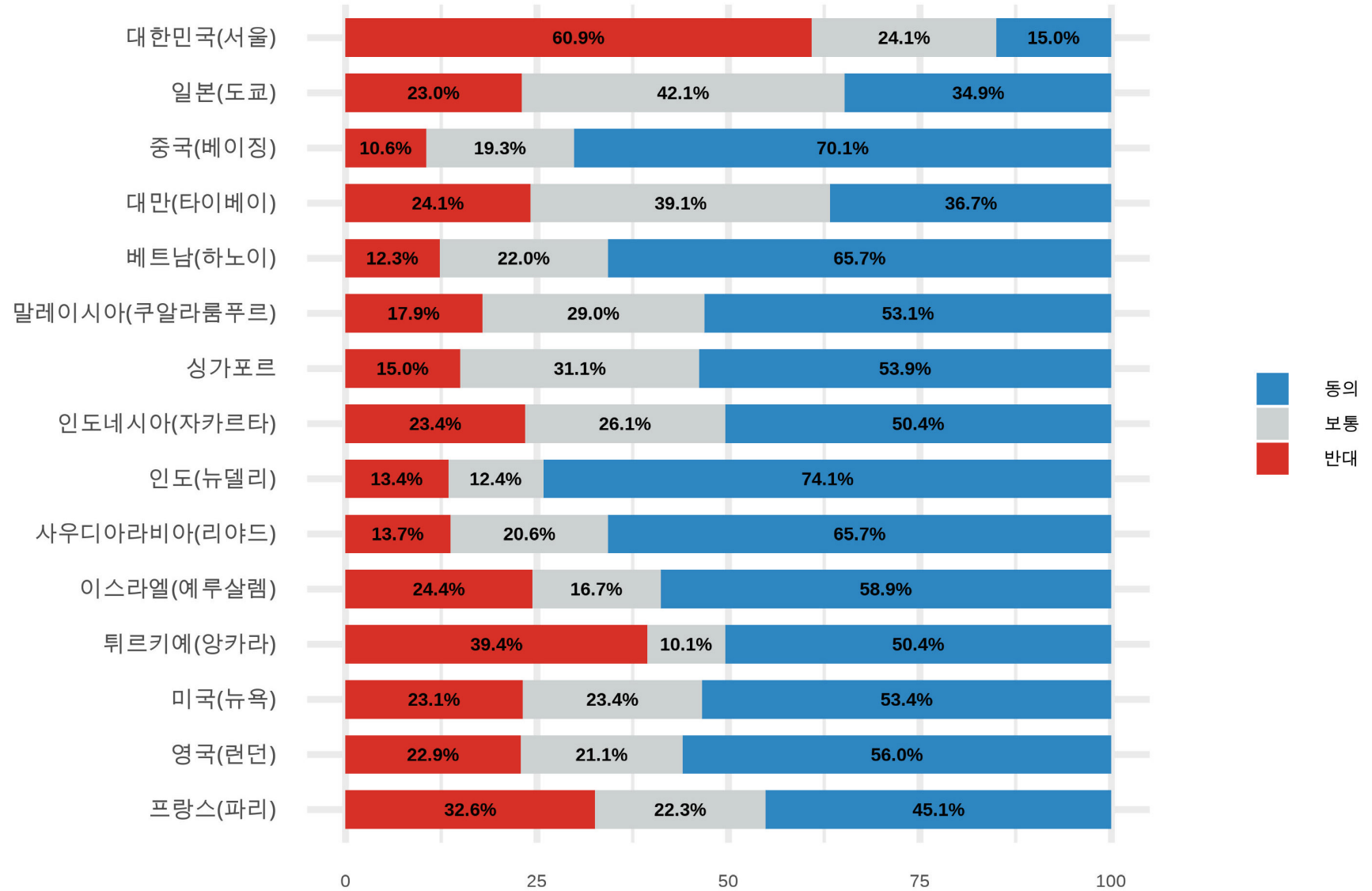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 비중이 크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어 ****상향적 고용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뉴델리(84.0%), 자카르타(78.3%), 베이징(74.6%), 런던(72.1%), 뉴욕(70.1%) 등이 상위권이다. 반면 서울은 반대(42.4%)가 동의(32.1%)보다 높아 표본 중 가장 비판적인 축에 속하며, 도쿄는 보통(42.0%)과 동의(38.1%)가 비슷해 ****유보적**** 인식이 두드러진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반대 42.4%, 보통 25.4%, 동의 32.1%. 비정규→정규 전환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우세.
- **일본(도쿄)** 반대 19.9%, 보통 42.0%, 동의 38.1%. '가능/불가능' 단정 대신 유보가 가장 큼.
- **중국(베이징)** 반대 8.4%, 보통 17.0%, 동의 74.6%.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높음.
- **대만(타이베이)** 반대 11.7%, 보통 26.1%, 동의 62.1%. 과반 동의이나 중립도 적지 않음.
- **베트남(하노이)** 반대 4.4%, 보통 15.1%, 동의 80.4%. 매우 낙관적.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반대 10.0%, 보통 22.6%, 동의 67.4%. 긍정 우세.
- **싱가포르** 반대 9.6%, 보통 26.4%, 동의 64.0%. 긍정이지만 유보도 존재.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대 7.3%, 보통 14.4%, 동의 78.3%. 상위권의 높은 동의.
- **인도(뉴델리)** 반대 6.0%, 보통 10.0%, 동의 84.0%. 표본 내 최고 수준의 동의.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반대 14.4%, 보통 16.7%, 동의 68.9%. 긍정 강함.
- **이스라엘(예루살렘)** 반대 18.1%, 보통 16.3%, 동의 65.6%. 긍정 다수이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큼.
- **튀르키예(앙카라)** 반대 23.1%, 보통 9.9%, 동의 67.0%. 긍정 과반이나 반대가 큰 편.
- **미국(뉴욕)** 반대 9.7%, 보통 20.1%, 동의 70.1%.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높음.
- **영국(런던)** 반대 10.0%, 보통 17.9%, 동의 72.1%. 상위권의 동의율.
- **프랑스(파리)** 반대 14.6%, 보통 21.1%, 동의 64.3%. 긍정 과반.

요약하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고용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강하지만, 서울처럼 비판적 인식이 우세하거나 도쿄처럼 유보가 큰 도시도 존재한다. 이 차이는 노동시장 제도, 내부 전환 경로의 가시성, 외부 채용 관행, 경력개발 인프라에 대한 경험·기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동의(파란색), 보통(회색), 반대(빨간색) 비율로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의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지만, 도시 간 인식 격차가 크다. 뉴델리(동의 74.1%), 베이징(70.1%), 하노이·리야드(각 65.7%), 런던(56.0%) 등은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다. 반면 서울은 반대가 60.9%로 압도적이며, 앙카라(반대 39.4%), 파리(반대 32.6%), 예루살렘(반대 24.4%), 뉴욕(반대 23.1%) 등도 부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도쿄는 동의 34.9%, 보통 42.1%로 유보가 가장 큰 편이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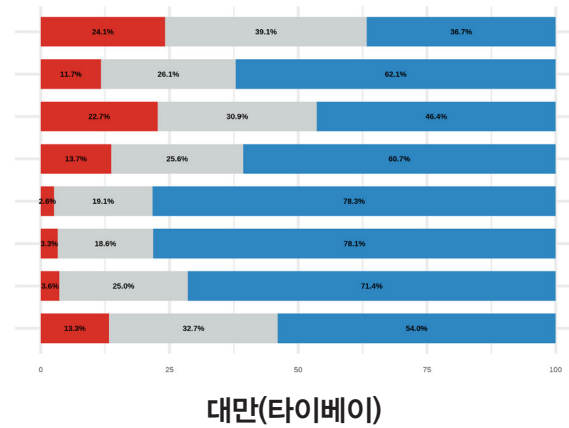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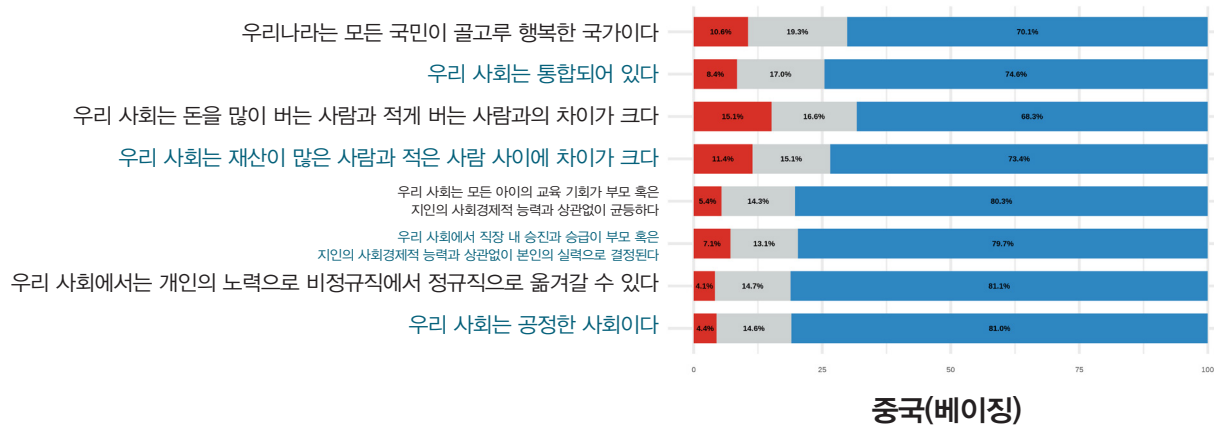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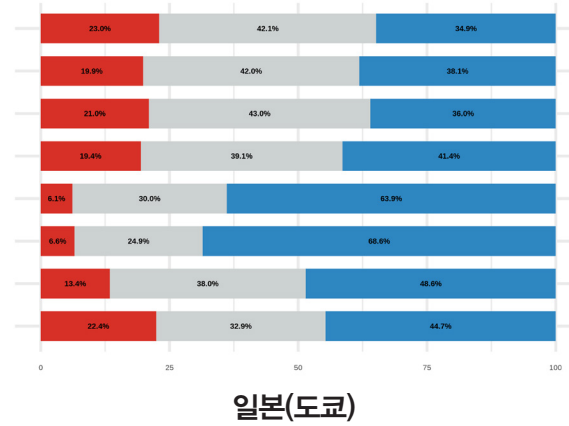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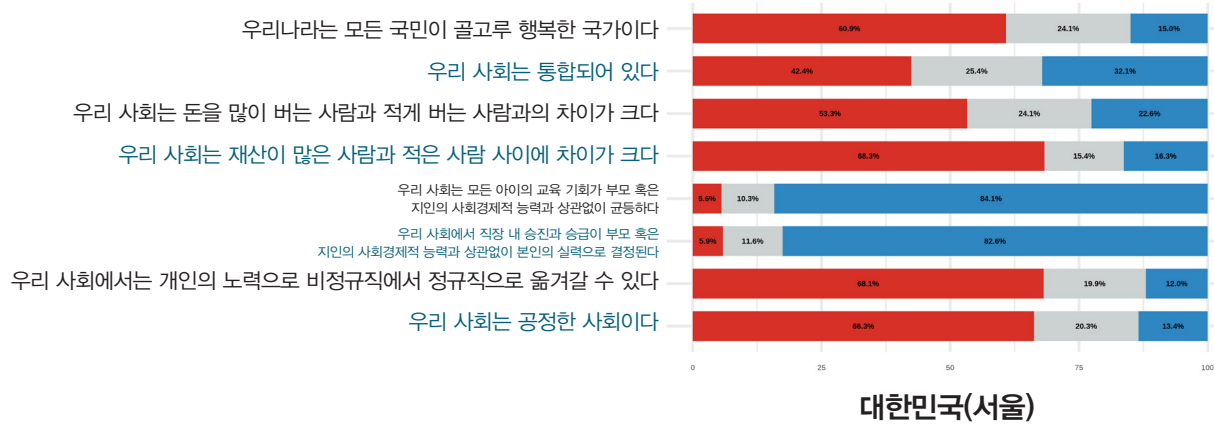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반대 60.9%, 보통 24.1%, 동의 15.0%. 표본 중 공정성에 가장 비판적.
- **일본(도쿄)** 반대 23.0%, 보통 42.1%, 동의 34.9%. 유보 비중이 가장 높아 평가가 신중함.
- **중국(베이징)** 반대 10.6%, 보통 19.3%, 동의 70.1%.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음.
- **대만(타이베이)** 반대 24.1%, 보통 39.1%, 동의 36.7%. 긍·부정이 엇비슷하고 중립이 큼.
- **베트남(하노이)** 반대 12.3%, 보통 22.0%, 동의 65.7%. 강한 긍정.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반대 17.9%, 보통 29.0%, 동의 53.1%. 긍정 과반.
- **싱가포르** 반대 15.0%, 보통 31.1%, 동의 53.9%. 긍정 우세하나 유보도 존재.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대 23.4%, 보통 26.1%, 동의 50.4%. 긍정 과반이나 반대도 큼.
- **인도(뉴델리)** 반대 13.4%, 보통 12.4%, 동의 74.1%. 표본 내 최고 수준의 동의.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반대 13.7%, 보통 20.6%, 동의 65.7%. 긍정 강함.
- **이스라엘(예루살렘)** 반대 24.4%, 보통 16.7%, 동의 58.9%. 긍정 과반이나 반대가 큼.
- **튀르키예(앙카라)** 반대 39.4%, 보통 10.1%, 동의 50.4%. 동의가 과반이지만 반대가 매우 큼.
- **미국(뉴욕)** 반대 23.1%, 보통 23.4%, 동의 53.4%. 긍정 우세.
- **영국(런던)** 반대 22.9%, 보통 21.1%, 동의 56.0%. 긍정 과반.
- **프랑스(파리)** 반대 32.6%, 보통 22.3%, 동의 45.1%. 긍정이 과반 미달, 부정 비중이 큼.

요약하면, 다수 도시에서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우세하지만, 서울·앙카라·파리 등에서는 부정 인식이 높아 도시별 경험과 제도 신뢰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통’ 응답이 큰 도시는 공정성 판단 기준이 다양하거나 상반된 경험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Q.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북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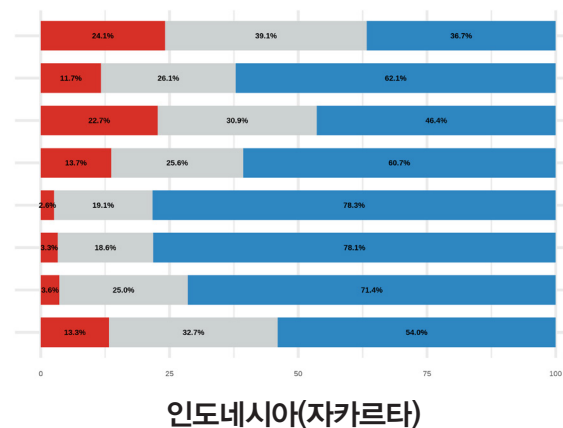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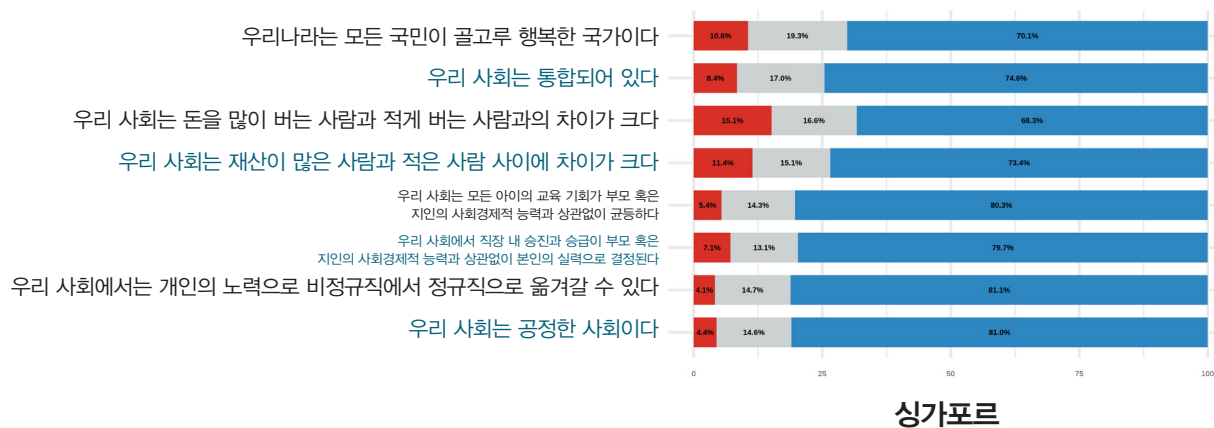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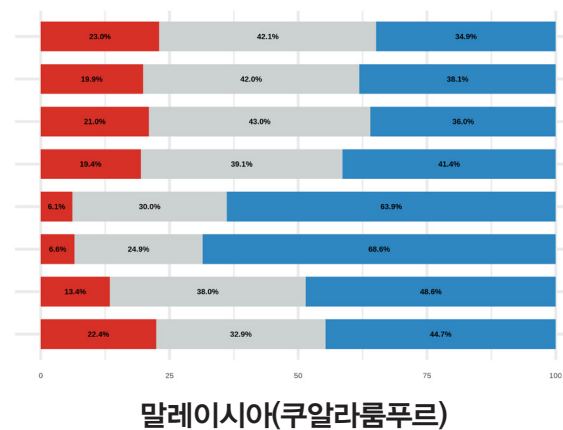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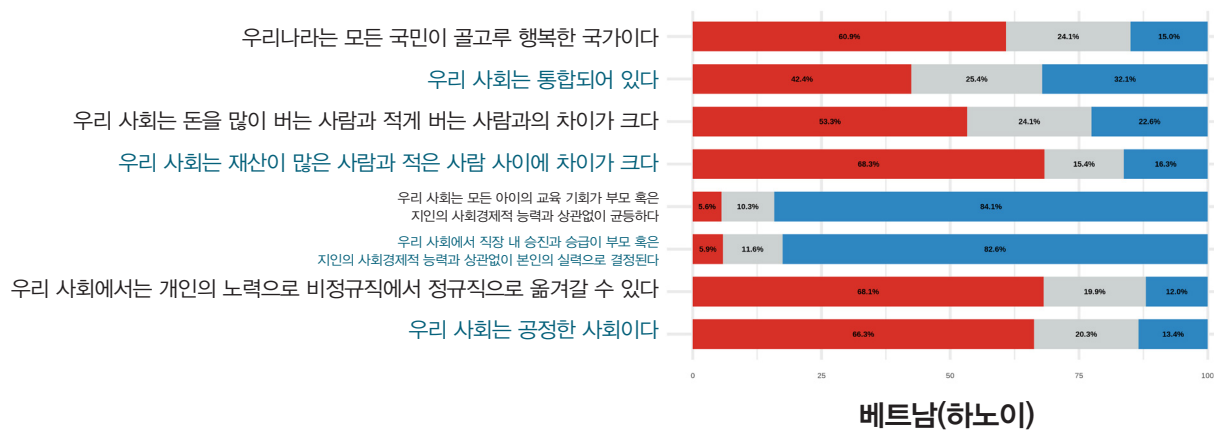


동의
보통
반대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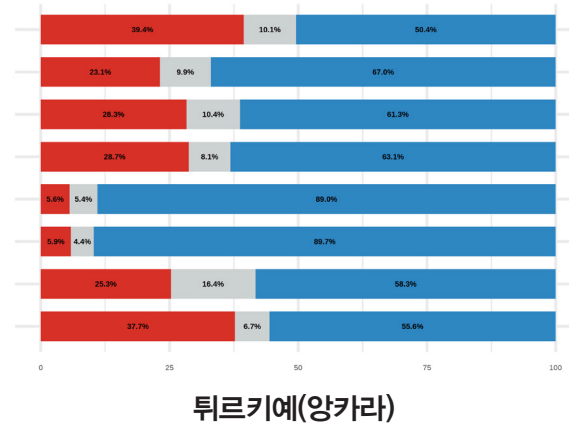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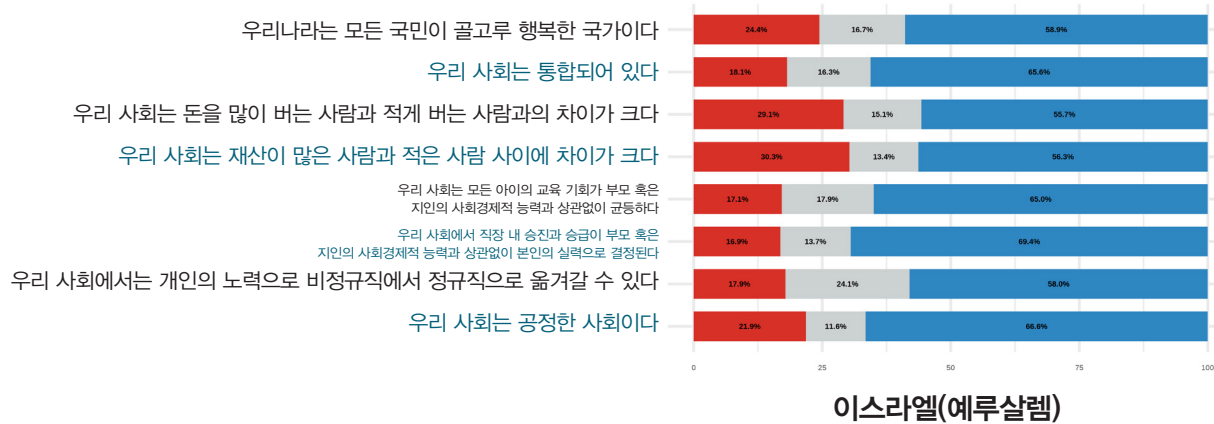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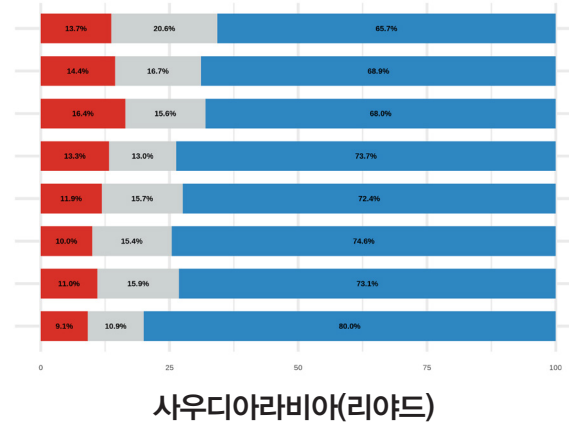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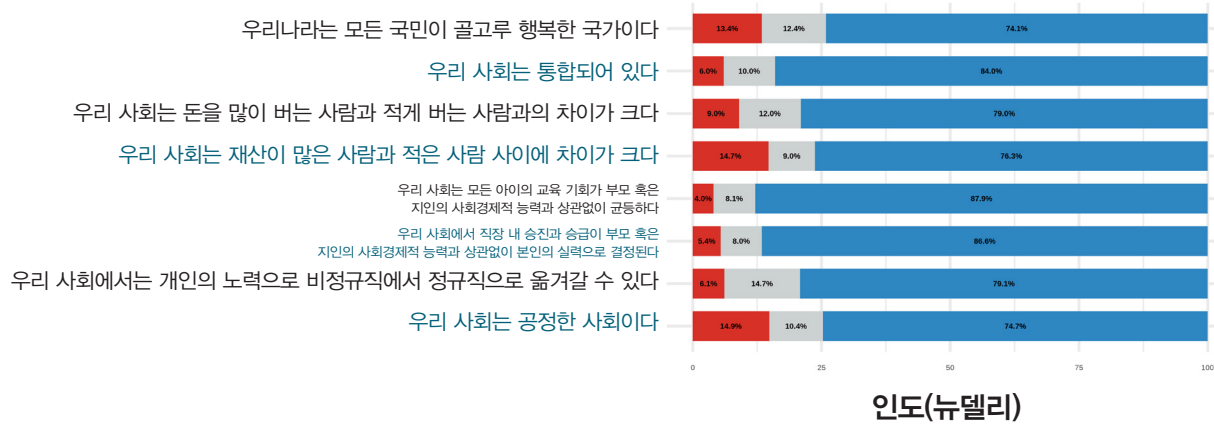


동의
보통
반대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서·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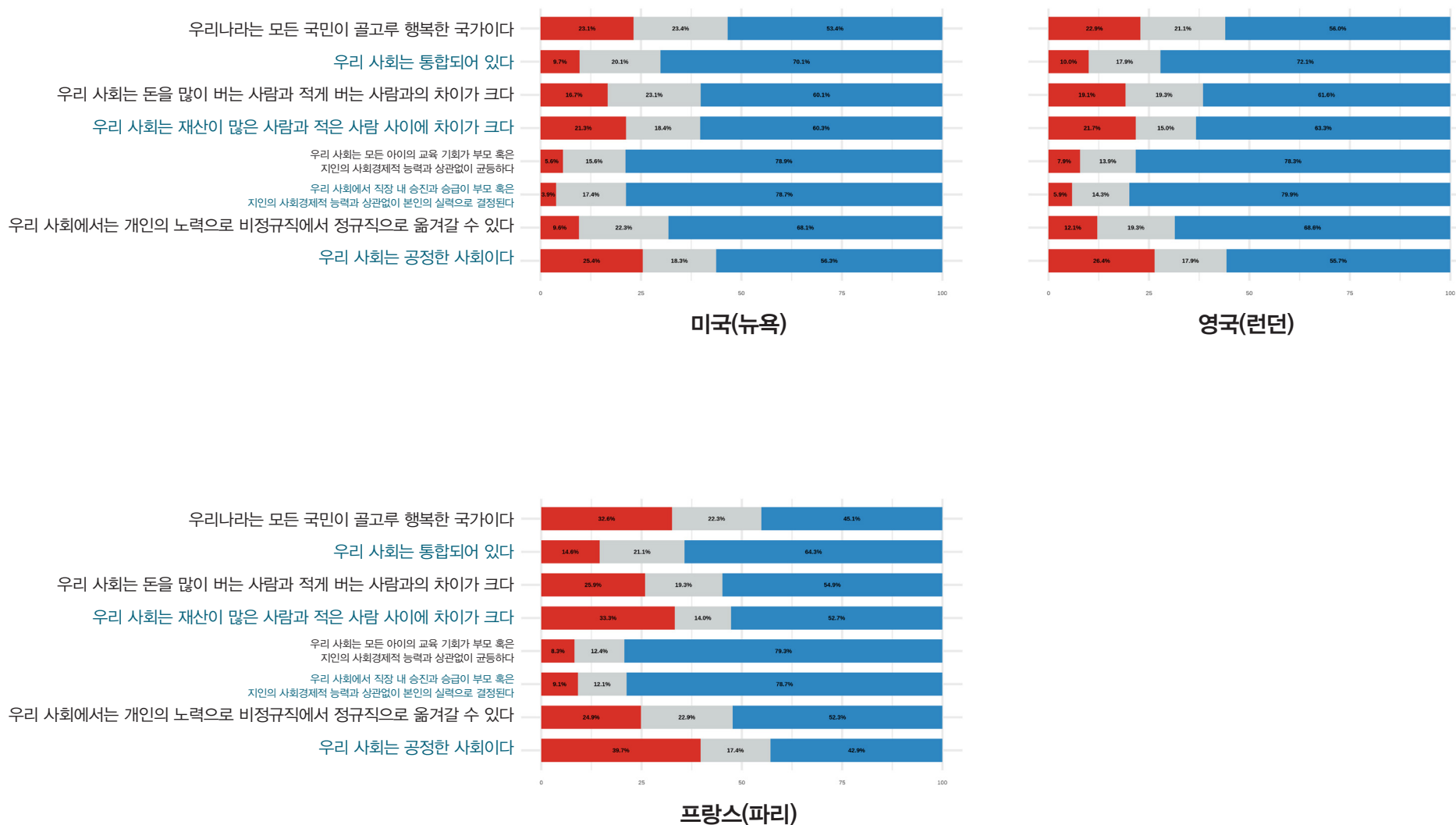


동의
보통
반대



Q.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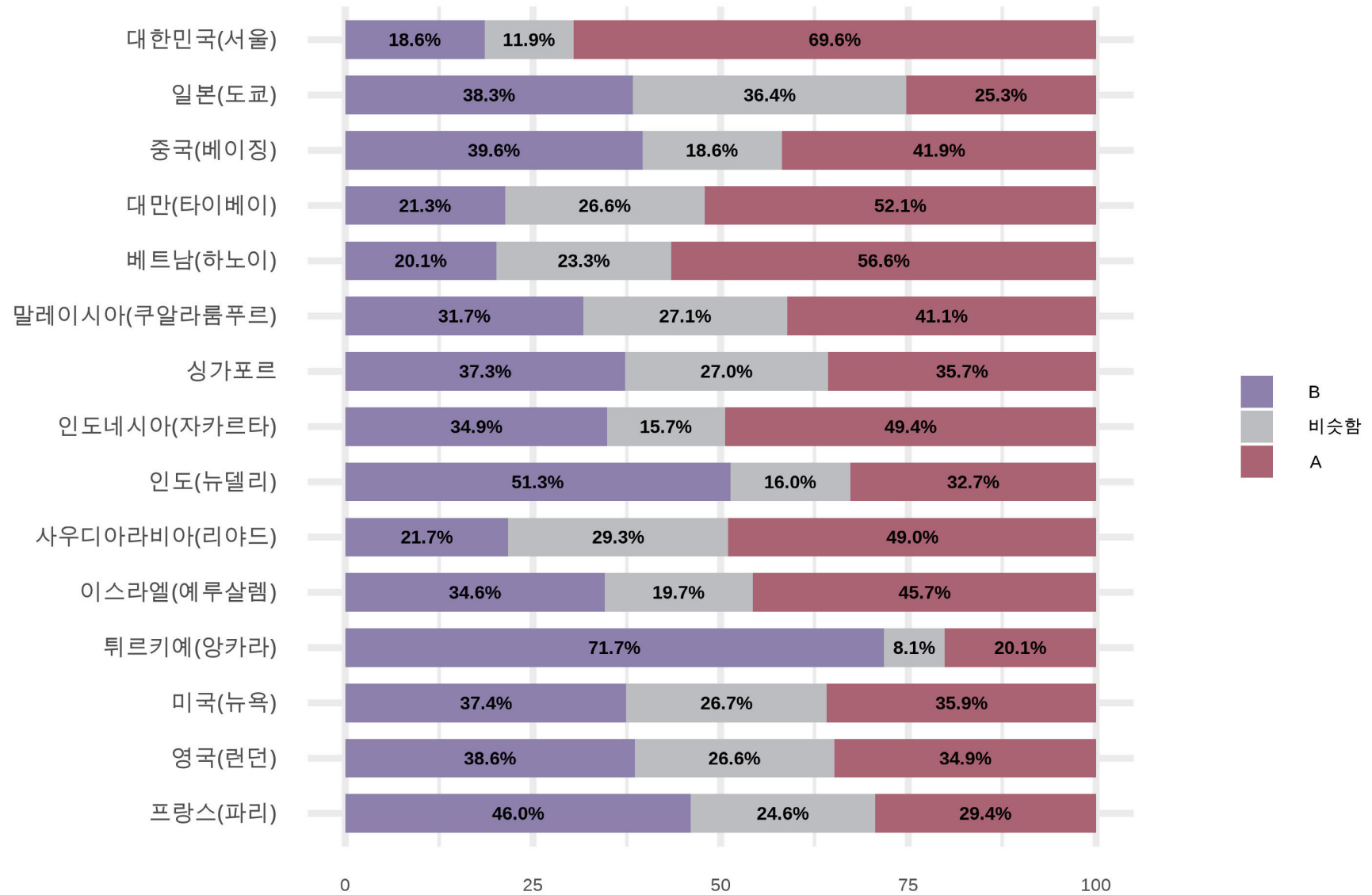
서구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A: 소득이 더 평등해야 한다

B: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야 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소득은 더 평등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더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범례에서 B는 ‘소득은 더 평등해야 함(평등 지향)’, A는 ‘노력/성과 반영(공정·능력 지향)’, 회색은 ‘둘 다 비슷’ 의견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동남·동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는 ‘노력/성과 반영(A)’이 다수이고, 일부 도시에서는 ‘평등 지향(B)’이 우세합니다. 특히 서울(69.6%), 하노이(56.6%), 타이베이(52.1%), 자카르타(49.4%), 리야드(49.0%), 예루살렘(45.7%)은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앙카라(71.7%), 뉴델리(51.3%), 파리(46.0%)는 소득의 평등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다. 도쿄와 싱가포르, 뉴욕, 런던은 세 입장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도시 내 의견 다양성이 드러난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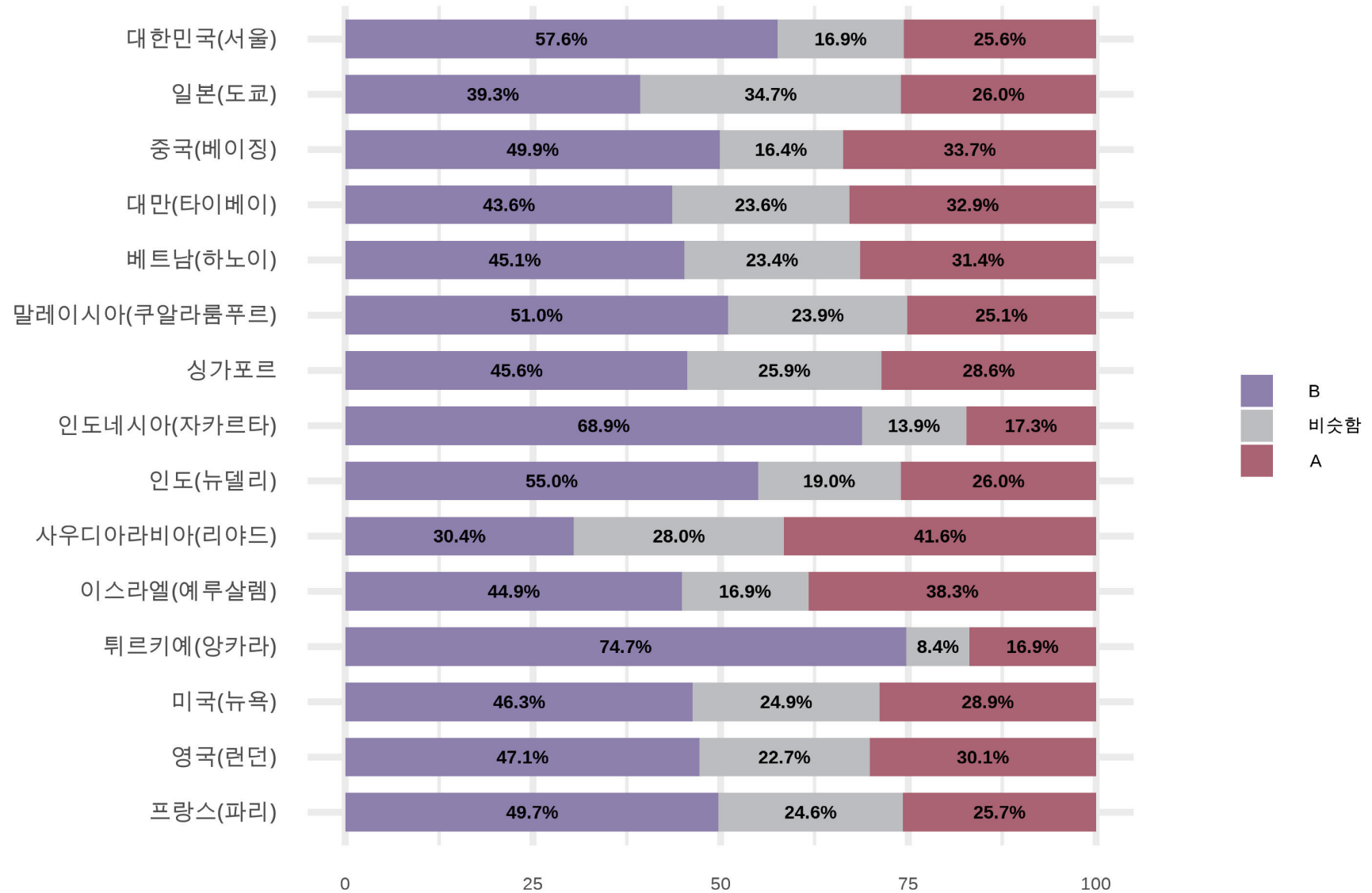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B 18.6%, 비슷 11.9%, A 69.6%. 능력·성과를 강하게 중시.
- **일본(도쿄)** B 38.3%, 비슷 36.4%, A 25.3%. 세 입장이 고르게 분포하나 평등 지향이 근소 우세.
- **중국(베이징)** B 39.6%, 비슷 18.6%, A 41.9%. 능력 지향이 소폭 우세.
- **대만(타이베이)** B 21.3%, 비슷 26.6%, A 52.1%. 능력 지향이 과반.
- **베트남(하노이)** B 20.1%, 비슷 23.3%, A 56.6%. 능력 지향이 강함.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B 31.7%, 비슷 27.1%, A 41.1%. 능력 지향 우세.
- **싱가포르** B 37.3%, 비슷 27.0%, A 35.7%. 평등과 능력 지향이 비슷하나 평등이 근소 우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B 34.9%, 비슷 15.7%, A 49.4%. 능력 지향이 우세.
- **인도(뉴델리)** B 51.3%, 비슷 16.0%, A 32.7%. 평등 지향이 과반.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B 21.7%, 비슷 29.3%, A 49.0%. 능력 지향이 뚜렷.
- **이스라엘(예루살렘)** B 34.6%, 비슷 19.7%, A 45.7%. 능력 지향 우세.
- **튀르키예(앙카라)** B 71.7%, 비슷 8.1%, A 20.1%. 표본 중 가장 강한 평등 지향.
- **미국(뉴욕)** B 37.4%, 비슷 26.7%, A 35.9%. 평등과 능력 지향이 비슷.
- **영국(런던)** B 38.6%, 비슷 26.6%, A 34.9%. 평등 지향이 소폭 우세.
- **프랑스(파리)** B 46.0%, 비슷 24.6%, A 29.4%. 평등 지향이 뚜렷.

요약하면, ‘소득 분배의 기준’에 대해 도시 간 균열이 분명하다. 서울·하노이·타이베이·자카르타 등은 성과·능력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앙카라·뉴델리·파리는 평등을 더 중시한다. 도쿄·싱가포르·뉴욕·런던은 ‘둘 다 비슷’이 커 상황·영역별로 상이한 규범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A: 정부가 복지를 더 책임져야 한다

B: 개인이 각자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복지 책임을 누가 더 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범례에서 B는 '정부가 더 책임져야 한다', A는 '개인이 더 책임져야 한다', 회색은 '둘 다 비슷'의 견을 뜻한다. 각 막대의 비율은 도시별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다수 도시에서 '정부 책임(B)'이 과반이거나 최다 응답으로 나타나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 선호**가 우세하다. 자카르타(B 68.9%), 앙카라(B 74.7%), 서울(B 57.6%), 뉴델리(B 55.0%), 쿠알라룸푸르(B 51.0%) 등은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대로 리야드(A 41.6%)와 예루살렘(A 38.3%)은 '개인 책임(A)'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개인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도쿄는 '둘 다 비슷'(34.7%)이 커 판단 유보형 인식이 특징적이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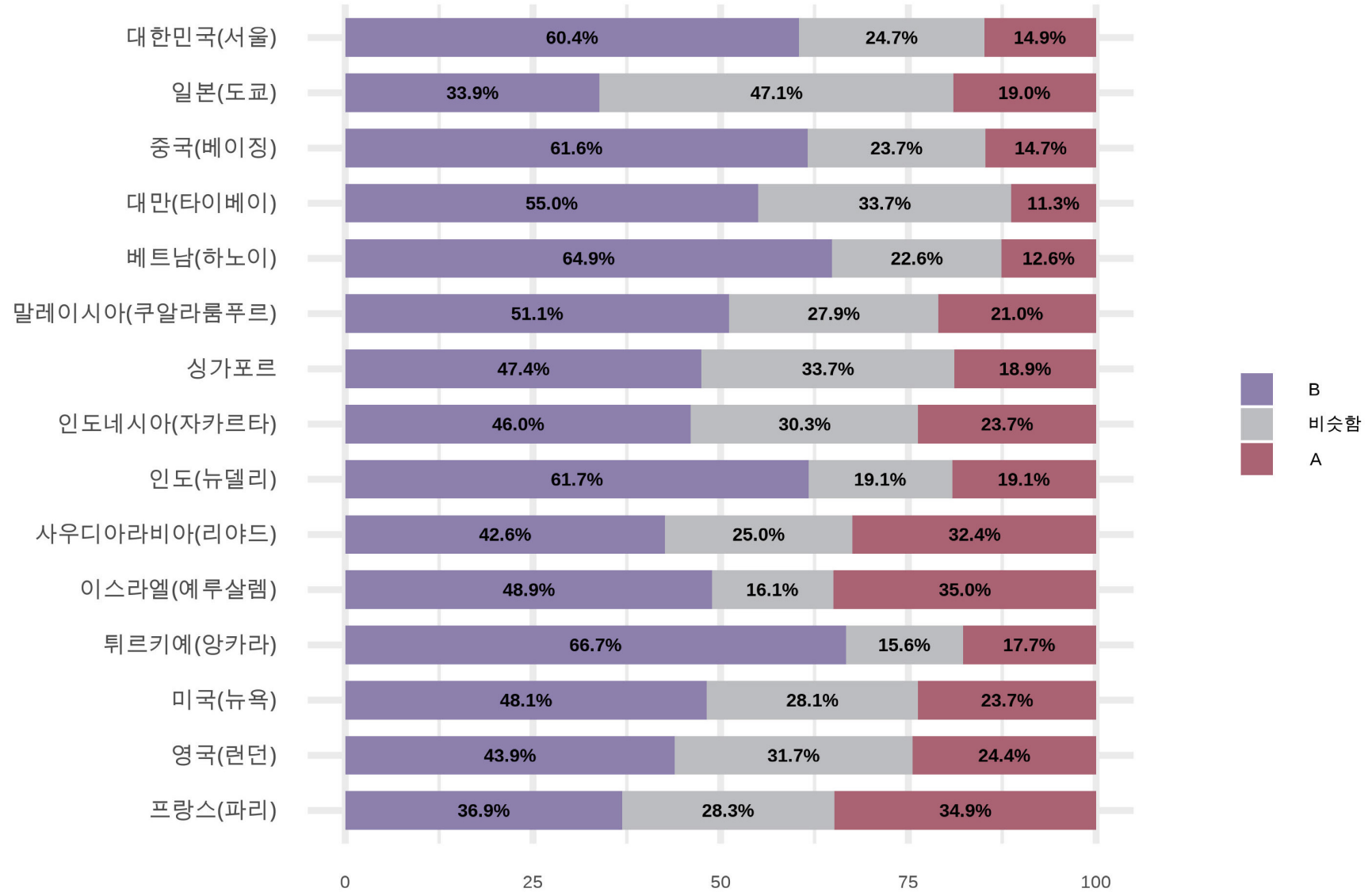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B 57.6%, 비슷 16.9%, A 25.6%. 정부 역할 선호가 뚜렷하다.
- **일본(도쿄)** B 39.3%, 비슷 34.7%, A 26.0%. 양측을 균형적으로 보거나 유보하는 응답이 큼.
- **중국(베이징)** B 49.9%, 비슷 16.4%, A 33.7%. 정부 선호가 앞서지만 개인 책임 인식도 높다.
- **대만(타이베이)** B 43.6%, 비슷 23.6%, A 32.9%. 혼합적 인식, 개인 책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베트남(하노이)** B 45.1%, 비슷 23.4%, A 31.4%. 정부 선호가 우세.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B 51.0%, 비슷 23.9%, A 25.1%. 정부 책임 과반.
- **싱가포르** B 45.6%, 비슷 25.9%, A 28.6%. 정부 선호이나 개인·유보도 적지 않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B 68.9%, 비슷 13.9%, A 17.3%. 표본 상위권의 정부 책임 선호.
- **인도(뉴델리)** B 55.0%, 비슷 19.0%, A 26.0%. 정부 선호가 뚜렷.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B 30.4%, 비슷 28.0%, A 41.6%. 개인 책임 선호가 다수.
- **이스라엘(예루살렘)** B 44.9%, 비슷 16.9%, A 38.3%. 개인 책임 응답이 높아 분화된 인식.
- **튀르키예(앙카라)** B 74.7%, 비슷 8.4%, A 16.9%. 정부 책임 선호가 압도적.
- **미국(뉴욕)** B 46.3%, 비슷 24.9%, A 28.9%. 정부 선호이나 개인 책임 응답도 유의미.
- **영국(런던)** B 47.1%, 비슷 22.7%, A 30.1%. 정부 선호가 앞서나 개인 책임도 큼.
- **프랑스(파리)** B 49.7%, 비슷 24.6%, A 25.7%. 정부 책임이 근소 우세.

요약하면, 아시아·서구 다수 도시에서 복지의 주된 주체로 정부를 선호하지만, 리야드와 예루살렘처럼 개인 책임을 더 중시하는 도시도 존재한다. '둘 다 비슷'이 큰 도시는 정부-개인의 역할 분담에 대한 다층적 기준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A: 경쟁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다

B: 경쟁은 개인과 사회에 해롭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경쟁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범례에서 B는 '경쟁이 유익하다', A는 '경쟁이 유해하다', 회색은 '둘 다 비슷' 의견을 드러낸다. 각 막대의 비율은 도시별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경쟁 유익(B)' 응답이 최다이며 과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한다. 앙카라(66.7%), 하노이(64.9%), 베이징(61.6%), 뉴델리(61.7%), 서울(60.4%)은 '경쟁을 긍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파리(B 36.9%, A 34.9%)와 런던(B 43.9%, A 24.4%)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과 높은 유해 인식을 보여 서구 일부 도시에서 경쟁에 대한 회의가 더 큼을 시사한다. 리야드(B 42.6%, A 32.4%), 예루살렘(B 48.9%, A 35.0%)도 부정 비중이 큰 편이다. 도쿄는 '둘 다 비슷'(47.1%)이 가장 높아 평가가 유보적이다.

도시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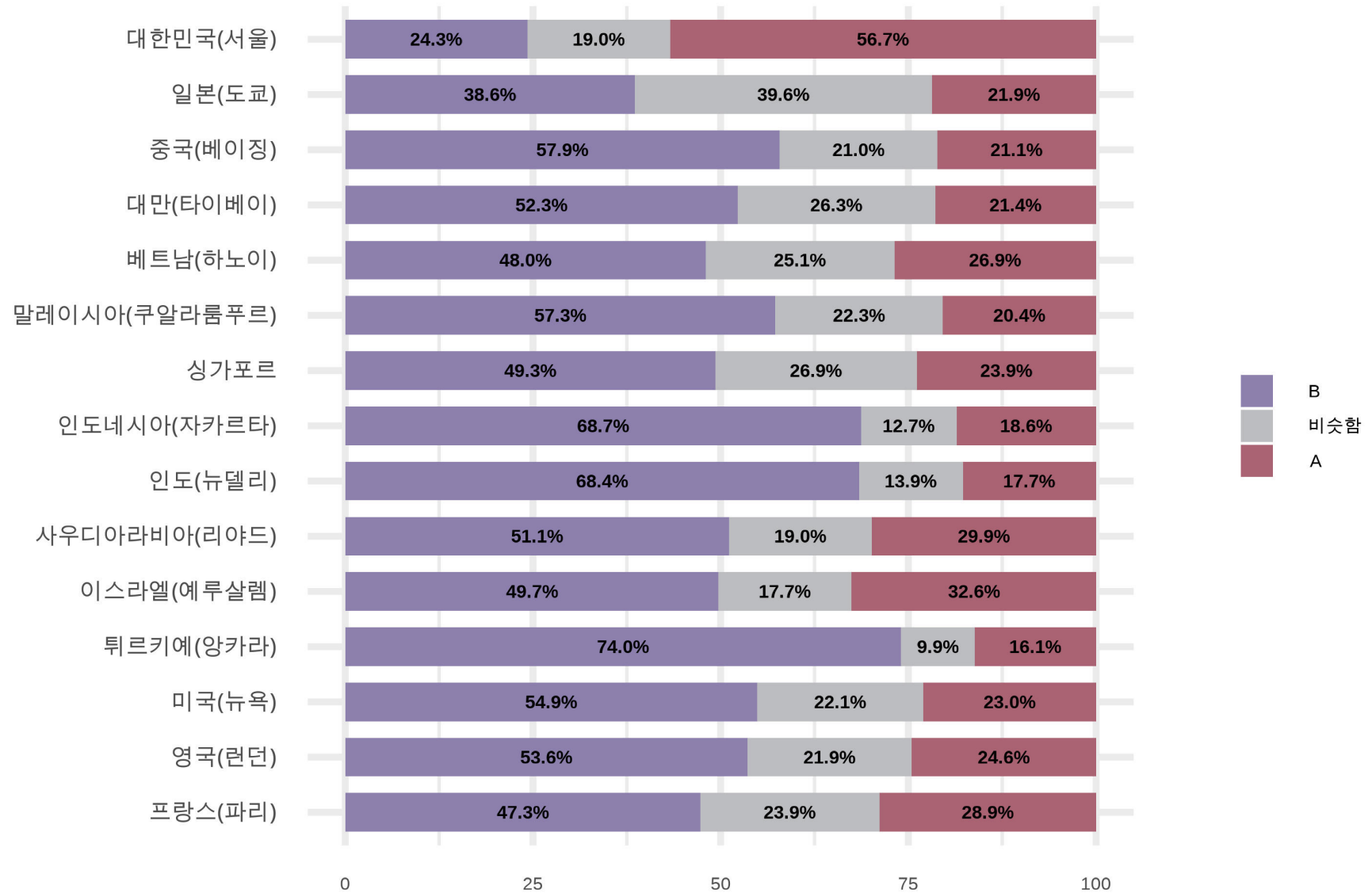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울)** B 60.4%, 비슷 24.7%, A 14.9%. 경쟁의 효용을 분명히 긍정.
- **일본(도쿄)** B 33.9%, 비슷 47.1%, A 19.0%. 유보적 인식이 가장 큼.
- **중국(베이징)** B 61.6%, 비슷 23.7%, A 14.7%. 강한 긍정.
- **대만(타이베이)** B 55.0%, 비슷 33.7%, A 11.3%. 긍정 우세, 중립도 큼.
- **베트남(하노이)** B 64.9%, 비슷 22.6%, A 12.6%. 표본 상위권의 긍정.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B 51.1%, 비슷 27.9%, A 21.0%. 긍정 과반.
- **싱가포르** B 47.4%, 비슷 33.7%, A 18.9%. 긍정이 우세하나 유보도 큼.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B 46.0%, 비슷 30.3%, A 23.7%. 긍정이 근소 우세.
- **인도(뉴델리)** B 61.7%, 비슷 19.1%, A 19.1%. 강한 긍정.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B 42.6%, 비슷 25.0%, A 32.4%. 부정 비중이 높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B 48.9%, 비슷 16.1%, A 35.0%. 긍정·부정이 첨예하게 갈림.
- **튀르키예(앙카라)** B 66.7%, 비슷 15.6%, A 17.7%. 최상위의 긍정.
- **미국(뉴욕)** B 48.1%, 비슷 28.1%, A 23.7%. 혼합적이나 긍정 우세.
- **영국(런던)** B 43.9%, 비슷 31.7%, A 24.4%. 긍정보다 유보·부정이 상대적으로 큼.
- **프랑스(파리)** B 36.9%, 비슷 28.3%, A 34.9%.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분포, 회의적 경향.

요약하면, 아시아 다수 도시에서 경쟁의 효용을 긍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서구 일부(파리·런던)와 중동 일부(리야드·예루살렘)는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태도가 두드러져 경쟁의 득과 실을 균형적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A: 열심히 일하면 결국 성공한다

B: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이 그림은 15개 도시에서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로 구분해 비교한 누적 막대 차트이다. 범례에서 B는 '노력하면 성공', A는 '배경(가정/인맥/출신)이 좋아야 성공', 회색은 '둘 다 비슷' 의견을 드러낸다. 각 막대의 비율은 도시별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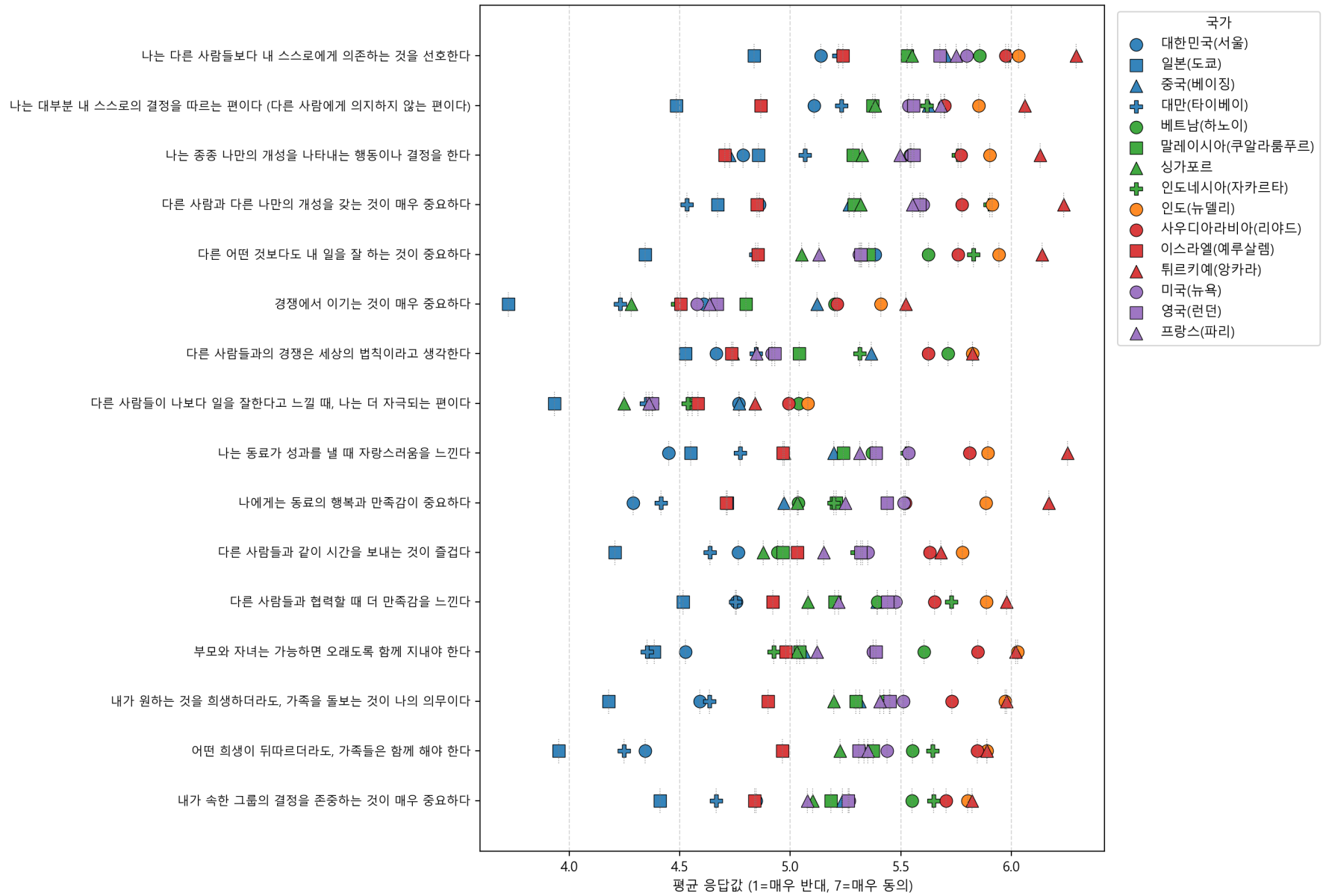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노력하면 성공(B)' 응답이 과반이거나 최다 응답으로 나타나 성공의 주요 결정 요인을 '개인의 노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앙카라(74.0%), 자카르타(68.7%), 뉴델리(68.4%), 베이징(57.9%), 쿠알라룸푸르(57.3%) 등은 강한 '노력 중심' 인식을 보인다. 반면 서울은 '배경이 좋아야 성공(A)'이 56.7%로 절대다수이며, 도쿄는 '비슷함'(39.6%)이 가장 높아 판단 유보형 응답이 두드러진다. 서구 도시들(뉴욕 54.9%, 런던 53.6%, 파리 47.3%)도 대체로 '노력 중심'이지만 배경이 중요하다는 응답(23.0~28.9%)도 적지 않아 혼합적 인식을 보인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B 24.3%, 비슷 19.0%, A 56.7%. 배경 요인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뚜렷.
- **일본(도쿄)** B 38.6%, 비슷 39.6%, A 21.9%. '비슷함'이 가장 높아 노력/배경을 균형적으로 봄.
- **중국(베이징)** B 57.9%, 비슷 21.0%, A 21.1%. 노력 중심 인식이 강함.
- **대만(타이베이)** B 52.3%, 비슷 26.3%, A 21.4%. 노력 우세, 일부 유보.
- **베트남(하노이)** B 48.0%, 비슷 25.1%, A 26.9%. 노력 우세이나 배경도 무시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B 57.3%, 비슷 22.3%, A 20.4%. 노력 중심.
- **싱가포르** B 49.3%, 비슷 26.9%, A 23.9%. 노력 우세, 혼합적 인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B 68.7%, 비슷 12.7%, A 18.6%. 강한 노력 중심.
- **인도(뉴델리)** B 68.4%, 비슷 13.9%, A 17.7%. 강한 노력 중심.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B 51.1%, 비슷 19.0%, A 29.9%. 노력 다수이나 배경 응답도 큼.
- **이스라엘(예루살렘)** B 49.7%, 비슷 17.7%, A 32.6%. 노력 우세이나 배경 비중 높음.
- **튀르키예(앙카라)** B 74.0%, 비슷 9.9%, A 16.1%. 표본 최고 수준의 노력 중심.
- **미국(뉴욕)** B 54.9%, 비슷 22.1%, A 23.0%. 노력 우세, 배경도 일정 비중.
- **영국(런던)** B 53.6%, 비슷 21.9%, A 24.6%. 노력 우세, 혼합적 인식.
- **프랑스(파리)** B 47.3%, 비슷 23.9%, A 28.9%. 세 집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

요약하면, 전반적 정서는 '노력하면 성공'에 무게가 실리지만, 서울처럼 배경의 영향이 크게 인식되는 도시와 도쿄처럼 유보가 큰 도시도 존재한다. 이는 교육·노동시장 이동성, 계층 재생산에 대한 체감 경험이 도시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 차트는 15개 도시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가치관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매우 반대, 7=매우 동의)의 평균값으로 비교한 점도 그래프이다. 세로축에는 문항이, 가로축에는 각 도시의 평균 응답값이 표시되며, 도시별 마커 모양과 색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4.0~6.0 구간에서 도시들이 분포하는데, 5.0을 기준으로 동의가 우세한 문항과 의견이 갈리는 문항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주요 해석 포인트

- **개인 자율과 독립성**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대부분 내 스스로의 결정을 따른다'와 같은 항목은 대부분의 도시가 5.0 전후 혹은 그 이상에 위치해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동의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베이징·타이베이·싱가포르·런던·뉴욕 등에서 특히 상위권이다.
- **차별화·자기표현** '나는 종종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결정을 한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목도 다수 도시에서 5.0 이상을 보여, 개성 표출에 대한 긍정이 광범위하다. 다만 동북아 일부 도시는 5.0 근처로, 서구권·터키·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약간 보수적인 편차가 보인다.
- **성과·경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세상의 법칙'과 같은 진술은 도시 간 변동폭이 크다. 앙카라·뉴델리·베이징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파리·런던·도쿄 등은 5.0 안팎으로 중립에 가깝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잘한다고 느낄 때, 나는 더 자극되는 편이다'는 항목은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건설적 경쟁의 동기 부여 효과에는 비교적 넓은 공감대가 확인된다.
- **자부심과 성취** '성과를 낼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항목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상위권(5.5~6.0 근처)에 위치한다. 성과 중심의 자기평가 규범이 문화권을 넘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타인지향·관계** '동료의 행복과 만족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 등의 항목은 전반적으로 5.0~5.7 사이에 몰려, 협력과 상호의존적 관계의 가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동남아·남아시아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가족규범** '부모와 자녀는 가능하면 오래도록 함께 지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무이다', '어떤 선택이 뒤따르더라도 가족들은 함께 해야 한다', '속한 그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등 가족·집단 규범 항목은 도시 간 차이가 특히 크다. 자카르타·뉴델리·리야드·앙카라 등에서는 5.5 이상이 흔한 반면, 파리·런던·도쿄 등에서는 5.0 안팎으로 비교적 낮다. 이는 종교성·전통의 강도, 확장가족·공동체의 생활양식, 복지·돌봄 체계의 차이가 가치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분산과 합의** 대체로 '자기결정·성취' 축과 '관계·협력' 축은 두루 높은 동의를 보이며, '경쟁 규범'과 '가족·집단 의무' 축에서 도시별 이질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동일한 '성취 지향'이라도 어떤 사회는 경쟁·개인책임, 다른 사회는 협력·관계·가족의무를 더 중시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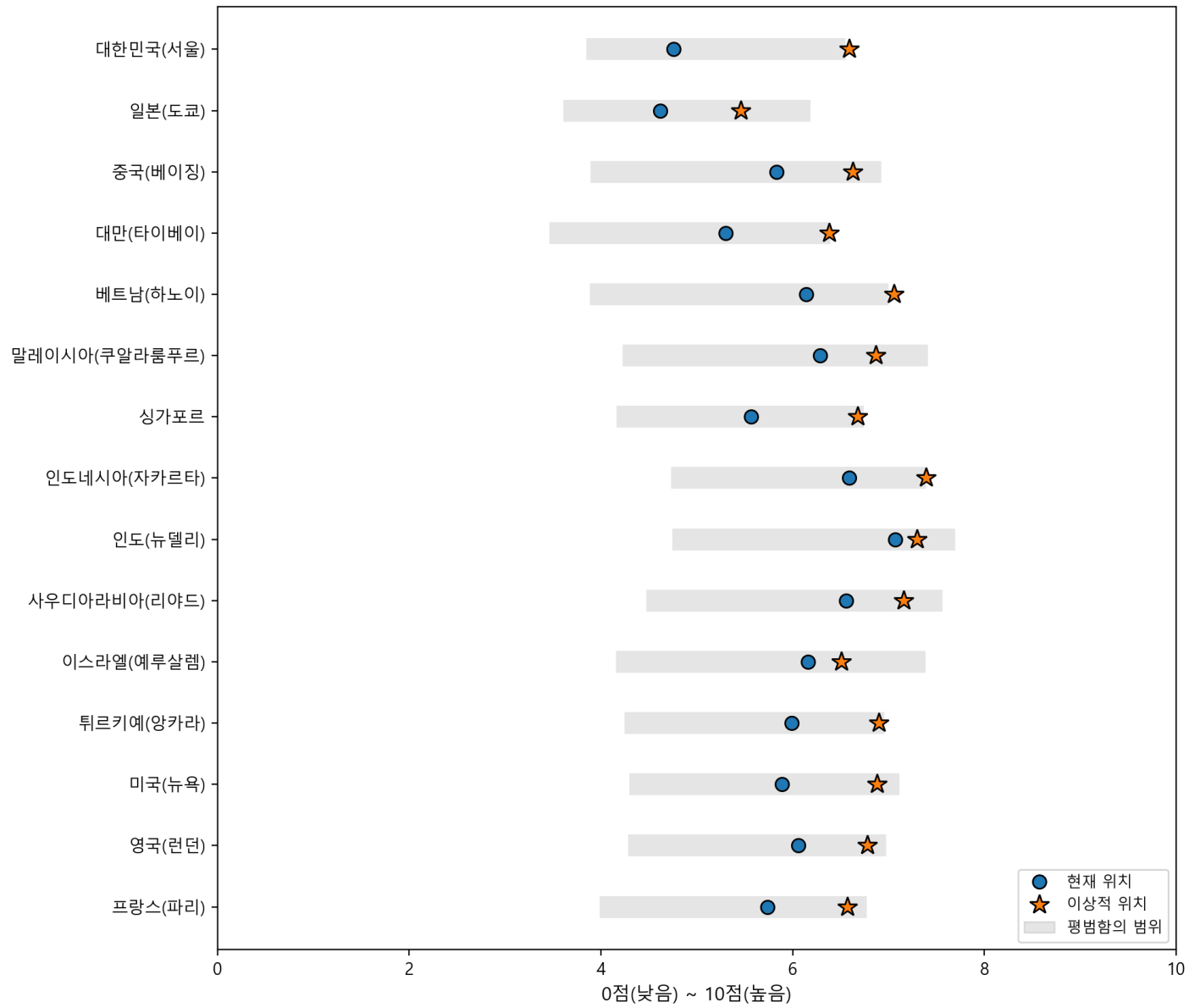
종합하면, 응답 도시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쟁의 규범성과 가족·집단 의무에 대한 평가는 문화권·제도·종교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CH5

평균과 보통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개인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 그림처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0점, 가장 높은 사람들은 10점에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위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위치를 점수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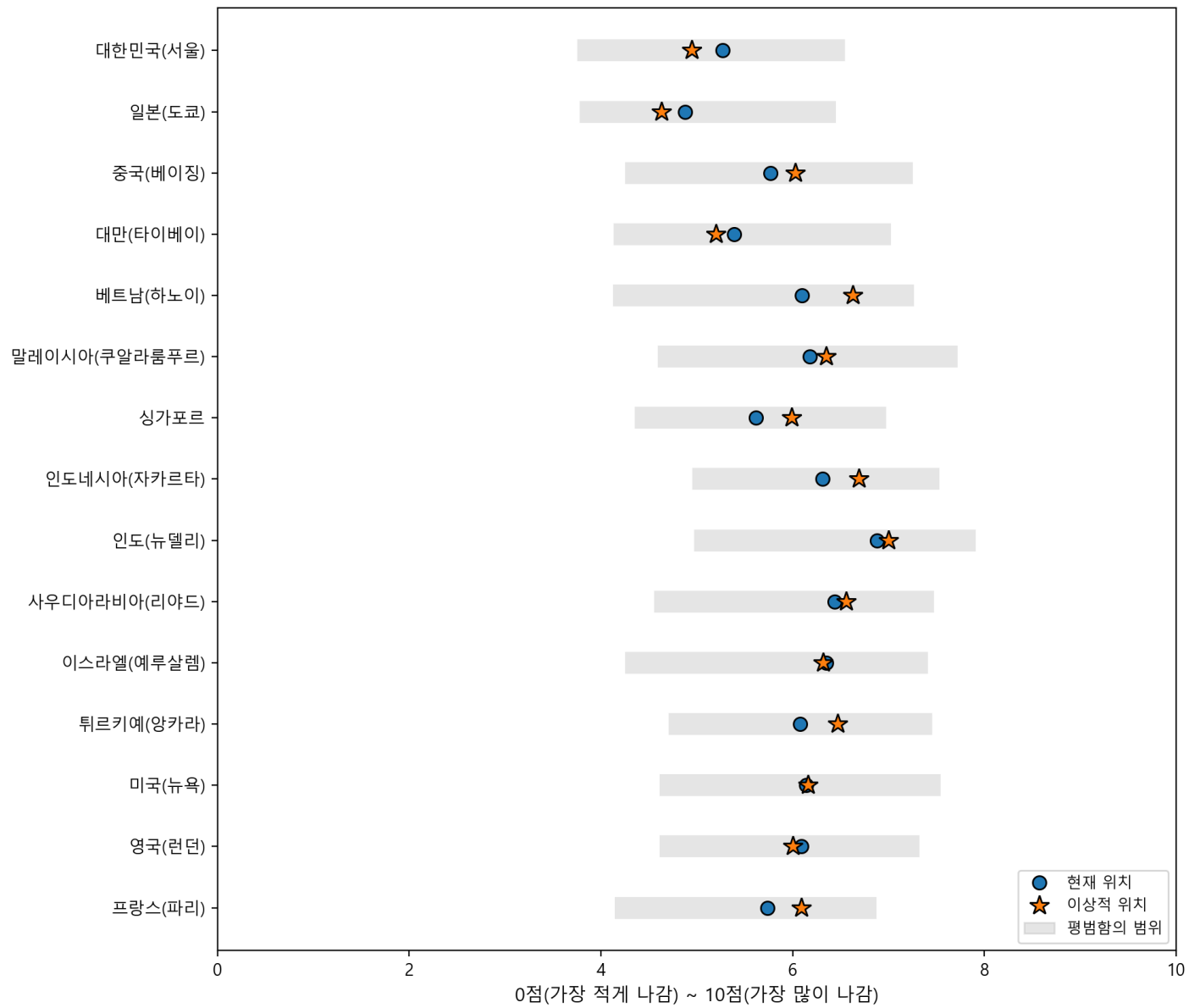




이 그림은 각 도시 응답자가 스스로의 소득 위치(파란 점)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 위치(주황 별)를 0~10점 눈금으로 표시하고, 회색 막대로 '평범함의 범위(보통이라고 여기는 구간)'를 함께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는 대개 5~6점대, 즉 스스로를 “보통 범위의 중간 혹은 약간 아래”로 놓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이상적 위치는 일관되게 현재보다 높아 6.5~7.5점 부근에 모여며, 모든 도시에서 크고 작은 '상향 격차(aspiration gap)'가 확인된다. 이는 응답자들이 평균적 생활수준을 기준점으로 삼되,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소득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시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띈다.

- **대한민국(서울)**은 현재를 4.8로 평가하면서 이상적 위치를 6.6으로 놓아 격차가 비교적 크다. 생활비 부담과 경쟁 환경이 '한 단계 위'에 대한 열망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도쿄)**는 현재를 4.6, 이상은 5.5으로 둔다. 격차는 서울보다는 작지만 상향 선호는 분명하다.
- **중국(베이징)** 현재는 5.8, 이상은 6.6으로 상향 선호가 분명하다.
- **대만(타이베이)** 현재가 5.3이며 이상은 6.4로. 평균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 상향 기대가 드러난다.
- **베트남(하노이)** 현재가 6.1, 이상이 7.1로 조사대상 도시 중 세번째로 이상선호가 높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현재가 6.3 이상이 6.9로 스스로의 위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나 상향선호도 분명하다.
- **싱가포르**는 현재 5.6, 이상 6.7로 조사대상 도시 중 타이페이와 함께 두번째로 높은 상향선호를 보였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현재가 6.6, 이상은 7.4로 상향선호가 뚜렷하다.
- **인도(뉴델리)** 현재는 7.1 이상은 7.3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높게 평가하나 상향선호도 나타났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는 현재가 6.6점, 이상은 7.2로 상향선호 경향을 보인다. .
- **이스라엘(예루살렘)**은 현재는 6.2 이상은 6.5로 '현 상태의 약간 상향' 정도를 선호한다.
- **튀르키예(앙카라)**는 현재 6.0, 이상 6.9로 상향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 **미국(뉴욕)**은 현재를 5.9, 이상은 6.9로 설정해 상향 격차가 큰 편이다.
- **영국(런던)**과 **프랑스(파리)**는 현재는 6.1과 5.7, 이상 6.8과 6.6으로 중간 규모의 격차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몸무게에 따라 다음 그림처럼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0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10점에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위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위치를 점수로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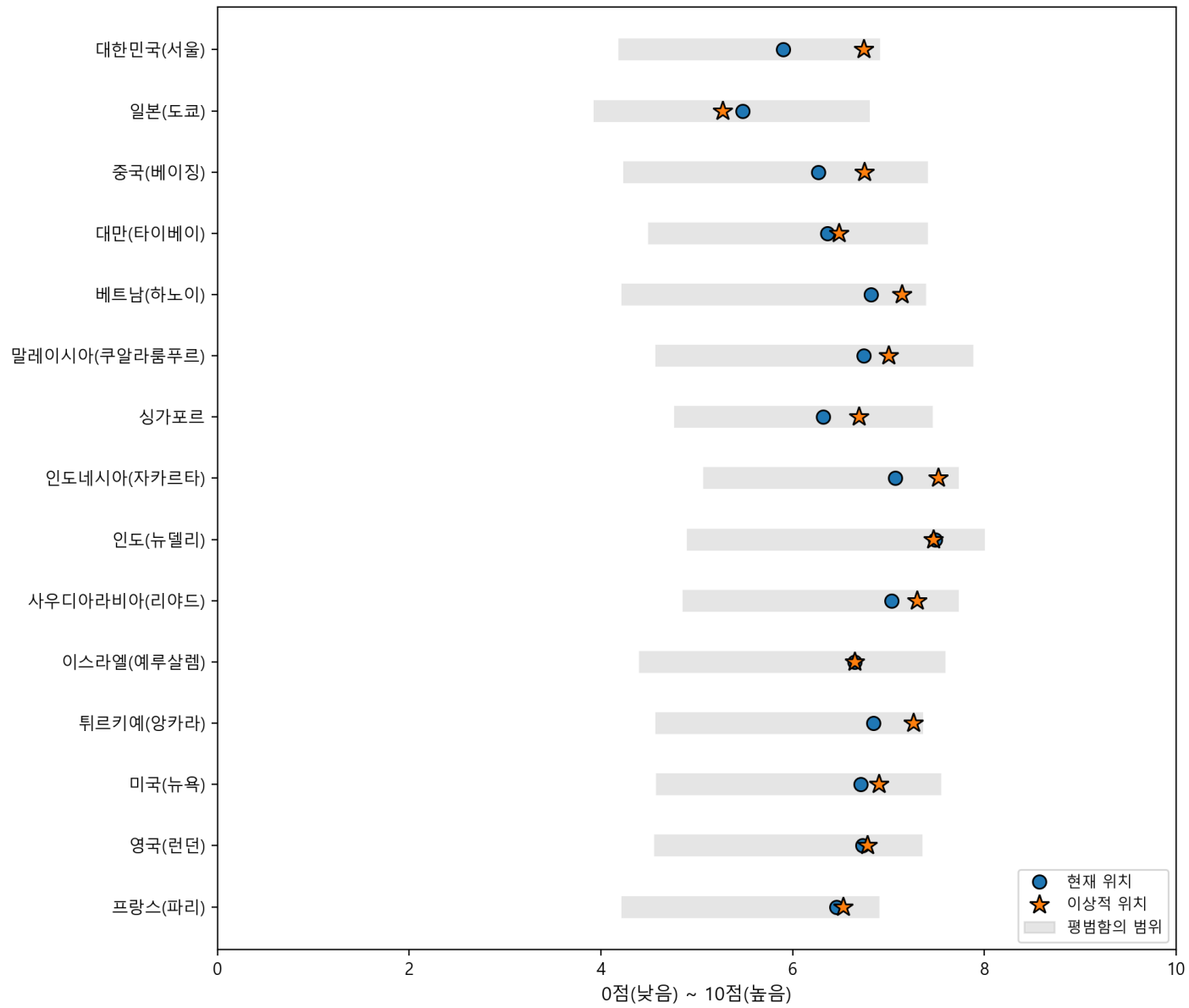


이 그림은 각 도시 응답자가 스스로의 몸무게 위치(파란 점)와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 위치(주황 별)를 0점(가장 적게 나감)에서 10점(가장 많이 나감)까지의 연속 눈금에 표시하고, 회색 막대로는 해당도시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범위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위치는 대부분 도시에서 회색 막대의 중앙부(대략 5~6.5점)에 모여 있으며, 이상적 위치는 대체로 현재 보다 왼쪽(더 낮은 점수, 즉 '지금보다 덜 나가고 싶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만 몇몇 도시는 이상과 현재가 거의 같거나, 소폭 오른쪽으로 이동해(조금 더 나가고 싶다는 신호) 체형 선호가 몸무게에 증가 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띈다.

- **대한민국(서울)** 이상적 위치가 회색 '평범함' 범위의 중앙 왼쪽에 놓이지만, 현재 위치와의 간격은 크지 않다. 스스로를 보통 범위 안에서 약간 무겁게 인식하면서도 '약간만' 조정하면 좋겠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 **일본(도쿄)** 현재와 이상이 모두 보통 범위의 좌측측에 자리한다. 두 점의 간격이 작아 체중 조정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 **중국(베이징)** 현재가 5.8이 고 이상은 약간 오른쪽인 6.0으로 이동해, 지금보다 약간 더 나갔으면 하는 인식을 보였다.
- **대만(타이베이)** 현재 몸무게 위치는 5.4이고 이상적 몸무게 위치는 5.2로 '지금보다 조금 덜 나갔으면' 하는 방향이 확인된다.
- **베트남(하노이)** 현재가 보통 범위인 6.1 이상은 그보다 약간 높은 6.6이라 응답해, 소폭 증량을 선호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현재와 이상이 6.2와 6.4로 이상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체중 이상점에 대한 조정 폭이 크지 않지만 약간 증량을 바란다.
- **싱가포르** 현재는 5.6에, 이상은 6.0에 위치한다. 현재보다 약간 증량된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함을 보여준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현재가 6.3에 위치하지만 이상은 6.7로 나타나, 다른 도시와 달리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 경향이 보인다.
- **인도(뉴델리)** 현재는 6.9이고 이상은 7.0이라 응답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현재는 6.4, 이상은 6.6으로 이동한다. 체형을 더 크게(혹은 체격을 더 키우는) 쪽의 선호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현재와 이상이 6.4와 6.3으로 거의 같아 차이가 작다. '현 상태 유지'에 가까운 인식이다.
- **튀르키예(앙카라)** 현재는 6.1에, 이상은 6.5로 소폭 증량 선호.
- **미국(뉴욕) 영국(런던)** 현재와 이상은 모두 6.1이고 이상은 6.2와 6.0 거의 유사하다.
- **프랑스(파리)** 현재가 5.7, 이상은 6.1로 전형적인 '조금만 더 나가고 싶다' 패턴이다.

우리 사회의 개인들이 학력 수준에 따라 다음 그림처럼 학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0점, 가장 높은 사람들은 10점에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위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위치를 점수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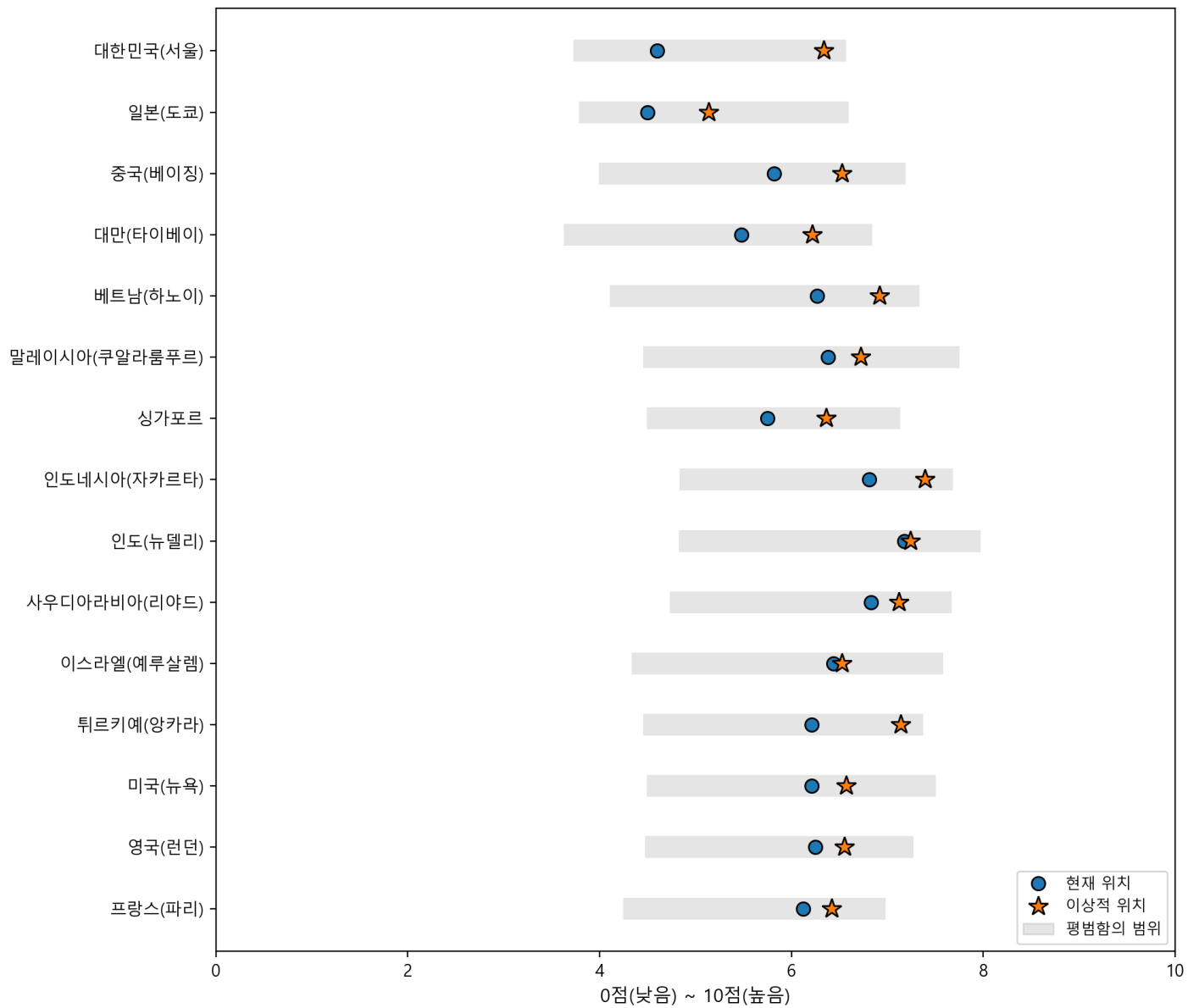


이 그림은 각 도시 응답자가 자신의 학력 수준을 0점(낮음)~10점(높음) 스케일에서 어디쯤으로 평가하는지(파란 점, “현재 위치”),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상적 학력 위치(주황 별)를 표시하고, 회색 막대로는 해당도시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범위를 함께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는 대부분 도시에서 회색 막대의 중앙부(약 5.5~6.8)에 모여 있고, 이상적 위치는 언제나 현재보다 약간 오른쪽(더 높은 학력 위치)에 놓인다. 즉, 어느 도시에서나 학력에 대해 소폭의 상향 지향이 관찰된다. 다만 그 간격의 크기(aspiration gap)와 현재 점수의 절대수준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다.

도시별 관찰 포인트

- **대한민국(서울)** 현재가 보통 범위의 상·중단(5.9)이고 이상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6.7이다. 스스로를 평균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면서도 “조금 더”를 원하는 상향 기대가 분명하다. 학력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이상적인 위치 사이의 거리가 조사대상 도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일본(도쿄)** 현재가 5.5, 이상은 5.3로 격차가 작다. 이미 ‘평범함’에 있다고 보며 추가 상향 욕구는 없으며 심지어 현재의 위치보다 낮다.
- **중국(베이징)** 현재 6.3, 이상 6.8 수준으로 완만한 상향. 평균보다 높은 자기평가와 함께 추가 상승욕구가 공존한다.
- **대만(타이베이)** 현재 6.4, 이상 6.5로 아주 작은 격차가 있다. 평균보다 높은 ‘현재 학력 상태에 근접한 이상’이 특징이다.
- **베트남(하노이)** 현재 6.8, 이상 7.1 내외로 상향을 원한다. 평균 상단에 있으면서도 더 높은 학력 위치를 지향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현재 6.7, 이상 7.0 수준. 보통 범위 상단에서 한 단계 위를 약간의 상향 희망한다.
- **싱가포르** 현재 6.3, 이상 6.7 정도. 자신의 위치를 평균정도로 보고 약간의 안정적 상향 기대가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현재 7.1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평가가 관찰되며, 이상은 7.5로 추가 상향 여지도 크다.
- **인도(뉴델리)** 현재의 위치와 이상적 위치 모두 7.5로 높은 위치로 평가하며 현재와 이상 간의 차이가 없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현재 7.0, 이상 7.3 정도로 약간의 상향 희망이 관찰된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현재 6.7이며 희망위치도 같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튀르키예(앙카라)** 현재 6.8, 이상 7.3로 상대적으로 큰 상향 간극이 보인다.
- **미국(뉴욕)** 현재와 이상 모두 6.7과 6.9로. 보통 범위 중단에서 절제된 상향을 선호한다.
- **영국(런던)·프랑스(파리)** 영국(런던)은 현재 위치가 6.7, 이상적 위치가 6.8, 프랑스(파리)는 현재의 위치와 이상적 위치 모두 6.5로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개인들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음 그림처럼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0점, 가장 높은 사람들은 10점에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위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위상적인 위치를 점수로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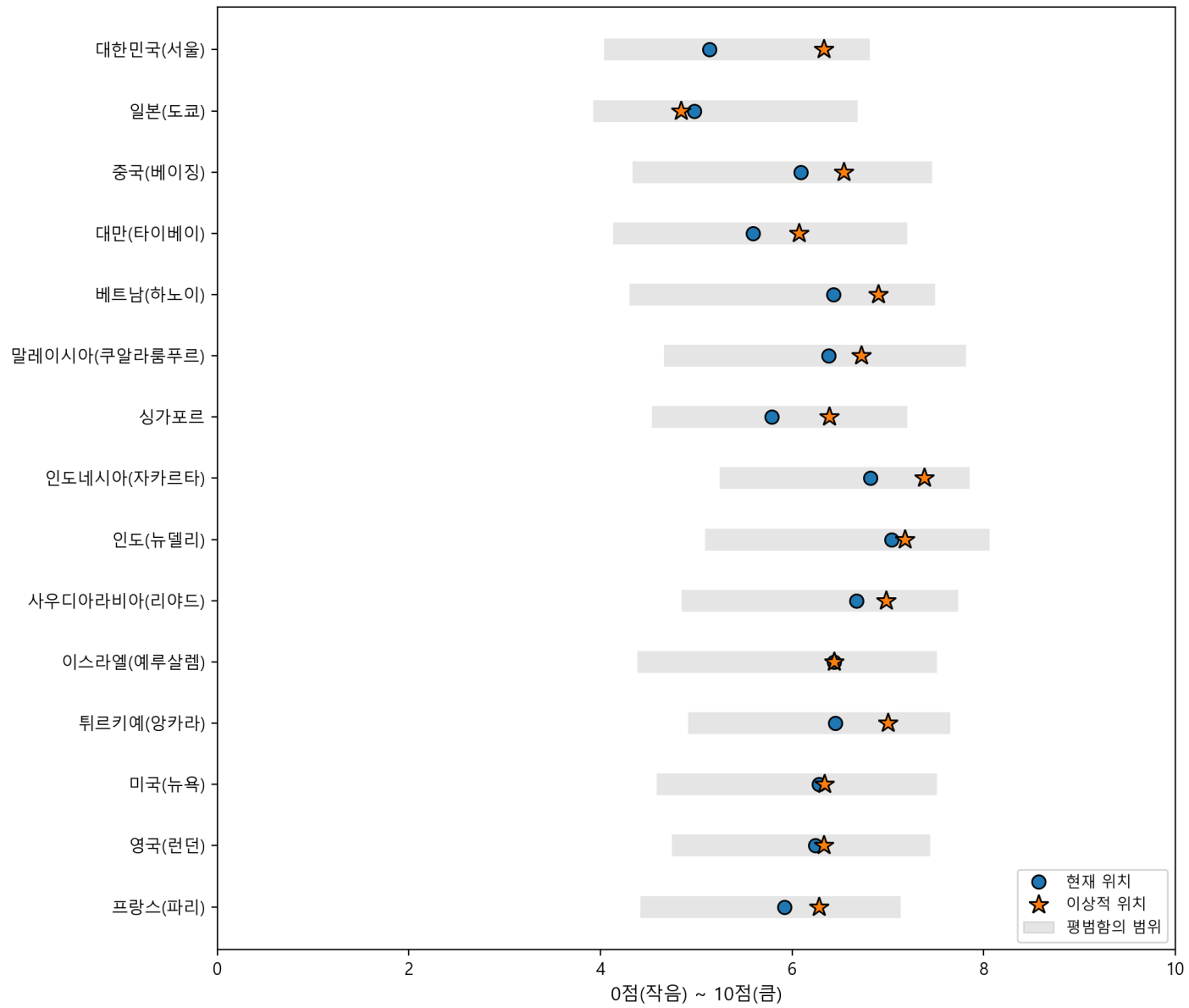




이 그림은 각 도시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0점(낮음)~10점(높음) 눈금에서 어디쯤으로 평가하는지(파란 점, 현재 위치)와 바람직한 이상 지위(주황 별)를 표시하고, 회색 막대로는 해당도시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범위를 함께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는 대부분 도시에서 보통 범위의 중앙~상단(약 4.5~7.2)에 모여 있고, 이상 지위는 항상 현재보다 오른쪽(더 높은 지위)으로 이동한다. 즉, 모든 도시에서 완만한 상향 지향이 관찰되지만, 그 간격의 크기와 현재 위치의 절대수준은 도시별로 다르다.

- **대한민국(서울)** 자신의 현재 위치는 서울사람들의 보통 범위의 하단인 4.6에 자리하며, 이상은 6.3 내외로 서울의 보통 중 가장 상위를 향하고 있음. 상향 간극이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큼.
- **일본(도쿄)** 도쿄 평균 중 하단 부인 4.5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했으며, 이상 5.1 정도로 도쿄 평균의 중간정도를 희망함.
- **중국(베이징)** 현재 5.8로 베이징 평균보다 약간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이상 6.5로 완만한 상향. 평균보다 약간 높은 이상이 관찰됨.
- **대만(타이베이)** 현재 5.5로 타이페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으며 이상적 위치는 6.2 내외로 타이페이 상위를 희망함.
- **베트남(하노이)** 현재 6.3, 이상 6.9으로 상향 폭이 상대적으로 큼. 스스로를 상단에 두면서도 더 높이 지향.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현재 6.4, 이상 6.7로 약간의 상향을 희망함.
- **싱가포르** 현재의 위치는 5.8로 싱가포르 평균보다 약간 아래로 인식하며, 이상 6.4 정도로 안정적 상향 선호.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현재 6.8로 높은 자기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상의 위치도 7.4로 희망해 큰 상향 욕구를 보임.
- **인도(뉴델리)** 현재와 이상 7.2로 높은 현재와 같은 위치의 이상 위치를 보여줌.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현재 6.8, 이상 7.1로 완만한 상향.
- **이스라엘(예루살렘)** 현재와 이상 모두 평균 상단인 6.4와 6.5에 위치하며 약간의 상향 이상이 있지만 현재와 유사한 위치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튀르키예(앙카라)** 현재 6.2, 이상 7.1로 상향 간극이 큰 편.
- **미국(뉴욕)** 현재 6.2, 이상 6.6으로 중간 규모의 상향.
- **영국(런던)** 현재 6.3, 이상 6.6. 보통 범위 중단에서의 완만한 상향.
- **프랑스(파리)** 현재 6.1, 이상 6.4으로 상향 폭은 보통.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키에 따라 다음 그림처럼 키가 가장 작은 사람들은 0점, 가장 큰 사람들은 10점에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위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위치를 점수로 알려주세요





이 그림은 각 도시 응답자가 자신의 키 위치를 0점(작음)~10점(큼) 스케일에서 어디쯤으로 평가하는지(파란 점, 현재 위치)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상적 위치(주황 별)를 표시하고, 회색 막대로는 해당도시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범위를 함께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는 대부분 도시에서 평범함의 범위 중앙부에 몰려 있고, 이상적 위치는 대체로 현재보다 약간 오른쪽(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으로 나타난다. 다만 몇몇 도시는 현재와 이상이 거의 겹치거나, 차이가 매우 작아 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크다.

- **대한민국(서울)** 현재는 5.1, 이상은 6.3으로 이동해 큰 폭 '더 큼'을 지향한다. 조사대상 도시 중 가장 큰 간격을 보임
- **일본(도쿄)** 현재는 5.0 이상은 4.8로 겹치며 변화 욕구가 가장 약한 편이다.
- **중국(베이징)** 현재가 6.1, 이상은 6.5로 완만한 상향 선호가 보인다.
- **대만(타이베이)** 현재가 5.6, 이상은 6.1로 이동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경향.
- **베트남(하노이)** 현재가 6.4, 이상은 6.9로 상향.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현재가 6.4 이상은 6.7로 완만한 상향 선호.
- **싱가포르** 현재가 5.8, 이상은 6.4로 분명한 상향.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현재가 6.8, 이상은 7.4로 상향 간극이 비교적 큰 편이다.
- **인도(뉴델리)** 현재가 7.0, 이상은 소폭 오른 7.2로 가벼운 상향. 변화 욕구가 가장 약한 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현재가 6.7, 이상은 7.0으로 현 상태에 가까운 이상점.
- **이스라엘(예루살렘)** 현재와 이상이 6.4로 일치한다.
- **튀르키예(앙카라)** 현재가 6.5, 이상은 7.0으로 상향 여지 존재.
- **미국(뉴욕)·영국(런던)** 현재가 6.3과 6.2이며 이상은 두 도시 모두 6.3으로. 변화 욕구가 가장 약한 편이다.
- **프랑스(파리)** 현재가 5.9, 이상은 6.3으로 이동해 상향을 희망함.

정리하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을 '평범함' 속 중간권에 위치시키면서도 조금 더 큰 키를 이상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도쿄처럼 현재와 이상이 거의 같은 도시는 현 상태 수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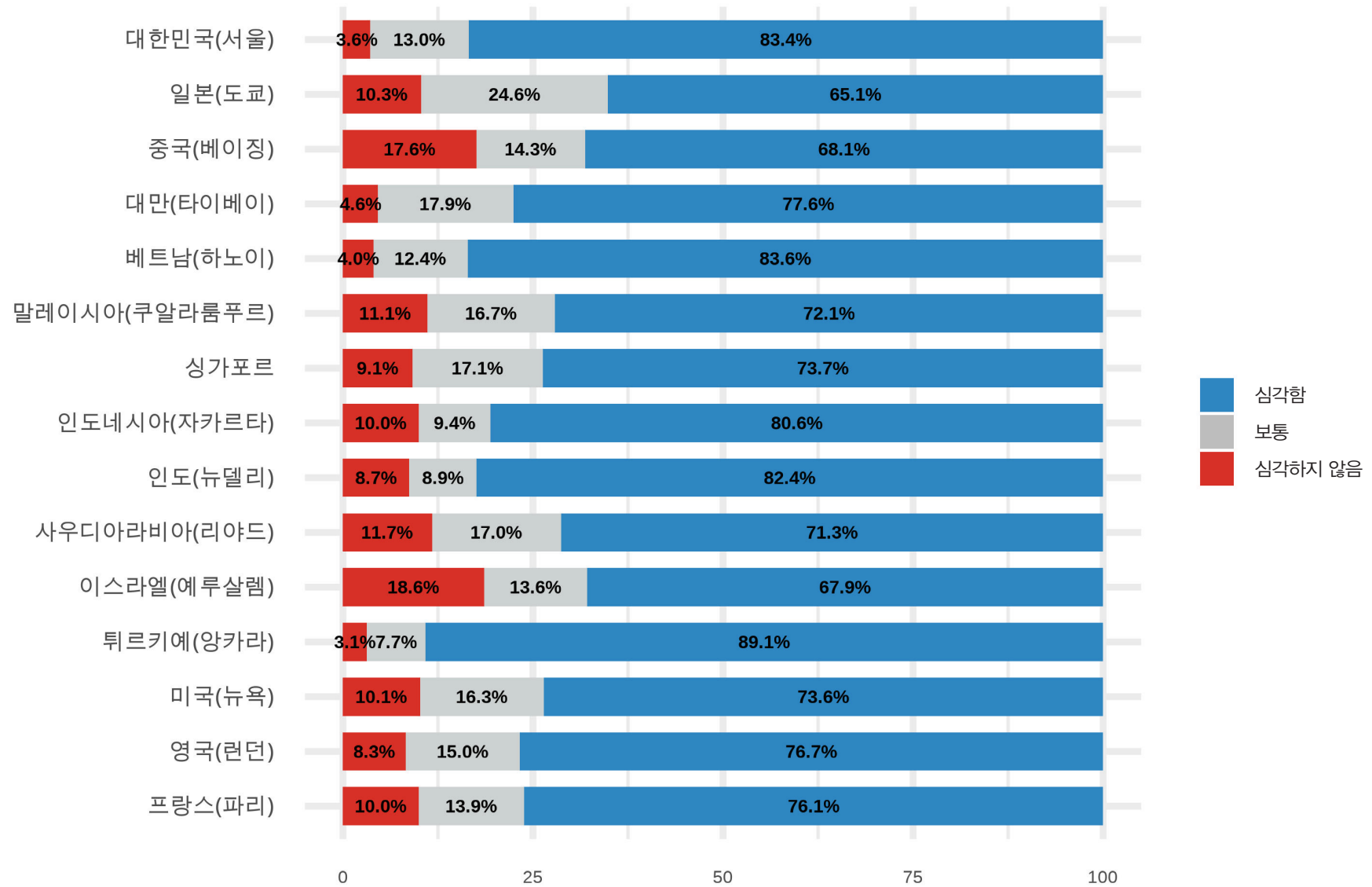
CH6

사회문제와 해결노력





우리 사회의 소득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안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5개 도시 중 12개 도시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소득 불안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전 지구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인 도시는 튀르키예(앙카라)로, 89.14%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경제적 불안정이 극심함을 시사했다. 베트남(하노이)(83.57%)과 대한민국(서울)(83.43%)이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서울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7%에 불과해 소득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절대적임을 보여주었다. 인도(뉴델리)(82.43%)와 인도네시아(자카르타)(80.57%) 역시 80%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해, 아시아 신흥국들 사이에서 소득 격차나 빈곤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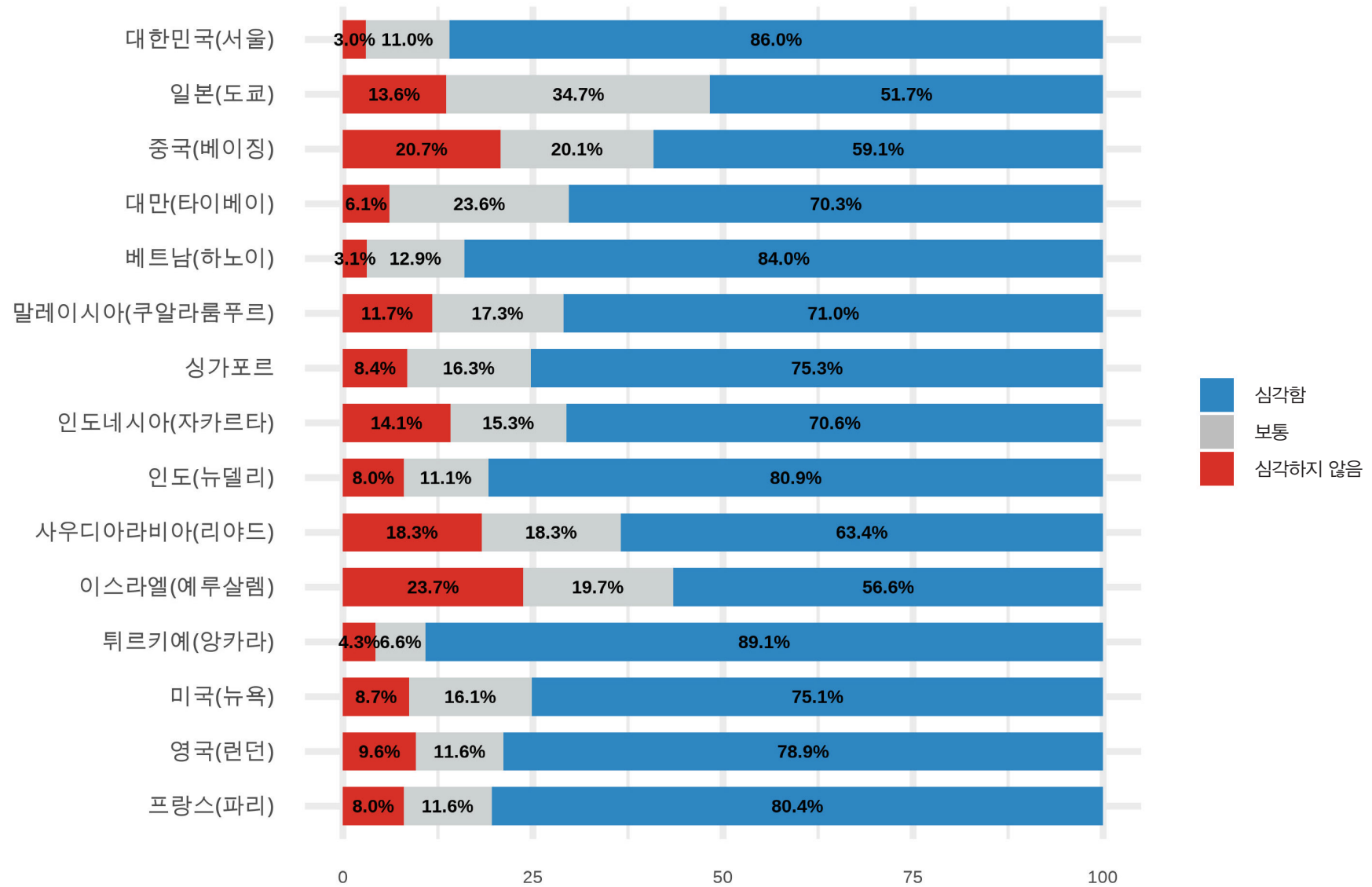
반면,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베이징)(17.57%)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65.14%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4.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3.43%, 보통 13.0%, 반대 3.57%.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65.14%, 보통 24.57%, 반대 10.29%.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중국(베이징)** 동의 68.14%, 보통 14.29%, 반대 17.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7.57%, 보통 17.86%, 반대 4.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83.57%, 보통 12.43%, 반대 4.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2.14%, 보통 16.71%, 반대 11.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싱가포르** 동의 73.71%, 보통 17.14%, 반대 9.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0.57%, 보통 9.43%, 반대 10.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2.43%, 보통 8.86%, 반대 8.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71.29%, 보통 17.0%, 반대 11.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7.86%, 보통 13.57%, 반대 18.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14%, 보통 7.71%, 반대 3.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3.57%, 보통 16.29%, 반대 10.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6.71%, 보통 15.0%,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6.14%, 보통 13.86%, 반대 10.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우리 사회의 주거 불안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주거 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9.14%로 1위를 기록했고, 대한민국(서울)이 86.00%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은 높은 주거비용과 주택 부족 문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베트남(하노이) 또한 84.00%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주거난이 심각함을 짐작케 한다.

인도(뉴델리)(80.86%), 프랑스(파리)(80.43%) 역시 80% 이상의 시민이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영국의 런던(78.86%)과 미국의 뉴욕(75.14%) 등 서구 선진국의 대도시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주거 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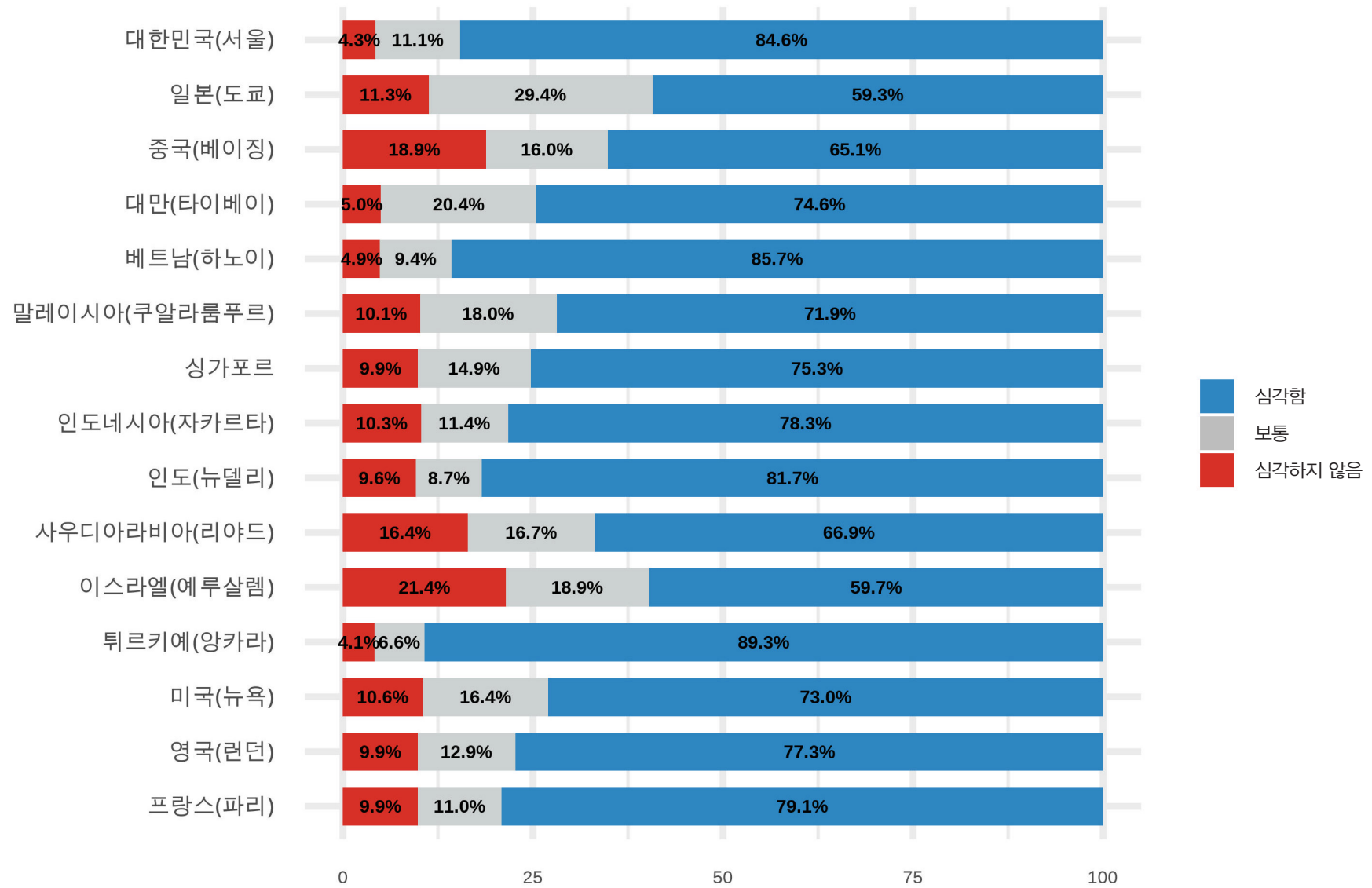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주거 불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곳은 일본(도쿄)이었다. 도쿄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51.71%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4.7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른 도시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스라엘(예루살렘)과 중국(베이징)도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6.0%, 보통 11.0%, 반대 3.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1.71%, 보통 34.71%, 반대 13.57%.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59.14%, 보통 20.14%, 반대 20.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0.29%, 보통 23.57%, 반대 6.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84.0%, 보통 12.86%, 반대 3.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1.0%, 보통 17.29%, 반대 11.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싱가포르** 동의 75.29%, 보통 16.29%, 반대 8.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0.57%, 보통 15.29%, 반대 14.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80.86%, 보통 11.14%, 반대 8.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3.43%, 보통 18.29%, 반대 18.29%.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6.57%, 보통 19.71%, 반대 23.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14%, 보통 6.57%, 반대 4.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5.14%, 보통 16.14%, 반대 8.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8.86%, 보통 11.57%, 반대 9.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80.43%, 보통 11.57%, 반대 8.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우리 사회의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 문제를 다룬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9.29%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여,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의식이 고용 시장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하노이)(85.71%)과 대한민국(서울)(84.57%)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는데, 서울의 경우 고용 불안정이 주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뉴델리)(81.71%), 프랑스(파리)(79.14%), 인도네시아(자카르타)(78.29%), 영국(런던)(77.29%) 등 다수의 도시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70%를 상회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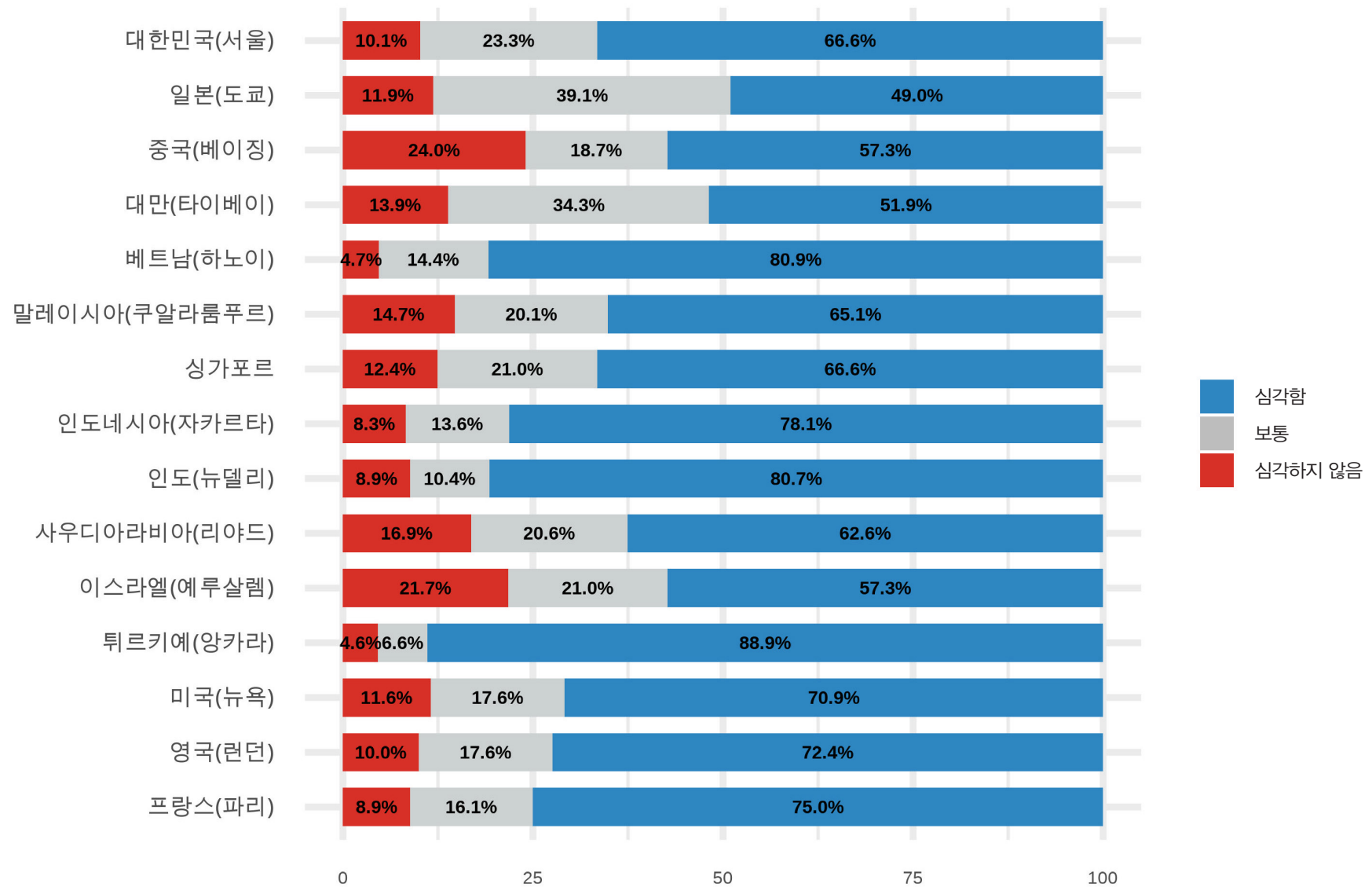
반면,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9.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9.43%로 가장 높아 고용 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덜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예루살렘) 역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1.43%로 가장 높았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4.57%, 보통 11.14%, 반대 4.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9.29%, 보통 29.43%, 반대 11.29%.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중국(베이징)** 동의 65.14%, 보통 16.0%, 반대 18.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4.57%, 보통 20.43%, 반대 5.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85.71%, 보통 9.43%, 반대 4.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1.86%, 보통 18.0%, 반대 10.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싱가포르** 동의 75.29%, 보통 14.86%, 반대 9.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8.29%, 보통 11.43%, 반대 10.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81.71%, 보통 8.71%, 반대 9.57%.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6.86%, 보통 16.71%, 반대 16.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71%, 보통 18.86%, 반대 21.43%.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29%, 보통 6.57%,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3.0%, 보통 16.43%, 반대 10.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7.29%, 보통 12.86%, 반대 9.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9.14%, 보통 11.0%, 반대 9.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교육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8.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하노이)(80.86%)과 인도(뉴델리)(80.71%)가 80%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높은 교육열과 경쟁 속에서 교육 기회의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8.14%)와 프랑스(파리)(75.00%)도 교육 불평등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한민국(서울)은 66.5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중위권에 위치했으나, 여전히 과반 이상의 시민이 교육 격차를 우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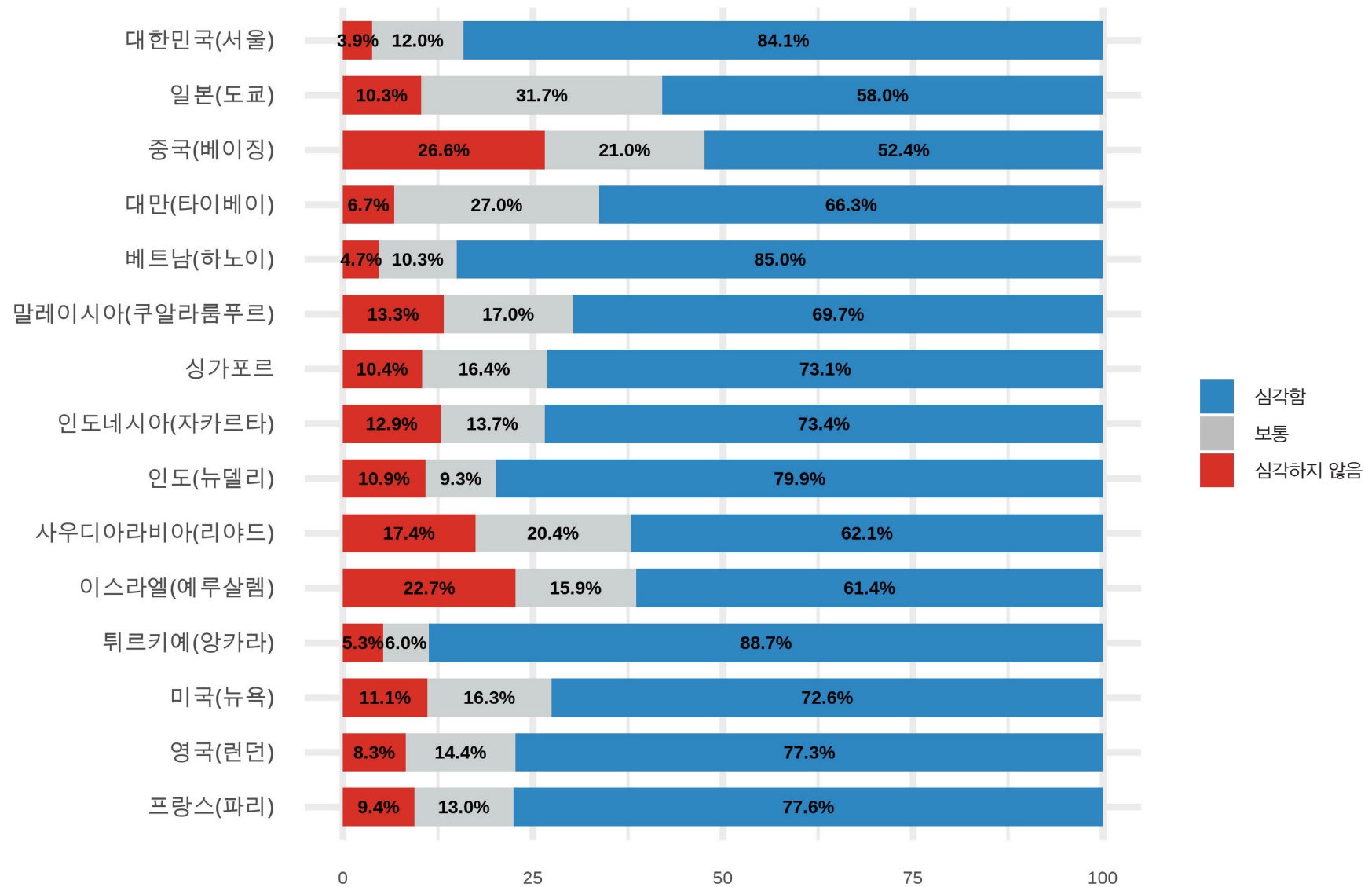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9.00%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39.14%에 달해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도시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베이징)과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0%를 넘어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6.57%, 보통 23.29%, 반대 10.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일본(도쿄)** 동의 49.0%, 보통 39.14%, 반대 11.86%.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57.29%, 보통 18.71%, 반대 24.0%.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51.86%, 보통 34.29%, 반대 13.86%.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베트남(하노이)** 동의 80.86%, 보통 14.43%, 반대 4.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5.14%, 보통 20.14%, 반대 14.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66.57%, 보통 21.0%, 반대 12.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8.14%, 보통 13.57%,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80.71%, 보통 10.43%, 반대 8.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57%, 보통 20.57%, 반대 16.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7.29%, 보통 21.0%, 반대 21.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86%, 보통 6.57%, 반대 4.57%.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0.86%, 보통 17.57%, 반대 11.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2.43%, 보통 17.57%, 반대 10.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5.0%, 보통 16.14%, 반대 8.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우리 사회의 우울증, 자살증가 등의 삶의 질 저하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8.71%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하노이)(85.00%)과 대한민국(서울)(84.14%)이 최상 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치열한 경쟁 사회의 부작용이 시민들의 인식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도(뉴델리)(79.86%), 프랑스(파리)(77.57%), 영국(런던)(77.29%) 등도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현대 도시민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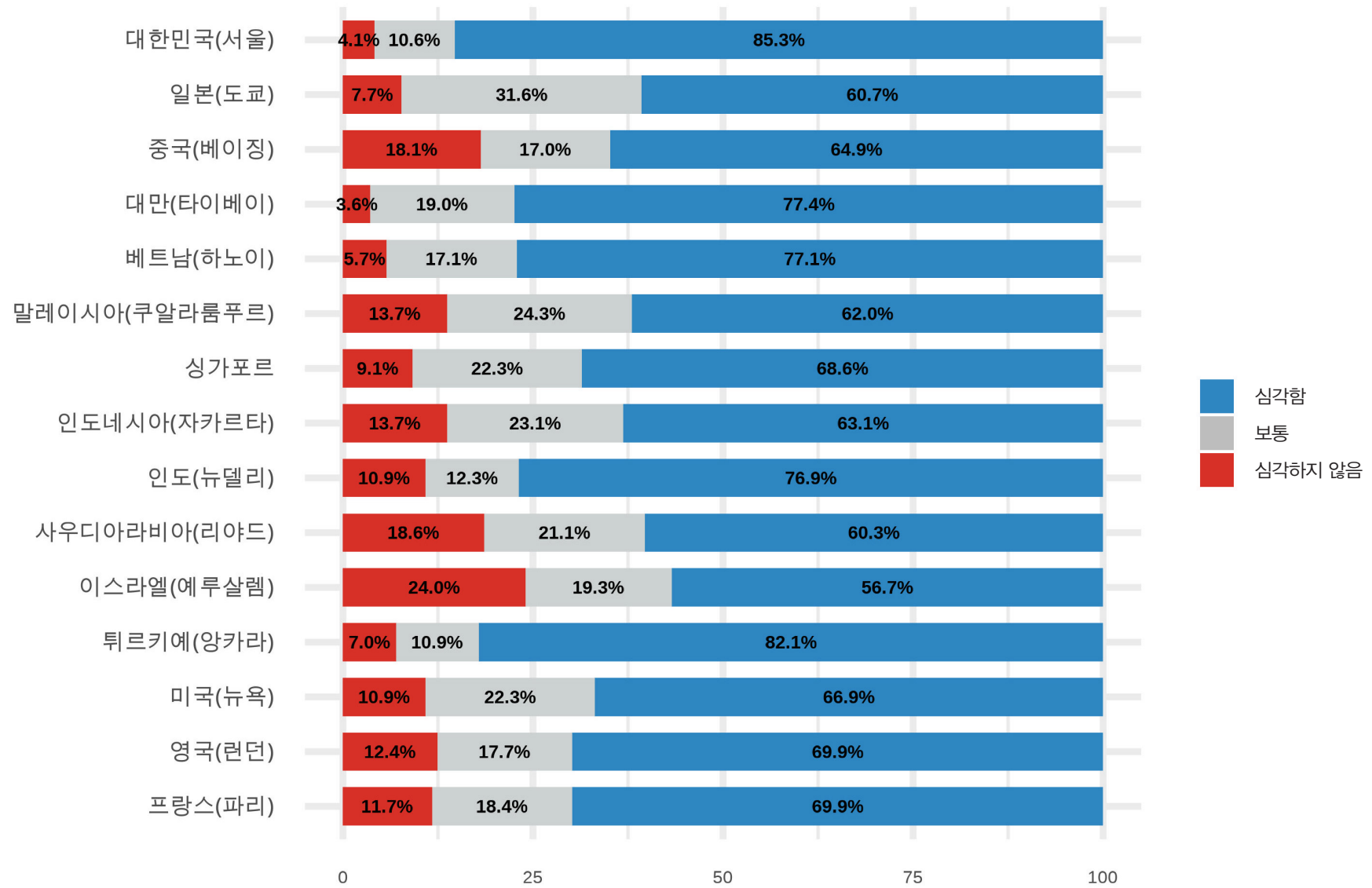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2.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6.57%로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31.71%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4.14%, 보통 12.0%, 반대 3.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8.0%, 보통 31.71%, 반대 10.29%.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52.43%, 보통 21.0%, 반대 26.57%.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66.29%, 보통 27.0%, 반대 6.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베트남(하노이)** 동의 85.0%, 보통 10.29%, 반대 4.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71%, 보통 17.0%, 반대 13.29%.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73.14%, 보통 16.43%, 반대 10.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3.43%, 보통 13.71%, 반대 12.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79.86%, 보통 9.29%, 반대 10.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14%, 보통 20.43%, 반대 17.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1.43%, 보통 15.86%, 반대 22.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71%, 보통 6.0%, 반대 5.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2.57%, 보통 16.29%, 반대 11.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7.29%, 보통 14.43%,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7.57%, 보통 13.0%, 반대 9.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대한민국(서울)이 85.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튀르키예(앙카라)(82.14%)와 대만의 타이베이(77.43%)도 인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베트남(하노이)(77.14%)과 인도(뉴델리)(76.86%)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국가의 도시들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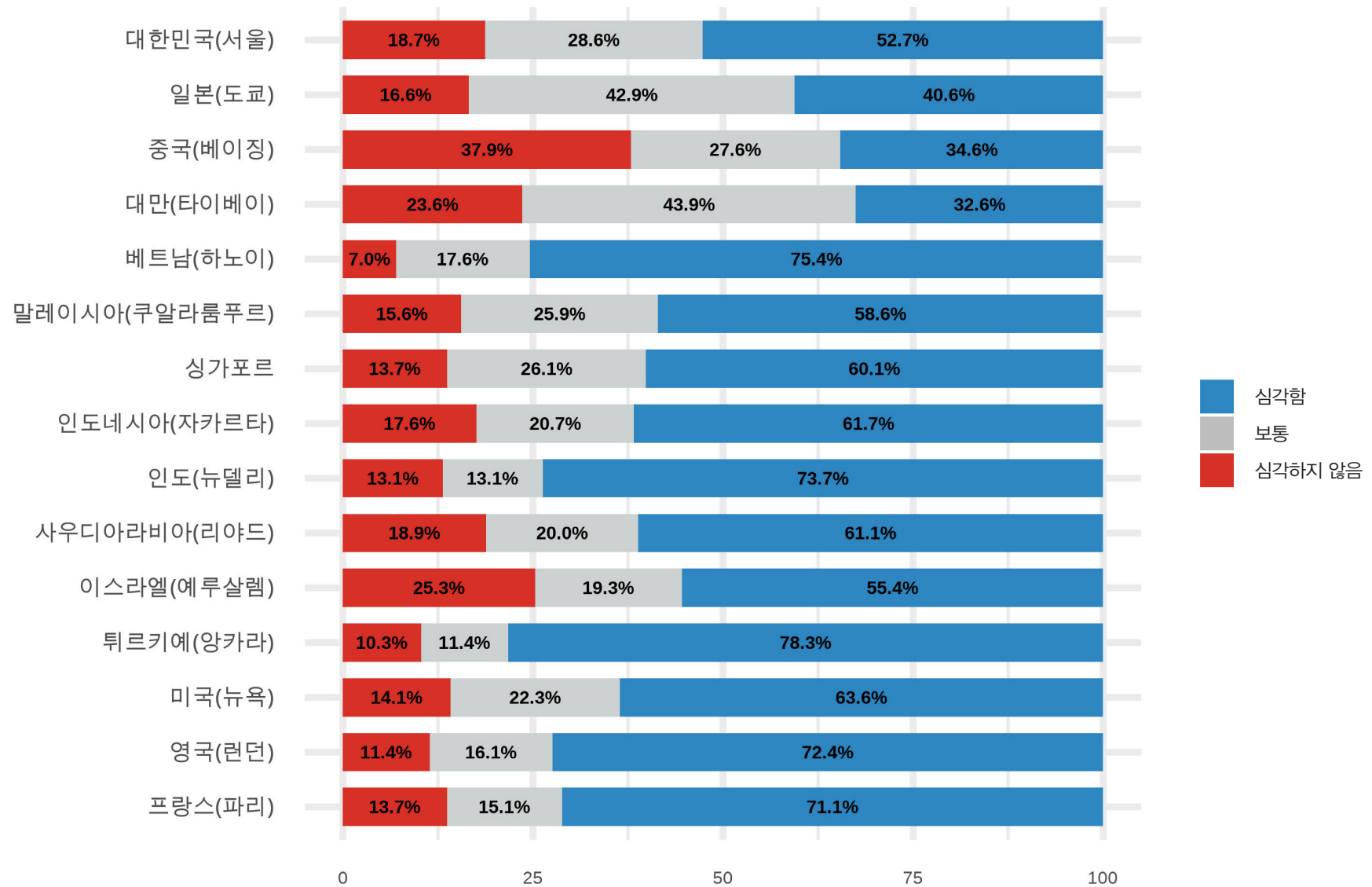
반면,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4.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과 젊은 인구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60.29%)와 일본(도쿄)(60.71%)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60%대로 나타났으나, 도쿄의 경우 ‘보통이다’는 응답이 31.57%로 높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무뎠거나 만성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5.29%, 보통 10.57%,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60.71%, 보통 31.57%, 반대 7.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중국(베이징)** 동의 64.86%, 보통 17.0%, 반대 18.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7.43%, 보통 19.0%, 반대 3.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77.14%, 보통 17.14%, 반대 5.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2.0%, 보통 24.29%, 반대 13.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68.57%, 보통 22.29%, 반대 9.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3.14%, 보통 23.14%, 반대 13.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뉴델리)** 동의 76.86%, 보통 12.29%, 반대 10.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29%, 보통 21.14%, 반대 18.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6.71%, 보통 19.29%, 반대 24.0%.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2.14%, 보통 10.86%, 반대 7.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66.86%, 보통 22.29%, 반대 10.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영국(런던)** 동의 69.86%, 보통 17.71%, 반대 12.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프랑스(파리)** 동의 69.86%, 보통 18.43%, 반대 11.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우리 사회의 외국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외국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78.2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하노이)(75.43%)과 인도(뉴델리)(73.71%)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의 런던(72.43%)과 프랑스의 파리(71.14%)도 7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서구 도시들에서 이민자 수용과 차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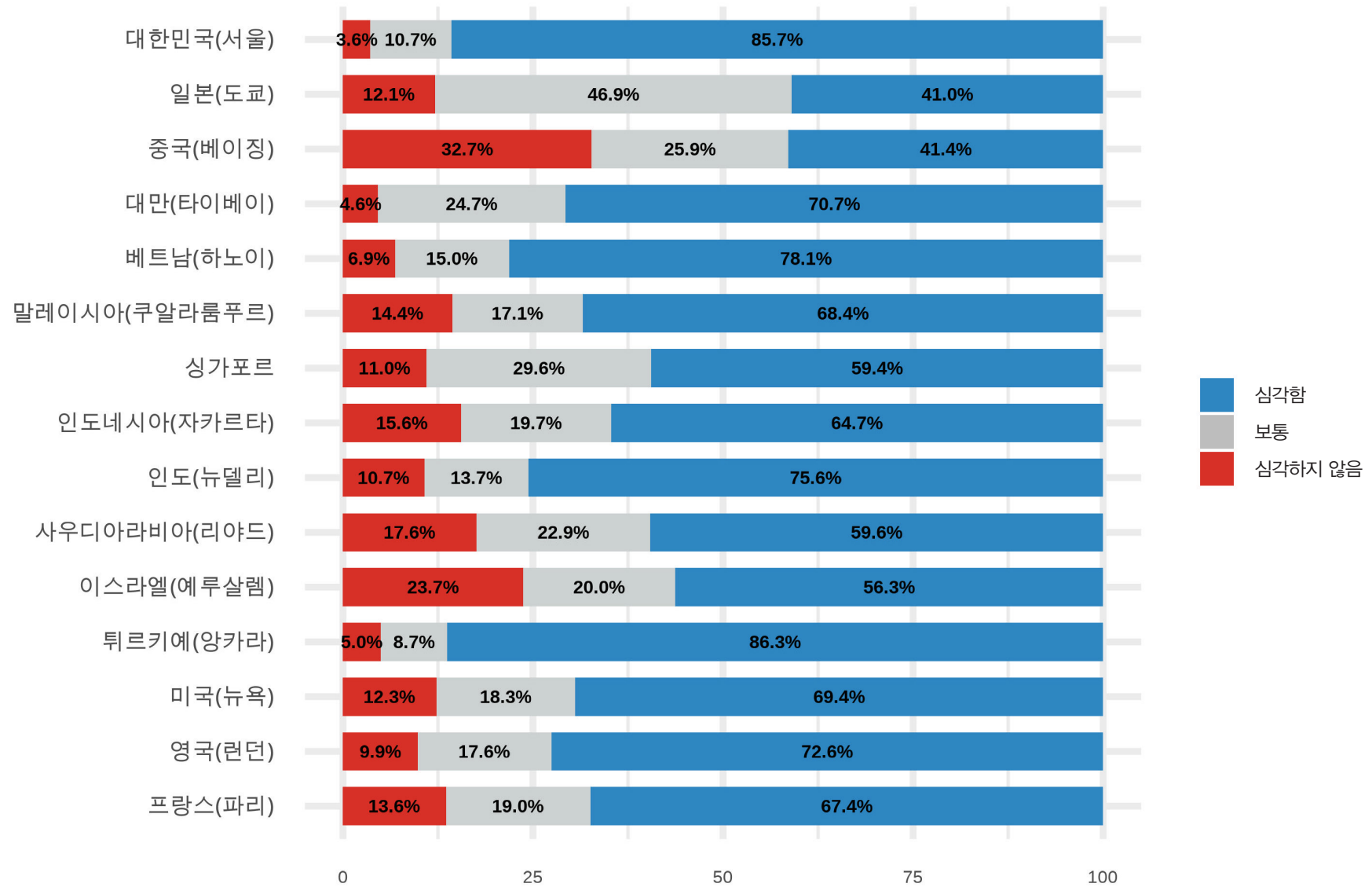
대한민국(서울)은 52.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15개 도시 중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아직 외국인 비율이 다른 글로벌 도시에 비해 낮아 피부로 느끼는 갈등의 강도가 덜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42.86%로 가장 높았고, 심각하다는 응답은 40.57%에 그쳤다. 대만의 타이베이(32.57%)와 중국의 베이징(34.57%)도 외국인 차별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52.71%, 보통 28.57%, 반대 18.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일본(도쿄)** 동의 40.57%, 보통 42.86%, 반대 16.57%.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34.57%, 보통 27.57%, 반대 37.86%.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32.57%, 보통 43.86%, 반대 23.57%.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베트남(하노이)** 동의 75.43%, 보통 17.57%,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8.57%, 보통 25.86%, 반대 15.57%.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싱가포르** 동의 60.14%, 보통 26.14%, 반대 13.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1.71%, 보통 20.71%, 반대 17.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뉴델리)** 동의 73.71%, 보통 13.14%, 반대 13.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1.14%, 보통 20.0%, 반대 18.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5.43%, 보통 19.29%, 반대 25.29%.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78.29%, 보통 11.43%, 반대 10.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미국(뉴욕)** 동의 63.57%, 보통 22.29%, 반대 14.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영국(런던)** 동의 72.43%, 보통 16.14%, 반대 11.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1.14%, 보통 15.14%, 반대 13.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치적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6.29%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서울)이 85.71%로 거의 차이 없는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진영 논리와 정치적 대립이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우려를 주고 있음을 방증한다. 베트남(하노이)(78.14%)과 인도(뉴델리)(75.57%)도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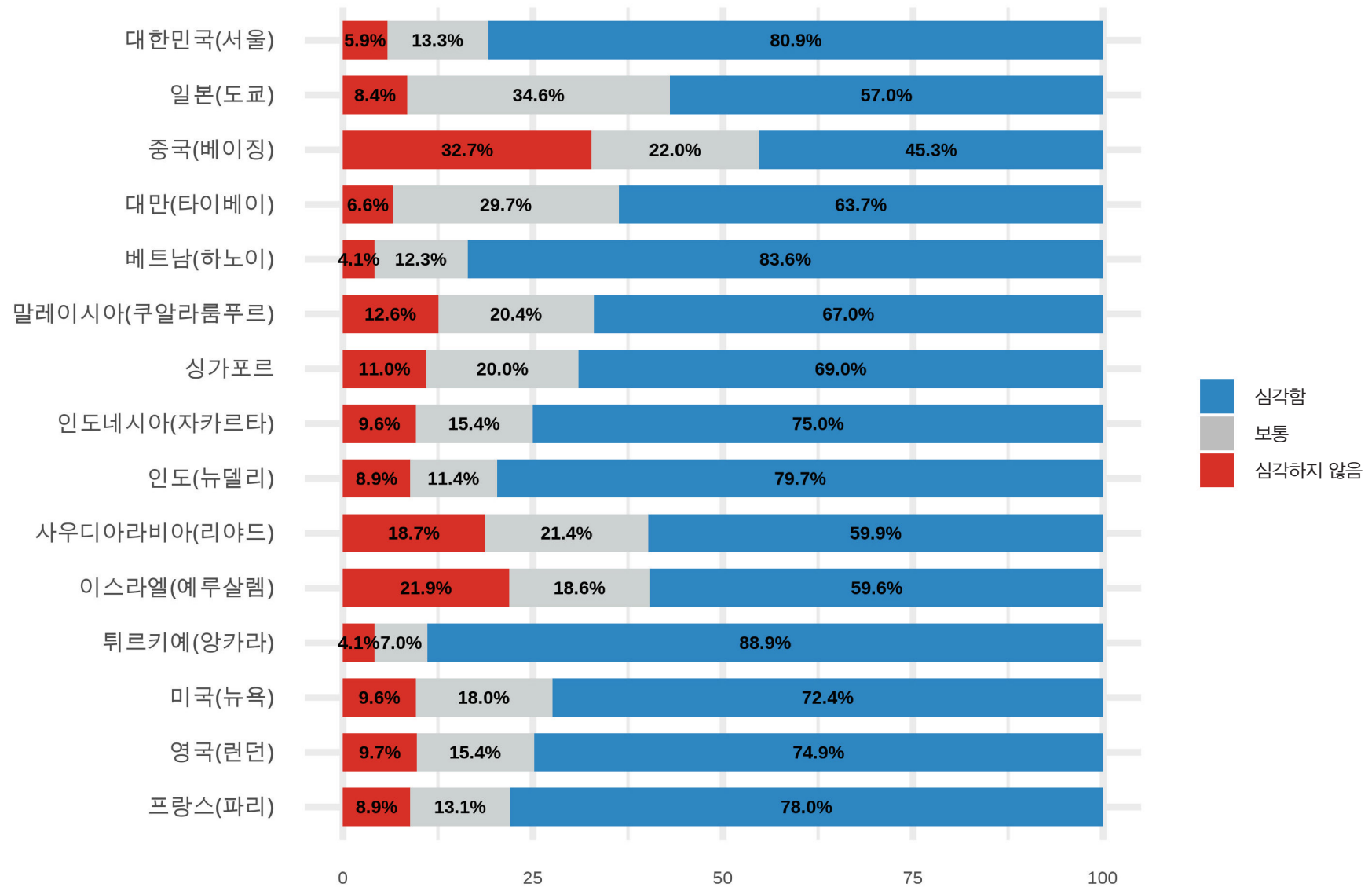
영국의 런던(72.57%), 대만의 타이베이(70.71%), 미국의 뉴욕(69.43%)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의 도시들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1.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2.71%로 가장 높아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통제된 환경이나 다른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일본(도쿄)은 41.00%만이 심각하다고 답해 정치적 무관심이나 갈등의 표출이 적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5.71%, 보통 10.71%, 반대 3.57%.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41.0%, 보통 46.86%, 반대 12.14%.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41.43%, 보통 25.86%, 반대 32.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0.71%, 보통 24.71%, 반대 4.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78.14%, 보통 15.0%,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43%, 보통 17.14%, 반대 14.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59.43%, 보통 29.57%, 반대 11.0%.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64.71%, 보통 19.71%, 반대 15.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뉴델리)** 동의 75.57%, 보통 13.71%, 반대 10.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9.57%, 보통 22.86%, 반대 17.57%.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6.29%, 보통 20.0%, 반대 23.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29%, 보통 8.71%, 반대 5.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69.43%, 보통 18.29%, 반대 12.29%.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영국(런던)** 동의 72.57%, 보통 17.57%, 반대 9.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67.43%, 보통 19.0%, 반대 13.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우리 사회의 대형재난 사고, 범죄증가 등 안전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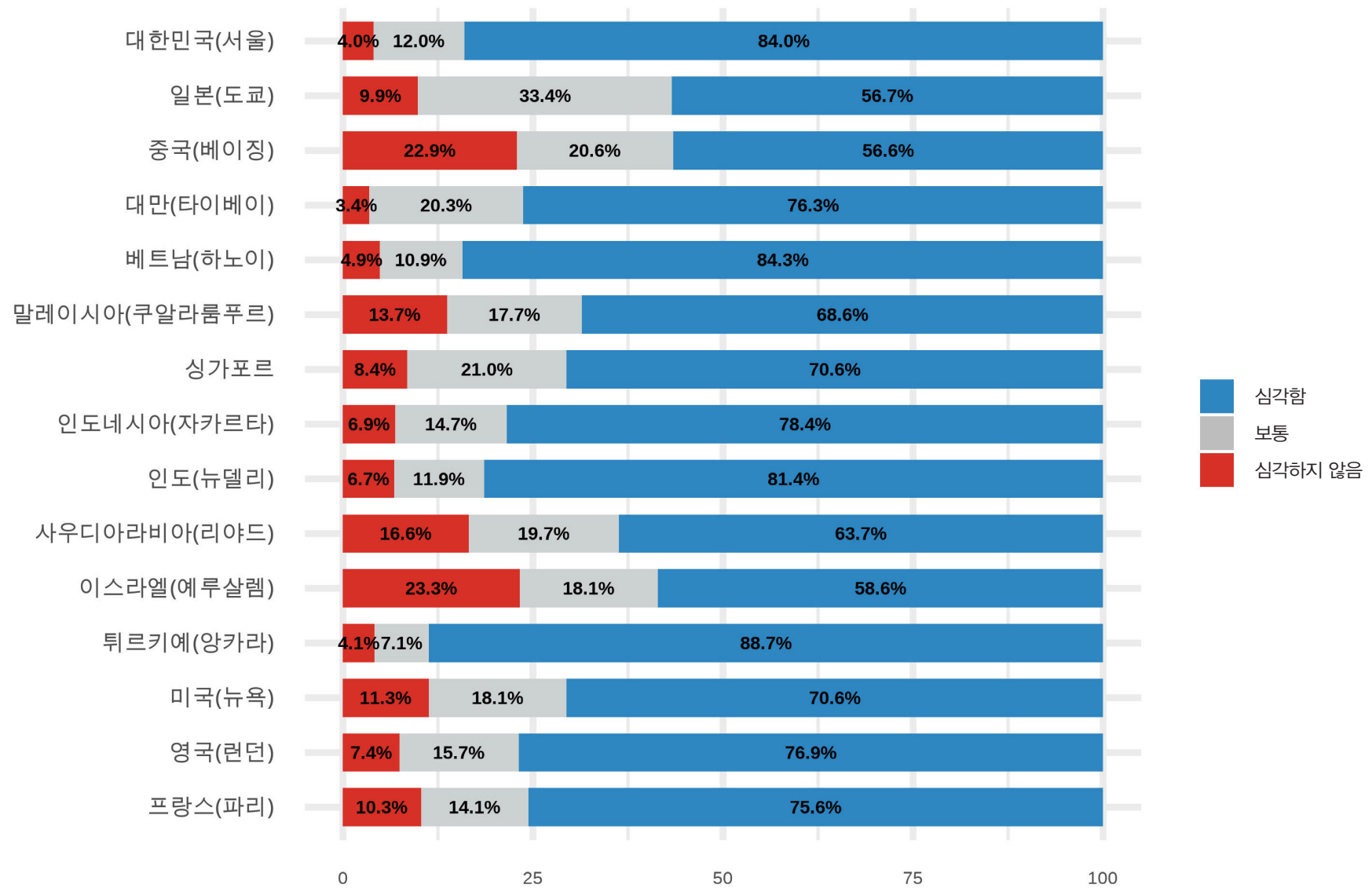


이 문항은 ‘안전 위협’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8.86%로 1위를 기록했고, 베트남(하노이)(83.57%)과 대한민국(서울)(80.86%)이 80%대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묻지마 범죄나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뉴델리)(79.71%)와 프랑스의 파리(78.00%)도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2.71%로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응답은 45.29%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34.57%로 높았고, 심각하다는 응답은 57.00% 수준이었다. 이스라엘(예루살렘)도 안전 위협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1.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0.86%, 보통 13.29%, 반대 5.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7.0%, 보통 34.57%, 반대 8.43%.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45.29%, 보통 22.0%, 반대 32.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63.71%, 보통 29.71%, 반대 6.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베트남(하노이)** 동의 83.57%, 보통 12.29%,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7.0%, 보통 20.43%, 반대 12.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69.0%, 보통 20.0%, 반대 11.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5.0%, 보통 15.43%, 반대 9.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79.71%, 보통 11.43%, 반대 8.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9.86%, 보통 21.43%, 반대 18.71%.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57%, 보통 18.57%, 반대 21.86%.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86%, 보통 7.0%,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2.43%, 보통 18.0%, 반대 9.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4.86%, 보통 15.43%, 반대 9.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8.0%, 보통 13.14%, 반대 8.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이 문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88.71%)와 베트남(하노이)(84.29%)이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였다. 인도(뉴델리)(81.43%)와 인도네시아(자카르타)(78.43%) 등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도시들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런던(76.86%)과 프랑스의 파리(75.57%) 등 유럽 도시들도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6.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2.86%로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도쿄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3.43%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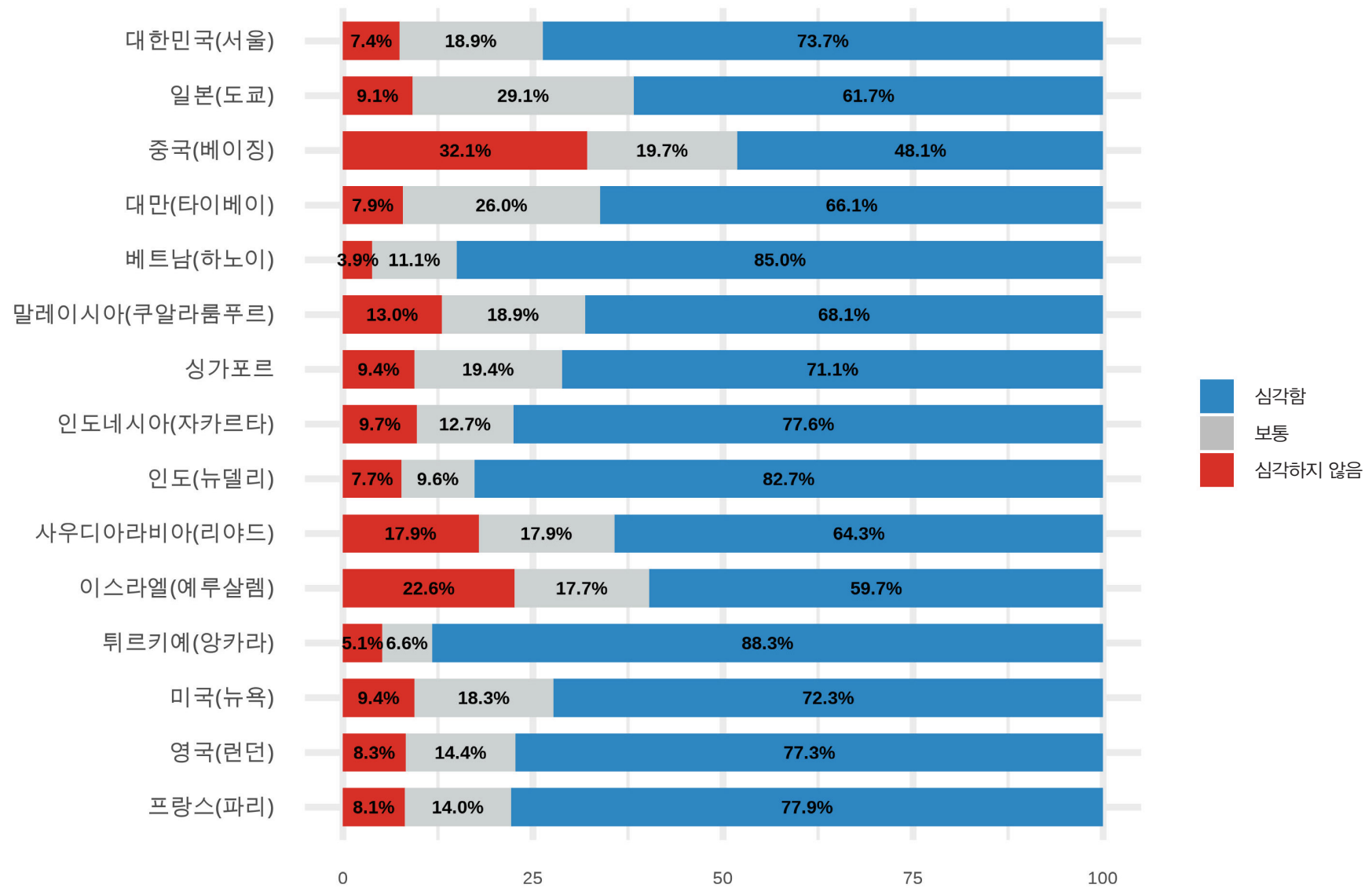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4.0%, 보통 12.0%, 반대 4.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6.71%, 보통 33.43%, 반대 9.86%.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평가.
- **중국(베이징)** 동의 56.57%, 보통 20.57%, 반대 22.86%.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76.29%, 보통 20.29%, 반대 3.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하노이)** 동의 84.29%, 보통 10.86%, 반대 4.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57%, 보통 17.71%, 반대 13.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70.57%, 보통 21.0%, 반대 8.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8.43%, 보통 14.71%,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81.43%, 보통 11.86%, 반대 6.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3.71%, 보통 19.71%, 반대 16.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8.57%, 보통 18.14%, 반대 23.29%.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71%, 보통 7.14%,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0.57%, 보통 18.14%, 반대 11.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6.86%, 보통 15.71%, 반대 7.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5.57%, 보통 14.14%, 반대 10.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Q30-11

우리 사회의 물·식량 부족, 전력수급 불안정 등 자원고갈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물, 식량, 전력 등 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튀르키예(앙카라)가 88.29%의 동의 비율을 기록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베트남(하노이)이 85.0%, 인도(뉴델리)가 82.71%의 동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동의 비율이 70%대인 도시는 프랑스(파리) 77.8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77.57%, 영국(런던) 77.29%, 대한민국(서울) 73.71%, 미국(뉴욕) 72.29%, 싱가포르 71.14% 순이었다. 60%대의 동의 비율을 보인 도시는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68.14%, 대만(타이베이) 66.14%,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64.29%, 일본(도쿄) 6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베이징)은 동의 비율이 48.14%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고, 반대 비율은 32.14%로 가장 높았다. 이스라엘(예루살렘)은 동의 비율 59.71%와 반대 비율 22.57%를 보였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29.14%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타이베이) 26.0%, 중국(베이징) 19.7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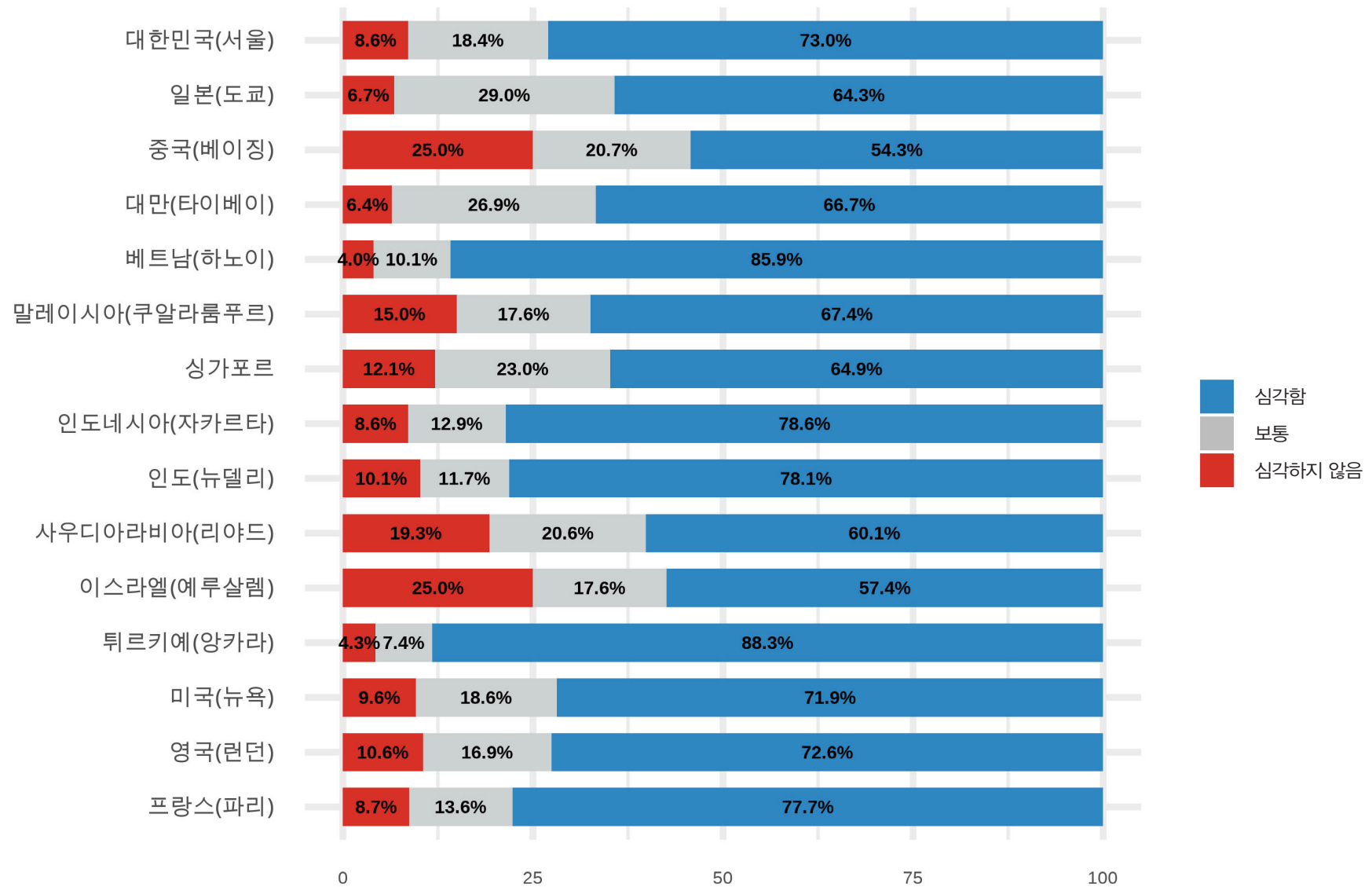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3.71%, 보통 18.86%, 반대 7.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일본(도쿄)** 동의 61.71%, 보통 29.14%, 반대 9.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중국(베이징)** 동의 48.14%, 보통 19.71%, 반대 32.14%.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66.14%, 보통 26.0%, 반대 7.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베트남(하노이)** 동의 85.0%, 보통 11.14%, 반대 3.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14%, 보통 18.86%, 반대 13.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71.14%, 보통 19.43%, 반대 9.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7.57%, 보통 12.71%, 반대 9.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82.71%, 보통 9.57%, 반대 7.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4.29%, 보통 17.86%, 반대 17.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71%, 보통 17.71%, 반대 22.57%.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29%, 보통 6.57%, 반대 5.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2.29%, 보통 18.29%, 반대 9.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7.29%, 보통 14.43%, 반대 8.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7.86%, 보통 14.0%, 반대 8.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Q30-12

우리 사회의 지진, 홍수, 가뭄, 태풍,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지진,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튀르키예(앙카라)에서 심각하다는 동의 비율이 88.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하노이)이 85.86%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는 78.57%, 인도(뉴델리)는 78.14%, 프랑스(파리)는 77.71%가 해당 문제에 동의했다.

대한민국(서울)은 73.0%의 동의 비율을 보였으며, 영국(런던) 72.57%, 미국(뉴욕) 71.86% 순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는 67.43%, 대만(타이베이)은 66.71%, 싱가포르와 일본(도쿄)은 각각 64.86%와 64.2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 동의 비율은 60.14%였다.

반면, 중국(베이징)은 동의 비율이 54.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25.0%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스라엘(예루살렘) 역시 동의 비율 57.43%와 함께 반대 비율 25.0%를 기록했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29.0%로 가장 높았고, 대만(타이베이) 26.86%, 싱가포르 2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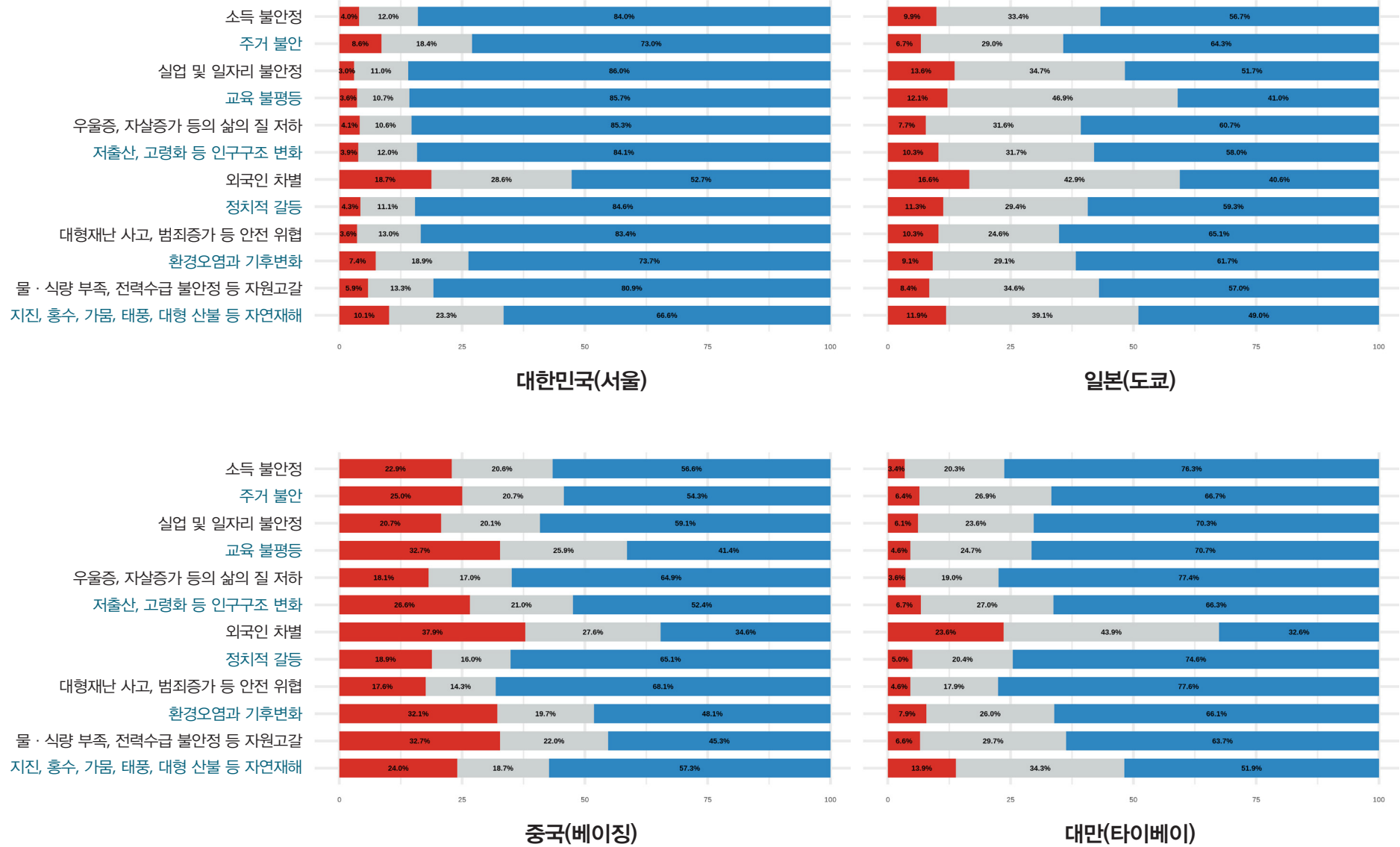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3.0%, 보통 18.43%, 반대 8.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일본(도쿄)** 동의 64.29%, 보통 29.0%, 반대 6.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중국(베이징)** 동의 54.29%, 보통 20.71%, 반대 25.0%.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대만(타이베이)** 동의 66.71%, 보통 26.86%, 반대 6.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베트남(하노이)** 동의 85.86%, 보통 10.14%, 반대 4.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7.43%, 보통 17.57%, 반대 15.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싱가포르** 동의 64.86%, 보통 23.0%, 반대 12.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8.57%, 보통 12.86%, 반대 8.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도(뉴델리)** 동의 78.14%, 보통 11.71%, 반대 10.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14%, 보통 20.57%, 반대 19.29%.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낌.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7.43%, 보통 17.57%, 반대 25.0%. 인식이 분화되어 있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29%, 보통 7.43%, 반대 4.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
- **미국(뉴욕)** 동의 71.86%, 보통 18.57%, 반대 9.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런던)** 동의 72.57%, 보통 16.86%, 반대 10.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프랑스(파리)** 동의 77.71%, 보통 13.57%, 반대 8.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Q.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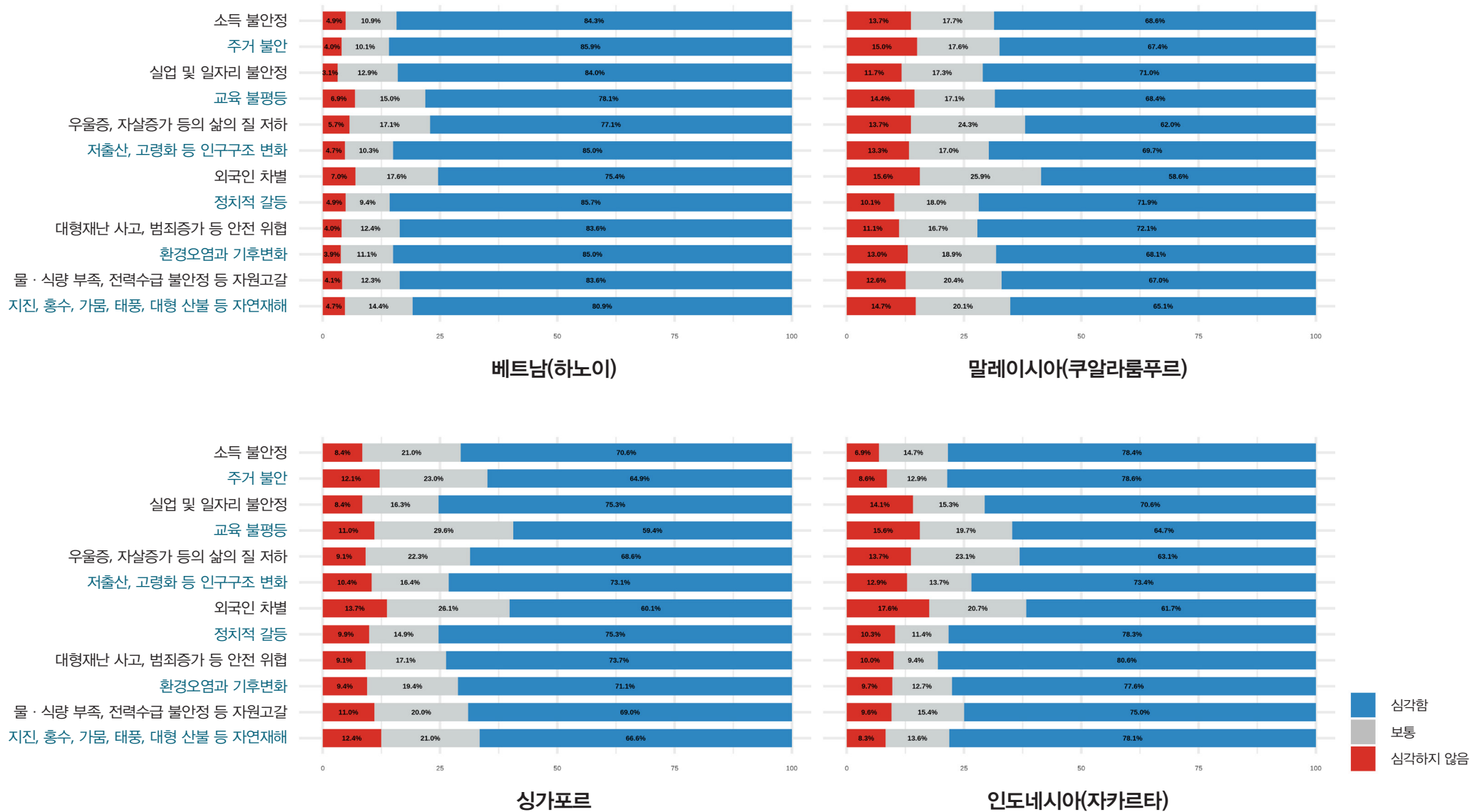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Q.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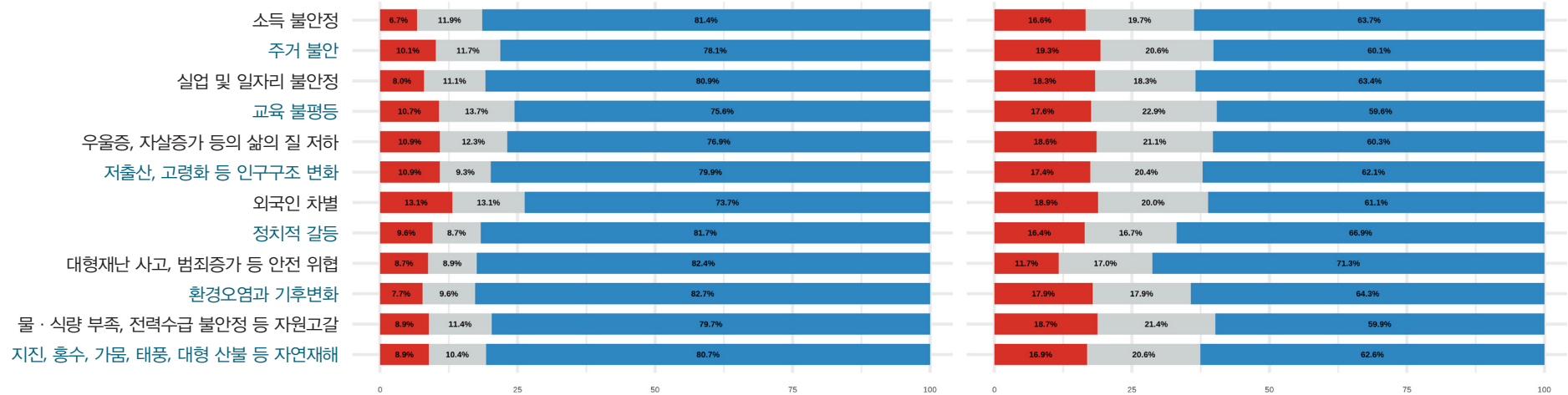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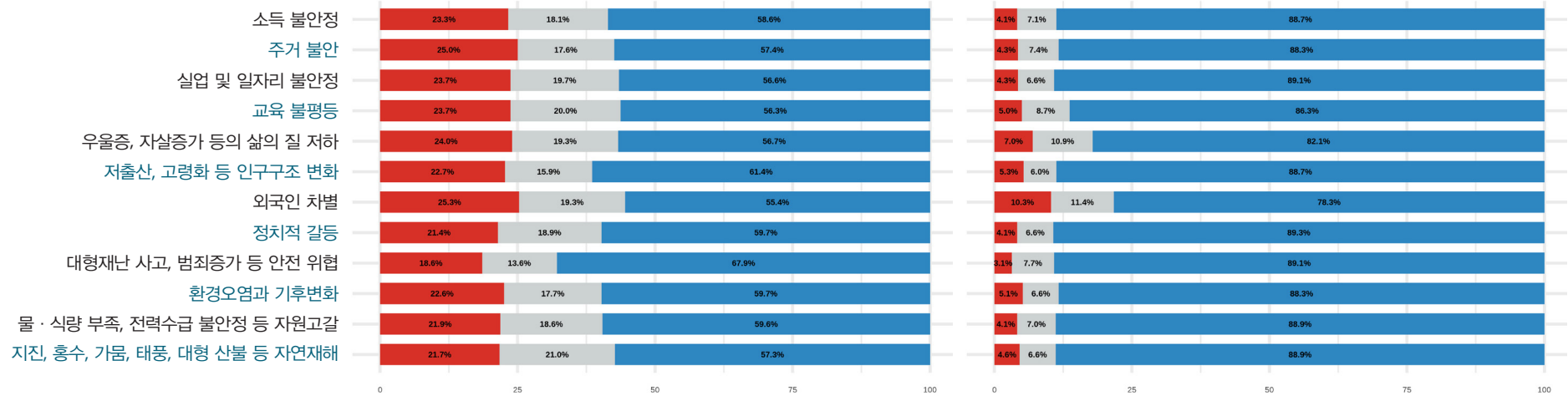
Q.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 · 남아시아



인도(뉴델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스라엘(예루살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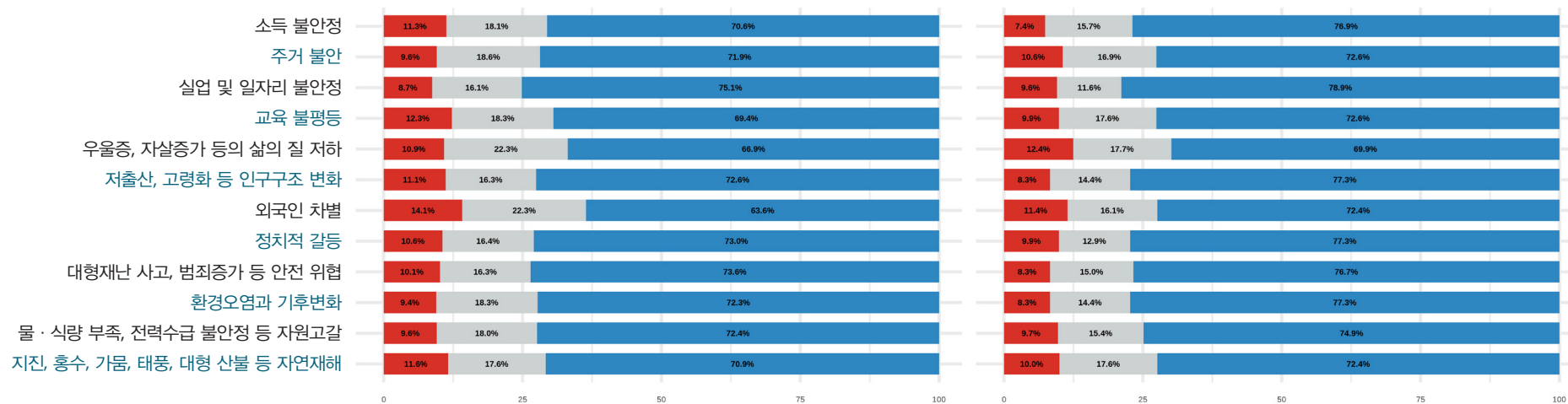
튀르키예(안카라)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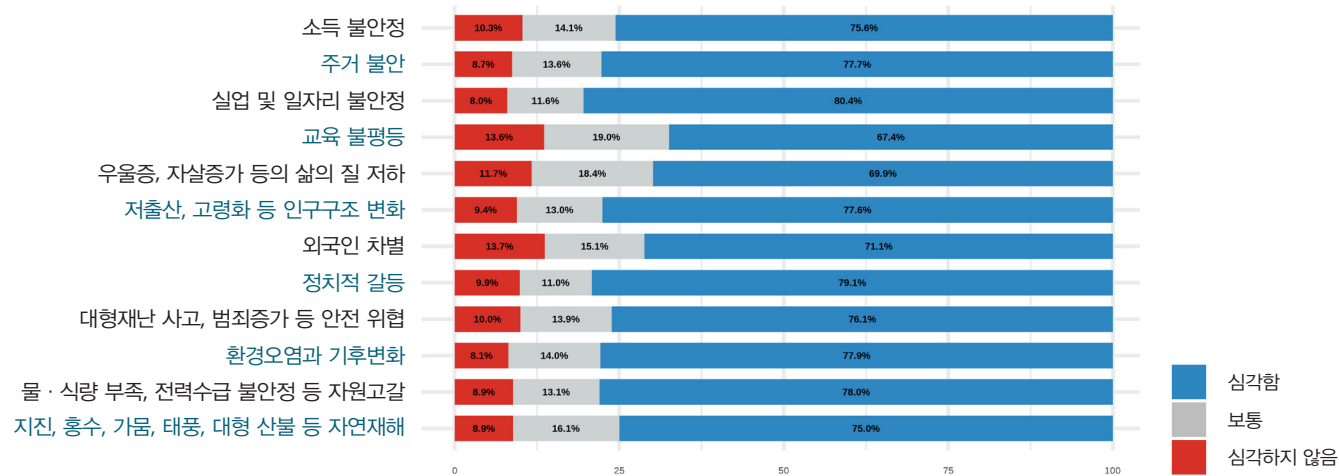
Q.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미국(뉴욕)

영국(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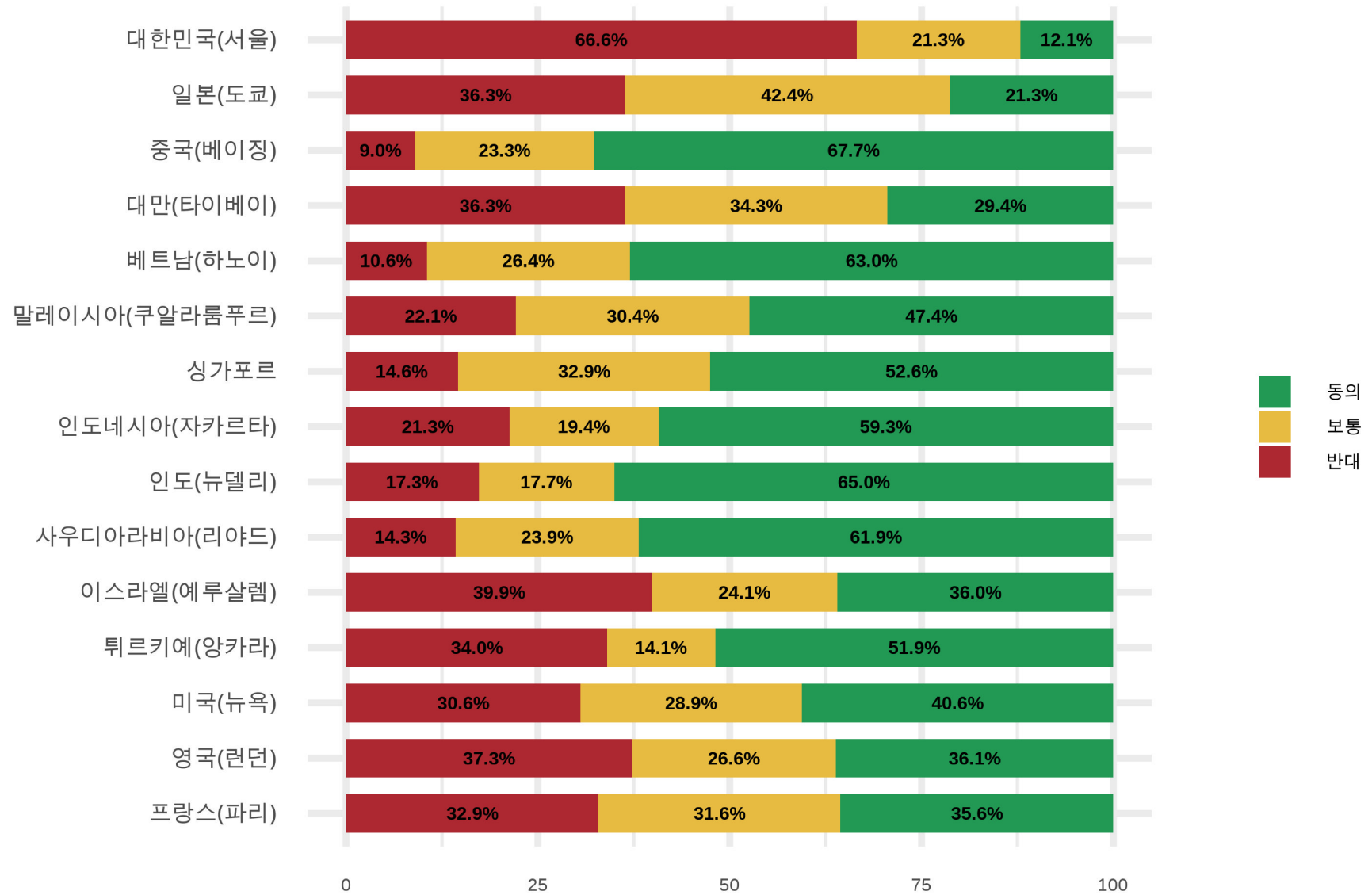


프랑스(파리)

■ 심각함
■ 보통
■ 심각하지 않음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도시별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베이징은 67.71%가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보였다. 이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지지가 높음을 시사한다. 인도의 뉴델리(65.00%)와 베트남의 하노이(63.00%)도 60% 이상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여,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61.86%)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59.29%), 싱가포르(52.57%), 튀르키예의 앙카라(51.86%) 까지 총 7개 도시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서울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12.14%에 불과해 15개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66.57%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정부의 사회문제 대응 능력이나 정책 효과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39.86%), 영국의 런던(37.29%), 일본의 도쿄(36.29%), 대만의 타이베이(36.29%) 등 민주주의가 성숙하거나 정치적 논쟁이 활발한 도시들에서도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도쿄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2.43%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거나 큰 기대가 없는 무관심한 태도가 엿보였다. 프랑스의 파리 역시 긍정(35.57%)과 부정(32.86%), 보통(31.57%) 응답이 30%대로 팽팽하게 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분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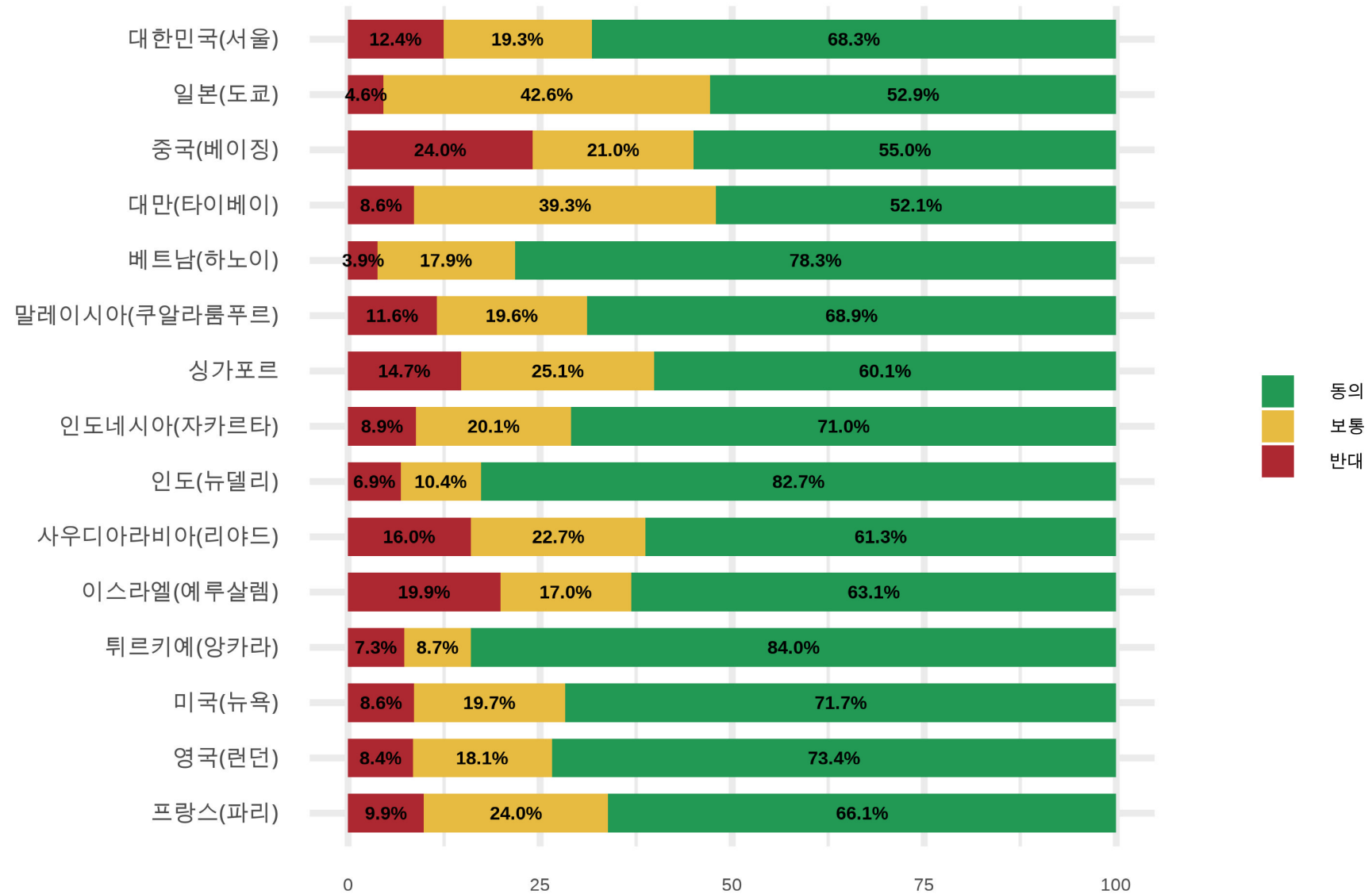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12.14%, 보통 21.29%, 반대 66.57%. 정부 대응에 매우 비판적임.
- **일본(도쿄)** 동의 21.29%, 보통 42.43%, 반대 36.29%.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중국(베이징)** 동의 67.71%, 보통 23.29%, 반대 9.0%. 정부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대만(타이베이)** 동의 29.43%, 보통 34.29%, 반대 36.29%.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베트남(하노이)** 동의 63.0%, 보통 26.43%, 반대 10.57%. 정부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47.43%, 보통 30.43%, 반대 22.14%. 평가가 엇갈림.
- **싱가포르** 동의 52.57%, 보통 32.86%, 반대 14.57%.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59.29%, 보통 19.43%, 반대 21.29%.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
- **인도(뉴델리)** 동의 65.0%, 보통 17.71%, 반대 17.29%. 정부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1.86%, 보통 23.86%, 반대 14.29%. 정부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36.0%, 보통 24.14%, 반대 39.86%.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51.86%, 보통 14.14%, 반대 34.0%.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
- **미국(뉴욕)** 동의 40.57%, 보통 28.86%, 반대 30.57%.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영국(런던)** 동의 36.14%, 보통 26.57%, 반대 37.29%.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프랑스(파리)** 동의 35.57%, 보통 31.57%, 반대 32.86%.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Q32-1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예산과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자원 부족 문제를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심각성을 보인 도시는 튀르키예(앙카라)로, 84.0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행정 자원의 부족이 사회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보여준다. 인도(뉴델리)(82.71%)와 베트남(하노이)(78.29%)이 그 뒤를 이었는데, 급속한 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런던(73.43%)과 미국의 뉴욕(71.71%) 등 선진국 도시들에서도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서울)은 68.29%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중위권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과반 이상의 시민이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4.00%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응답은 55.0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정부의 자원 동원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되었거나, 문제의 원인을 자원 부족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42.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자원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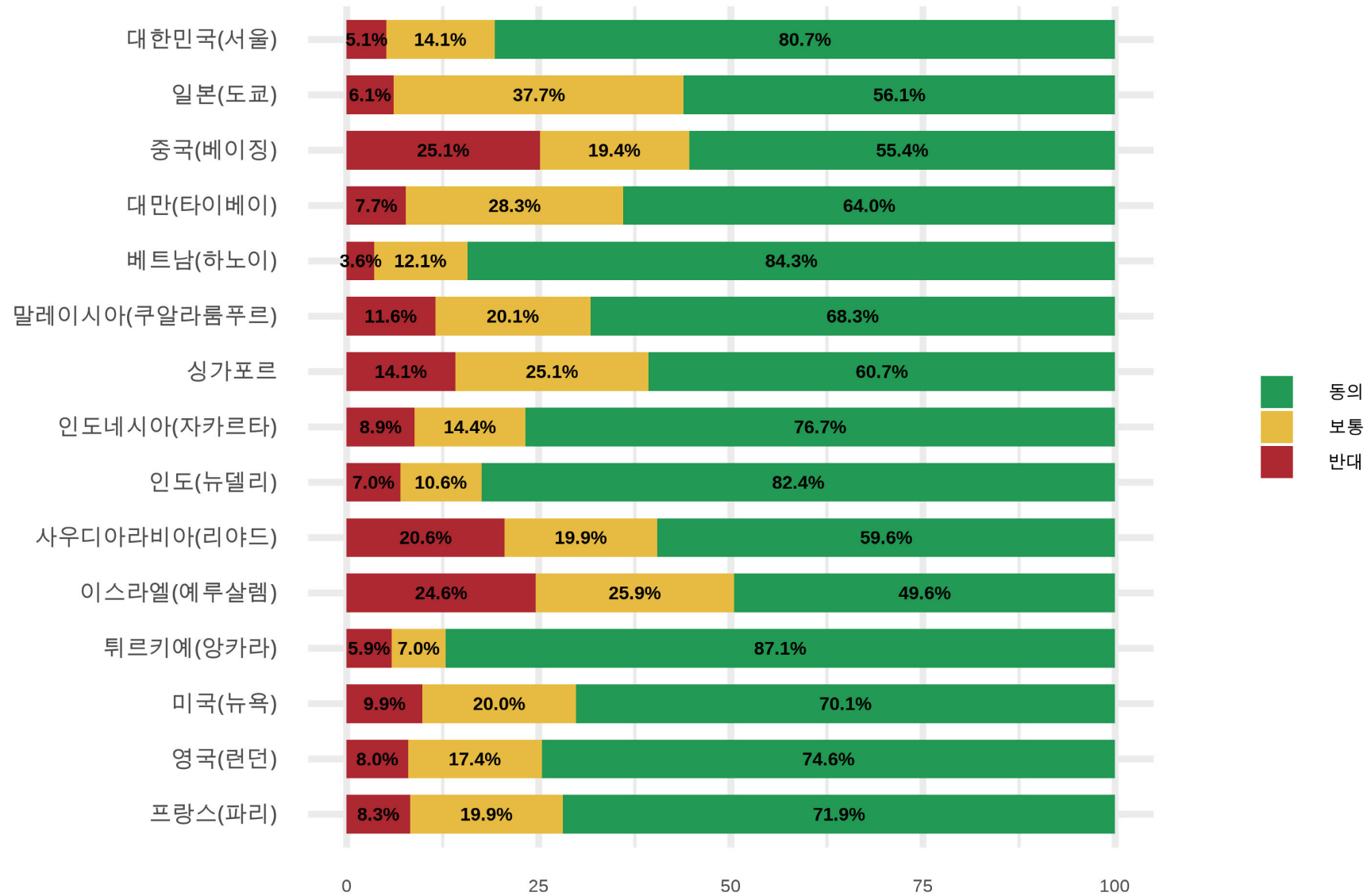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8.29%, 보통 19.29%, 반대 12.43%.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2.86%, 보통 42.57%, 반대 4.57%.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55.0%, 보통 21.0%, 반대 24.0%.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52.14%, 보통 39.29%, 반대 8.57%.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베트남(하노이)** 동의 78.29%, 보통 17.86%, 반대 3.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86%, 보통 19.57%, 반대 11.57%.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싱가포르** 동의 60.14%, 보통 25.14%, 반대 14.71%.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1.0%, 보통 20.14%, 반대 8.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2.71%, 보통 10.43%, 반대 6.86%.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1.29%, 보통 22.71%, 반대 16.0%.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3.14%, 보통 17.0%, 반대 19.86%.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4.0%, 보통 8.71%, 반대 7.29%.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71.71%, 보통 19.71%, 반대 8.57%.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3.43%, 보통 18.14%, 반대 8.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66.14%, 보통 24.0%, 반대 9.86%.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Q32-2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부족한 전문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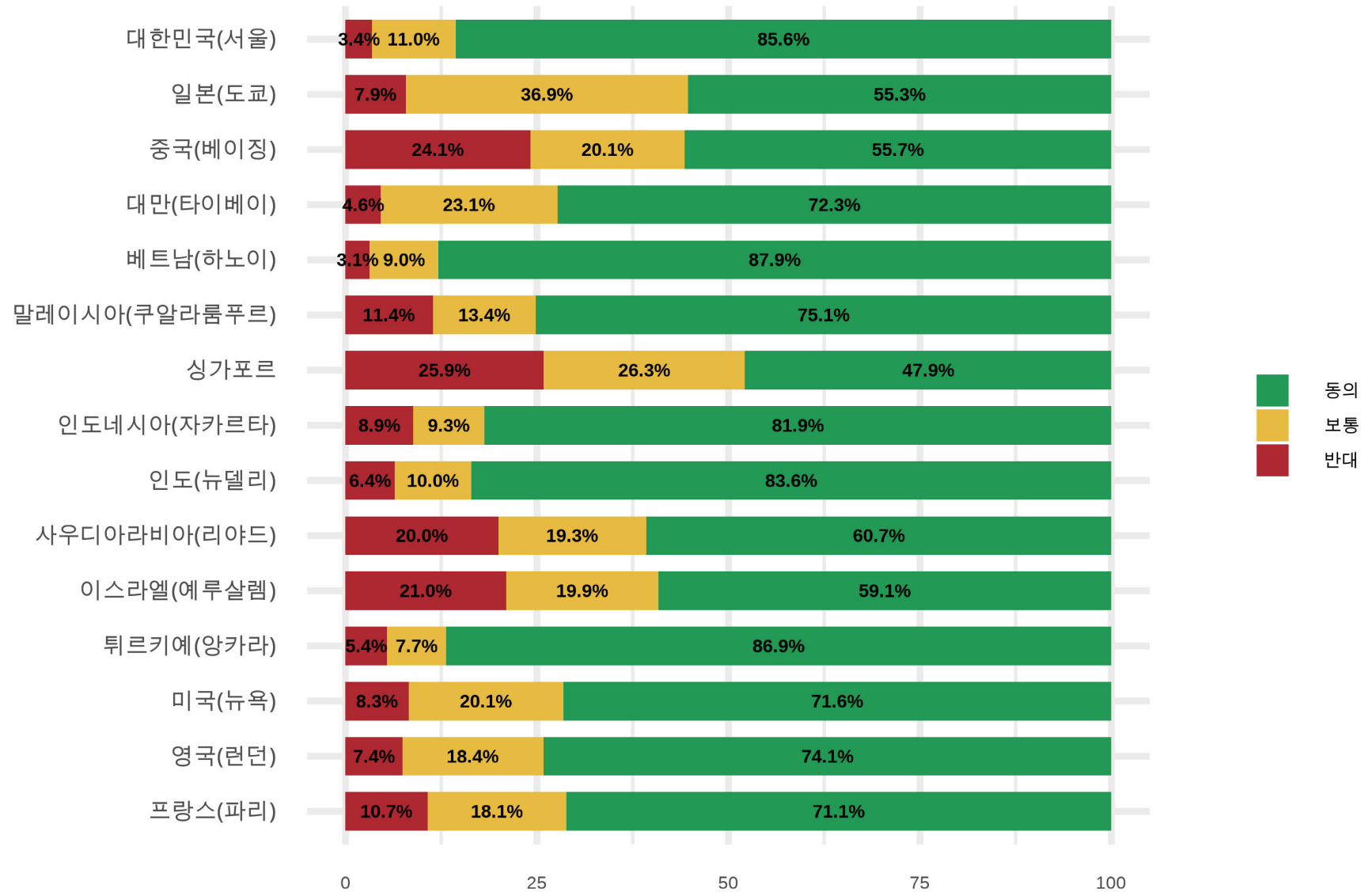
이 문항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사회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인지를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7.14%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베트남(하노이)(84.29%)과 인도(뉴델리)(82.43%)가 80%대로 뒤를 이었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서울)은 80.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함을 방증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6.71%), 영국(런던)(74.57%), 프랑스(파리)(71.86%) 등에서도 전문성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9.57%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4.57%로 15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6.14%로 비교적 낮았고, '보통이다'는 응답이 37.71%로 가장 높았다. 중국(베이징) 역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도시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0.71%, 보통 14.14%, 반대 5.14%.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일본(도쿄)** 동의 56.14%, 보통 37.71%, 반대 6.14%.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55.43%, 보통 19.43%, 반대 25.14%.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64.0%, 보통 28.29%, 반대 7.71%.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베트남(하노이)** 동의 84.29%, 보통 12.14%, 반대 3.57%.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8.29%, 보통 20.14%, 반대 11.57%.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싱가포르** 동의 60.71%, 보통 25.14%, 반대 14.14%.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6.71%, 보통 14.43%, 반대 8.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2.43%, 보통 10.57%, 반대 7.0%.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9.57%, 보통 19.86%, 반대 20.57%. 인식이 분산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9.57%, 보통 25.86%, 반대 24.57%. 인식이 분산됨.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7.14%, 보통 7.0%, 반대 5.86%.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70.14%, 보통 20.0%, 반대 9.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4.57%, 보통 17.43%, 반대 8.0%.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71.86%, 보통 19.86%, 반대 8.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비리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비리와 부패’가 사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정도를 묻는 것이다. 예상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겪는 국가의 도시들에서 매우 높은 심각성을 보였다. 베트남(하노이)이 87.86%로 1위를 차지했고, 튀르키예(앙카라)가 86.86%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서울)은 85.5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부패 문제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뉴델리)(83.57%)와 인도네시아(자카르타)(81.86%)도 8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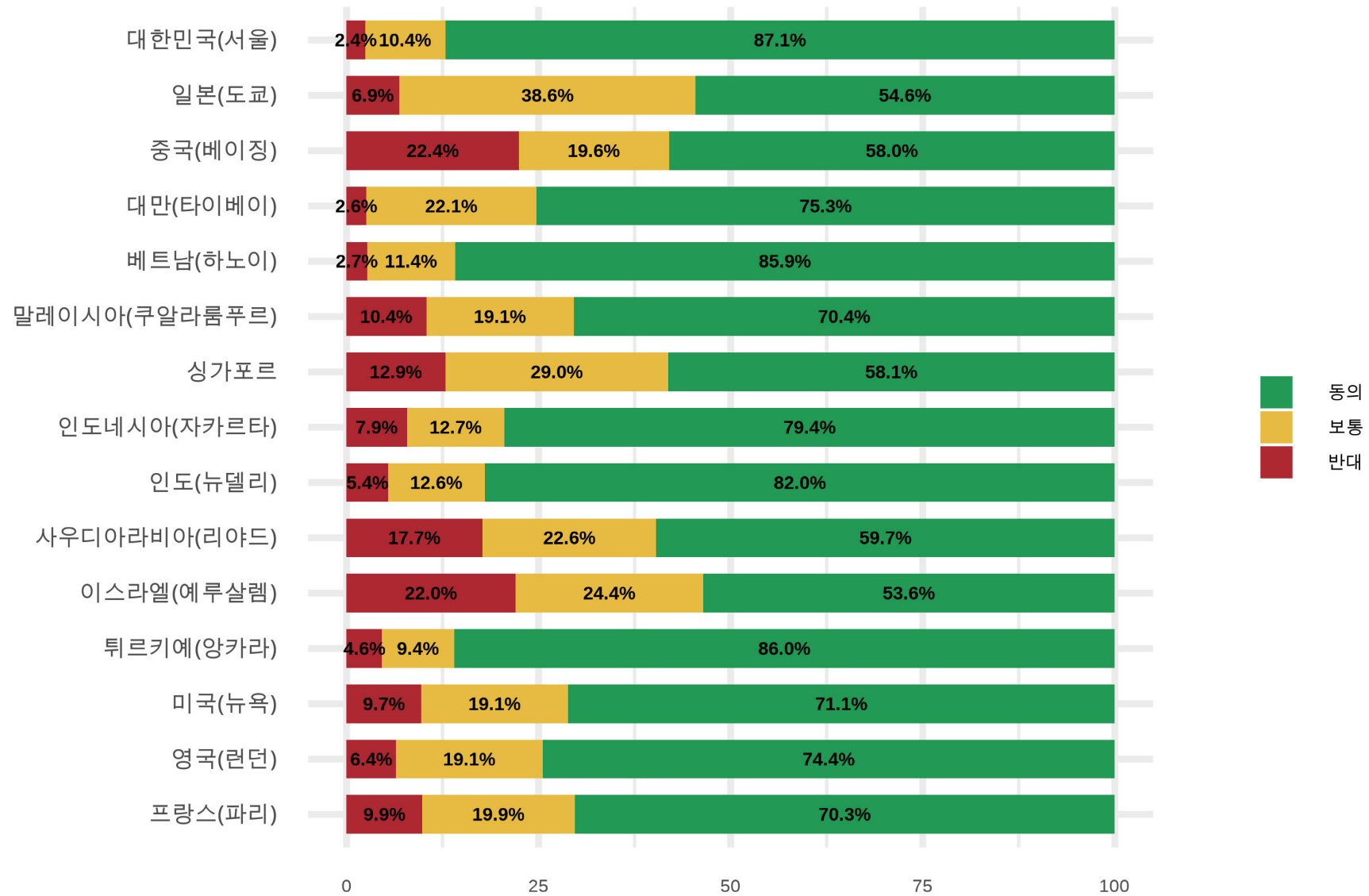
반면, 싱가포르의 ‘심각하다’는 응답이 47.86%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지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 방지 정책과 높은 청렴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도 25.86%로 가장 높았다. 중국(베이징)(55.71%)과 일본(도쿄)(55.29%)도 상대적으로 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았으나, 여전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5.57%, 보통 11.0%, 반대 3.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일본(도쿄)** 동의 55.29%, 보통 36.86%, 반대 7.86%.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55.71%, 보통 20.14%, 반대 24.14%.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72.29%, 보통 23.14%, 반대 4.57%.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베트남(하노이)** 동의 87.86%, 보통 9.0%, 반대 3.14%.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5.14%, 보통 13.43%, 반대 11.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싱가포르** 동의 47.86%, 보통 26.29%, 반대 25.86%. 인식이 분산됨.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1.86%, 보통 9.29%, 반대 8.86%.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인도(뉴델리)** 동의 83.57%, 보통 10.0%, 반대 6.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71%, 보통 19.29%, 반대 20.0%.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14%, 보통 19.86%, 반대 21.0%. 인식이 분산됨.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86%, 보통 7.71%, 반대 5.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71.57%, 보통 20.14%, 반대 8.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4.14%, 보통 18.43%, 반대 7.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71.14%, 보통 18.14%, 반대 10.71%.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정부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한민국(서울)이 87.14%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튀르키예(앙카라)(86.00%)와 베트남(하노이)(85.86%)도 이해관계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도(뉴델리)(82.00%)와 인도네시아(자카르타)(79.43%) 역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만의 타이베이(75.29%)와 영국의 런던(74.43%)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의 충돌로 인한 갈등 조정의 어려움이 주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3.57%로 가장 낮았으며, 일본(도쿄)은 54.5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도쿄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8.57%로 가장 높아,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표면화되지 않은 갈등을 감지하는 정도가 다름을 시사했다. 중국(베이징)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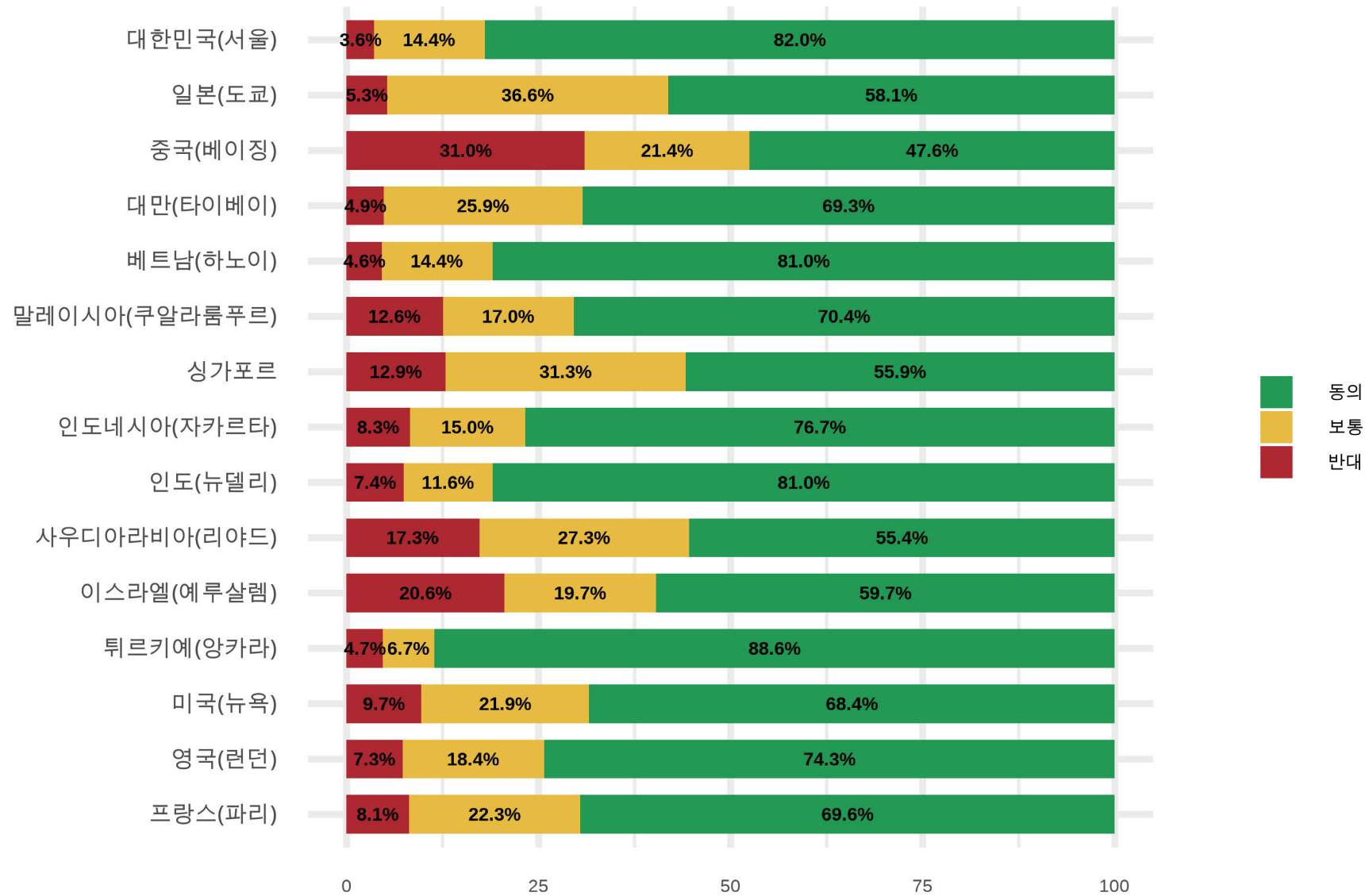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7.14%, 보통 10.43%, 반대 2.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일본(도쿄)** 동의 54.57%, 보통 38.57%, 반대 6.86%.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58.0%, 보통 19.57%, 반대 22.43%.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75.29%, 보통 22.14%, 반대 2.57%.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베트남(하노이)** 동의 85.86%, 보통 11.43%, 반대 2.71%.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0.43%, 보통 19.14%, 반대 10.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싱가포르** 동의 58.14%, 보통 29.0%, 반대 12.86%. 인식이 분산됨.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9.43%, 보통 12.71%, 반대 7.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2.0%, 보통 12.57%, 반대 5.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9.71%, 보통 22.57%, 반대 17.71%. 인식이 분산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3.57%, 보통 24.43%, 반대 22.0%. 인식이 분산됨.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0%, 보통 9.43%, 반대 4.57%.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71.14%, 보통 19.14%, 반대 9.71%.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4.43%, 보통 19.14%, 반대 6.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70.29%, 보통 19.86%, 반대 9.86%.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Q32-5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정당과 국회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치권(정당 및 국회)의 비협조'가 사회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정도를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8.5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서울)이 82.00%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정치권의 정쟁과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이 매우 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베트남(하노이)(81.00%)과 인도(뉴델리)(81.00%)도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6.71%)와 영국의 런던(74.29%) 역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나 정파적 대립이 사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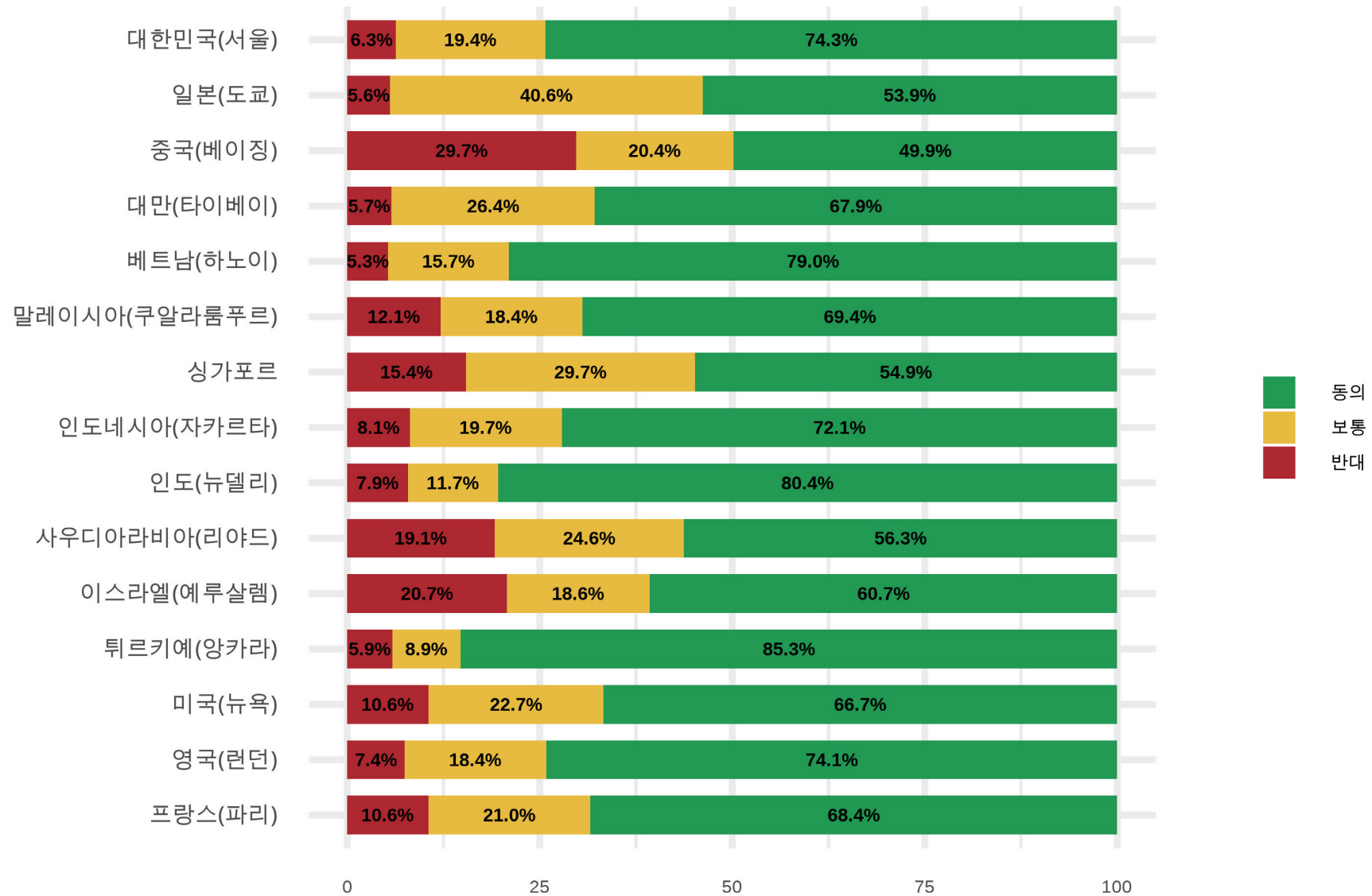
반면, 중국(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7.57%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1.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어렵거나, 일당 중심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55.43%)와 싱가포르(55.86%)도 상대적으로 정치권 비판 여론이 낮았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2.0%, 보통 14.43%, 반대 3.57%.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일본(도쿄)** 동의 58.14%, 보통 36.57%, 반대 5.29%.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47.57%, 보통 21.43%, 반대 31.0%.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69.29%, 보통 25.86%, 반대 4.86%.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베트남(하노이)** 동의 81.0%, 보통 14.43%, 반대 4.57%.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70.43%, 보통 17.0%, 반대 12.57%.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싱가포르** 동의 55.86%, 보통 31.29%, 반대 12.86%.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6.71%, 보통 15.0%, 반대 8.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1.0%, 보통 11.57%, 반대 7.43%.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5.43%, 보통 27.29%, 반대 17.29%. 인식이 분산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71%, 보통 19.71%, 반대 20.57%. 인식이 분산됨.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8.57%, 보통 6.71%, 반대 4.71%.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68.43%, 보통 21.86%, 반대 9.71%.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4.29%, 보통 18.43%, 반대 7.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69.57%, 보통 22.29%, 반대 8.14%.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국민적 합의와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 확보’의 어려움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5.29%로 1위를 기록했고, 인도(뉴델리)(80.43%)가 뒤를 이었다. 베트남(하노이)은 79.00%로 3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서울)은 74.29%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 항목과 연결되어, 사회적 신뢰 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영국의 런던(74.14%)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72.14%)도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9.86%로 가장 낮았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9.71%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방식으로 인해 합의 과정보다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40.57%로 가장 높아, 국민적 합의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4.29%, 보통 19.43%, 반대 6.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일본(도쿄)** 동의 53.86%, 보통 40.57%, 반대 5.57%.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중국(베이징)** 동의 49.86%, 보통 20.43%, 반대 29.71%. 인식이 분산됨.
- **대만(타이베이)** 동의 67.86%, 보통 26.43%, 반대 5.71%.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베트남(하노이)** 동의 79.0%, 보통 15.71%, 반대 5.29%.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43%, 보통 18.43%, 반대 12.14%.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싱가포르** 동의 54.86%, 보통 29.71%, 반대 15.43%.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시각.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2.14%, 보통 19.71%, 반대 8.14%.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인도(뉴델리)** 동의 80.43%, 보통 11.71%, 반대 7.86%.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6.29%, 보통 24.57%, 반대 19.14%. 인식이 분산됨.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0.71%, 보통 18.57%, 반대 20.71%.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5.29%, 보통 8.86%, 반대 5.86%. 정부의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
- **미국(뉴욕)** 동의 66.71%, 보통 22.71%, 반대 10.57%.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 **영국(런던)** 동의 74.14%, 보통 18.43%, 반대 7.43%. 장애 요인으로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
- **프랑스(파리)** 동의 68.43%, 보통 21.0%, 반대 10.57%. 과반이 장애 요인으로 인식.



Q.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Q.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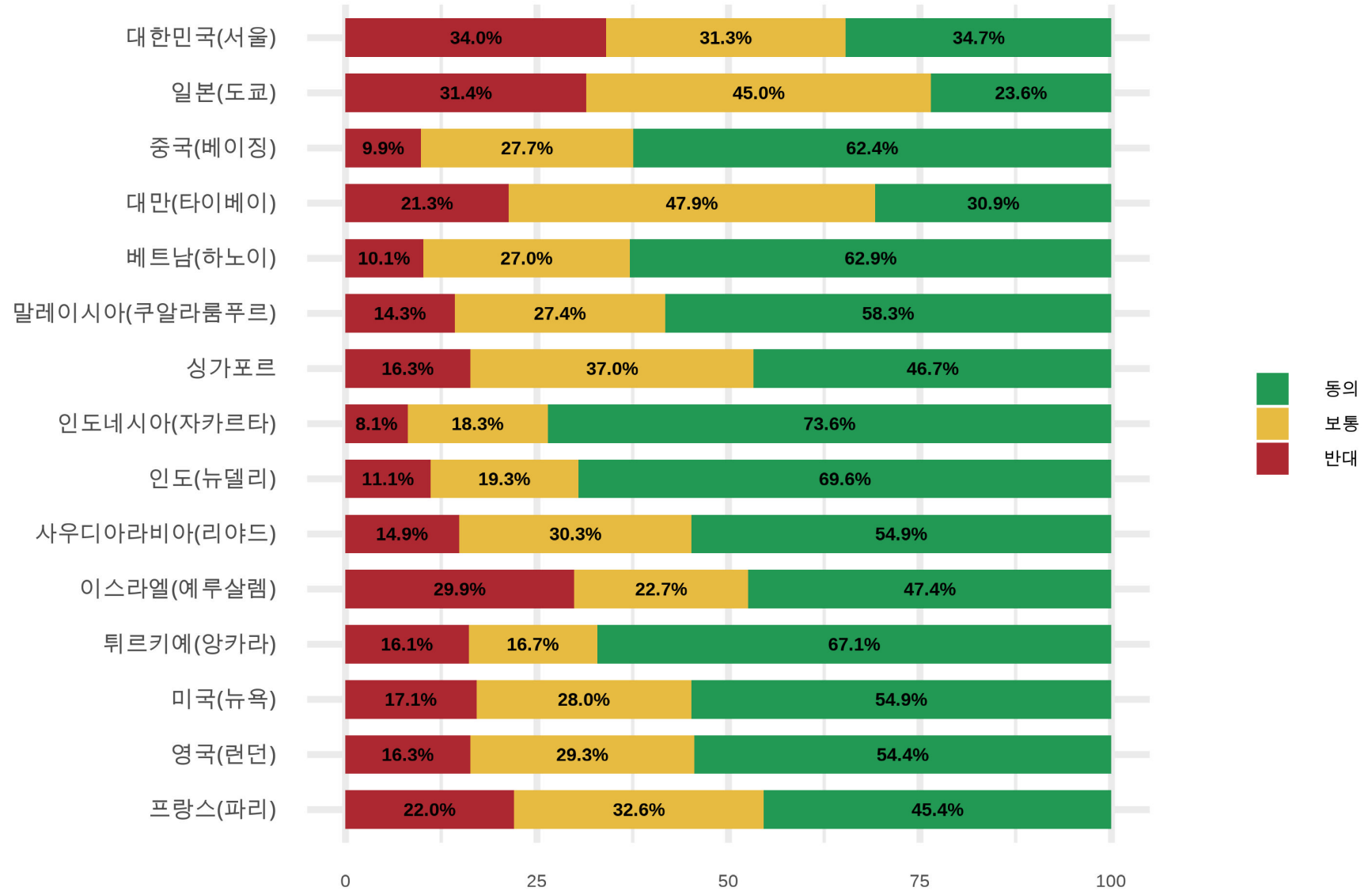
Q.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
■ 보통
■ 반대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문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도시별로 시민의식이나 참여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73.57%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보였다. 이는 자카르타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참여의 효능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거나, 실제로 활발한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의 뉴델리(69.57%)와 튀르키예의 앙카라(67.14%) 역시 70%에 육박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 이들 국가에서 시민 주도의 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하노이(62.86%)와 중국의 베이징(62.43%)도 60% 이상의 시민들이 개개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58.29%),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54.86%), 미국의 뉴욕(54.86%), 영국의 런던(54.43%) 등에서도 과반의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대한민국의 서울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34.71%에 그쳤다. 이는 15개 도시 중 13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이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34.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서울 시민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참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일본의 도쿄는 긍정 응답이 23.57%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4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보기보다는 시스템이나 정부의 역할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노력에 대해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의 타이베이 역시 긍정 응답은 30.86%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7.86%로 과반에 육박해 도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긍정 응답이 47.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부정 응답이 29.86%로 서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프랑스의 파리는 긍정 응답이 45.43%였으나, 부정 응답(22.00%)보다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시민 참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에 속했다. 싱가포르의 긍정 응답이 46.71%였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37.00%로 높게 나타나 시민 노력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갈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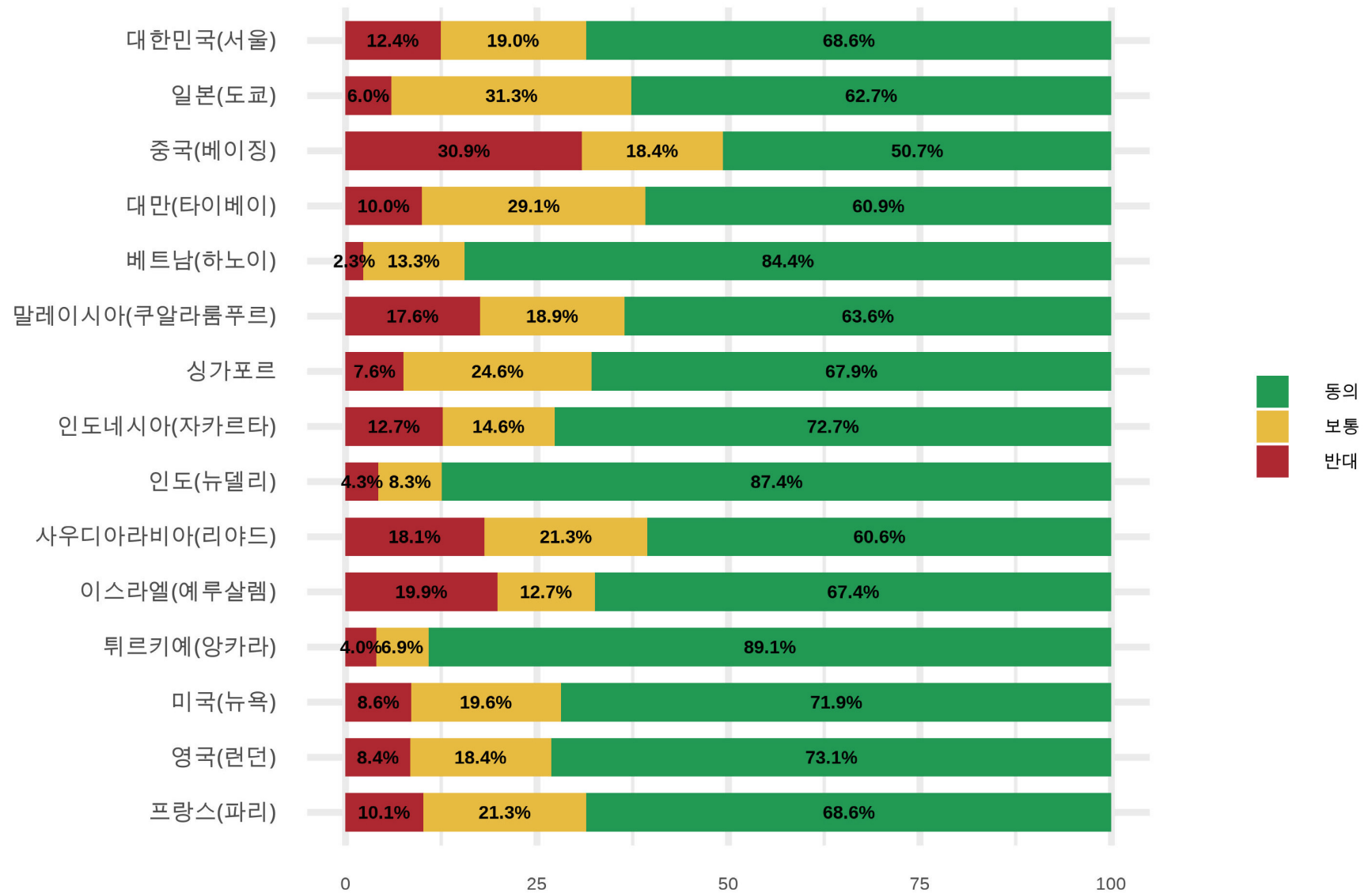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34.71%, 보통 31.29%, 반대 34.0%.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거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 **일본(도쿄)** 동의 23.57%, 보통 45.0%, 반대 31.43%.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 **중국(베이징)** 동의 62.43%, 보통 27.71%, 반대 9.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30.86%, 보통 47.86%, 반대 21.29%.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62.86%, 보통 27.0%, 반대 10.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58.29%, 보통 27.43%, 반대 14.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싱가포르** 동의 46.71%, 보통 37.0%, 반대 16.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3.57%, 보통 18.29%, 반대 8.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나 동의하는 편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69.57%, 보통 19.29%, 반대 11.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4.86%, 보통 30.29%, 반대 14.86%.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47.43%, 보통 22.71%, 반대 29.86%.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67.14%, 보통 16.71%, 반대 16.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54.86%, 보통 28.0%, 반대 17.14%.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영국(런던)** 동의 54.43%, 보통 29.29%, 반대 16.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프랑스(파리)** 동의 45.43%, 보통 32.57%, 반대 22.0%.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Q34-1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국민 개개인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 요인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무관심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튀르키예(앙카라)는 89.1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반대로 참여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도(뉴델리)(87.43%)와 베트남(하노이)(84.43%)이 그 뒤를 이었는데,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영국의 런던(73.14%), 인도네시아(자카르타)(72.71%), 미국의 뉴욕(71.86%) 등에서도 시민들의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70%를 넘었다. 대한민국(서울)은 68.5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중상위권에 위치했으나, 여전히 시민 3명 중 2명 이상이 무관심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베이징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86%로 1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71%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시민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하거나, 무관심 자체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31.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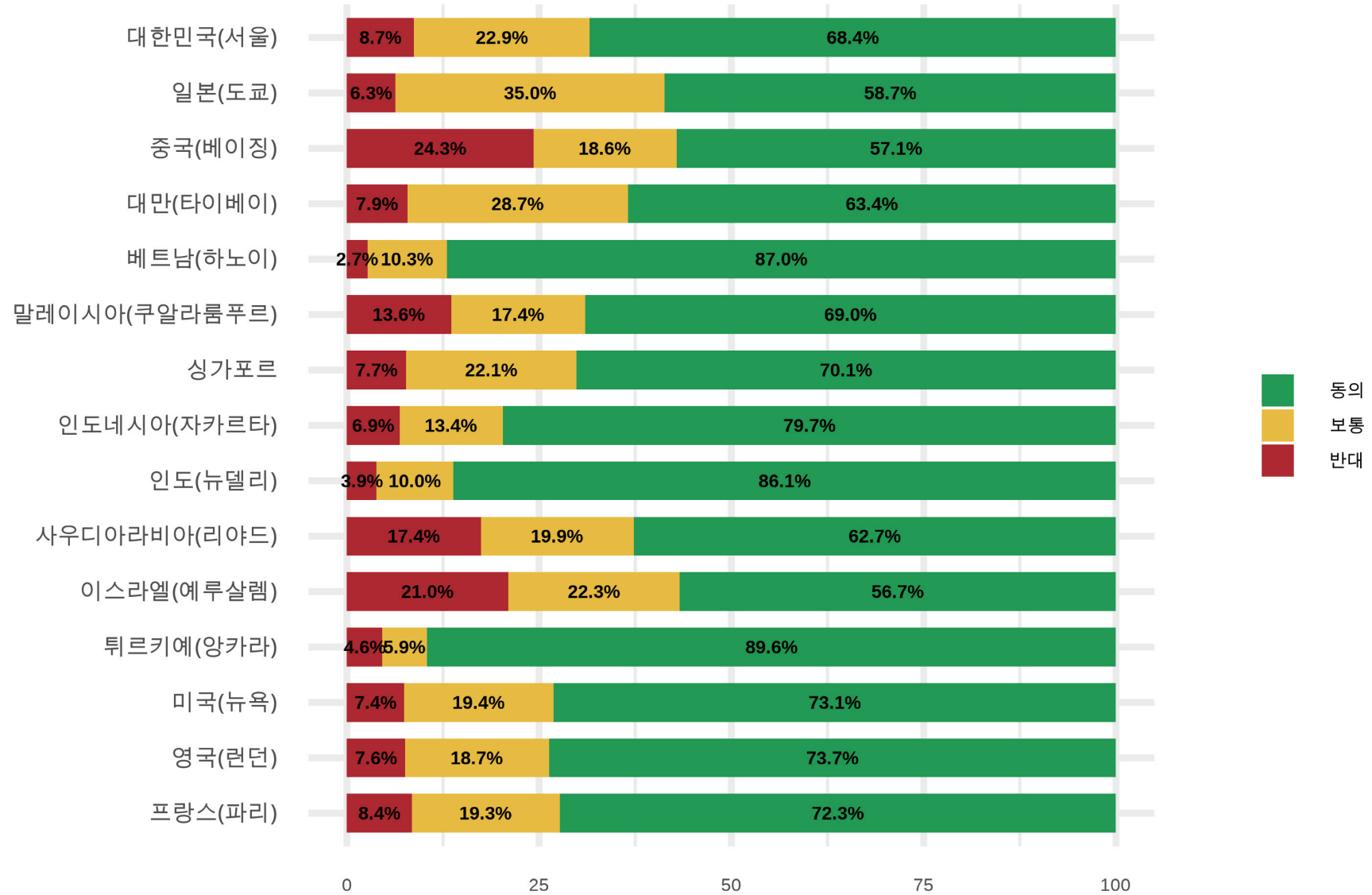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8.57%, 보통 19.0%, 반대 12.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일본(도쿄)** 동의 62.71%, 보통 31.29%, 반대 6.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중국(베이징)** 동의 50.71%, 보통 18.43%, 반대 30.86%.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거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0.86%, 보통 29.14%, 반대 10.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4.43%, 보통 13.29%, 반대 2.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3.57%, 보통 18.86%, 반대 17.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67.86%, 보통 24.57%, 반대 7.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2.71%, 보통 14.57%, 반대 12.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7.43%, 보통 8.29%, 반대 4.29%.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0.57%, 보통 21.29%, 반대 18.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7.43%, 보통 12.71%, 반대 19.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14%, 보통 6.86%, 반대 4.0%.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미국(뉴욕)** 동의 71.86%, 보통 19.57%, 반대 8.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영국(런던)** 동의 73.14%, 보통 18.43%, 반대 8.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68.57%, 보통 21.29%, 반대 10.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Q34-2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지식과 전문성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일반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9.5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하노이)(87.00%)과 인도(뉴델리)(86.14%)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서울)은 80.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고학력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이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9.71%)와 영국의 런던(73.71%)에서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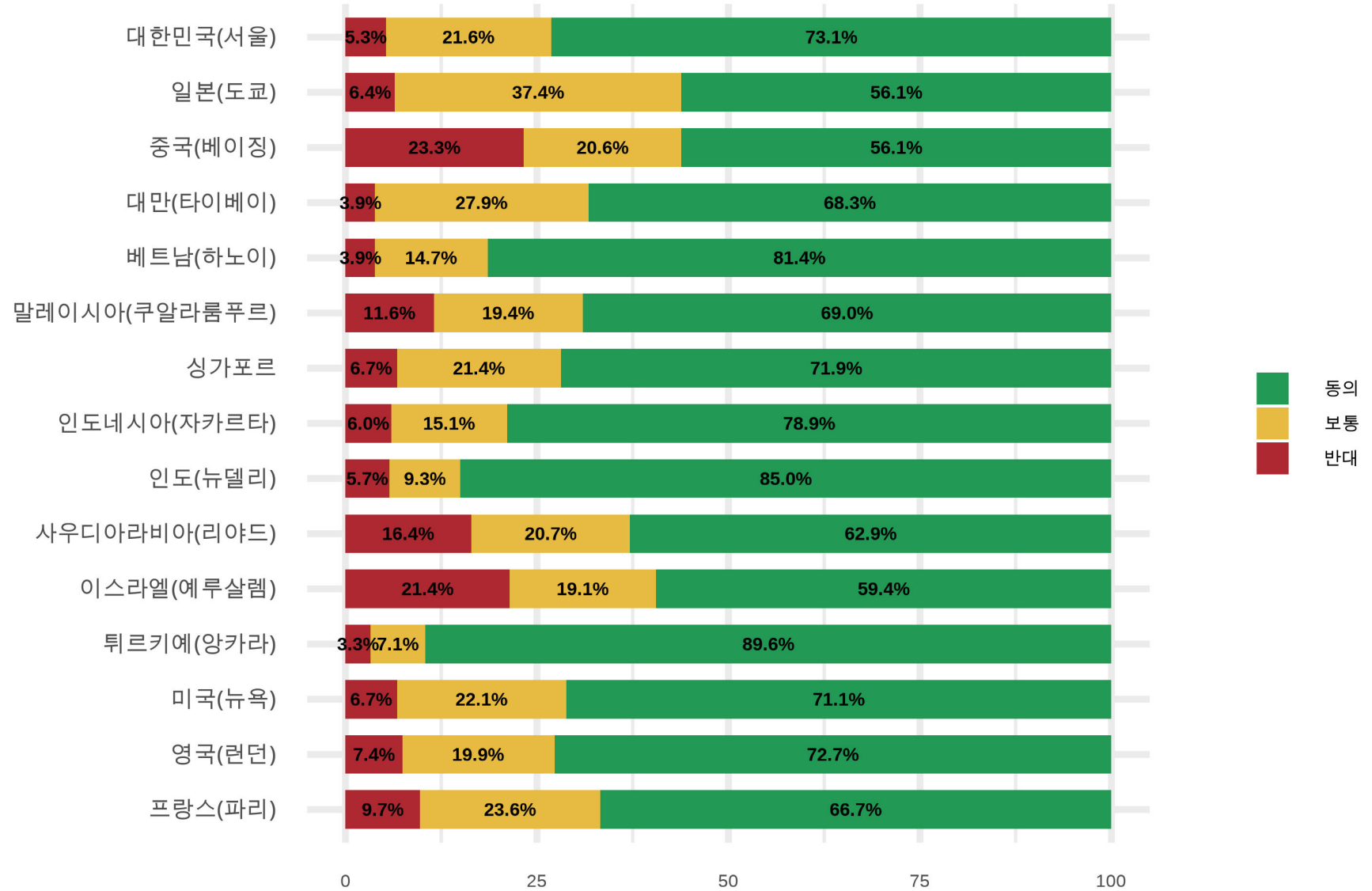
반면,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8.7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3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베이징)과 이스라엘(예루살렘)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문성 부족을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8.43%, 보통 22.86%, 반대 8.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일본(도쿄)** 동의 58.71%, 보통 35.0%, 반대 6.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57.14%, 보통 18.57%, 반대 24.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3.43%, 보통 28.71%, 반대 7.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7.0%, 보통 10.29%, 반대 2.71%.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0%, 보통 17.43%, 반대 13.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70.14%, 보통 22.14%, 반대 7.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9.71%, 보통 13.43%,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6.14%, 보통 10.0%, 반대 3.86%.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71%, 보통 19.86%, 반대 17.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6.71%, 보통 22.29%, 반대 21.0%.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57%, 보통 5.86%, 반대 4.57%.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미국(뉴욕)** 동의 73.14%, 보통 19.43%, 반대 7.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영국(런던)** 동의 73.71%, 보통 18.71%, 반대 7.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72.29%, 보통 19.29%, 반대 8.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겪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9.57%로 가장 높았고, 인도(뉴델리) (85.00%)와 베트남(하노이)(81.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이 시민 참여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8.86%)와 대한민국(서울)(73.1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높은 생활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여력이 부족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런던(72.71%)과 미국의 뉴욕(71.14%) 등 선진국 도시들에서도 시간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6.14%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37.43%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25.86%)와 중국(베이징)(23.29%)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0%를 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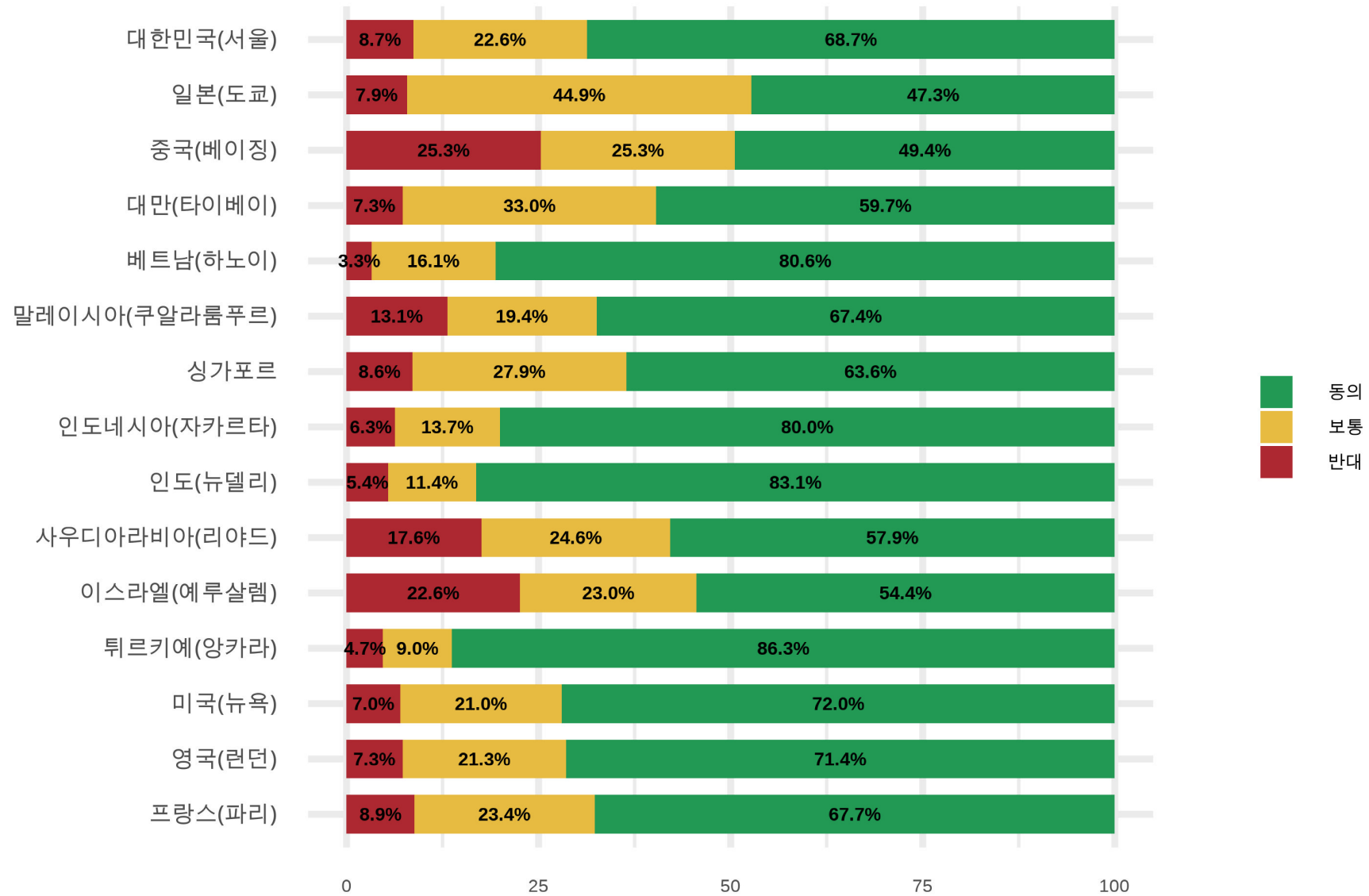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3.14%, 보통 21.57%, 반대 5.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일본(도쿄)** 동의 56.14%, 보통 37.43%, 반대 6.43%.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56.14%, 보통 20.57%, 반대 23.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8.29%, 보통 27.86%, 반대 3.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1.43%, 보통 14.71%, 반대 3.86%.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0%, 보통 19.43%, 반대 11.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71.86%, 보통 21.43%, 반대 6.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8.86%, 보통 15.14%, 반대 6.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5.0%, 보통 9.29%, 반대 5.71%.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62.86%, 보통 20.71%, 반대 16.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9.43%, 보통 19.14%, 반대 21.43%.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9.57%, 보통 7.14%, 반대 3.29%.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71.14%, 보통 22.14%, 반대 6.71%.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영국(런던)** 동의 72.71%, 보통 19.86%, 반대 7.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66.71%, 보통 23.57%, 반대 9.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Q34-4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개입과 갈등 조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인식의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6.29%로 1위를 기록했고, 인도(뉴델리)(83.14%)와 베트남(하노이)(80.57%)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큼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80.00%)와 미국의 뉴욕(72.00%), 영국의 런던(71.43%) 등에서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서울)은 68.71%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중위권에 위치했으나, 여전히 과반 이상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본(도쿄)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7.29%로 15개 도시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지 못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44.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베이징)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29%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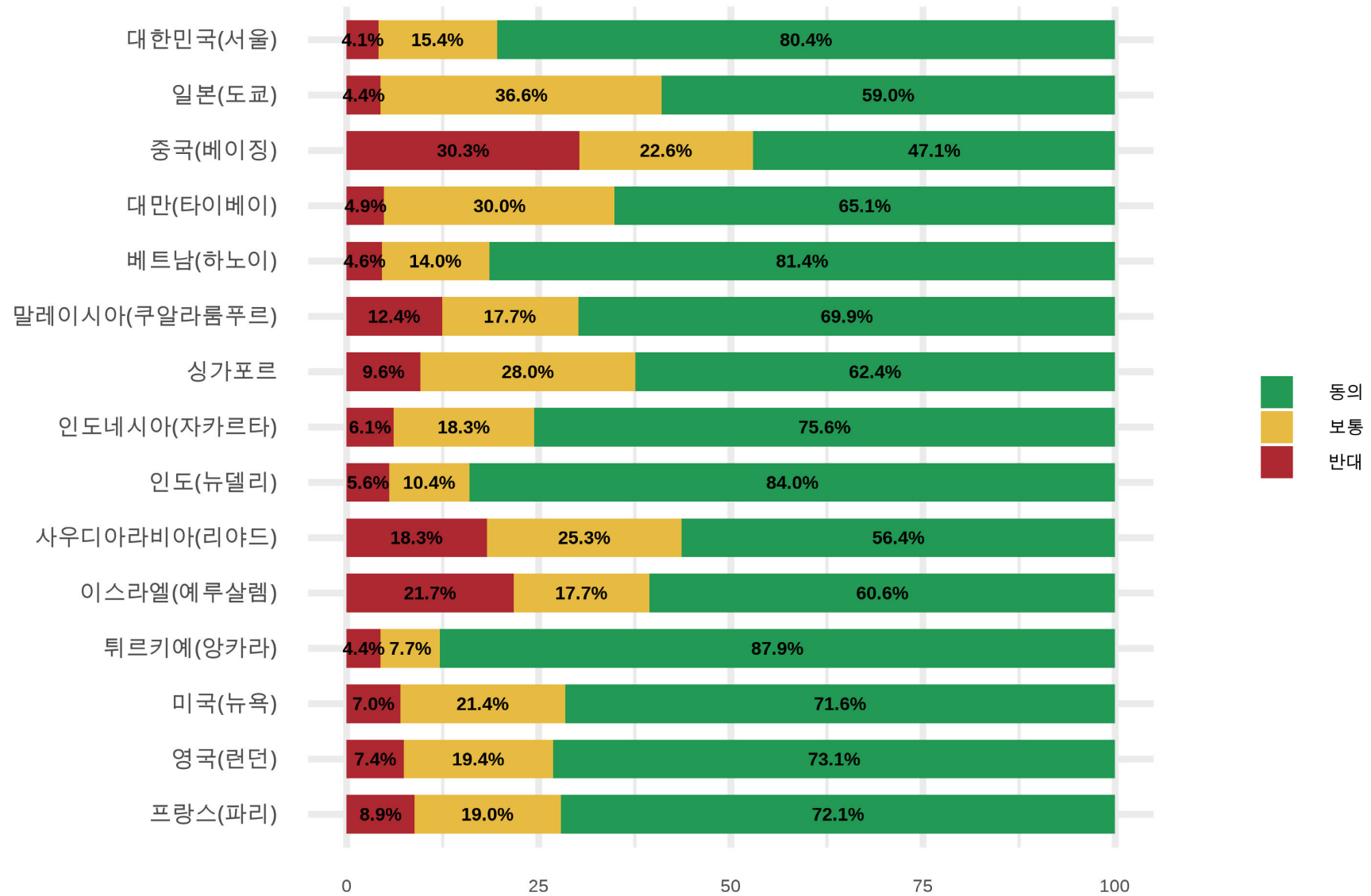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68.71%, 보통 22.57%, 반대 8.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일본(도쿄)** 동의 47.29%, 보통 44.86%, 반대 7.86%. 유보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 **중국(베이징)** 동의 49.43%, 보통 25.29%, 반대 25.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59.71%, 보통 33.0%, 반대 7.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0.57%, 보통 16.14%, 반대 3.29%.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7.43%, 보통 19.43%, 반대 13.14%.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63.57%, 보통 27.86%, 반대 8.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80.0%, 보통 13.71%, 반대 6.29%.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인도(뉴델리)** 동의 83.14%, 보통 11.43%, 반대 5.43%.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7.86%, 보통 24.57%, 반대 17.57%.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4.43%, 보통 23.0%, 반대 22.57%.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29%, 보통 9.0%, 반대 4.71%.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72.0%, 보통 21.0%,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영국(런던)** 동의 71.43%, 보통 21.29%, 반대 7.29%.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67.71%, 보통 23.43%, 반대 8.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Q34-5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정당과 국회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 개인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는 심각성을 묻는 것이다. 튀르키예(앙카라)가 87.86%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뉴델리) (84.00%)와 베트남(하노이)(81.43%)이 80%대로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서울)은 80.43%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선 Q32-5 문항(정부의 어려움 중 정치권의 비협조)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국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불신과 실망감이 매우 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75.57%)와 영국의 런던(73.14%)에서도 정치권의 지원 부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중국(베이징)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7.14%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요구가 제한적이거나, 당과 정부의 일체화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일본(도쿄)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36.5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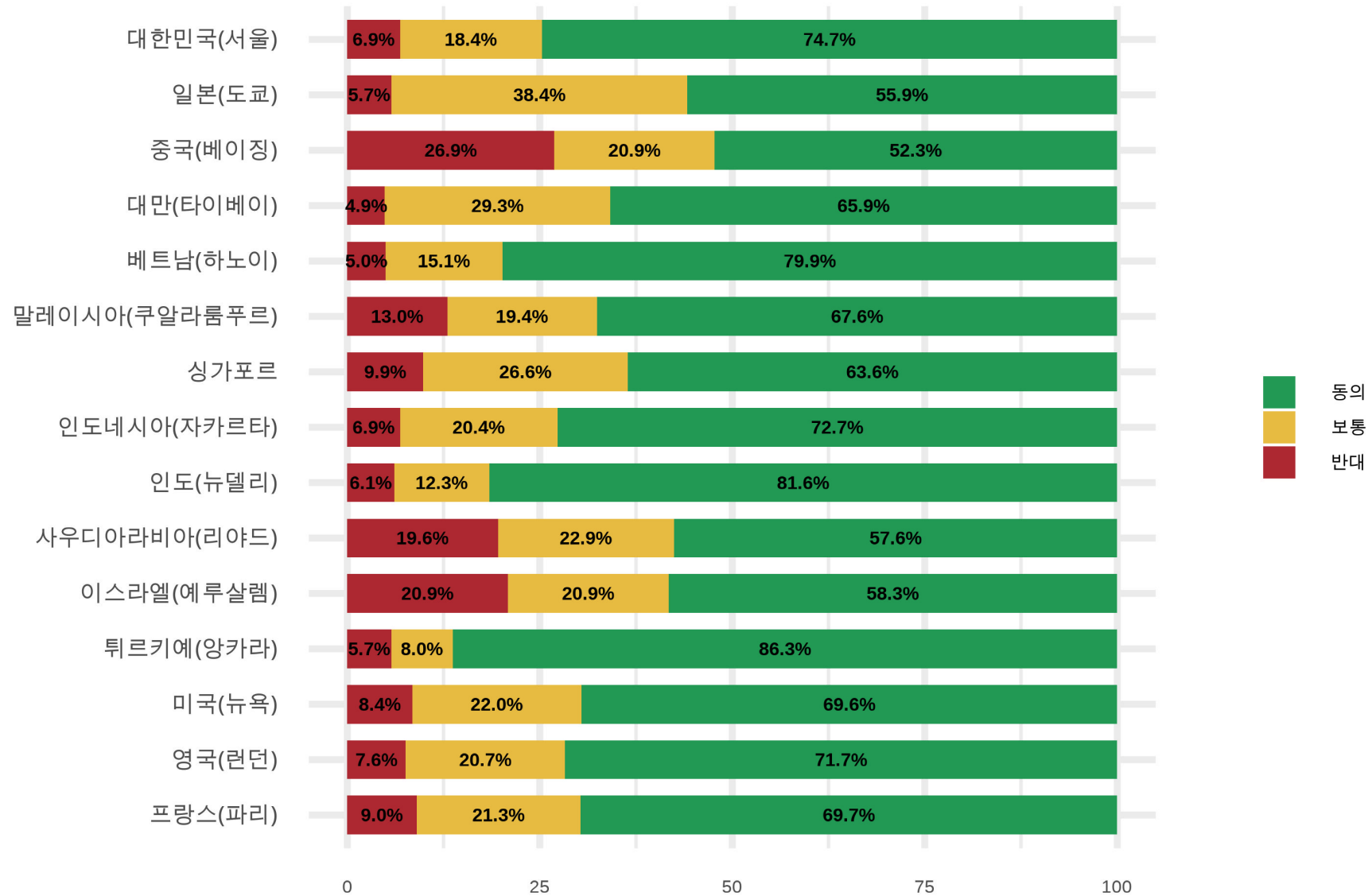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80.43%, 보통 15.43%, 반대 4.14%.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동의한다.
- **일본(도쿄)** 동의 59.0%, 보통 36.57%, 반대 4.43%.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47.14%, 보통 22.57%, 반대 30.29%.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거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5.14%, 보통 30.0%, 반대 4.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81.43%, 보통 14.0%, 반대 4.57%.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9.86%, 보통 17.71%, 반대 12.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62.43%, 보통 28.0%, 반대 9.57%.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5.57%, 보통 18.29%, 반대 6.14%.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4.0%, 보통 10.43%, 반대 5.57%.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6.43%, 보통 25.29%, 반대 18.29%.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60.57%, 보통 17.71%, 반대 21.71%.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7.86%, 보통 7.71%, 반대 4.43%.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71.57%, 보통 21.43%, 반대 7.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영국(런던)** 동의 73.14%, 보통 19.43%, 반대 7.43%.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72.14%, 보통 19.0%, 반대 8.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Q34-6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국민적 합의와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튀르키예(앙카라)가 86.29%의 동의 비율을 기록하여 1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도(뉴델리)가 81.57%, 베트남(하노이)이 79.86%의 동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동의 비율이 70%대인 도시는 대한민국(서울) 74.71%, 인도네시아(자카르타) 72.71%, 영국(런던) 71.71% 순이었다. 60%대의 동의 비율을 보인 도시는 프랑스(파리) 69.71%, 미국(뉴욕) 69.5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67.57%, 대만(타이베이) 65.86%, 싱가포르 63.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베이징)은 동의 비율이 52.29%로 15개 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반대 비율은 26.86%로 가장 높았다. 이스라엘(예루살렘)은 동의 비율 58.29%와 반대 비율 20.86%를 기록했다. 보통 비율은 일본(도쿄)이 38.43%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타이베이) 29.29%, 싱가포르 26.57%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요약

- **대한민국(서울)** 동의 74.71%, 보통 18.43%,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일본(도쿄)** 동의 55.86%, 보통 38.43%, 반대 5.71%.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중국(베이징)** 동의 52.29%, 보통 20.86%, 반대 26.86%.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대만(타이베이)** 동의 65.86%, 보통 29.29%, 반대 4.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베트남(하노이)** 동의 79.86%, 보통 15.14%, 반대 5.0%.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의 67.57%, 보통 19.43%, 반대 13.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싱가포르** 동의 63.57%, 보통 26.57%, 반대 9.86%.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동의 72.71%, 보통 20.43%, 반대 6.86%.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인도(뉴델리)** 동의 81.57%, 보통 12.29%, 반대 6.14%.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동의 57.57%, 보통 22.86%, 반대 19.57%.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이스라엘(예루살렘)** 동의 58.29%, 보통 20.86%, 반대 20.86%. 인식이 분화되어 있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 **튀르키예(앙카라)** 동의 86.29%, 보통 8.0%, 반대 5.71%.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 **미국(뉴욕)** 동의 69.57%, 보통 22.0%, 반대 8.43%.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영국(런던)** 동의 71.71%, 보통 20.71%, 반대 7.57%.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프랑스(파리)** 동의 69.71%, 보통 21.29%, 반대 9.0%. 과반이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Q.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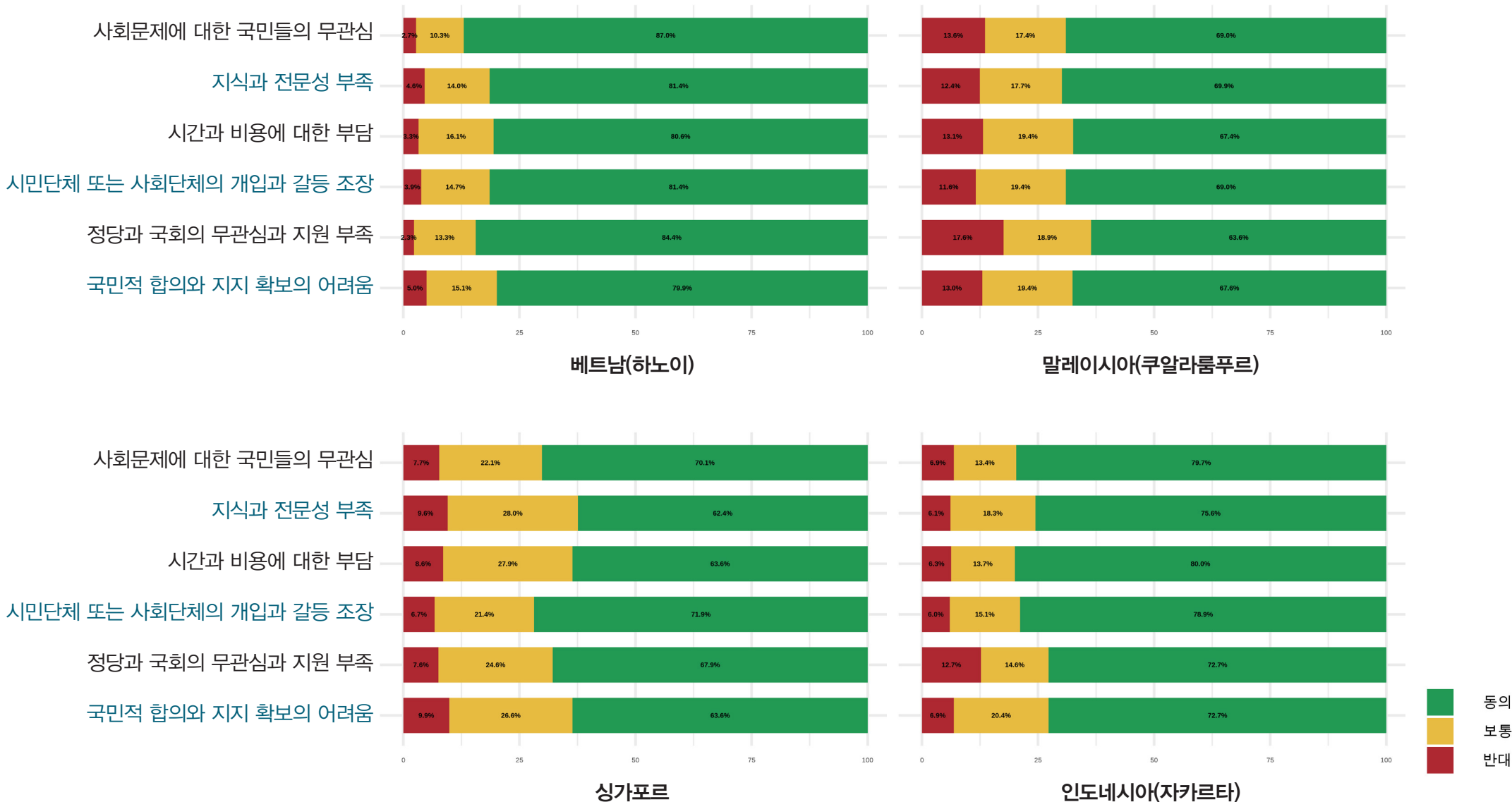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Q.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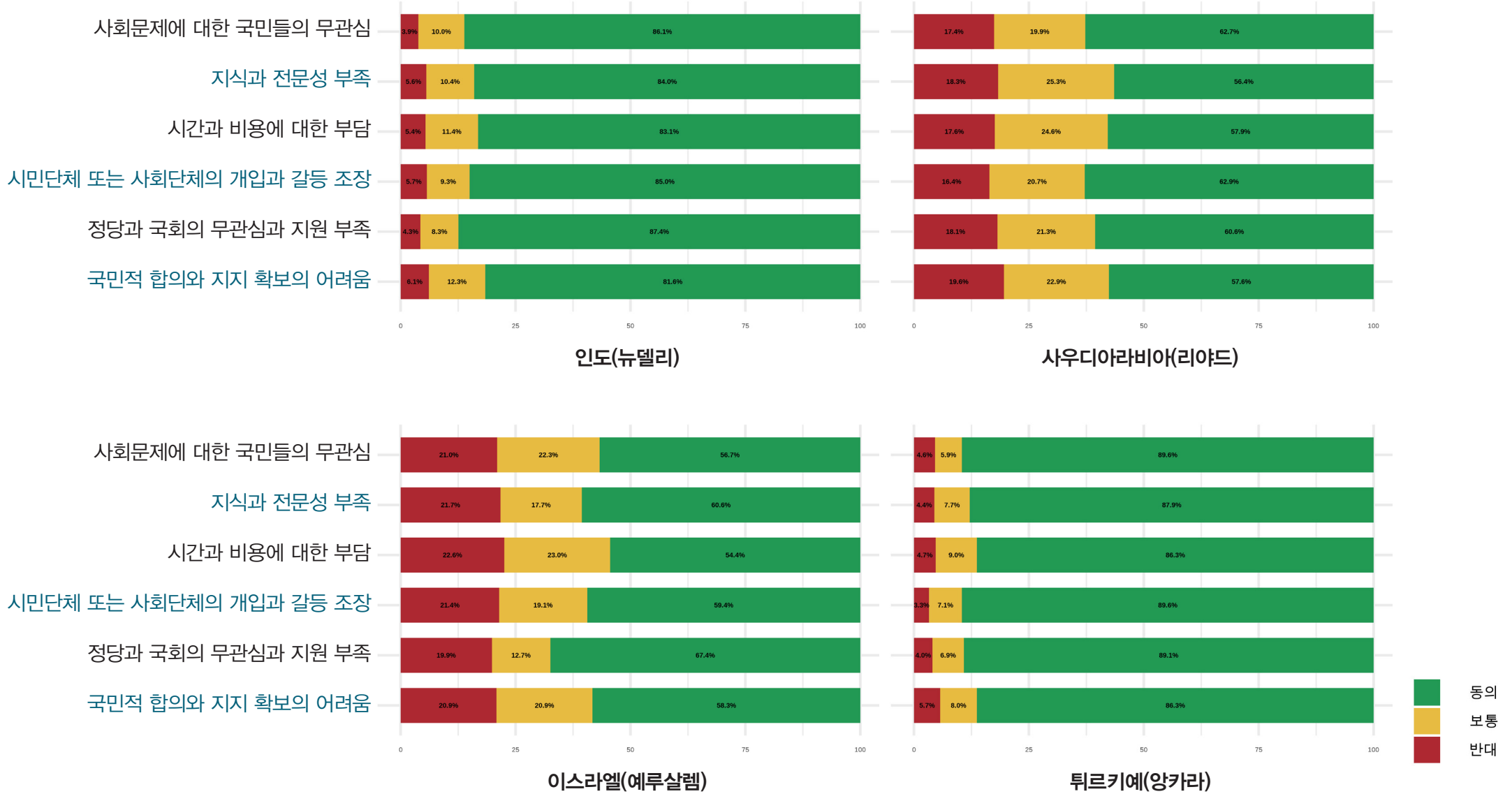


동의
보통
반대



Q.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아시아





Q. 국민 개개인이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
■ 보통
■ 반대

